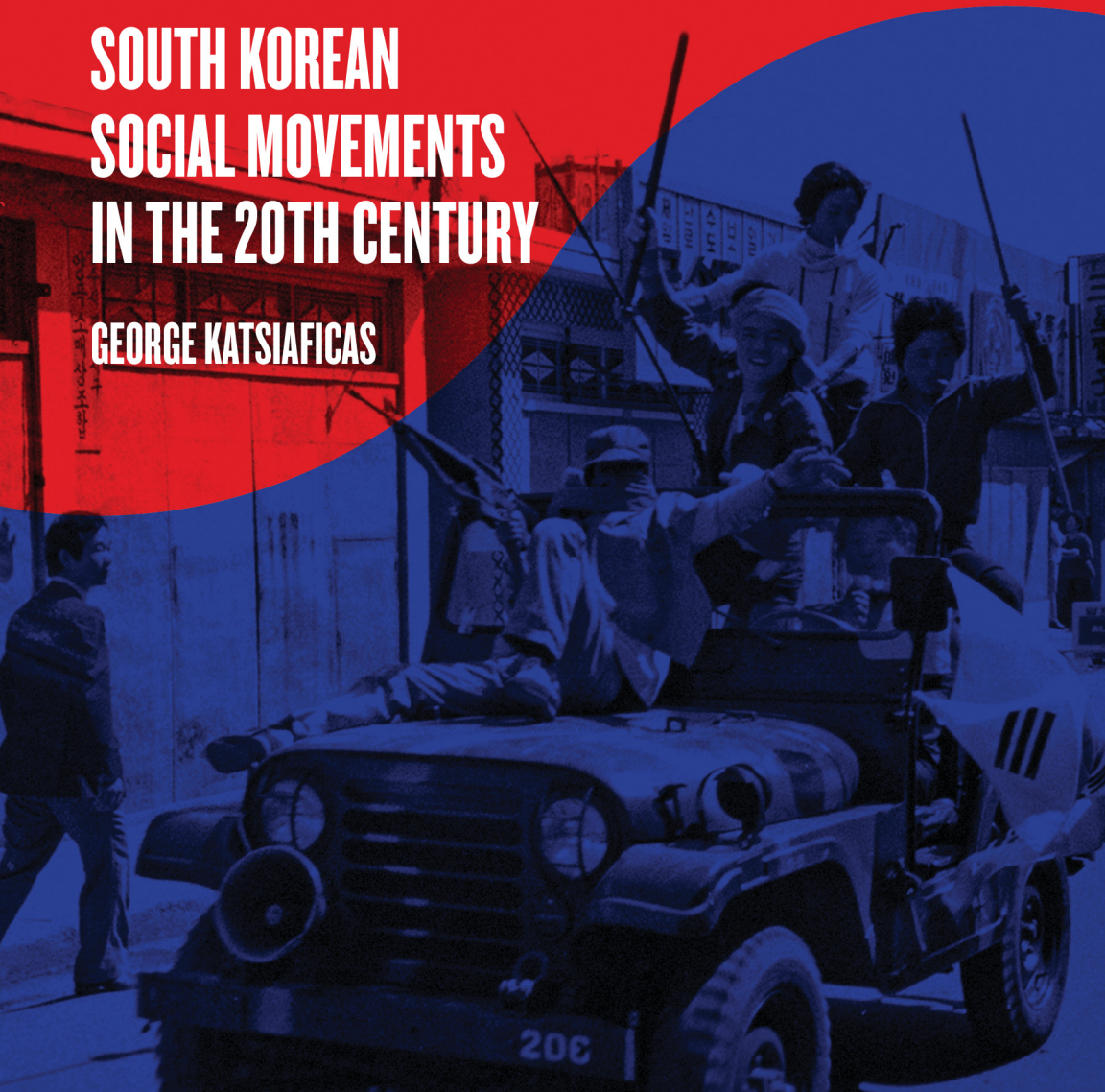


ASIA'S UNKNOWN UPRISINGS

VOLUME I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IN THE 20TH CENTURY

GEORGE KATSIAFICAS



[번역] 조지 카치아피카스,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1권

조지 카치아피카스, George Katsiaficas,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Asia's Unknown Uprisings,
1권: 20세기 남한의 사회운동 Volume1: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in the 20th Century

차례

나는 민중이다, 폭도다 - 칼 샌드버그

표 목록

도표, 그래프, 지도 목록

삽화 및 사진 목록

약어 목록

들어가며 - 한국과의 첫 만남

1장 봉기와 역사

한국의 봉기 | 조직과 운동 | 보이지 않는 한국 | 유럽중심주의의 맹목성 | 봉기의 합리성 | 엘리트의 봉기 활용 | 다가오는 한국의 물결

2장 한국의 세계체제 편입

전통과 현대 | 한국 시민사회의 복원력 | 1894년 농민전쟁 | 일본의 정복 | 1919년 3월: 한국의 독립봉기 | 봉기에서 무장투쟁으로

3장 미국 제국주의와 10월 인민항쟁

일본과 미국의 협력 | 일본의 생물학전 부대 | 조선인민공화국의 결성 | 1946년 10월봉기: 총파업에서 농민반란으로 | 10월봉기의 원인과 결과

4장 분단에 맞서: 4.3민중항쟁과 여순봉기

제주 4.3봉기 | 여순반란 | 봉기의 결과 | 국가보안법과 이승만 독재 | 한국전쟁 | 미국의 민간인 학살

5장 민중의 각성, 민초들이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타도하다

4.19: 학생들 이승만을 타도하다 | 제2 공화국의 사회운동 | 박정희 독재 | 도시빈민 | 전태일과 유신반대 투쟁 | 민중의 산파로서 여성 | 부마봉기 | 전두환의 12.12 쿠데타와 서울의 봄

6장 광주민중항쟁

봉기의 시작 | 5월 21일: 투쟁의 격화 | 해방광주: 사랑의 권력 | 해방광주의 직접민주주의 | 봉기의 확산 | 시민위원회 내부의 갈등 | 투쟁의 체계화 | 군사조직 | 봉기의 계급역학 | 여성과 봉기 | 최후의 나날 | 우리 함께 가자 이 길을 - 김남주

7장 신자유주의와 광주항쟁

경제적 이행 | 신자유주의의 기원 | 광주진압에 대한 미국의 지원 | 투쟁자의 공포와

전두환의 새로운 스타 | 정권교체의 조율 | 민중의 지혜

8장 밀려드는 폭풍

빛의 나날, 암흑의 시대 | 남한의 반미주의 | 민중의 등장 | 예술가들과 민중의 대항문
화 | 한국의 학생운동 | 운동 내부의 경향: PD와 NL | 여성운동의 건설 | 정치인들의
개입 | 미국의 전두환 압박

9장 1987년 6월 항쟁

전두환의 4.13 호헌선언: “헌법논의 불가” | 국본의 탄생 | 6월 10일: 봉기의 시작 | 6
월 18일: 전두환의 군대투입 준비 | 6월 26일: 결전 | 군부의 6월 29일 굴복 | 엘리트
주도 하의 민주화 이해? | 시민사회의 역할

10장 노동자대투쟁

6월 봉기의 계급적 성격 | 자주적 노동자 투쟁의 물결 | 재벌기업 내의 봉기 | 아마 -
박노해 | 교훈과 유산

11장 민중에서 시민으로

첫 번째 선거 | 노동자계급에 대한 노태우의 전쟁 | 1991년 투쟁: 패배와 조율 | 시민
운동 | 여성운동의 부활 | 생태운동 | 학생투쟁의 지속 | 최초의 민간정부

12장 반신자유주의 투쟁

시장의 독재 | 1997년 총파업 | 1997년 IMF 위기 | 전지구적 자본의 이윤율 하락에
대한 대응으로서 신자유주의 | 구세주로 나선 DJ 정부 | 여성의 자율성 | 외국인 투자
자들의 어부지리

13장 민주주의의 딜레마

반미주의의 지속력 | 다가오는 한국의 통일? | 노무현 정부 | 2MB 정부 | 2008년
촛불시위 | 이명학 대통령의 반개혁 공세 | 노무현의 자살 | 한류 | 광주에 지속적
중심성 | 전통과 해방의 변증법 | 대안운동 | 자유의 대가를 찾아서

부록

시민 활동가들과의 면담

출처

저자에 대하여

찾아보기

나는 민중이다, 폭도다

칼 샌드버그(Carl Sandburg)

나는 민중이다, 폭도자, 군중이다, 대중이다.

이 세계의 모든 위대한 작품들이 나를 통해 이뤄졌음을 그대는 아는가?

나는 노동자요, 발명가요, 이 세계의 음식과 옷을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역사적 증언하는 청중이다. 나폴레옹 같은 자들은
나로부터 생겨나고, 링컨 같은 자들도 그렇다. 그들은 죽는다. 그러면 나는
더 많은 나폴레옹과 링컨을 다시 내보낸다.

나는 텃밭이다. 나는 수많은 쟁기질을 견뎌낼 초원이다.
끔찍한 폭풍우가 나를 덮치고 지나간다. 나는 잇는다. 나의 가장 좋은 부분은
빨려나가고 내버려진다. 죽음을 제외한 모든 것이 나에게 와서
내게 일을 시키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게 한다. 그리고 나는 잇는다.
가끔씩 나는 울부짖고 몸으로 절규하며 역사가 기억하도록 붉은 피를 몇 방울
내뱉는다. 그러나서 잇는다.

나, 민중이 기억하는 법을 배울 때, 민중인 내가 어제의 교훈을
이용할 때, 더 이상 작년에 누가 나를 강탈했는지, 누가 나를 바보로 만들었는지
더 이상 잊지 않게 될 때, 온 세상에는 목소리에 약간의 경멸조나 비웃음으로
민중이란 이름을 말하는 사람은 없게 될 것이다.

폭도, 군중, 대중들이 그러면 도착할 것이다.

표 목록

표 2.1	봉기와 무장대치, 1907-1911년
표 2.2	1919년 체포된 사람들의 직업
표 2.3	1920-1933년 사회운동조직
표 2.4	일본 지배 아래서 한국인의 1인당 쌀소비
표 3.1	1946년 10월 1일 자정 당시 콜레라 보고서
표 4.1	1949년 남한의 게릴라활동에 관한 통계
표 5.1	1960년 4월 봉기에서 살해된 사람들의 나이
표 5.2	1961-1988년 남한의 1인당 GNP
표 6.1	해방광주의 집회
표 6.2	광주항쟁 동안 살해당한 시민들의 직업
표 6.3	광주항쟁 동안 체포된 시민들의 나이와 직업
표 7.1	1978-1991년 한국의 경제지표
표 7.2	1975-1987년 남한의 외채
표 8.1	1945-1993년 남한의 대학생 숫자
표 8.2	1980년대 학생시위
표 8.3	1984-1986년 학생 집회
표 8.4	남한 운동의 경향/정파
표 8.5	1978-1986년 남한 정치범들의 직업(비율)
표 9.1	1987년 시위와 참여자 숫자
표 9.2	국본(NCDC) 창립자 명단
표 9.3	1987년 발표된 최루탄 숫자
표 10.1	1987년 서울과 광주에서 체포된 인원
표 10.2	노동쟁의 (1987년 1월 1일 ~ 1987년 12월 11일)
표 10.3	1970-1990년 산재사고
표 10.4	1960-1985년 한국의 직업구조
표 11.1	1987년 대통령 선거 결과
표 11.2	1986-1995년 노동쟁의 숫자
표 11.3	1991년 학생회장들의 정치적 소속
표 11.4	한국의 NGO
표 12.1	제조업 평균 순이윤율(퍼센트)
표 12.2	사용된 화염병 숫자
표 12.3	여성 국회의원 숫자
표 12.4	2000년 여성의원의 비율
표 13.1	국회의원 선거 참여율

도표, 그래프, 지도 목록

도표 3.1	1945-1947년 서울의 도매물가
도표 3.2	1946년 9월에서 12월까지 남한의 봉기
도표 4.1	제주도 남로당의 구조
도표 4.2	1949년 게릴라 근거지
도표 6.1	전라남도의 봉기 경로
도표 6.2	시민학생투쟁위원회의 조직도
도표 10.1	1975-1990년 노동쟁의 및 노동조합 숫자
도표 11.1	한총련 조직도
도표 12.1	1945-1999년 연간 노동시간
도표 12.2	1987-2004년 전체 파업 중 합법파업 비율
도표 13.1	최상위 20퍼센트와 최하위 20퍼센트의 소득 비율

그림 및 사진 목록

1894년 전투를 준비하는 동학군
한국 전역에서 일본의 식민화에 대한 저항에 참여한 투사들
1919년 3월1일 전국적 독립시위를 주도한 여성들
1930년대 만주의 항일 자유투사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에서 윤봉길이 일본군 고위장교를 공격했다
1948년 여순봉기 패배 후 빨치산들이 재집결했다 백운산에서 체포됐다
1948년 제주도민들인 미군정의 통치 아래서 소개됨. 피난민 어린이들의 사진.
1948년 제주도 봉쇄를 위해 파견된 미군함 크레이그 호(USS Craig)
미국 주도 아래 여순봉기의 진압 후 학살당한 봉기자들의 시체
여순봉기 진압후 미군 장교 2명이 탈취한 14연대 군기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학살>/ 파블로 피카소는 다른 많은 예술가들과 함께 한국전쟁시 민간인 학살에 반대했다.
여순과 제주에서 체포된 죄수 수백명이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되자 처형당했다. 이 곳에서 살해된 사람의 자식 중 한 사람이 필자에게 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배후에 미군 장교들이 보인다. (공개된 사진에서 세부사항이 잘려나갔다)
1960년 경찰이 학생시위대를 공격했다
1960년 4월 19일 봉기에는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참여했다
1960년 군대는 이승만을 타도하는 시민들의 편에 섰다
1961년 일본군 장교였던 박정희가 쿠데타를 주도했고 1979년까지 통치했다
1980년 5월 20일 군대가 우위를 점했던 것같았던 전투 와중에 광주의 운수노동자들이 시민들과 함께 나서서 대대적 반격을 이끌었다
해방 광주의 거리와 공공시설에서 공동체 식사가 제공됐다
광주시민들은 군대를 몰아낸 후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스스로 통치했다
광주시민들이 집회에서 전두환 허수아비를 불태웠다
숨겨진 얼굴의 가면을 벗기다, 홍성담 목각판화 294x405 mm
5월 24일 해방 광주에서 활동가들이 무기를 모았다
미국의 지원 아래 남한 군대는 광주봉기를 진압했다
많은 시신들이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광주 외곽의 망월동 묘지에 묻혔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남한 독재자 전두환을 맞이했다
1987년 봉기에 참여한 사무직 노동자들은 “네티부대”라고 불렸다
유용(Detournement)
인형극, 홍성담 목각판화 270x305 mm
1987년 6월 연대생 이한열이 치명상을 입었다
학생들이 1987년 6월봉기를 주도했다
서울 도심의 명동성당의 1987년 봉기의 중심지였다
1987년 6월 여학생들이 용감하게 독재에 맞서 투쟁했다
불교 승려들도 1987년 6월봉기에 동참했다
1백만명 이상이 이한열 장례식에 참석했다
비공인 파업이 울산시를 뒤덮었다
1987년 노동자들은 대대적 파업으로 극적인 성과를 쟁취했다
노태우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경찰은 시위를 진압할 권한을 가졌다. 1991년 4월 26일 강경대 학생이 경찰에게 맞아 사망하고, 서울과 광주의 격렬한 노제 후에 망월동에 묻혔다
1990년 4월 울산 현대중공업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했다

1991년 11월 10일 전태일을 추모하는 노동자대회
전직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는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다
수백만명의 한국인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했다
한국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반대했다
2002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가 14세 여중생 신호선과 심미순을 치어죽였다. 이 죽음에
책임있는 미군들이 미군법정에서 풀려나자, 수개월간 촛불시위가 이어졌다
2008년 대규모 촛불시위로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재협상을 해야 했다
2008년 6월 10일 저자와 동료 활동가들이 촛불집회에서 발언했다

약어 목록

2MB	이명박, 남한의 대통령 (2008-2013년 재임)
4.19	이승만 정권을 타도한 1960년 4월 19일 학생혁명
5.18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봉기
CA	제헌의회 그룹(Constitutional Assembly)
CCEJ	경제정의 시민연합(경실련: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P	조선 공산당(Chosun Communist Party: 1945-1948)
CIA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NU	국립 전남대학교(Chonnam National University)
DIA	미국 국방첩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
DJ	김대중, 남한의 대통령(1998-2003년 재임)
DJP	민주정의당(민정당: Democratic Justice Party)
DPRK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KTU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U.S./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HUSAFIK	주한미군사 (History of U.S. Armed Forces in Korea)
IMF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OC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JCS	미국 합참사령부(Joint Chiefs of Staff)
JOC	카톨릭 노동청년회(Jeunesse Ouvriere Chretienne)
KBS	한국방송공사(Korean Broadcasting System)
KC	한국경찰(Korean Constabulary)
KCIA	한국 중앙정보부(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KCTU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MT	타이완 국민당(Kuomintang Party of Chiang Kai-shek)
KPA	조선인민군(Korean People's Army)
KPR	조선 인민공화국(Korean People's Republic)
KWAU	전국여성단체연합(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NCC	한국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
NCDC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National Coalition for a Democratic Constitution)
NDP	신민당(New Democratic Party)
NFDYS	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 National Federation of Democratic Youth and Students)
NKPD	신한민주당(New Korea Democratic Party)
NL	민족해방 그룹(National Liberation)
NSL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Law)
NWYL	서북청년단Northwest Youth League)
OSS	미국 전략첩보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s)
PC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s)
PD	민중민주의 그룹(People's Democracy)
PSPD	참여민주주의 시민연대(참여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ROK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SKLP	남조선 노동당(남로당: South Korean Labor Party)

SNU	국립 서울대학교(Seoul National University)
SOFA	주한 미주둔군 협정(U.S.-ROK Status of Forces Agreement)
UIM	도시산업선교회(산선: Urban Industrial Mission)
UMMDR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민중운동연합(민통련: United Minjung Movement for Democracy and Reunification)
USAFIK	주한미군(U.S. Armed Forces in Korea)
USAMGIK	주한 미군정(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1945-1948)
USIS	미국 정보국(U.S. Information Service)
WB	세계은행(World Bank)
WTO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YADM	민주화청년연합(민청련: Youth Alliance fo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YS	김영삼, 남한 대통령(1993-1998년 재임)

들어가며 한국과의 첫 만남

1999년 11월 나는 남한으로 믿을 수 없는 첫 여행을 하게 됐다.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1968년 혁명에 관한 내 책은 3쇄에 들어가서 일종의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었다. 보스턴을 출발하기 1주일 전에 한국어판 번역자인 이재원이 에로스 효과¹⁾ 개념의 한국어 번역에 관한 몇 가지 까다로운 질문을 팩스로 보내왔다. 영어판은 12년 전에 출판됐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 썼던 것을 뒤져보고 믿을만한 몇몇 친구들과 의논한 다음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준비했다.

서울에 도착한 바로 첫 날부터 내 저작에 대한 반응은 아주 놀라웠다. 주요 언론은 이미 서평을 실었고, 나의 사상에 대한 상세한 기사를 준비했다. 기자와 사진기자들이 호텔에 나타났다, 출판사 측에서 마련한 일련의 인터뷰에서 나는 사회운동이 지속적으로 사회변화의 주요한 도구였던 사회에서 내 견해를 발언할 기회를 가졌다.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이 지면을 장식했다: “사회혁명이 에로스의 핵심,” “에로스와 상상력은 혁명의 출발점”, “혁명은 전지구적”, “민중에게 권력을! 상상력에게 권력을!”, “에로스는 탈구조 사회의 본능”, “TV는 사회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야기한다” 등. 다소 엉터리지만, “프랑스의 1968년 혁명은 개량주의의 기원이다”는 제목도 있었다.

어떤 면에서 나는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에 당혹했고, 그들의 갑작스런 출현에 혼란스러웠다. 어느날 오후 나는 알랭 투렌의 제자와 만나러 갔는데, 서둘렀어도 약속시간에 아주 늦었다. 그런데 약속장소에 도착했을 때 TV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었다. “20초 동안 1968 운동을 한국인들에게 설명하라”고 기자가 말했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1968년에 대한 내 발언을 요약해서 말했다. “국제주의와 자주관리는 프랑스나 체코슬로바키아든, 베트남이나 미국이든 1968년의 전지구적 운동의 핵심적 열망이었다.” 인터뷰를 끝낸 다음 만나기로 한 친구가 아니라, 참을성 있게 기다리던 50여명의 청중을 맞이했다. 그들에게 나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유럽의 자율주의 운동에 대해 설명했다(내 책 <정치적 전복>의 주제였고, 한국어판은 이후에 출판됐다). 그런 대접을 받고 내 생각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기쁜 일이지만, 나는 지도자를 따르는 타입의 인간이 아니고, 나 생각의 핵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모든 인터뷰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1988년에 창간된 한겨레신문이었다(군부독재가 6월봉기에 굴복한 1년 후인). 신문을 창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6만명이 최소 5천원(당시 약 5달러) 이상을 냈다. 최소 모금단위는 1주 5천원이었고, 최대는 2,000주까지 살 수 있었다. 전부 5백만 달러가 모였다. 오늘날 한겨레는 자체 본사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주일에 6일 심층보도, 사건분석, 책과 영화 비평, 스포츠와 날씨 등을 보도한다. 과거의 억압이 좋은 일자리로 전화한 역설을 보고서 미소 짓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거의 모든 운동권 출판물 뒤에는 가족 트러스트 기금이 있다), 한겨레의 사례는 몇백광년 앞서있다.

1) 나는 1968년 5월 프랑스와 1970년 5월 미국 등 전지구적 운동이 확산되던 시기에 혁명적 열망과 투쟁의 급속한 확산을 설명하기 위해 에로스 효과란 개념을 발전시켰다. 경험적 연구를 총괄하면서, 봉기와 공적 공간의 대대적 점거의 연쇄반응 속에서 혁명적 열망의 자연발생적 확산에 충격을 받았다. 수백만명의 보통사람들이 역사의 무대에 갑자기 등장해서 통일된 방식으로 행동했고, 직관적으로 그들이 사회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사례연구로부터 나는 에로스 효과의 순간에 어떻게 사회의 지배적 가치(예를 들어, 민족적 배외주의, 위계적 서열, 개인주의)가 부정됨과 동시에 보편적 이익이 일반화되는지 이해하게 됐다. <신좌파의 상상력: 1968년 전지구적 혁명에 대한 분석>(The Imagination of the New Left : A Global Analysis of 1968[Boston: South End Press, 1987])을 보라.

심지어 <리베라시옹>(프랑스)이나 <디 타게스차이퉁>(독일)과 같은 다른 일간지들과 비교해도, 한겨레의 배포부수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대중적 기반을 보여주는 것 같다.

한국에서 보낸 처음 며칠간 최고의 순간은 서울대학교 근처의 운동권 서점에서 가진 토론회였다. 사람들은 4시간 반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에로스 효과, 혁명운동, 한국의 미래 등에 대해 열띤 토론했다. 한 동안 프로젝터가 고장나자,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운동가를 불렀다. 모임이 끝난 다음, 10여명의 우리 일행은 저녁을 먹으면서 토론을 계속했다. 우리는 개인적 딜레마에 대해 얘기하면서 웃었고, 한국의 샤머니즘과 주요한 저널과 조직 등의 주제를 다뤘다. 거의 떠날 시간이 되자 우리는 동그렇게 모여 앉았다. 각자는 그날 저녁을 되돌아볼 시간을 갖고서 자신을 느낌을 말했다고 다르게 생각하거나 행동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했다. 돌이켜 보면 나는 오랫동안 나에게 영감을 준 한국 운동의 일부가 되어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헤어지려고 할 때, 누군가 나에게 이 뒤풀이는 오랜 한국의 습관이라고 설명해줬다. 나는 전통적 집단생활이 일상의 현실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고 있는지 지적했다. 그것은 새로운 사회의 건설에서 중요한 원천이고, 이후에 알게 된 것처럼, 이 점은 외국인의 눈으로 볼 때 자주 간과되는 요소이다.

서울에서 한 주를 보낸 다음 나는 광주행 기차를 탔다. 원래 출판사의 일정은 서울에서만 머물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며칠 더 머물기 위해 비행기표를 바꿨다. 나는 1980년 봉기의 의미와 유산을 느껴보기 위해 직접 광주에 가고 싶었다. 비록 초청자가 나의 광주행을 조정하는 데 불편을 주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광주 사람들에게 내가 간다고 알렸다. 우리가 광주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운동의 중심지인 이 도시를 파악하기도 전에, 우리는 코뮌의 시인 김준태를 위한 모임에 갔다. 바로 그날 그의 새 시집에 나왔다. 우리는 시장도 만났는데, 그는 “광주의 젊은이들이 모두 당신을 책을 읽고 있다”고 알려줬다. “도대체 내가 어디 있는거지?” 나는 자문했다. 그날 저녁 에로스 효과에 관한 포럼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독일어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모임의 상당부분은 독일어로 진행됐다. 여기에서 질문은 좀더 지적이었고, 에로스 효과의 뿌리를 맑스의 저작에서 찾아야 했다. 다음날 우리는 봉기의 열사들이 묻힌 망월동 묘역을 방문했다. 1993년 이후 민주정부의 기금으로 호사스럽게 조성된 신묘역에는 예술 비디오 전시와 1980년 사태(한국 혁명사의 이전 사건들뿐만 아니라)를 추모하는 일련의 기념조각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1980년 군부가 장례식도 없이 시신을 버린 원래의 구묘역이었다. (많은 시신들이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날,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모임에서 나의 발제 이후에 에로스 효과 활성화 문제가 다시 한 번 제기됐다. 나는 결코 내 저작에 관한 그 정도 높은 수준의 담론을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었다. 한국에서 내가 받았던 질문들은 내 자신의 개념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광주여행이 최고의 자기발견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 첫 경우 중의 하나였다.

다양한 형태로 내가 받았던 주요한 질문은 이런 것이었다: 에로스 효과는 단지 혁명운동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분석적 구성개념인가 아니면 사회를 변혁하는 데 유용한 운동전술이기도 한가? 만약 후자라면 “에로스 효과는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가?” 비록 에로스 효과 현상을 밝히는 데 내가 책임있지만, 나는 이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할 수 없었다. 에로스 효과는 단순한 정신의 행위가 아니며, (혁명정당의) “의식적 요소”로 단순하게 작동시킬 수도 없다. 오히려 에로스 효과는 수십만 명의 보통사람들이 역사를 자기 자신의 손에 가져갈 때 독자적 세력으로 등장하는 민중운동과 관계된 것이다. 민중들이 봉기운동과 동일시하고 대대적으로 들고일어날 때, 정부의 권위, 노동분업, 특화 등 사회의 기본가정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다. 에로스 효과의 순간에, 민중운동은 새로운 생활방식과 다른 사회적 현실을 상상할 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 때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변화된 규범, 가치, 믿음에 딸

살아가게 된다. 사랑의 투쟁공동체로 한데 뭉친 민중의 의식적 자생성은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도구이며, 자주 “민중권력”이라 불리는 현대적 현상이다.

나는 1968년의 전세계적 반란의 동시성에 관한 연구노트에 대한 숙고하면서 에로스 효과를 발견했고, 그 이후 유럽의 자율적 사회운동에 관한 책에서 이 개념을 확장시켰다. 한국에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는 에로스 효과가 광주 봉기의 “절대적 공동체”라고 불리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광주 이후 아시아 민중권력과 2011년 아랍의 봄의 폭발에서도 유사성을 발견했다. 이런 봉기의 물결이 갖는 의의에 너무나 매료돼서, 나는 이 두 권의 책,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에 노력을 집중했다. 1권의 핵심은 20세기 한국의 사회운동, 특히 광주봉기이며, 자주 시민참여자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남아시아와 동아시아 10개국의 20세기 후반 봉기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현대적 도시봉기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자료를 갖게 됐다. 이런 아시아의 경험에 기초해서 2권에서는 보다 충분하게 나의 경험적 작업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들과 에로스 효과를 더욱 심화된 통찰력을 제공한다.

광주의 보편적 의미

이 책이 인쇄되는 지금, 내가 광주에 처음 가서 역사적 봉기를 연구하기 시작한 지 10년 이상 흘렀다. 그동안 나는 광주란 도시와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연결됐다. 제2의 고향이 된 광주에서 2008년 어느 날 오후 마침 꿈인 것처럼 뭔가 깨달았다. 나는 공개행사에 참석해 한국인 청중에게 1980년 봉기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이 도시의 사람들, 내가 논하는 역사의 거대한 사건을 성취하는 데 너무도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 말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내 마음 속의 대화를 드러낼 틈도 없이 내 발언을 겨우 마쳤다. 오랜 질의 응답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그들 자신의 역사에 대해 알려준 데 대해 나에게 감사를 표했다. 나는 경험의 편파성에 대해 숙고했다. 비록 그들이 이 사건들을 겪으며 살았음에도, 그들은 내가 그들 자신의 경험을 보다 커다란 그림으로 통합해 내는 데 도움을 줬다고 느꼈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우리들이 통상 파악하는 것보다 더 커다란 역사관에 대해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나는 이 책을 성공작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작업에 10년을 바치는 사람들을 별로 없을 것이다. 내 견해로 광주봉기의 중요성은 1871년 파리로코윈에 비견된다(2권에서 두 봉기를 비교했다)

나에게 광주는 정치활동이나 학문적 연구의 장 이상의 것이 됐다. 광주에 머물던 초기에 아직도 생생한 꿈을 꾸 적이 있다. 나는 커다란 거울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몸은 한가지 사소한 것을 빼면 그대로였는데, 내 얼굴이 한국사람으로 보였다. 이 이미지에 대해 중얼거리다가 이 명백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질문했다. “내가 항상 한국인이었나?” “그래”라고 거울 속의 이미지가 대답했고, 나는 대답했다. “좋아, 이제 나는 집에 있는 거군.” 비록 광주에 대한 친밀한 연결의 느낌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사건들에 대한 나의 이해는 시간을 들여 자신의 경험과 통찰력을 설명해준 수많은 사람들의 인내심과 지혜를 통해 가능하게 됐다. 여러 번 사람들은 내가 처음으로 설명해준 외국인이라고 말했다. 나에게겐 영광이었다. 1999년 내가 광주에 도착한 순간부터 나는 공인이 됐다. 내 책들이 번역돼서 나의 견해가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나는 운동집단에서 내부자의 지위를 부여받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 기쁘게도 내 정치적 통찰력은 광주 사람들의 경험이나 생각에 잘 어울린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국정치에 대해 이해하는 데에는 봉기 동안 민중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시민군 50여명에게 도움을 받았다. 우리의 대화는 기록되어 전남대학교에서 2권의 책으로 출판됐다.

내가 이 책을 쓰기 시작은 구체적 시점은 2000년으로, 당시 나는 광주항쟁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의 개막연사로 초청받아 한국에 갔을 때였다. 두 번째 광주여행에서 나는 다시 한번 환대를 받으면서 열띤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고, 9일 동안 4번의 발제를 했다. 내가 받았던 영예 중에는 최고는 김대중 대통령(DJ라는 별칭으로 불리는)의 초청을 받아 만난 일이었다. 망월동 묘지의 연례행사 이후에 나도 만찬에 초청을 받았는데 나는 김대통령 옆에 앉아서 잠시 인사를 나눴다. (나는 다음 달 북한 지도자 김정일과 예정된 만남에서 행운이 있길 빌었다.) 우리 테이블에는 동티모르 출신 노벨상 수상자인 카를로스 벨로 주교도 앉아있었다. 다음 날 나는 벨로 주교를 다시 만나 저녁식사를 했다. 여유롭게 식사를 마친 후 주교는 아시아 민주화 운동에 관한 학술적 연구의 부족에 대해 설득력있게 말하면서 내가 이 주제에 대해 책을 써보라고 권유했다. 그는 정중하게 말을 시작했다. “교수님, 당신은 유럽과 미국의 사회운동에 대해 글을 쓰셨지요. 아시아에 대해 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시아에도 운동이 많이 있어요.” 벨로 주교의 제안으로 이 책의 기원이 정해졌다. 다음날 심포지엄에서, 연사중의 한명이 한국 사회운동의 많은 역사가 지역적인 것이라고 지적했고, 사적으로 나는 대화에서 자신의 논지를 강조하면서 한국운동의 총론적 역사를 써보라고 부탁했다. 나는 한국의 어떤 지역에도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 지역운동의 역사를 한데 묶어 서로간의 관계,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계를 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 고민할 때, 내가 완수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한국어를 모르고 한국 민중의 풍부한 봉기의 역사에 대해서도 겨우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자, 내가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외부인으로서 나는 한국인들이 들어보지 못한 질문(독일인들이 Gnarrrenfreiheit라고 부르는 것)을 자유롭게 하고, 외국인과의 대화에서 덜 거추장스러운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같았다. 한국 이외의 다른 곳에서 지난 30년 동안 사회운동이 그렇게 많은 성취를 이룬 곳은 거의 없었다. 광주봉기는 잔혹한 탄압을 받았지만, 한국인들은 1987년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군부독재를 물리침으로써 대통령 직선제 권리를 쟁취했다. 한국인들의 민주적 공교화 과정을 지속하면서, 독립적 노동조합의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확장을 쟁취했다. 그들은 독재자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시킴으로써 정의의 모범적 사례를 성취했다. 일상 생활의 문화적 변화로 청년과 여성의 권리가 증가했다. 비록 현재 불길하게도 보수적 이명박 행정부가 과거 투쟁으로 힘들게 쟁취한 많은 성과를 역전시키고 있지만, 남한은 세계의 다른 곳 대부분과 뚜렷하게 대조되는 활력과 예의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2000년 당시 나는 내 인생의 10년 대부분을 이 프로젝트에 바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다. 일단 연구를 시작하자, 내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이웃 나라들의 유사한 봉기들로 향했다. 나는 1980년에서 1992년까지 일련의 민중봉기들이 아시아 지역을 변화시켰음을 발견하고 놀랐다. 이 책의 2권은 필리핀, 버마, 티벳, 중국, 타이완, 네팔, 방글라데시,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등의 민중봉기를 다룬다. 이 봉기들은 아시아 민중들의 열망을 풍부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최근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1968년 이후 서유럽의 자율적 운동처럼, 이 봉기들은 비록 아시아의 문화와 정치에서 중심적 구성요소임에도, 대개 보이지 않은 상태였다. 1989년 공산주의를 타도한 동유럽의 봉기와는 달리, 아시아의 사건들은 상대적으로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아시아 봉기들의 지속적 영향을 숙고하다가, 나는 서구의 대중매체가 이 사건들을 자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민주화의 물결을 체제 정당화에 이용하여 시작을 확대하고, 노동력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고 경제엘리트들 더욱 부유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이런 확대된 이해에는 한국 노동자계급을 통제하면서 신자유주의 의제를 실행한 DJ의 역할도 포함된다. 자유와 노예화의 변증법은 내 분석의 주요한 주제가 됐다.

한국의 피바다

내가 한국에 대한 갖는 느낌은 한국이 내가 경험한 가운데 가장 예의바른 사회임과 동시에 내가 방분한 나라들 가운데 가장 미국화된 나라라는 점이다. 전통적인 불교-유교적 사회구조 위로 후견자 미국의 태생(birthmark)과 성격을 갖춘 고도로 발달된 정치경제가 결합돼 있다. 미군의 존재는 그다지 가시적이진 않지만, 1백만명 이상의 군인들이 남한과 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배치돼 있고, 휴전선은 분단의 상처를 지속하고 안보의 이름으로 낭비적 군사지출을 영구화하는 냉전의 분할선이다. 남아프리카에서 치유된 지 오래되고 아일랜드에서도 냉전의 절정기 이래로 상당히 완화된 역사적 분단이 한반도에서는 삶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남아있다. 진보적 미국인들은 이 불길한 교착국면을 끝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난 50년간 우리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한국은 20세기에 일본과 미국의 손으로 문자 그대로 피바다가 될 정도로 유린당했다. 일본에게 무자비하게 식민화 당했고, 미국에 맞선 3년간의 전면에서 황폐화되고 반세기 이상 분단되었음에도 한국은 21세기에 기적적인 성과에 기초하여 존재한다. 북한은 전쟁에서 미국을 격퇴한 첫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유럽의 서부 확장을 저지했다. 전통적으로 반도의 식량산지인 남한은 1953년 세계의 최빈국 중의 하나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의 하나로 발전해서 석유가격이 낮았을 때 러시아의 경제규모를 추월했던 OECD 회원국이 됐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50년대 초반 200달러에서 2007년 20,000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 한국인들은 유럽이 수세기에 걸쳐서 이룩한 것을 수십년 만에 이룩했다.

현대 한국인들은 행복과 슬픔, 번영과 빈곤, 진보적 정치운동과 반동적 독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다. 이웃나라에 비해 작은 나라인 한국의 내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시민사회는 비상하게 잘 발달했고, 자유를 위한 오랜 투쟁의 역사에서 중요한 자원이었다. 남한의 사회운동은 냉전시대 최악의 군부독재자들 중 몇명을 타도했다. 1960년 이승만은 경찰이 부정선거와 고문에 항의하는 학생 수십명을 사살하자 조국을 떠나야만 했다. 1년후 박정희는 권력을 장악하고 1979년 암살당할 때까지 무자비하게 통치했다. 부산과 마산의 학생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려고 하자 자신이 뽑은 정보부장이 박정희를 사살했다. 1979년말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광주 시민들을 잔인하게 진압했다. 그의 동료인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와 터키의 군부 통치자들처럼, 전두환은 자신의 지지에 대한 대가로 미국의 은행 및 기업들과 협력하여 외국의 경제이해를 증진시켰다. 1987년 민중봉기에 굴복한 전두환은 결국 (후임 노태우와 함께) 징역형에 처해졌다. 1998년 새로운 진보적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한은 10년간 북한과의 대화와 화해의 “햇볕정책”을 추구했다. 민주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경제는 신자유주의 시장의 독재에 지배를 받고 있으며, 거대 기업들이 한국의 부를 장악하고 있다. 소수의 제국 협력자 집단이 한국의 보수적 언론매체를 확고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절반의 진실과 고의적인 왜곡보도로 사회분위기에 독소로 작용하고 있다. 2008년 이후 뉴라이트 이데올로그인 이명박은 대통령직을 이용하여 민중이 쟁취한 개혁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다.

조지 오웰이 1984년을 “자유가 곧 노예제”인 “이중언어”의 세계로 예언했을 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 “자유시장”과 “신자유주의”로 통하는 것은 실제로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이다. 이윤논리에 따라 대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추적하고 더욱 확대된 투자무대를 정복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들은 자본침투에 대한 지역장벽을 없애면서, 일국 기업들을 종속시켜 수익성 높은 일국적 경제활동을 장악할 수 있다. 비록 한국의 봉기들이 더 많은 자유와 투표권을 쟁취했지만, 1997년과 2008년의 경제위기를 통해 서류상 거래의 형태로 엄청

난 이윤이 외국으로 유출됐고,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은 시장의 규율에 의해 임금삭감, 파트타임 지위, 그리고 과거에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을 실업에 굴복당했다.

감사의 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는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신은정은 지치지 않고 아무도 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인도했다. 예리한 통찰력, 끈기있는 설명, 꼼꼼한 연구, 사랑으로 유지시켜 준 집중력 등은 다른 누구보다도 그녀의 덕이다. 나간채와 나일성은 한국 역사의 세부사항을 제대로 설명해줬다. 원영수는 초고를 끈기있게 읽고 비판해줬고, 조르디 고메스는 세부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해줬다. 빅터 윌리스는 친절하게 시간을 내서 비판적 통찰력으로 내 분석의 범위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 제임스 페트라, 바실 페르난도, 이재원, 윤수종은 실질적으로 내 시각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정치적 비판을 해줬다. 나의 첫 한국인 친구인 백낙청은 한국에 대한 내 첫 걸음을 인도해줬다. 오충일은 항상 큰형의 역할을 했다. 광주 5월 어머니집의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나의 사기를 고무시켜줬고 영감을 줬다. 에드 베이커, 데이빗 맥켄, 로런 골드너, 고창훈은 꾸준히 통찰력과 격려를 제공했다. 응빈룡, 윤창현, 이재의, 박해강은 항상 친절하고 꾸준한 친구였다. 나는 고 윤영규에게 이 책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기쁘다. 전남대 5.18연구소와 사회학과, 서울의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4.19연구소, 부산 민주공원 관계자들은 크게 도움을 줬다. 2001년 나는 전남대 방문교수로서 광주에 체류했고, 2007년 폴브라이트재단 장학금 덕분에 2007년 광주에 다시 올 수 있었다. 웬트워스 공대의 안식년으로 나는 2009년말까지 광주에 머물렀다. 학문적 자료 외에도, 나의 연구는 이 역사에 핵심적인 개인들과 가졌던 100여회의 인터뷰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의 장기 20세기에 대한 정확하고 비판적인 역사를 추구함에 있어 내 자신을 견해를 정립하려는 노력은 내가 이 책을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 선행 연구자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 니체의 말을 인용하자만, 브루스 커밍스는 우리에게 “지적인 문제에서 가혹할 정도로 정직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한다. 내가 니체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믿지는 않는다.

모든 학자는 도서관 사서에 의지하며, 나도 대 오코넬, 피아 로마노, 에이미 르윈틴 등 웬트워스 공대 직원들의 예외적 지원에 의지했다. 동아시아 사회운동에 대해 강의를 받았던 8학기 동안의 우리 학생들은 내가 접근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을 예상하는 데 동무울 줬다. 또 운이 좋게도 나에게 영감과 가르침을 준 젊은 학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에디 위엔, 마커스 모어, 빌리 네슨, 존 로저스, 다시 리치 등이 그들이다. 김구용, 진주, 이미화, 김수아, 소유진, 이재원 등은 모두 인터뷰와 원자료를 번역하는 데 너그러운 도움을 줬다. 나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두 딸 달랄과 카산드라에게 감사한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어 이름에 대한 보편적인 철자법을 사용했다. 1990년대 말, 한국정부가 새 표기법을 채택하자, 광주의 표기가 달라졌고,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적절한 경우 한국어 표기를 직접 사용하기도 했다. 이 책을 통틀어서, 문제의 사건들을 과장하지 않기 위해서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해 엄격한 수치를 사용했다. 여러 곳에서 과거의 설명에 기반한 일련의 수치를 제공한다. 광범한 각주는 향후 연구를 위한 지침이자, 출처를 밝힌 것이다. 대부분의 독자들에게는 불필요하다.

아시아에 대한 내 경험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간다. 나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미군 부대에서 성장하면서 보냈고, 5,6학년 때에는 타이완에서 지낸다. 베트남 전쟁 기간에 이상주의적

대학생이었을 때, 보도된 사실과 내가 알고 있던 상황 간의 간극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일이 기억난다.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 특히 북한에 대해서보다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선전 사이의 엄청난 차이가 더 심한 경우를 결코 본적이 없다. 미국과 남한에서 모두 언론보도는 주기적으로 과장되거나 노골적인 거짓말이다. 나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를 속박했던 거짓과 의도적 생략의 사슬을 끊는 데 이 책이 기여하길 희망한다.

2011년 8월 13일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서

[번역] 조지 카치아피카스,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1권

조지 카치아피카스, George Katsiaficas,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Asia's Unknown Uprisings,
1권: 20세기 남한의 사회운동 Volume1: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in the 20th Century

1장 봉기와 역사

모든 사람이 좋게 말하는 것은 비판적으로 보라,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 것은 결정하기 전에 먼저 검토하라.

- 공자

하늘은 선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를 벌하며, 사람을 통해 그렇게 한다

- 가오 야오(皋陶), 기원전 21세기

많은 관찰자들에게 봉기는 악이자 적대적인 것이며, 기껏해야 지나가면서 또는 완전한 비난 속에서 언급될 뿐이다. “진정한” 역사는 잘꾸며진 밀실의 엘리트가 만드는 것이며, 이들이 예의바른 행동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상이다. 부유하고 권력자들이 하는 거래, 그들이 그리는 미래 위의 선과 서명한 종이조각이 세상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반면, 그들에 맞선 운동은 폭력과 공포를 낳는다.

이 책은 이런 이해를 거꾸로 뒤집는다. 나는 기존 세계체제의 구조적 논리가 매일 전쟁, 환경파괴와 빈곤을 낳는 반면, 그런 구조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운동은 지구의 최대의 희망이라고 본다. 오늘날 몇백 명의 억만장자, 거대기업, 군사화된 민족국가는 열심히 일하는 남녀 노동자들이 몇 세대에 걸쳐 생산한 막대한 부를 허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봉기는 보통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1890년대에 귀스타브 르봉(Gustave Le Bon)은 혁명을 “부패한 시체를 먹고사는 미생물”에 비유했다. 20세기 초반 학식있는 하버드 교수 라이먼 에드워즈와 크레인 브린턴은 르봉의 편견에 찬 이해를 계속해서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에게 “철학자 살해자”라는 딱지를 붙였다. 많은 사상가들이 그런 과도하게 보수적인 개념들을 거부하지만, 1960년대 사회운동을 “민주주의의 질병”으로 보거나 빈곤국의 군부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새뮤얼 헌팅턴의 개념과 같은 현대적 개념들은 정책 입안자들이 광범하게 적용해 왔다.

비록 오랫동안 병리적 행동으로 간주됐지만, 봉기는 심한 억압상태에 대한 건강한 반응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민중의 행동은 봉기가 일어나는 조건에 대한 술어이다. 20세기 후반 아시아 봉기들의 경우 경제적 팽창이 기대수준을 높이고 민중의 실망이 봉기를 촉발하는 패턴을 취했다. 비록 많은 관찰자들이 2008년에 시작된 경제위기와 함께 새로운 항의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에 관한 우리의 축적된 지식에 의하면, 경제적 쇠퇴의 조건은 보통 시민들의 권리는 확대하는 운동이 아니라, 엘리트 특권을 유지하려는 우익, 심지어 독재의 시도를 낳는다. 경제결정론자들이 아무리 봉기와 사회운동을 자본운동의 계기로 묘사하려고 애쓰더라도, 봉기는 사회경제적 자극에 대한 스키너식 대응 이상의 것이다. 현대 정

부와 기업들의 우세한 권력 때문에 우리는 자율적으로 행동할 민중의 역량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봉기의 이유를 주로 참을 수 없는 정세에 대한 대응에서 찾는다면, 변화에 대한 이해 단지 그것을 야기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연구를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인간행동을 상황으로 한정하는 것은 우리를 몰이해의 순환에 밀어넣는 것이며, 거기에서 사회적 조건은 기술할 수 있겠지만, 변혁을 추구하는 사회운동의 등장은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내 견해로는 항쟁과 봉기는 단순히 반응이 아니라, 민중의 열망, 꿈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한 상사의 지표이다. 그 굵은 무엇인가? 왜 봉기는 몇 년 전이 아니라 어느날 일어나는가? 왜 봉기는 놀라운 속도로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 동시에 발생하는가? 봉기의 결과는 무엇인가? 나는 이 책에서 이런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시민봉기는 사회 내에서 상승하는 동학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사회변화의 꽃피는 꽃봉우리이자, 그 개화는 미래가 된다. 봉기의 장기적 효과는 보통 강력한 개인이나 엘리트 집단이 내리는 결정보다 더 지속적이다. 지나치게 오래 동안 똑똑한 운동이론가들은 자신의 자서전적 경험을 묘사하는 훌륭한 책을 썼고, 만약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문적 전문가들은 독특한 통찰력을 설파하며, 그것을 진리라고 우기지만, 모든 일반화는 우연적이고 보편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찰스 킬리Charles Tilly는 “민주주의는 사회운동에 유효하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하지만 민주적 남한과 타이완에서 사회운동은 진보적 정권의 출범 이후 지도자들이 새 정부에 참여했을 때 커다란 쇠퇴를 경험했다. 새 대통령들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에 대해 운동의 지지자들이 환멸을 느끼자 변화의 추진력은 소멸했다.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보편적 법칙을 추구하고 마치 역사가 커다란 퍼즐이고 그 해답이 정확한 예측력을 가져올 것처럼 행동한다. 차례로 작가들은 역사가 자신을 반복한다는 똑같이 지루한 공식을 되풀이한다. 소로킨에서 제임스 데이비스와 J-커브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법칙에 대한 돈키호테적 추구는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된다. 과거에서 현재의 지침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먼 과거와 장소에서 의상과 어휘, 전술을 빌려온다. 중국에서 왕조몰락의 주기처럼 역사에는 정말로 주기가 있지만, 철의 행동법칙은 문화적 현상보다는 자연현상에 더 적합하다. 독일 철학자 G.W.F 헤겔은 이렇게 확신했다. “각각의 시대는 그런 특수한 상황과 연관되며, 너무 특유해서 그 행동이 자신과 연결된 고려에 의해, 오직 자체만으로 규제되어야 하는 상태를 보여준다. 위대한 사건들의 압력 속에서 일반적 원칙은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 과거의 유사한 상황으로 되돌아가 봐야 소용없다. 기억의 창백한 색조는 현재의 삶이나 자유와 함께 헛되이 투쟁한다. 이렇게 볼 때, 프랑스 혁명 동안 자주 되풀이된 그리스와 로마 사례에 대한 호소보다 더 천박한 것은 없다.”¹⁾

역사의 법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확실히 어떤 “철”의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에 관한 영원히 가치있는 일반화는 공포를 진정시키고 불확실성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숨기고 새로운 꿈을 질식시킨다. 그런 일반화는 자신으로부터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처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도할 상상력있는 인간의 능력을 짓밟는다. 보통사람들이 자유를 확대할 역량을 간직하는 것은 내 역사 내에 열정적 참여를 뿌리박게 한다./Cherishing the capacity of ordinary people to expand liberty embeds within my history a passionate engagement./ 나는 봉기를 건전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봉기가 기존체제보다 우월한 책임성을 포함하고 세계의 기업과 정치 엘리트들이 근시안적 의사결정 능력을 초월하는 보통 사람들의

1) G.W.F. Hegel, *Philosophy of History* (New York: Dover, 1956), 6.

지혜를 구성한다고 간주한다. 다시 한번 헤겔을 인용하면, “이성은 세계의 주권자이며, 따라서 세계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성적 과정을 제시한다.” 그런 정신으로 나는 민중 봉기의 감각적 도덕성에 포함된 사상의 내용과 행동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합리성은 수천명의 민중이 함께 시도한 열정적 행동 내에서 드러나며, 이 이성적 과정은 정신과 육체, 사상과 감정이 서로 분리되는 데카르트적 범주에 순응하지 않는다. 헤겔이 충고했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열정 없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절대적으로 긍정할 수 있다.”²⁾ 민중봉기의 합리성을 묘사함으로써 나는 형성중인 이성이 역사의 물질적 힘으로 전화하도록 돕기를 희망한다.

17세기와 18세기 유럽 철학자들은 개인적 사상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다양한 차원과 역사적 전개에 따라 사상구조를 분류하려고 노력했다. 유사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는 사회운동을 수천명, 때로는 수백만명의 민중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봉기했을 때 그들의 실천에서 드러나는 논리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기의 순간에, 특히 총파업, 봉기, 항쟁과 혁명 같은 사건들에서 겉으로 보기에 자연발생적인 행동의 내적 논리는 역사에서 자유의 구체적 실현을 구성한다. 민중의 집단적 행동은 주어진 순간에 자유의 구체적인 성격이다. 이것은 내가 구체적 상황에서 봉기와 등장하는 열망, 꿈, 역량, 그리고 한계 등의 정확한 세부사항을 분석하는 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 시유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결코 피상적인 이유로 목숨과 육체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며, 따라서 봉기는 인간의 필요와 욕망에 깊이 뿌리박힌 진정한 불만의 지표이며, 그 불만이 드러나는 논리는 보통사람들의 가장 깊숙한 욕망을 드러낸다. 18세기의 독일 철학자들이 이론에서 등장하는 유럽 사상의 구조와 내용을 밝히고자 했던 것처럼, 나는 민중운동이 실천으로 드러날 때 그들의 내적 발전과 열망을 묘사하고자 한다. 이 구체적 역사에 대한 내 담론을 구축함에 있어 나의 중심적 관심은 보통사람들의 지혜가 부자들의 돈이나 정치인들의 권력보다 더 중요한 이 세계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 20세기 후반 봉기에서 드러나는 문법은 에로스 효과, 자율성, 탈상품화(돈이나 권력 이외의 동기에 기초한 관계의 수립) 형태에 포함돼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수백만 민중들의 이런 행동은 기존의 모든 경제-정치 엘리트(선출됐든 자천이든)보다 더 훨씬 더 우월한 감각적 지혜를 체화한다.

흔히 역사가들은 세계적 지도자들의 결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반면, 보통사람들의 행동을 무시한다. 이 책은 이 동학을 뒤집는다. 위기의 순간에 수천명의 민중이 참여하는 봉기는 내 이해의 프리즘이다. 내 견해로 봉기는 사회의 핵심적 본질을 들여다보는 커다란 창문이다. 더욱이, 봉기자들의 실천은 무시된 이론적 가치를 포함하며, 그 가치는 철학적 사고의 개별적 광인들과 나란히 정당한 위치를 부여받아야 한다.

오늘날 사회변화의 속도는 역사상 다른 어떤 시대보다 더 빠르다. 20세기에 인간은 정치적 전위와 전능한 지도자들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통치할 역량을 지속적으로 입증했다. 아랍의 봄이 전개된 숨막히는 속도는 이런 현상의 최근 사례이다. 20세기 말 수백만명 아시아인들의 동시적으로 행동하는 열망을 묘사함으로써, 나는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 우리 모두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단으로서 전지구적 정치적 변화에서 아시아 민중의 모범적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길 희망한다. 동아시아의 화려한 경제성장(내 견해로는 봉기의 결과들 중의 하나)은 잘 알려져 있고, 자유의 확대에서 시민사회의 성취는 비슷하게 인상적이다. 보통사람들의 봉기는 이미 권력에 굶주린 정치인들과 탐욕스런 기업간부들의 지배를 제한하는 중대한 수단으로서 이해되고 있고, 언젠가 그런 엘리트를 창출하고 권력을 부여하

2) Ibid., 23.

는 체제를 파괴하는 데 봉기가 사용될 것이다. 현대적 기술과 자원은 인류에게 지상의 천국을 창조할 역량을 주었다. Dk니면 이전 세대가 우리에게 남겨준 막대한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길로 갈 수도 있다. 거대한 부와 번영이 기아와 질병과 나란히 존재한다. 인류의 1/3은 잘 사는 반면, 다른 1/3은 재난의 가장자리에 있다. 매일 10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죽으며, 10억명 이상은 기아 선상에 있다. 수십년간 집중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일 5세 이하의 어린이 25,500명이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병으로 죽는다. 전쟁은 지속적으로 인류를 괴롭힌다. 2차 세계대전 마지막에 시작해서 냉전시기 동안 국가폭력의 결과로 1천만명 이상이 사망했다. 군사화된 민족국가가 전쟁을 개시하도록 허용해야 하는가? 몇백명의 억만장자들이 인류의 부 대부분을 통제하도록 내버려둬야 하는가? 거대기업이 지구를 파괴하도록 두어야 하는가?

인류는 기존 세계의 경제정치적 구조의 멍에 아래서, 거대기업과 수퍼부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군사화된 민족국가 아래서 살기로 민주적으로 결정을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 이런 구조를 변혁하려는 대대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1789년 프랑스 혁명과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포함해 모든 급진적 봉기로부터 더욱 강해지고 어려움을 견뎌낼 인류의 역량, 불굴의 적응력은 인류의 지속적 문제에 대한 전지구적 해결책의 필요성에 대한 주목할 만한 증언이다.

한국의 봉기

이 책에서 나는 행동을 통해서 표현된 수천명 민중의 열망이 전개되는 과정을 묘사한다. 심지어 한국전쟁처럼 세계 지도자들이 가장 끔찍한 무기를 사용하는 결정으로 거대한 단절의 시대가 이어져도, 민중의 꿈과 열망은 그대로 남아 있다. 통일과 독립에 대한 한국인들의 희망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 중의 하나로 인한 황폐화를 극복한다. 1950년 이전에 수만 명의 남한인들은 이 목표를 위해 목숨을 희생했고, 1960년대 새로운 민주화 운동이 등장했을 때 동일한 열망이 민중들의 꿈에 한 가운데 남아있었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일본 식민주의는 토착민의 저항을 제압하고 반도를 장악했다. 한국전쟁 동안 1950년에서 1953년까지 5백만명에 이르는 인명이 소멸했다. 미군의 폭탄과 대포가 거의 모든 주요도시를 파괴했다.

그러나 현대 한국의 비극적 역사에서 한줄기 희망의 빛은 민중봉기의 풍부한 전통이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에서 2008년 촛불시위까지 한국의 장기 20세기는 일본 식민지배에 맞선 1919년 3월 1일 봉기, 미군정에 맞선 1946년 10월 봉기, 민족분단에 맞선 1948년 제주-여순 봉기, 이승만 독재에 맞선 1960년 봉기, 전두환 독재에 맞선 1970년 광주민중봉기, 1987년 6월봉기와 노동자 대투쟁, 신자유주의에 맞선 1997년 총파업을 관통하면서 펼쳐진다. 지각을 뒤흔든 이런 사건들의 원천은 놀라운 민중투쟁의 역량이며, 시민에 깊이 뿌리내린 한국의 타고난 능력(gift)이다.

한국의 풍부하고 고통스런 봉기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학 연구에서 이 봉기들은 거의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 가장 훌륭한 영어판 역사 중의 하나인 <태양 아래 한국의 위치>(Korea's Place in the Sun)에서 저명한 학자인 브루스 커밍스는 광주에 대해 겨우 1쪽 그리고 6월봉기에 대해 한 단락을 할애했다. 이 두 사건으로 아마도 한국의 5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군부독재를 제압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더욱이 커밍스는 1987년 봉기를 6월 10일에서 20일까지 10일간으로 언급하지만,³⁾ 사실 민중들은 6월 10일에서 29일까지 19일 동안 봉기를 유지했고, 만약 군부가 대통령직선제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다면 더 오래 지속됐을 것이다. 또 커밍스는 부마봉기를 1979년 8-9월에 일어난 것으로 기술하지만, 부마봉기는

3) Bruce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New York: Norton and Co.,1997), 387.

10월 16-18일에 일어났다. 커밍스는 전두환이 1987년 6월 물러나야 했다고 말한다(하지만 전두환은 1988년 1월까지 임기 나머지를 마쳤다.)⁴⁾ 세부사항에 대한 부주의는 있을 수 있는 일지만, 커밍스의 저작은 현대 한국을 형성한 세력지형에서 봉기를 주요한 기제로 이해하지 않는 보다 광범한 경향을 반영한다. 마틴 하트-랜스버그의 통찰력있는 저작인 <개발을 향한 질주>(The Rush to Development)도 광주에 대해 몇 단락, 그리고 제주봉기에 대해 두 단락을 할애한다.

봉기의 프리즘을 통한 30세기 한국의 이런 기술사(narrative history)는 기존의 영어판 연구에 대해 꼭 필요한 보충이다. 봉기에 대한 나의 강조는 민중사 흐름의 일부이며, 봉기의 과거에서 미래의 자유투쟁으로 가는 다리를 놓고자 하는 한국 학자와 활동가들의 작업과 내 자신의 작업이 수렴되는 많은 사례 중의 하나이다. 봉기는 일반적으로 비연속적 세기라고 간주되는 것에서 지속성을 이해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모든 봉기는 운동의 다음 국면에서 주요한 경향을 가속화했다. 1960년 학생혁명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희개의 순간”이었고, 그 이후 그들은 이승만 독재를 지지했던 것에 대해 동포들의 용서를 구했다. 그 이후로 기독교인들은 자유와 사회정의의 위해 끊임없이 활동했다. 광주봉기는 1980년대의 급진정치를 낳았고, 민중예술을 만들어냈고, 미국의 전정한 성격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쳤다. 1987년 6월봉기와 노동자 대투쟁은 NGO와 노동조합을 만들어 냈고 기업이사 사무실의 가장 조밀하게 구성된 보호장벽과 비밀스런 밀실거래에 개혁을 가져왔다. 역설적으로 NGO들이 주도하면서 전문화와 특화는 운동의 전반적 쇠퇴로 이어졌다. 민중의 커다란 성취 중의 하나는 여성들의 자유를 증대시킨 토대를 마련했고, 이런 변화는 2008년 촛불시위에서 여중생들의 지도력으로 이어졌다.

비록 역사의 기관차로 널리 이해되지만, 민중의 혁명운동은 계속 정확한 묘사를 거부당하고 있다. 거의 모든 경우에서 한국의 역사는 “위대한 사람들”의 삶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김일성 도는 딘 러스크, 더글러스 맥아더, 박정희 같은 개인들을 위주를 세계적 사건들을 구성한다. 심지어 서구사회의 개인주의가 극복되었지만, 특정한 조직과 특수한 네트워크에 한정된 기술적 서술(descriptive narratives)이 지배적이며, 이는 다시 한번 봉기 동안 자연발생적으로 독자적 형태의 조직을 발전시키는 이름없는 보통사람들의 역할을 경시한다. 공산당이든 NGO든 직업적 조직을 강조함으로써 봉기를 창조하고 키우는 풀뿌리 운동의 역할은 숨겨진다. 한국의 1894년 농민전쟁은 흔히 가장 유명한 지도자의 조직 이름을 따라 동학란이라고 불리지만, 투쟁하다 죽은 수천명 조선 농민들은 동학교의 신자가 아니었다. 인근 베트남의 사례를 빌어오자면, 하노이와 워싱턴에서 쓰여진 역사는 미국을 패배시킴에 있어 남베트남 민중들의 영웅적 희생과 그들의 중심적 역할을 묻었던 반면, 북베트남 공산주의 조직과 지도부의 역할은 강조했다. 엘리트 이론은 심지어 봉기운동 자체의 이해 속에서도 존재한다. 시민권 운동에 관한 수많은 진보적 설명도 터굿 마셜Thurgood Marshall의 전기 또는 전미흑인인권향상협회(NAACP)의 활동사, 로사 파크스Rosa Parks, 마틴 루터 킹 2세, 말콤 X 또는 남부기독교지도협의회(SNCC)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으며, 짐크로 인종주의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해방시키기 위해 투쟁하고 희생한 수백만명 보통사람들의 역사는 아니다.⁵⁾

운동과 조직

20세기에 기업 자본주의와 국가 사회주의 시기에, “조직인간”(Organization Human)에 대한 지

4) Bruce Cumings, “Civil Society in West and East,” in *Korean Society: Civil Society, Democracy, and the State*, ed. Charles Armstrong (London: Routledge, 2007), 24.

5) A notable exception is Robin Kelley’s book, *Race Rebels: Culture, Politics, and the Black Working Class* (New York: The Free Press, 1994).

나친 강조는 19세기의 “위대한 인물” 지향을 초월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운동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활동가들의 직업화 양자에서 이 똑같은 원리의 지속적 확장을 목격한다. NGO가 시민사회의 알파이자 오메가로 이해될 때, 전문화된 단체는 민중운동의 자기조직화의 한 차원, “시민사회”의 한 측면이라기보다, 아마도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보다, 그 자체로 목적이 된다.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 NGP 물신화는 계급분열의 과소평가, 풀뿌리 열망의 포섭, 봉기의 급진적 추진력을 무력화하는 협조주의적 계층의 등장으로 이어진다.⁶⁾ 체제 변화에 봉기는 필수적이며, 전문가 조직이 자리잡아서 정당성을 획득할 때 그들의 기여는 적절하다. 흔히 NGO는 반체제 봉기를 운동이 저항한 바로 그 구조를 강화시키는 개혁의 에너지로 전화시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사회가 어떻게 변혁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무티아 알라가파는 봉기적 시위보다는 시민사회의 총체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전자는 “일상시에 시민사회의 보다 일상적이고 덜 가시적 기능인 기능, 즉 위기의 순간에 행동만큼이나 결정적인 기능을 모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⁷⁾ 이런 결정적 기능은 자유화 시대 민주화 이행국면에서 정당의 발전을 지지하고 공고화된 체제를 보다 덜 배제적으로 만들어서 자유로운 공적 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포함해 전문적 단체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을 가리킨다. 분명하게 이런 것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알라가파는 어떻게 봉기가 보통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커다란 개인적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도록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또 그는 어떻게 민중봉기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불가분하게 변화시키는지 논하지 않는다. 봉기 와중에 새로운 평생의 우정이 형성되고, 정치적 의식은 고양되고 정체성은 변화하고, 이 모든 것이 불과 몇일 또는 몇주일의 시간 동안 일어난다. 모든 경우에 과거에 짓밟힌 사람들, 소수민족, 여성, 낮은 계층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하고 지도력 기술과 네트워크를 발전시킨다. 너무나 자주 자칭 직업적 “혁명가” 그룹(과 개인들)은 현상유지에 충실하며 거리의 급진적 부대를 포기하거나 그들과 대결한다. 우리는 많은 곳에서, 즉 한국의 진보적 정치인과 정당들, 방글라데시와 체코의 민주주의자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들 또는 필리핀과 타일랜드의 민중조직들에서 이런 동학을 목격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수천명 민중의 자생적 행동은 자주 기존 정당들이 “현실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넘어서는 비전을 제시하며, 그들은 씨앗을 뿌려 새로운 지도자들을 탄생시키고 민중의 열망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기존 인물의 침묵에 도전하게 한다. 봉기는 결정적으로 사회의 등장하는 세력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들이 보통 시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도록 정치인과 정당에 계속 압력을 가하고 투쟁으로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창출하고 기존의 조직과 기관들을 재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지난 몇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주요한 위기를 토양서 자신을 강화하는 자본주의의 능력은 엘리트 특권의 재도입을 저지할 수단으로서 민중동원을 유지할 방법을 발견한 명확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심지어 많은 경우처럼 운동조직들이 권력을 장악해도, 체제는 새로운 지도자들의 유입을 견뎌낼 수 있고, 심지어 그들에게도 혜택을 끌어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에서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넬슨 만델라와 아프리카 민족회의(ANC) 또는 군사적, 경제적 위업이 쇠퇴한 오랜 이후에도 영국이 헤게모니적 열강이 되도록 도왔던 미국혁명의 역할을 보라.

봉기의 구체적 동학에 대한 현대 역사가들의 무관심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항의와 시위는 흔히 일시적이고 장기적 기간 동안 운동력을 유지할 수 없다. 하지만 민중봉기는 점차

6) See James Petras, “NGOs: In the Service of Imperialism,”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29, no. 4 (1999): 429.

7) Muthiah Alagappa, ed., *Civil Society and Political Change in Asia: Expanding and Contracting Democratic Spac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5.

성장해 자신을 재생할 수 있으며, 이는 마닐라에서 1986년과 2001년 피플파워 시위, 한국의 1987년 6월봉기에서 광주의 중요성, 그리고 타일랜드(1973년, 1992년과 2010년), 네팔(1990년과 2006년), 버마(1988년과 2007년) 티벳(1959년, 1989년과 2008년) 등의 반복적인 대규모 시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십만 민중은 과거 봉기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내면화해서 위로 부터 지도자들의 “도움” 없이도 계속 행동한다. 반정부 진영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전문적 조직들이 부당한 체제에 참여함으로써 자주 그 체제를 강화하는 반면, 봉기는 거의 틀림 없이 자유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창출한다. 되풀이해서 봉기가 반정부 운동을 강화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봉기 직후에 노동자들의 파업은 번성하고 독립 미디어가 등장하고 자발적 단체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며, 여성주의자들이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하층 집단들이 더 많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동원된다. 봉기의 의의를 인식하는 못하는 실패의 또 다른 표면적 이유는 봉기자들의 견해를 수용함으로써 기존권력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가해지는 어려움이다. 학자와 활동가들이 연구의 자유를 누리는 사회에서, 사회적 격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핵심적 이유는 민중봉기가 성공하는 경우 보다 개방적인 사회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독재로, 그리고 실패하는 경우 탄압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공간의 폐쇄를 과도한 정권의 대응으로 돌리든 봉기를 통한 기존정부 타도의 성공으로 돌리든, 분석가들은 강경한 도전보다 온건한 도전을 선호한다. 하지만 봉기를 연구범위에서 배제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이데올로기적 가정을 견지하며, 과거에 검토하지 못한 영역을 밝혀내기보다 사각지대를 영구화하는 “철의 법칙”을 고수한다. 역동적 봉기의 흐름이 최근 역사를 활성화시킨 한국의 경우 이데올로기적 왜곡은 특히 문제가 된다.

고전적 철학자들은 사회적 갈등이 자연스럽게 건강하다고 믿었다. 이마누엘 칸트의 보편사 개념은 “인간의 모든 역량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자연이 이용하는 수단은 사회의 적대”이라는 점을 웅변적으로 인정했다. 보다 최근에 프랜시스 폭스 파이븐은 갈등과 무질서의 심오한 영향을 진술했다: “비점진적인 민주개혁의 보기도문 간격은 파괴적 저항운동의 등장에 대한 대응이며, 이 운동들은 명시적 종류의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 성공은 유권자들이나 그들이 장악한 정당의 영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의 본성에 뿌리박은 보다 근본적인 종류의 권력의 동원에서 나온다.”⁸⁾

현대 사회학자와 정치학자들은 서로 다른 범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사회의 핵심에 “합리적” 개인 행위자가 있는 관념을 고수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군중은 흔히 일종의 “전염”, 권위주의적 지배 및 비지성적 행위를 체화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최악의 경우 학자들은 폭도(lynch mobs) 모델을 통해서 집단을 이해하는데, 여기에서 개인은 개인적 합리성을 유예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천박한 본능적 열정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와는 대조적으로, 20세기 한국의 연속적 봉기에 참여한 수백만 보통사람들은 다른 동학의 살아있는 증거이다. 보통사람들은 집단의 최선을 위해 함께 행동하는 보통사람들은 오늘 기업 또는 정치 엘리트 그 누구보다 더 위대한 책임성과 지성을 체현한다. 전세계 민중의 증가하는 지성과 엘리트의 부패, 적절히 통치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력을 이해하기 위해 급진적으로 될 필요는 없다.

최근 테크놀로지의 관찰자들은 많은 것을 말해주는 간단한 통찰력을 기록했다: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은 “군중의 지혜”와 “똑똑한 폭도”(smart mobs)를 용이하게 했다.⁹⁾ 2011년 아랍의

8) Frances Fox Piven, *Challenging Authority: How Ordinary People Change America*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2006), 18.

9) See the recent books by nonacademic and non-movement observers James Surowiecki, *The Wisdom of Crowds* (New York: Anchor Books, 2004) and Howard Rheingold, *Smart Mobs: The Next Social Revolution* (Basic Books: 2002).

봄 동안 소셜미디어가 용이하게 했던 집단적 지성의 역할은 그냥 지나치기에 너무나 중요하다.

민중봉기의 지성과 합리성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겠지만, 르봉의 “전염” 이론의 더 나은 적용은 국제 금융투자자들의 무리본능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의 공포는 하루밤 사이에 경제를 망친 대량매각으로 귀결됐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시작된 전지구적 경제붕괴에서 다시 나타났다. 개인적 자기이해에 기초하여 인류의 부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탐욕스런 “합리적” 행위자의 비합리적 투자결정은 재산없는 사람들의 삶을 짓밟는다. 그러나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단지 그 때에야 주류 논평가들이 질병에 대해 말한다.

사회운동의 합리성과 민중의 풀뿌리 의사결정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르봉이 초보수적 “전염” 개념을 정식화한 지 120년만에, 주류의 지혜는 르봉 사상의 **한도(parameters)**를 주장한다. 인류를 위해 지적 결정을 내릴 보통사람들의 역량은 지속적으로 저평가돼 왔다. 심지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 지도부(미국처럼)나 장기집권중인 경제엘리트(기업권력의 중심)와 비교해도 보통사람들이 훨씬 더 현명하다.¹⁰⁾ 세계사회포럼과 같은 모임에서 사람들은 핵폭탄과 모든 대량파괴무기를 폐지할 것, 전쟁을 종식할 것, 분의 재분배를 통해 빈곤을 치료할 것을 주장한다. 그런 주옥같은 상식의 말을 주요한 정치 또는 기업 지도자의 입에서 들어본 마지막이 언제였던가?

보이지 않는 한국

고래들 사이의 새우처럼,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비해 작은 나라인 한국은 이웃 열강들과 거의 경쟁할 수 없다. 역사의 대부분 동안 한국인들은 독특한 전통을 유지하면서 외세를 쫓아 내거나 동반하는 데 커다란 자원을 소비했다. 아시아의 일부로서 한국은 이증으로 주변화돼 있다. 거대한 대륙의 작은 일부일 뿐 아니라, 아시아는 앵글로-아메리카 세계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아시아의 오랜 역사적 지속성은 서구와 대조되는데, 서구에서 고대국가와 문화의 절멸은 아주 심각해서 라틴어는 거의 사라졌고 고대 그리스어도 거의 살아남지 못했다. 아시아에서 왕조들은 흥망을 거듭했지만, 퉁구스, 몽골 또는 만주족이든 모든 정복자들은 중국화됐고, 아시아 문화에 국가를 초월한 문명을 중요성을 부여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프랑스, 헝가리, 잉글랜드는 토착민을 정복한 침략부족에게 이름을 가져왔다.

헤겔에게 역사는 동에서 서로 이동했다“ ”아시에서 정신의 빛이 떠올랐고, 따라서 세계의 역사가 등장했다.... 세계역의 역사는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 왜냐면 유럽은 절대적으로 역사의 종말이고, 아시아는 그 시작이기 때문이다.“¹¹⁾ 헤겔은 개별자(the individual)의 전개를 통해 역사의 진보를 추적했고, 이는 그가 소크라테스, 예수, 마르틴 루터, 즉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위인들“의 삶에서 역사의 진보를 위치지웠던 과정이다. 칸트만이 아니라 헤겔에게도 역사의 내적 진보는 국가를 통해 완성에 도달했다. 하지만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는 시민을 살해하고 불구화시킬 기술적 무기를 갖추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혁명에서 발전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개념인 자유와 자치는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군사화된 민족국가의 폐지, 그리고 국가의 활성화된 시민의 회의(우리가 봉기에서 마주치는 바로 그 형태)로의 대체를 요구한다. 우리가 영구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낙원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 조직, 직업적 정치인과 “위인”이 아니라 먼저 역사의 가장 중요한 세력으로서 보통사람들을 이해해야 한다.

10) See, for example, the film *The Battle of Chile*.

11) Hegel, *Philosophy of History*, 99, 103.

지정학적 구성물로서 동아시아는 서구 열강의 지배 이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개별 지도자에 대한 역사가들의 물신화는 아시아의 주변화에 더욱 기여했다. 비록 아시아 민중운동이 외국열강에 대한 엘리트들의 타협에 맞선 변증법적 반대로 등장했음에도, 서구적 버전의 역사는 우호적 체제의 역할을 강조한다. 20세기 중반에 미국의 힘은 아주 광범하게 침투해서 뉴저지의 주민 2명(응오딘디엠펜과 이승만)을 각각 미국의 힘으로 창조한 “새로운 국가”, 남베트남과 남한을 통치하도록 수출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초반 광범한 민주적 계층의 대중지도자인 김대중과 베니뇨 아키노는 메사추세츠주 뉴튼에서 망명하던 증 친교를 맺었고, 그들은 자국 사법제도가 내린 사형선고를 피해 거기에 와 있었다. 최소한 한번 그들은 아키노의 집에서 아침식사를 했다.¹²⁾ 김대중은 나중에 남한 대통령이 됐고, 아키노는 과감하게 마닐라로 돌아가자마자 암살당했다. 그날 아침식사를 준비한 사람, 아키노의 암전한 부인인 코라손이 몇 년 안에 필리핀 국가의 수반이 될 것이라고 추측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유럽의 역사에서 아시아의 역할은 여전히 심오하게 중요하다. 최근 1989년 유럽봉기의 경험적 역사를 추적하면, 아시아의 봉기가 유럽에 선행하고 영감을 주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아시아 봉기들은 1989년 동유럽혁명의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것, 심지어 “전지구적 운동에서 중심적인 것”으로 이해됐다.¹³⁾ 중국에서 오는 텔레비전 뉴스보도는 5월 중순 고르바초프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유럽 모든 곳에서 민중들은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내게 말했다: ‘중국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¹⁴⁾ 티아난먼 광장의 시위대에 대한 중국의 탄압이 야기한 공포는 명백히 유럽의 소비에트 지도자들(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를 예외로 하면)에게 평화적으로 정권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다. 중국의 운동은 필리핀과 한국의 선례를 따랐고, 두 봉기(미국의 지배영역 내의 봉기로서)는 중국에서 잘 보도됐다. 체코 대통령 하벨이 1995년 마닐라를 방문했을 때 그는 1986년 민중권력에 경의를 표했다: “여러분의 민중권력 혁명은 우리 자신의 혁명에 영감을 주었습니다.”¹⁵⁾ (다른 많은 사람처럼 하벨은 1986년 반란군이 여러 차례 화력을 사용해 텔레비전 방송국을 장악하고, 정부군 헬리콥터를 공격하고, 심지어 대통령궁 자체를 공격함으로써 필리핀 봉기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현대 동아시아의 주변에서 세계체제 중심으로의 이동은 흔히 경제적 관점에서 이해되며, 아시아가 세계경제 성장의 전면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짧은 몇십년 안에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팽장은 유럽이나 미국의 거대기업에 상응하는 복합 거대기업들을 창출했다. 엄청난 외환보유고로 이 지역은 세계정치를 이끌 위치에 있다. 수십년에 걸친 중국과 러시아의 소비에트 권력에 대한 앵글로-아메리카의 공격으로 냉전시기에 1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폭력적 죽음을 당했다(한반도에서 5백만명, 인도차이나에서 3백만명, 남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칠레, 아르헨티나, 중동 등에서 집계되지 않은 다수 등).¹⁶⁾ 하워드 진 등이 주장한 것처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사망자 역시 냉전 사망자 집계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일본이 원자폭탄의 사용 이전에 미국에 두 번이나 항복을 제안했던 이후로 미국의 핵유린은 2대전의 종결이라기보다 냉전의 개전을 의미했다. 한국과 인도차이나에서 미국의 전쟁에 의한 동아시아 인

12) Interview with Ed Baker, Cambridge, MA, 2007.

13) Edward Friedman, ed., *The Politics of Democratization: Generalizing East Asian Experiences*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4), 24.

14) Christopher Neck, *Actual* (April 1990); *World Journal*, April 6, 1990, 33. Quoted in Edward Friedman, ed., *The Politics of Democratization: Generalizing East Asian Experiences*,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4), 54.

15) V.G. Kaulkarnia and R. Tasker, “Promises to Keep,” *Far Eastern Economic Review*, February 29, 1996, 22.

16) For a summary of U.S. Cold War actions, see William Blum, *Rogue State* (Monroe, ME: Common Courage, 2000). Blum counted sixty-seven U.S. interventions since World War II.

명의 엄청난 희생은 불의 도가니였고, 수천만명의 피난민을 촉발했고 사회적 조건을 아주 철저하게 변화시켜 사회의 궤적과 방향을 바꾸기 위해 유례없이 수백만명이 동원됐다.

공산주의에 대한 미국 전쟁의 파르티잔들에게 동아시아의 민중운동은 세 번째 물결의 민주화 운동의 정점으로서 부각된다.¹⁷⁾ 미국에서 1989년 티아난먼 사건은 당연히 잘 알려져 있지만, 1980년 광주봉기에 대해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다. 그 이유 중 일부는 의심할 바 없이 서구 언론이 중국 공산주의의 내부문제를 폭넓게 보도한 반면 미국의 영향권 내의 사건들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인 의식의 주변에 밀려나 있었다. <로스 앤젤레스 타임스> 기자인 프랭크 기브니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발걸음을 다룬 자신의 책에 “조용한 혁명”이란 제목을 붙였다. 왜냐면 그는 한국의 민주화는 “상대적으로 덜 추적되고 덜 다루어진 사건이며,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는 여전히 서울의 폭동에 관한 짧은 텔레비전 보도와 한국전쟁 회상장면에 의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¹⁸⁾ 그러나 한국의 주변적 지위에는 더 많은 것이 있고, 이는 한국전쟁의 별칭이 “잊혀진 전쟁”이라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1950년 노근리에서 벌어진 미군의 한국인 민간인 수백명 학살은 “한국의 미라이”(1968년 베트남 촌락민의 학살을 따라)로 알려 있지만, 미라이 학살은 한국의 학살 거의 20년 후에 일어났다. 따라서 1980년 광주학살이 “한국의 티아난먼”이라고 부르는 상황에서, 9년간의 시간차는 미국 언론의 주의결핍증을 의미하지 않는가?

유럽중심주의의 맹목성

아시아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편견은 오랜 비극적 역사를 갖고 있다. 아시아인의 탈인간화는 수백만명의 인명을 빼앗은 전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먼저 아시아인을 미국인의 편견증적 환상의 악마로 만들지 않고서 어떻게 그들을 수백만명씩 말살할 수 있을까? “국”(gook: 오물)은 베트남에 있던 수십만명의 미국인들이 사용한 가장 흔한 별칭이었지만, 이 단어는 실제로 한국에 기원을 둔 것이다. 나는 베트남 참전군인들이 순찰을 할 때 처음 해야 할 일은 “친절한 국의 냄새를 맡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다. 친절한 국이란 적의 첩자로 의심되는 남베트남 연락책을 가리키는 말이다. 서구가 동아시아에 가한 인종주의와 군사주의적 야만주의의 혼합 속에서 모든 사람이 탈인간화될 수 있지만, 아시아인들은 유린당했다. 슬프게도, 미국 정책입안자들과 많은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아시아인의 생명은 단순히 미국인이나 유럽인의 생명만큼 가치가 없다.

아카데미상을 탄 다큐멘터리 영화 <마음과 정신>(Hearts and Minds)에서 윌리엄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아시아들은 미국인들과 같은 정도의 가치를 인간생명에 두지 않는다고 뻔뻔스럽게 주장했다. 1968년 베트남 주둔 미군 사령관이었던 웨스트모어랜드의 인종주의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왜냐면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은 미군 사이에서 아주 뿌리깊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인을 “목숨값이 싼” 곳에서 사는 “가장 원시적인 민족”이라고 비하했던 <뉴욕타임즈> 군사 편집자인 헨스 블드윈이나 “개인의 목숨은 동유럽에서 그다지 높게 평가되지 않는다”고 썼던 누렘베르크의 미국측 검사장인 텔포드 테일러를 합리화하는 것이 더 어렵다.¹⁹⁾ 하버드 대학 총장이었던 로렌스 서머스(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는 재임 당시 물려든 학생 대표단에게 1970년 서울에 1백만명에 가까운 아동 매춘부가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 당시 서울에는 어린이가 거의 그 숫자만큼 없었다.** 비록 서머스는

17) Samuel Huntington,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18) Frank Gibney, *Korea's Quiet Revolution: From Garrison State to Democracy* (New York: Walker and Company, 1992), xi.

19) *New York Times*, July 14 and 19, 1950; Telford Taylor, letter to the *New York Times*, July 16, 1950.

나중에 통계를 “잘못 기억했다”고 사과했지만, 한국인에 대한 그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²⁰⁾

서구의 정치지도자들처럼, 막스 베버나 칼 맑스같은 학자들은 극동의 문화를 전제적-봉건적이고, 조직적 성공의 요소를 결여하며 서구문명의 거대담론 외부에 존재한다고 비난했다. 막스 베버는 서구만이 이성적 법률과 이성적인 개인윤리를 안다고 믿었다. 가장 유명하게 헤겔은 오리엔탈 전제주의란 적용범주를 개발했다: “동양인들은 정신이 그 자체로 자유롭다는 지식을 획득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그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은 사람이 자유롭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따라서 그 한 사람은 전제군주이지 자유인이 아니다.”²¹⁾ 세월이 흐르면서 헤겔의 정식화는 계속 반복됐다. 1956년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오양에서 “전제적 형태의 정부가 수천년 동안 규범이었다”고 썼다. 무정부주의자들도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주의로부터 면역되지 못했다. 상냥하고 시적인 무정부주의자 표트르 크로포트킨공도 많은 장점을 지녔지만, <상호부조>(Mutual Aid)에서 경악스런 구절을 보게 된다. “미개인”과 “야만인”이란 단어의 사용은 기묘하게 구식이다. 더욱이 그의 <회고록>(Memoirs)에는 “아시아적 음모”에 대한 완곡한 인종주의적 언급이 있고, 그밖에 “동양적 양식, 혐오스런 방식으로”와 “동양의 여흥은 경멸스럽게 여겨졌다”는 언급도 있다.²²⁾ 크로포트킨이 살던 시대에 이런 편견은 거의 문제삼지 않았음에도 그가 그 편견을 극복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슬프게도, 아시아인에 대한 수많은 공개적 공격으로 증명된 것처럼 그런 편견은 여전히 러시아에 살아있다.

소련에서 공산당 정책입안자들도 비슷하게 아시아인들을 불신했다. 1937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조선과 일본 인근의 동시베리아에 거주하던 약 20만명의 조선인들이 일본을 지지할까 두려워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로 강제이주 당했다. 같은 시기에 많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일본의 첩자가 될까봐 즉결처형 당했다.²³⁾ 심지어 체코의 전대통령 바클라프 하벨 같은 “진보인사들”조차 인종주의적 발언을 했다: 하벨은 별 생각없이 아시아를 전제주의와, 유럽을 민주주의와 동일시했다. 위르겐 하버마스 역시 독일의 “역사가 논쟁”에서 아시아를 악과 연결시켰다.²⁴⁾ 1986년 에른스트 놀테(Ernst Nolte)의 논문은 나치범죄의 독특한 성격에 도전했고, 홀로코스트를 히틀러와 나치가 저지른 “아시아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놀테는 히틀러 일당의 동기를 스탈린의 굴락과 계급학살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돌렸고, 그는 이 역시 “아시아적”이라고 간주했다. 이에 대응하여 하버마스는 나치즘 범죄의 독특성을 부정하는 놀테의 결론에 도전했지만, 이런 반인류적 범죄의 “아시아적” 규정 자체에는 결코 도전하지 않았다. 하버마스가 놀테의 용어를 받아들인 것은 아시아인에 대한 실질적 편견의 일부다.²⁵⁾

심지어 봉기의 합리성을 기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럽중심주의는 130년 이전 파리코뵈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연구 및 과찬과 대조되는 동시에 광주봉기에 대한 무지를 설명하지 않는가? 많은 서구인 사이에서 아시아의 역사에 대한 관심의 부족은 비록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지만,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 간극을 남겼다. 한국의 운동은 미국 활동가들 사이에서 전설적이지만(2003년 칸쿤의 WTO 반대시위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한국운동에 관한 한가지 기본적 사실조차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화염병, 잘 조직된 가두

20) Stephen M. Marks, “Summers Apologizes for Korea Remark,” Harvard Crimson, July 16, 2004.

21) Hegel, Philosophy of History, 18.

22) Peter Kropotkin, Memoirs of a Revolutionist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71), 76, 82, 310.

23) Bruce Cumings, North Korea: Another Country (New York: New Press, 2004), 118.

24) Friedman, Politics, 14.

25) See the discussion in Jurgen Habermas, The New Conservatism: Cultural Criticism and the Historians’ Debate (Cambridge, MA: MIT Press, 1990), xvii.

시위, 활동가들의 자살 등의 이미지는 언론에 나타나지만, 이 운동에 대한 실질적 분석은 거의 없다.

오늘날 더 노골적인 서구 우월성 논리가 작동한다. 많은 분석가들은 시민사회가 유럽에 기원을 두고 있고 최근 몇십년 만에 아시아에 도착했다고 판단한다. 시민사회의 정의를 유럽적 형태로 제한함으로써 그들은 아시아의 비국가적 사회조직, 가치 및 규범의 풍부한 역사를 배제한다. 야만에서 봉건제와 자본주의로 단계적으로 발전한 유럽의 사회발전에 대한 헤겔과 칸트의 이해에 따라 시민사회는 포스트 봉건제의 공적 영역에서 부르주아적 개인의 개화로 이해된다. 오직 이 모델만이 “진정한” 시민사회를 산출했다고 간주될 때, 분석가들은 유럽의 개인과 살롱문화를 물신화함과 동시에 아시아에서 자율적 형태의 시민사회의 존재를 부정한다. (지금은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지리한 논의를 진행할 때가 아니지만, 미국의 도시들이 가족이 해체되면서 불안하고 지저분한 상태이지만, 동아시아인들은 같은 시점에 훨씬 더 자주 안전하고 온건한 공적 공간과 가족의 양육구조를 즐기고 있다는 점은 지적할 만하다.) 서구인들은 아시아 문명의 이점들과 타협하기보다는 너무나 자주 유럽중심주의적 범주를 강요한다. 그렇게 하면서 유럽의 궤적, 특히 개인주의 현상이 보편적으로 바람직하고 또 적용가능하다는 가정을 한다. 하버마스는 시민사회를 오직 서구에서 출현한 것으로(“부르주아적 공적 공간”으로서) 이해한다.²⁶⁾ 그는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현상에서 영원히 가치있는 범주를 창조하며, 이는 죄르지 루카치가 모든 형태의 “부르주아적” 사고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간주한 바로 그것이다.²⁷⁾

서구에서 발전한 시민사회를 이상화함으로써 현대 이론가들은 기업 자본주의에 제도화된 개인의 파괴적 힘을 무시한다. 합리적 선택 이론은 만약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확대하면 전체 사회에 유익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 서구의 이런 행동모델을 유지한다. 경제원칙으로서 “보이지 않는 손”이란 관념은 포스트 봉건제 형태의 창출에 힘을 부여했고 개인적 정치적 권리의 확장을 쟁취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오늘날 그 반대가 되어 억만장자들이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하도록 해방시킨 반면 수십억명은 주변적 삶을 살고 있다. 심지어 실질적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일상생활에 침투한 기업식 “내가 제일” 문화로 영적으로 궁핍화되고 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란 개념의 확장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이어졌고 그 개념을 가장 선호하는 사람들마저 재빨리 거부했다. 완벽한 붕괴를 피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부개입이 전계적으로 필요해졌고, 이는 현대 세계에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의 무용성에 대한 실제적 증거이다. 신자유주의적 “자유시장” 방정식에서 공동의 이익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문구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서구의 편견에 충실한 하버마스 역시 개인주의적 담론을 특권화하고 특정한 형태의 담론(대학 강의실의 담론)을 다른 형태(예를 들어 거리의 대중집회와 시위)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긴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서구의 “합리주의”는 자주 비합리적이다. “서구 철학에서 이성은 고독한 개인들로부터 도출된다.” 그러나 광주봉기 동안 “이성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임을 의식한 인간들에 의해 성취됐다.”²⁸⁾

봉기의 합리성

26) Jurgen Haberm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Cambridge, MA: MIT Press, 1989). See also JaHyun Kim Haboush, “Academies and Civil Society in Chosun Korea,” in *La societe civile face a l’Etat: dans les traditions chinoise, japonaise, coreenne et vietnamienne* (Paris: Ecolefrancaise d’extreme-orient, 1994).

27) Gyorgy Lukacs, *History and Class Consciousness* (Cambridge, MA: MIT Press, 1972).

28) Choi Jungwoon, *The Gwangju Uprising: The Pivotal Democratic Movement that Changed the History of Modern Korea* (Paramus, NJ: Homa and Sekey, 2006), 134.

집단적 풀뿌리 봉기가 사회발전의 핵심요소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역사의 논리는 혁명적 상황에서 수천명 민중의 자기지향적 행동으로 전개되는 합리성 내에서 추적할 수 있다. 거칠게 요약하면 우리는 18세기의 미국과 프랑스 혁명의 지구전에서 1848년 무장한 노동자계급의 무장봉기로, 20세기 초반 집중화된 당이 주도하는 권력장악에서 1968년 분산된 전지구적 반란으로 이행을 목격할 수 있다. 1789년에서 1848년까지 운동의 발전을 1917년에서 1968년까지의 발전과 비교하면, 일상생활에서 다중의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권력투쟁은 명백하게 드러난다. 민족독립에서 노동과 빈곤으로부터 자유까지, 자유에 대한 민중의 비전은 지속적으로 전진했다. 민중투쟁은 점점 더 자기조직화되고 자율적으로 지적으로 됐다.

정치인과 현학자의 입에서 공허한 수사학적 도구에 지나지 않는 “민중이 역사를 만든다”는 명제는 1968년에 살아있었다. 광범하게 다양한 형태의 시위와 정치적 핵심이 아래로부터 터져나왔다. 봉기 내부의 차이들 간의 내적 긴장은 전지구적 운동의 약점을 반영하기는커녕, 그 다양성, 역동적 발전의 내적 변증법, 차별화와 진보를 보여줬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관점의 자유로운 표현은 일부 목적자들에게 1968년 운동이 순전히 부정적임을 의미했다. 겉으로 보기에 모순적이고 때로 심지어 상충되는 이유와 전술로 보이는 것에 보편적 차원이 존재했는가? 투쟁의 많은 측면을 압도적 논리로 묶어내는 해방의 통일적 문법은 존재했는가? 아니면 “포스트모던적 전환”은 봉기를 파편화, 고립, 전체로서의 체제에 대한 도전능력 상실로 귀결했는가?

1968년에 관한 내 책에서 일국적 역사의 단편을 조심스럽게 조립함으로써 나는 운동의 보편적 의미와 논리적 구조를 밝혀냈고, 이는 과거에 일국적 틀에서만 또는 기껏해야 많은 나라에서 투쟁의 선형적 추가로 개념화됐었다. 1968년 운동은 자주관리와 국제주의란 쌍둥이 열망에 기반한 것으로 1968년 5월 프랑스와 1970년 5-9월 미국의 신좌파 총파업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특징이었다. 이 두 격변은 중앙위원회의 “지도”나 엘리트 집단의 허가 없이 일어났다. 1960년대 사회운동은 기존체제와 경쟁하는 참여적 형태의 민중권력을 창출한 보통사람들의 능력에 대한 놀라운 증거를 제공한다. 1968년 5월 프랑스에서는 모든 곳에서 풀뿌리로부터 이중권력의 기관들이 생겨나면서 온 나라가 거의 혁명적 경련을 겪었다. 2년뒤 1970년 5월 미국에서 4백만명의 학생과 50만명의 교직원들이 켄트와 잭슨 주립대의 학살, 캄보디아 침공, 블랙팬더당 탄압에 대응하여 전국적 파업을 선언했다. 다시 한번 어떤 중앙조직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이 파업을 가져오지 않았다. 중앙조직의 부재에도 불구하고(아니면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 민중들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통일된 전국적 요구를 정시공하고 대학을 무기연구와 개발의 수단으로 강제한 군사주의적 체제의 구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다. 1970년 미국의 일국적 배외주의와 인종주의는 국제연대로 부정했고, 경쟁과 서열제 대신에 협동과 평등주의가 민중의 가치가 됐으며, 개인의 출세와 재산축적이 개인의 제일 관심사가 되는 대신에 사회정의와 불평등 완화가 민중행동의 중심이 됐다. 비록 운동이 장기적 목표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수많은 정치개혁을 자극했고 시민사회를 철저하게 변혁했다.

1968년의 전지구적 반란 이래로, 봉기의 물결이 동아시아 독재를 쓸어냈고 동유럽 소비에트 체제를 타도했다. 이때뉴얼 월러스틴, 테런스 홉킨스, 지오바니 아리기는 1989년 운동을 “1968년의 지속”으로 이해했다.²⁹⁾ 아시아 봉기의 물결은 동유럽의 사건들에 선행했고 냉전을 종식시켜려는 세계 지도자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보편적 해방에 대한 신좌파적 추진력은 1980년 광주봉기에서 특히 명백했고, 광주봉기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반란과 봉

29) Giovanni Arrighi, Terence K. Hopkins, and Immanuel Wallerstein, “1989: The Continuation of 1968,” in *After the Fall: 1989 and the Future of Freedom*, ed. George Katsiaficas (New York: Routledge, 2001), 35.

기의 연쇄반응을 촉발했다. 광주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군부를 몰아내고, 도시를 방어하고 통치하며, 자신의 문제를 다루며, 시민군과 시민학생투쟁위원회를 신속하게 조직하고, 범죄와 경쟁없이 생활을 유지한 광주시민들의 자생적 능력은 전설적이다. 해방된 도시에서 수십만명이 참여한 일일 집회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광주의 참여민주주의는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좌파적 비전이 1960년대 유럽과 미국에 특유한 것인커녕 여전히 전지구적으로 봉기에 중심적인 요소로 남아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1871년 파리코뮌은 기존 국민방위군이 긴 복소리에 맞춰 동원되어 통제력을 장악하자 파리코뮌이 성립됐다. 1980년 광주에서 민중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시민군을 조직했고 남한군대의 최정예 부대 수천명을 도시 밖으로 몰아냈다. 해방광주 내에서는 파리코뮌처럼 자유와 민주주의가 민중의 삶의 핵심적 성격을 규정했다. 범죄율은 급감했고 사랑에 기반한 공동체 내에서 협력이 번성했다.

이 운동들이 방출한 에로틱한 에너지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같은 수업을 듣고 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세월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친밀하게 묶는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에 기반한 공동체에서 살고 평화와 정의의 기념개념을 준수하고자 하는 우리의 일차적 동력은 지속적 봉기를 추동하는 카텍시스(cathexis: 심적 에너지가 어떤 대상에 집중함 또는 그 대상)를 창출한다. 광주 이후의 시기에 봉기의 연쇄반응이 동아시아를 휩쓸었다. 1986년 필리핀의 마르코스 독재는 카톨릭 성직계급과 군부 핵심지도자들이 이끈 봉기로 타도됐다. 더 대중적으로 기억되는 것은 군대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거리에 머문 1백만명 이상의 민중들이다. 일단 다수의 군인이 반정부 진영으로 이탈하고 마르코스가 조국을 떠나자, “민중권력”이란 바로 그 단어는 세계에서 그 어디를 지배하더라도 심지어 가장 공고한 독재자들마저 두렵게 하기에 충분했다. 필리핀 혁명은 1987년 6월봉기를 촉발하는 데 기여했고, 이 19일간의 마라톤 항쟁에서 기독교 그룹이 선도적 역할을 했다. 같은 시기에 권력블록을 이동하려는 정부 최고위층 지도자들이 동유럽의 정권교체에 참여할 자, 수백만 민중의 경험축적과 가두투쟁에서 동아시아의 에로스 효과가 발산했다. 이 책의 2권에서 자세히 논했듯이, 1980년대와 1990년대 다른 동아시아 봉기들에는 자율, 직접민주주의와 연대 등 신좌파적 가치의 표현 속에서 전지구적 각성이 이뤄졌다: 버마(1988년), 티벳과 중국(1989년), 타이완, 네팔, 방글라데시(1990년), 태일란드(1992년), 인도네시아(1998년). 2011년 유사한 풀뿌리 동학이 아랍의 봄의 추진력이었다.

이런 봉기의 국제적 성격은 소비에트 유형의 국가 “사회주의”와 서구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적 대안을 드러낸다. 이 봉기들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통제를 집중화하려 했던 과거의 혁명과 전혀 다른 유형의 혁명을 예시(prefigure)한다. 오늘날 반세계화 운동이 표현한 국제연대는 중심적인 핵심조직이 없다. 아래로부터 수백만 민중이 자율적으로 지구의 경제구조를 자신의 전략적 목표로 만들기로 선택했다. 전지구적 경제체제가 영구적 전쟁과 체계적 기아와 빈곤, 생태계 파괴의 근본원인으로 인식한 전세계의 수백만 민중들이 그 체제를 변혁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했다. 엘리트 정상회담에 대항하는 전술의 국제적 확산은 어떤 한 그룹이나 개인의 결정에서 독립한 민중의 직관과 지성의 심화를 가리킨다. 아래로부터 수백만 민중이 자신의 이해를 밝히고 투쟁했다.

직접적으로 민주적인 형태의 의사결정과 전투적 민중저항은 이 해방운동에서 긴밀하게 엮여 있다. 수십만 때로는 수백만 민중의 의식적 자생성과 자기지향적 행동은 사랑하는 투쟁의 공동체가 키워낸다. 민중의 자기조직화는 자율, 연대, 탈상품화의 문법 내에 포함돼 있다. 여러 대륙과 상이한 나라에서 투쟁의 역사는 건널 수 없는 분리선을 가로 질러 병렬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이런 특징으로, 그리고 평화와 정의를 위한 투쟁으로서 민중들이 만들어

낸 연결 속에서 한데 결합한다.

동료 인간과 자유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순간에는 신명이란 전통적인 한국 샤머니즘 의식과 비슷한 형태의 해방이 일어나며, 이는 한(응축된 슬픔)이 풀릴 때 나타나는 집단적 황홀감이다. 서구 개인주의와 대조적으로, 한국 문화는 신명과 한에서 집단적인 감정적 생동감의 독특한 형태를 물려줬고, 여전히 한국인의 자기이해에 중심적이다.³⁰⁾ 한국 사회운동은 그 분출을 통해서 신명의 순간을 자연발생적으로 재생산하며, 민중은 운동의 감정적, 에로스적 핵심을 이해한다. 나의 첫 한국방문 때, 에로스 효과의 개념이 얼마나 인기있는지 알고서 충격을 받았다. 두 번째 방문시 광주 비엔날레 공원에서 시인-활동가 김남주의 새 조각상 제막식에 갔을 때, 나와 비슷한 나이의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웃으면서 다가왔다. 내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카치아피카스, 에로스 효과!”라고 말했다. 이것은 그가 아는 유일한 영어 단어였다.

20세기에 자율적 조직을 창출할 민중의 역량은 자생성과 조직의 관계를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군중지성의 한 사례는 새로운 기술과 전술에 대한 민중의 적응에서 발견할 수 있다. 풀뿌리에서 사회운동의 에너지는 국경을 넘어 메아리치며,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와 더 커다란 힘으로 “메아리 효과”를 자극한다. 어떤 집중화된 조직도 민중권력을 확산하기 위해 조직원을 파견하지 못했지만, 민중권력의 개념은 모든 대륙에 메아리친다. 높은 급여를 받는 훈련교관 없이도 봉기 활동가들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기업 엘리트들이 훈련받는 속도보다 더 빨리 그 기술을 현장에 가져온다. 우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등장하는 기술의 채택은 감시받지 않는 집단성을 형성하며, 여기에 법과 질서의 기성권력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1989년 중국의 팩스에서 1992년 타이랜드의 휴대전화까지 이 현상을 목격했다. 심지어 고도의 탄압을 받는 빈곤한 버마에서도, 2007년 겨우 몇 대의 인터넷 서버 밖에 없어도 민중들은 문자와 블로그, 비디오 이미지를 사용해 상황에 대한 소식을 국외로 알렸다. 아랍의 봄 동안 엄청난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은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계속 서로 연락했고 투쟁을 조율했다.

봉기집단은 형성됐다 해체되고 군중들은 모였다가 흩어지지만, 그들은 과거의 경험에 기반한 사고와 행동을 위한 집단적 역량의 유산을 남긴다. 지도자들은 죽이거나 감옥에 가둘 수 있고, 엄청난 사상을 가할 수 있지만, 꿈과 열망의 공개적 표현은 지속적으로 체제를 침식한다. 민중들은 마음 속으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간직한다.³¹⁾ 민중권력과 에로스 효과의 토대인 민중운동의 이런 지성과 직관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자산 중의 하나다.

20세기 초반의 봉기와 대조적으로 보다 최근의 봉기는 정당이 아니라 시민사회로부터 터져 나왔다. 전통적 지혜가 봉기는 19세기의 것라고 말하지만, 주류 언론은 미래에 대한 묵시론적 비전으로 우리를 폭격한다. 프레드릭 제임슨이 비포아 말한 것처럼,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종말보다는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세기 마지막 몇십년 동안,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세계를 휩쓸었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수십억 독재를 타도했고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적 우주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중의 직관은 학문적 사회운동산업이나 심지어 많은 “짜파” 출판사들이 대량으로 만들어낸 많은 책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가오는 정치적 격변을 예상하는 것같았다. 흔히 조용한 동화로 묘사됨에도, 오늘날 서사적 규모의 투쟁들이 수백만 민중들의 삶을 활성화한다. 라틴 아메리카는 컬럼버스 이래 정치문화적 지형의 가장 중요한 변혁에 휘말리고 있다. 사파티스에서 아레키

30) For Hagen Koo's discussion of shinmyong, see *Korean Workers: The Culture and Politics of Class Forma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145-6.

31) Conversations with Basil Fernando on this subject have been enormously helpful.

파(페루)의 코미나르와 베네수엘라까지 민중의 일상적 삶은 투표, 시위, 그리고 민중봉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정치활동을 통해 개선되고 있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독재를 타도한 것 외에, 아랍세계에 민중권력이 도착해서 이 지역에서 통치자와 피치자 간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았다.

수세기의 운동과 경험의 축적으로 생산된 다중의 지혜는 엘리트의 지혜를 훨씬 능가한다. 평화운동이 방어수단도 없는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 연이어 전쟁을 하는 “위대한” 미국 대통령들보다 평화운동이 더 똑똑하지 않다고 과연 누가 주장하겠는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목숨과 육체의 위험을 무릅쓴 광주의 민중들보다 남한 군부독재자들이 더 현명하다고 과연 누가 주장하겠는가? 누가 우리 인류가 수세대의 노동으로 축적한 막대한 부를 이용할 수단으로서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기업 엘리트의 탐욕을 옹호하겠는가? 우리는 은행과 보험회사 자산의 대안적 사용을 발견할 수 있고 거대기업의 규모를 줄이고 군대의 힘을 해체할 수 있지만, 오직 우리가 보통사람의 힘과 지혜를 믿을 때에만 그럴 수 있다.

엘리트들의 봉기 활용

더 나은 삶에 대한 민중의 열망에서 터져나오긴 하지만 봉기는 엘리트들에게도 유용하다. 지난 몇세기 동안 세계체제를 변혁하려는 모든 시도는 오히려 체제를 강화했다. 미국과 프랑스 혁명은 모두 제국적 정복의 강화로 이어졌다. 러시아 혁명에서 중국혁명까지, 1968년 5월에서 광주까지 봉기의 에너지는 계급제의 부당한 구조를 재할성화하고 새 엘리트로 구조를 채우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전지구적인 반아파트헤이트 투쟁은 로빈 아일랜드에서의 수십년 투옥에서 넬슨 만델라를 석방시켜 남아프리카 최고권력의 지위에 올려놨지만, 그는 가난한 삶을 계속 괴롭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사하게 동아시아의 반독재 봉기는 심지어 자본주의를 반대한 중요한 세력을 포함했어도 IMF와 세계은행이 권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적 남한, 필리핀 등지에서 새 행정부는 외국 투자자들이 과거에 폐쇄된 시장에 침투하고 거대기업들과 은행이 더 많은 이윤을 끌어내도록 수백만 민중의 노동력을 규제하도록 허용하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무바라크는 퇴진했겠지만, 그의 권력을 이어받은 군부 통치자들은 무바라크주의 체제를 안정화했다.

<쇼크 독트린>(The Shock Doctrine)에서 내오미 클라인은 엘리트들이 경제위기를 이용하여 더 총체적인 통제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을 폭로했다. 경제위기는 민중봉기가 만들어낸 위기와 다르지만, 이 두가지유형의 위기는 그림에도 체제 지배와 확장의 도구로 전화됐다. 1968년의 전세계적 반란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지만, CIA는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처럼 민중권력 전술을 제대로 평가하여 이용할 방법을 찾아냈다. 1974년과 1990년대 중반 사이에 60개국 이상이 일정한 형태의 민주주의로 변화했다.³²⁾ 봉기한 민주화운동은 새무얼 헌팅턴같은 이론가들을 변화시켰고, 그가 “민주주의 질병”(미국에서 반전시위의 원인으로 너무 많은 민주주의라는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에 대한 비난을 철회하고 민주주의 찬가를 부르도록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했다.³³⁾

봉기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심지어 이윤을 뽑아낼 수 있는 체제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봉기를 단순히 실패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독재와 비복해, 민주적 정부는 반문화 공간 같은 새로운 기회를 포함한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승리, 남아프리카에서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 미국 인종주의와 성차별의 축소,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확대의 추구는 모두 수백

32) Alagappa, Civil Society, 3.

33) See Asia's Unknown Uprisings Vol. 2, chap. 1 for a critique of Huntington.

만 민중에게 더 나은 삶을 창출했고, 미래의 투쟁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다. 기본적 기준은 봉기가 민중의 일상적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 봉기 후에 등장하는 특정한 정부 또는 전체 체제의 변화에서 실패를 기준으로 사회운동을 판단하는 것은 모든 과거의 시도를 비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쟁취한 자유와 번영을 폄하하는 것이다. 우리가 현실주의적이라면, 운동이 민중의 삶을 개선하고 과거에 오직 닫힌 문만을 경험했던 하층집단에게 문을 열고 보통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자유를 쟁취한 방식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봉기의 영향에 대한 보다 냉소적 독해는 정치학자들이 민주화에 관한 대량의 서적을 생산하여 심어주는데, 그 책들은 권위주의로부터 엘리트 주도 이행을 강조하고 그럼으로써 보스턴에 겨울이 오는 것과 같은 정도로 확실한 철의 법칙으로 엘리스 지배의 불가피성을 제시한다. 심지어 1987년 남한처럼 민주화의 핵심요소가 민중봉기인 경우에도, 미국의 주류문헌의 대부분은 민주화 이행을 엘리트들이 주도했다고 간주한다.³⁴⁾

다가오는 한국의 물결

한국의 풍부한 역사, 그리고 보다 최근에 한국 활동가들이 칸쿤과 홍콩 시위에 참여한 모범을 고려하면, 세계운동에서 한국의 미래 역할은 어떠할까? 비록 잘 알려져 있지 않아도, 20세기의 마지막 20년간 일어난 일련의 동아시아 봉기는 오늘날 인류의 축적된 부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비인간적인 신자유주의 체제와 전쟁체제에 반대하는 전지구적 운동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유산을 남긴다. 광주 이후 동아시아 반란의 불협화음은 라틴 아메리카와 다른 곳의 새롭고 봉기와 더불어 광범하고 지속적인 반기업-반전 공세로 이어질까? 조화로운 전지구적 봉기로?

21세기에 사회의 변화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변화하는 정세에 적응할 우리 운동의 역량도 그래야만 한다. 전술과 타겟을 혁신할 역량을 결여하면, 혁명은 위축되고 또는 심지어 반대의 것으로 전화된다(미국과 소련 모두에서 그랬던 것처럼). 참여적 경향과 나란히 사회운동의 역사도 민중봉기를 희유하고 순응시키고 팔아먹은 역사이기도 하다. 지도자의 얼굴이 바뀌지 않은 하향식 그룹이 조직한 의식적인 시위는 더 이상은 “대중들”을 거리로 모아내는 데 충분치 않다. 명백히, 레닌주의 유형의 정당처럼, 견고한 엘리트들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운동의 개량주의를 초월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운동들은 보편적 비판과 자율적인 자치역량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의 역사는 되풀이해서 위기의 순간에 “레닌주의” 엘리트들의 보수주의를 묘사한다.³⁵⁾

1968년 이래 유럽의 봉기운동은 상품체제의 주변에서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한 피난처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주변적 중요성 밖에 없어 보여도, 아시아의 시민사회는 비슷한 자원이다. 특히 한국의 시민사회는 과거의 독재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지리한 17년 투쟁을 지속했고 운동의 동원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촉진자였다. 이런 대항 헤게모니적 공간에서 사람들은 아무리 일시적이라도 끊임없는 현금 흐름의 강제와 자의적 형태로 강제되는 지배로부터 단절을 경험한다. 어떤 국가 또는 정당에 기반하지 않는 초국가

34) See Democracy in Korea: The Roh Tae Woo Years (New York: Carnegie Council on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1992).

35) For the role of the French Communist Party in May 1968, see my The Imagination of the New Left : A Global Analysis of 1968 (Boston: South End Press, 1987). For the Italian Communist Party in 1977, see my The Subversion of Politics: European Autonomous Social Movements and the Decolonization of Everyday Life (Oakland: AK Press, 2006). See also the discussion of Thailand in Asia's Unknown Uprisings Vol. 2.

적 시민사회의 건설로 새로운 사회가 가시화된다.

전지구적 변화를 요구하는 외침은 죽기는커녕 날마다 증폭된다. 간헐적 언급 외에 CNN과 주류 언론에서 거의 보이지 않지만, 전세계의 수백만 활동가들은 끊임없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 심지어 이라크에 대한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2003년 2월 15일 전세계적으로 1,300만명이나 되는 살함들이 거리로 나서 전쟁시도에 항의했다. 유럽사회포럼의 호소에 응해 어떤 중심그룹도 없이 이 시위들은 조직됐다. 겉으로 보기에 주변화돼 있지만, 오늘날 전지구적 운동에 우리 인류의 역사적 진화의 어떤 다른 시점보다 더 많은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전략적 역량을 더욱 인식함에 따라, 우리의 미래 충격은 확실히 더욱더 동기화될 것이다. 오늘날 인류의 다중은 우리 자신의 동학을 활성화하며, 미래로 투사할 수 있는 경향은 전지구적 에로스 효과를 향한 것이다. 거기서 민족, 인종, 나이, 성과 언어의 경계를 넘어 동시적 투쟁이 분출할 것이다.

한국의 풍부한 봉기의 역사는 나머지 세계에 제공할 것이 많은 인적 자원이다.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봉기들은 상당히 다르며 전혀 다른 담론의 우주를 형성한다. 1948년 제주 봉기는 확실히 세부사항까지 중앙에서 조직된 반면, 1980년 광주봉기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 관여한 그 누구의 꿈(또는 악몽)을 넘어 확산됐다. 확실히 광주와 제주봉기는 둘다 국제적 거석, 즉 오늘날 모든 곳에서 지배적인 기업/정부권력의 총자본(Gesamtkapital)에 의한 한국적 삶-세계 침투에 반대했지만, 그 차이는 구좌파의 집중성과 신좌파의 자생성 간의 분리를 반영한다. 2008년 촛불시위는 전사회가 탈군사화된 공간으로 되는 새로운 유형의 운동으로 이어졌다. 과거에게서 배운 교훈이 뭔가 가리킨다면, 이 운동들은 바로 광주의 민주광장에서 뿌려진 피의 희생으로 그랬던 것처럼 민주적 토론을 위한 점거중심지를 창출할 수 있을 때 번성한다. 미국의 시민권 운동은 일정한 형태의 인종주의를 제거하는 데 기여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위엄을 가져왔다. 경제적 정의와 평화를 위한 다가오는 전지구적 투쟁은 민족적 정체성이 무엇이든 인간을 평등한 존재로 형성할 것이다.

21세기 초반 한국의 물결, 즉 한류는 한국문화의 미술적 매력과 보편적 호소력의 한 지표이다. 한류는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세련된 생산물이 누리는 격한 인기로 이해하지만, 1980년대 민중운동, 일본과 미국이 강제한 습막히는 독재를 단호한 저항으로 타도한 수천명 민중의 희생에 한류의 기원이 있다. 일단 검열과 공포를 이기면, 보통사람들의 창조성과 표현정신은 위대한 예술작품을 생산했고 대중문화를 한국의 장기 20세기 관통하는 자유투쟁에서 결정화된 전지구적 동학과 결합시켰다.

[번역] 조지 카치아피카스,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1권

조지 카치아피카스, George Katsiaficas,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Asia's Unknown Uprisings,
1권: 20세기 남한의 사회운동 Volume1: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in the 20th Century

2장 한국의 세계체제 편입

전통과 현대 | 한국 시민사회의 복원력 | 1894년 농민전쟁 | 일본의 정복 | 1919년 3월: 한국의 독립봉기 | 봉기에서 무장투쟁으로

한국인의 정신과 마음은 모든 사물(곰, 귀뚜라미, 꽃, 집, 강, 산)의 본성에 거주하는 혼령, 밤에 돌아다니는 귀신과 도깨비, 주술을 거는 무당, 주술사 무당의 시끌법적인 체화로 마음과 몸을 통일시키는 이단 여성에게 맞춰져 있다. 이것은 내장에 연결된 인간의 마음이고 자연 환경과 접촉하는 몸이며, 거기에서 미신, 직관, 계시, 통찰력, 광기,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가 나온다. 그것은 한국의 순수한 전통이며, 노래, 시, 춤, 꿈, 감정을 융합하며, 감각을 잘라내고 열정의 불꽃을 막는 모든 시도에 저항한다. 서구 합리주의자로서 나는 한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 브루스 커밍스

한국사의 주요 연표

1392-1910년	조선왕조
1592-1598년	이순신 거북선 건조하여 일본침략을 물리침
1866년	미국함선 제너럴 셔먼호 평양 근처에서 불타서 가라앉음
1871년 6월 10일	미국, 조선을 공격함
1894년	갑오농민전쟁(동학), 원주민 운동 패배
1894년 9월 15일	일본 평양 약탈
1894년 11월 21일	일본의 루순항(Port Arthur) 학살
1895 10월 8일	일본인 폭력배 민비 살해
1905년 5월 29일	러일전쟁에서 일본 러시아 격파
1905년 7월 29일	미일간 태프트-카츠라 비밀조약으로 일본의 한국지배 승인
1909 10월 29일	안중근 의사 일본총리 이토 히로부미 암살
1910-1945년	일본 공식적으로 조선 합병
1919 3월 1일	일본 식민주의에 맞선 전국적 비폭력 봉기
1919 4월 10일	상하이에서 조선임시정부 수립
1919 5월 4일	중국 독립운동 시작
1929년	원산 총파업과 광주 학생운동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 중국주둔 일본군 사령관 암살
1937년 12월 13일	난징학살 시작, 20만명 이상 중국인들이 살해됨
1941년 12월 7일	일본 진주만 공격
1945년 8월	미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사용함
1945년 9월 2일	일본의 항복으로 2차대전 종전

1945년	승전 연합국 “임시적으로” 조선과 베트남 분할
1945-1948년	남한 미군정
1945-1950	10만명의 남조선인 미군점령과 민족분단에 맞서 투쟁하다 사망

20세기 한국의 어떤 역사도 민중의 자부심 강하지만 부드러운 혼, 기독교 의례에서 사머니즘 의식에 이르기까지 한국적인 모든 것에서 표현되는 내적 영성과 열정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한다. 나에게 한국을 아는 것은 한국의 문화 및 문명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자, 사람들 간의 겸손한 연결을 인정하는 사정의 공동체적 성격을 경험하는 것이다. 피폐한 나라의 근대화를 돕기 위해 고향을 떠난 수백 명의 1960대 미국 평화봉사단 자원자 누구에게나 물어보라. 그들의 외로운 여행은 평생의 관계로 바뀌었다. 브루스 커밍스처럼, 한국학을 전공한 거의 모든 현대적 인물들은 처음에 정부나 종교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되면 이 나라와 문화에 반해서 자기 삶을 거기에 바치기로 선택했다.

한국과 친밀하게 되고 대지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곳 삶의 어떤 측면, 예를 들어 유교윤리에 아주 중심적인 서열제의 손쉬운 수용이나 여성을 열등한 지위에 종속시키는 뿌리 깊은 가부장 권력 때문에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 한국은 중국보다 더 유교적인 나라라고 하며, 심지어 기독교인조차 “기독교 옷을 입은 유교도”인 곳이다.¹⁾ 음양의 상징이 한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속적 상징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모순적 요소의 동시적 존재가 아주 흔하기 때문이다. 유교적 가부장제는 연장자와 남성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특히 학자들을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과 여성에 비해 높은 지위를 부여한다. 이 틀 내에서, 유교적 예정의 바로 그 젊음이 일련 공적 안전을 보증하며 도시 미국인들에게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두려움 없이 젊은 여성들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검은 것과 흰 것”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보통 달콤한 요리를 신맛을 곁들여 먹는다. 베트남에서(미국 측에서) 싸운 군인들 가운데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져 있는 한국인들은 요즘 신부를 구하기 위해 수백 명씩 베트남으로 간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을 우주를 인식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 이상으로 음양의 정체성은 외국인의 눈에 한국의 이미지가 구조화하는 모순적 방식을 가리키기도 한다. 많은 일본인과 미국인들을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 게으른 시골뜨기로 지칭하지만, <포춘>지는 1977년 전혀 다르게 평가했다: “한국인들이 이해하는 일은 결코 곤란이 아니다. 그것은 가족과 민족을 돕도록 하늘이 준 기회다. 효도가 노사관계까지 확장된다는 사실은 미국인들에게 더욱 놀라운 일로 다가온다.”²⁾

한국의 젊은이들은 역할과 공간을 조심스럽게 부여받고 그 내에서 성장해서 성숙해 질 수 있다. 모든 사람은 교육을 통해 자신을 계발하도록 격려받고 공부에 대한 욕심은 너무나 강해서 학생들은 교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심지어 일요일과 방학을 희생하기도 한다. 한국 가정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한 지위상승에 아주 열성이어서 고등학생들은 10시 이후에 집에 갔다가 오전 8시 이전에 숙제를 제출할 준비를 하고서 학교로 돌아간다. 체벌도 여전히 적절한 규제의 수단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진다.

1) Koh Byong-ik, “Confucianism in Contemporary Korea,” in Confucian Traditions in East Asian Modernity: Moral Education and Economic Culture in Japan and the Four Mini-Dragons, ed. Tu Wei-m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2) George Ogle, South Korea: Dissent Within the Economic Miracle (London: Zed Books, 1990), 76. The less complimentary assessment is from Bruce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New York: Norton, 1997), 300.

커다란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래전망은 명백히 제어하기 힘든 반도의 분단 내에서 제한된 상태이다. 대부분의 남한인들은 번영과 힘겹게 쟁취한 민주적 자유를 누리지만, 새로운 보수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얻은 정치적-경제적 성과를 침해하겠다고 위협한다. 국가수립 이후 처음 25년간 북한은 남반구 민중들이 부러워하던 모델이었다. 1950-1953년 전쟁에서 미국이 거의 모든 건물을 파괴한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은 진전되어 막대한 다수에게 혜택을 준 반면, 남쪽에서는 미군당국의 부추김으로 과거의 일본 협력자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했고 보통 시민들에게 수십 년 간의 곤란을 강제했다. 소련 사망 이후 북한의 경제는 정체했고, 오늘날 전통적인 남부의 곡창지대와 단절된 북한은 자국민을 거의 먹여 살리지 못한다. 남쪽에서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번영을 가져왔고 중산층은 엄청나게 성장했다.

남한의 선진적 현대사회는 최근의 과거와 극적으로 대비된다. 19세기 초반 노쇠한 조선왕조는 백성을 거의 먹여 살리지 못했다. 공식적 인구조사 수치에 따르면 인구는 1804년 7,561,403명에서 1837년 6,755,280명으로 줄었고, 10퍼센트 이상 감소했다.³⁾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어려워서 1784년에만 50만 명이 기아로 죽었다.⁴⁾ 1872년 수만명이 다시 굶어 죽었지만, 농업생산은 증가했고 19세기말 조선의 인구는 거의 1,300만명으로 증가했다.⁵⁾

전통과 근대

1853년 일본은 미국 윌리엄 페리 제독의 명령으로 미국 대포의 위협 아래 일본경제에 대한 서구의 침투를 허용해야만 했다. 그 이후 몇십년 동안 조선은 자랑스럽게 독립을 유지했지만, 조선내 협조주의 세력의 지원을 받은 일본의 현대적 군사력은 과거 수세기 동안 일본이 이루지 못한 것, 즉 반도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조선을 아시아 본토의 정복을 위한 디딤돌로 이용하는 과제를 이뤄냈다. 수세기의 한국역사는 일본의 침략에 대한 저항의 전설적 일화들로 가득 차 있다. 거의 모든 한국인들은 16세기 일본 침략자들에게 일격을 가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한 논개의 이름을 알고 있다. 상당한 미모를 갖추고 재능있는 춤실력을 갖춘 논개는 일본군이 경상남도 진주에 들어오자 일격을 가할 기회를 기다렸다. 일본군 장수를 은밀하게 유혹한 그녀는 그를 껴안고 절벽 위에서 강으로 뛰어들었다. 일본의 침략을 격퇴한 불교 승려부대에서 1592년에서 1597년까지 모든 전투에서 일본을 결정적으로 격퇴한 이순신과 거북선까지, 어떤 한국의 어린이도 일본에 대한 저항의 역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의 자랑스런 독립전통과 나란히 노예적 굴종과 배신, 귀족계급의 궁정지배와 민중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의 평행적 역사가 존재한다. 불평등과 궁핍의 오랜 역사는 한국인들에게 수세기에 걸친 상처에 대한 마음깊은 기억을 남긴다. 한국인들의 영적 존재감은 한이란 개념 이외에 다른 더 나은 준거점이 없다. 시인 김지하는 한을 “민중의 화나고 슬픈 감정이 내적으로 향해 굳어져 마음 속에 고착된다”고 설명한다. “한은 사람의 외향성이 봉쇄되고 오랜 기간 외적 억압과 착취로 압력에 가해져서 생긴다.”⁶⁾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다:

3) Ingeborg Gothel, *Geschichte Sudkoreas* (Berlin: Deutscher Verlag der Wissenschaften, 1988), 9.

4) John K. Fairbank, Edwin Reischauer, and A. Craig, *East Asia: Transition and Transform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1976), 322.

5) James Palais, *Views on Korean Social History* (Seoul: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1998), 11.

6) Tong Hwan (Stephen) Moon, “Korean Minjung Theology: An Introduction,” in *Korean-American Relations at Crossroads*, ed. Wonmo Dong (Princeton, NJ: The Association of Korean Christian Scholars in North America, 1982), 17.

“한은 실수나 불운으로 야기된 억압의 짓눌리고 쌓여 응축된 경험이며, 따라서 한은 사람의 영혼에서 일종의 ‘종양’을 이룬다.”⁷⁾ 대부분의 평민들이 겪은 끔찍한 상태를 고려하면 양반(귀족 엘리트)에 대항한 민중봉기는 귀족들에게서 일본의 지속적 침략에 저항할 힘을 빼앗아 버렸다.

특히 부와 권력의 엘리트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반도의 남동쪽 구석인 전라도 지역에서 궁주의 특권으로부터 주변화는 반항과 한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한 토착문화적 형태가 발생하는 데 기여했다. 판소리 음악과 가면극은 배우들이 한을 분출하고 기성권력을 비판하는 도구가 됐다. 9세기경 전라남도의 완도지방에서 평민 장보고는 대항권력을 세울 수 있었다. 완도의 자유로운 민중은 평등주의적 원칙에 따라 삶을 영위했고, 일본, 중국, 아랍세계를 포함한 먼 나라들과 광범한 교역관계를 맺었다. 같은 시기에 선불교가 전라도에 뿌리내렸고 중국의 발상지보다 급진적인 변형을 겪었다.⁸⁾ 고려시대(록슬리의 로빈이 셔우드숲을 배회했을 때와 같은 시대)에는 한국의 로빈훅 홍길동처럼 풀뿌리 저항이 전설의 형태로 남아 있다.

1886년 3대 세계열강이 조선에 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 프로이센 상인 에른스트 오퍼트나 일군의 함대를 거느린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함대 사령관도, 미국전함 제너럴 셔먼 호도 은자의 왕국의 문을 부수지 못했다. 프랑스군은 상륙했다가 격퇴당했고 프로이센인들을 서둘러 탈출했고, 미국 전함은 평양의 대동강에서 정박했다가 불태워져 파괴당했다. 워싱턴은 아시아의 미국전함들에게 침략을 명령했고, 파리로빈과 같은 해인 1871년 팔로스호와 모노크라시호가 이끄는 26척의 선단이 600백명의 부대를 강화도에 상륙했다. <뉴욕헤럴드>가 이름붙인 것처럼 “이도교와의 작은 전쟁” 이후에 미군의 원정대 사령관은 조선인의 용기를 “다른 어떤 민족도 거의 대적하지 못하고 결코 능가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칭찬했다.⁹⁾ 하지만 아무도 미국인들과 말하려고 하지 않았고 미국인들은 물러나야 했다.

한국 시민사회의 복원력

천년 이상 동안 겨우 세 개의 왕조가 한반도를 지배했다. 이웃 중국에서 제국적 가문이 등장하고 몰락하는 동안, 그리고 일본이 혈족간 전쟁으로 황폐한 동안, 한국은 외국인들의 접근을 저지하는 한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많은 서구 학자들은 한국이 민주주의의 역사가 없으며 시민사회는 단지 20세기 후반에 시작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오랜 자율적 형태의 합의제 의사결정이나 중앙집중화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모순된다. 양반폭정 및 왕명과 나란히 마을공동체는 합의제로 운영됐다. 마을의 필요를 조율하기 위해 대표자들도 선출했고, 일상적 형태의 협력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따라 이뤄졌다. 마을 사람들은 두레를 통해 자율적으로 서로 노동을 공유했고, 이는 중요한 지속적인 이웃간의 유대였다. 민중극은 기성권력을 조롱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동시에 집단적 유대를 강화했다. 통치당국의 규제권한을 넘는 야면적 의례는 더 고귀한 힘을 촉발해 민중들이 삶을 유지하고 민중들에게 힘을 부여했다. 집수리와 농업노동에서 노래와 춤, 연극까지 모든 것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장구한 형태의 상호부조는 오늘날까지 도시인 광주에 살아남았고, 거기에서 이웃과 친구들은 모여서 김치를 담고 협동조합의 일부로 바닷가에서 신선한 굴을 사거나 긴급한 문제를

7) Hyun Young-hak in *Minjung Theology* (London: Zed Press, 1983). Quoted in Yayori Matsui, *Women's Asia* (London: Zed Books, 1989), 140.

8) Lee Jae-eui, “Operation Fascinating Vacation,” in *The Kwangju Uprising: Eyewitness Press Accounts of Korea's Tiananmen*, eds., Henry Scott-Stokes and Lee Jae-eui (Armonk, NY: ME. Sharpe, 2000), 38.

9) Kim Han-kyo, ed., *Studies on Korea: A Scholar's Guid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0), 56-1. Quoted in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98.

정리해서 해결하기 위해 마을 대표자모임을 규칙적으로 갖는다.

그런 수많은 전통은 한국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에 온 미국인들, 특히 미국무부와 평화봉사단의 후원으로 도착한 정부 관리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선생 중 한명이 그리고리 헨더슨인데, 그는 미국정책의 최고 설계자로서 한국과 워싱턴을 오가며 18년 이상을 보냈다. 많은 동시대인들처럼, 헨더슨은 단순히 봉건유럽과 미국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범주를 한국에 대입시켰지만, 그는 한국이 “마을과 왕궁 사이에 강력한 기구나 자발적 연합을 결여한 사회, 성곽도시, 봉건영주와 궁정, 준독립적 상인협회, 도시국가, 길들 또는 정치에서 독립적 입장과 행동의 중심지가 되기에 충분히 응집력을 갖춘 계급을 거의 알지 못하는 사회 ... 사회관계의 특징이 부정형성 또는 고립인 사회”라고 생각했다.¹⁰⁾ 헨더슨이 빠진 것으로 생각한 사회적 차원은 한국의 과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장보고의 준독립적 상인사회나 19세기말 농민운동의 계급정치(동학)이 그 예다. 한국의 사회적 관계가 고립성의 특징을 갖는다는 헨더슨의 주장은 일상 생활의 뚜렷한 공동체적 특징을 인식하는 데 실패한다. 헨더슨은 유명하게 “패턴의 지속성”과 모든 것을 중앙으로 몰아가는 중심권력의 “소용돌이”를 찾아냈다. 비록 이 동학을 독특하게 한국적인 것으로 간주하지만, 비슷한 중앙집중화는 권력이 거의 전적으로 파리에 집중된 프랑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헨더슨은 “1880년에서 1910년까지의 시기로 추적할 수 있는 명백한 형태”의 소용돌이 패턴과, “그 변혁과 확장”을 후기 일본에서 미국의 첫 20년까지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¹¹⁾ 따라서 “단일한 권력지향적” 한국에 대한 그의 “치유책”은 미국식 근대화였다. 기묘하게도 그는 이 시기가 바로 자본의 점증하는 집중화의 시기였고, 동시에 조선인들이 일본과 미국 열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했던 시기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소용돌이”이며 외국의 제국세력이 추동한 소용돌이였다.

헨더슨은 대항권력은 전통적으로 조선국가 내부에 존재했고, 특히 “화백이라 불리는 최고평의회가 (비상속적) 왕위승계를 결정했고 때로는 왕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중앙평의회의 각 요소의 중요성을 반영한 토론은 만장일치로 귀결되는 방식이며, ‘단 하나의 불일치도 특정한 문제에 대한 토론을 종결시켰다.’”¹²⁾ 헨더슨의 이런 묘사는 최고 평의회의 어떤 불일치가 토론을 종결할 것이라는 생각에 어떤 유럽의 군주로 분노로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튜더왕조의 헨리 8세가 다섯명의 부인을 어떻게 했는지 의문을 가져보면 된다. 헨더슨을 비방목(익명의 항의쪽지를 걸어놓는 나무), 권당(유교 고등교육기관 학생들이 불만사항에 대해 주의를 끌기 위해 파업에 들어가는 행위), 신문고(법적 소송을 요구하며 두드리는 북) 등 유교적 항의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¹³⁾ 현대화의 침투 이전 여러 세대 동안 전통적 네트워크는 경쟁적 폭력만큼 협동적 불일치를 통해 권력을 행사했다. 서구와의 바로 이런 차이는 한국이 일상생활이 외국인과 한국인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매력적인 핵심적인 이유이다. 한국인들은 집단 속에서 어떻게 번성할 수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고, 동시에 칭찬과 비판을 제시하는 데 뛰어나다. 심지어 미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한국인의 소기업들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로 돈을 빌려주는 독특한 방법을 이용한다. 이런 시민적 원천은 단순히 금융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금융적 이익의 극대화보다 명예로운 행동과 의로운 행위가 더 중요한 사회제도 속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수세대 동안 살아온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10) Gregory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4.

11) Ibid., 5.

12) Ibid., 22.

13) Chung Chai-sik, “Confucian Tradition and Nationalist Ideology in Korea,” in South Korea’s Minjung Movement: The Culture and Politics of Dissidence, ed. Kenneth Well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5), 71.

1700년경 양반들이 고위 정부관리가 되는 공무원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민간 아카데미인 서원들이 아주 번성해서 중국 전체보다 조선에서 서원이 더 많을 정도였다. 서원의 숫자는 모두 약 600여개에 이르렀다. 지역의 후학들을 거느린 특정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서원은 “추론하는 대중”의 중요한 원천을 이뤘다.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율적인 서원들은 공적 영역 또는 시민사회의 중간 기관의 일부였다.¹⁴⁾ 농촌의 학자들은 자주 국가와 민중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했고 전통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였다.¹⁵⁾

토착적 정치구성체는 연합과 연방제였지, 중앙집중화된 제국이 아니었다. 조선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반복적 문제는 외부의 침략이었고, 그로 인해 권력의 집중화는 가속화되고 강화됐다. 비록 천문학 기호가 새겨진 BC 3000년 경의 돌멘이 발견됐지만, 최초의 한반도 왕국(조선 또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은 “모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BC 2333년에 세워졌다. 기원후 첫 밀레니엄에 4백년간 중국지배를 물리친 다음 한반도는 삼국 왕조 시대에 들어갔고, 신라, 백제, 고구려 간의 상이한 권력형태와 전쟁의 특징을 가진 시대였다. 384년 한반도 서부[동부]의 백제왕의 불교 채택은 코스모폴리탄적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 세기들 동안 한반도는 다양한 예술적 형태와 문화적 표현을 본거지였다. 677년 신라가 마침내 반도를 통일하는 데 성공했을 때, 패배한 백제 귀족들은 남해와 동해 쪽으로 피신해 일본 해안에 이르러 일본의 현재 천황에 이르는 왕족계보를 세웠다.¹⁶⁾ 9세기에 백제 출신의 한 화가는 “일본 최초의 기억할 만한 화가, 예를 들어 최초로 풍경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화가”로 칭송받았다.¹⁷⁾ 그 이후의 시기에 조선인들은 일본문명에 선진적 도자기 기술을 유입시켰고 부처의 가르침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일본과 중국의 지역적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조선은 내향적으로 전환했고, 토착전통이 번성했다. 8세기 초반 목각인쇄를 이용해 불교경전을 인쇄했고, 이 인쇄기술은 1251년 81,258개의 목판활자를 사용한 Tripitaka Koreana의 기념비적 출판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문화적 진보는 일본의 정복 이전 거의 1,500년 동안 겨우 세 왕조가 통치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반도의 고립과 공유하는 문화는 안정과 단일성의 조건이 됐으며, 경쟁과 반란의 조건이기도 했다. 신라는 이후 왕조들보다 더 평등한 토지분배 제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힘은 아주 막강해서 심지어 8세기 장보고의 평민 거주지(enclave)도 결국 압도당했다. 신라의 수도인 경주는 1백만명의 주민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훌륭한 천문관측대와 세계 최초의 목판인쇄 서적을 포함한 지식의 육성은 전설적이었다. 1947년 바그다드 출신 역사가 압둘 하산 알리 빈 후세인 알마수드는 경주에 왔던 소수의 이라크 출신 이방인들이 거의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그 곳의 공기는 아주 건강에 좋고, 물은 아주 순수하고 토양은 아주 비옥하며 모든 물자가 아주 풍부하다.”¹⁸⁾

10세기경 요새화된 도시지역은 실질적으로 신라로부터 일정한 자치를 확립했고, 이는 헨더슨이 찾을 수 없었던 성곽도시의 실질적 사례다. 연이른 반란은 신라를 내부적으로 약화시켰고, 고려왕조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고려의 수도 개성의 중심부에는 1천년 이상의 역사를

14) JaHyun Kim Haboush, “Academies and Civil Society in Chosun Korea,” in *La société civile face à l'Etat: dans les traditions chinoise, japonaise, coreenne et vietnamienne* (Paris: Ecole-française d'extreme-orient, 1994). See also John Duncan, “The Problematic Modernity of Confucianism,” in *Korean Society: Civil Society, Democracy and the State*, ed. Charles Armstrong (London: Routledge, 2002).

15) Cho Hein, “The Historical Origin of Civil Society in Korea,” *Korea Journal* 37, no. 2 (Summer 1997).

16) See Wontack Hong, *Baekje of Korea and the Origin of Yamamoto Japan* (Seoul: Kudara International, 1994).

17)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30.

18) Hermann Lautensach, *Korea: A Geography Based on the Author's Travels and Literature* (Berlin: Springer: 1945). Quoted in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37. “Masuid” referred to by Cumings is Abdul Hassan Ali bin Hussein al-Masoud, sometimes called the Herodotus of the Arab world.

가진 대학인 성균관이 있었다. 고려의 가장 위대한 예술적 업적 중의 하나는 도자기 기술, 특히 세련된 청자이며, 또 다른 것은 대작인 불교 인쇄물인데 지금은 극히 일부만 한국에 남았다. 고려 왕조 말기에 노예반란이 중요해졌다. 1198년 만적이란 이름의 노예지도자는 추종자들에게 노예명부를 불태우라고 호소했고 그들은 대신이나 장군들과 동등하게 됐다.¹⁹⁾ 1231년 몽골의 정복이란 재앙이 한반도를 덮쳤다. 온 나라가 유린당했다. 수천명의 여자들이 납치 당했고, 10살 이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학살 당했고,²⁰⁾ 기아가 광범하게 퍼졌다. 몽골이 반도를 지배한 반 세기 동안 몽골인들은 한반도를 실패한 일본정복의 기지로 이용했다. 그들은 전부 수십만명을 사람들을 납치했고, 어떤 추정에 따르면 200만명에 이른다.²¹⁾ 중국에서 명나라가 몽골의 지배를 전복한 이후에야 한국의 전사들은 반도에 대한 통제권을 탈환했다. 고려의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1234년 금속활자를 이용해 50권의 교재가 출판됐고 이는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보다 2세기 이상 이전이었다.²²⁾

1392년 고려[고구려] 장군 이성계가 조선, 즉 이씨 왕조를 세웠고 그의 후손들은 20세기 일본의 정복 때까지 권력을 유지했다. 이성계는 수도를 한양(서울)로 옮겼고, 신유교를 설파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중국황제의 가신이 됐고 이로써 조선은 중국의 조공국이 됐다. 신유교적 사회질서의 최상위에는 양반계급이 있었는데, 이 귀족들은 평민들의 진입을 배제하면서 서로 권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다. 정부 공직에 들어가는 국가고시는 집요하게 유지됐다. 고려시대의 유물인 일종의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었다. 귀족들이 최정상에 있었고, 중간계급인 중인과 평민들(상인, 군인, 농민)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 사다리의 바닥에는 천민(outcasts: 부랑자와 노비)이 있었는데, 이 계급에는 광대, 기생, 인형극 장인, 유랑 배우, 불교 승려와 여승, 무당과 범죄들이 속했다. 아프리카 노예와는 달리 이 천민들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소유하지 않았고 사고 팔 수도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행사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의 전적으로 자치적이었고 이 기능으로 상당한 내부적 민주주의를 행사했다.”²³⁾ 토지는 국왕의 소유였고, 국왕은 토지를 총애하는 양반에게 나눠줬다. 고려처럼 도자기 예술은 세련됐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뛰어난 예술성으로 유명했다. 헨더슨이 조선왕조에서 “가장 강력한 비정부 조직”이라고 불렀던 강력한 상인길드는 강력한 유대로 묶여있었고, 상인들은 서로를 “형”, “삼촌”, “조카” 등으로 불렀다.²⁴⁾

확실히 조선 국가의 중앙권력은 상당했다. 하지만 세금을 증대할 필요가 있었던 왕궁 관리들과 부를 증가시키려는 농촌의 귀족들의 권력이 대립하면서 중앙권력의 확대를 제한한 갈등이 발생했다.²⁵⁾ 이씨 왕조는 공식적으로 불교를 탄압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불교를 믿었고 그 밖에도 유교적 궁중 관리들이 눈살을 찌푸린 샤머니즘이나 다른 종교도 존속했다. 이런 기층의 답론은 춘향가 같은 판소리와 흥길동 이야기, 시조 작성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됐다.²⁶⁾ 엘리트 사이에서 15세기와 16세기에 한 세기 이상 지속된 당파싸움(“사문파적”)으로 중앙권력이 약화됐다.²⁷⁾ 왕조의 향신계급은 수가 늘어나고 더욱 부패해지자, 민중의 불만

19) See Lee Ki-baik, A New History of Kore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144, 168.

20) Brahm Swaroop Agrawal, Korean National Movement (Gwalior, India: Jiwaji University Press, 1996), 5.

21) “The Mongols in Korea,” Korean Repository, vol. v, 1898, 133-7 as cited in *ibid.*, 5.

22) For considerable evidence that Korea had movable type long before Gutenberg, see James Gal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Seoul: Royal Asiatic Society, 1972). In deference to Germans’ inventiveness, I would grant that the telephone may indeed have been a German invention.

23)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53

24) *Ibid.*, 52.

25) James Palais,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5.

26) See David McCann, Form and Freedom in Korean Poetry (Leiden, UK: Brill, 1988). McCann’s analysis includes verses by kisaeng as part of his exploration of the form’s past.

도 늘어났고, 반란의 횡수도 증가했다.²⁸⁾

1446년 한국의 오랜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위대한 왕인 세종은 한글을 발명해 도입했고 이로써 보통사람들은 글로 자신을 표현하고 글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세종은 신유교를 뒤집진 않았지만, 불교에 대해 우호적이었고 이런 태도는 양반 학생들에게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세종의 통치는 과학과 예술에서 커다란 진보로 특징지어진다. 중국은 황제를 “천자”(天子)로 칭했고 일본은 황제에게 “천황”이란 칭호를 부여했던 같은 시기에 세종은 “사람은 하늘”(人即天)이란 개념을 확립했다.²⁹⁾ 세종대왕 아래서 한글은 1446년에 도입됐고 동아시아의 토착적인 문자로 유일하다. 그의 통치 동안 세종은 감옥과 조세제도를 개혁했고 부모들에게 너그러운 육아휴가를 제도화했고, 왕궁터에 옥당을 세워 30명 이상의 학자들이 학문에 전념케 했으며 과학의 발전을 장려했다. 1983년판 일본과학기술사전은 1400년에서 1450년까지 시기의 60대 세계적 과학적 업적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29건이 조선, 5건이 중국, 26건이 나머지 세계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500년 후인 조선왕조 말기에 많은 조선인들의 삶은 노예보다 별로 낫지 않았다. 반란은 빈번했고 양반계급의 숫자가 늘어나 약 4백만 명이었는데 당시 사회의 거의 1/3이었다. 양반은 나머지 아랫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했다.³⁰⁾ 때로 세금은 너무나 과도해서 반란이 예상될 정도였다. 헨더슨은 일본의 자료를 이용해 한 지역의 양반 숫자가 1690년 7.4퍼센트에서 1858년 48.6퍼센트로 증가했다고 추산했다.³¹⁾ 조선왕조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내향적이어서 18세기의 한 학자는 “하지만 왕조수립 이후 거의 400년 동안 외국과 교역할 배 한척이 없었다”고 개탄했다.³²⁾ 경호(鄭和)의 독보적인 항해(개빈 멘지스는 최근에 경호가 마젤란 수세기 전에 지구를 일주했다고 주장했다)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해양모험을 중지했다.³³⁾ 이 시대에 육로를 통한 침입의 위험이 아주 커서 조선과 중국은 모두 부를 약탈하려는 북부 기마민족들로부터 자기 문화를 지키는 데 많은 자원을 할당했다.

이씨 왕조의 기록에 따르면 15세기 후반에 360,000명, 16세기 후반에 370,000명의 노비가 존재했다. 1592-1598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이 침략한 결과 인구는 아주 급격하게 감소해 남성 노비가 많은 곳에서 불법화됐다. 온 나라가 150,000 대군을 거느린 침략자들에 맞서 일어났다. 왕궁은 무능하고 부패한 반면, 조선인들은 자주 승려들로 구성된 “의병”을 조직했고 천민들도 “검계”나 “살주계” 같은 비밀결사를 조직하기도 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덕분에 조선은 승리했지만, 일본군이 상륙했던 곳이면 어디든지 막대한 토지가 황폐화됐다. 농업산출이 1592년 이전 수준에 도달하는 한 세기 이상이 걸렸다.³⁴⁾ 17세기에 제주 해안에서 난파당한 네덜란드 선원들은 구조돼서 노예를 잡혀있었다. 결국 그들이 일본으로 탈출했고 그들은 조선의 풍습이 거칠고 민중의 삶이 아주 고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들의 일화적 설명은 같은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식량이 없었다고 지적하는 공식기록으로 확인된다. 조선이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황폐화에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씨 왕조의 1693년, 1789년, 1807년 인구조사 자료는 총인구를 7,000,0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1910년 일본은 인구를 두 배나 많은 13,300,000명으로 집계했다.)

27)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79.

28) Moon, "Korean Minjung Theology," 17.

29) King Sejong the Great: The Everlasting Light of Korea (Pohang: Yong Hwa, 1997), 9.

30) Moon, "Korean Minjung Theology," 16.

31)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41.

32) Pak Che-ga as quoted in *ibid.*, 380.

33) Gavin Menzies, 1421: The Year China Discovered the World (London: Bantam Press, 2003).

34) Palais, Views on Korean Social History, 11.

많은 사람들이 지주들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노동해야 했고, 그들의 삶은 양반들의 번덕에 휘둘렸다. 17세기에 학자 유형원은 조선인의 80퍼센트 이상이 노비였다고 썼는데,³⁵⁾ 논쟁적 문제에 대한 이 주장에 광범한 의문이 제기됐다. 노비의 숫자에 관한 아주 편차가 큰 추정치들은 많이 있다. 한 지역에서 헨더슨은 노비의 숫자가 1783년 인구의 43.1퍼센트에서 1858년 31.3 퍼센트로 감소했음을 발견했다.³⁶⁾ 미국인 학자 제임스 팰레스는 헨더슨이 이용한 동일한 일본자료를 재해석해서 노비가 인구의 약 30퍼센트였다고 결론 내렸다. 두 미국인이 이용한 일본인 연구자 시카타 히로시는 1789년에 겨우 5퍼센트만이 노비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후의 자료 분석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원래의 연구자가 말한 것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파론 하버드 연구자는 서울 인근에서 주민의 75퍼센트가 노비로 간주되는 인구기록을 발견했다.³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팰레스는 30퍼센트라는 수치에 만족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와 미국남부에 그가 적용한 것과 동일한 비율이기 때문이다.³⁸⁾ 팰레스의 미국사회와의 비교와 조선 노비숫자의 과장은 미국의 조선개입의 “진보적” 성격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 다시 한번 서구와의 비교가 근거있는 경험적 데이터를 대체했다. 숫자상 의심스러운 것 외에도 노비들의 지위 역시 불명확하다. 헨더슨인 사노비가 “가족 구성원”이 됐고 “노예에 대한 미국인이나 유럽인들의 태도와 상당히 다른 태도”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다.³⁹⁾

19세기 경 일련의 봉기들이 사회를 강타했다. 1812년 조선 북부의 대부분이 가산 근처의 무장봉기대에 장악됐고 귀족과 왕이 소개작전을 펼쳐 농민군을 패배시킬 때까지 수개월 동안 유지됐다.⁴⁰⁾ 1862년 조선 남부 진주 근처의 궁핍한 농민들이 특히 가혹한 처우에 맞서 들고 일어났다. 1789년 프랑스 혁명 때와 똑같이 그들은 부채기록을 불태우고 정부관청을 파괴하고 특히 부패하고 잔인한 관리들을 살해했다. 비록 중앙정부가 즉각 양반의 가혹한 횡포를 개혁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반란은 전국적으로 퍼졌다. 서울에 거주한 국왕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신민들을 학살했다. 국왕은 특히 동학의 창건자 최재우를 비난했고, 1864년 3월 10일 최재우를 공개적으로 참수형에 처하라고 명령했다. 반란은 조선왕종 말까지 흔한 일이었다.⁴¹⁾ 통계에 의하면 1886년과 또 1894년 노비제도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에 주로 여성인 노비들의 숫자가 5만명에 이르렀다.⁴²⁾

국내적 무질서는 외부세계의 조선침투를 용이하게 했다. 1868년 초 일본은 새로 발견한 미국이란 대부의 후원을 받으면서 조선을 압박해 일본 상인들을 입국시켰다. 조선의 거부로 답으로 인정하길 거부한 일본은 8년 뒤 비관세 무역권과 더불어 일본화폐를 일부 조선 항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요했다. 이런 침투는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 세기에 걸친 중국의 조선반도에 대한 통제력 약화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자국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은 수백 명의 군대도 파견했는데, 다가올 사태에 대한 불길한 전조였다. 일본이 군대를 근대적 전투력으로 건설했기 때문에, 전통적 문화를 지키려는 조선과 중국의 시도는 기술적 차를 더욱 확대했을 뿐이다.

35) Bruce Cumings, *North Korea: Another Country* (New York: New Press, 2004), 129.

36)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41-.

37) Palais, *Politics and Policy*, 25.

38) *Ibid.*, 34.

39)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54.

40) For a full treatment of these events, see Sun Joo Kim, *Marginality and Subversion in Korea: The Hong Kyögnae Rebellion of 1812*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7).

41) Won Youngsu, “Popular Rebellions and Uprisings in Chosun Period,”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rotest and Revolution: 1500 to Present*, ed. Immanuel Ness (London: Wiley Blackwell, 2009).

42)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397.

이번 두 번의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패한 중국은 일본의 침략을 저지할 위치에 있지 못했고, 조선이나 자국 영토에 대한 역사적 헤게모니를 주장할 위치에 있지도 못했다.

1862년 봉기 20년 후에 식량부족과 정부의 과도한 군비지출로 급여를 받지 못한 병사들의 폭동이 일어났다. 1882년 7월 23일 굶주린 시민과 병사들이 서울의 쌀창고를 습격했다. 밤 동안의 논의 이후에 그들은 왕궁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민비는 일본인들에게 조선에서 군대를 증가시킬 것을 요청했고, 이 행위로 그녀는 이후에 값비싼 대가를 치루게 된다. 토착 권력구조는 아주 취약해서 일본군의 증가된 배치에 거의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 미국과 유럽 열강은 러시아의 이해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 아주 만족했다. 독일은 일본의 한국 주둔을 환영했고 미국은 관리들에게 공개적인 일본 비난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1883년 최초의 미국 사절단이 조선에 도착하자 국왕[고종]은 미국이 조선을 도우러 온 것으로 생각하고 “기빠 춤췄고”고 군사고문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비록 미국 회사가 경복궁의 전기설치를 도왔던 것을 빼면 미국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⁴³⁾ 도쿄의 미카도궁과 베이징의 자금성의 전기설치 2년 전에 서울 경복궁은 이미 작동하는 가장 선진적인 전기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기업가 헨리 콜브런과 호레이스 뉴튼 앨런은 오늘날 한국전력(과거의 한성전력)으로 알려진 회사를 설립했다. 그들은 기업가 헨리 보스트워크와 함께 전차와 상업적 전 등체계를 설립했다. 한성전력(HSEC)을 사유화한 그들은 요금을 인상하고 임금을 최저수준으로 유지했다. 파업과 보이코트가 일어나자 그들은 미군 투입을 요청했다가 갑자기 일본기업에 이 벤처사업을 매각해서 콜브런-앨런 사건으로 알려진 거래로 상당한 이윤을 챙겼다.

1884년 일본은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성난 군중들은 왕궁을 포위하고 “진보적” 정부를 세웠다. 조선 국가에 대한 일본의 공격에 대하여 전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의병”들이 쫓겼다. 일본인 기업과 가정이 공격받았고, 중국군의 도움으로 겨우 질서가 회복될 수 있었다. 국내의 폭정과 일본의 정복에 대한 저항이 확산됐다. 1876년과 1894년 사이에 최소한 52건의 중요한 농민봉기가 일어났고, 1893년만도 65건 이상이 집계됐다.⁴⁴⁾ 최초의 주요한 폭발은 동학란으로 흔히 알려진 1894년 농민전쟁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광범한 민중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오합지졸 동학군은 결국 근대식 문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패배했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

수세기의 궁핍과 곤란 속에서도 조선인들은 내적 세계를 차조하려 억압을 초월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신을 상상하는 법을 배웠다. 남편이 죽더라도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억압적 법률은 수십만 명의 여성을 가난과 주변화로 내모는 제도의 일부였다. 양반들이 잉여노동의 열매를 즐기는 동안 보통 조선인들은 고통을 겪었다. 19세기 말경 일본의 침략에 맞서 지배자들의 무능력이 분명해지자, 조선은 심각한 사회붕괴를 겪었다. 낡은 질서는 붕괴됐고, 새로운 질서는 전혀 새로운 종교라는 형태로 등장했고, 조선에 특유한 신앙의 토착적 종합인 동학(東學), 동쪽의 가르침이 그것이었다.

43) 43 G.M. McCune and J.A. Harrison, eds., Korean-American Relations, vol. 1, 1883-1886 (Berkeley: UC Press, 1950), 29-14; R.T. Pollard, “American Relations with Korea,”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 11 (1932): 425-1.

44) Kang Man-kil,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in History of the 5.18 Democratic Uprising, vol. 1, ed. May 18th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Gwangju City, (Gwangju: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2008), 55.

동학의 중추적 가르침은 인간의 삶은 신의 천국이라는 것이었다. 성, 나이, 계급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게 성스러운 존재로 여겨졌다. 이 메시지에 보통사람들은 너무 공감해서 심지어 창시자 최재우가 1864년 처형당한 이후에도 농민들은 그의 이름과 종교를 이용해서 반란을 지속했다. 일본의 침입과 권력을 다투는 부패한 조선관리들 때문에 위대한 농민반란군이 등장했다. “태평천국”을 수립한 중국의 타이핑 반란가 비슷하게, 동학은 “평화와 평등의 천년”을 창조하려고 시도했다. 베트남의 가오 다이처럼 동학은 지상의 정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부다, 공자, 계급투쟁관, 휴머니즘, 민족주의 등 세속과 종교 양자의 다양한 원천에서 영감을 끌어낸 종합적 종교였다.

겸허한 인간인 최재우는 청년기를 농촌의 교사로서 보냈다. 31세의 나이세 그는 고향을 떠나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그들의 빈곤을 목격했고 그들의 인생사를 들었다. 1860년 고향에 돌아와 고열에 시달리다가 천상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목소리는 하늘은 모든 인간 속에 살아있다고 말했다. 병에서 낫자 그는 인권과 인간의 신성에 기반한 평등사회의 미덕을 설파하기 시작했다. 최재우는 신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 껌충껌충 뛰면서 춤췄다고 하며,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동학이 무당이나 샤머니즘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겼다. 모든 치유 사처럼 그의 일차적인 관심은 악으로부터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다.⁴⁵⁾ 신이 우리 각자 안에 있다는 생각은 보통사람들을 고귀하게 만들었고, 그의 평등주의는 아주 중심적으로 중요해서 최재우는 타이핑 지도자 홍쉬치안처럼 결코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하지 않았다.

많은 다른 봉기처럼, 농민전쟁을 촉발한 특정한 돌발적 사건은 상대적으로 사소해 보였다. 전라도의 한 지방 행정관은 농민들에게 황무지를 생산적으로 이용할 것을 요구했고 노동의 대가로 세금면제를 제안했다. 농민들이 노동을 마친 다음 그는 세금을 떼어갔다. 굶주리고 힘없는 농민들은 순응할 수도, 순응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애국적이고 충성스런 신민인 농민들은 네명의 대표자들을 왕에게 보냈고 그들은 왕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으로 희망했다. 사흘 동안 4인은 왕궁 앞에서 무릎꿇고 기다렸지만 왕을 알현하지 못했다. 마침내 고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벽을 세우고 깃발을 휘날리고 통문을 뿌리는 너희들의 행위는 단지 민중을 자극할 뿐이다. 그런 행동은 조선에 고통의 바다를 가져올 것이고 전쟁으로 끝날 것이다.”⁴⁶⁾ 궁정 관리들의 멸시와 지주들의 거만한 착취에 오랫동안 익숙한 가난한 농민들에게 임금의 무감각한 반응은 마지막 인내의 한계였다. 어쨌든 그들은 “온 민족은 하나이고 그 대중은 정의로운 반란의 기준을 제기할 결의로 한 데 뭉쳤고, 모든 민중이 자애로운 군주의 통치를 즐길 수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즐겁게는가!”라고 믿었다.⁴⁷⁾

기아에 직면하고 왕가에 대한 믿음을 잃은 농민들은 전봉준의 지도력 아래 몰려들어 1894년 1월 10일 수천명이 꺾기했다. 그들은 관아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했고 왕실 곡물창고에서 자신들이 키운 식량을 재탈환했다. 봉기의 소식에 경악한 왕은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왕실 감독관을 선두로 군대를 파견했다. 일상적이 부딪히는 농민들을 살해한 왕의 부하들은 반란에 동조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들의 집을 불태우고 불행하게 그들에게 걸린 여성들을 강간했다. 그러나 3월 동학군이 진군하자 왕실 감독관은 도망쳤다.

또 다른 부대가 서울에서 파견됐지만, 4월 23일 장성의 대격전에서 동학군이 승리했다. 그들이 다채색 깃발 아래 전진하면서 외친 슬로건 중의 하나는 “척양척왜”(斥洋斥倭)였다. 4월 27일 동학군은 전주를 점령했고, 전주성에 사령부를 세웠다. 곧 호남 전지역이 해방됐고, 동

45) Moon, “Korean Minjung Theology,” 26.

46) James S. Gal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316.

47) Lee Ki-baik, A New History of Korea, 284.

학군의 숫자는 40만명으로 추산됐다.⁴⁸⁾ 민족주의자, 학자, 반정부 승려들이 동참하면서 운동은 서울로 진군할 준비를 했다.

[그림] 1894년 전투를 준비하는 동학군. 작자 미상

6월 1일 겁먹은 왕은 중국 황제에게 비밀리에 도움을 청했지만 중국과 일본이 모두 군대를 파견했다. 국왕의 군대에 유혈적 패배를 당했음에도 농민들은 여전히 애국적이었다. 외국 열강에게 조선에 남을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동학 지도자들은 복진계획을 중단하고 전주성 통제를 포기하고 국왕의 대표자들과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반란군은 호남 53개군에 공식적인 감독기관인 집강소를 설치했고 이는 기구는 무장투쟁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율적인 지역행정제도였다.⁴⁹⁾ 반란군의 행정단위는 강탈을 막고 가난한 농민들을 보호하고 평등한 토지분배를 통해 계급차별을 철폐하고 무장저항을 조직하는 기능을 담당했고, 강력한 시민사회를 보여주는 풀뿌리 형태의 이중권력이었다.

정부는 평화적 해결에 관심을 보이는 척하면서 농민들의 요구에 응하는 것에 대해 말했고 전라도 지사와 소수 관리들을 해임했다. 그 동안 운동은 자신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공간을 발견했다. 노비문서의 파기, 균등한 토지분배, 하층민에 대한 차별 종식, 인맥이 아니라 덕성에 따른 정부관리의 임명, 과부의 재혼 허용, 부패한 관리와 포악한 부자, 일본 협력자들의 처벌 등.⁵⁰⁾ 그들은 또한 낮은 계급 사람들이 비천한 평양모자를 써야하는 관행의 종식을 요구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봉기자들은 많은 조선인들의 굶주리고 있는 시기이기에 일본에 대한 쌀 수출의 금지를 요구했다.

왕궁이 동학군의 요구를 시행하는 데 주저하는 동안, 일본은 고종을 사실상 포로를 삼아 중국과 청일전쟁에 들어갔다. 비극적으로 1950년에 되풀이된 것처럼, 지역 열강들은 한반도에서 서로 전쟁을 벌였다. 1894년 9월 16일 일본군은 평양을 점령했다. 일본의 승리를 파악한 동학 지도자들은 9월 18일 정산에서 군대를 재소집했고, 339개 지역부대의 10만명 전사들을 동원했다. 동학군은 10월 22일 우금치에서 일본과 국왕 연합군과 전투를 벌였고 처음 두 교전에서 승리했다. 2주 넘게 벌어진 유혈 대치 속에서 주도권은 수십차례 오갔지만, 결국 일본군의 대포와 현대적 무기로 보강한 국왕의 군대는 빈약하게 무장한 농민들을 몰아냈다. 그들의 주된 무기는 죽창이었다.

일단 우위를 장악하자 일본군은 반란군을 무자비하게 사냥했다. 최근의 연구는 살해당한 농민의 숫자를 5만명으로 추정하며, 20세기 일본이 자생한 수많은 학살의 계보 중 첫 사례였다. 다른 자료는 사상자를 30만 내지 40만 명으로 집계하기도 했다.⁵¹⁾ 운동 지도자들은 참수당해 머리는 서울 시내에 내걸렸고 시신은 거리의 개들에게 내던져졌다.⁵²⁾ 전봉준은 체포된 다음 재판정에 세워졌다. 자신의 운명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전봉준은 “유일한 목적은 부패한 관리들을 관직에서 제거하고 일본 점령군을 축출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⁵³⁾ 사형선고를 받자 그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사람을 사고 파는 자들은 누구나 민족을 압축 속으로 이끈다. 그런 자들은 죽이는 것이 옳지 않은가? 너희는 반역자들이고, 외국의 적과 협력하여 너희 자신의 조국을 유린했다”고 질타했다.

48)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63.

49) Chondogyo: The Religion of the Cosmos That Blossomed in Korea, (Seoul: Central Headquarters of Chondogyo, 2005), 95; Kang Man-kil, History, 57.

50) Agrawal, Korean National Movement, 43.

51) Professor Gatzuo Inoue provided statistics. See Korea Times, June 2, 2001, 3.

52) Gothel, Geschichte Sudkoreas, 14.

53) Agrawal, Korean National Movement, 41.

용감한 전투에도 불구하고 비록 하부의 보다 급진적인 농민 전사들은 확실히 원했음에도 동학 지도자들은 왕을 타도하려고 하지 않았다. 농민 봉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통제하지도 못했고 그들만이 선동한 것도 아니었다. 19세기 오래 이전에 평등주의적 가치와 계급적 분노는 농민들 사이에서, 특히 전라도에서 광범하게 퍼져 있었다. 진보와 독립을 추구하는 나라를 이끈 1894년 봉기는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의 힘을 이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서울의 유산계급에게 호남의 빈민들이 유혈의 고통을 당한 마지막 사례는 아니었다. 동학운동은 쇠퇴했지만, 소멸을 거부하고 천도교로 전화했다. 일본의 통치 아래서 생존할 수 있었던 그들의 종교에 대한 새로운 이름이었다.

일본의 정복

아시아든 유럽이든 체코나 한국처럼 문화적인 작은 민족의 운명은 덜 상냥한 주변강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억압적 양반지배와 그에 대한 풀뿌리 저항으로 내적으로 약화된 조선의 문명은 20세기 외국의 정복으로 유린당했다. 일단 서구가 일본을 개방시키고 군대를 무장시키자, 일본은 조선과 중국 문화적 혜택의 후진적 수혜자에서 무자비한 정복자가 됐다. 오랫동안 열등한 지위에 있었지만 근대적 무기와 군사훈련으로 무장한 일본은 1910년 오랫동안 열망했던 조선을 장악할 수 있었다. 짧은 시간 내에 일본은 중국을 신속하게 패배시켰다. 그 당시 중국은 1839년에 시작된 아편전쟁 이후 외국의 침투로 상당히 약화돼 있었다.

1894년 10월말 일본은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전격전을 전개했다. 한 달 안에 아서항(중국에서 루순항으로 알려짐)으로 진격했고, 황해에 대한 확고한 통제권을 획득했다. 비록 보고는 상이하지만, 목격자들은 야마지 모토히루 장군 휘하의 일본군이 모든 중국인을 학살했다고 주장하며, 11월 21일 학살자 수자는 6만명에 이른다. 중국의 고통 속에서 지역 열강들이 협력하자, 러시아와 독일, 일본은 중국 영토를 분할하여 임시적 휴전으로 봉합했다. 일본은 타이완을 접수했고 과거 중국과의 모든 조약을 무효로 선언했다.

새로운 권력을 조선을 합병할 기회로 이용한 일본 천황은 নিজ 특수부대를 파견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수십 명의 잘 무장한 일본인들, 즉 하버드에서 교육받은 시노루 시바, 메이지 과두인 이노우에 가오루, 총리 이토 히로부미, 조선대사 미우라 고로 등은 민비의 잔혹한 처형을 계획하고 집행했다.⁵⁴⁾ 서울의 경복궁을 유린하고 왕비를 집단강간 한 다음 그들은 그녀를 산 채로 불태워 죽였다.⁵⁵⁾ 나중에 이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았지만 이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선고를 받았다. 1950년대 미국 남부의 어떤 배심원이라도 기뻐할 만한 판결이었다. 살인자들이 일본으로 돌아가자, 군중들은 그들을 환영했고 천황은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오늘날까지 일본정부는 사과하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원시적 축적으로 자본을 축적한 일본의 지배는 강력한 지역열강으로 남아 있으며, 일본은 경제를 방패삼아 이 20세기의 야만행위에 대해 사과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자행한 운디드니와 미라이의 유혈사태를 왜소하게 만드는 이 학살은 일본이나 국제사회도 제대로 다룬 적이 결코 없다. 그렇지만 미국도 아프리카 노예제,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 한국, 베트남, 이라크 등 수십개국에서의 야만행위를 바로잡은 적이 결코 없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유럽의 습격에 굴복하자 동아시아는 미국의 다음 국경이 됐다. 비록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망각하고 있지만, 19세기말 미국은 20만명 이상의 필리핀인들을 학살했고(일부에서는 사망자를 140만명으로

54) Most Japanese remain ignorant of these events, although they were reported on August 24, 2009 in a special Asahi television broadcast. See also Kim Tae-ick, "The Sobering Truth of Empress Myeongseong's Killing," http://english.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25/2009082500866.html.

55) See Kim Young-Sik, "A Brief History of the U.S.-Korea Relations Prior to 1945," paper presented at the University of Oregon, May 15, 2003, <http://www.freerepublic.com/focus/f-news/943949/posts>.

추산한다), 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슬프고 비극적인 이면의 잊혀진 페이지다. 그 당시에는 “명백한 운명”과 “백인의 집”이란 논리가 “진보”와 “계몽”을 추구하는 초기 애국자들과 기업가들을 지속적으로 고무했었다.

20세기 “피바다”의 시기에 한국의 학살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그것은 비자본주의 국가들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의 지속적인 통합과정에서 일어난 한 일화로 이해해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비교할 만한 사례로는 19세기말 필리핀을 에스파냐로부터 강탈하면서 자행한 살육, 1947년 장카이썬 군대가 본토 패배 이후 총통의 탈주를 위한 토대를 준비하면서 자행한 타이완의 학살, 미군정이 북조선에서 탈주한 반공주의 난민들을 필요로 했던 1948년 제주도 학살 등이 포함된다. 일본의 조선침략은 유럽의 “문명화 사명”이나 미국의 “명백한 운명”과 커다란 유사성을 갖는다. 인종주의로 충만한 망상은 아메리카 원주민과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유럽인들의 행위처럼 조선인들에 대한 만행을 정당화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지역의 주요 열강으로서 중국을 대체했다. 일본에 협력한 조선인들처럼, 일본은 자신을 낱아빠진 구조를 개혁하는 세력을 여겼다. 물론, 일본천황은 조선의 쌀생산, 석탄과 광물자원을 착취했다. 일본의 군사력에 도전할 대항 열강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재빨리 움직여 조선 전체를 지배했다. 최초의 조치 중의 하나는 조선 당국으로 하여금 남성들의 전통적인 헤어스타일인 상투를 금지하도록 강제한 것이었다. 상투를 묶은 어떤 남자도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거나 체포하고 공격당했고 집에서 끌려나와 서양식으로 머리를 깎았다. 많은 남자들이 굴복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 비록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조선전통에 대한 일본의 공격은 더욱더 확대돼 갔다.

일부 관찰자들에게 이 사건들은 “근대조선의 탄생”으로 보였다.⁵⁶⁾ 일본 당국은 양반과 평민을 평등하게 다루는 법원을 세웠고, 화폐개혁을 통해 표준화했고, 세금법을 공고화했고, 유교적 고시제도에 과학과 수학을 도입했으며, 지역 관리들의 전제적 권한을 폐지했다. 세기가 바뀔 무렵 10여개 이하의 조선 도시들에 14,000명 이상의 인구가 살았다. 서울의 인구는 20만 명을 약간 넘었을 뿐이지만, 1940년경 거의 500퍼센트 증가해 1백만 명에 접근했다.⁵⁷⁾ 일본의 영향은 교통과 기반시설, 특히 철도의 유사한 증가를 의미했다. 더불어 통신, 관개, 공공의료시설, 무역과 산업 등에서도 발전이 이뤄졌다.

이런 발전이 보통 조선인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켰는지는 중요한 문제다. 철도는 주로 일본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군대를 수송하는 데 이용됐다. 일본 지주들이 남부에서 최상의 농지 대부분을 몰수했기 때문에, 수천명의 땅없는 농민들은 농촌을 유랑했다. 한 추정치는 유랑농민의 숫자를 전체인구의 1/3로 봤다.⁵⁸⁾ 집을 잃고 굶주린 많은 사람들이 시베리아나 만주로 떠났고, 거기에 생존하면서 일본에 맞서 싸웠다. 수세기에 걸친 조선 왕조의 안정성은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수용하도록 했지만, 조선의 과거를 관통하는 다른 흐름은 일본의 지속적 약탈에 대한 저항이었다.

[사진] 조선 전국에서 투사들이 일본의 식민화에 맞선 저항대에 결합했다. 사진작가 미상

우월성을 확신한 일본 식민당국은 토착 민중을 경멸로 대했고, 결국에는 심지어 조선이름을 금지하고 학교에서 조선어 사용마저 금지시켰다. 조선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독립을 추구했다. 점진적 개혁을 선호하는 독립적 클럽에서 비폭력 항의와 비협조, 마지막으로 노골적

56) 56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120.

57)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99.

58) Agrawal, Korean National Movement, 95.

인 반란과 무장저항까지 동원했다. 중국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우위와 1905년 러일전쟁에서 결정적 승리로 일본은 전지역의 맹주가 됐다. 이 지위는 일본이 5월 29일 아서항에서 러시아 해군에게 수치스런 패배를 안기고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몇 달 뒤 미일간의 비밀 조약인 태프트-가츠라 조약으로 국제적 승인을 받았다. 미국은 일본이 필리핀에서 미국의 작전에 개입하지 않는 약속을 댓가로 “조선의 종주권을 수립할” 일본의 권리를 승인했다. 1945년 조선을 분할한 열강의 협약처럼, 태프트-카츠라 협약은 태평양을 영향권으로 부할 했고, 40년 후 조선분단의 중요한 전례였다. 1905년 7월 태프트-카츠라 협약 이후 일본은 극 각 최초의 총독을 조선에 파견했고 미국의 공모로 용이해진 잔혹한 점령을 시작했다. 이 두 세계적 열강은 자국민들의 불편한 반응을 우려해서 이 조약을 거의 20년 동안 비밀로 유지 했다. 같은 해에 영국은 일본과의 조약을 갱신했는데, 그에 따라 양국 조선에서 일본의 “최 고” 권력과 영국의 인디아 지배(물론 중국에 대한 이익)은 상호 승인했다.

조선은 1905년 11월 17일 외교업무에서 일본에 통제권을 부여하는 보호조약에 서명해야 했 다.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승리가 유럽 제국주의와 투쟁하는 인디아와 다른 나라 애국자들 에게 영감을 줬지만, 조선에서 그것은 잊지 못한 수치의 날이었다. 조선은 독립을 쟁취하는 데 도움을 줄 나라가 아무도 없었다. 11월 23일 서울의 황성신문은 민족의 절망을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더 이상 살 가치가 있는가? 우리 민족은 타민족의 노예가 됐 고 4,000년을 이어온 민족의 혼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조선인들에 대한 인종주의적 차별 때문에 일본의 점령은 극소수의 제국 협력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을 애국자로 만들었다. 일본의 식민화와 투쟁하기 위해 양반이 이끄는 “의 병”이 일어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깃발 아래 모였다.

1906년 별개의 봉기가 흥성과 춘천을 장악했고 해산당한 조선군의 부대들이 게릴라전을 시 작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인들은 전지역을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반란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나 학살했고 온 마을을 파괴했다. 1907년에서 1908년까지 전투 는 아주 격렬해서 일본의 공식통계는 봉기자 15,189명이 사망했고 3,211명이 부상당했고 1,556명이 포로로 잡혔다고 보고했다. 표 2.1에서 열거된 것처럼, 무장저항은 1908년에 절정 에 올랐다.

표 2.1 봉기와 무장대치 1907-1911년

년도	봉기자 숫자	교전 횟수
1907	44,116	322
1908	69,804	1,451
1909	27,663	953
1910	1,891	147
1911	216	32
합계	143,690	2,905

출처: 조선총독부, 반란진압기록, 서울: 일본군 수비대 사령부, 1912년, 부록 표2, Brahm Swaroop Agrawal, *Korean National Movement* (Gwalior, India: Jiwaji University Press, 1996), 72.에서 재인용

저항세력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일본의 압도적 화력 앞에서 소멸했다. 일부는 사망한 조선 봉기자의 숫자를 1,500만 인구 중에서 2만명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민족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조선인이 1천명당 1명 이상임을 의미하며, 2차 세계 대전에서 사망한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이다.⁵⁹⁾

비록 국경 내의 저항이 유혈사태로 저지됐음에도, 애국자들은 굴복하기를 거부했다.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국이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다. 그는 첫 일본인 조선총독이자 제국협의회 의장이었다. 애국적 행위로 처형당했지만, 안중국은 오늘날 한국 전역에서 의사로 기억된다. 가차없는 게릴라전과 다양한 형태의 무장저항에 부딪히자 일본 정치인들은 1910년 8월 22일 공식적인 합방조약을 법제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은 지속적으로 확산됐다. 1911년에서 1916년까지 5년 동안 수감자 숫자는 당시 런던 <데일리 메일>의 기자인 프레더릭 매켄지에 의하면 16,000명에서 32,000명으로 두배나 증가했다.⁶⁰⁾ 1918년 심지어 140,000명의 체포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봉기를 막을 수 없었다.⁶¹⁾ 일본이 지배를 공고화하면서, 조선인들은 식민지 상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1919년 3월 1일 대규모 시위운동을 벌였다. 이 날은 남과 북 조선의 역사에서 여전히 중요한 날이다.

1919년 3월 1일: 조선독립봉기

1910년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 아래서 조선인들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없었고 민중의 의지를 전달한 자율적인 언론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천도교 같은 종교단체(그 당시 기독교인보다 두배나 많은 신자를 가짐), 시골 장날, 입소문(사발통문) 등을 포함한 토착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온 나라가 하나처럼 쫓겨났다.⁶²⁾ 동원은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일본 통치자들은 완전히 기습당했다. 베트남의 1968년 테트 공세처럼, 강력한 토착 시민사회는 외국점령당국에게 한마디도 새나가지 않도록 협력하여 온 나라를 동원했다. 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을 한데 묶는 비공식 네트워크는 아주 놀랍게 강력해서 일본당국으로 그 속으로 침투할 수 없었다. 1921년경 신문과 언론이 폐쇄되고 50,000건 이상의 정치적 체포가 이뤄졌다. 1918년에는 3월 1일 일어났던 종류의 봉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140,000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체포돼 있었다.⁶³⁾

1919년의 시대정신은 민중이 숨쉬는 바로 그 공기 속에 독립의 혼을 불어넣었다. 1차 세계대전 말 베르사이유 평화회의는 “자결”을 약속했고, 조선인, 베트남인, 인디아인, 및 전세계의 식민지 민중들의 희망을 불어일으켰다. 1월에 회의가 시작되자 응구엔아이퀵이란 초라한 베트남인이 손에 모자를 들고 베트남의 독립을 청원할 희망으로 도착했지만, 입장을 거부당했고 청원서 제출마저 허락받지 못했다. 나중에 호치민으로 알려진 이 사람은 반식민주의 운동을 지지하려는 유일한 열강인 소비에트연방과 동맹을 맺고서 그의 민족을 독립의 길로 이끌었다. 김규식이 이끄는 조선 대표단도 베르사이유에 참석했다. 비록 입장을 허락받았지만, 그들 역시 표결권을 가진 대표로서 공식적인 의석은 거부당했다. 조선인들은 조선과 인도차이나 문제의 논의를 막기 위한 미국, 일본, 프랑스 간의 비밀협약을 알지 못했다. 조선에서 미국 대사관은 대표단에게 “일본당국이 조선 민족주의 운동에 미국 정부가 동조한다고 의심할 만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⁶⁴⁾

조선 내에서 놀랍게 통일된 반대세력이 결집했다. 기독교, 불교, 천도교 지도자들은 모두 함

59) Agrawal, Korean National Movement, 73-4.

60) See McKenzie's 1920 book, Korea's Fight for Freedom.

61) Lee Ki-baik, A New History Of Korea, 314.

62) Christine Lienemann-Perrin, Die Politische Verantwortung der Kirchen in Sudkorea und Sudafrika: Studien uber okumenischen und politischen Ethik (Munchen: Kaiser, 1992), 80.

63) Peter N. Stearns, The Encyclopedia of World History, 782, http://books.google.com/books?id=MziRd4ddZz4C&pg=PA782&lpg=PA782&dq=date+of+Korean+King+Kojong+death+1919&source=web&ots=Y56Pi8y7uI&sig=eLw_nCmTRFLVFeG576hJ34MCI&hl=en&sa=X&oi=book_result&resnum=5&ct=result#PPA782,M1, accessed December 18, 2008.

64) Quoted in Chae-Jin Lee, A Troubled Peace: U.S. Policy and the Two Korea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6), 17.

게 일하면서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단을 배포하고 봉기의 소문을 퍼뜨렸다. “3월 1일 운동의 주동력”은 천도교 지도자 손병희였고, 운동을 근절하려는 일본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1백만명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었다.⁶⁵⁾ 손병희는 거의 10년 동안 봉기를 고민하면서 준비했다. 그는 먼저 서울에 수도원을 세웠고 전국에서 5백명의 지도자들을 선발해 집중훈련을 시켰다. 그런 다음 그는 모든 교구에 비밀계획서 등사본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인 비폭력 시위를 위해 준비위원회와 전국본부를 구성했다.⁶⁶⁾ 1918년 12월 24일 손병희는 천도교의 1백만 전신도들에게 독립을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49일 기도에 들어갈 것을 호소했다. 소규모 내부자 모임에서 천도교 지도자들은 기독교와 힘을 합쳐 약 31인의 지도적 애국자들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2월 28일 작은 그룹의 손병희의 집에 모여 고종의 장례식 이틀 전인 다음 날 발표할 독립선언서를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종이 일본의 음모로 독살됐다는 소문 와중에). 최종 선언에 서명한 33인 중에서 3명은 불교승려, 15명은 천도교, 15명은 개신교 인사들이었다.⁶⁷⁾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정재용이란 젊은 학생이 서울의 파고다 공원에서 우뚝 서서 조선 독립선언문을 공개적으로 낭독했다. 일단 선언이 발표되자, 33인의 저명한 서명자들은 엄격한 비폭력 원칙을 극적으로 부각하기 위해 모였던 식당에서 경찰에 자수했다. 정재용은 사람들에게 행진을 촉구했고 조선인들은 행진했다. 이 날만도 1백만 명이 행진에 참여했다. 최초의 시위가 탑골공원에서 일어난 후, 군중은 세 방향을 나눠 행진했다. 한 그룹은 고종의 시신이 안치된 왕궁 방향으로 향했고, 다른 그룹은 미국과 프랑스 공사관에서 합류했고, 마지막 그룹은 식민 총독부 건물을 향했다. 밤이 다가오자, 일본 민간인들도 경찰에 합세해 거리에 남아있던 비폭력 시위대를 구타했다.

독립선언이 전국적으로 낭독된 바로 똑같은 시간에 수천명이 동원됐다. 거대한 시위대가 원산, 평양, 진남포, 안주, 진주, 의주, 순천의 거리를 채웠고, 만세 소리가 모든 곳에서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시위대가 개성과 예산 거리에 등장했고, 일주일 안에 운동은 광주, 부산, 대구에도 나타났고 간단히 말해 조선인을 숨쉬는 모든 곳에서 등장했다. 심지어 일본과 중국의 조선인들도 동원됐다. 참여자의 전체 숫자에 대한 추정은 상당히 다르지만, 이 운동이 조선 역사상 최대의 민족주의 운동이란 점에는 이견이 없다. 시위자들이 “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만세운동이라고도 불린다.⁶⁸⁾ 일부 추정치에 의하면 참여자 숫자는 2백만명 이상이라고 하고, 다른 추정은 그 절반 정도로 본다. 전체 인구 1,600만명 중에서 최소한 1백만명의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다.⁶⁹⁾ 3개월 이상 진행된 시위의 총숫자는 1,500건 이상이며, 조선의 220개 군 중에서 9개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사진] 1919년 3월 1일 여성들이 독립을 위한 전국적 평화시위를 이끌었다. 사진작가 미상

시위의 평화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일본 식민군대는 수백명을 살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65) Carter Eckert, *Off spring of Empire: The Kochang Kims and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867-945*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1), 281.

66) Benjamin Weems, *Reform, Rebellion, and the Heavenly Way* (Tucson: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64), 70.

67) Lienemann-Perrin, *Die Politische*, 80. Chondogyo officially says there were fifteen of its embers, two Buddhists, nine Methodists, and seven Presbyterians. Chondogyo: *The Religion of the Cosmos That Blossomed in Korea*, 107.

68) See Shannon McCune, *The Mansei Movement: March 1, 1919*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Center for Korean Studies, 1976).

69) Eckert, *Off spring of Empire*, 45. Shannon McCune reports that of the arrested, (19,525), 13,211 had no religious affiliation, 2,486 were Presbyterians, 560 Methodists, 2,283 Chondogyo, and 55 Catholics (*The Mansei Movement*, 34).

구속했다. 일본의 공식보고에 따르면 3월과 12월 사이에 533명의 시위자가 사망했고, 1,409명이 부상당했고 12,522명이 체포됐다. 조선인들은 훨씬 더 많은 사상자를 집계했다. 5월말까지 일본으로 탄압으로 7,509명이 사망했고 15,961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46,948명 이상이 체포되어 많은 수가 10 내지 15년형을 받았다.⁷⁰⁾ 놀랄 것도 없이 일본의 공식수치는 더 낮은 것으로, 이 시위로 19,525명이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요 직업은 표 2.2에 정리돼 있다.

[표 2.2] 1919년 체포된 사람들의 직업

농민	10,864
학생	1,936
무직	1,053
상인	800
일용노동자, 가내노동	744
기업인	478
공무원	456
교사	419
숙박요식업	237
기타/미상	2,538
총계(일본측 집계)	19,525

Sources: Korean Government-General, *The Korean Independence Thought and Movement* (Seoul: Government General of Korea, 1924), 105-, in Japanese; Brahm Swaroop Agrawal, *Korean National Movement* (Gwalior, India: Jiwaji University Press, 1996), 109. For more tables, see Chong-Sik Lee, *Politics of Korean Nation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3), 115-8, and <http://www.geocities.com/Tokyo/Towers/5067/ksun.htm#APPENDIX%20H>.

일본의 한 공식보고는 최소한 “20,000명의 시위대가 곤봉, 부엌칼이나 유사한 무기로 무장했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평화적인 시위자들에게 대해 식민당국이 가한 가혹한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허위 주장인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⁷¹⁾ 일본 신문들은 “조선인을 선동한 것은 미국 선교사들의 죄악이며, 이번 봉기는 그들의 작품”이라고 선언했다.⁷²⁾ 교회들은 자주 시위에 참여했지만, 조선 시민사회의 모든 조직들이 참여했다. 불교, 천도교, 여성단체, 학생단체 등 모두가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는 만주와 러시아, 조선인이 사는 다른 곳으로도 확산됐다.⁷³⁾

비록 선언의 저명한 서명자들이 모두 남성이라 해도, 여성들은 3월 1일 수많은 행진의 선두를 주도적으로 형성했다. 여성들의 지하 네트워크인 송죽회가 1913년 평양에서 결성됐었다. 3월 1일 운동에서 여성참여는 “전통사회에서 잠재적이었던 강력한 힘을 드러냈다.”⁷⁴⁾ 일본군과 관리들에게 비밀을 유지하면서 같은 날 1백만명의 조선인들을 동원한 놀라운 힘은 조선

70) See Park Eun-sik, *Agony: Korean History*. Park was second president of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Tabulating the fierce repression unleashed by the emperor to punish Koreans, historian Kang Man-gil counted 7,500 citizens killed, 16,000 injured, and more than 46,000 arrested. Kang Man-gil, *A History of Contemporary Korea* (Kent, UK: Global Oriental, 2005), 29.

71) The Korean “Independence” Agitation (Seoul: Seoul Press Office, 1919), 17. This strongly pro-Japanese document is contained in Harvard University's Widener Library Depository.

72) Quoted in Shannon McCune, *The Mansei Movement*, 16.

73) Ki-baik Lee, *A New History of Korea*, 344.

74) Kim Yung-Chung, “Women's Movement in Modern Korea,” in *Challenges for Women: Women's Studies in Korea*, ed. Chung Sei-wha (Seoul: Ewha Women's University Press, 1986), 90.

시민사회의 비상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여성들은 조선 시민사회의 걸출한 힘에 중심적이었고, 3월 1일 그들의 지도력은 공개적으로 보여졌다. 저명한 여성 지도자들에는 김 마리아, 황애덕, 이송완, 장선희, 오신도, 박현숙, 안경신 등이 포함되며 그들 모두 투옥됐다. 여학생들의 참여는 특히 주목할만한데, 많은 기생들의 참여도 그러하며, 그들은 3월 1일 이후 일본 식민주의자들과 말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그들은 조합을 결성해 전통예술에 헌신했다. 만세운동의 10대 순교자 중의 하나인 유관순은 특히 유명해졌다. 시위가 시작되자 그녀는 고향은 충청남도 천안(Chiryong)으로 되돌아갔다. 4월 2일 그해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공개적으로 독립을 호소했다. 1년뒤 봉기 1주년을 맞아 그녀는 다시 한번 조국의 독립을 주장했다. 용감한 노력 때문에 그녀는 체포됐다. 재판 동안 유관순은 침묵을 지키기를 거부하고 판사들에게 의자를 던지면서 만세를 불렀다. 그녀는 나중에 고문당해 죽었다. 유관순의 시신은 그녀의 선교학교가 토막난 채로 그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음에도 결코 수습되지 못했다.

한 교회는 1919년 2,656명의 신자(531명의 여성을 포함)가 조선독립과 관련된 행동 때문에 체포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의 식민통치 아래서 이뤄진 경찰의 “근대화”, 경찰의 효과적인 통합과 확대는 대부분의 조선인들에게 재앙이었다. 봉기 이후 1년 안에 경찰서의 숫자는 151개에서 251개로 늘어났고, 파출소의 숫자는 같은 기간 686개에서 2,495개로 늘어났다.⁷⁵⁾ 일본의 탄압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야만성은 논란의여지가 없다. 목격자의 진술은 수없이 많다. 1919년 4월 15일 재암리(경기도 수원근처)에서 최송나 29명을 포함한 모든 마을 주민들이 교회에 모이게 했다. 문이 잠기고 건물에 불이 붙어 모두 죽었다. 인근 15개 마을에서 317채 이상의 집이 불탔고, 사망한 사람들은 수백명에 이르렀고 아마 1천 명에 이르렀다.⁷⁶⁾ 거의 한 세기 동안 일본은 재암리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조차 부인했지만, 2007년 민간인 학살과 은폐의 증거가 일본군 장교 우츠노미야 타로의 일기에서 발견됐고, 일본 <아사히신문>과 한국 <한겨레신문>에 실렸다.⁷⁷⁾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지 못한 대부분의 봉기처럼, 3월1일 운동은 국가탄압의 증가로 이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영향을 줬고 운동의 조직형태 발전과 권력 도전에서 다음 단계를 위한 길을 닦았다. 3월 1일 몇주 후 조선의 임시정부가 광범한 스펙트럼의 정치적 입장을 대표해 상하이에서 수립됐고, 무장집단이 만주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일본에 맞서 지속적인 투쟁을 했고 조선 내에서는 문화적 저항이 강화됐다. 수년 후 김용복은 이렇게 썼다. “3월 1일 독립운동은 조선 민중의 마음과 정신 속에 살아있고, 영원한 역사적 상징이 됐다... 3.1운동은 한국 역사에서 최초의 민중운동이며, 역사의 축이 혁명적으로 변화했다.”⁷⁸⁾ 순수한 숫자로 1919년 봉기 이후 사회운동 단체들의 번성은 주목할 만하다. 일본 총독부 자체의 수치는 표 2.3에서 보이는 것처럼 청년, 농민, 노동자들 사이에서 조직된 단체의 상당한 증가를 보여준다.

[표 2.3] 사회운동단체 1920-1933년

년도	농민운동	노동운동	청년운동
1920	0	33	251
1921	3	90	446

75) 75 Stearns, The Encyclopedia of World History, 783.

76) British missionary, Dr. Frank W. Schofield, took photos of the carnage, which were published by the Oriental Relations Committee of the Christian Federation Association as “The Korea Situation” in July 1919.

77) On March 1, 2007, some called for renewed inquiry into the massacre and the colonial government’s cover-up.

78) Kim Yong-bock quoted in Lienemann-Perrin, Die Politische, 199.

1922	23	81	488
1923	107	111	58
1924	112	91	742
1925	126	128	847
1926	119	182	1,092
1927	160	352	1,127
1928	307	432	1,320
1929	564	465	1,433
1930	943	561	1,509
1931	1,759	511	1,482
1932	1,380	404	863
1933	1,301	374	1,004

Source: *The Recent Security Situation in Korea, 1933*, as reported in Kang Man-gil, “Contemporary Nationalist Movements and the Minjung,” in *South Korea’s Minjung Movement: The Culture and Politics of Dissidence*, ed. Kenneth Well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5), 87.

독립선언의 초안작성에 참여한 여운형과 이광수는 1919년 4월 10일 상하이 임시정부를 수립한 사람들이었다. 그 당시 미국에 거주하면서 “우드رو 윌슨의 제자”로 알려진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이승만 정부는 1925년 박은식으로 교체됐다가 다음해 김구가 승계했다. 이 그룹은 조선의 다양한 정치적 경향의 상이한 많은 분파를 포함했고 광복군(조선해방군)을 결성했고, 마침내 2차 세계대전 시 중국과 버마에서 연합군과 나란히 전투를 했다.

모든 봉기는 자연발생적으로 사회질서의 핵심적 문제를 드러내며 그 해결방향을 가리킨다. 3월1일 운동이 제기한 문제는 그 범위에서 국제적이었고, 상하이의 임시정부는 중국 학생들과 지식인들에게 자극제가 됐다. 베르사이유 평화회의에서 승전국들은 독일이 장악한 영토의 회복에 대한 중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 대신 세계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짜내서 이 영토를 일본에 이양할 의도였다. 이 소식이 베이징에 전해지자, 수천명의 학생들이 5월 4일 티안안먼 광장에 집결했다. 중국 전역에 배포된 그들의 투쟁호소문에는 조선의 3월1일 봉기를 명확하게 언급했다. “조선인들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다.”⁷⁹⁾ 여기에 중국이 5월4일 운동이 어떻게 이웃 조선의 용감한 봉기로부터 영감을 얻었는지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학생들은 중국의 운동을 시작했고, 이 운동은 5월 중순 수십개 도시에서 학생들의 총파업으로 전화했다.⁸⁰⁾ 전국의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신속하게 합류했다. 5월4일 운동이 강화되자, 민중들은 주요 도시에서 일본상품을 보이콧했고, 최악의 협력자들을 권력의 지위에서 쫓아내는 데 성공했다. 일본에 대한 민족주의적 저항에서 시작한 이 운동은 곧 시민적 자유 확대를 포함한 요구로 봉건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변화했다.⁸¹⁾ 이 패턴은 유사하다.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변혁을 촉발하고, 이 투쟁은 운동 초기단계의 즉각적인 요구를 넘어서는 노동자-농민운동을 창출한다.

비록 20세기 말에야 드러났지만, 투쟁의 국제적 확산의 패턴과 풀뿌리에서 제기된 요구의 상승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919년 한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했다. “지금 세계의 많은 곳

79) Chow Tse-tsung, *The May Fourth Movement: Intellectual Revolution in Moder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7), 107.

80) *Ibid.*, 139-4.

81) Nishi Masayuki, “March 1 and May 4, 1919 in Korea, China and Japan: Toward an International History of East Asian Independence Movement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Asahi Shinbun*, October 29, 2007. Posted on Japan Focus website (<http://www.japanfocus.org/>) on October 31, 2007.

에서, 특히 이집트와 아일랜드에서 표출되고 있는 자유와 독립에 대한 열원은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교육받은 조선의 수많은 남녀 청년들의 생각과 사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⁸²⁾

봉기에서 무장저항으로

일본경찰의 포악한 탄압은 조선내의 평화적 시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추방된 사람들은 만주와 러시아에서 수십만명의 조선인들 사이에서 피난처를 찾았고, 거기서 중국이나 러시아 혁명가들과 연계를 맺었다.

궁핍한 농민과 룬펜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일본에 맞선 투쟁을 수행했다.⁸³⁾ 어떤 사람들은 10년전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서 영감을 얻었다. 1919년 9월 2일 새 총독으로 임명된 사이토 남작은 서울에서 그의 차량에 던져진 폭탄을 가까스로 피했다. 그러나 곧 심지어 비밀조직조차 국내에서 저항을 조직하기 극히 힘들게 됐다. 새로 결성된 공산주의적 노동연맹도 야만적인 탄압을 당했다.

조선인들은 이 시기에 포위되고 취약한 러시아의 혁명정부를 제외하면 그 어떤 세계열강의 지원에 의지할 수 없었다. 신생 러시아 공화국의 지도자인 레닌은 모든 식민지 민중들에게 독립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다. 러시아 혁명의 승리로 고무된 많은 사람들이 레닌에게로 몰려들었고, 레닌은 1921년 1월 조선 공산주의자 이동휘를 직접 만났다. 그 당시에 세워진 조선 공산당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다. 모두 3,700명의 무장대원을 가진 모두 36개의 상이한 공산당들이 러시아 적군과 나란히 반혁명적 백군과 싸웠다.⁸⁴⁾ 1925년 4월 17일 새로운 조선공산당(이 서울의 한 중국식당에서 열린 비밀모임에서 수립됐다. 하와이의 서대숙은 조국을 해방하려는 공산주의 그룹을 세웠고, 이는 자신을 “공산당”으로 이해한 수많은 국외 그룹 중의 하나였다. 이 다양한 그룹들을 통합하는 데 실패하자, 모스크바의 코민테른은 이들 모두 해체하기로 결정했고, 이미 2년 동안 코민테른 소속된 조직마저 해체했다.

[사진] 1930년대 만주의 반일 조선해방투사. 사진작가 미상

비록 정치조직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였지만, 무장투쟁의 긴급성은 행동을 요구했다. 시베리아로 탈출한 홍범도는 이르쿠츠크에서 대대장이 되어 일본에 맞선 투쟁을 계속했다. 3월 이후 두 달 안에 홍범도는 200명의 무장한 노동자, 농민, 청년 그룹을 이끌었다. 다른 그룹들과 힘을 합쳐 만주의 조선독립군을 결성한 그들은 일본군 부대들과 교전을 벌였고 주요 전투에서 수백명을 죽였지만, 대대적 반격 때문에 시베리아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 내부에서 결성된 다른 그룹인 의형제단은 신체의 “조선혁명선언”을 발표했는데 이 선언은 명확히 혁명적이었다. “조선 민중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 강도들은 축출되어야 하며, 일본인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혁명을 통하는 것이다.”⁸⁵⁾ 한 추정치는 1930년대 초반 국경지대의 봉기자 숫자를 160,000명 이상으로 본다.⁸⁶⁾ 결국 일본에 충성할지 모른다고 의심한 스탈린은 조선인의 대규모 격리수용 작전의 일환으로 홍범도와 그의 부하들에게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했다.

82) 82 The Korean “Independence” Agitation, 15.

83) Cumings, North Korea, 114.

84) Gothel, Geschichte Sudkoreas, 25.

85) Quoted in Kang Man-gil, “Contemporary Nationalist Movements and the Minjung,” in South Korea’s Minjung Movement: The Culture and Politics of Dissidence, ed. Kenneth Well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5), 33-4.

86)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1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34. (Hereafter Cumings, Origins, 1).

조선 혁명가들의 역동적 스펙트럼 내에서 무정부주의자들과 여성주의자들도 등장했다. 유토피아 사상가인 신채호는 열정적 무정부주의자가 됐고, 무정부주의는 그에게 조선의 샤머니즘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조였다. 신채호는 아주 급진적이었고, 이렇게 선언했다. “자본주의, 제국주의 나라의 야수적 민족들은 동방의 모든 식민지의 프롤레타리아 민중의 피와 살, 뼈로 배가 터질 지경이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 민중, 특히 우리 민중이 죽음보다 비참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아시아의 식민지 민중들을 고문한다.” 1920년대 초반 유토피아 사상가 조소앙은 “보편적 사랑”에 기반한 “국가없는 세계가족”에 헌신할 조선독립기구를 세웠다.⁸⁷⁾ 또다른 유교 지식인인 박은식은 “통합된 위대한 세계사회”를 통한 국제평화를 역설했다. 수많은 다른 독립지향적 조선인들처럼, 그들은 일본통 아래서의 삶을 견딜 수 없었고 만주로 이주했다.

1924년 조선 무정부주의 연맹이 중국에서 결성됐고 그들은 정기적으로 신문을 발행했다. 1928년까지 무정부주의 경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조선, 중국, 베트남, 타이완, 일본 등에서 참여한 가운데 동방 무정부주의 연맹이 출범했다. 일본인 10대였던 가네코 후미코는 3월 1일 봉기 당시 조선에 살고 있었고 큰 영향을 받았다. 비록 그 당시 17세였지만, 그녀는 조선인 가족을 떠나 도쿄로 이주했고 거기서 1922년 무정부주의자 박열이 불령사(不逞社: Society of Malcontents)를 조직하는 것을 도왔다.

봉기 이후 일본의 식민정책은 힘만으로 조선인들의 독립정신을 억누르는데 실패했기 때문으로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화정치”라는 이름의 새 정책은 군대를 경찰로 대체하고 제한된 수준의 언론, 결사, 집회의 자유를 허용했다.⁸⁸⁾ 더욱이 조선인들 자신도 3월 1일로 바뀌었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어떻게 봉기가 민중의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한가지 사례는 1920년대 조선의 “신여성”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치적 변화 외에도 문화적 변화의 필요성을 과감하게 수용한 이 여성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함과 동시에 자유연애, 자유결혼, 가부장제의 종식을 옹호했다.⁸⁹⁾ 신여성들은 <신여성>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선전하자 커다란 저항에 부딪혔다. 부분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무비판적으로 서구문화를 채택했다는 이유였다. 이 시기에 여성들의 평화적 애국주의 행동도 거의 불가능했다. 많은 여성들이 만주와 중국으로 떠나 투사가 됐지만, 조선 내에서 다른 여성들은 문화단체와 교육단체를 설립했다. 1923년 최초의 여성노동단체인 고무산업 경성여성노동조합이 결성됐다. 사회주의 여성단체와 기독교 여성단체 간의 이데올로기적 차이(운동 전체에서 반영된 차이)에도 불구하고, 1929년 여성들은 한데 뭉쳐 근우회(勤友會)를 결성했다. 근우회는 성차별, 아동결혼, 매춘,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의 종식, 그밖에 결혼의 선택, 여성농민 지원,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옹호하는 데 헌신한 애국적 조직이었다. 1928년 7월 창립모임에 40개 이상의 단체들이 참여했고, 1년뒤 70개 지부가 대표를 파견했다.⁹⁰⁾

반일투쟁의 또다른 강력한 원천은 문화운동이었다. 음악, 미술, 문학, 연극 등을 통해 “조선 민중이 더 잘 이해하도록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폭로했다.⁹¹⁾ 1925년과 1938년 사이에 조선

87) Kim Gi-seung, “Embracing and Overcoming of Social Darwinism by Confucian Intellectual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Korea: The Cases of Park Eun-Sik (1859-1925), Jang Ji-Yeon (1864-921), Lee Sang-Yong (1858-931), Sin Chae-Ho (1880-936), and Cho So-Ang (1887-958),”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2 (2001): 25-0.

88) Kang Man-gil, “Contemporary Nationalist Movements,” 3, 11.

89) Insook Kwon, “‘The New Women’s Movement’ in 1920s Korea: Rethin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mperialism and Women,” in *Feminisms and Internationalism*, eds. Mrinalini Sinha, Donna Guy, and Angela Woollacott (Oxford: Blackwell, 1999), 37-1.

90) *Ibid.*, 96-7.

91) 91 Sohn-Pow-key, Kim Chol-choon, and Hong Yi-sup, *The History of Korea* (Seoul, 1982), 313. Quoted in

프롤레타리아 예술가동맹(Korean Artists Proletarian Federation: KAPF)을 통해 1백편 이상의 문학작품을 생산했다.⁹²⁾ 일각에서 이데올로기는 얻었으며 예술은 잃었다고 비판하지만, 이 그룹은 미래의 저항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1920년대 전반기에 일본의 교육통제에 맞선 234건의 학생파업이 일어났다. 학생들이 주도한 1926년 6월 10일 봉기는 단 하루 만에 2천명이 체포됐는데, 공산주의 그룹과 천도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천도교는 학생들을 위해 수십만부의 전단을 인쇄했다. 전체적으로 일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저항은 역동적인 반체제적 시민사회의 표현이었다.⁹³⁾

1919년 조선의 부르주아지(그 당시 거의 전적으로 상인과 지주)는 “근대적 산업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⁹⁴⁾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일본에 저항했지만, 새로 생겨난 자본가들은 조선의 “근대화”로부터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 명백히 1919년 봉기의 한가지 효과는 일본의 식민개발정책의 수정이었고 일본인만이 아니라 조선인들도 경제발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조선 기업인들은 민족주의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 그들은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일본경찰을 이용했고 조선의 민족적 정체성 말살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⁹⁵⁾

조선 노동자들은 문제를 아주 다르게 봤다. 1921년 9월 5천명의 탄광 노동자와 항만 노동자들이 부산에서 파업했다. 1923년 7월에 시작된 장기 파업 이후에 경성고무공장의 여성노동자들은 1925년 조선노동총동맹을 결성하는 데 기여했다. 다음해 **여성근우회**가 조직됐는데, 특수하게 여성 농민과 노동자를 조직하려는 최초의 그룹이었다.⁹⁶⁾ 그 당시 조선 여성들은 산업노동력의 60퍼센트를 이뤘음에도 그녀들의 임금은 일본인 남성의 1/7에 지나지 않았다.⁹⁷⁾

1929년 노동자계급 저항이 새로운 절정에 도달했다. 운수노동자와 항만노동자들이 주도한 원산의 3개월간 총파업은 노동조합의 쓰라린 패배로 끝났지만, 이 투쟁은 민중의 경험축적과 민중적 형태의 저항을 보다 정교한 수준으로 상승시킬 역량을 보여줬다.⁹⁸⁾ 부산 고무공장 여성 노동자들도 파업에 들어갔고, 흑연광산 노동자와 양조, 낫쇠공장, 인쇄 노동자들도 파업에 들어갔다. 1929년 후반 목포에서 광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고등학생들 간의 싸움이 일본의 식민화에 맞선 투쟁으로 폭발했다. 광주학생운동의 첫 국면에 거의 200개 학교의 50,000명이 파업과 시위에 참여했다. 지도부 학생 몇몇이 체포되자, 투쟁은

Lienemann-Perrin, Die Politische, 86.

92) Namhee Lee, *The Making of Minjung: Democracy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in South Korea* (Ithaca, 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270.

93) See Sunhyuk Kim, “South Korea: Confrontational Legacy and Democratic Contributions,” in *Civil Society and Political Change in Asia*, ed. Muthiah Alagapp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140-2.

94) Eckert, *Off spring of Empire*, 27.

95) *Ibid.*, 226. Despite various efforts at reform, Japanese arrogance and hatred of Koreans, while incomprehensible to most Westerners, mitigated attempts to integrate Koreans into Japan’s Greater East Asia Prosperity Sphere. One incident in particular might clarify its depth. After a great earthquake struck Tokyo on September 1, 1923, Japanese mobs armed with bamboo spears and knives hunted down and killed more than six thousand Koreans. Police arrested many others, including anarchists Kaneko Fumiko and Park Yeol. Kaneko eventually died in prison, whether from suicide or murder—the official documents have yet to be made public.

96) Chong-Sook Kang and Ilse Lenz, *Wenn die Hennen krahnen: Frauenbewegungen in Korea* (Munster: Verlag Westphalisches Dampfboot, 1992), 77.

97) Hyun-back Chung, “Together and Separately: ‘The New Women’s Movement’ After the 1980s in South Korea,” *Asian Women* 5 (Fall 1997): 22.

98) Martin Hart-Landsberg, *The Rush to Development: Economic Change and Political Struggle in South Korea*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93), 114.

더욱 건잡을 수 없이 격화됐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전체적으로 투쟁이 고조되면서 250,000명의 학생들은 체포된 시위자의 석방, 교육의 자율화, 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요구했다.⁹⁹⁾ 조선 전역에서 젊은 청년층이 투쟁에 밀려들었다. 지린(吉林)에서 김일성은 고등학생이었던 김일성은 비밀 맑스주의 서클에 가입한 혐의로 체포됐다.¹⁰⁰⁾

1929년 8월 만주의 무정부주의자들이 조선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동맹의 후원 아래 신민에서 자치구를 건설했다. 촌락, 지구 및 지역 평의회는 모두 2백만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 조선인민협회라는 탈집중화된 구조를 통해 함께 협력했다.¹⁰¹⁾ 조선인민협회는 그 목적을 “일본에 맞서 투쟁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충분한 힘을 모은 조선민중의 독립적인 자치적 협력체계”라고 선언했다. 일본군은 태평양 전쟁의 최장전투로 알려진 작전으로 조선인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개시했다. 일본군의 공격강도가 증가하면서 김좌진은 1931년 아마도 스탈린주의자들에게 암살당할 때까지 성공적으로 저항투사들을 이끌었다. 김좌진은 스탈린주의의 공격을 무시하고 독립을 위해 일하라고 반란군에게 설득했다. 스탈린과 일본 양측이 전개한 공격에 압도당한 자율적 신민 해방구는 분쇄당했지만, 반란군은 투쟁을 계속했다. 1931년부터 전쟁 말까지, 20만명이나 되는 게릴라들이 만주에서 살해당했다.¹⁰²⁾

조선인들은 일본당국에 대항한 직접행동에서 확고하게 버텼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은 히로히토 천황이 퍼레이드를 떠나길 침착하게 기다렸다. 그는 수류탄 2개를 차량에 던졌지만, 첫 번째는 과녁에서 크게 빗나갔고 두 번째는 정확했지만 폭발하지 않았다. 3개월 후 상하이에서 김구의 제자인 윤봉길은 일본군 행사장에 폭탄을 던져 중국주둔 일본군 총사령관 시로가와 요시노리 장군을 살해했고 마노루 시게미츠를 포함한 수많은 고위 장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마노루는 일본천황을 대리인으로서 실크모자와 턱시도를 입고 1945년 미군함 미주리호에 절뚝거리며 올라가서 일본의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그림]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은 상하이에서 일본군 고위장교들을 공격했다. 화가 미상

조선 내의 지속적인 공격에 대응하여 일본은 경찰력을 더욱 강화했고, 1920년과 1943년 사이에 경찰력은 평균 23,000명에 이르렀고 이는 인구 1천명당 경찰관 1명 꼴이었다.

비록 일부 조선인들이 경찰이 됐지만(그리고 나중에 1945년 미군정 아래서 주요한 간부가 됐다), 지휘관의 거의 90퍼센트와 하급경찰의 2/3가 일본이었다.¹⁰³⁾ 경찰의 권한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색, 압수 또는 자의적 처벌 금지로 제한받지 않았다. 반체제 인사의 고문과 살해는 흔한 일이었고 처벌받지도 않았다. 조선의 일본인 총독은 천황이 직접 임명했고 절대적 권한을 가졌다. 1942년에서 1943년까지 겨우 400명의 조선인만이 하급 관리 이상으로 진급한 반면, 48,372명의 일본인들이 고위관직을 독점했고, 이는 조선인에 비해 120배나 많은 숫자였다. 그들 위에는 2,455명의 고위 행정직이 있었지만, 조선인은 거의 없었다.¹⁰⁴⁾ 권력구

99) Kyun Moon Hwang in Contentious Kwangju: The May 18th Uprising in Korea's Past and Present, eds. Gi-Wook Shin and Kyung Moon Hwang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2003), 140; Kang Man-gil, "Contemporary Nationalist Movements," 50.

100) Cumings, North Korea, 108.

101) 101 Alan MacSimoin, "Anarchism in Korea," a public talk given in Dublin, September 1991, <http://libcom.org/history/1894-1931-anarchism-in-korea>.

102)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2,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346-7. (Hereafter Cumings, Origins, 2.)

103) Agrawal, Korean National Movement, 87.

104) Ibid., 89.

조는 아주 심하게 왜곡되어 심지어 일본인이면 민간인들도 처벌받지 않으면서 조선인의 땅과 집을 강제로 빼앗을 권한이 있었다. 일본인 지주가 조선의 가장 중요한 재산소유자로 등장했고

조선 농민의 약 90퍼센트는 소작농으로 전락해 수확물의 80퍼센트 이상을 지주에게 지불했다.¹⁰⁵⁾ 전라북도에서 모든 가구의 85퍼센트가 무토지 상태이거나 소작농이었고 호남 전역에서 모든 대지주의 절반 이상이 일본인이었다.¹⁰⁶⁾ 1930년대 등장한 적색농민조합은 주로 식민정부에게 생계를 위협받던 소지주들로 구성됐다. 농촌생활에 대한 위협과 세금정책에 우려한 농민들은 남조선의 123개 군 중에서 최소한 32개 군에서 조합을 결성했다.¹⁰⁷⁾

조선인들의 상황이 악화되자, 모든 쌀수확의 거의 절반이 일본으로 수출됐다. 1935년 일본인 총독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껍질과 풀을 찾는 비참한 농민의 숫자는 농민인구의 1/2에 접근했다”고 인정했다.¹⁰⁸⁾ 수천명의 어린 여자아이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자기 자식조차 돌볼 수 없는 가족들에 의해 성노동을 위해 팔려나갔다.¹⁰⁹⁾ 조선인의 궁핍화는 표 2.4의 통계에 나와 있는데, 일본통치 아래서 쌀소비가 거의 50퍼센트나 하락했다.

표 2.4 일본통치 아래서 조선의 1일당 쌀소비

년도	1인당 소비량	지수
1912-1916	0.7188석	100.0
1917-1921	0.6860석	95.5
1922-1926	0.5871석	81.6
1927-1931	0.4964석	69.0
1932-1936	0.4010석	55.8

1석 = 4.96 bushel

Sources: Andrew J. Grajdanzev, *Modern Korea* (New York: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44), 88; The Statistical Charts of the Korean Economy (Seoul, 1940), 204-; Brahm Swaroop Agrawal, *Korean National Movement* (Gwalior, India: Jiwaji University Press, 1996), 97.

같은 시기에 쌀의 일본수출은 1910년 평균 150만석에서 1921년에서 1939년까지 620만석으로 거의 400퍼센트 증가했다.¹¹⁰⁾ 명확히 일본은 자기 인구를 먹일 수 없도록 조선을 굶주리게 했다. 이것은 고립된 정책이 아니었다. 1944-1945년 겨울 북베트남에서 1백만명 이상이 굶어 죽었던 반면(1,400만 인구 중에서), 식민당국은 쌀을 연료로 쓰기 위해 석유가 부족한 일본 회사들에게 수출했다.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할 즈음, 일본은 광산과 공장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위험한 일

105) Hart-Landsberg, *The Rush to Development*, 105.

106) Sallie Yea, “Cultural Politics of Place in Kwangju City and South Jeolla Province” in Gi-Wook Shin and Kyung Moon Hwang, *Contentious Kwangju: The May 18 Uprising in Korea’s Past and Present*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2003), 115-6.

107) Gi-wook Shin, “The Historical Making of Collective Action: The Korean Peasant Uprisings of 1946,”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 no. 6 (May 1994): 1601.

108) The Governor General of Chosen, *Thriving Chosen* (Seoul: 1935), 82.

109) David McCann translated folklore that cried out: “Castor-tree, don’t bear your beans; the illage girls go off as doxies.” See “Arirang: The National Folksong of Korea,” in *Studies on Korea in Transition*, eds. McCann, et al.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79), 51-2.

110) See also Kang Man-gil, “Contemporary Nationalist Movements,” 104- for official Japanese estimates of exports of Korean rice.

을 수행할 노동자로서 수십만명의 조선인을 수입했다.¹¹¹⁾ 수천명 이상의 조선인들은 군대에 징집병으로 근무했고 수만명의 여성들(전체 20만명 여성 가운데 절반은 조선인)은 강제로 천황의 군대를 위한 섹스노예(완고하게 “위안부”라고 부르는)가 됐다. 1937년에서 1945년까지 강제노동력으로 일본으로 보내진 조선인의 총숫자는 최고의 추정치로 7,000,000명에 이른다.¹¹²⁾ 강만길은 노동자로 “강제 동원된” 사람들의 숫자를 1,130,000명 내지 1,460,000명으로 추정했다.¹¹³⁾ 다른 집계에 따르면 일본식민정책으로 조선 외부로 보내진 조선인의 숫자는 전체인구의 16퍼센트, 약 4,000,000명이었다.¹¹⁴⁾ 1945년 미군은 2,400,000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1,900,000명이 만주에 있다고 추정했다.¹¹⁵⁾ 이런 대규모 인구이동은 전쟁말 미국의 핵무기로 사망한 희생자 수천명이 조선인이었음을 의미한다. 즉 히로시마에서 7명당 1명, 그날 사망한 140,000명 중에서 20,000명이 조선인이며, 나가사키에서도 조선인 수천명이 더 사망했다. 전쟁 말기 조선인들의 처우는 너무나 나빠서 조선식 이름을 쓰지 못하고 심지어 조선에서도 일본 이름을 써야 했다. 모든 희생과 노동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은 여전히 잊혀진 희생자들이었다. 21세기에도 조선인들은 일본에서 아직도 완전한 권리를 부여받지 못했다. 일본의 많은 묘지에서 조선인들의 매장이 아직 허락되지 않고 있다.

미래의 역사가들이 인류의 오랜 유혈 역사상 가장 유혈적인 분쟁인 2차 세계대전을 돌아보면, 2차대전이 가져온다고 했던 평화보다는 그 이후 수십년간 지속된 전쟁에 대해 더 기억할지도 모른다. 1945년 이후 1천만명 이상의 인간이 공장에서 제조한 살인기계가 가한 야만적인 죽음을 맞이했다.¹¹⁶⁾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2차대전의 유산을 충분히 고려하면, 당연히 아돌프 히틀러 류의 인간이 승리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히틀러는 패배하기 전에 다양한 인종청소로 독일을 철저히 변화시켰다. 그 이후 수십년간, 도시의 공중폭격과 민간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무기 사용 등 그런 전술은 일상사가 됐다.

1945년 미군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사실상 일본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 그는 일본천황과 친구가 됐고 과거의 전범들에게 후원자가 됐고 조선인 협력자들을 포용했다. 조선 민족주의의 흐름을 탄압하는 일본의 정책을 지속한 맥아더는 미국이 일본을 위해 준비한 가혹한 점령을 견도록 조선인들에게 명령했다. 일본 민족주의는 1945년 패배한 거대한 파괴적 세력으로 독일 나치즘과 같은 등급이지만, 해방과 노예화의 변증법에서 일본으로부터 조선의 해방은 곧 과거에 결코 없었던 전쟁으로 인해 조선의 유린으로 이어지게 된다.

111) Koreans made up about one-third of the industrial work force in Japan and accounted for more than 60 percent of the most difficult work in mines.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177.

112) Kang and Lenz, *Wenn die Hennen krahnen*, 31.

113) Kang Man-gil, “Contemporary Nationalist Movements,” 21.

114) Stearns, *The Encyclopedia of World History*, 783.

115) Lee Ki-baik, *A New History Of Korea*, 48;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100.

116) In *Rogue State* (Monroe ME: Common Courage, 2000), William Blum counts sixty-seven U.S. interventions since World War II. See also <http://www.xs4all.nl/~stgvisie/VISIE/interventielijst.html>.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 has bombed twenty-three nations. (See: Lenora Foerstel and Brian Willson, “United States War Crimes,” <http://www.globalresearch.ca/articles/FOE201A.html>)

[번역] 조지 카치아피카스,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1권

조지 카치아피카스, George Katsiaficas,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Asia's Unknown Uprisings,
1권: 20세기 남한의 사회운동 Volume1: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in the 20th Century

3장 미국 제국주의와 10월 인민항쟁

미국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식민제국의 유지에 대한 이해를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식민체제를 더 잘 유지하고 식민지 반란의 자극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짓하기 위해 식민체제의 자유화를 고무해야 한다.

- 전략첩보국, 1945년 4월 2일

- 현재 남부 조선을 묘사하는 최상의 방식은 불꽃을 갖다대기만 하면 폭발할 상태의 화약고라고 진술하는 것이며.... 조선인들은 왜 자신들에게 완전한 독립이 주어지지 않았고 미군 도착 2-3일 이내에 자신의 정부를 완전하게 수립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 존 리드 핫지, 맥아더에게 보내는 전보, 1945년 9월 13일

일지

1910-1945년	일본의 조선지배
1945년 8월 6일	미국 히로시마 원자탄 폭격
1945년 8월 9일	미국 나가사키 원자탄 폭격
1945년 8월 15일	일본 연합국에 항복
1945년	승전 연합국 조선과 베트남을 “임시적으로” 분할
1945-48년	남부 조선에 미군정 설치
1945년 9월 2일	호치민 베트남 독립 선포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 조선 독립 선포
1945년 10월 16일	이승만 미군기로 입국
1945년 11월 5일	전국노동조합총평의회(전평) 결성
1945년 12월 8일	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농) 결성
1945-1950년	남부 조선인 100,000명 미국점령과 민족분단에 저항하다 사망
1946년 9월 23일	부산 철도노동자 파업 시작
1946년 10월	남부 조선에서 미군정에 반대하는 총파업/봉기
1946년 10월 2일	미군탱크 대구 진입, 계엄령 선포

2차 세계대전에 관한 할리우드 영화는 미국을 나치의 범죄에서 세계를 구하고 유대인을 홀로코스트에서 구하고 일본의 침략에서 아시아인들을 해방시키는 고귀한 위치에 올려놓는다. 하지만 미국은 자치와 독립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조선과 베트남에서 미국은 과거 동맹자들을 배신했고 그들과 피의 전쟁을 했고 수백만명 민중의 목숨을 소멸시켰다. 심지어 전쟁이 끝나기 전에 무고한 사람의 살해는 시작됐다. 일본이 1945년 1월부터 항복조건을 협상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고집했다.¹⁾ 이는 소련에 대한 경고였고 냉전의

첫 폭격이었다.²⁾ 1945년에서 1950년까지 한반도 남쪽에서 미국의 제국체제에 저항하다가 10만명이나 되는 조선인들이 살해당했다. 1950년 한국전쟁의 공식적 개시 이전에 남한의 운동은 뚜렷한 발전단계를 밟았다: 1945년 조선인민공화국(KPR)의 창출에서 자주적 노동조합, 농민협회와 여성단체의 조직화, 1946년 대규모 총파업과 민중봉기, 1948년 조국의 분단을 막기 위한 제주, 여수와 순천의 무장봉기, 1949년의 계릴라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열강으로부터 조국을 해방시킬 모든 방법이 실패하자 미국을 축출하고 미국에 봉사하는 자들을 타도하기 위한 전민족의 무장투쟁까지 이어졌다. 운동발전의 각 국면에서 미국 제국주의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더 강력한 폭력수단을 제한없이 사용했다. 1945년 미국은 인민공화국을 불법화했고 인공 지도자들을 체포했다. 1946년 미국은 경찰과 미군에 파업을 파괴하고 농촌의 봉기대를 진압하라고 명령했다. 1948년 미군 장교들은 우익 준무장 청년그룹과 새로 구성된 한국경찰을 앞세워 무장봉기를 진압했다. 1949년 미국은 대규모 진압작전을 조직했고 즉결재판을 통해 수천명의 파르티잔 혐의자들을 살해했다.

마침내 1950년 미국은 조선 민중에 대해 최대의 미군사력을 동원했다. 폭격기는 일본의 안전한 후방지역에서 수천회 출격해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군함 포격은 피난민 대오를 시체더미로 만들었고 수천명의 즉결처형이 자유의 이름으로 자행됐다. 확실히 모든 만행에서 미국 장교들은 일본이든 미국이든 제국열강과의 유착으로 이익을 보려는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았다.

[사진] 1948년 여순봉기 패배 이후 파르티잔들이 백운산에 재집결했다가 체포됐다. 사진작가 미상

일본과 미국의 협력

2차 세계대전이 갑자기 끝나면서 조선의 지정학적 탈구는 너무 심각해서 일본군과 미군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모든 곳에서 생겨난 자율적 인민위원회를 억압하는 공동작전을 수행했다. 심지어 미군이 조선에 상륙하기 전에, 미국 “해방군”과 일본군 사이의 협력을 위한 준비가 이뤄졌다. 미군의 첫 부대가 서울 통제를 위해 도착하자 일본경찰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열을 지었다. 소요사태를 막으라는 미군장군 존 리드 핫지의 명령 아래 일본경찰은 미군의 도착을 환영하기 위해 나온 조선인 2명을 사살했다. 9월 9일 항복 의식에 핫지는 수천명이 공포에 질리도록 일본인 총독을 포함한 식민정부의 모든 관리들이 계속 권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³⁾ 제국권력의 유지에 조선인들의 저항이 강화되자, 미군의 남조선 점령 초기 몇주동안 미군과 일본군 연합 부대가 부산 등지에서 시위대를 공격했다.⁴⁾

탈선도 아니고 우연도 아닌 미일의 협력은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 아래서 여전히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주요한 특징이며, 미국은 일본의 전쟁범죄로 인한 고통과 해결되지 못한 슬픔의 늪에 연루돼있다. 차머스 존슨이 상기시켜 주듯이, 일본은 뿌리깊은 인종주의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전쟁 패배조차 일본인들이 인종적, 경제적, 문화적 우월성의 전설을 포기하도록 하지 못했다.... 일본인들은 2천만명 이상의 중국인을 살해하고 조선인들을 노예화하면서 그들이 실제로 서구 제국주의의 통제로부터 동아시아인들을 해방시키고 있다는 민

1) I Walter Trohan, “Japs Asked Peace . . . Roosevelt Ignored M’Arthur Report on Nip Proposals,” Chicago Tribune, August 19, 1945. See http://www.ihr.org/jhr/v06/v06p508_Hoffman.html.

2) This thesis was initially put forward in a 1965 study by Gar Alperovitz, Atomic Diplomacy: Hiroshima and Potsdam (London: Pluto Press, 1994). See also Howard Zinn, Passionate Declarations (New York: HarperCollins, 2003), 24-6.

3) Martin Hart-Landsberg, Korea: Division, Reunification, and U.S. Foreign Policy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98), 71-2. Also see his excellent The Rush to Development (Monthly Review Press, 1993).

4) Cumings, Origins, 1: 290.

족주의적-인종주의적 확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⁵⁾

2007년 <뉴욕 타임스>는 그 당시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의 할아버지 기시 보부스케가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및 조지 W. 부시의 할아버지인 프레스콧 부시 상원의원과 골프하는 오래된 사진을 실었다. <뉴욕타임스>는 독자들에게 기사가 2차대전 시 수천명의 비일본계 노동자들의 납치에서 담당할 역할로 A급 전범으로서 스가모 감옥에서 3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는 <뉴욕타임스>는 프레스콧 부시의 회사가 나치를 위해 일했다는 사실도 보도하지 않았다. 바로 그 역할 때문에 프레스콧 부시는 검열을 당했고 벌금형을 받았다. 2009년 일본 총리 아소 타로는 사상 처음으로 그의 가족이 수백명의 네덜란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조수들을 광산기업에서 노예노동자로 이용했다고 인정했다. 이런 사실은 1945년 적절한 수사가 결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년 이후에야 폭로됐다. 항복한 지 몇 달도 안돼 독일과 일본은 재빨리 미국의 우방으로 변신했다. 이런 변화 속도는 아주 신속해서 1950년 과거의 동맹국이었던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냉전 적성국이 됐다.

일본의 패배 직후 대중적 반자본주의-반식민주의 운동은 극도 강력했던 반면, 동시에 미국은 믿을만한 동맹자가 별로 없었고 취약한 피후견인들 뿐이었다. 미국은 비록 그가 삼십년 동안에 조선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지만, 이승만을 미국에서 데려와 대통령이 되도록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 정부는 아직 대대적 반공선전 캠페인을 전개할 시간도 없었고 조셉 매카시 상원의원도 숙청을 시작하지 않았다. 강력한 GI 정부가 본토에 돌아오자 미국은 제국 지배를 수립할 시간이 필요했다. 따라서 미국은 양보를 했고 일본인들이 천황제를 유지하고 어떤 종류의 탈나치화를 겪지 않도록 허용했다. 사회주의자들이 잠시 동안 연립정부에 참여하도록 허용했고, 노동조합과 공산당은 대중투쟁의 속도를 늦추는 수단으로서 합법화됐다. 불행하게도, 많은 좌파들(조선 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해)은 지위의 급속한 변화로 무장해제 됐고, 그들은 미국이 충분한 힘을 얻어 그들을 헌신짝처럼 버릴 때까지 인민전선으로 미국에 협력했다.

탈나치화를 겪었던 독일과는 달리(비록 피상적이지만), 일본은 결코 범죄행위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사실 아베 신조 총리는 2007년 취임하자 2차 세계대전 동안 20만명 이상의 여성들의 성노예제에 일본정부의 관련을 되풀이해서 부인했다.⁶⁾ 그 대신 아베는 야스쿠니 신사를 계속 방문해서 존경할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명목상의 범죄자들을 참배했다. 심지어 2007년 미국 하원이 사과를 요구하자, 아베는 거부했다.⁷⁾ 2009년 “자유민주적” 일본정부는 계속 사과를 거부했고,⁸⁾ 그 대신에 여성들이 “충성스런 병사들에게 하사한 천황의 선물”이 된 것에 행복해 했다고 주장했다.⁹⁾

1945년 일본이 갑자기 항복했음에도, 일본 군대는 아시아의 대부분을 여전히 통제했다. 동맹국들은 공식적으로 권력이전을 수용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조선과 베트남을 분할했다. “4대

5) 5 Chalmers Johnson, *Nemesis: The Last Days of the American Empire* (New York: Metropolitan Books, 2006), 76.

6) This is the number used in Germany. See, as one example, Jai Sin Park, “Arbeiterinnenbewegung in Sudkorea,” in *Dritte Welt: Frauen Bewegung in der Welt, Band 2*, eds. Autonome Frauenredaktion (Hamburg: Argument Sonderband AS 170, 1989), 205; in the United States, the figure used is often one to two hundred thousand. For example, see Miriam Ching Yoon Louie, “Minjung Feminism: Korean Women’s Movement for Gender and Class Liberation,” in *Global Feminisms Since 1945*, ed. Bonnie G. Smith (London: Routledge, 2000), 131.

7) See Martin Fackler, “No Apology for Sex Slavery, Japan’s Prime Minister Says,” *New York Times*, March 6, 2007.

8) Not only does the Japanese government refuse to apologize, but also in my experience, even raising the issue angers many Japanese people. In 2007, I witnessed many Harvard colloquia where Japanese graduate students angrily refused to let the issue be discussed, claiming it was irrelevant.

9) The phrases are taken from Japanese Professor Aiko Ogoshi, “How Can Philosophy Respond to Modern Antigones?” World Conference on Philosophy roundtable, Seoul National University, August 4, 2008.

열강”(미국, 영국, 소련과 중국)은 러시아가 북조선, 중국이 베트남, 미국의 남조선, 영국의 남베트남(1954년 프랑스의 패배 이후의 분단선이 북위 17도선이 아닌 북위 16도선까지)을 통제하기로 동의했다. 미국 역사가들은 조선의 분단을 변덕에 의한 것, 심지어 우연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러시아 측에 제출한 제안의 원문을 보면 미국 해군의 딘 러스크 중위가 38도선이 가장 적절한 분할선이라고 확인했다. 스탈린이 동의하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슬프게도 통일문제는 1945년의 이 숙명의 날 이후 조선인들의 손에서 벗어났다. 38도에 그려진 모래위의 선은 결코 영구적인 것이 될 의도는 없었고 단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비극 이후에도 아직 남아있던 일본군 당국의 항복을 받아들이기 위한 분할선이었을 뿐이다. 민주주의의 승리세력이 그린 이 가상적이고 임시적인 선은 냉전의 두 주요한 전투에서 5백만명 이상의 인명을 앗아가게 된다. 만약 미국이 조선을 분할하는 데 개입하지 않았다면, 조선은 파괴를 피했을 것이고 수백만명의 생명도 구했을 것이며, 조선은 아마도 오늘날 중북 북부지방과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심지어 전쟁이 끝나기 전에도 미국 전략첩보국(U.S.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CIA의 전신)은 아시아에서 식민체제의 유지를 주장했다. 토착 민중들이 이 운명을 거부하고 런던과 워싱턴의 유식한 전문가들이 내린 밀실 결정에 맞서 싸우는 것은 불가피했다. 그들의 일차적 관심사는 미국과 영국의 이익이지, 베트남, 조선, 캄보디아, 라오스나 중국의 이익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은 포츠담에서 “열강등이 조선 민중의 노예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경로를 거쳐 조선이 자유로운 독립국가가 되도록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조선인들은 이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미군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그들 자신의 독립적 형태의 정부를 조직했다. 조선인들이 직접 창출한 풀뿌리 기관을 수용하기보다는 미국은 그들을 탄압했고, 그 대신에 그들은 조선주재 미국육군 군사정부(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를 세웠다. 일본에 협력했던 경찰관, 판사, 간수 등 모두가 미군사정부의 한국인 지원기구로 통합됐다. 많은 일본인들은 일본 총독부의 옛 관직을 바꾸라는 요청을 결코 받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지 몇 주 안에 미국은 중국, 베트남, 조선의 토착적 저항에 맞서 일본군을 지원했다. 심지어 일본이 항복조건에 서명하기 이전에. 호치민이란 가명으로 더 잘 알려진 미국 OSS 첩보원 019는 베트남 산악에서 등장했지만, 일본에 맞서 함께 싸웠던 바로 그 열강이 자신을 고립시켰음을 알았다. 호치민은 전쟁 동안 일본 군함 및 군대의 이동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미국에 제공했었다. 그는 일본의 항복을 알고서 극가 굶주린 민중들에게 쌀저장고를 장악하도록 선동했고, 전국적으로 민중들은 전민중봉기(a khoi nghia)로 꺾기했다. 1945년 호치민은 여전히 워싱턴에 선이 있다고 생각해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전보를 써서 베트남을 “푸에르토 리코처럼 미국의 보호령”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이런 간청은 베트남에서 프랑스, 영국, 중국 및 일본 점령자를 제거하려는 의도였다). 그는 결코 답장을 받지 못했지만, 영국 공군과 일본 비행기들이 베트남에 기총소사와 폭격을 퍼부어 그들을 사이공에서 몰아내자 연합국의 의도는 충분히 분명해졌다.

일본 경찰관과 관리들은 조선에 머물면서 미군정에 봉사하는 한편, 중국에서는 일본군은 미군이 국민당의 철도 공급노선을 지키는 것을 도왔다. 만약 이런 사실이 놀라운 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단지 지겹게 반복되는 아시아의 해방자로서 미국의 역할 아래 이 사실들이 수십년 동안 아주 조심스럽게 묻혀져 있었기 때문이다. 호치민처럼 김일성도 연합국의 편에서 싸웠다. 하늘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를 봤던 조선의 모든 농민들처럼, 김일성도 미군기를 “좋은” 비행기로 인식했고 그에게 일본 비행기는 “적”이었다. 1944년 11월 일본의 한 경찰보고

서는 김일성이 블라디보스톡 근처에 있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는 “국경지대에서 미국 공군의 공습과 조율하여 철도를 파괴하기 위해 조선-만주 국경을 따라 주요 지점에 정보원을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¹⁰⁾ 미국의 첩보원은 이 정보를 확인했다. 그에 따르면 김일성과 그가 이끈 몇백명의 게릴라는 하바로프스크 지역에 있었고 일본인의 손에 “몰살의 위협” 때문에 그 지역으로 이동했었다.¹¹⁾

상식적으로 미국의 권력구조가 아시아를 크게 변화시켰지만, 조선과 베트남에서 일본과 미국 지배 간의 지속성은 차이보다 더 현저하다. 2차대전 후의 과도기에 경찰이나 관리로 일본에 봉사했던 조선인들은 재빨리 미군 부대로 편입됐고 그 정도는 너무 심해서 80퍼센트의 경찰과 공무원이 일본인에게서 미국인에게 넘겨가 급여를 받았다.¹²⁾ 미국은 감옥, 군사기지, 조선총독부를 포함한 정부 관청을 접수했고, 이 시설들을 일본인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했다. 즉 시위와 파업, 미군정에 대한 모든 반대를 탄압하는 데 이용했다. “해방” 2년 후 미국 군사정부는 실제로 일본보다 정치활동가들을 더 많이 구속했다. 1945년 17,000명의 죄수가 있었던 반면, 1947년 10월 그 숫자는 21,458명에 이르렀다. 만약 누가 책임있는지 의심스럽다면, “경찰과 헌병 모두가 미군 장교의 최고 명령체계 아래에 있었다.”¹³⁾ 더욱이 경찰의 약 85퍼센트는 가학적 고문자이자 일본통치의 잔인한 집행자로 유명했었다.¹⁴⁾

일본의 생물학전 부대

새로운 전후 국제질서에서 과거의 나치와 일본 관리 및 주축국 협력자들은 전세계적으로 미국이 고용했다. 투옥이나 더 나쁜 상황에 직면하는 대신 나치 첩보요원, 독일 로켓 과학자, 일본의 생물학전 전문가들은 기꺼이 미국의 앞잡이가 됐다. 이런 사악한 행위 중에 미국이 일본 제국군대 731부대의 생물학전 전문가들을 수용한 것보다 더 불길한 것은 없다. 호치민이나 김일성 같은 미국의 과거 동맹자들이 버려진 반면, 일본의 전범들은 미국의 도움으로 억만장자 의약업체 간부나 저명한 교수가 됐다. 그 대가로 그들은 미국에 범죄적 실험에서 얻은 귀중한 기술적 데이터를 제공했다.

731부대에 관련된 자 중에서 가장 악명높은 사람은 이시이 시로 대령이다. 이시이는 개인적으로 미국인 중국인, 영국인 죄수를 포함한 수천명의 죄수에 대한 전시 생물학 무기 실험을 감독했다. 승리한 연합국에 의해 결코 처벌받을 위협에 처한 적이 없었던 이시이는 미국 여행(그리고 한국전쟁 동안 한국여행) 경비를 모두 지불받았다. 인생의 나머지 기간 동안 이시이는 명예와 부를 누렸다(731부대의 다른 부대원들처럼).¹⁵⁾ 수천개의 슬라이드와 수십건의 인터뷰를 포함한 연구 프로그램의 비밀 세부사항에 대한 대가로 이시이 대령과 동료 전범들은 1946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면책을 부여받았다.

1947년 그들은 다시 한번 미국의 고위관리들에게서 모든 기소로부터 보호를 약속받았다.¹⁶⁾

10) Cumings, Origins, 1:36.

11) U.S. Intelligence Summary, North Korea, no. 30, February 16, 1947. Note that more than eighteen months before the founding of a government in northern Korea, U.S. intelligence reports refer to it as though it were a separate country.

12) Cumings, Origins, 1:166.

13) USAF in Korea, “SK Interim Gov Activities”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33 (June 1948): 394-5.

14)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85.

15) For further information on U.S./Japanese biological warfare see Hal Gold, Unit 731: Japan’s Wartime Human Experimentation Program (Tokyo: Yenbooks, 1996); Sheldon H. Harris, Factories of Death: Japanese Biological Warfare, 1932-1945, and the American Cover-Up (London: Routledge, 1994); and Stephen Endicott and Edward Hagerman, The United States and Biological Warfar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8).

16) Harris, Factories of Death, 118.

이시이의 세균전 실험에서 살아남은 미군 포로들은 미군 장교들로부터 수감생활의 세부사항을 비밀로 할 것을 약속하는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 생존자들은 매일 세균제 주입이나 수백명 동료 죄수의 살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금지당했다. 미국 의회가 이시이의 작품을 조사하려고 시도하자, 활동을 파일 박스는 조사관들이 추적하기 전에 미군부가 일본으로 신비롭게 돌려보냈다. 나중에 “본부 파일을 완전히 찾으려는” 조사관에게 맥아더의 보좌관은 일본 생물학전에 관한 파일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확인했다.¹⁷⁾

모리 마사타카 교수는 10년 이상 생물학전 연구해서 중국의 수십곳을 현지방문 했다. 그는 일본의 생물학전 부대가 전쟁 동안 270,000명 이상을 죽였다고 결론 내렸다. 비록 미국은 1945년 8월에서 1947년 12월까지 731부대를 네 차례 조사했지만, 각각의 조사는 명백히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면책권을 부여했다.¹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이시이 일당을 비난하는 대신 “일본의 세균전 연구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며... 만일 미국이 그들을 재판에 회부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종 조사 이후 미군장교 에드윈 힐은 “우리 실험실에서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을 수 없다”고 진술했다. 그 결과 미국은 731 부대원들을 전범으로 재판에 처하기보다 그들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기 위해 그들을 보호했다. 되돌아 볼 때 우리는 왜 미국이 수많은 육군과 해군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간 바로 똑같은 일본인들에게 권력을 부여했는지 의아해 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그 당시에도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전반적인 무지에서 한 가지 답을 찾을 수 있다. 미정부의 고위간부인 그리고리 헨더슨은 미국무부의 공무단위가 조선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필리핀의 업무를 위해 훈련받았었고(일부는 일본업무) “조선에 대한 겨우 한 시간의 강의”를 받았다고 말한다.¹⁹⁾ 1945년 세계의 지도자가 된 트루먼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아시아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그의 소규모 유럽과 자문위원 패거리가 그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특히 프랑스에서 공산주의와 투쟁하도록 유도했다. 그것은 바로 호치민 같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전 동맹자들이 재빨리 적의 첩자로 낙인찍혀 일본군과 비행기의 공격을 받았던 이유이다. 미국의 무지를 가리키는 어마어마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이후 사건들의 원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수많은 관련된 의문이 제기된다. 왜 일본이 아니라 조선이 분단됐는가? 어쨌든 러시아인들은 혼자서 베를린을 장악했음에도 기꺼이 베를린을 분할했다. 왜 미국은 연합국의 나머지와 협력해서 일본을 통치하지 않았는가? 무대 뒤에서 강력한 힘이 작동했고, 가장 중요하게 자국의 이해를 아시아에 강제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바로 그것이었다.

미국의 공개적 주장은 내밀한 의도와 현저하게 대조된다. 1946년 3월 20일 미국은 조선의 독립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조선의 자결을 가져오기 위해 소련과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미소 공동위원회의 미국측 고위 대표는 보다 노골적인 비밀메모에 이렇게 썼다. “미국의 견해로는 러시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가 완전한 독립보다 더 중요하다... 앞으로 몇 년간 완전한 독립을 부여받을 조선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일 것으로 믿어지지 않는다.”²⁰⁾ 이런 정책적 목표를 고려할 때, 공동위원회 회담이 그렇게 빨리 붕괴한 것이 놀라운 일인가?

1947년 1월 미국의 전후 유럽재건의 형용사가 된 이름의 조지 마샬은 조선의 역할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명확한 남조선 정부를 조직하여 조선경제를 일본경제와

17) New York Times, December 27, 1949, 16.

18) See Gold, Unit 731.

19)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124.

20) Quoted in History of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HUSAFIK), vol. 2 (Seoul and Tokyo: U.S.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47, 1948), 154-5, 238-9.

연결시키는 정책기획안을 작성하시오.”²¹⁾ 다음 해 냉전의 주요한 설계자 중의 한명인 조지 케넌이 작성한 국무부의 내부 비밀 메모는 미국의 기본이익에 대해 명확히 했다. “우리는 전세계 부 중에서 약 50퍼센트를 갖고 있지만 인구는 겨우 6.3퍼센트다... 다가오는 시기에 우리의 진정한 임무는 우리 국가안보를 손상하지 않고 이 불균형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턴의 관계를 고안해 내는 것이다.”²²⁾ 미국의 제국적 기획의 배열 내에서 그리스와 조선은 공산주의 억지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유사한 지위를 부여받았고, 두 나라는 곧 잔혹한 유혈분쟁의 장이 됐다. 엄청나게 다른 문화적, 지리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와 조선의 내전은 놀랍도록 비슷한 전술이 이용됐고, 이후에 이 전술은 베트남에서 이라크까지 미국의 “평화유지” 사명의 모델이 됐다.

1919년 3월 1일 그랬던 것처럼 조선인들은 민족독립을 평화롭게 추구하는 광범한 민족적 합의를 창출했다. 미국이 독립에 대한 그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대신에 과거 일본의 협력자들에게 권력을 부여하자 대규모 봉기가 1946년과 1948년에 일어났다. 아무도 수천 명의 살상이 미국의 대답일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

호치민이 베트남 독립을 선언한 겨우 나흘 후인 1945년 9월 6일 수백명의 독립 운동가들(아마도 전부 수천명)이 경기여고에 모여 조선인민공화국(Korean People's Republic: KPR)의 존재를 선포했다. 조선의 공동체적 행동의 전통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공화국을 선포하지는 않았다. 1919년 3월 1일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상이한 그룹들이 모여 선언을 했다. 대표단은 합의로 87인의 지도자들을 뽑았고, 그들 중 55인은 총선거를 담당할 새로운 정부의 최고기구에 임명됐다. 9월 8일 to 정부의 신문인 <조선인민보>는 “제2의 해방으로서 사회혁명”의 필요성을 호소했다.²³⁾ 열흘 뒤 인공은 강령을 발표했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 그 잔재적 영향력, 반민주적 분파, 반동적 분자들과 바람직하지 못한 외국의 영향력을 우리 국가에서 일소하고 완전한 자치와 독립을 확립할 것을 결의하며, 이로써 진정하게 민주적인 국가의 실현을 기대한다.”²⁴⁾

새 정부는 토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줄 것, “여성의 완전한 해방”, 노동자의 8시간 노동제, 아동노동의 금지, 문맹의 종식, 주요 산업과 은행의 국유화, 신속한 주요 산업화 프로그램 등을 호소했다. 새 정부는 언론과 집회, 종교의 자유를 약속했고 “미국, 소련, 영국 및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 한편, 동시에 부적절한 외국의 영향에 반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세계평화의 대의를 진전시키기로 약속했다.²⁵⁾

인공의 정강은 광범한 스펙트럼의 지도자들을 단결시켰고 조선 민중이 원하는 종류의 정부의 기본요소를 반영했다. 핵심 조직가인 여운형은 1919년 봉기 이후 설립된 대해 임시정부의 일원이었다. 1930년 초반 여운형은 대전의 일본 형무소에서 3년 이상을 보냈다. 일단 석방되자 여운형은 서울에서 일간신문을 창간했다. 1944년 그는 일본의 패망을 예견했고 조선 독립을 준비할 지하조직인 건국동맹을 건설했다. 1945년 중반 이 조직은 약 1만명 회원 규모로 성장했다.²⁶⁾ 1946년 10월 거의 린치당할 뻔한(10월봉기 동안) 여운형은 1947년 우파에

21) Quoted in Cumings, *Origins*, 2:35.

22) George F. Kennan, “PPS/23: Review of Current Trends in U.S. Foreign Policy,”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vol. 1 (1948).

23) Gothel, *Geschichte Sudkoreas*, 50.

24) Kyung Cho Chung, *Korea Tomorrow* (New York: Macmillan, 1956).

25) Hart-Landsberg, *The Rush to Development*, 121.

26) Yi Tong-hwa, “Yo Un-hyong and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Nation,” *Korea Journal*,

게 암살당했다.

1945년 9월초 조선에 처음으로 도착한 미군정청장 존 리드 핫지(John Reed Hodge)는 조선이 화약고라고 주장했지만, 그 당시에 폭발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인공은 되풀이하여 핫지와 접촉하길 원했고, 그와 함께 일하고 평화를 유지하길 원했다. 핫지는 조선인들이 독립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자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믿었다. 미군이 1946년 8월 8,453명의 조선인에 대한 여론조사를 수행했을 때 결과는 명확했다. 응답자의 71퍼센트는 통일을 정부수립의 전제조건으로 봤다. 70퍼센트는 사회주의를, 7퍼센트는 공산주의를 선호한 반면 겨우 14퍼센트만 자본주의를 선호했고 8퍼센트는 무응답이었다.²⁷⁾ 농지의 18퍼센트와 조선의 산업시설의 90퍼센트 이상이 일본인 소유여서, 공동체주의적 경제의 기초는 이미 준비돼 있었다.

보통사람들의 눈에 평화와 번영의 약속은 아주 분명한 반면, 핫지 청장은 미국의 계획을 밀고나갔고, 모든 일본인의 재산을 미국의 소유로 수용했고 상해 임시정부와 새로 건설된 인공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핫지의 자문관들(그리고 후일의 분석가들)은 근거 없이 임시정부와 인공 모두를 무시했다. 그리고리 헨더슨은 이후에 조선들이 “어떤 의회적 전통도 결여”했다고 조롱했다.²⁸⁾ 그는 1945년 “조선은 스스로 유의미한 정강과 목적을 수립할 집단이 거의 없었고 아무도 무엇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할지 몰랐다”고 주장했다.²⁹⁾ 브루스 커밍스도 비슷하게 “해방 이후 몇주 안에 조선이 정치적 질서의 바로 그 필요조건을 결여했다는 것은 분명했다”고 진술한다.³⁰⁾ 하지만 이런 주장들과 반대로 일본패망 며칠 만에 조선 민중은 명확한 강령과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가진 새 정부를 조직했다. 미국 점령당국의 핵심인상인 메릴 베닝호프에 따르면 인공측 인사들이 “자신을 새 정부로 간주하여 정치범들을 석방했고 공공안전, 식량분배, 기타 정부기능에 대한 책임을 떠맡았다.”³¹⁾

전국적으로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s: PCs)가 생겨났고 남부 조선의 123개군 중에서 7개를 제외한 모든 단위에서 사실상의 정부로 활동했다. 수백개의 인민위원회가 마치 희미한 공기 중에서처럼 갑자기 나타났다. 브루스 커밍스는 “어떻게 그런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그렇게 빨리 이뤄질 수 있었을까?”라고 의아해했다.³²⁾ 인민위원회의 폭발은 1945년 12월까지 풀뿌리에서 조직된 새로운 정부의 일부로서 도, 시, 군, 읍면동 등 다양한 수준에서 2,546개 이상의 인민위원회가 결성됐다는 것을 의미했다.³³⁾ 게다가 1천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결성돼서 50만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전국노동조합 총평의회(전평)이 결성됐다.³⁴⁾

북부지방에서 인민위원회가 일상업무를 관리하는 것을 러시아인들이 기꺼이 받아들여서 인민위원회는 훨씬 더 중요했다. 10월 15일 전국의 대표들이 평양에 집결해 모든 마을 수준에서 즉각적인 직접선거를 지시했고, 마을 원로들이 많은 대표자들을 뽑았다. 새로 선출된 지

November 1986, 42.

27) U.S. State Department,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vol. 6, 561-3. Quoted in *For the Truth and Reparations: Jeju April 3rd of 1948 Massacre Not Forgotten*, ed. Hur Sang Soo (Seoul: BaekSan Publisher, 2001), 76. See also “Paramilitary Politics under the USAMGIK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www.ekoreajournal.net/upload/html_20030820.org/HTML43212.

28)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119.

29) *Ibid.*, 130.

30) Cumings, *Origins*, 1:99.

31) *Ibid.*, 145-6

32) *Ibid.*, 271.

33) *Ibid.*, 273.

34) Kang Man-gil, *History of Contemporary Korea*, 329-0.

역 지도자들은 다음 수준의 대표자들을 뽑았고 전국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대표를 선출했다. 수십년 동안 반공주의 이데올로그들은 인민위원회의 민주적 자치의 현실을 기록한 강력한 경험적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이 러시아의 장화발 아래 있는 것으로 묘사했다.³⁵⁾ 인민위원회는 민중의 의지와 열망, 선택의 자유를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모든 부문들이 이 인민위원회에 참여했고 일본에 협력한 자들만 예외였다. 이 인민위원회가 통치한 61개 군에서 그들은 세금을 걷고 경찰을 통제했고 일부는 인구조사를 조직하고 무장방위대를 창출했다.

노동자, 여성, 학생, 과학자, 작가, 농민들의 자율적 조직들이 풀뿌리로부터 등장해 인공의 승인을 받았다. 1946년까지 대략 35개의 그런 광범한 조직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전국적 조정기구를 통해 인공과 병렬적 구조로서 활동했다.³⁶⁾ 이 조직들에는 작가동맹, 과학자동맹, 전국여성동맹, 민주청년동맹 등이 포함된다.

1945년 11월 5일 일본이 항복한 지 몇 달도 안돼서 노동조합들이 전국노동조합 총평의회(전평)의 우산 아래 단결했고, 한달 후인 1945년 12월 8일 전국농민조합동맹이 결성됐다. 전평은 창립한 지 몇 달 안에 50만명 이상의 조합원, 223개 사무소, 1,757개 지부조합을 갖게 됐다.³⁷⁾ 농촌에서 농민들은 풀뿌리에서 인민위원회와 농민조합을 결성했다. 한 추정치에 따르면 11월까지, 일본이 항복한 지 채 세 달이 안돼서 농민들의 조합이 전국적 수준에서 처음으로 조직돼서, 322,937명이 25,288개 마을, 1,745개 읍면동, 188개 군에서 농민조합에 소속됐다.³⁸⁾ 이 놀라운 자기 조직화 역량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함에 있어 더 많은 권력에 대한 조선인들의 강렬한 열망을 입증했다. 심지어 이 단체들을 구성하는 데서 공산주의자들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조차 “단체 폭발”의 압도적으로 민중적인 성격을 인정한다.³⁹⁾ 운동은 풀뿌리로부터 등장했고, 1945년 9월 8일에야 비로소 박헌영은 서울에서 모임을 소집해 조선공산당을 재건했다. 조선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길 희망한 박헌영은 1945년 10월 27일 핫지를 만났고 그에게 친일파 관리들을 제거하라고 충고했다. 들어온 미국 관리들과 만나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박헌영은 계속 거부당했다.

미국은 토착 지도자들과 일하는 대신에 더글러스 맥아더가 마련한 군용기를 이용해 이승만을 수입했다. 이승만은 핫지가 주최한 첫 기자회견에서 국내에 소개됐고, 핫지는 즉각 정당들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곧 50개 이상의 정당들이 새 군사당국에 등록했다. 그들 중에는 한 국민주당도 있었고, 이 당은 흔히 처벌을 피하려는 협력자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미국의 첩보자료는 한민당이 “주로 대지주와 부유한 기업인들로 구성된” 특징을 지적했다.⁴⁰⁾ 이 당의 성격에 대한 자체 첩보자료의 추정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때문에 미국은 한민당을 주요한 연락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시에 미군정청은 인공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인공과 대결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다. 그런 최초의 사건들 중 하나는 1945년 10월 24일 남원에서 일어났고, 그 당시 미군은 남원 인민위원회가 관리하던 일본인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강제로 빼앗았다.

일본인 소유주와 관리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조선을 떠나자, 조선 노동자들은 공장을

35) Cumings, *Origins*, 1:393-5.

36) See Kim, “South Korea,” 141 (see chap. 2, n. 93).

37) Sunhyuk Kim, *The Politics of Democratization in Korea: The Role of Civil Society*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2000), 26.

38) Quoted in Gi-wook Shin, “The Historical Making of Collective Action: The Korean Peasant Uprisings of 1946,”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 no. 6 (May 1994): 1602.

39) Kim, “South Korea,” 26.

40) Cumings, *Origins*, 1:93.

접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했다. 일본 항복 두달 뒤 미국 관리들은 전라남도의 50개 공장 중에서 42개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파악했다.⁴¹⁾ 제주와 부산에 도착한 미국인들은 노동자평의회가 수많은 공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전국적으로 공장의 생산은 신속하게 재개됐고 때로는 일본인의 통제 아래서의 생산량을 초과했다. 전체적으로 1백만 내지 2백만 노동자들이 이런 평의회에 참여했고, 인공의 가장 중요한 지지기반 중의 하나였다.⁴²⁾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가 노동자들을 활성화시켰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거리로 나섰다. 1945년 8월과 1948년 3월 사이에, 즉 미국의 점령 정부 아래서 최소한 2,388건의 노동자 시위가 벌어졌고 여기에 60만명이 참여했다.⁴³⁾ 조선인 소유주가 남아있던 공장들에서 파업은 광범하게 일어났다. 8월 31일 김 씨 형제들이 소유한 정선섬유공장에서 1천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1945년 8월 16일부터 시작된 1만명 이상의 정치범들의 일본감옥으로부터 석방과 15만명 이상의 청년들의 일본군대로부터 소집해제로 더욱 강화된 조선의 진보적 세력은 명확한 다수를 구성했다. 바로 이 이유로 핫지는 상황을 “언제라도 폭발할 화약고”로 인식했다. 핫지가 인민위원회에 대항하여 움직이면서 그는 남원에서 다시 한번 폭력을 사용했다. 수백명이 항의하자 미군의 총검에 최소한 두 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당했다.⁴⁴⁾ 5일 뒤인 1945년 11월 20일 인민위원회 대회에 모인 남조선의 25개도시와 175개 지역의 650명 대표자들은 미군정으로부터 인민위원회로 행정권력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이전을 요구했다.

미국의 대응은 12월에 이뤄졌다. 12월 8일 군정은 파업을 금지했고, 12일 미국은 인민위원회와 인공을 불법화하고 그들이 “공공의 적”이라고 선포했다.⁴⁵⁾ 18일 핫지는 일본제국 군대에 근무했던 조선인을 핵으로 하여 조선경비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관리들은 그들이 조치가 “대중적 기반을 가진 정부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확신했다.⁴⁶⁾ 그 이후의 사건들은 불행히도 미국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증명됐다. 비록 미군 대령이 각 도의 도지사가 됐음에도 인민위원회는 실질적 권력을 가졌다. 1945년 12월 8일 약 239개 농민조합의 545명 대표자들이 참여한 서울의 전국농민조합 동맹 창립총회에서 전라남도의 대표는 인민들이 지역 관리가 아니라 지역인민위원회의 기구들을 따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명백히 미국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려는 민중의 결의를 잘못 이해했다. 1946년 3월 1일 조선독립운동의 경축은 6월 27일의 더 커다란 투쟁으로 이어졌고, 이 날 50만명에 이르는 민중들이 서울에서 미군정에 반대하는 행진을 벌였다.⁴⁷⁾ 5월 23일 미국은 38도선 통과를 봉쇄하고 실질적으로 조선을 분단했다. 미국이 남쪽의 좌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자, 박헌영과 여러명의 주요 지도자들은 북으로 넘어갔다.

미군정 아래서 조선의 생활조건은 급속하게 악화됐다. 1년 이내에 미국이 노동자들이 운영하고 있던 공장에서 노동자 평의회를 쫓아내고 인공에게서 모든 일본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장악하자, 5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들 중 절반은 경상도였다.⁴⁸⁾ 철도 노

41) Clive Hamilton, *Capitalist Industrialization in Korea* (Boulder, CO: Westview Press, 1986), 21, as cited in Mi Park, *Democracy and Social Change: A History of South Korean Student Movements, 1980-000* (Bern: Peter Lang, 2008), 50.

42) Martin Hart-Landsberg, *The Rush to Development*, 18.

43) Koo, *Korean Workers*, 26.

44) Cumings, *Origins*, 1:312; A different account is contained in Shin, “The Historical Making of Collective Action,” 1604. Shin counted fourteen thousand protesters and attributed three deaths to police gunfire. Other account place the date as November 17. All agree these killings were the first by U.S. troops since 1871.

45) Cumings, *Origins*, 1:197.

46)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127.

47) Gothel, *Geschichte Sudkoreas*, 53.

동자들처럼 직업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절박한 시대가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저녁식사에 충분한 쌀을 살 수 없었다. 인플레이션은 보통사람들의 구매력을 갉아 먹었다. 미국의 "지원" 1년 안에 군사정부는 쌀값이 그들의 도착 이전보다 100배나 더 비싸다고 추정했다. 서울에서 가격은 훨씬 더 많이, 즉 도표 3.1에서 보이는 것처럼 3000퍼센트나 올랐다. 1936년 가격을 기준으로 한 다른 지수는 1947년 58,305의 수준으로 올랐다.⁴⁹⁾

[도표 3.1] 1945-47년 서울의 쌀 도매가



식량부족은 농촌의 쌀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 때문에 일어났다. 특히 미군이 쌀수확을 모을 특허를 경찰에게 줬기 때문이었다. 비록 일본인들이 더 많은 쌀을 수탈하기 위해 수년간 조선인들을 굶겼지만, 미국인 도착 이후 쌀수거는 일제하만큼 나쁘거나 더 나빴다.. 미국인들은 상당량의 쌀을 경찰관들의 집에서 발견했고 쌀창고는 우익 청년단체의 손에 있었다.⁵⁰⁾ 보다 중요하게, 엄청난 양의 쌀이 재산을 모으려는 정부 대리인들에 의해 매일 일본으로 밀수되고 있었다.

1946년 가을에 이르면 81개 경찰서와 23개 관공서가 더 이상 완력에 의한 기아와 질병, 외국의 지배를 조용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지역주민들의 공격을 받았다.⁵¹⁾ 1946년 8월 15일 화순탄광 광부들이 미군의 사격으로 최소한 7명이 사망했다. 소요가 계속되자 겨울이 다가오면서 굶주림에 직면한 광부들에게 탱크와 총검이 사용됐다.⁵²⁾ 9월 6일 미국은 박헌영, 이주하, 이강국 등 3인의 조선 노동자 핵심 조직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오랫동안 상당한 세력을 이뤘던 경상도 지역의 활동가들은 이미 심한 탄압을 받았었다. 8월 23일 영주 인민위원회의 28명 위원들이 체포됐고 보성에서 35명이 체포됐다. 대구경찰서에서 들리는 고문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기자들이 감히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물었다. “마약중독자들의 소리”라는 대답을 들었다.⁵³⁾

민중들이 감내했던 빈곤에 더해 콜레라 전염병이 발생했다. 10월 1일까지 거의 1만명이 목숨을 잃었고 절반 이상이 경상남북도에 집중됐다. 이런 비상사태에 대처하도록 민중을 돕기 위해 자원을 투입하는 대신에 핫지와 그의 장교들은 경찰에게 총기를 보냈고 시위를 중지하는 데 사용하라고 독려했다. 새롭고 더 나은 무기가 지급됐음에도 경찰은 질서를 유지할 수

48) 48 Cumings, *Origins*, 1:377.

49) Kang Man-gil, *History of Contemporary Korea*, 327.

50) Cumings, *Origins*, 1:379.

51) Shin, “The Historical Making of Collective Action,” 1604-.

52) Joongang Ilbo, October 10, 1999; Mal (January 1989); interview with Lee Young-il, Yosu, August 2, 2003.

53) 53 Heo Man-ho and Lee Changhee make this point in reference to the work of Chong Hae-gu. See “October First Incident of 1946 in Daegu: State-Build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New Millennium,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20th Anniversary of the Kwangju Uprising Program* (Kwangju: May 18 Institute, 2000), 73.

없었고,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 미군이 배치됐다. 소련의 이용을 막기 위해 내부의 반대를 탄압하는 미국의 냉전적 관심은 보통 조선인들의 일상적 필요보다 명백히 더 중요했다.

1946년 10월봉기: 총파업에서 농민폭동으로

베트남 전쟁 동안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동안 양측이 투하한 양보다 더 많은 폭탄으로 “비총격 지대”를 분쇄할 때 헨리 키신저는 “모든 사회는 자신의 파괴점을 가지고 있다.”(all societies have their breaking points)는 유명한 발언을 했다. 키신저의 역사에 대한 비극적인 몰이해는 수만명의 미군과 몇배나 더 많은 무고한 베트남인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파괴점은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우월한 세력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오늘은 아니라도 내일, 아니 그 다음 날에라도 압제에 맞서 봉기하는 것이다. 지배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정신은 일말의 안락과 규제로 잠재워질지라도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서 계속 침묵하길 거부한다. 그 참을 수 없는 상황의 최고는 굶주림과 질병이며, 이는 미국의 “해방군”이 조선에 가져온 바로 그 조건이었다. 그렇다면 미군정의 통제 아래 있는 모든 지역이 일본항복 이후 채 1년도 안되어 들고 일어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표 3.1] 1946년 10월 1일 자정 기준 콜레라 보고

지역	총발생건수	총 사망자
경상북도	4,896	4,025
경상남도	2,744	1,277
전라북도	2,380	1,591
경기도	1,232	775
충청남도	1,103	636
제주	741	390
전라남도	734	429
강원도	354	187
충청북도	296	134
서울	242	83
총계	14,772	9,527

Source: HQ, USAMGIK,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press releases, October 4, 1946. Item Number 8 as reported in Thomas H. Lee, “The Origins of the Taegu Insurrection of 1946,” (Thesis, Harvard University, 1990), 55.

1946년 10월 봉기는 동학 이래 가장 중요한 무장 민중운동이었다. 미육군의 공식역사는 봉기를 “남한의 전면적 폭동”이라고 불렀다.⁵⁴⁾ 그 당시에 조선에 있었던 기자인 마크 게이에게 이 사건은 “비록 수백만 명은 아니라도 수십만 명이 참여했던 전면적 혁명”으로 기록된다.⁵⁵⁾ 미육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봉기는 서울의 정부를 전복하고 인공을 유일한 정부로 수립했을 것이다. 총격이 멈출 때까지 수백명의 조선인들이 살해당했고 수천 명이 부상당하거나 체포당했다. 강만길은 300명 이상 사망, 3,600명 이상 실종, 26,000명 부상, 15,000명 체포로 집계했다.⁵⁶⁾ 신기욱은 약 1,000명의 민중과 200명의 경찰이 죽었고, 30,000명의 시민이 체포됐다고 추정했다.⁵⁷⁾ 전평은 조합원 11,0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보고했다. 사상자의 정확한 집계

54) Thomas H. Lee, “The Origins of the Taegu Insurrection of 1946,” (Thesis, Harvard University, 1990), 96.

55) Mark Gayn, Japan Diary (New York: William Sloane Associates, 1948), 388.

56) Kang Man-gil, History of Contemporary Korea, 184.

57) Shin, “The Historical Making of Collective Action,” 1606 gives similar figures. See Cumings, Origins, 1:379.

는 추정치가 너무나 차이가 커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OSS 요원 스투워드 미첩은 두 달 동안 500명 사망(59명의 대구 경찰 포함), 총 8,000명 체포로 집계했고, 그 중에서 5,540명 체포는 경상도에서만 이뤄졌다. 최소한 16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⁵⁸⁾ 잉거보그 고텔은 1947년 여름까지 총계 7,000명이 사망했고 22,000명의 애국자가 감옥에 구금됐다고 보고했다.⁵⁹⁾

놀랍게도 미국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는 투쟁의 자기규율과 조직화의 놀라운 증언이다. 인민위원회 지도부는 미국인들이 사태를 파악하고 권력을 인공에 넘겨줄 것이라는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었고, 그래서 미군을 죽이지 말라는 말을 돌렸고 민중은 이 말을 들었다. 전국적 봉기자들이 미국인에 대한 공격을 자제함으로써 보여준 놀라운 규율보다 신생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더 커다란 증언은 있을 수 없다. 동시에 경찰에 대한 증오는 너무나 깊어서 심지어 대구의 병원들은 경찰을 치료하길 거부했고 미군 총구 아래 명령을 받을 때까지 경찰을 치료하지 않았다.

햇지의 정책은 명백히 실패했기 때문에 봉기로 햇지의 통치가 종식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미국의 힘은 햇지를 확고하게 지지했고, 특히 그가 10월 28일 맥아더에게 보내는 전보에서 소련이 수확 이후 남한을 침략할 태세가 돼있다는 “증거”를 알린 다음에 그랬다.⁶⁰⁾ 미군 지휘관들이 소련이 내려오고 있다고 믿었던 말았든, 미군은 이미 그런 전쟁 상태에 있는 것처럼 싸웠다. 교통부의 미군 지휘관은 전국적 보고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했다. “우리는 전투에 들어가는 것처럼 상황에 대처했다. 우리는 상황을 타개하려고 나왔고, 몇몇 무고한 사람들이 다쳤는지에 대해 걱정할 시간이 없었다. 감옥이 너무 꽉차서 우리는 도시 외곽에 수용소를 세워 파업자들을 거기에 수용했다. 그것은 전쟁이었다. 우리는 이 봉기를 전쟁이라고 인식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싸웠던 방식이다.”⁶¹⁾

미군이 없었다면 인공이 권력을 장악했을 것이다. 미국의 봉기진압은 증앙집중적으로 조율됐지만, 봉기자들은 모두 인공과 인민위원회를 지지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흩어져 있었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시작된 투쟁은 총파업으로 전화됐고 다시 프롤레타리아화한 농민들의 무장 농촌봉기로 발전했다.

봉기는 1946년 9월 23일 시작됐고, 이 때 부산에서 약 8천명의 철도 노동자들은 출근을 거부하고 임금인상, 일당지급, 고용안정, 쌀배급 증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했다.⁶²⁾ 부산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즉각 파업에 동참했다. 그날 오후 대구에서 1천명의 철도노동자들도 파업에 들어갔다. 다음 날 서울, 대전, 대구, 인천, 광주, 순천의 모든 철도노동자들, 모두 최소한 3만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의미심장하게 부산 노동자들의 순진한 요구가 미국의 점령에 반대하는 정치파업으로 전환됐다. 군정이 가한 테러의 즉각적인 중지, 정치범 석방, 식량배급 증가, 일본식민주의와 협력한 모든 정부 공무원과 경찰의 해고 등을 요구하는 전국적 요구가 정식화됐다. 보다 중요하게, 그들은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권력의 인민위원회로의 이전을 요구했다.⁶³⁾

전평은 총파업을 호소했고 곧바로 250,000명 이상(일부 자료는 330,000명으로 주장)이 파업

58) Ogle, South Korea, 11.

59) Gotherl, Geschichte Sudkoreas, 9.

60) Cumings, Origins, 1:548.

61) Quoted in Ogle, South Korea, 11.

62) Lee, The Origins of the Taegu Insurrection, 77; Cumings, Origins, 1:352.

63) Gotherl, Geschichte Sudkoreas, 54; Cumings, Origins, 1:354.

에 들어갔다. 화학노동자, 섬유노동자, 통신노동자, 인쇄노동자, 농민 등이 참여했다. 전국적으로 시민들은 파업 노동자들 중심으로 집결했고, 심지어 우익 노조들도 파업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반동적 교수의 강의를 보이콧했고, 많은 학생들이 노동자들을 지지하여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서울에서 295개 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 거의 50,000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했다(육체노동자 30,000명, 사무직 노동자 6,000명, 학생 16,000명과 교수 300명). 인공과 인민위원회, 노동조합 및 농민조합의 지도부가 중요했지만, 이 운동은 전민중이 참여한 새로운 3월1일 봉기에 전혀 손색이 없었다.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매일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중단하고 독립과 정의를 위한 전국적인 운동에 참여했다. 모든 대도시에서 사람들은 수천명씩 거리로 나서 항의했다. 총파업이 발생하자 약 200만명이 참여했다. 이것은 조국의 분단, 미국에 의한 반동적 친일파 세력의 온존, 그리고 배고픔에 대항한 대규모 투쟁이었다. 기아가 창궐하면서 쌀은 항의의 핵심사항이었다. 존 리드 핫지 장군에 대한 청원서는 1인당 최소한의 쌀배급을 요구했고 모든 파업자들이 반복한 요구였다. 처음에 투쟁은 전반적으로 평화적이었고, 서울 용산역만 예외였는데, 갑작스런 충돌로 경찰 두 명과 파업자 두 명이 사망했고 1,400명이 체포된 후에야 사태가 진정됐다.⁶⁴⁾

10월 1일 오전 대구에서 여성과 어린이가 다수 포함된 3백명의 무리가 쌀배급 인상을 요구하면서 시청 앞으로 행진했다. 조선의 많은 지역처럼 일본 행정관리들이 남아서 미국인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미군정 역시 전직 경찰을 재고용하였고, 심지어 일본점령 시 잔혹행위의 결과로 직위에서 쫓겨난 자들도 포함됐다. 경찰은 합법적으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었다. 급진적 좌파가 잘 조직된 도시에서 미군정은 마치 “적성국”에 주둔하는 것처럼 대구를 통치했다.⁶⁵⁾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미국은 대구 인민위원회를 해체시킬 수 없었다.

대구에서 이런 다섯번째 기아시위를 이끈 것은 조선공산당(CCP)의 대규모 여성대오였다. 시위대의 숫자가 약 1천명으로 불어났다. 사람들이 해산하기 시작한 한참 후에 수천명의 학생들이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슬로건을 외치면서 파업노동자들에게 연대하여 모였다. 약 5백명의 파업 노동자들이 시위에 남아 있었다. 경찰은 군중을 해산하려 움직였고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최소한 한 명의 노동자가 총에 맞아 죽었다.

다음날 대구의 의과대학생들이 이끈 수천명의 군중은 임시 장례행진을 하면서 평화적으로 걸었다. 그들은 중앙경찰에 앞에서 멈춰고, 존 플레지어란 미군중위 한명이 장례행진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플레지어가 대치상태에 대한 상관에게 보고하려 떠나자마자, 젊은 군중들이 안으로 밀려들어가 수십명의 경찰관(경찰서장 포함)을 체포하고 총기와 탄약을 빼앗았다. 격렬한 교전으로 최소한 38명의 경찰과 48명의 시위대가 사망했고 36명이 부상당했다.⁶⁶⁾ 미국 첩보보고서는 그 다음에 일어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오랜 시간 동안 대구는 폭도의 지배 아래 있었다. 폭동자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중앙경찰서 앞의 전면적 무질서를 틈타 외곽의 경찰서들을 공격했다. 경찰관들은 집에서 공격받아 죽었다. 군정 관리들(한국인)과 경찰관들의 집도 폭도들의 습격을 받았다.”⁶⁷⁾

64) Lee, *The Origins of the Taegu Insurrection*, 77.

65) Heo Man-ho and Lee Changhee make this point in reference to the work of Chong Hae-gu in *Democracy and Human Rights*, 53-4.

66) Heo Man-ho and Lee Changhee, *Democracy and Human Rights*, 64; Cumings, *Origins*, 1:356.

67) HUSAFIK, G-2 Weekly Summary No. 56, from September 29 to October 6, 1946, October 11, 1946, as cited in Lee, *The Origins of the Taegu Insurrection*, 83.

경찰이 압도당하자, 미군 6사단이 계엄을 집행하려고 진주했다. 미군 탱크들이 대구에 대한 통제권을 과시하는 동안 소요는 경상북도의 다른 시군으로 확산됐고 다시 다른 지방으로 확산됐다. 10월 3일 영천에서 약 1만명의 군중이 경찰을 압도했다. 주민들이 도시를 통제할 2일 동안 그들은 악질 경찰, 무자비한 지주, 친일파 관리들을 처형했다. 미군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영천은 훨씬 더 오래 봉기대의 손에 남아있었을 것이다.⁶⁸⁾ 포항과 경주에서 시위대는 정부청사와 부자들의 집을 불태웠다. 미군정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전주에서 경찰이 발표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20명을 죽였다.⁶⁹⁾ 10월 6일 한 보고서에 의하면도 대구에서 60명이 사살당했다고 한다.⁷⁰⁾ 개성에서도 경찰발포로 최소한 20명의 시위대가 사망했다. 헨더슨은 사망자 숫자가 두 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⁷¹⁾

경주, 포항, 왜관, 김천, 의성에서 사람들은 상당한 량의 쌀을 접수하고 세금기록을 파괴할 수 있었다. 10월 3일 아침 대구 북쪽으로 멀지 않은 낙성동에서 비무장 상태의 2천명이 경찰서를 접수했다. 그들은 정부가 거둔 지역 생산물이 보관된 창고에 몰려들어 쌀 100포대와 밀 1,335포대 이상을 나눠가졌다. 10월 5일 선산에서 군중들이 미군이 지키던 쌀저장고를 돌로 공격했고 미군의 발포로 2명이 사망했다.⁷²⁾

남부 전역에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고 미군 부대와 탱크가 이를 진압했다. 미군의 지원부대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로 밀려들었다. 핫지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 미군 장교들은 경상북도에서 60개 이상의 시군에서 소요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10월 6일까지 핫지지는 경상북도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다음 날 경상남도 전역에서 새로운 봉기가 보고됐다. 10월 7일 진주에서 미군이 쌀을 찾던 군중에게 발포하여 민간인 4명이 사망했다. 마산에서 경찰과 40명의 미군이 6천명의 굶주린 군중에게 발포하여 최소한 80명을 사망시키고 수십명이 부상당했다.⁷³⁾ 한 미국군 하사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쓴 개인적 편지에서 총참모장인 대통령이 상황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로 “우리 대대 전체가 하루 종일 죽은 시체가 거리 전역에 쓰러져 있는 그 도시(마산)를 순찰했고 우리는 계속 기관총을 갈겨냈다.”⁷⁴⁾ 나중에 10월 7일 마산 근처의 남지에서 시위대 2명이 사살됐다. 10월 9일 부산의 대치에서 24명의 경찰과 파업대가 사망한 이후 농민 수백명이 3일 동안 죽창으로 경찰을 공격했다. 농민 부대의 전단은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경찰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다.... 모든 권력을 인민에게 이전하자.”⁷⁵⁾ 10월 11일 웅천에서 경찰과 미군은 최소한 5명의 시민을 살해했다. 북쪽인 충청남도과 경기도에서도 경찰이 통제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미육군 보병 7사단이 투입됐다. 1946년 운동의 진압에 미군이 개입한 다른 지역은 의령, 개성, 백천, 합덕 등이다. 미군 개입의 목록은 아주 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

전투는 인근 영천군으로 퍼져나갔고, 거기에서 1만명의 민중이 권력을 장악하고 미군정의 덕으로 권력을 휘두르던 약 20명을 죽였다. 민중들은 과거의 일본협력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현할 수 없었고 미군정은 어떤 법적 보복 메커니즘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행동이 점차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됐다. 의성에서 수천명이 군청을 접수했고

68) Lee, *The Origins of the Taegu Insurrection*, 84.

69)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146.

70) Gothe, *Geschichte Sudkoreas*, 54.

71)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146.

72) Lee, *The Origins of the Taegu Insurrection*, 86-7.

73) *Ibid.*, 90.

74) Letter from Sergeant Savage to President Truman, April 1947 about events in 1946 September railroad strike.

75) Cumings, *Origins*, 1:362.

왜관에서는 2천명이 경찰서를 습격해서 경찰서장을 살해하고 친일 협력자들의 집을 파괴했다. 환정에서 4백명이 창고를 접수해서 쌀을 가져갔고 다른 사람들을 쌀과 곡식 수집기록을 불태웠다.⁷⁶⁾

10월 8일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된 지 2주만에 노동자 대표와 미군정 교통부 관리들 사이에 협상이 시작됐다. 미국의 격려로 1946년 3월 10일 결성된 어용노조인 대한노총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직장복귀를 명령하고 공개적으로 파업을 해산할 것을 제의했다. 이 때 전평 지도자들은 체포되었거나 경찰에게 쫓기고 있었다. 협상이 시작된 날 약 1천명의 대구 철도 노동자들은 직장으로 복귀했다. 2주일 후 미군정은 쌀배급 증가, 임금인상과 몇가지 다른 수당을 제공하는 합의안을 발표했다.⁷⁷⁾ 구속되거나 수배중인 전평 지도자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노총 조합원들은 파업을 끝내기 위해 미군정에 협력하여 일했다. 미국 지배자들의 눈에 새로운 정당성을 확보한 노총은 재빨리 노동조합운동의 지도적 세력이 됐다.⁷⁸⁾ 1948년 6월까지 노총은 448개 노조와 108,239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반면, 최정점에서 1,194개 지부와 거의 50만명의 조합원을 보유했던 전평은 겨우 24개 노조와 5천명도 안되는 조합원만 남았다.

도시 노동자들은 직장으로 복귀했지만, 농촌에서 봉기의 불길아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타올랐다. 10월 11일 해남에서 농민 50명이 살해당하고 357명이 체포된 반면 경찰 10명이 우익 28명과 함께 죽었다.⁷⁹⁾ 10월 17일 충청남도에서 소요가 보고됐고 미군이 명천, 예산, 합덕에 개입했다. 운동은 경상도에서 전라남도로 확산됐고 거기에서 주목할 만한 숫자의 사람들이 11월 전반에 전체 군의 2/3에서 정부에 대항해 봉기했고, 한 추정치에 따르면 6만 5천명이 참여했다.⁸⁰⁾ 10월 31일까지 소요는 전라남도 거의 전역으로 퍼졌고 11월말까지 계속됐다. 처음 2주 동안 50개 이상의 마을 봉기를 경험했고 다수는 경찰과 싸우기 위해 구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호미, 창, 곤봉과 돌 등으로 무장한 농민들이 쫓겼다. 10월 31일 나주에서 수천명이 행진했고, 2대이 미군 C-47 화물기가 군중을 위협했다. 군중이 해산하기 거부하자 20사단 군인들이 발포했고 10명을 살해했다. 목포의 전화교환수 파업도 비슷하게 탄압당했다. 미군이 군중을 거칠게 몰아붙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다. 임송에서 경찰은 6백명의 시위대에 총격을 가했다. 같은 날 화수에서 3천명의 광부들이 어린아이를 업은 굶주린 수백명의 여성을 포함해 행진대를 이뤄 실업과 기아에 항의하기 위해 광주방면으로 출발했지만, 그들은 피크 대령이 이끄는 미군에게 다시 밀려났다. 다음 날 영산포에서 약 3천명의 시위대가 경찰서로 향해 전진하자 경찰이 5명을 살해했다.⁸¹⁾ 11월 3일 환정에서 경찰은 곡물수거 기록을 불태우던 5명을 사살했다. 경찰은 부안, 나주, 함평에서 최소한 20명을 살해했다.

강릉 서울 대구 청주 부산 광주 제주 안동 전주
도표 3.2 1946년 남한의 9-12월 봉기

Source: Cumings, *Origins*, 1:353.

11월 4일 피크 대령과 최소한 12명의 미군은 광산파업 지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광주에서 화순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이 5명의 죄수를 데려가려 하자, 1천명 이상의 군중이 도로를 봉

76) Shin, "The Historical Making of Collective Action," 1606.

77) Lee, *The Origins of the Taegu Insurrection*, 78.

78) "Narrative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Labor" as quoted in Lee, *The Origins of the Taegu Insurrection*, 79.

79) Cumings, *Origins*, 1:365-6.

80) *Ibid.*, 1:366.

81) Lee, *The Origins of the Taegu Insurrection*, 94.

쇄하고 미군 지프 2대를 파괴했다. 그러자 호송대는 군중을 뚫고 운전하면서 3명을 죽이고 3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⁸²⁾ 11월 20일 조성리에서 경찰은 6명을 죽였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봉기는 그 범위에서 전국적으로 됐다. 8주 동안 214개 이상의 봉기 그룹이 미군 점령지역에서 공격을 감행했다. 이 사건 중에서 최소한 35개 사건에 1천명 이상이 참여했다.⁸³⁾ 그 해 말까지 남부의 30퍼센트를 이루는 40개 군의 민중들이 쫓겨났다.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미육군 첩보부는 최소한 214건의 시위를 기록했고 경상남북도의 140건, 전라남도의 59건을 포함했다.⁸⁴⁾ 사회학자 신기욱은 230만명이 봉기에 참여했다고 추정하며, “비록 도시파업이 투쟁을 시작했지만 농민들은 파업을 주요한 봉기로 전환시켰다... 1946년 말까지 약 40개군, 즉 남한 지역의 약 30퍼센트에서 농민봉기를 목격했다”고 기술했다.⁸⁵⁾

비록 운동은 자연발생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됐지만, 많은 경우에 민중의 투쟁은 놀라운 정도로 유사했다. 친일 협력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한 외에도 공격의 초점은 쌀수거 기록을 파괴하는 것이고, 이는 프랑스 혁명 당시 농촌지역의 상황과 유사하다. 그 당시 프랑스 농민들은 수세대 동안 그들의 가족에게 덮이었던 부채기록을 조직적으로 불태웠었다.⁸⁶⁾ 전라도 지역의 상황을 기록한 미국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폭도들[문자 그대로]은 입수할 수 있는 모든 공식기록을 파괴했고 이는 특히 쌀과 곡물 수거기록의 경우에 그랬다. 사실 일부의 경우 경찰서와 시청을 공격한 유일한 이유는 이 기록을 확보해서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다.”⁸⁷⁾

10월 봉기의 원인과 결과

봉기의 원인은 찾는 일부 분석가들은 기아, 콜레라, 실업과 기타 사회경제적 지표에 초점을 맞춘다. 확실히 이 요소들은 주요한 문제이며, 특히 콜레라로 최소한 1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명백히 중요함에도 커밍스는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높은 실업률과 끔찍한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의 구매력을 갉아먹었고 미군정에 가깝고 달러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만 예외였다. 봉기의 동기에 대한 구조적 설명은 편리하지만, 동시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왜 수십만명의 민중들이 쫓기하여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무릅쓸까?

1946년 조선인들이 겪었던 끔찍한 기아와 궁핍의 조건은 잔혹했지만, 만약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메카니즘을 용이하게 했다면, 즉 자원을 무기와 경찰봉급이 아니라 보건과 식량에 할당했다면, 이런 곤란만으로 민중들이 절박한 행동을 취했을지는 의심스럽고, 내 생각으로 아주 의심스럽다. 명백히 경제적 동인은 존재했지만, 일본에 쌀을 판매한 매점 투기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눠가짐으로써 쌀부족에 대처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콜레라는 의료적 해결에 집중하고 위생상태를 개선하는 데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실업 역시 일자리를 공유하고, 노동자 자주관리를 장려하고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생겨난 코뮌적 평의회와 협력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혈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정책이며, 특히 인민공화국이나 인민위원회 같은 풀뿌리 운동에 대한 미국의 지지 거부가 그 원인이다.

82) 82 Cumings, *Origins*, 1:361-.

83) Lee, *The Origins of the Taegu Insurrection*, 96.

84) *Ibid.*, 15.

85) Shin, “The Historical Making of Collective Action,” 1606.

86) See Peter Kropotkin’s remarkable two-volume history, *The Great French Revolution, 1789-1793*.

87) “Jeolla-South Communist Uprising of November 1946,” December 31, 1946, U.S. 6th Infantry Division Headquarters, in XXIV Historical File as cited in Cumings, *Origins*, 1:366.

거기에 일본 식민화의 유산에 대해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것은 수백만 보통사람들의 절박한 생활조건에 반영돼 있었다. 봉기가 해결하려 했던 기본적 문제는 조선인들이 압도적으로 친일 협력자들의 지속적 지배에 반대했고, 민중들은 조국이 분단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러시아든 미국이든 어떤 외국열강이 자신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고려의 우선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봉기의 원인에 대한 다른 모든 설명은 어리석은 무지로 된다. 1946년 미국의 제국적 이해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최우선이었고, 수백명의 조선인 애국자들은 20세기 초반 토착적 저항에 대한 일본의 탄압을 미국식 재편에 막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다. 1919년 이후 27년 동안 수천 명이 3월 1일 봉기의 엄격한 비폭력을 뛰어넘었다.

커밍스에게 “가을봉기”(Autumn Harvest Uprising)는 “인민위원회 및 그들과 연계된 그룹들이 지방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마지막 대규모 시도”였다.⁸⁸⁾ 인공과 인민위원회가 커밍스가 표현한대로 “지방에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들은 패배했지만, 그 패배는 사소한 도발에 대해서도 결코 주저 없이 발포한 중무장 미군에 의한 것이었을 뿐이다. 커밍스의 딸로, “철도와 통신시설이 대개 미국과 우익 한국인들의 손에 있었고 지방봉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경찰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결말은 거의 결정돼 있었다.”⁸⁹⁾ 규모하게도 커밍스는 세력균형에 관한 평가에서 미군에 대한 언급을 빠트린다. 하지만 미군은 지역적 봉기들이 서울의 중앙권력을 포함해 주요 도시들을 포위하고 압도할 수 있었을 권력기반을 구축하고 공고화하는 것을 막았던 유일한 결정적 요소였다. 미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조선인들은 실제로 발생한 것보다 훨씬 더 적은 폭력으로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했을 것이다. 커밍스가 미국의 권력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국전쟁을 민족독립을 위한 전쟁이라기보다 내전으로 묘사하는 데에 필수적이었다. 이 봉기가 서울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인민위원회 측의 “마지막” 노력이라는 커밍스의 주장 역시 사실적으로 부정확하다. 앞으로 보겠지만, 인민위원회는 1948년 여순폭동에서 다시 등장했고,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되자 다시 등장했다.

커밍스의 선구적 저작은 처음에 출판됐을 때 진보적 한국인들 사이에서 환영받았지만, 이후에 한국인 논평자들은 칭찬을 아꼈다. 과거에 미발표된 자료에 기초하여 정해구는 10월봉기에 대한 커밍스의 저작을 수많은 측면에서 비판한다. 정해구의 평가로 커밍스는 봉기에서 이미 존재하던 반일 네트워크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조선의 애국운동의 지속성을 묘사하는 못한 실패로 커밍스와 이후의 수많은 연구자들도 민족독립과 외국통제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중심적 동인으로 보지 못했다.

커밍스는 10월봉기를 농민운동으로 간주했고, 이 사건을 “가을 추수봉기”(Autumn Harvest Uprisings)라고 불렀다. 그런 성격규정 때문에 봉기의 기원에 중심적이었던 노동자 파업의 중요성을 최소화한다고 정해구는 말한다. 일단 봉기가 시작되자, 모든 부류의 시민이 참여했고, 상당한 숫자의 학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커밍스는 심지어 보수파를 포함해 전 사회가 참여한 이유를 고려할 분석틀을 제공하지 못하며 따라서 다시 한번 봉기의 정치적 성격을 놓친다. 커밍스는 봉기에 지역적 성격 이상을 부여한 운동의 전국적, 국제적 열망을 이해할 수 없었다.⁹⁰⁾ 노동자 파업과 학생운동을 지방의 봉기들로부터 분리함으로써 그리고 지역에 따라 봉기를 분서격으로 구성함으로써 커밍스는 운동의 전체적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운동들을 구성부문들로 분리시킨다. 경상남북도 전역에서 봉기의 자연발생적 분출과

88) Cumings, *Origins*, 1:352.

89) *Ibid.*, 380.

90) 정해구, 10월인민항쟁 연구, (서울: 열음사, 1988), 10-2.

이후 전라도 및 전국으로의 확산은 보통 사람들의 열망이 즉각적인 사법조치를 시행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투쟁할 기회를 맞아 얼마나 가력하게 공명했는지 드러내 준다. 비록 봉기는 들불처럼 퍼졌지만, 운동은 어디에서 등장하건 아주 비슷한 열망을 표현했다. 친일파, 특히 잔인한 경찰의 척결, 인민위원회를 통한 행정과 공공안전, 미군정에 대한 저항 등의 열망을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정해구는 커밍스가 운동을 묘사하기 위해 “반란”(rebellion)이란 용어를 사용했다고 지적한다. 커밍스는 일부 미국인들이 봉기를 “완전한 혁명”으로 보았다고 지적했지만, 그는 “자신을 주인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결여한 농민들이 혁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봉기는 반란이라고 주장한다.⁹¹⁾ 반란자들은 어떤 체제나 사람에 대항해 쫓기하고자 하지만, 그들의 심리 깊숙한 곳에서 그들의 적을 품으며 그들을 초월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1946년 인공과 인민위원회는 이미 조선인들의 자치를 위한 강력한 기구로서 수립돼 있었다. 만약 인공의 과거 조치가 뭔가를 가리킨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공정하게 식량을 분배하고 수천명씩 죄수들을 풀어줬고, 공장의 노동자 평의회를 지지하고, 시민사회의 토착기구들이 우호적으로 통치하도록 호소했을 것이다. 명백히 커밍스는 민중들의 투쟁, 미군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는 규율, 쌀수거 기록부 같은 그들의 정확한 공격목표 등이 보여주는 엄청난 자기조직화 역량을 무시한다. 인민위원회, 인공, 조선공산당의 지도부는 모든 수준에서 구성돼 있었고 그들의 조직은 통일된 행동을 조직할 만큼 강력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만약 인공과 좌파 그룹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한다면, 그 비판은 미국의 자결 약속에 대한 순진한 믿음, 미국의 이익을 강제하는 노력을 허비하지 않으려는 완강한 미제국의 주인들과 타협하려는 시도에서 시작해야 한다. 인공과 조직된 그룹들이 민중들에게 미군을 공격하지 말라고 했다는 바로 그 사실은 그들이 관여한 분쟁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실패를 증언한다. 만약 미군이 관에 실려 고향에 보내졌다면, 미국 대중은 조선인들이 종속을 바란다고 믿는 대신에 조선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에 대해 알게 됐을 것이다.

커밍스가 보기에, 봉기가 끝나자 “좌익세력은 최대의 패배자가 됐다. 봉기의 성공적인 진압은 한국 독립경찰의 힘과 위력에서 전환점을 의미했다. 남한에서 질서의 세력은 이제 심각하게 위협적인 농촌주민들을 다뤘다.”⁹²⁾ 명백히 수백 명의 활동가들이 살해당하고 수천 명이 더 부상당하거나 투옥당하면서, 조선은 독립운동은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 정글의 법칙처럼, 국가탄압의 증가는 모든 봉기의 패배로 귀결된다. 10월 이후 활동가들은 수천 명씩 투옥됐고 더 많은 수가 지하로 들어가거나 산으로 가야만 했다. 1946년 10월 봉기에 대한 커밍스의 묘사는 조선인들의 독립열망에 대한 경멸을 반영한다. 그는 시민들을 묘사하면서 지속적으로 “폭도”나 “폭동자”란 단어를 사용하는 반면, “우익 동맹자”나 “미국의 전술적 부대”는 “질서를 회복”하고 “경찰을 구조”하려고 노력한다.⁹³⁾ 커밍스는 “배신자의 민족이길 거부”하고 “우리 나라가 미국의 식민지이길 원치 않고,” 친일 협력자들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단지 “조선정부를 인민위원회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진술을 반복적으로 인용한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는 반대로 커밍스는 운동을 “미발달한”, “비정치적인” 것이라고 부르며, 그의 견해로는 “한국 농민을 대표하는 사회세력의 의사를 반영하고 활용할 능력을 가진 어떤 조직도 존재하지 않았다.”⁹⁴⁾

봉기의 형태는 1919년 이후로 민중의 자기이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줬다. 3.1운동처럼, 민중들은 처음에 민족독립의 탄원자로서 평화적으로 거리로 나섰다. 하지만 1946년 새로운

91) Cumings, *Origins*, 1:351.

92) Cumings, *Origins*, 1:380-1.

93) *Ibid.*, 358-9 alone contain six references to “rioters” and “mob.”

94) *Ibid.*, 357.

형태의 조직들이 아래로부터 창출됐고, 인민공화국과 인민위원회, 전국적 단체의 우산 아래 마을, 공장, 도시의 평의회 등이 그것이다. 다양한 좌파 및 인민전선 유형의 단체들이 봉기의 자기조직화의 또다른 수준을 구성했다. 더욱이 수만명의 민중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었다. 민중적 열망과 투쟁의 전개는 조선인들이 자기 미래의 주체로 응집되는 역사적 과정을 상징한다.

최소한 20세기 초반 이후 혁명운동은 많은 단계를 통과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모든 운동을 위한 틀을 만들기보다, 나는 여기서 수십만명의 민중들의 투쟁에서 1946년 10월 봉기의 역사적 윤곽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들의 자기조직화와 혁명적 형태의 이중권력, 도시파업에서 농촌봉기로, 평화적 시위에서 무장봉기로의 이행은 정부나 정당으로 결정화되는 일상의 무의미한 반복에 비해 훨씬 더 월한 혁신역량을 보여준다. 1919년에서 1946년으로의 역사적 진보에서 우리는 해방된 조국에 대한 조선인들의 성장하는 자기인식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은 나머지 세계에 대해 모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1950년에서 1953년까지 대대적으로 한반도를 파괴하지 않았다면, 조선은 다른 민족들에게 영감을 줬을 것이고, 민중의 자기통치가 어떻게 국가를 진보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찬란한 모범이 됐을 것이다.

봉기들이 상호적 관계에서 전개된다는 것은 경험적 연구가 검증하는 위대한 교훈 중의 하나이다. 1946년 노동자 파업은 일련의 농촌봉기를 촉발했다. 다음 장에서 1987년의 다른 동학이 분명해질 것이며, 이 때에는 광범한 민주화 시위가 한국 역사상 최대의 파업운동을 위한 공간을 창출했다. 그 기원이 어디인지 알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봉기의 한 장이 다른 더 많은 봉기로 이어진다는 것은 충분히 분명하다.

미국의 지배에 대한 지속적 저항에 직면한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그들이 조선에서 철수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깨달았고 1949년까지 철수했다. 이 결정은 1946년 봉기의 한가지 긍정적 결과였다. 그러나 이후에 남베트남과 이라크에서 되풀이된 것처럼, 미국의 작전가들은 대량의 사용가능한 최상의 무기로 무장한 토착정부를 가진 “새로운 민족”을 창조했다. 남한에서 자신의 프랑켄슈타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인 자문단은 새로운 한국 경비대(KC)의 창설을 권고했고, 이 경비대는 일본을 위해 싸웠던 세력의 잔당들을 규합했다. 경찰관들의 90퍼센트 이상이 미국에게 봉사하기 이전에 천황에게 봉사했었다. 그러나 일반 사병들은 전혀 달랐다. 많은 사병들은 미국의 계속적인 한국 지배에 반대했다. 1946년 봉기의 진압 이후 반미감정은 아주 광범해서 앨런 밀렛은 최소한 5개 경비연대에 “실질적 공산당 세포”가 있다고 추정했다.

명백하게 1946년의 희생으로부터 배운 경험은 수십만명 활동가들의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더욱 강화시켰다. 앞으로 보겠지만, 제주도와 본토의 여수-순천에서 보통사람들의 자기통치 역량은 결코 봉기의 실패에 위협받지 않았다.

[번역] 조지 카치아피카스,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1권

조지 카치아피카스, George Katsiaficas,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Asia's Unknown Uprisings,
1권: 20세기 남한의 사회운동 Volume1: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in the 20th Century

4장 분단에 맞서: 4.3민중항쟁과 여순봉기

제주 4.3봉기 | 여순반란 | 봉기의 결과 | 국가보안법과 이승만 독재 | 한국전쟁 | 미국의 민간인 학살

남한에서 단독정부의 수립은 조선의 민족독립과 점령군의 철수다른 두가지 목적을 용이하지 않게 할 것이다.

- UN 조선임시위원회, 1948년 1월

미국원조의 대개적 투입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 CIA 국가첩보분석, 1948년 후반

일지

1947년 2월 28일	미국의 중국인 동맹자들에 의한 타이완인 학살 (10,000명 이상)
1947년 3월 1일	미군의 명령으로 경찰이 평화적 집회에 발포하여 6명 사망, 다수 부상
1947년 3월 10일	제주에서 미군정 반대파업으로 500명 체포
1948년 3월 1일	3월 1일 기념집회에서 2,500명 이상 체포
1948년 3월	10,000명 이상 체포
1948년 4월 3일	제주에서 경찰과 관공서에 대한 동시 공격
1948-1954년	제주학살: 3만명 이상 사망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미국이 조직한 선거 실시
1948년 8월 15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수립 선포
1948년 9월 9일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선포
1948년 10월 20일	여수 14연대 폭동, 혁명군 순천과 구례도 장악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통과
1950-1953년	한국전쟁, 5백만명 이상 사망
1952년3월 31일	국제민주변호사협회, 생물학전 수행혐의로 미국 비난

10월봉기 이후 양측을 교훈을 배웠다. 민족독립이 지상과제인 애국자들에게 투쟁은 남부에서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고 진정한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집중적인 조직이 필요했다. 10월봉기 훨씬 이전인 1946년 8월 평양에서 노동당이 수립됐고, 11월 23일 약 585명이 서울에서 모여 남조선 노동당(SKLP)을 결성했다.¹⁾ 진보세력은 더 참여하고 더 급진적인 중핵을 중심으로 재결집했다. 그들의 생각으로 굶주린 시위대 수백명의 학살에 대한 대중들의 자생

1) Cumings, Origins, 2:238.

적 반응은 정부를 타도하는 데 불충분한 것으로 입증됐다. 중앙집중화된 전국적 조직이 필요했고, 그들은 소규모 정당인 조선공산당, 인민당과 신민당을 합당하여 조선노동당을 결성했다.

미국 정책입안자들도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 마찬가지로 명확했다. 이승만 정부는 아주 취약해서 자체로는 석 달 이상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승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없다면 그는 변방으로 밀려나 아마 미국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김구 같은 애국자들이 조서의 통일을 주장하기 때문에, 1950년에 대규모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승만과 미국인 후원자들은 한국을 분단할 의도였고 그들은 1946년까지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DMZ를 폐쇄하여 남북왕래를 막았다. 1947년 중반 미군정은 북과의 무선 접촉을 불법화했고, 이 금지조치는 남로당이 북의 자매조직과 연락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했다. 느슨한 구조를 가진 남로당은 지하로 들어가야 했다. 남부 전역에 체계적으로 지부를 세우면서 남로당은 의심스런 명령연쇄를 창출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만든 국방경비대 내에서 남로당은 신속하게 수천명을 지지자들을 모았지만, 같은 부대 내의 장교와 사병에 대해 별도의 당내 소통라인이 구축됐다. 장교들은 서울의 남로당 본부와 계속 접촉한 반면, 사병들은 지역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명령체계의 분리는 1년 이내에 여수에서 치명적인 결함으로 증명됐다. 1945년 미국 관리들에게 일본경찰과 관리들을 포기하라고 설득하려는 하찮은 시도를 했음에도 박헌영은 당지도자가 됐다. 곧 박의 지지자들과 김일성의 지지자들 사이에 내부 투쟁이 발생했고, 이는 남과 북의 당 사이에 점증하는 거리감의 분명한 징후였다.

1946년 10월 봉기로 남로당 지도자들이 인민들이 다시 봉기할 준비가 됐다고 확신했고, 그들은 보다 체계적인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움직였다. 1947년 1월 철도 노동자들의 새로운 파업이 일어나자, 토착 노동조합과 새로 결성된 노총(미국의 승인을 받은 황색 노조) 사이에 유혈 대치로 수백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감옥에 갇혔다. 조직된 우파가 파업 노동자료를 공격하자, 미군과 경찰의 총공세로 수백명의 노조 지도자들이 살해당했고, 조합 지도자는 누구든지 즉결처형 당했다. 수천명의 조합원들이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갇혔는데, 일본인들이 지었고 지금은 미군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바로 그 감옥에 갇혔다.²⁾ 위협에 굴복하길 거부한 전평은 1947년 3월부터 1948년 5월까지 일련의 파업을 주도했다. 1947년 3월 22일에 시작한 15개 도시의 파업은 2만명 이상의 산업노동자들이 참여했다.³⁾ 1947년 초 불법화된 전평은 1949년경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⁴⁾ 1947년 9월 미군정은 전평 중앙사무국을 폐쇄했고, 1천명 이상의 지지자들을 체포했다.⁵⁾

1947년 3월, 그리고 8월 15일 이전에 또다시 경찰은 미군정의 지시로 수천명이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이지 못하도록 체포했다. 미군정 청장 핫지는 자신이 조직한 집회를 제외한 어떤 8월 18일 해발절 집회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⁶⁾ 전주에서 사람들이 금지령을 어기고 모이자 경찰은 시위대 150명을 체포했고, 미군 전투기가 다른 시위대에 위협비행을 했다.

남쪽에서 미국의 탄압이 더욱 잔인해지자, 38도선 북쪽에서 소련군은 걸어서 국경을 넘는 중국 팔로군의 조선인 군인들을 무장해제 했다. 아마도 반일, 반장개석 전쟁에서 전투로 단

2) Hagen Koo, "The State, Minjung, and the Working Class in South Korea," in *State and Contemporary Society in Korea*, ed. Hagen Koo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134-5.

3) Gothel, *Geschichte Sudkoreas*, 55; Cumings, *Origins*, 2:304.

4) Byoung-Hoon Lee, "Militant Unionism in Korea," 163.

5) Kim, *Politics of Democratization*, 27.

6) Cumings, *Origins*, 2:241.

련된 3만명의 베테랑들이 해방된 조선으로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에게 러시아인들은 미국만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심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도록, 소련은 미국처럼 인민위원회를 무시하거나 탄압하는 대신에 정당성을 인정하고, 인민위원회가 민중의 일상적 필요를 계속 보살피도록 격려했다. 전쟁 말기에 일부 소련 군인이 강간을 저지르고 정복자로서 민중을 대한 이후에 공산주의적 규율이 신속하게 부과됐다. 1946년 1월 새로 도착한 소련군 무관은 여성을 강간한 군인에 대한 사형제를 확립했고 소련군의 행동은 개선됐다. 커밍스는 미국이 초기의 강간사건 숫자를 과장했다고 말한다.⁷⁾ 1946년까지 소련군 지역의 공장생산은 전쟁 말기보다 더 많아졌다. 냉소적 비판자들이 인민위원회가 김일성 지배도구로 변질됐다고 나중에 주장했지만, 많은 북쪽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하며, 인민위원회가 1950년까지 상당한 자율성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1950년 전쟁은 도시들을 파괴했고 김일성을 미군의 폭탄과 화력으로 완전히 황폐화된 조선을 구하는 데 필요한 위대한 지도자로 바꿔놓았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자 북쪽 지역은 철저한 농업개혁으로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⁸에게 분배했다. 모든 토지의 약 95퍼센트가 보상없이 몰수되어 농가에 분배됐고 그들 주의 70퍼센트는 새 정부의 프로그램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봤다.⁸⁾ 가난한 소작농들은 갑자기 안정적인 생활조건을 누리게 됐다. 사소한 정도라도 일본에 충성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가혹한 처벌을 받았고 천황에 협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즉시 남쪽으로 달아났다. 특히 대지주들의 재산은 과거의 소작농들을 위한 협동농장이 되자 그들은 남으로 도주했다. 토지개혁과 다른 사회보장조치로 김일성의 노동당은 북쪽에서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고, 남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다.

10월봉기가 남한을 휩쓰는 동안, “북조선은 대조적은 고요의 섬이었다”고 브루스 커밍스는 지적했다.⁹⁾ 이승만이 남한에 도착한 날부터 약속한 대로 전쟁이 북쪽에 도달했을 때 북조선 농민들은 자신의 토지를 위해 투쟁했다. 1946년 초부터 이승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남한의 단독정부 구성을 옹호했다. 김구 같은 보수파든 김일성 같은 맑스주의자든, 어떤 도전에서든 이승만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확신한 미국은 이승만은 조선의 민족통합을 버릴 수 있도록, 남쪽에서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단독선거를 요구하는 UN 결의안을 추진했다. 1948년 1월 UN은 8개국으로 구성된 조선임시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위원회가 미국측 제안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미국측이 당황스럽게, 위원들의 다수 의견은 남한에서 별도 공화국의 수립에 반대했다.¹⁰⁾ 이에 개의치 않고 미국은 UN 임시위원회(당시 총회는 회기중이 아니었기 때문에)를 현혹하여 선거를 밀어붙였다.

남한 단독선거를 통한 미국/UN의 조선 분할에 반대하여 남로당은 1948년 2월 7일 총파업을 개시할 것을 호소했다. 파업이 예정된 1주일 전 김일성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에게 투쟁을 호소했다. “우리 당원 중에는 한가롭고 사치스런 생활이 있어서 안된다. 우리는 더 할 일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느낄 정도로 열심히 활동해야 한다.” 남한인들은 파업과 사보타지에 열정적으로 반응했다. 부산에서 관악대가 “인터내셔널”가를 연주하기 시작하자, 철도와 전보선이 끊겼다. 12량 기차가 탈선했고 남로당원들은 50대의 기관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남한 경찰 및 우익과의 산발적 충돌로 파업 노동자 50명이 사망하고 1,500명이 체포됐다.¹¹⁾

7) Ibid., 1:482.

8) See Gi-wook Shin, Peasant Protest and Social Change in Colonial Kore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6), 174.

9) Cumings, Origins, 1:xxv.

10) Joyce and Gabriel Kolko, The Limits of Power: The World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1945-950 (New York: Harper and Row, 1972), 314, 321-. Quoted in Hart-Landsberg, Korea, 85.

3일간 저항투쟁의 물결이 정점에 이르자 남조선 총파업위원회라는 단체는 미국과 UN 위원회(UN 감독 아래 남한의 선거를 준비하던)에게 조선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 핫지 청장에게 보내는 서한은 파업의 요구를 분명히 밝혔다. 미국이든 소련이든 아니면 UN이든 어떤 외국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이 자신의 정부를 수립할 권리를 요구했다. 탄압으로 남쪽 그룹들 사이에서 통신을 크게 방해하자 많은 사람들이 5월 10일 선거를 통한 “민족분단을 막기” 위해 2월에 시작하는 총파업에 참여했다.¹²⁾ 2월 25일 전라북도에서 독립파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경찰 5명과 시위대 27명이 사망했다.¹³⁾

제주 4월 3일 봉기

1945년 심지어 가장 냉소적인 뉴욕인조차 미국 육해군 군인들이 곧 태평양의 섬주민 수만명의 학살에 책임을 지게 되라라는 암시조차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조선 남해안에서 떨어진 야자수 천국이자 화산섬인 모계제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제주도 민중은 그 누구만큼이나 미국의 정책에 놀랐고, 미국이 자행한 잔혹행위에 충격을 받았다. 대부분의 조선인처럼 그들은 미국의 전투기를 “정의”의 편으로 봤고 일본 비행기를 “적기”라고 불렀다. 미국의 폭탄은 침략자들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미군기가 천황의 수송선을 난파시키자 쌀이 해변으로 밀려와 굶주린 섬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다. 제주는 오랜 자치의 전통이 있었고 해녀조합은 수세기 동안 일종의 살아있는 무정부주의였다.¹⁴⁾ 비록 미국이 제주를 “붉은 섬”이라는 딱지를 붙였지만, 제주는 실제적으로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독립과 자율의 정신과 더 강하게 조화”를 이뤘다.¹⁵⁾ 본토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제주에는 독자적 방언과 관습이 발달했다. “도둑, 문, 거지가 없다”고 제주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제주의 해녀는 해안국 조선의 광범한 범위로 펼쳐나가는 모계문화의 중심이었다.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나이든 해녀가 궁극적 발언권을 갖는 형태의 합의제 의사결정을 통해 일하는 제주사람들은 수십년 동안 직접민주주의 체제 속에 살았다. 제주 해녀들은 아주 독립적이어서 1901년과 1933년 일본에 맞서 투쟁했다. 1933년 1월에서 4월까지 하도리 마을에서 해녀 1,700명은 생산물 가격을 정할 권리를 포함해 공동체적 의사결정을 통한 여성의 권력을 주장했다. 격렬한 저항 때문에 일본인들은 마을에 경찰서를 설치할 수 없었다. 주민들은 “우리가 평화롭고 자율적으로 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파출소가 필요하고 외부인의 지배 아래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란이 확산되자, 일본인 도지사는 섬에서 도망쳤다.¹⁶⁾

현기영의 소설 ‘바람 타는 섬’에서 주인공 김시중은 이런 독백을 한다. “해산물을 수확하면서 사는 해녀들의 사회는 인류가 꿈꿔온 이상적 공동체의 바로 그 원형이다. 재산공유와 어장운영에 기초한 평등한 사회. 코뮌은 이런 특징을 갖는다. 공동체 내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어떤 권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은 멍에에 구속되지 않는 자연의 아이, 독립적 존재, 자율존 존재로서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공동체의 일부이다.”¹⁷⁾

11) Time, February 23, 1948.

12) Gang Jeong-gu, “Overview of Genocides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in Forum: Civilian Massacre, Program of the 24th May Commemorative Event (Gwangju: May 18th Memorial Foundation, 2004), 170.

13) John Merrill, “The Jeju-do Rebell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2 (1980): 163.

14) Clarified for me by Hyun Ki-Young in an interview on April 29, 2002 in Jeju.

15) Hyun Ki-Young, “Marginal Spirit Freeing Itself from the Mainstream,” in The Role of Jeju Island for World Pea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2nd Conference on the Jeju April 3rd Upri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2002).

16) Interview with Ko Chang-hoon, Jeju, February 16, 2007.

17) Hyun Ki-Young, “Marginal Spirit,” 3.

섬사람들은 그들의 무정부주의에서 바쿠닌이나 크로포트킨이 아닌 노자의 영향을 받았다. 노자의 중국은 전쟁과 불안으로 가득 찼지만, 그의 마을 주변 50마일 모든 방면에서 평화가 유지됐다. 노자는 평화주의와 자연의 질서에 기반한 도덕적 권위를 믿었다. 자치가 유기적으로 공동체의 삶에 흘러들어가서, 노자는 정치인의 지배보다 공동체적 삶을 선호했다. 노자의 “작은 나라와 작은 인구”의 개념은 제주의 촌락생활에 완벽하게 적합하다.¹⁸⁾ 여기에 한국의 모든 지역주의의 긍정적 핵심이 존재하며, 중앙집중적 권력과 그 구심적 소용돌이와 모순되는 지역자치와 자기통치에 대한 동력이 그것이다. 1948년까지 섬사람들의 무정부주의에 대한 친화성은 두가지 이유로 공산주의로 연결됐다. 독립적 마을에 대한 일본의 탄압과 북조선인들에 대한 친절한 대우를 포함한 소비에트 혁명의 성공.

일본의 지배 아래서 72개 화학 및 제조업 공장이 제주도에 세워졌다. 일본 항복 며칠 안에 72개 기업 모두가 접수돼 노동자들의 자주관리를 통해 운영됐다.¹⁹⁾ 조선의 나머지 징겨처럼 미군정 당국이 도착해서 “적산 관리”를 책임졌다. 통제권은 미국인들에게 넘어갔다. 1945년 9월 23일 최초의 미국인이 도착하기 5일 전에 광범한 대중적 지지로 인민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달 말까지 인민위원회는 안세훈을 도지사(위원장)로 선출했다. 거의 3년 동안 인민위원회는 제주도를 평화롭게 통치했고 심지어 학교 27개를 세웠다.²⁰⁾ 남한의 나머지 지역과 대조적으로 제주도는 평화로웠다. 1945년 11월 9일 미군정이 처음 도착하자 그들의 초기적 평가는 인민위원회가 “제주도 유일의 정당이자, 모든 측면에서 유일한 정부”라는 것이었다. 심지어 1947년 10월에도 미점령군 사령관 존 리드 핫지 청장은 남한을 방문한 하원 대표단에게 제주를 “코민테른의 별다른 영향 없이 인민위원회가 평화적 통제하는 진정으로 공동체적 지역”이라고 말했다.²¹⁾

1946년까지 남로당은 제주 인민위원회 내에서 핵심적 지도력을 구축했고 점차 다른 모든 경향들이 지도력을 따드도록 설득하거나 강제했다. 각 읍면동에는 서로에 엄격하게 위계적인 관계 속에 군사위원회와 정치위원회가 조직됐다. (이 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4.1을 참조하라.) 남로당 지도 아래 대중조직들도 세워졌고, 여기에는 여성단체, 농민협동조합, 어민조합, 소비자클럽, 노동조합, 교사조합, 문화협회 등이 있었다. 당 내부에 선전, 재정, 물자 조달, 첩보, 조직 등의 행동단위가 구성됐다.

[도표 4.1] 제주 남로당 구조

Source: “Report on South Korean Labor Party, Cheju Do,” Report to Colonel R.H. Brown, Commanding Cheju Do, June 20, 1948. Provided by April 3 Institute, Jeju.

1946년 9월 미군정은 제주를 독자적 도로 분리했다. 전라남도와의 연계가 분리되자, 제주도 정부의 통제는 미군 59대대에서 핫지의 본부에게로 넘어갔다. 핫지는 재빨리 새로운 보수적 도지사를 임명했고 우익 경찰을 제주에 파견했다. 중국과 일본, 한국 사이의 해상 교차로에 위치한 제주는 전략적 위치를 차지한다. 1946년 10월 AP 통신의 보도는 제주를 지중해의 지브롤터에 비유했고, 1947년 이승만은 미국이 제주에 거대한 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고 약속했다. 1949년 10월 미국 대사는 제주의 “특별한 전략적 가치”에 대해 언급했

18) Ibid., 5.

19) Yang Jungs-lim, “Toward the History of Resistance Beyond the Memory of Massacre,” Reconciliation Beyond Memory, Program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pril Third Uprising (Jeju: 4.3 Research Institute, 2008), 335.

20) See Ko Changhoon, “The International Context of the Jeju Sasam Uprising,” The Islander, June 2003.

21) Bruce Cumings, “The Ques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for the Suppression of the Jeju Uprising,” in For the Truth and Reparations: Jeju April 3rd of 1948 Massacre Not Forgotten, ed. Hur Sang Soo (Seoul: BaekSan Publisher, 2001), 17-8.

다.²²⁾

본토의 1946년 10월 봉기에서 미군이 민간인 살해에 직접 관여한 이후 제주에서 긴장이 상당히 고조됐다. 이전에 미군 최고급 장교들이 느긋하게 쉬면서 사냥여행을 즐길 수 있던 곳으로 여겨졌던 제주도에서 1947년 3월 1일 조선독립일을 기념하기 위해 섬사람들이 모이자 상황이 갑자기 변했다. 최소한 5만명의 군중(일부는 더 많다고 말한다)이 북초등학교에 모였고, 제주도 역사상 최대의 평화시위였다.²³⁾ 군중들이 거리로 넘쳐나자, 미군은 한국경찰에게 발포하라고 명령했다. 총격이 멈추자 최소한 6명이 사망했고 더 많은 숫자가 부상당했다. 수십명이 체포됐다.²⁴⁾ 1주일 후 1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체포된 사람들의 지속적 구금에 항의했다. 경찰은 다시 한번 군중에게 발포했고 이번에 5명이 죽었다. 무자비한 폭력의 사용에 직면해 모든 학교, 사무실, 사업체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모두 16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파업에 동참했다. 일부 경찰과 군인, 해안경비대도 항의에 동참했고 많은 보수파들도 참여했다. 체포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부상자에 대한 보상 외에 파업은 민중의 살해한 경찰의 처벌, 친일 협력파의 해고, 미소 공동위원회(그 당시에 조선문제를 다루는 기구였지만 회담이 결렬된 상태)의 회복을 요구했다. 조선의 다른 곳에서도 3월 1일 시위로 16명이 살해됐고 22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미군의 소식통은 보고했다.²⁵⁾

3월 10일까지 최소한 176곳에서 섬사람들은 유혈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평화적 작업중지를 이용했다. 3월 1일 발포한 경찰은 미국의 명령을 받는 외지인이었고, 전라남도에서 속한 오랜 지위에서 제주를 분리한 다음 핫지가 파견한 자들이었다. 미국의 책동으로 상황이 통제권을 벗어나자, 미군정 청장은 더많은 우익경찰을 제주에 파견했다. 5백명의 파업지도자들이 체포됐고, 66명의 현지 경찰이 해고됐고 우익 본토민들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됐다. 이에 항의하여 도지사가 사임했다.

체포된 사람들 대부분이 심하게 구타당했고 최소한 세명의 젊은이들이 고문으로 사망했다. 이 사실은 3월 15일 심하게 훼손된 그들의 시체를 강에서 끌어내자 알려졌다. 고문살인에 책임있는 경찰을 체포하거나 폭력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은 328명의 시민을 군사법정에 세웠고 최소한 1명의 미국인 판사가 불법집회, 미군법 위반, 파업계획에 이르는 혐의로 158명에 유죄선고를 내리도록 도왔다. 수백명의 우익 경찰이 더 제주도로 파견됐다. 새로 도착한 자들 중에서 가장 포악한 것은 8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서북청년단이었다고, 이들은 북조선에서 탈출한 반공 난민들이었다. 이 무급 살인자들은 약탈로 먹고 살았고, 마을에서 마을로 다니면서 강간과 살인을 일삼았고, 불운한 섬주민, 특히 무방비 상태의 여성들에게 샘 페킨파의 잔혹한 웨스턴 영화가 점잖게 보일 정도로 고문을 가하고 수치를 줬다. 노력의 댓가로 땅을 약속받은 많은 자들이 미국인 주인의 명령을 기꺼이 따랐다. 그 해 말까지 최소한 2,500명이 체포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고문으로 사망했다.

미국 첩보부는 일상적으로 제주를 “붉은 섬”이라고 지칭했다. 미국측 보고는 1948년까지 약 6만명(아마도 주민의 20퍼센트)이 남로당원이고 전부 8만여명이 동조자 또는 적극적 지지자

22)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2 (서울:인물과 사상사, 2004), 209-0.

23) Chang-sung Hyun, in Hur, 26.

24) James West, “Jeju April 3rd Martial Law: Was It Legal?” in For the Truth and Reparations: Jeju April 3rd of 1948 Massacre Not Forgotten, ed. Hur Sang Soo (Seoul: BaekSan Publisher, 2001), 63; John Merrill writes that only one person, a child, was shot and killed that day (“The Jeju-do Rebellion,”154). According to other U.S. documents, on the afternoon of March 1, 1947, police fired into an “unauthorized parade and meeting of about 1,000 people.” They killed six civilians; another subsequently died from his wounds. (“U.S. troops assisted in dispersing the crowd.” G-2 Periodic Report HQ 6th INF DIV 19001, no. 500, March 2, 1947.

25) Merrill, “The Jeju-do Rebellion”; U.S report of March 14, 1947 (courtesy of 4.3 Institute).

로 간주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²⁶⁾ 비록 남로당 제주 인민해방군이 약 400명의 핵심당원(그리고 그 절반 정도의 소총)으로 구성됐음에도, 약 4천명의 지역 별로 조직된 자위대가 그들을 지원했고, 대부분 호미, 칼, 창, 삽, 칼퀴 등으로 무장했다. 미군대령 로스웰 브라운은 섬주민 4천명에 대한 미국과 한국측 군사신문기록을 검토한 다음 남로당의 규모를 6만명 이상으로 추정했지만, 그는 그들이 “대부분 교육받지 못한 무식한 농민과 어민”이라고 간주했다.²⁷⁾ “폭동을 진압하는 데 2주일이면 충분하다”고 그는 상관에게 자신했다. 의심심장하게 제주도의 남로당은 거의 전적으로 섬주민들로 이뤄진 반면, 미군정과 함께 일하는 한국인들은 주로 본토인들이었다.

3월 14일 미군 첩보부는 제주에서 총파업이 경찰 학살에 대한 대응으로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파업 지지는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심지어 미군정 피고용인의 75퍼센트도 파업을 지지했다. 모든 공무원과 노동자의 95퍼센트 이상이 파업에 참여했고 166개 공공기관과 행정조직의 41,211명이 여기에 포함된다. 참여는 아주 광범해서 본토에서 파견된 경찰은 발전소를 가동해만 했다. 3월 20일까지 모슬포의 전체 경찰력이 파업에 동참했다. 동시에 대구에서 수천명의 학생들이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1947년 초 미군정이 남한 전역에서 목표포 한 쌀 할당량의 69퍼센트를 수거했을 때, 제주에서는 겨우 1퍼센트만 수거했다. 제주에서 곡물 할당량은 5배나 높았었다.²⁸⁾

1947년 2월 28일 타이완 봉기 및 학살과의 국제적 비교가 테러의 원천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 이승만과 장카이셰는 둘다 워싱턴의 정책입안자들이 갑자기 “새 국가”라고 선포한 커다란 나라의 한 조각에서 미국의 친한 친구가 됐다. 비록 수천년의 역사가 한국의 통일성을 증언함에도, 한반도는 군사기지와 요새에 대한 미제국의 필요에 맞도록 분단되고 있었다. 미국의 침략은 공산주의의 위협을 물리치기 위한 냉전적 긴급성으로 합리화했다. 중국에서 장카이셰와 국민당이 다가오는 패배에서 도피할 수 있는 안전한 후방지역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함정들이 중국군을 바다를 건너 타이완으로 수송했다. 장카이셰 군대는 대대적으로 도착하자마자 수만명의 타이완 섬주민을 학살했고 그들의 시체는 바다에 던지거나 썩도록 들판에 버려졌다.²⁹⁾ 그들의 유일한 “범죄”는 스스로 통치할 권리를 주장했는 것이다. 명백히 이승만과 미국인 조종자들은 타이완 토착권력구조의 근절을 지켜보면서 제주에 적용할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조선 내의 저항은 타이완의 경우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었다. 남한의 단독선거를 통한 조선의 분할이 다가오면서 1948년 2월 7일 전국적 파업에 대한 남로당의 호소는 광범한 공명을 얻었다. 저항은 제주에서 가장 강렬했고 많은 곳에서 경찰과의 육박전이 벌어졌다.³⁰⁾ 1948년 3월 1일 경찰은 다가오는 분할선 근처에 항의하는 청년 2,500명을 체포했고, 다시 한번 많은 젊은이들이 고문당했다. 최소한 1명의 시신이 이후에 강물에서 건져졌다. 1948년 불법적 쌀세금은 1947년의 5배 수준이었고 너무나 가난하고 금속이 아주 귀해서 나무 도구를 사용하는 섬에 대한 가혹한 조치였다. 탄압과 저항의 주기가 확장되면서 남로당은 제주도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함으로써 테러의 지배를 종식시킬 준비를 했다.

1948년 4월 3일 자정 조율된 봉기공격이 신호가 올라갔다. 89개의 사화산 분화구 정상에서

26) U.S. intelligence cited in Merrill, “The Jeju-do Rebellion,” 157.

27) Cumings, *Origins*, 2:254.

28) Bruce Cumings, *Speech at Harvard University*, April 25, 2003.

29) 29 While the exact number of killed will never be known, estimates range from ten thousand to over a hundred thousand. On April 1, 1947, seven Taiwanese associations estimated the number slaughtered at fifty thousand. For discussion of Taiwan’s February 28 Uprising see Lai Tse-Han, Ramon Myers and Wei Wou, *A Tragic Beginning: The Taiwan Uprising of February 28, 1947*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158. See also *Asia’s Unknown Uprisings Vol. 2* (Oakland: PM Press, 2012).

30) See Merrill, “The Jeju-do Rebellion,” 162-5.

봉화의 불길이 밤을 밝혔다. 새벽 2시 3,500명이나 참여한 동시공격이 서북청년단과 제주의 24개 경찰서 중 11개서에 대해 전개됐다. 전부 15명의 친일 협력자와 경찰이 살해당했다. 각 지구당 최소한 30명의 당원으로 구성된 인민군은 대대를 구성하고 대대는 연대를 구성했으며, 봉기자들은 널리 배포한 신문을 통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의 대응은 신속하고 자의적이었다. 미군 무장연대가 부산에서 증파됐고 추가적 경찰 1,700명이 파견됐다. 3월말과 5월 중순 사이에 1만명이 구금됐다. 정부는 공격과 반격이 강도를 더해가자 지속적으로 주둔군을 보강했다. 봉기대는 마을, 동굴, 한라산의 숲속, 섬을 거대하게 뒤덮은 사화산의 기지들로 후퇴했다. 4월 29일 임시 도지사와 대동면의 지역경비대 다수가 게릴라 편으로 넘어가 유혈전투를 이끌었다.³¹⁾

미국은 국방경비대 9연대 지휘관인 김익렬에게 “소개” 작전을 수행하라고 명령했지만, 김익렬은 게릴라 지도자 김달삼과 3개항 평화협정을 마련했다. 비록 미군 장교들이 협정의 실행을 돕기 위해 4월 29일에 도착했음에도, 협약은 항복하고 오라리의 집으로 돌아온 파르티잔의 학살로 무효화됐다. 경찰은 이런 살상을 자행했지만, 미국은 조작된 보고서를 통해 학살을 봉기대에 덮어씌웠다. 미군 대령 맨스필드는 원래 평화협정을 승인했지만, 미군정 도청장 W. 딘 장군이 비토하자 협상의 통한 해결의 희망은 사라져 갔다.³²⁾ 제주 도지사가 게릴라에게 합류했기 때문에 딘은 미군 점령정부와 협력하고자 하는 새로운 행정부 인사를 찾아낼 필요가 있었다. 처음에 미국은 미군 지원자 대열에서 남로당 동조자를 숙청하려고 했다. 문상길 중위가 서울에서 처형당했고 제주에서도 3명의 하사관이 처형당했다. 로스웰 대령은 2주 동안 4천명의 민간인을 체포한 다음 기분이 어떠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단순하게 그의 “임무는 봉기를 진압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5월 10일 선거에 이르는 주간에 무장 게릴라는 최소한 63개 면에서 경찰과 전투를 벌였고 정부 관청도 공격했다. 마침내 선거가 열리자 제주의 투표율은 남한 전역에서 최저였다. 투표 참여가 너무 저조해서 제주에 할당된 새 국회의 2석은 단순히 빈 채로 남았다. 여성동맹 회원들은 사람들이 투표하는 것을 막는 캠페인을 벌였고 수천명의 주민들은 총구의 협박으로 투표소에 끌려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전날 밤에 산속으로 들어갔다. 모든 선거 공무원의 절반이 나타나지 않아서, 일본제복을 입은 보조경찰이 투표소를 감시해야 했다.

[사진] 1948년 제주도 주민들은 미군정의 지배 아래서 소개됐다. 이 사진을 찍기 위해 피난민 어린이들을 한데 모았다. 사진작가 미상

제주 전역에서 공격이 강화됐고 수개월 동안 계속 됐다. 5월 12일 본토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 미군함 크레이그 호가 제주에 정박해서 주변 해역을 순찰했다.

[사진] 미군함 크레이그 호는 1948년 제주를 봉쇄한 많은 미군 함정 중의 하나였다.

게릴라들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6월 18일 정부군 지휘관 박진용 대령은 부하들 중 한명에게 사살당했다. 6월 27일 미군측 보고서는 두 척의 해안경비대 함정이 “선장을 살해한 공산주의 폭동자들”에게 납치돼 “함정을 복한 항구로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³³⁾ 그 해 말까지 제주 경찰은 1백회의 전투와 6천명 체포에 대해 보고했고, 미국측 자료는 사망자 숫자

31) 31 Merrill counted three thousand guerrillas on Mount Halla (Korea: The Peninsular Origins of the War, [Newark, NJ: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89] 68).

32) Merrill has a different version. He claims Colonel Pak Chin-gyong's attempts to persuade the guerrillas to surrender failed, after which the new government offensive began. See “The Jeju-do Rebellion,” 174-5.

33) Document provided by 4.3 Research Institute, 390.

를 5천명 이상으로 추정했다.

남한의 새 정부가 8월 15일 출범을 선포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 봉기대에 대한 전투에 박차를 가했다. 제주도 전역에서 나무와 관목을 베어내고, 토지를 정리하고 가옥을 불태웠고 마을별 집단처벌이 가해졌지만, 여전히 저항은 강화됐다. 8월 25일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지하선거가 이뤄졌다. 조선의 북부에서는 만중들이 210석에 대해 투표한 반면, 훨씬 더 많은 360석이 남쪽의 지역별로 선출된 대표자들에게 할당됐다. 미국측 자료는 제주 주민의 25퍼센트가 이 비밀선거에 참여한 반면, 게릴라 측은 85퍼센트 참여를 주장했다.³⁴⁾ (북한의 공산당 측 자료는 남조선 전체 유권자의 77.52퍼센트가 선거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선거 이후 1,002명의 대의원(제주에서 김달삼과 다른 5명을 포함한)이 북쪽의 해주시에 모여 조선인민회의의 구성을 위해 표를 던졌다.

9월 9일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선포와 함께 조선은 두 개의 정부를 갖게 됐고, 각각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을 주장했다. 주요한 차이가 많지만 제주에 대한 차이가 두드러진다. 한 미국장군은 1948년 8월 15일까지 제주군정 청장이었지만, 그 이후에도 8월 24일 서명한 비밀협약으로 1949년 6월 30일까지 남한 국립경찰과 군대에 대한 미군의 작전 통제권을 유지했다.³⁵⁾ 9월 그 당시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최고위 장교인 윌리엄 로버츠 장군은 남한 총리 이범석에게 명확한 어조로 누가 책임자인지 말했다. “당신도 알다시피, 국방경비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주한미군 총사령관에게 있고, 따라서 국방경비대의 작전통제에 관련된 모든 명령은 발표 이전에 적절한 미군 자문관에게 밝히도록 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³⁶⁾

미군정 아래서 약 30만명의 전체 인구 중에서 3만명 이상을 살해한 제주의 유혈사태가 시작됐다. (일부에서는 피살자 숫자를 7만명에 가깝게 추정한다.)³⁷⁾ 더 많은 숫자가 부상당했고 여성들은 조직적으로 강간당했고, 최소한 10만명이 강제로 해안가의 “보호” 지대로 강제로 쫓겨났고, 제주의 가옥 중 70퍼센트가 파괴됐다. 전체적으로 1948년에서 1954년까지 약 199명의 군인과 또 199명의 경찰이 살해됐고, 이는 민중저항의 상대적으로 평화적인 성격의 증언이다. 김동춘이 표현한 대로, “기술 고문관들은 무장 게릴라의 숫자를 약 5백명으로 추정했고, 피살된 희생자의 숫자는 30,000명 이상이다. 누가 군대로 하여금 그렇게 독특하고 비이성적인 작전을 수행하도록 촉발했는가?”³⁸⁾

미군은 직간접적으로 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킬링필드를 전환시키는 데 관여했다. 궁극적으로 명령권은 비밀협약 아래 미군 장군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책임은 절대적이다. 비록 폭격과 기총소사의 보고가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미군 항공기는 첩보수집에 사용됐다.

34) Merrill, “The Jeju-do Rebellion,” 177. U.S. intelligence estimated 25 percent of the Southern rural population might have voted; the North put the figure at 77 percent of eligible voters participated.

35) Cumings, “The Ques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15.

36) Quotation from Jeju 4.3 Museum.

37) Estimates of the number of people killed range from range from 15,000 (the lowest of U.S. figures at the time) to 80,065. See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Lost Victory: An Overview of the Korean People’s Struggle for Democracy in 1987* (Seoul: Minjungsa, 1988), 8. In a 1949 report to the American authorities, South Korean officials said 27,719 islanders had been killed, close to the North Korean figure of 30,000 or about 10 percent of the islanders. Some estimates place the number killed as high as 80,065, or more than 25 percent of the population. Seong Nae Kim, “Lamentations of the Dead: The Historical Imagery of Violence on Jeju Island, South Korea,” *Journal of Ritual Studies* 3, no. 2 (Summer 1989): 252. In 1949 discussions with U.S. intelligence officials, the governor of Jeju privately told his American superior that 60,000 had been killed out of a population of 400,000, 40,000 had fled to Japan, and more than 39,285 homes had been destroyed.

38) Dong-Choon Kim, *The Unending Korean War: A Social History* (Larkspur, CA: Tamal Vista Publications, 2009), 175.

워싱턴은 우익세력, 특히 서북청년단에게 풍부한 탄약과 차량을 공급했고 그들의 폭력행위를 고무했으며, 미국의 지원으로 서북청년단은 제주도의 경찰력과 신문을 장악했다. 수백명의 서북청년단원들은 지역민을 처형하고 그들의 토지를 훔치고 그들의 재산을 수탈하는 캠페인을 통해 부자가 됐다. 11월 17일 미국의 적극적인 승인과 협력으로 계엄령이 선포됐다. 제주도를 봉쇄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한 약 18척의 전함이 37밀리미터 대포로 무방비 상태의 마을주민들에게 폭격을 가했다.³⁹⁾ 미국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하버드 대학의 회의 때까지 미국 내에서 제주학살에 관한 공개행사는 전혀 없었다. 어떤 미국의 정치인도 제주도에 자행된 잔혹행위에 대해 사과는 고사하고 인정한 자도 결코 없었다. 일련의 남한 독재정권과 우익 폭력집단은 민중을 너무나 위협해서 1988년이 되어서야 봉기와 학살에 관한 최초의 공객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

1948년 4월 3일 자정 봉기의 조율된 공격은 확실히 봉기의 조직적 성격을 보여준다. 지적인 것처럼 인민위원회는 1945년에서 1948년까지 제주도의 사실상의 정부였고 제주도민은 인민위원회 아래 압도적으로 단결해 있었다. 남로당의 지도력은 광범하게 받아들여졌다. 4월 봉기의 동시적 개시는 중앙집중적 조직과 통제를 보여주며, 구좌파 무장봉기의 전통에 따른 전술이었다.⁴⁰⁾ 주요 지도자 중에서 오직 김달삼만이 북조선으로 도망쳐서, 개인적으로 제주도가 처한 비극에 대해 김일성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남한에서 미국인들에게 조선독립에 협조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란 남로당의 희망은 끝장났다. 지속적인 하갈로 미국의 박애에 대한 환상은 유혈로 소멸했다. 유일하게 가능한 수단은 전면적인 파르티잔 전쟁이었다.

여순 봉기

제주학살의 소식은 미국에서 무마할 수 있었겠지만, 북조선의 김일성은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살육은 의심의 여지없이 김일성이 동료 조선인을 구하도록 동기부여를 했다. 남조선인들은 조선의 통일과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이미 노동조합, 총파업, 농촌의 권력장악 등의 무기를 사용했지만, 훨씬 더 우월한 미국의 화력은 미제국의 의지를 강제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배 이후 해방과 노예화의 변증법은 조선인들에게 새로운 점령으로 인도했다. 잔인하게 제국주의적이었지만 일본은 산업과 도시, 철도와 도로를 건설했고, 미국은 자유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파괴했다.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연이은 학살에 직면해 남부인들은 원치 않았지만 무장투쟁을 시작했다. 1946년 10월봉기의 진압 이후 열성적으로 게릴라 부대가 결성됐다.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것 이외에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었는가?

조국분단에 반대하는 남부인들의 마지막 거대한 봉기는 1948년 10월 갑작스럽게 시작됐다. 그 때 여수의 국방경비대 14여단은 봉기를 진압하려 제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수천명의 병사들이 폭동을 일으켜 장교들과 친일 협력자들을 살해하고 여수와 인근 순천의 최소한 6개군을 장악했고(따라서 여순이란 이름이 붙었다), 지리산으로 이동한 다음 거기에서 지속적 게릴라전을 위한 기지를 세웠다. 여순반란은 조선의 분단에 대한 남부인들의 저항의 정점이었다. 반란군은 온 나라가 조국의 분할 시킨 미국이 강제한 정권에 반대하도록 활성화 하길 희망했고 그들은 거의 성공할 뻔했다. 미국은 휘하의 거의 모든 부대를 보냈고, 대대적

39) Yang Han Kwon,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rd Insurrection," For the Truth and Reparations: Jeju April 3rd of 1948 Massacre Not Forgotten, ed. Hur Sang Soo (Seoul: BaekSan Publisher, 2001), 4.

40) Based on U.S. Counter Intelligence Corps (CIC) sources, Cumings concluded that the guerrillas were not centrally commanded but "operated in mobile units (kidong pudae) eighty or a hundred strong that oft en had little connection with other rebels. This, of course, was one of the elements that made the movement hard to suppress." U.S. sources were wrong about so many dynamics in Jeju, and their guess that autonomous fighting units were the enemy was incorrect. Units engaged in hit and run tactics when trying to reach safety in the open terrain of Jeju or when attacked, but that does not necessarily imply their autonomous organization. See "The Ques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21.

반격을 전개했고 유혈사태를 통해 순천과 여수를 탈환했다. 봉기 이후에 수천명이 처형당했고 군대는 좌익분자를 숙청했고 북조선과의 협력을 중법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됐다.

미국측 문서에 따르면 “10월 19일 이전에 국방경비대의 대오에서 폭동이나 반란의 조짐이 알려지지 않았다”.⁴¹⁾ 미국측 첩보보고는 부산의 국방경비대 신병들이 5월(봉기가 시작된 이후)에 제주를 방문했고 부대 내에 통일조국에 동조적인 사람들이 많으므로 경비대를 공격하지 말고 우익이 압도적인 경찰에 초점을 맞추라고 봉기대에게 충고했다. 1년 이상 동안 일본의 식민통치 시절 이래로 계속 고용됐던 우익 경찰과 본토의 국방경비대는 서로 싸웠고 때로 사상자가 발생했다.⁴²⁾ 1948년 5월 1일 14연대가 결성됐는데 폭동이 일어나기 6개월 전이었다. 서울의 당국은 부대원이 절반이나 남로당에 동조적이란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장교들과 함께 연대장을 체포하여 서울로 데려왔고 그들은 전복활동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⁴³⁾ 10월 16일 제주로 가는 수송선에 타려고 기다리던 중 남로당원으로 알려진 하사들(또는 최소한 이승만 정부에 반대했던)이 모여서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 세 가지 계획이 나왔다. 배를 납치해서 북으로 가거나, 제주의 봉기에 합류하거나 아니면 여수를 접수하는 방안 등이었다.

10월 18일 이승만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다.⁴⁴⁾ 다음날 남한 대통령은 일본으로 날아가서 맥아더를 만났다. 그날 밤 14연대 사병들은 제주로 출항을 기다리는 동안 새로운 M-1 카빈소총을 지급받고 승선하기 전에 잠깐 휴식시간을 갖고 있었다. 쉬는 동안 상사 지창수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정의의 위해 싸울 것을 호소했고, 단지 민족단결과 독립을 원하는 제주의 동료 조선인들을 죽이지 말라고 호소했다. 40명이 즉각 그의 편으로 넘어왔다. 그들은 탄약고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무기를 탈취하고 더 많은 지원군을 모았다. 곧 약 2천명의 사병으로 구성된 전 연대가 제주배치에 반대하고 통일조선을 위해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장교들의 저항에 부딪히자 그들은 그들에게 동조한다고 주장한 김지희 한명을 살려주고 장교 20명을 살해했다.⁴⁵⁾ 나중에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이 주장한대로 아마도 사살당한 장교들 중 15명은 남로당 비밀당원이었을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일반사병은 전남도당 지도부에 보고한 반면 장교들은 가능한 경우 서울의 전국 당기구와 접촉했다.) 남로당의 전국 또는 지역 지도부가 폭동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명백히 남로당원인 장교들은 시점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던지 아니면 당본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야 한다고 믿어서든지 준비가 되지 않은 봉기를 중단시키려고 시도했다.

가능한 최대의 신형무기로 무장한 반란군은 여수 시내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할 무렵 반란군 대오는 거의 2,500명으로 불어났다.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그들은 인공기를 흔들었다. 자

41) MBC produced a remarkable series of documentaries in 2001 called “Now the Truth Can Be Told.” One of them focuses on the Yeosu uprising. Producer Lee Chaehun reported in 1999 that Jung Gi-soon, a member of the Women’s League inside liberated Yeosu in 1948 whose two sisters and brother were murdered by the U.S.-backed forces when they retook the city, still had qualms in 2001 about being interviewed for the documentary beca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See Lee Chaehun, “It’s Time to Speak Out—the Insurrection of Yeosu 14th Regiment,” in Forum: Civilian Massacre, Program of the 24th May Commemorative Event (Gwangju: May 18th Memorial Foundation, 2004), 146. See the report from Kwangju of October 20, 1948, by Captains Hausman, Reed, Treadwell and Frye. Finally, in January 2009, Kore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ssued a report that at least 439 civilians were massacred in the Yeosu incident.

42) Cumings, *Origins*, 2:261.

43) Cumings believes these arrests “may have set the events in motion.” See *Origins*, 2:260.

44) Merrill, “The Jeju-do Rebellion,” 179–80.

45) 안재성, 이현상:평전 (서울: 실천문학사, 2007), 245.

연발생적으로 시민들은 이순신 장군의 옛 본부에서 거리를 가로질러 모여들기 시작했다.⁴⁶⁾ 여수의 5만명 시민 중에서 약 5천명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였다.⁴⁷⁾ 여수가 해방됐고 나라가 통일될 것이란 소문이 퍼지자 즉각 축하행사가 벌어졌다. 14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그들이 제주도에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제주에 가면 “우리 자신의 조선민중”을 죽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민중의 병사들”이라고 선언했다. 그들은 봉기의 목적이 “외국 제국주의로부터 조국을 수호하는 것”과 “조선의 진정한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⁴⁸⁾ 압도적 다수의 시민들에게 지지받고 경찰이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신형무기로 무장한 반란군은 신속하게 도시 전체를 장악했다.

새로 해방된 공적 공간에서 여성들은 모든 대한민국 법률의 즉각적인 무효화와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법률로의 대체 선언문을 낭독했다. 토지를 평등하게 재분배한다는 포고가 발표됐다. 일본 협력자들, 특히 잔인한 경찰과 우익은 인민재판을 받기로 했다. 여수 도심의 거리에 집결한 6백명의 남로당원들을 봉기대가 무장시켰다. 여수의 행정권력은 봉기한 군대가 지지하는 옛 인민위원회에게로 넘어갔다. 여자중학교 교장인 송욱이 인민위원장이 됐고, 1945년 당시에 위원이었던 존경받는 시민들이 다시 인민위원이 됐다. 반란군이 발행한 신문은 새로운 조선인민공화국을 수호할 것을 약속했고 토지 재분배, 친일 협력자 숙청, 조국분단 반대 등 인공 강령을 반복했다. 한번의 결정적 가격으로 14연대는 금지된 시민평의회를 회복했고, 이미 민중들의 지지를 받는 강령을 즉각 복원시켰다.

봉기 이전에 쌀과 같은 기초식량의 가격은 거의 500퍼센트나 올랐었다. (저장 중인 쌀 8킬로그램은 2,368원에서 11,192원으로 올랐다). 복원된 인민위원회는 즉각 가격을 인하했다. 무장대가 도시를 장악자, 많은 친일 협력자들이 즉결처형 당했다. 최소한 1명의 철도경찰이 살해됐지만, 지역 부자들은 살해되지 않았다. 여수 최고의 부자이자 신발공장 주인이었던 김영준은 청년들의 재판으로 처형당했지만, 그의 재산 때문이 아니라 일본에 비행기를 헌납했기 때문이었다. 민중들은 그의 고장을 접수해 공장에서 생산한 흰 고무신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모든 곳에서 민중들은 행진하면서 해방의 소식을 퍼뜨렸다. 미국측 자료는 여수 나환자촌에서 “24명의 그룹이 정문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첩보는 계속해서 지적했다. “심지어 중학교, 수산학교와 여중학교 학생들도 무장했다.”⁴⁹⁾ 여수를 장악한 반란군은 인근 순천을 장악하기로 결정했다. 10월 20일 오전 10시 4백 명의 무장반란군을 태운 기차로 순천으로 갔다.⁵⁰⁾

공중에 총을 쏘면서 반란군이 대대적으로 입장하자, 순천의 군대가 그들에게 합류했다 그러나 경찰은 도시 북쪽에 집결했다. 오후 7시 하루 종일 전투를 벌여 경찰 400명이 사망한 이후 반란군은 순천을 장악했다.⁵¹⁾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인민위원회를 복구했다. 신속하게 재판소가 설치됐고 친일 협력자들이 처형됐다. 경찰들도 더 살해됐는데, 아마도 100여명으로 추산된다.⁵²⁾ 미군 첩보 보고서에 의하면 “높은 비율”의 민중들이 인민재판을 지지했고, 중학생

46) On April 14, 1592 in the waters off Yeosu, Admiral Lee's fleet destroyed more than 400 Japanese ships in a decisive defeat of Japan's expansionism.

47) Based solely on U.S. and North Korean documents, Cumings estimated that two thousand people gathered in downtown Yeosu. Cumings, *Origins*, 2:260. The MBC documentary used both U.S. and ROK documents, as well as oral testimonies of eyewitnesses in South Korea to construct their narrative in which five thousand people gathered.

48) Merrill, “The Jeju-do Rebellion,” 179-80.

49) From *Chronology: October 18, 1948 to November 1, 1948* (RG 407/270/5516 Entry 427 File# 306), 26.

50) “Short History of the Yosu Campaign,” G-2 Section, Hausman Archive, Box 7.

51) Merrill, *Korea: The Peninsular Origins of the War*, 106.

52) That is the approximate number of police corpses found after the city was retaken. At the time when the city was in insurgent hands, Korean police sources reported five hundred of their members had been killed in Suncheon.

들도 “경찰에 대한 공격에 열렬히 가담했다.”⁵³⁾ 같은 시기에 현장에서 우연히 붙잡힌 두명이 미군 장교 그린봄과 모어는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었다. 한 보도에 의하면 그들은 근처에 있는 한 선교사의 집으로 피신했다고 한다. 어쨌든 미국인을 죽이지 않는 민중들의 자기규율은 보답받지 못했다. 미군 장교들은 그들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알았던 반면, 보통 조선인들은 여전히 미국인 “해방자들”을 설득해서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인민공화국의 통제지역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반란군은 무장부대를 남원, 광주, 광양 등 세 방면으로 나눴다. 그들은 신속하고 구례를 장악하고 벌교, 고흥, 보성, 곡성으로 진출했다.⁵⁴⁾ 광양과 보성엿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인민재판소를 구성했고, 커밍스가 “전혀 급진적이지 않는 곳”이라고 묘사했던 구례의 모든 곳에서 인공기가 휘날렸고 인민재판소가 세워졌다.⁵⁵⁾ 미국측 보고에 따르면 2천명의 반란군이 구례를 공격했고 반란군 대오는 “적기가”를 부르면서 행진했다. 미국 첩보당국은 “시민들이 너무나 적극적”이라고 불평했고 남원, 장흥, 고흥, 하동에 반란군의 존재를 보고했다.

10월 21일 밤 한국군 부대가 순천의 반란군이 광주의 동지들에게 보내는 최고기밀 통신문을 가로챘는데, 이는 호남(전라남북도) 전역의 통제권 장악을 위한 세부계획을 담고 있었다. 14연대는 남원, 전주, 이리를 장악할 예정인 반면, 광주에 주둔한 4연대는 목포와 광주를 장악한 다음 이리에서 14연대와 합류할 예정이었다.⁵⁶⁾ 광주에서 산발적인 교전이 보고될 때 미국측 보고서는 4연대의 5백여명이 “반란군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두 소식통에 따르면 광양에서도 북한기를 휘날린 것으로 보고됐다. 상황은 아주 심각해서 미군정청 본부는 한국의 미지상군 전투조정관 선임인 제임스 호스먼 대위(자칭 “남한 육군의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신생 대한민국 정부는 비틀거리고 있고 여수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즉각 재탈환해야 한다”고 말했다.⁵⁷⁾ 호스먼은 자신의 임무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대한민국의 15개 국방경비대 중에서 10개 연대를 직접 지휘하면서 주민에게 어떤 희생이 따르던 반란 도시들을 단번에 포위해서 재탈환했다. 호스먼은 군에 입대하기에 너무 어렸고 형의 이름을 써서 가짜 신분으로 군대에 들어갔었다. 여기에서 그는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갖게 됐다.

북조선에서 소련이 모든 군대를 철수시키던 같은 날 미군 장교들은 “독립적” 남한에서 민중들의 운동을 탄압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⁵⁸⁾ 미국측 문서들은 군산에 내려서 광주로 간 사병들의 수자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보낸 통조림 식량과 가솔린의 구체적 양 등이 세부 사항을 포함한 국방경비대 부대의 이동에 관한 세부적 관리사항을 보여준다. 전라도에서 봉기는 대중적 지지가 아주 많아서 성공했고, 호스먼과 미군장교 엘리트 집단이 제공하고 감독한 우월한 화력을 통해서만 봉기는 진압됐다. 하남의 경우를 유일한 예외로 하면 미군에게 직접 명령을 받는 모든 한국인 지휘관들은 모두 일본군에서 복무했었다. 대부분은 만주의 봉춘 군사학교 졸업생이었고, 거기서 그들은 조선인 파르티잔을 추적하는 훈련을 받았었다.⁵⁹⁾ 커밍스가 요약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반란군을 진압한 지휘관들은 미군이였다... 비록

53) Cumings, *Origins*, 2:262.

54) Interview with Lee Young-il, Yeosu Institute, December 14, 2001.

55) Cumings, *Origins*, 1:296.

56) 56 Documents provided by Yeosu Research Institute, marked “2400-1 October,” 10.

57) Letter from headquarters to Hausman cited in “My Earliest Memories in Korea,” Harvard University Hausman archive, Yenching Library, Box 9.

58) *Time*, November 1, 1948, 18.

59) 59 Lee Young-il, “The Truth about ‘Yo-Sun Incident’ and ‘Massacre of Civilians,’” in Forum: Civilian Massacre, Program of the 24th May Commemorative Event (Gwangju: May 18th Memorial Foundation, 2004), 180.

접령이 끝났고 미국은 한국 내부분제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지만.”⁶⁰⁾ 비밀리에 미국은 미국의 대한민국 군대 통제에 관한 이승만의 동의를 확보했고, 이는 자신의 군대 내부를 포함해 남한에서 민중들 사이에서 지지기반의 취약을 고려할 때 이승만이 기꺼이 승인했던 사항이다. 1947년 말 미국 외교관 그리고리 헨더슨은 대한민국 군대가 “공격에 대응할 역량의 합리적 추정을 정당화하기 힘들 정도로 부실하게 훈련받고 제대로 장비도 못갖춘 상태”였다고 믿었다.⁶¹⁾ 이승만의 승인 아래 미국의 화물기는 필요한대로 부대와 물자를 이동시켰고, 미국 제 무기를 화물열차로 수송하고 미국 첩보기가 첩보를 제공했다. 이승만은 왜 보통 한국인들 사이에서 지지가 필요했겠는가?

이틀 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10월 23일 아침 순천이 빼앗겼다. 여수에 대한 공격은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에 시작됐고 10월 27일까지 계속됐다. 미군장교 마이너 L. 켈소는 “여수를 향해 박격포대를 설치하고... 도시 대부분에 포격을 가했다”고 묘사했다.⁶²⁾ 이틀 동안 전함들도 여수에 포탄을 비처럼 퍼부었고 수많은 민간인을 살상했다. 37mm 포를 갖는 해안경비대 함정이 인천에서 여수로 파견됐다. 반란군 중에는 일본제 구식 소총으로 무장한 100명의 여학생들이 10월 25일 부두를 사수했다. 10월 27일 그들은 두 번째 상륙작전을 격퇴했고, 오전 10시경 전함의 함포사격에서 불구하고 용감하게 위치를 사수했다.⁶³⁾ 호스먼은 “가가호호 시가전”을 한 이후에 10월 27일 오후 2시 도시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묘사했다. 부두와 어업지역은 유린됐고 도시의 1/4이 완전히 불탔다. 비록 주민 전체에 대한 검속을 했지만, 소수의 14연대 군인이 체포됐고, 정규 군복을 입은 병사는 겨우 10여명이었고 전부 63명이었다. 나머지는 전투를 벌이면서 포위망을 뚫고 지리산으로 넘어갔다.

도시를 지키다가 수백명이 사망한 이후, 섬뜩한 학살이 자행됐고 미군 장교들은 조용히 목격했다. 한 미국측 보고는 어떻게 “국방경비대가 난폭하게 사격했는지” 묘사했다. 모든 시민들은 초등학교에 강제로 모였다. 일본 제복을 입은 한국 경찰은 끔찍한 복수를 가했다.⁶⁴⁾ 최악은 일본육군 상사였던 김종환이었다. 미군 장교들이 “호랑이 김”이란 별명을 붙여준 그는 일본도를 사용하여 많은 포로들의 목을 베어 죽였다. 미군 보고서들은 주요한 목적이 “이제 되찾은 여수를 박살내고 강간하는 것이며, 의심할 바 없이 이 목표는 거친 꿈을 실현하듯 진행됐다.”고 결론지었다.⁶⁵⁾ 흰 고무신을 신은 사람은 누구나 지목받으면 죽임을 당했고(왜냐하면 인민위원회가 나눠준 무료 고무신을 신었다는 이유로), 손이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공장 노동자, 어부 또는 가난한 농민임을 뜻하게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학생들과 청년들도 살인을 서슴지 않는 국방경비대의 공격대상이 됐다.

1948년 12월 6일 미국인 기자 칼 마이던스는 <라이프>지에 이런 만행의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마이던스는 어떻게 5천명의 체포된 사람들이 “막대기, 쇠사슬,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 당했는지” 묘사했다.⁶⁶⁾ 수십명의 즉격처형 당했고, 추가로 미국이 “적절한 채널”이라고 부른 과정을 통해 추가로 866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10월 26일 인근 만성리 해변에서 125명 이상이 처형당했고 그들의 시체는 내버려져서 사람들이 수습해 묻었다. 효명동에서도 100여명이 살해당했다. 구례에서는 진압군(사람들이 국방경비대를 이렇게 불렀다)이 도착하자 최소

60) Cumings, Origins, 2:264.

61)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149.

62) Minor L. Kelso, letter of June 12, 1995, in Harvard University, James H. Hausman Archive, Box 7.

63) Merrill, Korea: The Peninsular Origins of the War, 111.

64) Keyes Beech, Tokyo and Points East (Garden City: Doubleday, 1954), 139.

65) “The Yeosu Operation Amphibious Phase,” 8.

66) 66 In 1968, twenty years after the U.S.-supported massacres in Yeosu, Carl Mydans and Shelley Mydans published *The Violent Peace*, providing further details of Yeosu atrocities.

한 188명의 농민이 처형당했다.

커밍스는 타이거 김의 테러와 미군이 주도한 살육이 “무고한 자들의 살육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⁶⁷⁾ 그의 견해로 “반란군의 혁명적 테러가 그 상대를 만나 친정부 세력이 끔찍한 보복을 가했다.”⁶⁸⁾ 명백히 살해당한 사람들의 수자는 규모에서 차이가 나는데, 반란군이 수백 명을 죽였다면 미국과 국방경비대는 수천명을 죽였다. 이 봉기와 학살의 결과로 사망한 개인들의 정확한 수자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당시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벌교, 고흥의 전체 주민 약 100,000명 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7,00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북조선인들**[북한의 추정]은 2,326명이다. 2002년 학자 김득중은 약 10,000명 사망으로 정리하는데, 이 숫자는 여수연구소의 이영일도 이용했다.⁶⁹⁾ 학자 이재훈은 반란에 가담하 병사 4,700명 중에서 2,000명이 사망했다고 추정했다.⁷⁰⁾ 봉기의 결과로 최소한 2,591명이 감옥에 갇혔다. 봉기혐의로 체포된 생존자들은 대전 교도소로 이송됐고, 여기로 제주에서 300명, 여수에서 1,300명이 이송됐다.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이 남으로 진격하자 미군 장교들의 감독 아래 대전의 대량 학살로 그들 모두가 처형됐을 것이다.) 1948년 사망자 중에는 전투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의 알려지지 않은 숫자도 포함해야 하며, 이들은 광활한 지리산에서 정부측 식량봉쇄의 희생자가 됐다.⁷¹⁾

비록 “호스먼의 자식들”이 수천 명의 민간인들을 죽였지만, 그의 책임과 미국의 책임은 아직도 미국 당국이 인정하지 않았다. 그 대신 호스먼은 이 시기에 대한 미국의 역사에 영웅적 인물로 기록되며, 제프리 암퍼스트, 조지 커스터, 아이티얼 드 솔라 폴, 윌리엄 웨스트모어랜드 등 박멸작전에 참여한 공으로 표창을 받은 긴 수상명단에 합류했다. “여순봉기의 진압의 계획과 집행”에서 보여준 그의 “효율성”으로 호스먼은 미국 무공훈장을 받게 된다. (1981년 호스먼은 전두환에게서 무공을 인정받아 추가로 표창을 받았다.) 수천명의 사망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승만과 조선의 분단을 계속 지지했다.

[사진] 미국이 주도한 여순봉기 진압 이후 학살된 반란군 시체.

Life magazine

광활한 지리산 일대를 체계적으로 수색하면서 미국인 고문관들은 수천명의 한국군 부대의 수색섬멸 작전을 지휘했다. 잡힌 사람은 누구든 반란군으로 간주됐다. 격렬한 전투를 피해 도망친 이 운없는 사람들은 미국이 한국에 도입한 ‘사법’제도의 희생양이 됐다. 1948년 11월 말까지 1,714명이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고, 866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오랜 지리산 전투 동안 포로들이 직면한 보복을 묘사하면서 한 미군 병사는 잊지 못한 구절을 글로 남겼다.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단순한 과정이다. 연대지휘관이 임명한 즉결특수법정이 재판을 한 다음 사형을 선고한다. 유능한 즉결법관은 오전에 60 내지 70개 사건을 다룰 수 있고 오후에서 처형을 감독한다. 만약 탄약이 부족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죽창을 사용한다. 그러나 너무나 많이 찢러죽이면 그것은 병사들에게 아주 피곤한 작업이다. 하지만 병사들은 지치지 않았다.”⁷²⁾ 대부분의 시체는 불태웠고 재는 아무데나 뿌렸다. 한국에서 조상에 대한 공경의

67) Cumings, Origins, 1:263.

68) Ibid., 265.

69) Interview with Kim Deug-Joong, Seoul, June 12, 2002. Hong Young-gi estimated a range of seven to ten thousand killed. Interview, Gwangju, May 23, 2001.

70) Chaehun, “It’s Time to Speak Out,” 148.

71) Gang Jeong-gu, “Overview of Genocides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in Forum: Civilian Massacre, Program of the 24th May Commemorative Event (Gwangju: May 18th Memorial Foundation, 2004), 170.

72) Unsigned letter to General Mullins, HQ 2nd Army in Fort Meade from Liaison Office KMAC, dated July 28, 1949.

중요성을 기억하면 후세에 대한 모욕이었다. 14연대가 처음 봉기했을 때 목숨을 구한 장교 김지희는 지리산의 파르티잔 지도자가 됐다. 그가 체포되어 참수당한 후 미군 대위 제임스 호스만은 그의 잘린 머리를 사무실의 5갤론 가솔린 통에 보관했다.⁷³⁾

여순봉기 진압 후 두 명의 미군 장교가 빼앗은 14연대기를 들고 있다.

Life magazine

봉기의 결과

여순반란은 민족통일과 독립을 위한 남조선 운동의 전술에서 질적 도약을 상징했다. 전투성이 폭발했을 뿐 아니라, 일반사병의 지도력으로 대표되는 봉기의 계급적 성격은 그들이 광범한 지역적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됐다. 반제국주의와 계급투쟁을 결합하고, 조선의 통일성을 확인함으로써 봉기의 내용은 혁명적이고 민족주의적이었다. 제주의 학살은 소규모 집단의 저항이 무용함을 분명히 드러냈다. 왜냐하면 나치의 그리스 작전을 상기시키는 전술로 게릴라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섬 전체가 유린됐기 때문이다. 지역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함으로써, 반란군은 정부를 타도하기를 희망했고, 이 목표의 달성에 그들은 상당히 접근했었다.

미국의 첩보당국은 “신생 대한민국이 비틀거리고 있다”고 평가했고 자신들이 조국해방의 마지막 위대한 전투에 불을 붙인다고 믿었던 봉기 지도자들의 견해를 확인했다. 봉기가 전개되자, 미국은 “전국적 반란”이 계획됐었다고 믿었다. 미국 첩보당국은 “공산당 세포들이 대구에서 반란을 시작하려고 시도했고 지역 관리 몇 명을 죽였지만, 상황은 몇시간 안에 다시 통제 됐다. 만약 공산주의자들[sic]이 계획대로 전국적 봉기를 일으키는 데 성공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⁷⁴⁾ 1948년 CIA는 남한 인구의 약 10퍼센트, 즉 2백만명이 남로당 조직 소속이라고 추정했다. 그 숫자 가운데 1만명이 “간부”로 분류됐고 60만명이 “활동가”로 분류했다.⁷⁵⁾ 만약 조직이 당원들 사이에서 행동을 조정하는 데 성공했다면, 미국은 1948년 유혈사태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돌이켜 보면, 남로당원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부딪혔던 어려움에서 알 수 있듯이 봉기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남한에서 가혹한 탄압은 애국자들 사이에서 모든 형태의 연락을 제한했고 활동가들을 고립시켰고 알아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커밍스가 보기에 여수에서 취한 행동은 오도된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봉기는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로 가길 원치 않는 군장교들의 반란이었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어리석은 반란이라고 생각했다.”⁷⁶⁾ 커밍스에게 봉기는 “자연발생적이고 부실하게 계획된 것이었고... 성공의 희망이 억의 없는 순간에 얼떨결에 일으킨, 분노와 좌절 모두에서 태어난 최후의 저항이었다.”⁷⁷⁾ (행동을 취한 것이 “군장교들”이라고 커밍스가 주장한 것은 틀린 것이다. 일반 사병들이 중심세력이었기 때문이다.)

1946년 10월봉기에 대한 분석에서 커밍스는 반란과 혁명을 구별하지 못했다. 장-폴 사르트르가 이해하는 바로, “혁명가는 세상을 바꾸길 원하고, 세상을 초월하며 미래를 향하여, 자

73) Hausman's typed autobiography is in his Harvard archive, Box 9.

74) “The Truth About the Yeosu Incident,” marked “from Carbon Copy loaned to Capt. R.K. Sawyer by Major John P. Reed, Ward E2, Fitzsimmons AH, Denver Colorado,” 3. Box 726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 2-7A AE.

75) Cumings, Origins, 2:238.

76) Cumings in MBC film about the Yeosun Uprising from the series, Now the Truth Can Be Told.

77) Cumings, Origins, 2:263.

신이 창조한 가치의 질서를 향하여 전진한다. 반란자는 자신이 반란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신이 겪는 악용을 조심스럽게 유지한다.... 반란자는 기존질서의 파괴하거나 초월하기를 원치 않으며, 단지 그것에 맞서 들고 일어나길 원한다.”⁷⁸⁾ 사르트르의 기준에 따르면 여순은 반란이 아니었고 결코 그럴 수 없었다. 반란은 단지 부당한 권위에 맞서 대응한다. 혁명은 새로운 질서의 수립을 추구하며 이것은 바로 여순의 성격이었다. 인민위원회가 회복되고 인민재판소는 가혹한 재판을 처리했고 인공기가 휘날렸고 독립과 통일이란 민중의 목표는 미국이 필사적으로 유지했던 질서에 대해 명백히 전복적이었다. 여수와 순천에서 은행들은 털렸지만, “반란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공화국을 위한 자금이었다. 민중들은 봉기정부와 연계하기 위해 북조선 군대가 도착할 것이라고 믿었다. 만약 그들이 이승만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봉기의 목적이 단지 그 내에서 더 많은 정의를 확보하는 것이었다면 반란이란 용어가 적합했겠지만, 봉기자들은 완전히 다른 체제를 수립할 것을 지향했다. 만약 단순한 반란이었다면, 봉기자들은 여수에서 패배했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무기를 내려놓을 것이다. 사실 그들은 전투를 계속했고 10월 25일 구례를 공격했고 그 날 밤 구례를 장악했다.⁷⁹⁾ 김지희가 이끈 반란군은 26일 경찰서를 불태운 다음 지리산으로 이동했다. 11월 5일 구례는 다시 한번 공격받았다. 11월 19일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미군장교들이 지휘한 국방경비대는 반란군 200명을 사살하고 500명을 생포했다.

북한의 간부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남로당 핵심 지도자 중의 하나인 이현상은 봉기가 평양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에 대한 범죄”라고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생존 투사들을 지리산으로 안내했고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⁸⁰⁾ 여순봉기를 평가하면서 나는 당중앙위원회가 내린 최상의 지침에 비해 진정으로 민주적인 노동운동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가 더 우월하다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글이 떠올랐다.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20-0의 비전은 주장하기 쉽지만, 전투의 와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마르쿠제가 말했듯이 그런 순간에는 “필사적 행동을 하는 사람만이 자신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비싼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공동의 대의로서 자신의 대의가 너무 값비싼지 여부. 어떤 일반화도 모호하며, 아니 심각하게 부당하며, 그런 일반화는 체제의 희생자들에게 오래 기다림의 고통, 오랜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⁸¹⁾ 만약 반란군의 연락망이 더 나았다면, 또는 다른 연대가 폭동을 일으켰다면, 만약 미국이 이승만을 구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등 끝없는 가정을 여기에 덧붙일 있지만, 만약 그랬다면 결과는 조선의 애국세력에게 유리했을 것이다. 제주에 가서 동료 조선인을 학살하기를 거부한 14연대 병사들은 자유란 최상의 전통 속에서 투쟁했다. 그들이 일단 숙명적 결정을 내리자, 그들은 그 길을 따르는 것 이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조선의 남부에서 운동의 전개는 논리적 진행에 따라 계속됐다: 조선인민공화국과 인민위원회의 수립에서 대규모 대중시위, 노동자파업, 농촌의 권력장악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지역에서 무장한 혁명적 이중권력의 수립까지 이어졌다. 미국이 지휘한 대대적 화력을 통해서만 패배한 이 운동은 패배를 받아들이길 거부했고 지속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투쟁으로 나아갔다. 여순반란과 미국역사가들이 한국전쟁의 발발로 간주하는 1950년 6월 25일 사이에 게릴라 전은 반제국주의 운동의 전술적 접근을 필요하게 했다.

제주와 여순에서 심한 잔학행위를 겪었음에도 저항은 강화됐다. 1948년 11월 2일과 1949년

78) Jean-Paul Sartre, Baudelaire (New York: New Directions, 1967), 51-2.

79) James Hausman, “History of the Rebellion of the 14th Constabulary Regiment,” Harvard University Hausman archive, Box 7, Folder 5.

80) 안재성, 이현상 평전 (서울:실천문학사, 2007), 255-6.

81) Herbert Marcuse, Counterrevolution and Revolt (Boston: Beacon Press, 1972), 52.

1월 30일 사이에 대구 6연대 대오 내에서 세 번의 폭동이 일어났다.⁸²⁾ 같은 달 영국측 소식통은 광주에서 3천명이 체포됐다고 보고했다. 12월 20일 200명의 반란군이 가담한 나주 인근의 19시간 전투로 한국군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게릴라들은 전라남도에서 가장 강력했고, 거기에서 각각 1백명의 무장 파르티잔과 수천명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4개의 별도부대가 전보와 철도노선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한 힘을 구축했다.

1949년 1월 3일 2백명의 반란군이 제주시 외곽을 공격했다. 그들은 시청을 불지르고 그안의 모근 기록을 파괴했다. 그들의 공격은 이승만 정부를 당황케 했으며, 이승만은 절멸작전을 한층 강화했다. 4개 대대가 추가로 제주에 배치됐다. 곧 마을의 70퍼센트 이상이 불타고 한라산의 높은 지역일 제외한 제주의 내부지역에서 사람들이 쫓겨났다. 섬주민 3명 중 1명꼴로 해안으로 따라 급조된 철조망 캠프에서 살아야 했다(이후에 베트남의 “전략촌” 프로그램의 모델).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게릴라 공격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는 부대들에게 작은 해안지역만이 안전했다. 4월 한라산의 기지에서 나온 파르티잔 세력에게 제주는 거의 완전히 장악당할 뻔했다. 이승만을 제주를 방문했고, 직접 “초토화”작전을 명령했다. 결과는 신속했다. 파르티잔 지도자 김민석이 체포되어 참수당했고, 이덕구도 사살됐고 1949년 6월 7일 새로운 시청건물 앞에 훼손한 그의 시체를 전시했^{eki}. 1949년 봄 남로당은 주요한 게릴라 공격을 전개했다. 표4.1에 나오는 것처럼 남조선의 게릴라 숫자는 1949년 4월 16,257명에서 20월 89,000명으로 늘어났고, 11월에는 총계 77,900명에 이르렀다.⁸³⁾

[표 4.1] 1949년 남한의 게릴라 활동 통계

월	게릴라 숫자	사건	적 사상자
4월	16,257	482	716
8월	44,200	759	1,203
9월	77,900	1,184	2,104
10월	89,900	1,330	2,415
11월	77,900	1,260	2,213

Source: Yi Sung-yop, “The Struggle of the Southern Guerrillas for the Unification of the Homeland,” *Kulloja* (January 1950), 21, as reported in Cumings, *Origins*, 2:273. Casualties refer to enemies killed and wounded.

심지어 국방경비대의 이승만 부대 내에서도 폭동은 계속됐다. 1949년 5월 5일 8연대의 2개 대대가 38도선을 넘어가 북한군에 합류했다. 8월 한국에 임대된 미국상선 킴벌 B. 스미스호가 모든 승무원과 함께 3명의 미국인 고문관을 태우고 북으로 넘어갔다.

지리산에서 최소한 1949년 7월까지 수십건의 처형이 달마다 계속됐다. 미국 해군함정들이 남한의 해안을 순찰했고 미국 비행기들은 남한측에 일일 첩보보고를 제공했다. 미군장교들은 게릴라를 포위하는 작전에서 전 일본군 장교들을 계속 감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9년 여름이 끝날 무렵 “게릴라들은 남한의 많은 지역에서 활동했고 꽤 강력한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로 결정했고 주요한 겨울진압 작전을 개시했다. 1949년 늦가을 시작된 작전은 거의 전쟁발발 시까지 계속됐다.”⁸⁴⁾

일본의 훈련을 받은 경찰과 군장교들은 미국의 한국지배에서 귀중한 자원으로 입증됐고 다가올 수십년간 남한의 정치적 하부구조의 중핵을 이루게 된다. 미국측 작전관들은 그들이

82) Kang Man-gil, *A History of Contemporary Korea*, 188.

83) Yi Sung-yop, quoted in Cumings, *Origins*, 2:272-3.

84) Cumings, *Origins*, 2:289.

미국의 행정에 대해 갖는 중요성을 예민하게 인식했다. 8월 2일 호스먼은 미래의 독재자 박정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직접 개입해 이승만을 만났다. 박정희는 일본군 첩보장교였고 김일성을 생포하거나 죽이려고 했다. 1948년 비록 여순봉기에 가담했지만, 박정희는 동지들에게 등을 돌렸다. 기의 부관인 김정석은 박정희와 같이 잡혔지만 처형당했다. 다음 30년 동안 호스먼은 한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연결선이 됐다. 의심할 바 없이 그는 1961년 자신의 제자가 남한의 독재자가 되자 아주 기뻐했다.

미국 요원들이 이승만의 맹목적 결정을 계속 교정하지 않았다면 과연 남한이 생존했을지 의심스럽다. 미국인 영사 2명이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광주에 오자, 파르티잔들은 영리한 매복 작전으로 경찰 25명을 살해했다. 정부군은 마을을 소개하고 경찰서 주변에 모래포대 벽을 세웠다. “모든 경차서는 중세의 요새를 방불했다”고 미국인들은 보고했다. 구례에서 지역 관리들은 시민들의 90퍼센트가 “공산당원”이라고 믿었다. 여순 이후 게릴라들은 명백히 수많은 새로운 개종자들을 만들어냈다.

9월 29일 미국의 한국군사지원단장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내에서 게릴라 활동과 작전은 그 범위와 강도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무부 관리들은 “정부가 도시와 배도시 외곽에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보고했다. 10월 수백명의 게릴라가 무주와 진주에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그 달 후반에 약 70명의 게릴라들이 인민재판을 열었고, 46개 마을의 농민 4천여명이 “악질지주들”을 가혹하게 처벌했고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도쿄의 미국첩보부는 남원에서 지리산, 순천과 목포 인근의 광대한 지역을 “게릴라들이 전라남도 지방을 거의 완전히 통제하는 남한의 게릴라 요새”라고 불렀다.⁸⁵⁾ 다른 곳에서도 인민위원회가 재수립됐고 마을에서 대대적으로 게릴라가 모집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표 4.2는 게릴라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집중됐는지 보여준다. 이 봉기는 이승만의 주장대로 북조선의 침투가 아니었다. 1950년 4월 미국 첩보부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게릴라 거의 100 퍼센트는 지역에서 모집됐다”고 요약했다. 게릴라 투쟁이 강화되면서 이승만의 미국인 자문관들은 그에게 경찰에서 차출된 5만명의 정예부대를 창설해서 “남한의 모든 게릴라와 반군 활동의 체계적 근절”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그들에 대한 집중적 작전에도 불구하고, 약 1천명의 반군은 1950년까지 생존할 수 있었고, 그들은 조선인민군(KPA)의 선발대와 연결했다.⁸⁶⁾ 사실 목포와 광주에서 파르티잔들은 인민군이 도착하기 이전에 궤기했다. 한 경우 4천명의 섬유 노동자들은 돌을 던져 공장주를 쫓아내고 직접 생산을 장악했다.⁸⁷⁾

대구 부산 전북 광주 제주 청주 강릉 안동 서울
[표 4.2] 1949년 게릴라 요새

Source: Cumings, *Origins*, 2:270.

국가보안법과 이승만 독재

여수 함락 2개월 안에 이승만 정부는 북에 대한 동조를 탄압하는 미국의 강력한 압력에 직면했다. 이에 응하여 그들은 일본의 법률을 본따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르면 평양의 정부를 대신하 활동하는 자는 누구나 사형에 처해야 했다. 첫 해 경찰은 확대된 법적 권위를 이용해 국가보안법 조항으로 188,621명을 체포했다.⁸⁸⁾ 군대는 모집고 동시에 숙청을

85) Ibid., 400.

86) Interview with Lee Young-il, Yeosu, December 14, 2001.

87) Cumings, *Origins*, 2:687-.

88) 88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343.

감행했고 준군사 우익집단의 무장은 가속화됐다. 미국은 제주에서 서북청년단의 활동에 아주 흡족해서 그들에게 새 군복을 지급한 다음 여수와 순천에 보내 시민들을 해치우게 했다. 이승만은 1949년 새로운 준군사조직 전국학생방어대를 세웠는데, 이남희는 이를 히틀러의 유겐트 조직에 비교했다.⁸⁹⁾

여순반란이 전술적 실패로 그 이후 운동 인력과 조직에 치명적 타격이 가해졌음에도, 봉기는 미국에게 이승만 정부가 심각한 곤경에 처했다고 확신하게 했다. 몇주 이후에 CIA 국가 첩보보고인 “대한민국의 생존전망”에서 “미국의 대규모 원조투입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⁹⁰⁾ 국무장관 던 러스크는 만약 경제원조가 전달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대한민국이 몰락할 것이라고 확신했다.⁹¹⁾ 1년후인 1949년 10월 엄청난 양의 미국제 물품이 남한으로 밀려들었다. CIA의 평가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경제군사적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⁹²⁾

이승만의 철권은 김구 같은 온건한 민족주의자들을 노렸다. 김구는 이승만이 탄핵된 후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이 됐다. 비록 단호한 반공주의자였지만 김구는 조국의 분단을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1949년 6월 26일 김구는 암살당했고 이 범행은 이후에 이승만의 명령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적됐다. 이승만은 한 달 만에 신문들을 폐쇄하고 군대를 숙청하고 1천명이나 되는 정치인들을 체포했다. 그는 본토에서 “초토화” 정책을 수행할 조직으로서 오웰주의적 명칭을 가진 보도연맹을 만들었고 이 조직을 통해 수십만명의 전향자들이 경찰에 등록했다. 남한 경찰에 보고하면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누군가 1945년 이후 민간조직에 가담한 이유로 투옥에 직면했다. 독재자는 펜을 휘둘러 일본 패배이후 결성된 광범한 애국적 민간단체인 전국농민조합연맹이나 여성동맹을 범죄단체로 몰아 잠재적으로 사형당할 수 있게 했다.

이 새로운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이승만은 경찰 수자를 거의 두배로 늘였다. 1948년 미국이 공식적으로 경찰 통제권을 넘길 당시 경찰 수는 35,000명이었다. 그 해 말에 이 숫자는 6만명에 이르렀다.⁹³⁾ 미국측 소식통은 1947년 중반 미군정의 감옥에 갇힌 정치범 숫자가 22,000명 이상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일본의 지배하의 숫자보다 거의 두 배였는데, 이승만은 이 숫자마저 능가했다. 1949년 말까지 이승만의 감옥은 3만 명의 정치범으로 넘쳐흘렀는데, 대략 80퍼센트가 공산주의자인 것으로 간주됐다.⁹⁴⁾ 그와 동시에 1945년 일본에 협력한 “배신자”로 공식적으로 알려진 수백 명의 조선인 중에는 단 한명만 감옥에 있었던 반면, 많은 협력자들이 판사로서 애국자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한국전쟁

역사상 그 어떤 전쟁도 1950년에서 1953년까지 짧은 3년 동안 한국을 유린한 것만큼 어떤 나라를 유린한 적은 없었다. 미국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던 가벼운 코미디 시리즈 매시(M*A*S*H)에서도 미국인들이 흔히 “잊혀진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에서 한국이 겪은 참상을 제대로 묘사하는 데 실패했다. 2003년 나는 남한과 북한의 학살현장을 방문했고, 미군 공습의 생존자, 배치된 생물학전 무기 목격자들, 부상당한 사람들, 부모를 잃고 자식이 죽는

89) Lee, The Making of Minjung, 88.

90) Hausman archive, Box 9.

91) Gothe, Geschichte Sudkoreas, 63.

92) Cumings, Origins, 2:385.

93)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143.

94) Hart-Landsberg, Korea, 77.

것을 목격한 사람들을 만났다. 이 사람들에게 끔찍한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것이 끔찍한 트라우마이지만, 내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잊혀진 전쟁”은 한국에서 여전히 많이 기억하는 전쟁이었다. 우리 일행이 신천에서 평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트란 트롱 지압이었는데 그는 정전 50주년 기념식에 참여한 베트남인 대표였다. 버스가 지역에서 벗어나자 트란은 나에게 말했다. “조선전쟁은 역사상 가장 야만적 전쟁이었다. 우리는 베트남에서 두세번의 미라이를 겪었지만, 여기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학살이 벌어졌고 미국은 수백명이 아니라, 수천명을 죽였다.”

신천과 그 주변에서 우리는 증언을 들었고 1950년 10월 17일 미국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벌어진 섬뜩한 살상극 현장을 방문했다. 52일 동안 35,000명 이상이 살해당했고, 어린이 8,000명과 교사 400명도 포함됐다. 석당강 다리에서 2,000명 이상이 묶여서, 강으로 던져져 익사했다. 훨씬 더 끔찍하게 한 얼음 저장고에서 1,200명이 불에 타죽었다. 인간이 불의 연옥을 탈출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남긴 자국이 새겨진 검은 숯덩이 벽과 천장을 보는 것은 괴기하고 공포스런 경험이었다. 신천박물관은 워싱턴 D.C.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상기시켰다. 신발, 안경, 머리카락과 개인 소지품 무더기를 지나면서 나는 동시적인 분노와 공포, 불신과 화를 느꼈다.⁹⁵⁾ 일본의 식민지배를 전복함으로써 미국이 조선을 해방시키고 계몽시켰다는 주류적 견해도 불구하고, 슬픈 전후의 현실은 미군정은 대대적 물리력으로 제국의 의제를 강제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소련의 팽창주의와 중국혁명의 “도미노 효과”에 대항하는 요새를 창출한다는 자신의 냉전적 이해에 따라 행동한 미국은 궁극적으로 조선과 베트남을 각각 두 개의 국가로 분할했다. 조선인들이 조용히 밤을 맞이하길 거부하자 미국은 우월한 군사력을 사용해 한반도 전체를 파괴했다.

전쟁 초기 몇주만에 북은 남으로 밀고 내려왔고 몇주 동안 낙동강과 부산 일대의 반도 동남부 구석에 몰려 포위된 한국군과 미군의 잔당을 제외하고 반도 전체를 장악했다. 전쟁발발 이후 김일성의 첫 라디오 방송은 한국과 미국이 포기한 지역에서 즉각 인민위원회를 재건할 것을 호소했다. 전국적으로 민중들은 바로 그렇게 했다. 6월 27일 민중들은 연백에서 15인 인민위원회를 세웠다. 한 달 안에 수백개 마을에서 비슷한 선거가 이뤄졌고, 선출된 대의원들은 읍면, 다음에 시군, 마지막으로 지방단위 정부당국의 대표자들을 뽑았다. 1945년의 인민위원회들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만약 일본에 출격한 미군의 대규모 공군력이 없었다면, 북조선의 단련된 투사들은 그들을 해방자로 환영한 대중적 지지 속에 조선 전체를 장악했을 것이다. 미국의 공군과 해군이 없었다면 전쟁은 기껏해야 몇주 안에 북측의 승리로 끝났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내부적 차이를 조선인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다면, 아니면 널리 가정하듯이 루스벨트가 1년을 더 살아서 조선의 독립을 수용했다면, 한반도는 완전한 파괴를 면했을 것이고 수백만명의 생명을 구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아마도 오늘날 통일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번영하는 핵심축이 됐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조선을 최혜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대우했다면, 조선은 오늘날 일본만큼 번영했을 것이다. 확실히 1945년 당시 일본 외부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산업화된 지역인 북조선은 현재의 빈곤국 대열에서 벗어나 있을 것이다. 미국과(아직도 1953년 정전협정을 대체할 북한과의 평화협정에 서명을 거부하는)의 지속적인 갈등에 발목잡힌 북조선은 반 세기 이상 동안 봉쇄, 국제기구들의 금융거래 금지, 지속적인 침투와 위장공격, 러시아 등 주요 후원국의 몰락, 천재지변 중 내린 잘못된 결정 등으로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95) U.S. responsibility for the Sinchon Massacre is a debated topic in South Korea. Rightwing thugs who lost properties because of the Workers' Party land reform were also involved in the Sinchon orgy of blood. Apparently, holocaust denial is not limited to German atrocities during World War II.

물론 대부분의 미국과 남한의 보수적 논객들은 전쟁이 공산주의의 침략으로 야기된 것으로 묘사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다음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조선인들이 스스로 침략할 수 있는가?” 1950년 6월 25일을 전쟁 개시일로 받아들인다 해도, 어느 날짜에 누가 누게에 공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존재한다. 이승만은 항상 한반도 전체의 통제를 약속했고 그의 장군들은 지속적으로 DMZ 너머로 주요한 습격을 명령했다. 1949년만해도 북조선은 38도선에서 2,617건의 공격을 집계했고 그로 인해 북측 병사 수백명이 살해됐다. 더욱이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훨씬 이전에 시작됐다. 그 전 5년간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아래서 남한의 애국자 10만명 이상이 살해당했다.⁹⁶⁾ 홀거 하이데는 그 수자를 두 배로 추정했다.⁹⁷⁾ 이 “작은” 전쟁을 “진짜” 조선전쟁과 분리하는 것은 전쟁의 책임을 북조선에 떠넘기는 데 기여한다.

북조선은 6월 25일 남측이 38도선을 넘어 공격했고 북측이 대응했다고 주장한다. 양측은 북한군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고 한국군과 미군은 놀라서 도망쳤다는 데 동의하며, 넓은 공간을 남겼다. 미국측 설명도 공포의 후퇴를 부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펜타곤은 전투를 피해 달아난 무고한 민간인들로 구성된 명확히 비무장 피난민 대열에 대한 미군의 학살을 언급한 이 시기의 보고서를 마지못해 확인했다. 육해공에서 민간인에 대한 미군의 체계적 공격과 놀라운 대조를 이루는 것은 북한 병사들이 대부분 규율잡혀 있었고 잔인한 공격을 자제했다는 사실이다. 1949년 중국혁명 승리 후 많은 투사들이 조선의 고향으로 돌아왔고, 조선인민군의 중핵을 구성했다. 일본에 맞서 중국 공산군과 나란히 투쟁한 수년 간의 경험으로 단련된 수만명의 조선인 베테랑들은 1949년과 1950년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그들의 전설적 기술과 규율을 함께 가져왔다. 커밍스는 조선인민군 장교의 80퍼센트 이상이 중국에서 활동했고 100,000명 이상의 병사들이 전투경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했다.⁹⁸⁾ 중국 인민해방군의 타격부대인 제4방면군은 결코 전투에서 패한 적이 없었고, 이 부대에만 약 145,000명의 조선인이 있었다고 한다. 중국 내륙에서 일본과 싸웠던 병사들은 거의 마우도 미국측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반면, 일본군에 근무했던 거의 모든 장교들은 미국측에 넘어갔다. 명백하게 이 협력자들은 자신의 전문성에 대해 괜찮은 대우를 받는 한 어느 제국이 주인에 봉사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1960-61년 UN주재 한국대사였던 임창영(Channing Liem)은 미국 정책입안자들이 북한을 정복하겠다는 이승만의 악질적 계획을 부추겼다고 폭로했다. 임창영에 따르면 전 미국무장관 존 델레스는 전쟁이 일어나기 겨우 1주일전인 6월 18일 이승만을 만나서 “만약 이승만이 공산주의 북한을 공격할 준비가 돼있다면 미국은 UN을 통해 도움을 줄 것”이지만, “대한민국이 먼저 공격당했다고 세계를 설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딘 애치슨 국무장관은 “증거에 관계없이 재빨리 전쟁을 북한측의 탓이라고 비난”했다.⁹⁹⁾ 독립적 언론인인 I.F. 스톤은 전쟁 초기에 미국의 UN과 언론 조작에 대한 무게있는 기소장을 썼다.¹⁰⁰⁾ 브루스 커밍스는 기념비적 저작인 <한국전쟁의 기원>을 마치면서 누가 전쟁을 시작했는지 결정하기 불가능함을 알게 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몇 년 후 커밍스는 수십년간 미국 최고의 한국전문가로서 한국전쟁은 내전이라고 결론적으로 “증명”했다. “한국인들은 이 전쟁을 뺏속깊이 동족상잔의 갈등

96) Northern estimates of the number of Southerners killed before June 25, 1950, ranged up to one million. The most brutal of the massacres perpetrated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was on the island of Jeju, where upward of thirty thousand people were killed (though some estimates place the number closer to seventy thousand).

97) Holger Heide, Die Erzeugung individueller und kollektiver Überlebensstrategien als Voraussetzung für die kapitalistische Entwicklung. Das Beispiel Südkorea (SEARI Institut für sozialökonomische Handlungsforschung, Universität Bremen: 1997), 3.

98) Cumings, Origins, 2: 362-3.

99) Channing Liem, The Korean War: An Unanswered Question (Albany, NY: Committee for a New Korea Policy, 1993).

100) I.F. Stone, The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 1950-1951 (1952; repr., Boston: Little, Brown, 1988).

으로 알고 있다.”¹⁰¹⁾ 명백히 커밍스는 한국인들의 적은 샘플에 대해 말하고 있다. 1980년 커밍스는 전쟁을 촉발하는 데 오로지 북한만이 책임있다는 전통적 견해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오늘날 커밍스가 전쟁이 성격상 “내전이자 혁명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수많은 시민을 살해하고 도시들을 폭격한 유일한 외부열강인 미국을 주요한 책임당사자로 지명하길 거부하는 것을 보면 그가 그렇게 많은 죽음의 원인으로 미국을 제국적 야망에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 전쟁을 촉발하는 게 가장 긴밀하게 개입한 사람 중의 하나인 딘 애치슨을 “전후 가장 훌륭한 국무장관”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커밍스의 충성은 자명하다.¹⁰²⁾ 애치슨은 “1947년 초 중요한 이행기에서 1950년 미국의 결정적 개입까지 대한국 정책의 설계자”였다. 그가 야기한 고통과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묻기보다, 커밍스는 애치슨을 칭찬하며 심지어 그의 책 2권의 부제(“대홍수의 아우성”: *The Roaring of the Cataract*)를 “미국이 대영제국의 쇠퇴 중에서 세계의 지도력을 추구했던” 1950년 애치슨이 자신의 심경을 묘사한 대목에게 따랐다.¹⁰³⁾ 동일한 기조에서 커밍스는 문서들이 “후대를 위해 거의 기록된 적이 없는 거의 모든 종류의 논의”보다 덜 중요하다는 딘 러스크의 우호적인 충고에 귀를 기울였다.¹⁰⁴⁾ 아마도 그 덕분에 왜 커밍스는 그리스 내전을 흔히 그리스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영국과 미국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소련이 사주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알 수 있다. 사실 스탈린과 공산주의자들은 처칠과의 협정에 충실한 채로 토착 독립투사들을 팔아먹었다.¹⁰⁵⁾

민족해방전쟁으로서의 전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커밍스는 수백만 조선인들의 관점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1945년 그들은 거의 모두 조선의 민족독립과 통합성에 대한 열망을 가슴 깊이 간직했었다. 조선의 독립과 자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은 수백만명이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희생할 각오를 갖고 원했던 것이다. 1950년 미국은 그런 열망을 부정했고, 오늘날 미국측의 설명은 이 열망을 거의 부각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커밍스가 말하는 것처럼, 북조선이 남한을 “점령”했고 미국은 이승만정부를 지원했으며,¹⁰⁶⁾ 미국은 “1950년 여름 한국을 망각으로부터 구출했다.”¹⁰⁷⁾

전쟁의 원인보다 결과를 고려한 커밍스는 복합적 판결을 고려한다. “트루먼식 냉전 자유주의자들에게 한국은 ‘제한전’으로서 성공이었다. 맥아더 같은 보수주의자들에게 한국은 실패였고, 미국역사상 최초의 패배였다.... 따라서 우리에게 다른 판결, 즉 불일치 판결이 필요하다. 첫 번째 전쟁, 1950년 남부의 전쟁은 성공이었다. 두 번째 전쟁, 북부의 전쟁은 실패였다.”¹⁰⁸⁾ 미국측 견해에 기초하여 전쟁을 평가한 커밍스는 계속 한국인의 관점을 무시한다. 냉전으로 미소가 서로 싸우는 동안 한국인들은 보이지 않았다. 내 견해로 5백만 조선인의 살해와 그들 조국의 파괴는 미국이 주로 책임있는 불필요한 비극이었다.

조선에 대한 야만적 탄압의 핵심은 1949년 중국혁명의 승리와 아시아에서 반식민주의 혁명의 확산(“도미노 효과”)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이다. 미국의 냉전전략은 중국을 포위하고 중국혁명을 제어하기 위해 수백만 조선인 생명의 희생, 그리고 이후에 수백만 인도차이나인의 희생을 강제했다. 조선에서 미국의 학살적 역할에 대한 이후의 미혹은 세계사적인 미제국의 야만행위를 은폐한다. 전세계적으로 무자비한 독재자 및 식민권력과 동맹을 맺은 미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3세계 혁명의 전진을 저지하는 열전(hot wars)을 전개

101) Cumings, *North Korea*, 6.

102) Cumings, *Origins*, 2:42.

103) *Ibid.*, xviii.

104) *Ibid.*, 12 and xviii.

105) *Ibid.*, 39.

106) *Ibid.*, 667.

107)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299.

108) Cumings, *North Korea*, 4.

했다. 미국은 이란 총리 모하마드 모사데크(1953년), 과테말라 대통령 야코보 아르벤스(1954년), 브라질 대통령 주앙 굴라르트(1964년), 칠레 대통령 살바도르 아옌데(1973년) 등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을 타도했고, 이들은 모두 미제국의 야망에 희생됐다. 이것은 미국식 “해방”의 수백만명 희생자들 중에서 단지 가장 가시적인 희생자 목록의 일부일 뿐이다.

사실은 맥락 속에 존재함, 위에 맥락 내에서 한국전쟁 시작에 관한 논쟁은 핵심에서 빛나간 것이다. 전쟁은 미국이 풀뿌리 인민위원회에 대항해 개입한 날, 미국이 일본군 기지들을 점령하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면 어떤 식민권력과도 협력하려고 하는 모든 착취자들과 친일 협력자들을 복권시켜 옹호하는 순간 “시작됐다.”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하려는 노골적인 의지와 함께 미국의 전략적 목적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일본에 대한 승리로 미국기업의 이해가 강력한 민중운동과 정면충돌하자 1945년 상황은 변했고, 학살적 해결을 필연화했다. 제국의 중심지에서 루스벨트와 스탈린에 대한 좌파측의 환상은 그리스든 조선이든 미국이 전제적 지배의 회복을 준비할 시간과 공간을 줌으로써 폭정 프로젝트를 용이하게 했다.

전쟁의 기원에 대한 집착하는 것은 전쟁을 제대로 평가하기에 불충분한 수단이다. 김동춘의 그의 주목할 만한 저작에서 지적하듯이,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통적 학파와 수정주의 학파 모두가 여전히 간혀있는 전쟁의 시작에 대한 집착을 깨트려야 할 때가 됐다.”¹⁰⁹⁾ 그의 견해로는 전쟁이 “종식” 이후 반세기 이상 동안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영향을 끝내는 방식을 찾기 위해 전쟁의 성격을 평가하는 거싱 더 중요하다. 비록 미국은 그 이후로 오랫동안 베트남이나 북한의 동맹인 중국과 평화를 유지했지만, 평양과 이 전쟁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계속되는 전쟁의 뿌리를 밝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전쟁의 성격과 관련된 것이다. 전쟁은 내전인가 아니면 제국주의 개입에 맞선 민족해방전쟁인가?

만약 내전이라면, 리나 그랜트, 스톤웰 잭슨과 윌리엄 테쿰시 셔먼에 해당되는 인물은 누구인가? 우리가 남한이나 미국의 역사, 영화, 공공기념물에서 답을 찾더라도 우리는 불가피하게 한국이 아니라 미국 장군들과 마주치게 된다. 맥아더, 리지웨이, 월튼 해리스 워커(그의 이름을 딴 셰라톤 호텔과 카지노가 서울에 아직 있다) 등. 한국의 “내전”에서 미국 장군들이 두각을 드러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승만은 1950년 대전협정을 통해 미국에게 한국군에 대한 완전한 작전통제권을 넘겨줬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 합동작전 참모본부도 유지되고 있다.) 이승만이 1950년 대전협정에 서명해서 모든 남한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에게 넘겨준 마당에 어떤 종류의 독립인가?

이승만이 전쟁에 도움을 주도록 맥아더를 한국에 데려온 것이 아니다. 맥아더는 개인용 미군용기에 태워 이승만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데려왔다. “북한의 기습공격” 이후 3개월도 안 되 맥아더는 D데이의 노르망디 침략군보다 더 많은 함대를 모아서 9월 15일 인천에 상륙했고, 북한 군대가 여전히 남한에서 토지개혁을 시행하느라 바쁜 와중에 서울을 손쉽게 재탈환했다. 그런 다음 맥아더는 이승만을 두 번째로 서울로 데려와 그에게 통치권을 줬고 이승만은 기뻐 눈물을 흘렸다. 1950년 맥아더는 북한에게서 서울을 빼앗은 다음 이승만을 다시 한번 서울의 지도자로 앉혔다.

저명한 미국학자들은 한국전쟁을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비유하는데, 남북한을 이해하기 위해 자치 도시국가인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비유를 이용한 것이다. 만약 고대 그리스

109) Dong-Choon Kim, *Der Korea-Krieg und die Gesellschaft* (Munster: Wesphalisches Dampfboot, 2000), 30. My translation from the German. The book's English version is *The Unending Korean War: A Social History* (Larkspur, CA: Tamal Vista Publications, 2009).

역사의 전례를 찾으면, 크기에 대한 고려만으로도 미국을 페르시아에 비교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것 같다. 지금처럼 그 당시에 제국적 외세의 이해로 일부 토착투사들이 침략자 편으로 넘어갔다. 크세르크세스의 침략 동안 일부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 편에서 싸웠다(한 세대 후에 알렉산더가 아시아에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만약 “내전” 성격규정의 논리를 따르면, 만약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했다면 현존 역사는 테르모필레이를 장악한 군사주의적 스타르타인들에게 맞서 꺾기한 평화애호적 그리스인들을 페르시아가 지원한 것으로 성격규정 할 것이다. 아니면 만약 영국인인 1789년(미국 헌법이 승인된 해) 이후 미국의 절반을 통제했다고 가정해 보자. 오늘날 역사가들은 “최초의 미국내전”이 1776년 7월 4일 시작됐다고 언급하겠는가?

조선을 휩쓴 재앙을 내전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민족독립전쟁으로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반세기 이상 동안 미국이 왜 북한에 대한 경제적 금수조치를 지속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답할 수 있다. 만약 전쟁이 정말로 내전이였다면 미국은 이미 오래 전에 개입을 중단했어야 했다. 그렇다면 수십년간 미국의 북한 포위와 고립, 반세기 이상 동안 한국에 남아 있는 수만명의 미군부대,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계속적 작전통제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1953년 정전 이후 몇 년 동안 EC121 첩보기를 포함한 최소한 10대의 미군기가 북한측에 격추당했다. 북한에 따르면 수십년간 매일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미군 폭격기가 38도선에 접근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선회했고, 미국의 핵공격 가능성을 매일의 현실로 만들었다. 1968년 미군함 푸에블로호의 예포 이후 미국 협상가들은 북한 영해의 침범에 대해 사과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했지만, 북한은 그 이후 미해군의 영해침범 사례를 수백건이나 보고했다. 1990년대와 1990년대 북한은 해마다 7,900건 이상의 도발행위를 집계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매일 고도 감시비행을 인정했다.

미국의 민간인 학살

미국에서 워싱턴 D.C.의 한국전쟁기념관이나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와 M*A*S*H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한국전쟁을 기억할 때, 전쟁은 군인 대 군인의 군사분쟁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북조선 인민들에게 전쟁은 모든 도시와 거의 모든 소도시들이 폭탄과 대포로 완전히 파괴된 것을 의미했다.

나는 생존자인 최기옥에게서 직접 들었다. 평양에서 미국의 네이팜탄 공중폭격으로 자기 근처에 있던 수십명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된 이후 시체들을 수습했던 공포의 경험이었다. 끔찍한 파괴로 전쟁의 포격이 멈추자 평양 전체에서 아직 제대로 서 있는 건물이 겨우 두 블록 밖에 되지 않았다. 북한의 거의 모든 주요 주거지는 폭탄과 포격으로 완전히 파괴했고, 그곳에서 살던 4명 중 거의 1명이 죽었다. 미국은 60만톤의 무기를 사용했고 2차 세계대전 전기간 동안 사용했던 것의 5배나 되는 네이팜탄을 한국에서 사용했다.¹¹⁰⁾ 미군은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를 배치했고 댐과 제방을 폭격했는데 이는 미국이 뉘렘베르크에서 나치들을 재판하면서 “전쟁범죄”로 간주했던 행위였다. 미국 군대가 38도선을 넘어 침략하자 민간인 학살은 흔한 일이 됐다. 수력발전소에 대한 폭격은 너무나 철저해서 농업용수의 75퍼센트를 공급하는 댐을 파괴하고 수천명의 민간인을 죽인 이외에도 심지어 평양에서 홍수가 나기도 했다. 전투함 미주리호는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자 서울에 포격을 가했고, 민간인들을 알아볼 수 없는 피범벅의 시신 조각들로 만들었다. 1950년 11월 30일 트루먼 대통령의 기자회견부터 미국은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110) New York Times, August 18, 1952.

반공주의 십자군의 제단에 약 5백만명의 목숨이 희생됐다.¹¹¹⁾

<조선의 학살>. 다른 많은 화가들처럼 파블로 피카소는 한국전쟁 동안 민간인 학살에 반대했다.

전쟁의 인종학살적 성격을 말해주는 모든 전술 중에서, 그 어떤 것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생물학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앞에서 이미 일본의 생물학전 731부대에 대한 미국의 보호에 대해 논했다. 포로에 대한 범죄적 실험으로 개발한 이시이 | 대령과 그의 팀이 가진 지식은 그들의 특정한 세균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전쟁에서 수백차례 미국이 사용했고, 특히 1953년 1월에서 6월까지, 다른 말로 미국이 군사적 승리를 거둘 수 없다고 깨달았던 전쟁 말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했다. 평양의 전쟁박물관은 감염된 곤충의 유리병과 그것을 투하할 때 사용한 미국제 라벨이 붙어있는 폭탄들을 전시하고 있다. 일찍이 1951년부터 주거지역에 천연두 분말이 살포됐고 1952년에는 최소한 10종의 세균과 페스트균이 20종의 폭탄으로, 특히 중국으로 가는 도로와 철도를 따라 살포됐다. 1953년 4월 7일 교환된 북한 포로들은 페스트균에 감염됐던 것으로 밝혀졌다.¹¹²⁾

미국은 1947년부터 생물학전 무기를 개발했고, 그 당시 메릴랜드주 디트릭 기지가 미군 세균전의 중심지였다. 1951-1953 회계연도에 미국은 생물학전 연구에 3억 4,500만 달러를 사용했고, 이는 한국전쟁 동안 미국이 배치한 무기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었다.¹¹³⁾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금지무기의 범죄적 사용을 몰염치하게 옹호했다. 한국에서 공식적인 전쟁발발 1주일도 안되어, 미국 공군은 일본 요코하마의 406부대가 달마다 2만 마리의 실험용 쥐가 필요했다고 인정했고, 페스트, 콜레라, 탄저균, 장티푸스, 이질균 등의 샘플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비록 미국언론이 보도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생물학전은 전세계 많은 곳에 알려졌다. 1952년 3월 31일 국제민주변호사협회는 생물학전을 포함해 미국이 한국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를 비난하는 보고서를 발행했고, 1953년 국제과학위원회는 생물학전이 진행됐다고 확인했다.¹¹⁴⁾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의 생물학전 은폐는 미군 포로에 대한 북한의 세뇌공작 조작과 결부됐고, 이 주장은 헐리우드 영화 <만주족 후보>(The Manchurian Candidate)의 각색에서 여전히 살

111) Chung Dae-hwa, "Reevaluation of the Korean War: Its Genesis, Process and Conclusion," Social Science Journal (Busan National University) 13, no. 21 (December 1995): 55 (in Korean) counts North Korean losses of 3 million people (out of a population of 10 million; South Korean losses were put at 2 million out of a population of 20 million; Chinese losses at 1 million; U.S. losses at fifty-four thousand). Among Chinese killed was Mao Zedong's son. Other estimates are 3 million out of a population of 30 million, including 1 million innocent in South Korea. The PBS video, Pacific Century: The Fight for Democracy, uses the number of 4 million. The very fact that numbers are off by a million or more is an indication of how bloody the war was—and how indiscriminately Koreans lives were sacrificed. David Halberstam gives much lower numbers: 33,000 U.S. soldiers, 415,000 South Korean, 1.5 million North Korean and Chinese troops. See his *The Coldest Winter: America and the Cold War* (New York: Hyperion, 2007). Dong-Choon Kim estimates 1.3 million South Korean soldiers and civilians killed, 2.5 million North Korean, an additional 650,000 refugees from the North who were killed in the South, and of course Chinese and American troops (*The Unending Korean War*, 216).

112) This and other atrocities are well documented in Alan Winnington and Wilfred Burchett's *Plain Perfidy: The Plot to Wreck Korean Peace* (Peking: published by the authors, 1954). Leading up to, during and after the armistice negotiations, the U.S. side repeatedly violated its previous agreements. This book constitutes one of the most eloquent expositions of U.S. crimes—ranging from medical experimentation on prisoners to biological warfare. A more recent expose of U.S. germ warfare is Endicott and Hagerman's *The United States and Biological Warfare*. Wilfred G. Burchett, *Again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68) is an indispensable source on the DPRK's early history.

113) Endicott and Hagerman, *The United States and Biological Warfare*, 48.

114)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on Biological Warfare in Korea and China, Report, 1952.

아있다. 1958년까지도 미국 당국은 생물학 무기의 사용을 은폐하려고 애썼고 그 결과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세명의 기자들을 미국 세균전을 보도한 선동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비록 미국정부는 오늘날까지도 북한에 대한 생물학 무기사용을 부정하고 있지만, 산과 같은 증거가 미국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래서 노벨상 수상 과학자 조지 월드는 1979년 미국이 정말로 생물학전 무기를 사용했다고 결론지었다. 보다 최근에 미국의 세균전을 기록한 더 많은 자료들이 등장했다.

확실히 한국전쟁에서 양측은 잔인하게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싸웠다. 남한 정부가 좌익이 129,000명의 경찰, 준군사조직과 그 가족들, 친일 협력자들과 친미적 시민들을 죽였다고 추정했다.¹¹⁵⁾ 그러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숫자는 그 어디에서 비슷한 것조차 없다. 북한 정부는 신천 주변에서만도 미군 점령 40일 동안 172,000명이 죽었다고 추정한다. 1999년 풀리처상 수상기자인 찰스 헨리와 마사 멘도자는 1950년 후퇴하는 미군이 자행한 400명 피난민의 노근리 학살을 폭로했다. 이야기가 일단 알려지지, 조사관들은 6월 25일 직후 비슷한 다른 학살 수습건을 폭로했다. 반세기 동안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일련의 군사독재는 1945년에서 1953년까지 대량살상에 대한 논의를 억압했다. 미국 문서고에서 서류들은 사라졌다. 마침내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자 느리지만 재평가가 시작됐다.

2008년 남한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1950년에서 1953년까지 대량살상 1,222건을 밝혀냈고, 최소한 125건에 미군이나 비행기가 가담해 비무장 시민들을 학살했다. 한국 중부의 청원에서 7천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살해됐다.¹¹⁶⁾ 전쟁 첫주에 북한군이 신속하게 남쪽으로 이동하자 이승만 정권이 감금한 수천명의 죄수들이 처형당했다. 전쟁 첫주 동안 수만명의 보도연맹 등록회원들이 냉혹하게 살해됐다.¹¹⁷⁾ 대전에서 대부분 여순과 제주 봉기의 탄압시 체포됐던 약 1,800명의 죄수들이 3일간 지속된 학살로 처형됐다. 체포된 “적”으로 가득한 트럭들이 대전 외곽의 양월로 실려갔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최소한 미군장교를 태운 최소한 두 대의 지프가 처형을 지켜봤다.¹¹⁸⁾ 2008년에야 대전학살 소식이 <뉴욕타임스>에 실렸고, 사건이 일어난지 반세기 이상이 지난 후였다. 2002년 나는 대전을 방문해서 처형당한 죄수의 살아남은 손자가 보여준 매우 익숙한 사진을 봤다. 나는 사진에서 한가지 주요한 차이를 발견했는데, 오래되서 주글주글한 그의 사진에서 한 미국장교가 죄수들이 막 처형되려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미국 언론에 실린 유명한 사진의 모든 버전에서 그 미국인은 프레임에서 잘려나가 있었다.

[사진] 대부분 여순과 제주봉기에서 체포된 반란군이었던 수백명의 죄수들이 1950년 한국전쟁 시작과 함께 처형됐다. 여기에서 살해된 사람의 자식이 나중에 필자에게 이 사진의 사본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에는 미군 장교들이 배경에 있었다(공개된 버전의 사진에는 잘려나간 부분). 사진작가 미상

115) Gang Jeong-gu, “Overview of Genocides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174.

116) Choe Sang-hun, “Unearthing War’s Horror Years Later in South Korea,” New York Times, December 3, 2007, A9.

117) Gang Jeong-gu, “Overview of Genocides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in Forum: Civilian Massacre, Program of the 24th May Commemorative Event (Gwangju: May 18th Memorial Foundation, 2004), 170. In the same volume, Seo Jung Seok uses the higher number of three hundred thousand in his article, “Kookminbodoyeonmang, Massacre of the member of National Guidance Alliance and its responsibility,” 186. Cumings repeats the U.S. embassy’s estimate of seventy thousand people, but the numbers used in South Korea are much higher (Korea’s Place in the Sun, 223).

118) Alan Winnington, “United States Belsen in Korea,” Daily Worker, London, August 9, 1950 (Cumings, Origins, 2:699). In 1999, at the same time as I was shown a photo of a U.S. officer standing behind the Korean executioners of young prisoners, bound and kneeling about to be killed, (the officer was removed from photos released) . . . I was given a photocopy of Winnington’s article.

확실히 남한 미국 동맹자들은 자신들의 익명적 역할을 계속 주장했다. 2008년 보수적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자 즉각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해산하기 시작했고 제주 학살에 대한 공식조사를 종결했다. 이명박 행정부 아래서 역사의 정확한 기록에서 발전은 역전되고 있다. 하지만 판도라 상자처럼 일단 과거 학살의 진실이 일단 알려지자 마치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전쟁 직후에 상호비난 때문에 한국인들은 심하게 분열됐고 심지어 북조선에서 과거의 동지들 사이에서도 그랬다. 남한을 해방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난받았던 북조선 부상 박헌영은 미국 관리들을 만났다고 처형당했고, 정전협정에서 북한이 포기한 남부의 게릴라들은 이후에 존재하지 않는 집단이 됐다. 베트남처럼, 응빈론이 어떻게 하노이의 공식역사가 미국에 대한 승리의 기록에서 남부 게릴라들을 주변화했는지 기록한 것처럼, 북한의 설명도 이승만 정권에게 처형당한 이현상과 남부군의 남한 애국자들을 일상적으로 무시한다.

비록 미국이 21세기까지 남한에서 민간인 학살을 은폐했음에도, 펜타곤은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또는 완전하게 보고하기를 여전히 거부한다. 수십년 동안 정부는 미국대사 존 무치오가 결코 피난민에 대한 공격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99년 노근리 사건이 폭로되자, 미국은 그런 학살에 대한 공식적 승인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후에 학자들은 무치오가 국무부장관 딘 러스크에게 접근하는 피난민을 사살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됐다고 알리는 편지를 발견했다.¹¹⁹⁾ 뉘렘베르크에서 내린 판결에 따라 이 행위는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펜타곤은 이 편지를 조사관에게 넘긴 자료에서 배재했다. 유사하게 미공군이 피난민에게 고의로 기총소사를 하거나 폭격하는 정책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2002년 BBC 다큐멘터리 <다 죽여>(Kill 'Em All)는 조종사들에게 “모든 피난민에게 사격을 가하라”고 명령하는 문서를 폭로했다.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한국인의 생명을 너무나 무가치하게 여겨서 생물학전 무기의 사용(커밍스의 방대한 저작에서 빠뜨린 부분)과 함께 원자탄까지 사용할 뻔했다. 1950년 12월 9일 맥아서는 원자탄 사용의 재량권을 요청했고, 1951년 4월 미국은 원자탄을 투하하려고 했었다.¹²⁰⁾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오랜 역사는 1953년 핵무기 사용에 대한 아이젠하워의 결정까지 지속됐다.¹²¹⁾ 정전 이후 미국은 50년 이상 동안 핵전쟁의 위협, 북한 상공과 해역의 지속적인 침투, 경제봉쇄압박 등을 통해 전쟁을 계속했다. 1957년 “정직한 존” 핵대포가 한국에 도입됐고 수소폭탄이 개발되자 그것도 한국에 배피했다. 1975년 미국방장관 제임스 R. 슬레징어는 공개적으로 미국은 분쟁이 재발하는 경우 남한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주저하지 않고 사용할 것이라고 진술했다.¹²²⁾ 카터 대통령 아래서 7천기 이상의 핵장비가 남한에서 제거됐고, 1990년대 초반 팀스피리트 작전은 중단됐지만, 다른 핵전쟁 연습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은 여전히 북한을 파괴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2003년 3월 미국은 12대의 B-52 폭격기와 같은 수의 B-1 폭격기를 미국령 태평양 괌에 배치했고, 미국의 핵무기를 북한 사정거리 내로 이동시켰다. 확실히 일부에서 수천기라고 하지만, 수백기의 미국 핵무기는 오늘날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

119) 119 Charles J. Hanley and Martha Mendoza, “Letter on Korean War Massacre Reveals Plan to Shoot Refugees,” Washington Post, May 30, 2006, A4.

120) Cumings, Origins, 2:750. See 747-2 for excellent documentation and U.S. consideration of use of nuclear weapons. Curiously, he omits any substantive discussion of biological weapons.

121) On May 19, 1953, Eisenhower’s decision to use nuclear weapons was supported by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General Omar Bradley. Fortunately, he did not implement that decision.

122) Lee Chae-Jin, A Troubled Peace, 76.

비록 1953년의 정전협정은 경제제재를 금지하고 있지만, 심지어 국제법도 미국이 북한의 교역, 금융거래 및 모든 영역을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1950년 적성국 교역법고 수출관리법에서 시작해서 1975년 해외지원법, 1988년 수출은행법(북한에 대한 차관을 금지)까지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체제를 파괴하려고 노력했다. 미국은 모두 10만개 이상의 물품이 북한으로 수출되는 것을 금지해 왔다. 항공기, 트럭, 컴퓨터, 반도체는 모두 화장품, 얼굴파우더, 자전거처럼 금수품목에 포함돼 있다. 비록 클린턴 행정부가 제재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부시와 오바마는 제재조치를 완강하게 강화했다. 오늘날 금융, 무역, 고정투자, 교통, 우편 등 경제의 모든 분야가 미국의 제재대상이다. 미국의 경제전쟁의 직접적인 누적효과는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접적으로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위협과 그에 따른 북한의 필요한 국방지출로 미국은 작은 나라가 경제위기에 빠지도록 괴롭혔고, 그런 다음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국제적 대중매체를 동원했다. 북한의 지도부가 경제운영에서 실수를 했든 말았든, 반세기 이상 미국의 경제전쟁의 누적효과는 파괴적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한국개입사를 고려하면 미국 언론이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행위 어떤 것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대신에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미사일에 대해 아우성치는 일은 전혀 놀랍지 않다. 요시다 총리가 “신의 선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전쟁이 일본 성장의 도구가 된 것처럼, 오늘날 동북아시아의 지속적 긴장과 북한 위협의 과장은 미국의 미사일 대항시스템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군수산업을 진작시킨다.

내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남한에서 부딪힌 것보다 더 심한 진실의 왜곡은 결코 본 적이 없다. 주요 신문들은 사실상 근거없는 북한에 관한 기사를 일상적으로 보도한다. 자주 일본 언론이 왜곡보도와 소문의 출처이다. 2003년 와세다 대학의 토시미츠 시게무라 교수는 북한 지도자 김정일이 죽었고 공개석상에서 대역으로 대체됐다고 주장했다.¹²³⁾ 2008년 일본언론은 김정일이 임종을 맞이했다고 주장했다. 비록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거의 없음에도, 서구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미국언론의 흔한 왜곡은 1998년 일본에 대한 미사일 발사 보도였다. 이 소식은 널리 보도되어 부시가 유명한 “악의 축” 연설을 할 때 도움이 됐다. 사실 북한이 계속 주장하고 나중에 조용히 CIA가 확인 한 것처럼, 위성발사 시도가 있었지, 미사일 발사는 없었다. 높은 고도의 풍향이나 지리에 대한 가장 초보적 지식만 이어도 북한에서 위성을 추진시킬 로켓은 반드시 일본을 통과해야 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심지어 진보적인 미국의 한국전문가들도 북한에 대한 인신공격에서 자유롭지 않다. 비록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국무부 자유주의파의 노력에 동조적이지만, 브루스 커밍스는 2006년 평양의 “정책이 반세기 동안, 심지어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도움이 될 때에도 거짓에 거짓, 과장에 과장을 덧붙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산주의 정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배운 것이다”고 썼다.¹²⁴⁾ 북한은 미국을 처음으로 패배시킨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지만, 그들은 여전히 민족분단 체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에 대한 베트남의 철저한 승리와 이후의 통일은 아주 다른 현실을 낳았다. 1990년 일단 소련이 사라지자 세계의 많은 분쟁들이 해결됐지만, 한국은 반공주의적 완고함의 알파이자 오메가로 남아있다.

미제국의 지도자들은 한국의 비극에 대한 책임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전쟁 10년 후 동남아시아를 파괴하려 이동했다. 역설적으로 미구전쟁 때문에 남한의 경제기적이 도약하자, 정의와 독립을 위한 운동을 재건한 새로운 저항세력이 창출됐다.

123) 123 Choe Sang-hun, “Speculation on North Korean Leader Thrives in Factual Vacuum,” New York Times, September 20, 2008.

124) Cumings, North Korea, 76.

[번역] 조지 카치아피카스,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1권

조지 카치아피카스, George Katsiaficas,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Asia's Unknown Uprisings,
1권: 20세기 남한의 사회운동 Volume1: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in the 20th Century

5장 민중의 각성, 학생들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타도하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총알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피가 거리를 뒤덮었다
버려진 외로운 책가방은
무거웠다
나는 알지, 그래, 우리 모두 알지
엄마 아빠가 말하지 않아도
왜 우리 형과 누나들이 피흘리는지
- 1960년 4월 한 초등학생

정치권력의 악의 영향은 민주주의의 최소 요구를 이루는 민중의 정당한 선거권을 삼켜버렸다. 무지한 전제의 무뢰한 매도는 언론, 집회, 결사, 사사의 자유에 대한 모든 남아있던 희망을 짓밟았다. 넘치는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는 이제 자유의 횃불을 밝힌다. 보라! 우리는 암흑시대의 침묵을 깨뜨릴 자유의 종을 자랑스럽게 난타할 것이다.
- 1960년 4월 19일 전국학생선언

일지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부정선거에서 90퍼센트 득표 주장, 경찰이 마산 시위대 살해
1960년 4월 11일	마산시위로 숨진 김주열 학생의 시체를 어부가 발견
1960년 4월 11일	40,000명 이상의 마산시민 시위
1960년 4월 18일	6천명의 고려대학생 마산살해에 이승만이 책임질 것 주장
1960년 4월 19일	서울에서 학생주도 시위, 경찰총격으로 86명 사망, 부산에서 건물 방화
1960년 4월 25일	교수시위 10만명 시위대를 이끌고 국회로 행진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사임
1960년 6월 29일	국회선거, 장면이 총리로 제2 공화국 수립
1961년 5월 12일	통일을 승인할 남북학생회담 계획
1961년 5월 16일	군부쿠데타로 장면정부 타도
1961-1979년	박정희 장군 군사독재
1964-1965년	350만명 한일조약 반대시위 참여
1964년 6월 3일	서울에 계엄령 선포, 한일조약 승인, 베트남에 2만명 파병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피복노동자의 근로조건에 항의하여 분신자살
1971년 8월 10일	부실한 주거조건에 항의하여 광주(경기도) 폭동 발생

1973년 4월 22일	박정희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부활절 연합예배에 10만명 참여
1975년 4월 9일	정부가 조작한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8명 처형
1978년 3월 10일	동일방직 해고 여성노동자 한국노총 집회 방해
1979년 8월 11일	경찰 농성중인 YH 여성노동자 170명 체포, 신경숙 사망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국회제명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 학생들 행진, 군대 투입 400명 체포, 600명 부상
1979년 10월 18일	부산에 계엄령 선포, 마산시위 발생, 10,000명 이상 가두진출
1979년 10월 20일	마산에 계엄령 선포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중앙정보부장에게 암살당함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군부쿠데타
1990년 4월 21일	수백명의 사북탄광 광부들 경찰과 충돌
1980년 5월 14일	“서울의 봄”: 70,000명 대학생 민주주의 요구하며 행진, 900건의 노동자파업
1980년 5월 15일	100,000명 학생 서울에서 행진, 지도부 시위 중지하기로 결정
1980년 5월 16일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햇불행진
1980년 5월 16일	미국 한국군 20사단 광주파견 허가

가지를 치면 어떤 나무들은 시들어 죽는다. 다른 나무들은 다시 자라서 전보다 더 강해진다. 민중들에게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식민화와 미국전쟁의 파괴에 다시 강화된 힘으로 재건함으로써 대응했다. 역사의 교활한 변증법은 한국전쟁을 통한 낡은 사회구조의 절멸로 양반귀족이 사라졌고 한국역사의 새로운 주체이자 대상인 민중의 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음을 의미했다. 아주 부유한 지주와 산업가, 일본 협력자, 엘리트 군부와 경찰을 제외한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민중은 수십년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독재를 타도하고 남한을 평등하고 번영한 사회로 바꿔낸 계급연합적 사회세력의 이름이 됐다.

남북한에서 정부들은 전쟁의 황폐화 이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재건하기 위해 인상적인 인적 자원을 끌어냈고, 특히 5천년 문화가 만들어낸 시민사회를 동원했다. 한국의 회복은 잿더미에서 부를 축적한 모범으로서 많은 제3세계 나라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1953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였던 한국은 30년간 “기적같은” 속도로 성장했다. 비록 오늘날 북한은 뒤쳐져 있지만, 1980년 남북한은 경제적으로 대략 대등했다. 남한은 놀라운 발전을 계속해서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의 하나가 됐고, 세계 13위의 경제와 상당한 하이테크 부문을 가진 OECD 회원국이 됐다. 현대적 기반시설, 효율적인 대중교통, 안전한 사회적 공간 때문에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이 낡은 사회가 됐다. 국민총생산(GNP)은 1950년대에 비해 1백배 이상이며, 1인당 200달러에서 2008년 20,000달러로 증가했다(그해 시작된 금융위기로 약간 떨어졌지만). 한국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한 지표로, 오늘날 남성의 평균신장은 1961년보다 5인치나 커졌다.

비록 지금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북한의 경제성장은 1978년까지 남한을 앞섰을 것이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경제에 대한 민중의 만족도에서 북한이 우월하다고 주장했다.¹⁾ 체 게바라는 1960년대 중반 북한을 방문했고 북한을 쿠바의 모델로 묘사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기자인 윌프레드 버렛과 영국 경제학자 조안 로빈슨은 북한의 진보를 찬양했다. 토지개혁은 철저하고 광범했으며, 수백만 가족이 여전히 자기 토지를 소유한다. 비록 북한은 상당한 정교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많은 요소들이 작동해 궁핍하게 됐다. 1953년 정

1) Published CIA data reported that until 1978, North Korea was ahead of South Korea in GDP per capita.

전 이후 평화협정이 아니라 미국 및 남한과의 수십년간 대치, 물자와 금융에 대한 미국의 체계적인 경제봉쇄, 평양의 주요 무역파트너인 소련의 몰락, 최고 지도자들의 부실한 결정, 가뭄과 홍수로 인한 황폐화 등. 백낙청이 “분단체제”라고 부른 남북한의 두 국가로의 분열은 민족의 활력을 빼앗고 그 영혼을 잠식한다. 남과 북에서 반도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는 “적성” 체제의 존재는 정치적 자유의 제한과 엄청난 희생을 의미했다. 귀중한 자원이 불필요한 군사지출에 허비된다. 평양과 서울에서 망상과 증오, 공포가 지배하면서 국가안보의 필요는 정부의 결정에 독소였다.

냉전 동안 서베를린이나 타이완처럼 남한을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미국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모델로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미국원조는 분배됐다. 한국에서 미국 후원자들은 과거의 친일 협력자들을 미국의 제국적 질서 내에 높은 권력의 지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엘리트 지배를 유지했다. 결과는 빈약한 보상을 대가로 뼈빠지는 수십년 간의 노동을 수백만명에게 엄격하게 강제하는 가혹한 규제체제였다. 미국과 일본의 지원으로 남한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고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9퍼센트 이상 증가했다.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은 세계기록적 산업재해율, 주6일, 심지어 7일 노동, 정치적 결정을 소수의 생각으로 한정하는 중앙집중적 의사결정기구 등을 통한 경제진보의 대가를 지불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번성했고 미국의 지지자들에게 냉전의 “최전선”에 막대한 금액의 돈과 상당한 활동공간을 제공하도록 설득할 수 있었다. 1953년 외국원조는 GNP의 14퍼센트 이상이었다(1957년에는 22.9퍼센트에 이르렀다). 이승만의 대통령 임기 동안 외국원조는 전체 정부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²⁾ 1953년과 1963년 사이에 남한은 앨리스 엠스던이 “독특한” 양의 해외원조라는 불렀던 것의 수혜자였다. 왜냐면 미국은 남한 총투자의 3/4을 유지했기 때문이다.³⁾ 1950년대 말까지 모든 경제적 투입의 5/6이 미국의 직접 차관이였다. 미국의존의 결과 1961년 모든 소비재의 절반이 미국원조로 제공됐다.⁴⁾ 비록 미국인 남한에 연간 1인당 약 100달러를 제공했음에도, 부패는 만연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매일 먹을 것을 뒤졌다. 극도의 빈곤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고 더러운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군기지는 밤마다 미군에게 봉사할 젊은 한국여성들을 몇 트럭씩 날랐다.

이승만이 지지기반을 미국에 의지하는 동안, 미국의 증여물과 군사력 뒤에 남한군대가 있었고, 60만명을 거느린 군대는 남한의 가장 강력한 기관이었다. 이승만은 군사주권을 미국에서 양도했고, 이는 이승만의 권력연장 음모를 부추겼다. 그가 미국인 후견자들에게 행동을 요청할 때마다 긍정적 대답을 받았다. 이승만은 점점 더 철권통치를 하게 됐고, 그의 살인적 권력집착으로 수천명의 애국시민들이 박해의 희생자가 됐다. 평화통일 정강으로 출마한 윤건파 후보 조봉암은 1956년 선거에서 진보당 후보로서 2백만표를 받았다. 이후에 북한의 간첩으로 기소당한 조봉암은 1958년 체포되어 1959년 처형당했다.

이승만과 그의 보좌관 집단은 수입대체정책에 맞춰 국내시장을 위해 생산할 산업을 지도했다. 일본 재벌 모델을 이용하여 그들은 경제의 중핵에 가족 소유 재벌(현대, 대우, 삼성 같은)을 조직했고, 이는 남한의 산업금융 조직에서 중심적인 유산이다. 1948년과 1960년 사이에 경제발전이 더 많은 오프라인 노동자들을 요구하자 한국의 대학숫자는 두배로 늘어났고

2) History of Korean Finance for Forty Years (Seoul: KDI, 1991), 157.

3) Alice H. Amsden,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r Industr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43; Lars Lindstrom, *Accumulation, Regulation, and Political Struggles: Manufacturing Workers in South Korea* (Stockholm: Stockholm Studies in Politics, 1993), 37.

4)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Lost Victory*, 13.

(31개에서 62개로), 대학생 숫자도 거의 세배로 늘어났고(24,000명에서 97,819명), 학생들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됐다. 한국의 GNP가 영국의 1/10 이하였음에도, 1인당 학생숫자는 더 많았고 서울은 “세계 최대의 교육중심지 중의 하나”였다.⁵⁾ 한국의 중등학교들도 비슷하게 급속한 성장을 경험했다. 1959년 8월 자율적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결성됐고 정부와 유대를 가진 황색노조 한국노총(FKTU)에 명확히 반대했다. 새로운 민주노조에 창립 첫해에 160,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가입했다.⁶⁾

전쟁 전에 미국을 쫓아내려는 노력과 전쟁 이후의 민중운동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명백한 반면, 남한의 지속적인 풀뿌리 반란의 규모와 정신은 전혀 감소되지 않았다.

4.19: 학생들의 이승만 타도

보통 한국인들에 대한 이승만의 경멸은 마침내 그의 파멸원인이 됐다. 1960년 이승만은 학생들이 주도한 민중봉기로 권력에서 쫓겨나 전에 수십년간 살았던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1960년 3월 15일 선거에서 이승만과 그의 일당은 뻔뻔하게 가짜표로 투표함을 채우거나 야당요새로 알려진 지역에서 투표함을 탈취했다. 공식적 투표집계가 발표되자 이승만은 자신과 그가 직접 선택한 부통령 후보 이기붕, 악명높은 부패인물의 압도적 승리를 주장했다. 시민들이 투표하기 몇주 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을까 의심했다. 2월 28일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진출해 이승만의 집권연장 음모에 대해 경고했고 120명이 체포됐다. 3월 15일 저녁 선거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마산에서 1만명의 학생대오가 엄청난 행진을 이끌었고 이들은 시청에 집결해 재선거 실시를 요구했다. 경찰은 즉각 공격을 가했고 8명의 학생을 죽였고 123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승만은 시위를 “공산주의자의 음모”라고 불렀다.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기 전에, 미군 사령관 카터 맥구더 장군은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정예 남한 해병대를 파견하는 이승만의 요청을 승인했다. 군대의 투입에도 비슷한 시위가 포항, 대전, 수원, 오산, 전주 등에서 일어났다. 교수, 언론인, 변호사 등의 조직된 단체들이 학생시위를 지지하는 공개 성명서를 발표했다.

4월 11일 한 어부는 마산 근처의 바다에서 16세 학생 김주열의 불은 시체를 발견했다. 남원 출신의 10대로 마산상고 1학년이었던 김주열은 눈에 최루탄을 맞았다. 경찰은 그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고, 이 혐의는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북한에 보내는 쪽지로 “증명”됐다(많은 사람들은 이 쪽지가 조작된 것이라고 믿었다). 살해와 은폐는 엄청난 폭발을 터뜨렸다. 즉각 40,000명의 시위대가 모였고, 저녁에는 140,000명이 그의 시신을 봤다.⁷⁾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길 거부하자, 다시 한번 경찰은 폭력을 휘둘렀고 수많은 시위자들을 죽였다. 여러 지방에서 고등학생들의 산발적 시위는 이승만 정권이 자신의 의지를 강제하기 위해 비이성적 폭력사용을 계속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사진] 1960년 경찰은 학생시위대를 악랄하게 공격했다. 사진작가 미상

거만한 이승만은 무제한적 폭력이 한국인들을 굴복시킬 것이라고 계속 믿었다. 4월 18일 서울에서 강패들이 동대문 근처에서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를 공격했다. 쇠파이프와 쇠파이프를 사용한 반공청년단 단원들은 비무장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경찰은 학생구타를 목격했지만,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는 대통령 경호실장이 폭력배를 동원해서 시위를 막으려고 했기 때문일 것이다.⁸⁾ 이 공격에 대응해 서울시내 7개 대학 학생들은 다음날

5)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170.

6) Kim, Politics of Democratization, 34.

7) Interview with Paik Han-gi, Masan, October 29, 2009.

총원등을 호소했다. 4월 19일 수천명의 학생들이 서울의 거리로 나섰다. 학생들이 청와대로 접근할 무렵, 학생대오는 10만명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⁹⁾ 학생들은 사상처음으로 일반대중 사이에서 시위에 대한 대대적 지지를 받았다. 행진 동안 일부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세움으로써 공산주의를 타도하자!”고 외치기도 했다.¹⁰⁾ 여기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독재 모두에 반대하는 전지구적 신좌파의 경향, 불필요하게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 이데올로기에 별로 신경쓰지 않는 자유의 과감한 직관을 초기적 형태로 발견할 수 있다.¹¹⁾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군중은 이승만을 만날 것을 요구했다. 그들에게 돌아온 답은 청와대 경비들의 발포였고, 첫 번째 사격으로 최소한 20명이 사망했다. 놀랍게도 학생들은 반격했고, 곤봉이나 총의 위협에 굴복하길 거부했다.

학생들은 재결집해서 자발적으로 소규모 행동팀을 결성했고 이들은 이승만의 자유당 중앙당사, 반공청년단 본부건물, 정부신문 편집국 사무실, 5개 경찰서 등을 파괴했다.¹²⁾ 시위대는 이승만의 고관들의 집을 불태우고 시청을 파괴하고 이승만이나 자유당과 연관된 다른 건물 수십채를 공격했다.

[사진] 심지어 초등학교생들도 1960년 4월 19일 봉기에 참여했다. Credit: *4.19 Revolution Photo Book* (Wounded and Deceased Families, 2000).

전국적으로 초중고생 수천명이 동원됐고, 특히 인천, 전주, 목포, 대구에서 그랬다. 4월 19일 광주에서 새로운 선거를 요구하는 고등학생들이 시내 중심가로 밀려나왔다. 조직가들은 시내 모든 학교에 연결책을 보냈고, 최초의 시위가 일어나자 사람들의 숫자는 15,000명으로 늘어났고, 그들 중 500명은 조선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¹³⁾ 경찰과 소방관들은 붉은 염료를 탄 물대포를 쏘지만, 시위를 해산하는 데 실패했다. 비포장 도로에는 반격할 무기가 되는 돌들이 많이 있었다. 밤새 전투가 계속됐고 시위대가 거리를 장악했다. 부산에서 시위대는 많은 관공서에 불을 질렀다. 폭력이 중단되기 전에 “붉은 화요일”의 총격으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¹⁴⁾ 서울에서만 1백명 이상의 살해당했고 1천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결국 계엄령이 선포되고 군대가 동원됐고, 밤 10시 통행금지가 엄격하게 시행됐다. 놀랍게도 군대는 발표하지 않았다. 송요찬 장군은 부대에 발포하지 말 것을 명령했고, 군인들과 학생들은 되풀이해서 “우리는 형제다!”라고 서로에게 외쳤다.

다음 날 대학생들이 대규모로 동원됐다. 연속 7일 동안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4월 24일 온 나라가 선거의 “정직성”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보이자 부통령 당선자 이기붕은 공개적으로 부통령에 취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에 이기붕과 그의 가족은 자살했다. 4월 25일 약 258명의 대학교수들이 서울대학교에 모여 “학생시위는 정의의 표현이다!”라고 선언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교수들은 시내를 가로질러 행진하면서 이승만의 사임, 대

8) Sungjoo Han, *The Failure of Democracy in South Korea* (Berkeley: UC Press, 1974), 29;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175.

9) Gothel, *Geschichte Sudkoreas*, 73, and Park, *Democracy and Social Change*, 65.

10) Lee, *The Making of Minjung*, 106.

11) See my book, *The Imagination of the New Left : A Global Analysis of 1968* (Boston: South End Press, 1987), especially chap. 2.

12) Gothel, *Geschichte Sudkoreas*, 73.

13) Interview with Kim Ye-Hyan, 4.19 Institute, Seoul, December 13, 2001.

14) Sungjoo Han, “Student Activism: A Comparison Between the 1960 Uprising and the 1971 Protest Movement,” in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Democracy, Mobilization, and Stability*, ed. Chong Lim Kim (Santa Barbara: Clio Books, 1980), 145.

법원장 및 국회의장의 사임까지 요구했다. 그들이 국회에 도착할 때쯤엔 10만명 이상의 그들과 함께 했고, 사람들은 15개항 선언을 발표하자 이를 주의깊게 경청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했는데, 그것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교수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폭정에 맞선 투쟁에 들어갔다는 것을 상징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자연발생적 집회는 오랫동안 독재가 통치한 사회에서 유례없는 일이었다. 남한에서 고등교육은 확대됐지만, 전국적으로 대학생은 10만 명 이하였고 고등학생도 25만명이 채 안됐다. 그러나 이 숫자는 정부를 타도함에 있어서 대학과 고등학교의 중심적 역할을 설명하지는 못한다.¹⁵⁾ 도시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유교적인 사회에서 많은 존경을 받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광범한 사회적 폭발에서 뇌관이 됐다.

[사진] 1960년 군대는 이승만을 타도하려는 시민들과 함께 했다.

Credit: *4.19 Revolution Photo Book* (Wounded and Deceased Families, 2000).

민중들은 새로 발견한 행동의 자유와 수많은 목숨의 희생으로 창출한 공간을 최대한 이용했다. 국회에서의 집회 이후에 약 5만명의 시위대가 부통령 이기붕의 집을 공격했다. 사람들은 고급 가구들을 길거리로 꺼내와 사진을 찍은 다음 집을 무너뜨리기 전에 다 불태웠다.¹⁶⁾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승만은 하야해야 하며, 정부 전체가 사퇴해야 한다. 명백하게 반정부 감정의 대대적 분출, 그리고 치명적 경찰폭력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투쟁역량 때문에 미국은 공개적으로 이승만의 하야를 지지하게 됐다. 워싱턴의 한국대사관에 전달된 메모는 미국인 후원자들이 이제 이승만이 하야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승만은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결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또 미국의 지지가 없었다면 권력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4월 26일 금요일 미국대사와 맥그루더 장군은 직접 이승만을 방문해서 하야하도록 설득했다. 그들은 이승만에게 1945년 그를 한국에 데려올 때 제공했던 똑같은 교통편인 미국항공기를 미국으로 갈 때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미국 관리들이 떠난 직후 이승만은 사임을 발표했고 하와이로 향하는 미군용기에 올랐다.

즉각적으로 기쁨의 집회들이 갑자기 모든 곳에서 벌어졌다. 수천명의 체포된 학생들은 석방됐고 경찰은 사람들 눈에서 사라졌다. 이제 학생들이 도시의 거리에서 교통안내를 했고 많은 경찰서를 접수했다. 전국적으로 힘들게 얻은 승리 뒤로 남겨진 쓰레기 더미를 깨끗이 청소하자, 청년들은 대중의 환호 속에 권위의 지위를 자랑스럽게 입성했다. 군대가 거리에 있었지만 소란한 축하행사가 벌어졌고 이는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자연발생적이고 기쁨에 찬 표현이었다.

봉기가 권력쟁취에 성공하자 모두가 놀랐고 봉기를 조직하는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도 대부분 놀랐다.

수십년간 누적된 고충을 갑자기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게 가능해졌다. 한 목격자는 이렇게 묘사했다. “4월혁명은 거대한 사회적 반란이었다... 학생들이 ... 사회의 전반적 반란을 촉발했다. 사람들은 정부에 맞서 반란했다.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에게 반란했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은 교사에게 반란했다. 일부 정부부서에서 하급 공무원들이 고급 공무원들에게 반란했다. 보다 심각하게 8명의 중령들이 일부 장교들에게 반란하면서 군대에서 부패한 분자들을 숙청할 것을 요구했다.”¹⁷⁾

15) Kang Man-gil, *A History of Contemporary Korea*, 318.

16) Park, *Democracy and Social Change*, 65.

17) H.B. Lee, *Korea: Time, Change, and Administration* (Hawaii: East-West Center, 1968), 119. Quoted in Amsden, *Asia's Next Giant*, 42.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집계하자 그 수자는 186명으로 확인됐다.¹⁸⁾ 최소한 46명이 중고 등학생이었고, 사망자의 절대다수가 30세 이하였다. 추가로 6천명이 부상당했다.

[표 5.1 1960년 4월봉기 사망자들의 나이

나이	숫자
15세 이하	11
15-19세	92
20-24	49
25-29	11
30세 이상	17
미상	6
합계	186

Source: So Baek O. ed., *Uriga koroon kil* (The Path of Our Life) (Seoul: 1962), 341, cited in Chong Lim Kim, ed.,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159.

명백하게 새로운 세대가 한국 정치생활의 중심으로 이동했다. 1960년까지 남한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이 19세 이하였다. 고도로 문자해독 사회에서 청년들이 새로 발견한 힘은 숫자 이상의 것에서 나왔다. 유교윤리는 학생들에게 커다란 존경을 부여했고 보통시민들은 그들을 보호할 필요를 느꼈다. 청년의 이상주의 속에서 상황을 반추할 공간을 가진 대학캠퍼스에 집결해서 학생들의 열정적인 정치참여는 곧 1968년 전지구적 반란에서 세계를 휩쓸게 됐다. 한국 학생들은 전세계 다른 학생들에게 영감을 줬다. 신문들은 터키에서 시위하던 학생들이 머리를 숙여 한국의 동료 학생들에게 존경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학생회(SDS)의 창립문서인 <포트휴런 선언>의 주요 작성자 중의 하나인 미국 활동가 톰 헤이든은 처음 서울 소식을 듣고서 느꼈던 것을 기억했다. “우리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이 독재자 이승만을 타도하는 것을 보고서 나는 정말 기뻐다. 그 운동을 통해 나는 냉전의 역사를 처음으로 알았다. 그 사건들은 우리 부모가 자유 세계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는 우리의 순진한 믿음에 도전했다. 이 운동이 남부에서 SNCC[학생비폭력위원회]와 흑인운동에 영감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승만의 퇴진 이틀 후에 SDS는 첫 모임을 가졌다.”¹⁹⁾

일본 식민주의와 한국전쟁은 전통적 좌파의 원천을 파괴했고 비록 이후에 계급투쟁적 흐름이 등장했지만, 4.19운동은 완전히 민주적이고 반독재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학생들은 분명히 “정치의 민주주의, 경제는 평등”이란 구호를 외침으로써 열망을 표현했을 때 전지구적 신좌파와의 정치적 친화성을 표현했다. 4월 25일 시위를 이끈 교수들은 1960년대 전지구적으로 투쟁 속에 등장한 새로운 사회세력의 선구자들이었다. 서즈 몰렛(Serge Mallet)이 새로운 노동계급이라고 이름붙인 프롤레타리아트화한 전문직과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점차 사회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별히 특권적인 부문으로서 교수들은 여러 가지 보상과 높은 지위 때문에 쉽게 포섭당한다.²⁰⁾ 중요하게 농민, 산업노동자와 농촌주민들은 이승만을

18) See Han, “Student Activism,” 159; Interview with Kim Ye-Hyan, 4.19 Institute, Seoul, December 13, 2001. Other reports provide a variety of figures: Lee Chae-Jin reports 115 killed and 730 injured (A Troubled Peace, 43). In Korea on the Brink: A Memoir of Political Intrigue and Military Crisis (Washington D.C.: Brassey’s, 2000), John A. Wickham, Jr., claims 142 students were killed (231); Gleysteen asserts that when students marched on Rhee’s residence to protest the rigged elections, some 200 were killed by his guards (9); Gotherl reports 183 dead and 6,259 wounded (Geschichte Sudkoreas, 76); finally a church source tells us 185 students or citizens were killed (Lost Victory, 14).

19) Tom Hayden made these remarks in Gwangju during a speech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the Gwangju Uprising in May 2010.

20) Recent evidence indicates the possibility of collaboration between protesting professors and the U.S. embassy.

타도한 전국적 운동에서 주변적이었다. 한국전쟁의 파괴 이후 건설된 새로운 사회적 지형의 지표에는 중앙의 통제 없이도 보통사람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견고한 권력에 맞서 일어나 그 권력을 타도할 역량의 증가도 포함된다. 견고한 야당지도부의 부재가 운동의 성공을 용이하게 했을 것이다. 한성주가 이해하듯이, “시위하는 학생과 대중들은 자신의 조직된 지도부가 없었다. 비록 민주당 지도자들이 나중에 항의운동을 촉발하는 데 그들이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시위하는 대중들 내에서 그들의 실제적 지도력은 부재했다.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지도부의 부재가 이승만의 조기퇴진에 기여했을지도 모른다.”²¹⁾

친일파 한국인 무리 외부에서 이승만은 실질적인 지지기반이 없었다.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야 할 때,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미국도 없었다. 반복적으로 미국은 신뢰를 잃은 정권(트루히요, 디엠, 피노체트)을 희생시킨 다음 혁명적 고양을 상당히 탈급진화하고 분열시킴과 동시에 미국의 이익을 계속 방어할 수 있는 민간선거정권을 권좌에 앉혔다.

제2공화국의 사회운동

1960년 7월 29일 학생혁명 이후 채 몇 달도 안돼서 열린 선거의 압승으로 민주당은 제2공화국의 지도부가 됐다. 새로 발견한 힘에 과감해진 학생들은 점차 비전을 확대하면서 전투적으로 됐다. 학생권력은 너무 강력해서 그들은 북한 학생들과 판문점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회담을 조직하기도 했다. 등록금 인하와 같은 요구와 기성세대의 문화적 단절을 통해 학생들은 계속적으로 사회 전체를 이끌었다.

봉기의 성공으로 민중의 수많은 상이한 부문에서 운동이 고양됐고 새로운 가능성의 역동적 영역이 열렸다. 가두동원은 여전히 정치참여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승만이 미국의 집으로 돌아간 다음 첫해에 약 2,000건의 시위에 1백만여명이 참여했다. 군부는 나중에 매일 서울 거리에 평균 3,900명이 나서 시위를 벌였다는 추계를 발표했다. 많은 시위는 친이승만 관료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조국의 통일, 영구중립선언 등을 요구했다.²²⁾

갑자기 수백 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해서 340,000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15내지 50퍼센트의 임금인상이 이뤄졌고 315개의 새 노동조합이 결성됐고 여기에는 교사, 은행원, 기자들도 포함됐다.²³⁾ 1960년 6월 14일 약 400명의 삼성노동자들이 단식파업에 들어가서 해고된 동료 152명 의 복직, 삼성측의 불법적인 직장폐쇄 중지, 회사측의 법률준중 등을 요구했다.²⁴⁾ 7월 4일 농성을 해산시키려고 경찰이 투입됐고 투쟁은 성과 없이 끝났다. 오늘날까지 삼성에는 노조가 없다. 한국의 실업률은 28퍼센트였고, 51,000명의 제대군인들이나 1960년말 학업을 마치는 수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커다란 문제였다.

7월 29일 초선 이후 민주당이 이근 새로운 장면정부는 즉각 언론의 자유를 시행했다. 제2공화국의 양원제 입법부 기능으로 대통령의 권한은 크게 약화됐다. 새로운 정권 아래서 일본 점령 시절 이래로 남아있던 수백 명의 경찰관료들이 해고됐고 비무장 시위대에 발포를 명령한 경찰서장들은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시절의 중간 관료들은 그대로 남았고 장면은 질적으로 변화된 제도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었다. 비록 제주학살에 대한 조사를

21) Han, *The Failure of Democracy in South Korea*, 32.

22) Wonmo Dong,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n Politics: Patterns of Radicalization in the 1980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0, no. 2 (Winter 1987): 234;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179.

23) Koo, *Korean Workers*, 135; Han, *The Failure of Democracy in South Korea*, 178-3; Gothel counted 485 disputes with 340,000 participants (*Geschichte Sudkoreas*, 77).

24) Dae-oup Chang, ed., *Labor in Globalizing Asian Corporations: A Portrait of Struggle* (Hong Kong: Asia Monitor Resource Center, 2006), 11.

개시했지만, 장면은 거의 모든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 특히 CIA지국장 피어드 실바와 긴밀하게 협의했다.²⁵⁾ 시위대들이 운동에 대한 폭력사용에 책임있는 정치인들과 경찰당국에 대한 훨씬 더 광범한 처벌을 계속 요구하는 있던 같은 시점에 새 정부는 시위를 탄압하라는 증가하는 압력 아래 시달렸다.

새로 발견한 힘에 고무된 학생들은 한국의 2국가 체제로의 분단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세력으로 자신을 조직했다. 민족통일학생연맹과 좌파 노동조합들은 함께 즉각적인 통일 요구했다. 동시에 17개 정당 및 단체연합은 한미 경제협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북한의 동료들과 직접대화를 시작하려는 학생들은 공동회담을 날짜를 정했고, 서울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회담에 대한 정부의 지지를 촉구했다. 1960년 10월 8일 4월 총격으로 고발된 많은 피고들이 특별법의 부재로 무죄판결을 받자 봉기동안 부상당한 학생들이 빈 국회건물을 점거했다.²⁶⁾

4월 19일 이후 학생들과 보통 시민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활력이 넘쳤다. 수십년 이후 활동가 김근태는 “1960년 이래 가두시위는 한국정치의 전통이 됐다”고 설명했다.²⁷⁾ 11월 28일 기독교학생연맹 회원 60명이 기독교방송국 건물에서 체포됐다. 새로운 억압적 법률이 제안되자, 1961년 3월 22일 중요한 철야시위대가 거리에 남았다. 또다시 봉기는 활동가들을 단련시키고 그들을 새로운 투쟁단계를 이끌도록 강화시키는 도가니였다. 1960년 혁명은 기독교인들을 이승만 아래서 그랬던 것처럼 체제의 열렬한 지지자들에서 독재의 가장 중요한 반대자로 변화시켰다. 한 기독교 출판물이 표현하듯이, “4월 19일 학생혁명은 한국교회에게 회개의 순간이었다.”²⁸⁾ 한국 교회협의회는 훨씬 더 분했다. “교회는 마침내 눈을 뜨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게 됐고, 새 날의 새벽을 보기 위해 창문을 열었다... 민족은 혁명을 쟁취했고 폭정에 맞서 싸웠다... 혁명의 전야까지 아주 말이 말았던 기독교 신문들은 갑자기 침묵에 잠겼다.”²⁹⁾

민주적 갱신의 도취감 속에서 가두동원은 매일의 일상사가 됐다. 일단 이승만을 타도하자, 학생들의 자율적 권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조국을 재통일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학생들은 남북 합동회담을 제안했고 이 회담은 동수의 남북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최고기구를 갖춘 연방을 창출하고자 했는데, 이는 김일성이 개인적으로 고려했던 구상이었다. 민족분할로 수만 가족이 분열된 한국인들에게 통일은 하늘이 준 선물이었지만, 공산주의에 대한 다음 전쟁을 이번에 베트남에서 막 시작하고 있던 미국에게 그렇지 않았다.

판문점 학생회담이 예정된 4일전에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일군의 장교들이 박정희가 앞장서고 전 일본군 장교들이 정부의 통제권을 장악했다.³⁰⁾ 1961년 5월 16일 자정 쿠데카타가 전개되면서, 군대는 무장한 채 도시로 이동했다.

오전 3시30분 장면은 매그루더에게 전화해서 미군이 쿠데타를 진압할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다음 날 비록 미국은 남한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보유했음에도, 박정희는 매그루더의 승인 없이 2개 사단을 서울로 이동시켰다. 비록 미국 옹호자들이 미국이 쿠데타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알려진 증거는 없다고 주장함에도, 제임스 호스먼(1949

25) 25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344.

26) Kang Man-gil, History of Contemporary Korea, 202. Also see Hart-Landsberg, The Rush to Development, 135.

27) Interview with Kim Gun-tae, Seoul, August 2, 2008.

2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Christian Church in Korea during the 1970s (Seoul: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1985), 23.

29) Korean Church: History and Activities (Seoul: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1990), 32.

30) Cumings, Origins, 1:175.

년 여순반란을 진압한 미국측 작전의 지휘관이자 자칭 “남한 육군의 아버지”)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³¹⁾ 쿠데타 20년 후에 호스먼은 미군지휘관 존 위컴 장군에게 “민간서비스 공로상”을 받았다. 이 상패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과의 긴밀한 개인적 관계를 통해 호스먼은 군사평의회가 미군 장교들의 우려를 완화할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할 수 있었으며, 새로 등장한 군부 지도부의 배경과 열망에 대한 그의 폭넓은 지식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미국 관리들에게 이 지도부 아래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위를 향상시킬 방식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었다.”³²⁾ 1948년 호스먼이 개인적으로 개입해 이승만과 만나서 박정희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1961년 박정희가 호스먼에게 얼마나 많은 빛을 지고 있었는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사진] 전 일본군 장교 박정희는 1961년 군부 쿠데타를 주도했고 1979년까지 통치했다. 사진 작가: 김전길

쿠데타 다음날, 30명의 장군과 대령들로 구성된 “혁명위원회”는 권력을 민간인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쿠데타 지도자들은 첫 행동으로 장면을 포함한 2천명의 정치 지도자들을 체포했다. 그들은 신속하게 13,000명 이상의 정부 관리들과 육군 장교들을 숙청했고 서울의 64개 신문사 중에서 49개를 폐쇄했다.³³⁾ 자유분방한 도시 청년문화를 탄압하고, 문화적 순응을 강제하기 위해 가혹한 벌금, 육체적 처벌, 강제이발과 투옥을 사용했다. 박정희의 쿠데타 다음 날 1948년 제주학살 조사관들이 체포됐다. 독재정권은 과거의 잔혹행위에 대한 모든 조사를 탄압했고, 제주학살에 대한 어떤 공개적 암시도 1978년 현기영의 단편소설 <순이삼촌>을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³⁴⁾ 1999년에야 비로서 1950년 노근리에서 미군이 자행한 비무장 피난민 학살이 처음으로 보도됐다. 거의 반세기가 지나서야 그런 학살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됐다.

박정희 독재

과거 일본군 첩보장교였고, 오카모토 미노루(또는 다카키 마사오) 중위로 알려졌던 독재자 박정희를 철권통치를 했다. 그의 정권 아래서 민주주의 확대와 민족통일에 대한 민중의 희망은 국가폭력의 범람 속에서 야만적으로 말살됐다. 정권의 탄압을 개인적으로 불평하는 연인들의 편기가 시민들을 감옥에 가두는 데 이용됐다. 그런 악의없는 “증거”조차 발견할 수 없으면, 경찰은 증거를 만들어내 수천명의 사람들을 카프카식 감옥으로 보냈다. 불운한 희생자들은 혐의를 조작한 다음 처형당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이며 누구나 처벌하는데 무자비했지만, 그는 한국에 대한 비전도 갖고 있었다. 민족주의적 자부심의 아우라로 포장한 박정희는 조화롭고 번영한 한국의 계획을 만들어냈다. 그의 경제계획은 수백만 명을 별로 직접적 보상도 없는 끝없는 노동에 몰아넣을 수도 있지만, 박정희는 미래 세대에게 보상을 약속했고, 이 약속은 매일 빈곤과 어려움을 경험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를 가졌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박정희는 일본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한 유신체제를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는 일본천황에 부럽지 않는 권력을 구축했다. 박정희는 자신을 한국의 나폴레옹으로 자처했고, 자신의 말로 4월혁명의 계승자로서 “4.19와 5.16 혁명이 보여준 민족의식”을 실현하는 “위대한 개혁운동”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박정권의 “혁명법정”의 보호 아래 1961년 12월 21일 5명이 처형당했다. 1960년

31)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349.

32) Harvard University Yenching Institute, Hausman archive, Box 7, page 3 of the citation.

33)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351.

34) Hyun Ki-Young, Aunt Suni, trans. Song Jong Do (Seoul: Kak Press, 2008).

경찰에 발포를 명령한 이승만의 경호실장, 당시 학생들을 악랄하게 공격했던 강패두목, 이승만의 내무장관, 통일한 옹호한 신문의 발행자와 사회당 지도자 등. 부유한 산업계 거물들도 바보모자를 쓰고 서울 시내를 행진했고 민중의 고통으로 이윤을 챙긴다고 조롱당했다.

박정희의 군사정부는 “경제성장의 거대한 도약”을 통해 북한을 따라잡으려는 야심찬 개발계획에 착수했다.³⁵⁾ 비록 이승만의 수입대체정책 덕분에 배를 채운 부패한 재벌지도자들에게 처음에는 적대적이었지만, 박정희는 새로운 수출산업화 전략에 협력하도록 남한 최고의 부자들과 유명한 거래를 했다. 그들은 함께 울산에 새로운 공업도시를 건설한 계약을 협상했고 일련의 다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미 국무장관 딘 러스크는 서울의 미국대사에게서 박정희가 “전광석화같은 속도로, 그리고 대체로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열렬한 보고를 받았다.³⁶⁾ 박정희는 W.W. 로스토우, 일군의 MIT 기술관료, 군부를 “민족건설자”로 환영했던 하버드대 교수 새뮤얼 헌팅턴을 포함한 미국인 고문들의 지원, 일부에서 “지시”라고 하는 교묘한 지원을 받았다. 한국인 중에서 김종필은 박정희와 협력한 수십명의 군인들 중의 하나였다. 일부에서 김종필이 “쿠데타 배후의 진짜 두뇌”라고 생각했다. 박정희의 처조카인 김종필은 쿠데타 이후 한달도 안된 1961년 6월 12일 미국의 도움으로 중앙정보부(KCIA)를 세웠다.

박정희의 거창한 계획에는 엄청난 돈이 필요했지만, 그는 제한된 국내자원 밖에 없었다. 그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최대한 쥐어짜고 통화의 평가절하를 했지만, 여전히 훨씬 더 많은 자본이 필요했다. 1953년과 1962년 사이에 미국원조는 한국 수입의 70퍼센트, 고정자본투자의 80퍼센트를 차지했고 대략 GNP의 8퍼센트였다.³⁷⁾ 그러나 미국에 베트남전에서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미국은 원조를 삭감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국제적 자금을 찾기 위해 박정희는 일본과의 긴밀한 연계라는 미국의 핵심제안을 승인했다. 박정희가 권력을 잡자마자 미국은 그에게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라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1961년 10월부터 일찍이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고위 외교관들이 도쿄와 서울을 오갔다. 11월 딘 러스크는 (이케다 일본총리와 박정희에게 보내는 케네디 대통령의 친서를 이용해) 박정희와 이케다 호담을 주선했고, 그 이후 이케다는 새 조약에 서명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고 러스크에게 말했다.³⁸⁾

MIT와 하버드 교수들이 제안하고 미국 정책입안자들이 압력을 가했지만, 박정희가 선택한 자금조달 수단은 일반대중의 호응을 받지 못했고, 그 대신 상당한 소란을 불러일으켰다. 정상화에 대한 국내의 완고한 반대로 한일조약은 간단히 끝낼 수 없었다. 박정희는 1963년 선거에서 가까스로 승리했지만, 1964년 3월 조약을 협상중이란 소식이 알려지자, 신속하게 8만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투쟁에 참여했다. 3월 24일 학생시위의 대상은 분명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죽음을!”이라고 학생들은 외쳤다. 다음 날 1천명 이상의 고려대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고 며칠 안에 광주, 이리, 대전, 부산 등의 학생들도 동원됐다. 일부의 경우 학생들이 정부청사를 점거할 뻔하기도 했다.³⁹⁾

1964년 6월 3일 박정희는 서울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수십명의 교수와 학생들을 해고했다.

35) Amsden, *Asia's Next Giant*.

36)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319.

37) Thomas W. Robinson, *South Korea's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1980s* (Department of State, External Research Contract 1724-2012) August 25, 1983; Hart-Landsberg, *The Rush to Development*, 44.

38)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319.

39) Gothel, *Geschichte Sudkoreas*, 151.

미국 합참차령관은 시위를 진압할 2개 전투사단의 출동을 승인했다.⁴⁰⁾ 수천명의 학생들이 청화대를 습격하겠다고 위협했지만, 박정희는 제3공화국의 고무도장 국회를 통해 조약을 밀어부쳤다. 야당이 조약에 반대하여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여당은 1분만에 승인했고 동시에 미국 편에서 싸우기 위해 22,000명 베트남 파병안도 승인했다. 관계정상화의 대가로 일본은 3억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했고(그 대가로 박정희는 일본의 과거 행동에 면죄부를 줬다), 5억 달러를 차관으로 공여했다.⁴¹⁾

즉각 전투적 시위가 재점화됐다. 약 15,000명의 학생들이 청와대로 행진을 시작했고, 한 지점에서 경찰과의 전투에서 우위를 점했다.⁴²⁾ 이번에는 대학들이 군대에게 점령당해 폐쇄됐다. 한 추정에 따르면 1964년 3월에서 1965년 9월까지 이런 저런 형태로 투쟁에 참여했던 숫자는 350만명이라고 한다. 1965년 6월 22일 2백명 이상의 교회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조약에 반대했다. 기독교 어머니회는 조약반대 1백만 서명운동을 벌였고, 단 2주만에 기념비적 성과를 거뒀다. 기독교 활동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대응으로 박정희 정권과 그가 통치한 민중 사이의 거리만 더욱 멀어졌다.

대중의 반공주의 정서를 이용할 기회이자 자본을 조달할 제2의 창구로 인식한 박정희는 즉시 베트남에 수천 명의 추가파병을 제안했다. 산발적인 학생시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의 전쟁은 일본과의 문제해결보다 더 논쟁적인 것으로 입증됐다. 박정희의 군대이동은 아주 신속해서, 미국무부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1965년 남베트남에서 싸우는 남한 군인이 북베트남 군인보다 더 많았다.⁴³⁾ 남한 군인들은 미국 동료보다 훨씬 더 잔인한 것으로 널리 보고됐다. 1969년 말 약 48,000명의 남한군 병력이 베트남에 주둔했고 1973년 철수를 완료할 때까지 약 300,000명이 베트남에서 싸웠다. 한국군 사상자는 4,960명 사망, 10,962명 부상이었다.⁴⁴⁾ 전쟁은 군장교들에게 미래의 사상자에게도 계속 영향을 주는 경험을 제공한다. 1948년 제주에서 근무했던 **노리방** 중위는 베트남에 갔다. 1979년 박정희 암살 이후 남한을 무자비하게 통치했던 미래의 독재자 전두환과 노태우도 함께 베트남에 갔었다.

베트남 군사개입의 경제적 혜택은 특별했다. 1965년에서 1970년까지 남한 정부는 11억 달러를 지불받았는데, GDP의 약 7퍼센트이자 해외소득의 19퍼센트였다.⁴⁵⁾ 80개 이상의 한국기업들이 운송에서 공급, 건설에서 여흥까지 베트남에서 이윤이 남는 비즈니스를 했고, 거기에서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수출과 서비스 제공으로 10억 달러를 더 확보했다. 베트남에서 싸운 한국 군인들을 위해 미국이 박정희정부에 지급한 비밀 보너스는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총액 1억 8,5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 모든 금액을 직접지불 11억 달러에 더하면, 박정희 정부에 미국의 지급한 총액은 1966년에서 1969년 남한의 외환획득액의 약 30퍼센트에 이른다.⁴⁶⁾ 1973년까지 남한에 대한 미국원조 총액은 모두 110억 달러이며, 남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많고 미국의 전세계 군사지출과 해외원조액의 약 8퍼센트이다.⁴⁷⁾ 일본, 타이완, 필리핀, 타일랜드 등 미국에 우호적인 체제들도 베트남 전쟁동안 이 지역에 흘러든

40)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355.

41) Martin Hart-Landsberg, Seongjin Jeong, and Richard Westra, eds., Marxist Perspectives on South Korea in the Global Economy (Burlington, VT: Ashgate, 2007), 212.

42) Hart-Landsberg, The Rush to Development, 167.

43) See the discussion in the volume I edited, Vietnam Documents: American and Vietnamese Views of the War (Armonk, NY: M.E. Sharpe, 1992), 63.

44) Chae-Jin Lee, A Troubled Peace, 55, 70.

45)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321.

46) Hart-Landsberg The Rush to Development, 147-8.

47) Han Sung-joo, "Korean Politics in an International Context," in Korean Politics: Striving for Democracy and Unification, ed.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Elizabeth, NJ: Hollym, 2002), 620.

달러의 물결 속에서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

1970년대 중반까지 박정희의 경제계획과 새로운 수출전략은 결실을 맺었다. 박정희가 집권했을 때 경제생산의 겨우 2퍼센트 정도였던 수출은 1972년 GNP의 16.5퍼센트로 증가했고 4년 뒤 30.8퍼센트로 증가했다.⁴⁸⁾ 수출품의 거의 3/4은 미국과 일본으로 갔다. GNP는 1961년부터 1970년까지 평균 8.45퍼센트 증가했고, 1971년부터 1980년까지 평균 성장률은 7.8퍼센트였다. 표 5.2에서 보이듯이, 1인당 GNP도 급속하게 증가했다.

[표 5.2] 1961-1998년 남한의 1인당 GNP

연도	1인당 GNP(U.S. \$)
1961	\$88
1970	\$289
1980	\$1,592
1988	\$4,040

Sources: Hagen Koo, *Korean Workers: The Culture and Politics of Class Forma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30 Chae-Jin Lee, *A Troubled Peace: U.S. Policy and the Two Korea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6), 3.

중공업 건설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박정희의 통치는 더욱더 억압적으로 됐다. 박정희 유신체제의 주요한 수혜자인 재벌은 민주화를 지지하지 않았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한 유신시대(1972-1979년)의 특징은 엄청난 권력이 박정희의 손에 집중된 것이었다. 반대를 질식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이용하여 박정희는 전보다 더 재벌을 강화했다. 1974년 GNP의 15.1퍼센트에서 1978년 30.1퍼센트로 급증한 10대 재벌의 매출총액은 1981년 GNP의 55.퍼센트를 차지했다.⁴⁹⁾

심지어 유신 이전에도 박정희의 통치는 아주 억압적이어서 조국을 떠날 수 있는 한국인들도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1967년 유럽과 미국에 살던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되어 한국으로 끌려왔다. 그들 중 2명은 정치학 교수였는데, 결국 국가보안법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처형당했다.⁵⁰⁾ (미국의 타이완 이민자들도 이 시기에 비슷한 운명에 직면했다. 박정희와 이승만 둘 다 장카이색을 철저한 동맹자로 간주했고 의무교육 커리큘럼에서 남한 어린이들은 그들이 “타이완의 피의 형제들”과 나란히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다고 배웠다.)

1967년 6월 8일 박정희의 당은 국회선거에서 175석 가운데 130석을 얻었지만, 집계가 발표되자마자 사람들은 결과의 정확성에 대해 항의하기 시작했다. 6월 9일 7개 대학 8천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자 박정희는 대학을 폐쇄했다. 6월 14일 15,000명 이상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섰다. 경찰의 공격을 받자 그들은 반격을 가했다. 결국 50개 대학과 186개 고등학교가 폐쇄되자 박정희는 안심했다. 학기말 고사를 치르기 위해 대학들은 7월 3일 다시 열었지만, 16,000명의 학생들은 시험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섰다. 3일 동안의 새로운 투쟁으로 6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체포됐다.⁵¹⁾

48) Eugene Kim, “Emergency,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South Korea,” *Asian Survey* 18, no. 4 (April 1978): 371, <http://www.jstor.org/stable/2643400>, accessed on July 23, 2008.

49) Hart-Landsberg, *The Rush to Development*, 191.

50) Lindstrom, *Accumulation, Regulation, and Political Struggles*, 74.

51) 51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Christian Church in Korea during the 1970s, 18-19.

새로운 투쟁의 초점은 풀뿌리에서 자율적으로 생겨났다. 2년뒤 학생들은 다시 투쟁에 나섰고, 이번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박정희의 3선연임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안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1971년 박정희가 출마하자, 700명의 학생들은 “선거감시단”을 조직해 광범한 투표부정 행위를 보고했다. 비록 김대중이 5백만표 이상, 즉 총투표의 44퍼센트이자 서울의 58퍼센트를 득표했음에도 박정희가 승자로 등장했다. 1971년 10월 모든 대학생의 강제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잘 조직된 시위는 군대가 서울시내 7개 대학을 1주일간 점령하면서 중단됐다. 군대는 1,889명의 학생들을 체포했고, 12,000명을 강제 입대시켰으며, 7개 학생회를 해산하고 14개 출판물을 금지했고 74개 학생모임을 금지시켰으며, 177명의 학생을 제적했다(그들 모두 즉각 군대에 입대해야 했다.)⁵²⁾

학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승만을 타도할 때 이용했던 대중적 정서를 박정희에 대해 불러 일으킬 수 없었다. 1960년 봉기는 자연발생적이었고 일반적으로 동조적 대중의 지지르 받았지만, 1971년 운동은 냉담한 대중에 직면했다. 부분적으로 이 투쟁이 “학생회가 획득한 **협의적 지도부**”(deliberate leadership)가 조율했기 때문이다.⁵³⁾ 학생정치의 진전에서 1971년 운동은 1960년 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그 만큼 보통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었다. 1960년 운동은 독재를 적으로 삼았지만, 1971년 많은 이슈가 운동에 뒤섞여 있었다. 1971년 3월 21일 학생들의 한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 자신의 조국에서 우리는 반민주적, 반민족적 집단에게 통치받고 있으며, 이 집단은 민중의 열망과는 반대로 자유와 정의라는 민주적 목표를 부정하는 파시스트 체제를 수립하고 시도한다. 대외적으로 정권은 우리를 외국열강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종속으로 이끌고 있다... 이 집단은 무비판적 사고를 맹목적으로 강제하고 위기감을 조성함으로써 민중의 불만의 정당한 표현을 억누른다. 더욱이 노동대중과 농민들의 힘든 노동과 착취는 근대화의 이름으로 정당화한다... 우리는 이제 강제적 군사훈련을 학생들에게 강요한 모든 계획을 단호하게 중단시킬 투쟁을 이끌 준비가 돼 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학교와 전국의 학교들의 모든 학생들에게 이 비판적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며, 이 투쟁은 우리의 더욱 커다란 민주적, 민족주의적 투쟁의 일부로서 수행되고 있다.⁵⁴⁾

빠빠한 수사학적 스타일은 이 그룹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리킨다. 1960년의 자연발생적 운동이 1971년의 잘 조직된 그룹들보다 훨씬 더 용이한 언어로 말하고 훨씬 더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을 목격하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이후의 봉기들을 탐험하면서 보게 되겠지만, 자연발생적인 대규모 사건들의 결과는 자주 면밀하게 계획된 투쟁보다 더 낫다. 이 시기 운동의 훌륭한 성과 중의 하나는 반정부 “재야”세력의 형성이다. 재야는 비의회적 세력으로 응집되어 정부에 계속 압력을 가하는 가진것없고 쫓겨난 활동가들의 운동이다.(문자 그대로 들판에 머무는 사람들). 박정희는 하층집단들의 등을 타고서 달릴 수 있었지만, 그들은 천천히 박정희에 맞서 조직하기 시작했다.

도시빈민

한강의 기적으로 서울이 인구는 20년 동안 250만에서 1980년 800만으로 늘어났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은 판자촌에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했다. 1964년 서울의 놀라운 성장이 막

52) Sungjoo Han, “Student Activism: A Comparison Between the 1960 Uprising and the 1971 Protest Movement,” in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Democracy, Mobilization, and Stability, ed. Chong Lim Kim (Santa Barbara, CA: Clio Books, 1980), 153.

53) Ibid., 154.

54) Ibid., 148.

시작되고 있었고, 불법주택의 숫자를 5만채로 추정됐고 가구당 평균 7명 이상이 거주했다.⁵⁵⁾ 1968년까지 이 수자는 233,000채로 늘어났고 총거주자는 최소한 1,270,000명이었다.⁵⁶⁾ 정부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곳에서 토지계획을 개발하면서 흔히 한밤중에 경찰과 깡패를 보내 사람들을 몰아냈다. 반복해서 싸움이 일어났다. 한 경우에 자기 마을이 유인되도록 하지 않고 1,000명의 주민들이 300명의 경찰 및 증무장 깡패들에게 맞섰다. 그들은 강력한 전투를 벌였지만, 3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부상당한 다음 자기 집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다. 1961년 박정희 쿠데타 이후 첫 3년 동안 약 25,000 가구가 쫓겨났다.clear

급하게 건축한 새 건물 중에서 와우아파트의 큰 건물이 1970년 8월 8일 붕괴해서 3명의 주민과 건설 노동자가 죽었다. 수십명이 더 부상당했다. 시장이 사임했어도 증가하는 주택부족은 말한 것도 없고 사람들의 두려움을 달래는 데 별로 도움이 안됐다. 와우아파트 붕괴 2주일 후 10개지구 대표자 35명이 서울시민아파트 자치회연맹을 건설했다.⁵⁷⁾ 와우산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낸 후 그들은 즉각 조직화를 시작했다. 1971년 6월 15일 주로 주부와 노인들로 이뤄진 시민 3,500명이 서울시청으로 몰려갔다. 그들은 건물의 즉각적 수리와 아파트 대금을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퇴거당하라는 서울시 명령의 철회를 요구했다. 기습을 당한 시장은 동의했다.

서울 외곽의 경기도 광주의 빈 터에 서울의 판자촌에서 쫓겨난 수천 명의 도시빈민들이 인정사정없이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상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하수 시스템도 없는 곳이었다. 정부는 450,000명을 고용할 수백 개의 공장을 계획했고, 건설은 정신없는 속도로 진행됐다. 1971년 주민의 숫자는 3년 만에 6,000명에서 300,000명으로 늘어났다. 투기꾼들이 들어왔고, 새 집에서 새 삶을 기대했던 막 쫓겨난 판자촌 주민들에게 시당국은 들을 돌렸다. 굶주리고 피곤한 주민들은 8월 1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10시경 50,000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11시45분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시청의 지역사무소가 습격당해 불탔다. 굶주림과 고통을 절규하던 군중은 수백 명의 전투경찰을 공격했고 우연히 지나던 트럭의 참외를 빼앗아 먹은 다음 다시 모여 서울로 행진하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경찰과의 싸움은 여러 시간 계속됐다. 오후 5시 시장은 요구의 무조건적 수용을 발표했다.

광주 이후, 도시빈민들에 대한 대우는 나아졌다. 전투적 행동 이후에 그런 것처럼, 장기적 전략과 비전을 가진 조직들이 생겨났다. 광주폭동 3주후, 박형규 목사를 포함한 저명한 신교 지도자들이 수도권 빈민선교를 결성했다. 빈민촌 조직화에 초점을 맞춘 이 단체는 지역사회 병원을 세우고, 소상공인과 빈민들의 세금감면을 지원하고 철거를 저지하고 학교를 만들었다. 그들은 교회도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켰다.

새로운 물결의 진보적 교회들이 도시산업선교회(UIM)을 조직했고, 선교회의 활동가들은 지지 않고 사회정의를 위해 일했다. 철거에 맞서 계속 싸우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1968년에서 1972년까지 4년간 100개 기업에서 약 4만 명의 노동자들이 선교회와 접촉했다.⁵⁸⁾ 교회 활동가들이 민중과 접촉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도 영원히 변했다. 문동환이 표현했듯이, “그렇죠. 우리는 남북 아메리카에서 나온 해방신학에 대해 읽었다. 서구의 정치신학에 대해 토론도 했다. 그러나 민중의 절규를 듣고, 정의에 대한 그들의 열망에 귀기울이

55) Erik Moberg, “Struggles Over Unlicensed Housing in Seoul, 1960-1980,” paper presented at the IPSA Fukuoka, 2006.
 56) People’s Power, People’s Church: A Short History of the Urban Poor Mission in South Korea (Hong Kong: Christian Conference on Asia, 1987), 41.
 57) Ibid., 35-6.
 5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Christian Church in Korea during the 1970s, 40.

고, 그들에게 숨겨진 역동적 힘을 발견하고 고귀한 대의에 자신을 바친 이들의 점증하는 성숙함을 목격하면서 비로소 우리의 시각 전체가 변화됐다.”⁵⁹⁾

민중신학은 곧 한국운동에서 중요한 세력이 됐다. 산업선교회는 20개 기업에서 80개 소그룹을 만들었고, 모두 단지 독재이 종식만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활동했다.⁶⁰⁾ 그들은 “역사에서 그리스도 자신의 고통은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대중들의 고통이라는 믿음과,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건에서 공유가 사명이나 구원을 가져온다는 확신으로, 산선 활동가들은 하나님의 지배가 현실화되는 정의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에 대한 종말론적 신앙을 고수하면서” 활동했다.⁶¹⁾ 기독교 민중신학자들은 대학과 신학교에서 쫓겨났고, 자신을 해방시켜 민중의 투쟁과 조우했다. 가족을 거의 먹여 살리지 못하는 젊은 노동자들에서 운동열사의 미망인들과 투옥당하고 고문당한 학생들의 부모까지, 그들은 보통 한국인들의 삶 속에서 “성경을 우리에게 새로운 책으로 만든” 역학을 발견했다.

초기 민중신학의 정식화에서 국제적 영향 역시 중요하다. 타이완의 C.S 송은 마틴 루터 킹 처럼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⁶²⁾ 비록 한국의 민중신학에 먼저 개신교 내에서 발전했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민중신학의 영향도 컸다.⁶³⁾ 1968년 김수환 추기경이 한국 카톨릭의 수장이 되자, 진보적인 정치적 대의에 대한 교회의 참여는 더욱 분명해졌다. 비록 기독교인들이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 일부는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소수였다. 인구조사에 따르면 1985년 기독교인의 숫자는 인구의 20퍼센트였다(카톨릭이 4.61퍼센트, 개신교가 16.05퍼센트). 불교신자의 수자는 약간 적어서 전체인구의 9.94퍼센트였다.⁶⁴⁾

전태일과 유신반대 투쟁

경제를 건설하려는 박정희의 드라이브가 쥐어짜낸 모든 노동자들 중에서 아무도 수천명의 여성 섬유노동자들보다 더 착취당하고 더 가혹한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는 없었다. 평화시장과 그 근처에서 12세에서 17세의 소녀 약 2만명이 하루 16시간, 자주 주7일간, 천정이 너무 낮아서 일서기도 힘든 먼지 많고 낡아빠진 다락방에서 일했다. 모든 노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직장 버스요금을 낼 정도로 밖에 벌지 못했고 한달에 겨우 이틀만 쉬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은 것만으로 운이 좋다고 여겼고, 적은 돈이나마 가족에게 보내기 위해 알뜰하게 저축했다.

아무도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고, 이런 변화는 자주 트라우마로 가득 차 있다. 이충각은 1966년 1월 8일 첫 출근한 날을 기억한다. “땀땀지가 눈내리는 것처럼 보였고 집채만큼 커다란 기계에서 나는 소음으로 마치 귀청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정말로 지옥 같았다. 그 날 일하는 법을 배웠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대부분이 일본어여서 이해할 수 없었다. 너무 시끄럽고 잘 들리지 않아서 감독은 나를 가르치면서 노려보고 소리 질렀다. 그는 마치 소름끼치는 재단기 같았다. 하루에 70원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 요령을 배웠다.”⁶⁵⁾

59) Moon, “Korean Minjung Theology,” 13.

60) Lee, *The Making of Minjung*, 224.

61) Quoted in Lienemann-Perrin, *Die Politische*, 159.

62) Interview with Oh Choong-il, 2006.

63) Hyug Baeg Im, “Korean Christian Churches in Democratization Movement,” in *Democratic Movements and Korean Society: Historical Documents and Korean Studies*, ed. Sang-young Rhyu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2007), 111-2.

64) Donald Baker, “The International Christian Network for Korea’s Democratization,” in *Democratic Movements and Korean Society: Historical Documents and Korean Studies*, ed. Sang-young Rhyu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2007), 134.

65) “Story of Lee Chong-gak,” in Park Min-na, *Birth Of Resistance: Stories of Eight Women Activist Workers* (Seoul: Korea

비록 근로기준법이 8시간 노동제를 의무화했지만, 고용주들은 일상적으로 더 긴 시간을 요구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잠이 모자라서 부상을 당했고 질병은 치료하기보다 거의 항상 해고로 처벌됐다. 이런 상황에서 전태일이란 젊은 활동가가 노동자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전태일은 몇 명의 친구와 함께 바보회란 직을 만들어 경제 “기적”의 가혹한 노동조건에 도전했다. 그들은 법률시행을 책임지는 정부부서에 편지를 보내, 평화시장의 불법적인 조건, 특히 악명높은 8시간노동 위반, 주간 1일 휴무, 18세 이하의 야간노동 금지 등에 대해서 보고했다. 이런 노력 때문에 전태일은 여러차례 해고됐지만, 그는 버텼다. 마침내 끔찍한 노동조건을 바꿀 수 없자 전태일은 1970년 11월 12일 노동자들의 절망적인 곤경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자살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전태일은 죽으면서 외쳤다.

1963년 사이공에서 불교승려 티치광독의 자살은 미국이 지원한 남베트남 대통령 응오딘디엠에 대한 반대를 촉발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 전태일의 분신자살은 비슷하게 한국의 노동 활동가들과 반독재운동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정권은 그의 추모를 무척 두려워 해서 그의 관을 작업장에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을 투입했다. 정부는 장례식을 조용히 치르면 돈을 주겠다고 가족에게 제안했지만, 그들은 거부했다. 희생의 소식이 퍼지자 두 명의 서울대학생이 자살했다. 다른 학생들은 대중시위를 조직했다. 그의 사진을 들고 행진한 학생들은 “전태일의 길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전태일의 자살 이후 수십개의 노동자 야학이 조직됐고, 거기에서 국어에서 정치에 이르는 주제들을 무료로 배울 수 있었다.

박정희의 수출지향 경제발전계획으로 정권은 많은 자본을 필요로 했지만, 1970년대 초반 베트남전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인플레이션은 경제위기로 이어졌다. 박정희의 대응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에게 실제적으로 무제한적 권력을 부여하는 1972년의 유신헌법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유신헌법 아래서 박정희는 국회의 1/3을 임명했고 무제한적 대통령 임기를 보장받았다. 반대의 속삭임이 들리자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하고 김대중(1971년 선거에서 44퍼센트의 표를 얻었던)을 도쿄의 호텔에서 납치한 다음 장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대중은 운 좋은 피해자 중의 하나였다. 그가 구속된 같은 시기에 서울대 교수 최종길은 중앙정보부에 소환된지 사흘만에 건설에서 떨어져(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던져져서) 죽었다.

유신은 살벌한 정치적 함의 외에도 축적체제의 변화를 의미했고, 한국경제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섬유와 전자 같은)에서 중공업으로 전환했다. 자본집약적 공장을 발전시키려는 박정희의 오랜 노력은 중화학공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자본시장에서 막대한 액수를 빌리는 것으로 시작됐다. 수입대체 및 수출심화의 이 두 번째 국면은 조선과 자동차 같은 산업기업의 갑작스런 건설로 이어졌다.

박정희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반대는 광범했다. 1973년 4월 22일 부활절 연합야외예배에 10만명이 모였다. 예배 동안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눈에 띄게 등장했다. 6월 이 사건을 조직한 성직자와 학생들이 체포됐고, 다수가 심한 구타를 당했다. 기독교인들이 지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하면서 유신반대운동은 강화됐다. 1974년 11월 함석헌은 엄격한 비폭력원칙에 기반한 민주회복국민회의를 조직했다. 1975년 3월까지 50개 지역지부가 결성되자 함석헌은 민주민중헌장을 발표했고 그는 모든 형태의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했다.⁶⁶⁾ 청원캠페인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10만건 이상의 서명을 모았다.

Democracy Foundation, 2005), 31.

66) Sungsoo Kim, “The Democracy Movement and NGOs in South Korea,” The Second Peace Island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ugust 2008.

항의에 개의치 않은 박정희는 긴급조치 1호와 2호를 발효해 모든 반유신 활동을 금지했다. 박정희는 박형규 목사 등 140여명을 포함한 서명운동 활동가들의 구속을 명령했다. 이 시기에 운동조직들의 스펙트럼에는 자주적 노동조합을 옹호한 카톨릭 청년노동자회(Jeunesse Ouvriere Chretienne, JOC)와 “민중, 민족, 민주주의 선언”으로 사회의 구조적 변혁을 요구한 학생조직인 전국민주주의 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이 포함됐다.⁶⁷⁾ 같은 시기에 문익환 목사는 통일을 호소했고, 구속된 학생들은 “우리 승리하리라”를 불렀고 운동가수 김민기가 밥 딜런의 노래를 번안했고, 많은 활동가들은 헤르베르트 마르쿠제와 C. 라이트 밀즈의 저작을 읽었다.

1974년 4월 12일 수백명의 학생들이 유신에 반대하여 거리로 나섰다. 1,225명이 재빨리 체포됐고 북한을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됐다.⁶⁸⁾ 긴급조치 4호는 수업을 거부하거나 반정부 단체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만들었다. 수백명의 교수들이 해고되자 그들은 해고교수협의회를 결성했다. 해고된 언론인들은 동아/조선 투쟁위원회를 결성했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작가들은 창작자유 문인협의회를 만들었다. 처벌을 명예의 뱃지로 만든 반정부 운동은 명예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사회에서 시위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런 분위기는 공동체의 시각에서 개인의 지위가 아니라 돈이 전부인 다른 나라들과 현격하게 대조를 이뤘다. 1974년 5월초 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PRP)라고 불리는 조직이 정부를 전복하려는 공산주의 음모를 분쇄했다고 발표해서 전국에 충격을 줬다. 수천명이 체포됐고 전대통령 윤보선과 지학순 주교를 포함한 수백명이 장기형을 선고받았다.⁶⁹⁾ 오늘날 우리는 “음모” 전체가 중정에 의해 조작됐다는 것을 알지만, 그 당시에는 수백만명 한국인들에게 항상 치명적으로 심각한 문제였다. 체포된 “인혁당원” 8명이 1975년 4월 9일 가족들이 서대문 교도소 밖에서 면회를 기다리는 동안 비밀리에 교수형으로 처형당했다. 일부 시신은 가족의 동의 없이 화장됐다. 한 경우에 송상진의 미망인은 전투겨울이 남편의 장례식 대열을 멈추고 시신을 탈취해서 화장장으로 가져가는 것을 공포 속에 지켜봤다. 30년 후에 새로운 민주정부 아래서 인혁당 처형은 부당했고 관련자들이 무죄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가족들은 노무현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은 다음 사회정의를 위한 재단을 시작하는 데 돈을 사용했다.

1974년 후반 박정희가 계속 탄압하면서 모든 신문에게 학생시위나 교회의 유신비판에 대해 어떤 것도 보도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1920년대 이래 독립적 보도의 상징인 동아일보는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했다. 선례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보부는 광고주들에게 신문후원을 중단하라고 거부했다. 하룻밤 사이에 약 80퍼센트의 수입이 증발했다. 신문이 잠잠해진 것처럼 보일 때, 서울의 경동장로교회가 전면광고를 실었다. 택시 운전사, 이사, 광산노동자들이 소액광고를 냈다.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9명의 소녀들은 국민의 감정을 잘 표현했다. “머리 숙이고 사느니 무릅꿨고 죽겠다.”⁷⁰⁾ 박정희는 공개적 항의연단이 지속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그는 동아일보 노동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경찰과 깡패들을 보냈다.

1975년 2월 15일 청원캠페인으로 구속됐던 박형규 목사 등이 마침내 석방됐다. 그런 다음

67) Chulhee Chung, “Structure, Culture, and Mobilization: The Origins of the June Uprising in South Korea,” (PhD dissertation, SUNY Buffalo, 1994), 92.

68)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of the Republic of Korea, A Hard Journey to Justice (Seoul: Samin Books, 2004), 131.

69) George Ogle, Liberty to the Captives: The Struggle Against Oppression in South Korea (Atlanta: John Knox Press, 1977), 94-95.

70) Ibid., 101.

학생들은 석방된 교수들의 복직과 학생들의 복학을 요구했다. 수천 명이 행진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자 학생 김상진이 1975년 4월 11일 자살했다.⁷¹⁾ 정부의 대응은 장례식이 열리기 전에 시신을 화장하고 모든 대학을 폐쇄하고 2백명 상의 학생을 체포하고 수백명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었다.

유신반대 투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의 복지에서 상실을 겪도록 했다. 아무도 수십만명의 젊은 여성노동자들을 희생시키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그들의 고통과 투쟁은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민중의 출현의 전제조건이 됐다. 민주화운동 발전의 논리가 전개되면서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활동이 실질적 기여를 했다. 그들은 확장된 인권과 민주주의 개념으로 반정부의식을 고취했고, 야당그룹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운동의 중심에 있는 민중의 정체성은 상당 부분 여성 공장노동자들의 고통과 그들을 도우러 온 수십개 그룹들의 결집에 뿌리를 뒀다. 미리엄 칭윤 루이가 이해하듯이, “민중운동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자연발생적으로 정치화하면서 계급연합적 민중운동에 노동계급 지향성을 부여하는 종합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 결합했다.”⁷²⁾ 10년 간의 참여와 목적 이후에 조지 오글 역시 여성 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이 민중의 의식을 변화시켰고 1980년대 노동운동의 기반을 닦았다고 결론지었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산파이기도 했던 외에,⁷³⁾ 이 투쟁은 이후에 동남 아시아에서 등장한 비슷한 운동의 모델이 됐다.⁷⁴⁾

민중의 산파로서 여성

20세기 초반 조선이 산업화될 때 여성은 그 중심에 있었고, 1930년대 공장 노동자의 61퍼센트를 차지했다.⁷⁵⁾ 박정희의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의 공격적인 수출주도 발전프로그램으로, 수십만 명의 어린 여성들이 도시중심지로 이동했고, 항상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공장에 집중돼 있었다. 미국에서 유사한 과정은 20세기 초반 로월이나 로렌스 같은 지역에서 일어났고, 거기서 빵과 장미 파업은 여성들의 노동에 노동조합과 약간의 정의를 실현했다.

한국에서 노동조합원은 1961년 150,000명에서 10년 후 500,000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대기업 작업장이 1970년 500,000명의 여성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조들은 남성들에게 영합한 회사측(또는 “황색”) 노조였다. 여성 산업노동자의 숫자는 1978년까지 1,090,000명, 1987년까지 1,862,000명으로 증가했고 전체 산업노동자의 40.5퍼센트였다.⁷⁶⁾ 이들 “공순이”(미국 식으로 말하면 리벳공 로시 Rosie the Riveter)는 한국의 기적에 엄청나게 중요했고 1970년대 초반 전체 수출의 거의 2/3를 차지했다.⁷⁷⁾ 한국의 만혼 패턴은 독신여성들이 저임금 장시간 교재그눔에 특히 취약하게 했다. 1961년에서 1982년까지 20세와 24세 사이 한국 여성들의 60퍼센트 이상이 미혼이었고, 이에 비해 인디아는 10퍼센트 이하, 타일랜드는 대략 40퍼센트였다.⁷⁸⁾ 대부분 이 여성노동자들은 섬유, 직물, 의류, 전자산업에 집중돼 있었고 노동조합이 불법이고 일당이 500원(그 당시 1달러는 480원)인 자유무역지대에 집중돼 있었다. 한국이 도시화하면서, 5백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1975년 임금 노동자였고,⁷⁹⁾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

71) Ibid., 51.

72) Louie, “Minjung Feminism,” 418.

73) See Nam Jeong-Lim, “Women’s Labor Movement, State Suppression, and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8, no. 1 (2002): 71-5.

74) Chung, “Together and Separately,” 24.

75) Ibid., 21.

76) Kang and Lenz, *Wenn die Hennen krahnen*, 45.

77) See Walden Bello and Stephanie Rosenfeld, *Dragons in Distress: Asia’s Miracle Economies in Crisis* (San Francisco: Food First Books, 1990), 25; Hart-Landsberg, *The Rush to Development*, 181.

78) Bello and Rosenfeld, *Dragons in Distress*, 28.

운동의 전면에 나섰다. 대학 캠퍼스에서도 여성들은 점차 자기확신을 가졌고 자신들의 장울적 센터를 건설할 필요성을 의식했다. 1975년 <여성인권선언>이 발표됐다. “여성 o 해방운동의 목적은 문화혁명과 인간해방이다. 우리는 남성의 정치적 고려에서 기원한 채 여성의 지위향상만을 지향하는 제한된 개혁을 거부한다. 우리는 억압과 위계제의 모든 개념을 부정한다. 더 커다란 시각에서 우리의 목표는 여성만이 아니라 남서도 포함하는 인류 전체의 해방에 기초한 공동체를 수립하는 것이다.”⁸⁰⁾ 전남대학교에서도 여성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기 시작했다. **임전희**는 평등, 성차별 폐지, 여성참여 증가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여성연구그룹을 조직했다. 공과대학에는 심지어 여성화장실조차 없었다.⁸¹⁾

1976년 동일방직에서 수백명의 여성들이 노동조합의 도움을 바랬지만, 회사측에 충성한 남성 노동자들은 황색 노조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밀실 모임을 열었다. 여러 해 동안 노조를 정상화하려 한 이후 여성들은 이미 충분히 참았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부수고 회의실을 점거했다. 3일 후 전투경찰이 그들을 몰아내려고 진입했지만, 약 70명의 여성들이 옷을 벗고 경찰이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인간 바리케이드를 구축했다. 그 이후 여성들은 여러 달 동안 노조선거를 위해 조직을 했고 그들이 계획한 날 새벽 6시에 투표를 준비한 여성 노동자들과 노조 지도자들은 똥물통을 든 남성 노동자들과 회사측 강패들에게 공격받았다. 수백명의 야간조 여성노동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똥물을 뒤집어 썼고, 일부 강패들은 사람들의 입에 강제로 똥을 먹였다. 100명 이상의 여성들이 해고됐지만, 그들은 굴복하길 거부했다. 1978년 3월 10일 한국노총 창립을 축하하는 장충체육관의 “노동절” 행사에 참여했다. 수천명 이상이 생방송으로 구경하고 있었다. 갑자기 66명의 여성들이 외치기 시작했다.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 경찰과 한국노총 강패들은 여성들을 세 번이나 공격했고, 그들 대부분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알렸다. 4월 1일 124명의 여성이 더 해고됐고, 한국노총은 그들의 이름을 포함한 전국적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다른 곳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했다. 비록 직장은 잃었지만, 그들은 단식농성, 공식행사장 항의를 통해 정의를 위한 투쟁을 계속했고, 수십만명이 참석한 부활절 새벽예배에서 연설하기도 했다.⁸²⁾ 전국적으로 중계된 노동자 행사에서 그들은 진행을 방해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똥을 먹고 살 수 없는지”를 설명했다. 여러 해 동안 그들은 투쟁을 계속했다. 1980년 5월 13일에도 동일방직 여성들은 한국노총 행사에서 다시 한번 항의했다. 동일 여성들의 용기는 이화여대에서 새로운 여성학연구 프로그램과의 대화를 자극하는 데 기여했다. 노동조합 여성들과 대학생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운동은 언급되지 않은 이슈를 다루고 미래의 행동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1979년 8월 최소한 4천명의 어린 여성 섬유 노동자들이 YH무역에서 한국계 미국인 사장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직업을 잃었다. 그로 인해 일어난 극적인 사건은 한국에 영향을 줬다. 도움을 구한 약 170명의 노동자들은 야당인 신민당 본부에서 농성을 벌였고 정부는 수백명의 경찰을 보내 그들을 공격했다. 난투극 와중에 야당 정치인과 기자들을 포함한 수십명이 부상을 당했고 한 젊은 여성 노동자 김경숙이 죽었다. 경찰폭력에 항의하기 위해 신민당 지도자 김영삼과 18명의 당원들은 18일간 당사 농성을 벌였다.

79) Seungsook Moon, *Militarized Modernity and Gendered Citizenship in South Korea*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5), 71. “Economically active women” includes both employed and unemployed women looking for work.

80) Quoted in Mikyung Chin, “Self-Governanc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Feminist Movement in South Korea,” in *Democracy and the Status of Women in East Asia*, eds. Rose J. Lee and Cal Clark (Boulder, CO: Lynne Rienner, 2000). Ok Jie Lee wrote that “manipulation of gender relations has been one of the important ways of maintaining effective control of workers.” See her “Labor Control and Labor Protest in the South Korean Textile Industr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1990).

81) Interview with Im Chun-hee, December 21, 2001.

82) Jeong-Lim, “Women’s Labor Movement,” 77.

여성들의 운동은 상호 증폭 과정에서 다른 반정부 흐름들과 공명했다. 유신체제 종식을 위한 호소는 모든 곳에서 들을 수 있었지만, 집권당의 아무도 듣는 것같지 않았다. 1978년 6월 27일 전남대학의 교수 11명이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그들은 경찰서에 소환돼 구속됐다. 수백명의 학생들이 항의하자 경찰은 캠퍼스에 침입해 합법성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려 없이 학생들을 구타하고 체포했다. 3일 동안 항의는 계속됐다. 7월 5일 경찰은 3백명의 민주주의 전국연합 회원들이 서울의 기독교회관에 모임을 갖지 못하게 막았다. 12월 전국선거에서 신민당은 민주개혁과 유신종식의 공약으로 박정희의 공화당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

농민들도 자신의 심각한 상황을 알려야만 했다. 특히 도시화로 가족농이 급속하게 사라졌다. 농민들에게 대한 정부가 약속은 노동자들에게 했던 약속처럼 허구였다. 전라남도 함평군에서 카톨릭 농민회가 조직한 고무가 농민들은 정부가 모든 작물을 합의한 가격에 구매하지 않자 이에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1977년 4월 22일 약 600명의 농민들이 광주 계림동 교회에 모여 적절한 가격보상과 정부측 농업협회의 민주화를 요구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길 헛되게 기다리던 그들은 마침내 수확한 고무마로 고속도로와 지방도로를 봉쇄했다. 1978년 5월 유신정권은 물러났고 약속을 지키기로 합의했다.

한국 전역에서 작은 집단들이 다른 수단들, 예를 들어 독서클럽 결성을 통해 저항했다. 1978년 부산에서 “양서조합”이 설립되자 곧 200명의 회원이 모였다. 소련 지하 체코슬로바키아의 “재즈클럽”처럼 비공식적 소모임 장소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만날 기회 뿐만 아니라 의견과 전망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제공했다. 부산의 클럽은 10년 이상 투쟁을 지도할 활동가들을 생산했다. 1968년 카톨릭 메델렌 회의에 관해 읽은 송기인은 해방신학에 깊은 인상을 받아서 카톨릭 사제/활동가가 됐다. 중정에 48번 이상 체포됐음에도 그는 교회의 내부 지성소가 제공하는 은신처를 이용하여 토론을 이끌고 모임을 열었다. 비록 그 당시에 모호한 노동변호사였던 노무현 대통령 역시 “양서조합”의 조합원이었다. 곧 공동의 커리큘럼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유신에 반대하는 운동의 소식에 관한 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내는 전국적 네트워크가 출현했다.⁸³⁾

김영삼은 YH 노동자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고 국회에서 다른 신민당 의원들과 함께 쫓겨났다. 김대중에 충성한 의원들도 연대해 사임했다. 1979년 9월 4일 유신에 항의한 수십명의 학생들이 체포됐고, 그 달말까지 서울에서 수천명의 학생들이 거리에서 더 많은 자유를 요구했다. 그러나 유신체제에 대한 최후의 일격은 가한 곳은 부산이었다. 의식하진 않았지만 YH 투쟁은 유신체제의 최종적 위기, 부마항쟁과 박정희의 종말로 상승했다.⁸⁴⁾

부마봉기

김영삼의 고향지역인 부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민당 축출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지만, 박정희는 거만하게 그가 무기의 힘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영원히 강제할 수 있다고 거만하게 믿었다. 학생들이 동원하자, 박정희는 군대를 불러들였고 계엄령을 선포했다. 시위대의 갑작스런 인기는 모두를 놀라게 했고, 특히 10월 15일 익명의 반유신 유인물을 썼던 이진걸 등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을 놀라게 했다.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을 누군가 본다며 틀림없이 감옥에 갈것이니까 이진걸과 몇몇 친구들은 부산대학교의 휴게실, 복도, 힌 강의실에 약 90부

83) 83 Interview with Kim Ha-gi, Busan, October 31, 2009

84) Prior to the Korean government's change of the transliteration system from Hangeul to English, Busan was known as Pusan. "Puma Uprising" referred to both Pusan and Masan. Since the change, the same uprising is sometimes renamed the Buma Uprising.

의 유인물을 몰래 뿌렸다.⁸⁵⁾ 유인물은 사람들에게 다음 날 10시에 유신에 항의하기 위해 도서관에 모이라고 호소했다. 서로 몰랐지만 정관민 역시 비슷한 유인물으르 만들었다. 다음 날 정관민은 경제학 세미나실 그의 자리에서 일어나 동료학생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학우들, 나가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자!”

정관민이 문을 밀고 나오자 몇몇 학생들이 그를 뒤따랐고 그들은 모두 다른 학생들에게 같이 가자고 외쳤다. 그들이 도서관 앞에 도착할 무렵 1백여명의 학생들이 합류했다. 그들은 애국가와 민중가요를 불렀고 몇분 안에 2백여명 이상이 모였다. 정관민은 일어서서 유인물을 요약해서 낭독했다. 보수적 교수들과 잠복 경찰이 그를 중단시키려고 했지만, 시위대는 캠퍼스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학생들의 긴 줄이 움직였다. 시위대가 건물을 지나면서, 폭발적 순간에 모든 건물에서 학생들이 합류하면서 대열은 늘어났다. 한 시간 안에 1천명, 곧 2천명이 모였고 결국 1만명 이하의 학교에서 약 4천명이 모였다.

정관민은 시위대 일부를 고등학교 근처의 정문을 통해 캠퍼스 밖으로 이끌려고 노력했지만, 경찰이 그들을 밀어붙였다. 자연발생적으로 사람들은 후퇴했고 그런 다음 자연발생적으로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세 개의 문을 통해 캠퍼스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경찰은 다시 한번 정관민의 그룹을 해산시켰고 이번에 최루가스를 사용했다.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몇백명이 도서관에 모였다. 다른 문에서 몇천명은 거의 정문을 돌파할 뻔했지만,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세워 그들을 캠퍼스에 묶어뒀고 학생들은 축구장으로 후퇴했다. 경찰이 캠퍼스로 진입하자 학생들을 돌을 던지며 대응했고 농구대로 바리케이드를 세웠다. 그런 다음 학생들은 경찰을 밀어붙이고 시내로 향해 거의 10마일 정도 나아갔다. 일부는 버스를 탔고 대다수는 한데 뭉쳐 행진했다. 그들이 몇 마일을 걸어 시내로 행진하자, 그들을 본 시민들은 학생들에게 환호했고 그들에게 음료수와 간식, 돈까지 줬다.⁸⁶⁾ 수천명이 더 가담해 대열은 늘어났고 지역주민들은 그들을 보호했다. 활동가 김하기는 필자에게 그의 친구가 경찰에게 쫓기자 슈퍼마켓에 숨어들었다고 말했다. 주인은 재빨리 셔터를 내리고 밖으로 나갔다. 경찰이 도착하자, 그는 “이봐 사촌, 안에는 아무도 없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곳으로 추적하려 이동했다.

오후 3시에 행진대는 도심 남포동(1960년 이승만을 타도한 봉기가 시작된 시위 장소)에 도착했다. 최소한 3만명이 집결했다.⁸⁷⁾ 경찰은 군중을 작은 그룹으로 나누게 했지만, 5시경 사람들은 다시 모여 태극기를 내린 상태에서 애국가를 불렀다. “보통 우리 학생들은 애국가를 싫어하지만, 그날 우리는 기쁘게 애국가를 불렀다”고 김종호는 설명했다.

의식이 마무리되자 사람들은 앞으로 몰려나갔고 경찰이 공격했지만, 그 때는 경찰이 밀어붙이기에 너무 늦었다. 사람들은 경찰차를 전복시키고 경찰서를 태웠으며 군중은 새벽까지 거리를 지배했다. “도시 전역에서 작은 그룹들이 한데 뭉쳐, 정보를 교환하고 계획을 세우고 꿈꾸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꿈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했다.”⁸⁸⁾ 창녀들도 그들에게 환호했고

85) Interviews with Ko Ho-sok, Chung Kwan-min, Song Gi-in, Kim Jae-kyu, Kim Jong-ho, Busan, May 30-1, 2001.

86)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Materials, Gwangju City May 18 Historical Materials Compilation Committee 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위원회, 5.18 광주 민주화운동자료총서), December 17, 1997, VII: 405. (Hereafter GDMM).

87) Gi-wook Shin puts the number at fifty thousand (Peasant Protest, 117). A Yushin spokesperson described the demonstrations as involving only three thousand students and “hoodlums,” by which he meant young men who hang around the port.

88) Interviews with Kim Ha-gi, Busan, May 30, 2001.

호텔에 있던 사람들도 그랬고, 젊은이들이 “유신타도!” “독재타도!” “김영삼 복권!”을 외치자 그들에게 “색종이 테이프 퍼레이드”의 영웅인 것같은 느낌을 줬다. 상점주인들은 사과와 빵을 나눠줬다. 빈민과 룸펜들도 거리 투쟁에 합류했고 한 시점에 그들은 사람들을 세무서로 이끌고 가서 불을 질렀다. 10여대 이상의 경찰 차량이 공격받았다. 자저의 통행금지와 군대의 주둔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도심에 머물렀다. 새벽 1시까지 11개 파출소가 파괴됐다.⁸⁹⁾ 새벽이 다가올 때까지 4백명이 체포됐고 600명이 부상당했다.⁹⁰⁾ 지도자도 없고 최소한의 폭력이 사용됐음에도 시위대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 중의 하나를 거부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이 주목했다.⁹¹⁾

다음 날 오전 10시에 동아대 학생들이 새로운 시위를 조직했다. 도시 중심가 가까이 있던 그들은 캠퍼스에서 중심가로 평화집회를 이끌었다.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은 압도적으로 학생들을 지지했고, 학생들에게 돈과 먹을 것, 물을 줬다. 이런 지지에 힘입어 시위대는 밤까지 버텼다. 보다 전투적인 시위대는 박정희의 지배를 상징하는 구조물을 세웠다가 거기에 횃불을 붙였다. 9시경까지 두 개의 TV방송국(KBS와 MBC), 지역세무서와 다른 관공서들이 파괴됐고, 여기에는 21개 경찰서도 포함됐다. 이들 간의 시위로 1,058명이 체포됐고 아마도 같은 수자가 부상당했다.⁹²⁾ 미국 대사관은 12,000명이 두 개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공격했다고 주장했고 800명 체포와 경찰관 79명 부상의 신문보도를 되풀이했다.⁹³⁾ 10월 18일 이른 아침에 부산에 계엄령이 선포됐고 군부대는 시청과 방송국 주위에 주둔했다. 모든 주요 대학에서 수업이 취소됐다. 한 활동가가 말했듯이, “학생처럼 보이는 누구든지 체포되고 구타당했고, 그래서 우리 모두 집으로 갔다.” 작은 시위대는 쉽게 깨졌다.

부산은 진정됐는지 모르지만, 시위는 이웃 마산으로 퍼졌다. 마산에서 다시 한번 학생시위대가 광범한 지지를 얻었고 풀뿌리 시민들의 봉기를 자극했다.⁹⁴⁾ 마산의 4.10 기념탑에 모인 1천명 이상의 경남대 학생들이 5시경 시내로 행진했고 전투를 벌이면서 민주공화당 지역당사로 나아갔다. 조직가들은 동원의 타이밍을 주의깊게 조정해 사람들이 수출자유무역지대 근처에 있게끔 했다. 거기에 많은 노동계급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⁹⁵⁾ 행진대오가 나타나자 수천명이 합세해서 박정희의 공화당사와 다른 18개 건물을 공격했다. 하지만 그들은 증오하는 유신체제와 연루되지 않은 다른 건물이나 병원은 그냥 뒀다. 봉기의 성장에 직면해 정부는 계엄령을 마산으로 확대했고, 군대는 238명의 시민을 체포했다. 마산을 진압하기 위해 1,500명의 군인들이 거리를 순찰했다.

부마봉기 나흘 동안 최소한 1,563명이 체포됐고 거의 1/3이 학생이었다.⁹⁶⁾ 겨우 4일 동안 부사봉기는 처음으로 가두의 자유를 맞본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다. 투쟁은 미래에 운동을 이끌 남녀 활동가들을 생산했다. 박계동 같은 몇몇 사람들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됐다. 노무현 같은 활동가는 대통령이 됐다. 작가 김하기는 평생 활동가가 됐다. 전

89) May 18th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Gwangju,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c Uprising* (Gwangju: May 18th Memorial Foundation, 2001), 73.

90) Shin and Hwang, eds. *Contentious Kwangju*, xiii.

91) Interview with Cha Sung-hwan, Busan, October 31, 2009.

92)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Christian Church in Korea during the 1970s*, 109.

93) *GDMM VII*: 395, 407.

94) Cha Sung-hwan, *참여 노동자를 통해서 본 부마항쟁 성격의 재조명*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2009).

95) Interview with Yoon Won-chol, Masan, October 29, 2009.

96) *May 18th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75; The U.S. embassy reported a slightly higher figure of arrests at 1568 arrests reported on November 29. *GDMM VII*: 69. Although the protests occurred in October, Cumings curiously states they occurred in August and September of 1979 (“Civil Society,” 23).

라남도 광주봉기 동안인 1980년 5월 19일 부산의 한 지붕 위에서 봉기자들을 지지하는 전단을 뿌린 혐의로 체포되어 고문당한 김하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1987년 6월항쟁에 관해 글을 썼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부마는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그에게 부마항쟁은 “민중들이 운동을 지지한 프랑스 혁명”같았다. “과거에 우리는 항상 실망했지만, 이번에 시민혁명이 진짜로 일어났다. 마치 죽은 자들이 돌아서 산 자들을 돕는 것같았다.” 김하기는 10월 16일 정민관이 기념비적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도왔었다. 김하기처럼 정민관도 부마의 경험으로 평생 동안 활동하는 궤적을 밟았다. 여러 해 동안 사회과학서점 운영을 돕다가 노동활동가가 됐다.

부마항쟁의 주요한 결과는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이었다. 언론은 슬픔과 충격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축하했다. 수천명의 죄수들이 석방됐고, 정지된 학생회가 복권됐고 미국관리의 말로 부항항쟁으로 제명된 793명의 학생들이 “영웅으로 캠퍼스로 돌아왔다.”⁹⁷⁾ 박정희는 철권으로 거의 20년 동안 지배했고, 일단 그의 통제가 사라지자 온 나라는 보다 편하게 숨쉬게 됐다. 민주주의와 시민적 자유의 회복에 대한 희망이 커졌다.

심지어 박정희의 통치가 끝나기 전에도 한국은 엄청나게 변화했다. 그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한국은 압도적으로 농촌기반 농업국가였지만, 20년 안에 도시 산업사회가 됐다. 영국에서 한 세기가 걸렸던 것이 한국에서 20년이란 짧은 시간에 일어났다. 1979년 TV를 보유한 가구 수는 1970년의 13배 이상이었다.⁹⁸⁾ 유신이 엄격하게 강제한 청교도적 도덕에도 불구하고, 섹스혁명은 진행되고 있었고,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패션이 유행했고, 젊은이들은 경찰이 자를 것보다 더 빨리 장발을 길렀고, 여성들은 경찰이 뻔뻔하게 괴롭혀도 미니스커트를 고집했다.

전두환의 12.12 쿠데타와 서울의 봄

독재이 종식으로 전개된 사건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두환과 노태우의 지도 아래 38명의 소규모 육군장교 집단이 1070년 12월 12일 군대통제권을 장악했다. 그들은 수십명의 장교들을 체포하고 육군본부 건물을 지키던 최소한 4명의 사병을 살해했다. 소수의 고위 장교들은 거리를 가로지는 터널을 통해 미군 벙커로 도주했고, 거기서 합동참모부 사령관 존 위컴 장군과 의논했다. 용산의 미군사령부 벙커에서 국방장관 노제현과 합참의장 김종환은 전두환에 맞서기 위해 군대를 서울로 이동하라고 명령했지만, 위컴은 그들에게 새벽까지 기다라고 촉구했다.⁹⁹⁾ 해가 뜰 무렵, 전두환은 기갑부대를 주요 지점에 배치했고 군부에 대한 그의 통제는 기정사실이 됐다. 며칠 후 전두환은 위컴과 미국대사 윌리엄 글라이스틴을 방문했다. 모임 직후 위컴은 파일을 검토하고 전두환이 박정희가 매그루더 장군에게 보냈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부패를 척결하고 병영으로 복귀할 것이다. 우리를 믿어달라.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보라. 그러면 언젠가 우리를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¹⁰⁰⁾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97) 97 GDMM VIII: 495. Ominously the U.S. secretary of state's office twice requested the names of these students for indexing. GDMM VIII: 680.

98) Lee, *The Making of Minjung*, 151.

99) Mark Peterson, “Americans and the Gwangju Incident: Problems in the Writing of History,” in *The Gwangju Uprising*, ed. Donald N. Clark (Boulder, CO: Westview, 1988), 57; Wickham acknowledged that some of his U.S. officers also wanted to stop the coup.

100) *Ibid.*, 58.

한국의 미래에 대해 계속 낙관적이었다. 취약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임시정부는 의사결정의 외관이었지만, 무대 뒤에서 전두환과 군부가 통제권을 확고하게 장악했다. 2월 19일 김대중이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자 연설여행을 시작해 5만명에서 10만명의 군중을 끌어모으면서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박정희 암살 이후 폐쇄됐던 대학들은 3월 다시 열었고, 과거 금지된 학생회가 재소집됐다. 글라이스틴의 추정으로 “군부 쿠데타나 대규모 학생/노동자 봉기같은 위험한 소요의 가능성은 높은 것같지 않다.”¹⁰¹⁾

비록 박정희는 갔어도, 계엄령은 여전히 발효중이었고 시위가 불법이었지만, 시위는 더욱 구체적으로, 특히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1980년 1월에서 5월까지 900건의 파업이 집계됐고, 특히 광부, 섬유노동자, 기계공, 의약품 노동자들이 주도했으며, 유신체제 7년간 일어난 파업보다 더 많았다.¹⁰²⁾ 평화시장의 의류노동자들은 28퍼센트 임금인상을 쟁취했고, 은행과 금융 노동자들도 농성파업 이후 15퍼센트 소급인상을 쟁취했다.¹⁰³⁾ 부산에서 동국제강 노동자들은 전투적으로 경영진에 대항했고, 심지어 한국노총 내에서도 개혁운동이 등장했다. 4월 21일 사복에서 약 7백명의 광부들은 노조가 협상한 20퍼센트 임금인상에 불만을 가졌고 보복을 두려워했지만, 파출소를 제압하고 광산에서 통제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했다. 투쟁을 결의한 광부들은 4월 24일 새로운 협약에 합의할 때까지 버텼다.

5월 2일 서울대학교에서 비상 학생총회가 소집돼 13,000명 학생 가운데 10,000명이 참석했다. 이 포럼에서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현했지만, 학생들은 유신종식, 계엄령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면적 정치투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교련반대투쟁을 포기한다는 학생회의 결정을 승인했다. 학생들은 대학정문 쪽으로 행진한 다음 전두환 허수아비를 불태웠다.¹⁰⁴⁾ 성균관대와 서강대에서 학생회는 비슷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곧 전국적으로 27개 학생회가 전국적 투쟁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했고 그들은 5월 14일과 15일 서울에서 계획된 대규모 시위의 동원에 견인차가 됐다. 미국 대사관은 학생들이 발표한 호소를 번역했다. “우리 앞에 남아있는 과제는 이제 지난 20년간 독재정권을 지지한 외국열강을 완전히 몰아내고 매관료들과 경제집단을 청산하고... 경제자립을 성취하여 유신체제의 잔재로 왜곡된 종속된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다.”¹⁰⁵⁾

5월 9일 글라이스틴은 박정희가 살해된 바로 그 동일한 “안가”에서 전두환과 만났다. 회담을 준비하던 글라이스틴은 워싱턴에 “어떤 경우에도 미국정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군대로 경찰을 강화함으로써 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한국정부의 비상계획에 반대한다고 암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¹⁰⁶⁾ 자신의 말대로 글라이스틴은 전두환에게 “정부는 법과 질서를 유지할 준비해 해야 했다”는 점을 전두환에게 상기시켰다.

101) GDMM, VIII: 550, March 12, 1980.

102) Stephen Haggard and Robert Kaufman, *The Political Economy of Democratic Transi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87. Also see Lee, “Militant Unionism in Korea,” 164. Labor Administration reported the number of labor disputes rose from 105 in 1979 to more than 700 by April 24, 1980, almost seven times the number reported in all of 1979. See Chung Sangyong, Rhyu Simin, et al., *Memories of May 1980: A Documentary History of the Kwangju Uprising in Korea* (Seoul: Korea Democracy Foundation, 2003), 64. Some figures are even higher: 1011 disputes and 745 strikes. From 5-8 관련 논문과 작품 영역 및 저술 사업: 2001. 5-8 20주년 기념 학술연구사업 연구소위 (Gwangju: 전남대학교 5-8 연구소: 2001) hereafter Essays, 58, and Ahn Jean,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the Gwangju Uprising,” in *South Korean Democracy: Legacy of the Gwangju Uprising*, eds. George Katsiarcas and Na Kahn-chae (London: Routledge, 2006), 45.

103) GDMM, VIII: 701.

104) Sangyong, Simin, et al., *Memories of May 1980*, 64.

105) GDMM, IX: 129.

106) William H. Gleysteen Jr., *Massive Entanglement, Marginal Influence: Carter and Korea in Crisi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9), 114-5.

5월 14일 정오 최소한 34개 대학 7만명의 학생들이 서울 도심에 집결했다. 같은 시가 글라이스틴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와 만나고 있었는데, 미국대사는 미국이 학생 시위에 특수부대 사용에 “어떤 반대도 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¹⁰⁷⁾ 사무실로 돌아온 글라이스틴은 행진이 깨지자 학생 시위대가 미국대사관 주위가 낮은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의 말로, 경찰이 너무나 많은 최루가스를 사용해서 “우리 건물도 최루가스로 질식하고 있었다.” 글라이스틴은 전투적 학생들이 미국대사관에서 수십명의 인질을 잡았던 이란 사태에 대해 너무 우려해서, 워싱턴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이 사건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그날 늦게 다른 학생들은 당시 한국노총 건물을 점거하고 있던 동일방직 노조 활동가들을 방문했다. 연대를 표한 외에, 학생들은 전두환의 12.12 쿠데타의 실상에 대해 설명했고 노동자들에게 시위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위참여가 한국노총 개혁투쟁을 침해할 것이라고 생각한 노동자들은 학생들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¹⁰⁸⁾

다음 날 글라이스틴은 자신의 추산으로 80,000명이 모인 집회는 경찰이 공격하자 훨씬 더 전투적 태세를 취하는 것을 목격했다. 다른 사람들은 서울역에 모인 군중이 100,000명 이상의 학생이라고 집계했다(일부 추정은 150,000명이라고도 한다.)¹⁰⁹⁾ 글라이스틴은 여러 대의 최루가스 발사용 트럭이 불탔지만, 대사관 건너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최초의 미스코리아 대회를 시위대가 저지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¹¹⁰⁾ 수만명이 청와대를 향해 몰려갔지만, 지도자들은 시위대를 다시 시내로 돌리기로 결정했다.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기념일인 다음 날, 정부는 시위가 계속되면 군사행동을 취할 것이라 경고했고, 학생지도자들은 시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55개 대학의 100명 이상의 학생 지도자들은 향후의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이화여대에 모이자 경찰이 들이닥쳐 95명을 체포했다. 나머지는 도망쳐서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

5월 15일 위컴은 “워싱턴의 상관들과 협의한” 다음 한국군 20사단을 미군 작전통제권에서 방면하여 그들을 광주에 파견하는 데 동의했다.¹¹¹⁾ 그 날 밤 광주 도청 앞 광장에 5만명이 횃불을 들고 모였다. 독재에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맹세한 시위대는 만약 대학이 폐쇄되면 5월 18일 오전 10시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모이기로 약속했다. 한국의 나머지 지역에서 학생들이 투쟁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반면, 전라남도에서 학생들은 새 독재세력의 위협을 거부했다. 비록 한국은 민주주의를 위한 준비가 되어있었고,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르익었다”고 하지만, 전두환은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미국인 지지자들은 단호하게 전두환의 뒤에 섰다. 대규모 대치의 무대가 마련됐다.

107) Ibid., 118.

108) Sangyong, Simin, et al., *Memories of May 1980*, 53; interview with Won Young-su, Gwangju, 2009.

109) Shin and Hwang, eds., *Contentious Kwangju*, xiv, Park, *Democracy and Social Change*, 71, and Won Youngsu in *Facts on File* say over one hundred thousand. Cumings maintains that “hundreds of thousands of students and common people flooded the streets of Seoul.” See also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 *What Is in a Rim?*, ed. Arif Dirlik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1998), 132.

110) Gleysteen, *Massive Entanglement*, 119-0, incorrectly named it the Miss Universe contest.

111) United States Government Statement on the Events in Gwangju, Republic of Korea, in May 1980. Articles 49.

[번역] 조지 카치아피카스,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1권

조지 카치아피카스, George Katsiaficas,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Asia's Unknown Uprisings,
1권: 20세기 남한의 사회운동 Volume1: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in the 20th Century

6장 광주민중항쟁

봉기의 시작 | 5월 21일: 투쟁의 격화 | 해방광주: 사랑의 권력 | 해방광주의 직접민주주의
| 봉기의 확산 | 시민위원회 내부의 갈등 | 투쟁의 체계화 | 군사조직 | 봉기의 계급역학 |
여성과 봉기 | 최후의 나날 | 우리 함께 가자 이 길을 - 김남주

이 절대적 공도옛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했고, 서로를 축복했고 모든 사회적
속박과 제한으로부터 절대적 해방을 경험했다. 이 순간 많은 시민들은 그런 극도의 엑스터
시에 빠져들어 그 때 그 자리에서 죽어도 신경쓰지 않았고 투쟁은 축제로 변했다.

- 최정운

시민들 사이에 따듯한 유대와 자기통제적 질서를 가진 자율적인 민중 공동체는 격렬한 저항
속에서 꽃핀 인간적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줬다.

- 박형규 목사

일지

1980년 5월 15일	100,000명 서울에서 시위
1980년 5월 16일	광주에서 햇불 시위
1980년 5월 17일	계엄령 제주까지 확대, 제7 특수여단 광주 파견
1980년 5월 17일	경찰 전국적으로 활동가 검속 실시
1980년 5월 18일	공수부대 전남대학교 점령
1980년 5월 18일	전남대생 공수부대와 충돌, 시내로 진출, 전투 발발
1980년 5월 19일	광주시민 쫓겨남, 군대 증원, 탱크와 화염방사기 사용
1980년 5월 20일	오후 6시30분경 택시 및 버스 기사들이 200대 차량으로 시위
1980년 5월 20일	오후 9시50분 MBC 방송국 화재
1980년 5월 20일	군인들 광주역에서 첫 발포, 2명 사망
1980년 5월 21일	오전 4시30분경 KBS 방송국 화재
1980년 5월 21일	오전 10시19분 세무서 화재
1980년 5월 21일	아시아 자동차 노동자들 시위대에 수십대 차량 제공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군대 금남로에서 발포
1980년 5월 21일	시민군 결성, 오후 3시20분 대응사격 시작
1980년 5월 21일	오후 5시30분 군대 도청에서 쫓겨남
1980년 5월 21일	불교신자들 석탄일 음식을 도시로 가져옴
1980년 5월 22일	시위가 목포, 나주, 화순 해남 등 전라남도 전역으로 확산
1980년 5월 22일	최초의 집회 개최, 총기와 포로 교환을 승인함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모임 봉기를 진압하기로 결정함

1980년 5월 23일	100,000명 이상이 민주광장에 모여 토론함
1980년 5월 23일	수습위원회 총기 200백정과 포로 34인 교환
1980년 5월 23일	비밀군부 첩보원이 다이너마이트 뇌관 제거
1980년 5월 24일	수습위원회 시민총회 사보타지 시도함
1980년 5월 26일	시민학생 투쟁위원회 구성
1980년 5월 26일	저명한 시민들의 “죽음의 행진” 탱크 시내 진입을 저지함
1980년 5월 26일	미군함 코럴시 호가 광주를 구하러 온다는 소문이 퍼짐
1980년 5월 26일	글라이스틴 미대사 개입을 요청받고 대답을 거부함
1980년 5월 27일	군대가 도시를 재장악함

옛날에 아르키메데스가 선언했다. “나에게 고정점을 달라. 그러면 지구를 움직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말해서 1980년 광주민중봉기는 그런 고정점이며, 남한에서 독재가 민주주의로 전환한 결정적 순간이었다. 여러 해 후에 그 에너지는 전세계에서 계속 공명하고 있다. 자유의 꿈이 아직 완수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광주의 역사는 미래의 자유로운 세계를 미리 보여주며 앞으로 경험할 긴 여행을 참아낼 영감을 제공한다.

수천명의 희생으로 형성된 광주민중봉기의 신화적 힘은 1980년 이후 처음 5년간 발휘됐고, 독재는 최소한 164명의 학살을 은폐하려고 했다.¹⁾ 광주코원이 무자비하게 진압당한 이후, 봉기의 소식은 너무나 전복적이어서 군부는 알려지지 않은 숫자의 시체들을 불태웠고 다른 시체들은 표지없는 무덤이나 바다에 버렸고 자체 기록마저 파괴했다. 봉기의 소식이 공개적으로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천명을 체포했고, 군부가 학살에 대한 속삭임마저 억압하려고 애쓰면서 수백명이 고문당했다. 1985년 광주봉기에 관한 최초의 책 수천부가 몰수됐고 출판인과 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체포됐다.²⁾ 군부의 검열에도 불구하고 비극은 시, 그림,

1) I We will never know how many people were killed. Many bodies were never found, and many of the missing were never accounted for. In 1980, Asia Watch estimated that over two thousand were kill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official number used to compensate the families of the dead is 164 people. In 1980, the Chun regime claimed 191 people, including 46 soldiers, were killed and an official U.S. briefing team that visited October 30-1 reported 2,522 killed.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Materials, Gwangju City May 18 Historical Materials Compilation Committee 광주광역시 5-8사료 편찬위원회, 5-8 광주 민주화운동자료총서), December 17, 1997, X: 626, 363. (Hereafter GDMM). Gwangju city statistics count over 2,600 people as having died in May 1980, exceeding the monthly average by 2,300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Lost Victory, 30). Gwangju city’s death statistics from 1976 to 1983, revealed on the floor of the National Assembly, were an average of 45 people per year from tuberculosis and 151 from “sudden, unnatural deaths” from 1976 to 1978. Both these numbers increased by 2,197, leading to the conclusion that slightly more than three thousand people died during the uprising (See Nicholas D. Kristof, “For Victims of Korea’s Ugly Years, A Time to Savor,” New York Times, December 5, 1995, 3; Tae Yang Kwak, The Gwangju Massacre and the Politics of Mythmak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97], 46-9). Ahn Jong-chol, who worked for both the Gwangju city government and national government in Seoul, believes the best numbers are five hundred killed and over three thousand wounded. Once democracy was established in Korea, the government’s compensation board awarded money to people who could prove impact. They announced 246 dead, 3,549 arrested, 64 missing. These numbers do not include people like Park Kwan-hyun, leader during the uprising of CNU student government who died of a hunger strike in prison in 1982. Nor do they include many people who simply vanished, or those killed whose families did not want to register with the government. Many eyewitnesses have testified bodies were secretly buried, and others report secret sea burials. Yoon Young-kyu told me that the Mudeung Orphans Center was practically empty after the uprising, and even though it had been previously overflowing, no one made an effort to locate the missing children (interview with Yoon Young-kyu, Gwangju, April 10, 2001). Finally, an application was filed in 2010 to make the uprising part of UNESCO’s world heritage sites in which the following statistics were given: 165 citizens and 27 soldiers were killed in and around Gwangju. Seventy-six people went missing, 3,383 were injured, and 1,476 were arrested. In addition, 102 people later died due to injuries incurred during the events.

2) Lee Jae-eui, Kwangju Diary: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Los Angeles: UCLA Asian Pacific

단편소설, 목각판화, 연극, 소설, 노래 등을 통해 폭로됐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아주 강력해서 군부에 의한 수많은 시민의 잔혹한 살해와 이후 사실의 억압이 마침내 알려지게 되자 정부는 곧 붕괴했다. 이재의가 표현했듯이, “1987년 한국 민중이 그 끔찍한 폭력을 아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광주에 저항 때문이었다.”³⁾ 전두환 대통령과 그의 군사정부는 1980년 5월 전투에서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민주화운동은 심지어 오랜 세월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군부독재의 변증법적 부정이 광주민중봉기였고, 혁명적 열망과 행동의 급속한 확산, 전투의 열기 속에 창출된 사랑의 공동체의 빛나는 모범이었다. 민중들의 상호 지원, 공적 공간의 에로틱한 점거, 도시가 거의 모든 사람을 단결시킨 사랑의 포용 등의 자연발생적 연쇄반응은 20세기에 수백만명의 보통사람들이 아름답고 우아하게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한 사례 중의 하나였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단결해서 생동할 수 있었던 곳은 별로 없었다. 기존의 가치(계급구분, 서열제, 소유)가 역전됨과 동시에 보편적 이해가 일반화됐다.

사회학자 최정운은 광주민중들이 공수부대의 야만행위와 싸워 구대를 도시 밖으로 몰아냈을 때 그들 사이에서 발생한 집단적 에너지를 묘사하기 위해 “절대적 공동체”란 개념을 개발했다. “이 공동체에서 사적 소유는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삶은 자기 자신의 삶만큼 중요했으며 시간은 정지했다. 이 공동체에서 차별은 사라졌고, 개인들은 하나로 결합됐고 공포와 기쁨이 뒤섞였다. 한 세계의 종말에 대한 비탄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에 대한 혼란과 공존했으며, 이 새 세계에서 감정과 이성 은 다시 태어났다... 인간 존엄의 직관적 성격은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행위와 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보다 더 커다란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행위에서 발견할 수 있다.”⁴⁾

비록 활동가 그룹들이 봉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한 시점에는 초기적 혁명정부를 구성하기도 했음에도, 광주 민중들은 직접적으로 스스로 통치했다. 그들은 군대를 도시 밖으로 몰아낸 사람들이었으며, 이 역사적 사건 전체의 핵심 주체를 구성했다. 움직일 수 없는 주체로서 그들은 휴전선 DMZ에서 파견된 정예 한국군 수천명을 패배시키기 위해 결집했다. 해방된 광주에서 민중들은 우리가 보통 꿈만 꾸는 방식으로 서로 자유롭게 협력했다. 군부의 잔학성의 악몽과 사람의 꿈이 동시에 공존했다. 전에 말한 것처럼, “그 때는 최상의 시기이자 최악의 시기였다.”

Monograph Series, 1999). This is the single best primary source in English and I highly recommend it.

- 3) Other English language sources I have relied on in my research include a collection of foreign journalists' accounts, *Gwangju in the Eyes of the World* (Gwangju Citizens' Solidarity, 1997), an enlarged edition was subsequently published as *The Kwangju Uprising: Eyewitness Press Accounts of Korea's Tiananmen*, edited by Henry Scott-Stokes and Lee Jae-eui (Armonk, NY: M.E. Sharpe, 2000). The above quote is from an article by Bradley Martin, in *The Kwangju Uprising*, 94. Also helpful was *The May 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May 18th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Gwangju City, 1999). Arnold A. Peterson's essay, "5:18 The Kwangju Incident," is contained in *아놀드 A. 피터슨, 5.18 광주사태* (서울: 풀빛, 1995). Last but not least, I have benefited greatly from the May 18 Institute's translation of documents and personal testimonies in 2000 (hereafter referred to in the footnotes as Documents). These were available in digital format. In some cases, I have tried to make the translations flow more easily.
- 4) Choi Jungwoon, *The Gwangju Uprising: The Pivotal Democratic Movement that Changed the History of Modern Korea* (Paramus: Homa and Sekey Books: 2006), 85, 131. In 2003, I met Professor Choi, and he expressed his surprise at the ways in which my concept of the eros effect matched the results of his own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Gwangju Uprising. His book was translated into English in 2006. After I read it, I couldn't have agreed more with his comparison of our work.

광주에서 민중들의 용기와 과감성이 기념비적이라 해도, 그들의 자치역량은 봉기의 결정적 특징이다. 내 견해로, 그것이 봉기의 가장 주목할 만한 단 하나의 측면이다. 수만명이 참여한 매일의 집회는 시민들이 직면한 주요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였고 행동을 취했다. 처음에는 전투의 열기 속에서, 나중에는 도시의 직접민주주의적 통치와 군대의 반격에 대한 최후의 저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 민중의 자기 조직화 역량은 우리의 정신을 확장시켜준다.

봉기의 시작

1980년 5월 14일 서울에서 7만명 이상이 학생시위에 참여하자 독재에 반대하는 거대한 감정의 분출이 광주, 부산, 마산 등 많은 도시에서 보고됐다.⁵⁾ 다음 날 1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서울역에 모였고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훨씬 더 강력하게 보여줬다. 많은 사람들이 군부를 타도할 때 됐다고 믿었지만, 학생지도자들은 시위를 계속하면 엄혹할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정부의 압박 아래 굴복했다. 학생 조직가들은 5월 17일과 18일로 예정된 투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군부가 계엄령을 종식하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일길 희망했다. 그 대신 전두환은 특히 광주를 포함한 모든 대도시에서 수천명의 전투부대를 보내 진압했다. 5월 14일 광주에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캠퍼스를 포위한 전투경찰 저지선을 돌파했다. 전라도 사람들을 도둑, 강패, 하층민으로 묘사하는 언론의 스테레오타입을 등에 업고 군대는 광주시민들을 자극을 수단으로 지역편견을 이용했다.

오후 7시 5월 15일밤에 광주에서 작은 그룹이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⁶⁾ 윤한봉은 도시 전체가 곧 “피바다”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시대의 징표를 읽었다. 한편에서 서울에서 권력을 장악한 무자비한 자들에 반대하는 광주의 자랑스런 민주적 정신이 그것이였다. 그는 동료 활동가들에게 범죄혐의로 사용될 사진과 편지를 없애고 무기고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경고했다. 윤한봉은 수백명이 사망할 것이지만 운동이 전남 도청을 장악하고 전국을 결집시키고 국제적 지원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도청을 사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한봉과 그의 동지들은 당시 결성 중인 전국조직인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민중연합의 회원들이었다.⁷⁾ 5월 19일 농민들이 2년전 함평 고구마 투쟁의 승리를 기념하러 오고 있었고,⁸⁾ 윤한봉과 정용화는 이 축하행사에서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⁹⁾ 윤한봉은 대구, 서울, 부산과 마산의 접촉선에 전화를 걸었고, 국내외에 발표할 공개 성명서를 썼고, 끝까지 투쟁하는 것의 지속적 정치적 효과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국민들이 거의 20년간의 독재로 이어진 박정희의 1961년 권력찬탈 같은 제2의 쿠데타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윤한봉은 1980년 민중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고 확신했고, 5월 20일로 예정된 국회 개막회의가 국내의 군사적 행동을 비난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임시대통령인 최규하는 중동에 있었고, 윤한봉은

5) 5 Ralph N. Clough, *Embattled Korea: The Rivalry for International Support* (London: Westview Press, 1987), 126.

6) Yoon Han-bong and I discussed this meeting at length in my interview with him on October 29, 2001. As he recalled, five of the eight people at the meeting that night became key activists in the uprising who helped organize the Citizen Student Struggle Committee. One of the people in attendance was Yoon Sang-won. Like many other well-known activists, Yoon Han-bong escaped from the paratroopers' initial invasion. He made his way to the United States, where he organized Young Koreans United with more than a dozen chapters. Also see his book, *윤한봉, 운동화와 똥가방* (서울: 한마당, 1996).

7) Yoon Sang-won was slated to be the Gwangju coordinator.

8) In 1978, farmers in Hampyeong (less than an hour's drive west of Gwangju) piled their sweet potatoes on the roads after the government failed to make good on its promise to buy their harvest. With the help of the Catholic Farmers' Association and popular support, the farmers won their struggle.

9) Interview with Chung Yong-hwa, June 19, 2002.

봉기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5~6일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윤한봉은 자신의 예측에서 초인적이었지만, 그의 일정보다 훨씬 앞서 수천명의 공수부대가 광주로 파견됐다.

5월 16일 남한의 나머지 지역이 조용한 반면, 광주에서는 약 5만명의 대하객들이 “민주광장”이라고 이름붙인 도청앞 분수대에 모였고 시내 중심가를 가로 질러 햇불행진을 벌였다. 광주의 학생들은 가장 최근에 학문의 자유를 지키려는 1978년 투쟁으로부터 풍부한 활동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육감적으로 최악의 사태를 대비했고, 그래서 그날 저녁 만약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5월 18일 오전 전남대 정문에서 모이기로 합의했다. 5월 17일 밤 군 첩보부 요원과 경찰은 시 전역에서 수십곳의 집을 습격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도자들은 체포했다. 잡히지 않은 활동가들은 지하로 들어갔다. 최소한 26명의 전국적 운동지도자들(김대중을 포함)이 검속됐다. 한 목격자에 따르면, “운동의 머리가 마비됐다.”¹⁰⁾ 다른 사람은 “학생운동의 지도기관은 마비상태에 있었다”고 썼다.¹¹⁾

워싱턴에 있는 상관들의 승인을 받아 한국군과 미군의 합참사령부(CFC)의 사장인 존 위컴 장군은 단련된 공수부대를 보냈고 전두환은 즉시 그들을 광주로 보내라고 명령했다. 같은 부대는 1년 전에 부산과 마산에서 운동을 분쇄했었다. 그 사이에서 많은 공수부대원들은 미국영화를 보고 시위대를 어떻게 진압하는 지에 대해 알았다. 그들이 지급받은 것과 똑같은 새로운 곤봉으로 쇠골을 강타하고 사람들이 도망가는 경우 군대가 발포했다.¹²⁾ 일단 부대가 광주에 도착하자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고 시민들을 야만적으로 불구로 만들고 가학적으로 굴욕을 줬다. 5월 18일 오전의 첫 대치에서 공수부대의 특수디자인 곤봉이 즐린 눈으로 수업을 받으려 가던 무방비 상태의 학생들의 머리를 부셨다. 시위대가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가 다시 모여 시내로 향했다. 그날 오전 학생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조직해서, 처음에는 수백명, 나중에는 수천명씩 경찰과 새로 도착한 군부대의 도시 점령에 항의해서 행진했다. 싸울 준비가 된 분노한 민중들은 산수동 로터리에서 45명의 전투경찰을 포위해서 잡았다. 한 동안 사람들을 포로를 어떻게 할지 논쟁했다. 그들은 곧 포로를 풀어주기로 결정했지만, 그들을 풀어주자마자 공수부대는 악랄하게 공격했다. “한 무리의 군대는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공격했다. 그들은 머리를 깨고 등을 짓밟고 얼굴을 발로 찼다. 군인들이 폭행을 끝냈을 때 그들의 모습은 피와 살을 뒤집어 쓴 것처럼 보였다.”¹³⁾

처음 죽은 사람은 귀머거리였다. 군인들이 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그는 목숨을 잃었지만 죽은 사람은 그 혼자만이 아니었다. 부상당한 사람들의 시체는 트럭에 실었고 군인들이 트럭에서 그들을 구타하고 발로 찼다. 학생들이 계속 다시 모이자, 군인들은 학생들에게 총검을 사용했고 수십명을 더 체포했는데, 그들 중 다수는 별거벗긴 다음 가혹하게 구타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어린 아나는 부모들에게 군대가 언제 오냐고 물었다. 어린 나이에 정치적 가치를 배웠던 다른 아이는 공산당이 군대를 장악했다고 절규했다. 한 군인은 잡힌 학생에게 총검을 휘두르면서 그들에게 소리질렀다. “이것은 내가 [베트남에서] 40명의 베트남 여성들의 젖가슴을 자를 때 사용했던 총검이다.” 시위대 측에서 일부는 “유신잔당을 몰아내고 김일성도 몰아내자!”고 외쳤다.¹⁴⁾

도시의 전주민은 공수부대의 과잉대응에 충격을 받았다. 공수부대들은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서 경찰서의 정보국장이 그들이 사람들을 폭행하는 것을 중지하려고 하자 그를 죽을 때까지

10) Lee Jae-eui, Kwangju Diary, 41.

11) The May 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121.

12) Choi, The Gwangju Uprising, 76.

13) Lee Jae-eui, Kwangju Diary, 46.

14) Lee, The Making of Minjung, 106.

지 총검으로 찢렸다.¹⁵⁾ 심한 구타와 수백명 체포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완강하게 마저 싸웠다. 한국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군대의 우월한 화력에 대응하기 위해 화염병이 처음으로 사용됐다. 녹두서점 뒷방에서 투척조가 조직됐다. 화염병을 어떻게 만들어 사용할 것인지 혼란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화염병을 더 얻으러 돌아왔고 다른 사람들은 준비에 참여했다. 곧 최루액 살포차량이 불길에 휩싸였다.¹⁶⁾

다음 날 학생들의 수자가 왜소하게 보일 정도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나왔다. 그 순간부터는 가두행동에서 학생들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¹⁷⁾ 이 자연발생적 세대의 민중운동은 시민과 대학생 간의 전통적 구분을 초월했고 반란의 일반화를 가리키는 첫 지표 중의 하나였다. 노동자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자 공수부대는 다시 한번 냉혹한 만행을 저질렀고 거리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불구자로 만들었다. 심지어 부상자들을 도우려는 택시와 버스기사들은 총검에 찢리고 구타당했고 때로는 죽기도 했다. 일부 경찰관들은 잡힌 사람들을 몰래 풀어주려고 하다가 총검에 죽었다.¹⁸⁾ 경찰서장이 부하들에게 시위대에 대한 발포명령을 내리길 거부하자 그는 서울로 끌려가서 고문당했다. 심지어 31사단 사령관 정웅 장군도 부대에 발포명령을 내리길 거부했다. 5월 18일 임시적으로 특수부대 2개 여단도 추가로 지휘하던 정웅은 세 번이나 전화로 시내의 전투에 부대를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세 번 모두 그는 경찰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항의했다. 사적으로 그는 군의 작전이 “집단학살” 작전이었다고 지적했다.¹⁹⁾ (그 당시에 불명에 해임되고 1년뒤 체포됐지만, 그는 인기있는 전라도 정치인이 됐고 1989년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비록 부대의 행동을 부끄러워 하는 군인들이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의 군인들은 공격명령에 기꺼이 복종했다. 많은 공수부대원들이 잔인한 전술을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시민들은 그들이 약을 먹었음에 틀림없다고 널리 믿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도망가는 대신 버텼다. 그들은 18,000명의 전투경찰과 3천명 이상의 공수부대에 맞서 돌, 야구배트, 칼, 파이프, 철봉, 나무막대, 죽창, 해머 등으로 반격했다. 아무도 경찰관 개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 대신 살육을 일삼은 공수부대원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너무나도 냉혹한 군대는 5월 19일 오후 3시경 시민들에게 심지어 화염방사기를 사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붙잡힌 공수부대원들은 피해를 입지 않고 무장해체 당한 후 풀려났다. 시민들은 그다시 운이 좋지 않았다. 전투는 5월 19일 밤새 계속됐다. 최정운이 지적했다듯이, “광주에서 공수부대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1979년 약 10분 동안 부산 도심에 완전히 비웠던 종류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조금 있다가 다시 나타났고, 다음 날 그들의 수자는 증가했고 결국에는 다수의 시민들이 저항 속에 하나로 단결했다.” 민중의 동기를 묘사하면서 최정운은 계속 말한다. “이 절대공동체의 핵심은 ‘사랑’이며, 다른 말로 고귀한 존재에 대한 인간적 대응이며... 그 시점의 투쟁은 흥분되는 자기창조였다.”

5월 20일 아침 훼손된 시체가 발견되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대인시장에 모였다. 여성상인들은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우려고 주먹밥을 만들었고 그들에게 투쟁을 계속 하라고 격려했다 오후에 되자 수만명이 마치 장례행렬처럼 시내 중심지인 금남로에 모였다. 그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불렀다. 투사회보라는 신문이 처음 나왔고, 공식 언론과 달리 정확한 소식을 실었다. 멀지 않아 군대가 공격했고 공수부대의 곤봉이 사람들을 머리를 내리쳤다. 군인들은 다시 한번 시위대에 화염방사기를 썼고, 이번에는 오후 2시30분경

15) Documents, 79.

16) Choi, The Gwangju Uprising, 95.

17) The May 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127; Choi, The Gwangju Uprising, 110.

18) Documents, 113.

19) Interview with Chung Oong, Seoul, December 4, 2009.

서방로터리였다. 여러 사람이 순식간에 숯덩어리가 됐다.²⁰⁾

사람들은 항복하길 거부했다. 오후 5시30분 만행과 저항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중들이 경찰 바리케이드로 몰려들었다. 공수부대가 그들을 밀어내자, 사람들은 다시 모여 길에 연좌했다. 그런 다음 대표를 뽑아 경찰을 군대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시도했다.²¹⁾ 너무 시끄러워 서로 말하는 것을 알아듣기 힘들자 누군가가 메가폰을 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곧 필요한 정도 이상의 돈이 모였다. 저녁이 되자 행진대오는 20만명 이상으로 불어났다(어떤 사람은 30만 명이라고 한다). 당시 광주는 인구 70만의 도시였다. 대규모 군중은 노동자, 농민, 학생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단결시켰지만, 살상의 결과 사기는 저하돼 있었다. 패배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다. 갑자기 9대의 버스와 200대 이상의 택시가 경적을 울리면서 금남로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기뻐서 차량대열 뒤로 모였다.

[사진] 1980년 5월 20일 전투 와중에 군대가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광주의 운수 노동자들이 시민들을 이끌고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사진작가: 황종건

택시 기사들은 자기들끼리 무등경기장에 모이자는 말을 퍼뜨렸다. 고속버스 기사들이 대열의 선두에 섰다. 시내 전역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중이든지 멈추고 시위대열에 동참했다. 술집 여종업원들이 도착했고, 구두닦이 소년, 웨이터, 배달부들도 다 모였다. 운수노동자들의 단결은 전도시를 결집시켰다. 여기에 그들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도시의 노동계급이 시민들을 이끌기 위해 도착했다. 공기중에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죽음의 냄새가 모든 사람을 공포에 몰아넣는 순간에 운수 노동자들이 영웅적으로 새로운 저항의 동력을 부여했다. 그들의 직업상 그들은 전도시로 움직였고, 그들은 아마도 다른 누구보다 더 살육의 실상을 목격했다. 그들이 목숨과 차량 모두의 위험을 무릅쓰고 군대의 저지선으로 몰려가면서 그들의 “시민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대열을 이끌고 군대의 저지선을 돌파하기를” 희망했다.²²⁾

봉기 직후에 발표된 한 시민의 설명은 그 순간을 이렇게 포착했다. “참여해 보지 않은 사람, 확고하게 단결한 시민들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은 이 해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바친 젊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가슴은 피로 범벅이 돼 있었다. 그들은 머리에 피묻은 머리띠를 매고서 목이 쉴 때까지 구호를 외쳤다. 사랑하는 우리 이웃, 죄없는 어린 아이들, 심지어 가정주부까지 이제 행진하는 차량대오에 합류하고 있었다.... 차에 올라탈 수 없는 사람들은 김밥과 음료수를 가져왔다.... 그들은 달걀, 빵, 콜라, 우유, 주스를 시위대에 주길 원했다. 한 노인은 모든 음식을 박스에 채워왔지만 들어올릴 수 없었다. 나는 박스를 들어 막 세운 차 위로 올려줬다. 그들의 표정에서 죽을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주부들은 양동이에 물을 담아 가져와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했고 얼굴을 씻겨줬다. 어떤 시민들은 차량을 따라 달렸다... 삶을 다른 이들과 나누려는 피와 사랑의 투쟁이었다. 참여자의 등을 두들겨 격려하는 남자, 의약품과 음료수를 가져온 약사,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최선을 다한 군중들.”²³⁾

20) Choi, *The Gwangju Uprising*, 114.

21) Lee Jae-eui, *Kwangju Diary*, 64.

22) Chung Sangyong, Rhyu Simin, et al., *Memories of May 1980: A Documentary History of the Kwangju Uprising in Korea* (Seoul: Korea Democracy Foundation, 2003), 64.

23) Documents, 119. Originally published by the Japanese Catholic Association for Peace and Justice.

다시 한 번 공수부대는 악랄하게 공격했지만, 이번에는 전도시가 반격했다. 일부 사람들은 돌과 화염병을 던졌고, 다른 사람들은 막대기로 군대의 대열을 가로 질러 경로를 차단하려 했다. 엄청난 양의 최루가스를 사용해 공수부대는 저지선 약 70피트 앞에서 행진대오를 저지했다. 운전기사들이 구타당하고 총검에 찔렸지만, 뒷쪽의 사람들은 앞으로 밀려들었다. 20분 동안의 격렬한 육박전 후에 사람들은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다음 반격했다. 그들의 대오는 시내를 도는 확성기 트럭으로 모은 시민들이 새로 도착하면서 채워졌다. 차 안으로 쏜 최루탄 때문에 기사들이 뛰어내린 다음 차가 충돌하면서 최소한 경찰관 1명이 사망했다. 최루가스의 안개 속에서 마치 유령처럼 호미와 죽창을 든 흰옷의 농민 50여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동학 전사들의 신기루였을까 아니면 진짜였을까?

이 시점에는 거의 20만명이 금남로를 장악하려고 전투를 벌였고, 모든 방면에서 도청을 공격했다. 전투는 세 시간 넘게 계속됐고, 불타는 차량들이 계속 군대의 저지선 쪽으로 밀려갔다.²⁴⁾ 사람들은 61연대와 62연대를 거의 압도했다. 비록 군대가 반복적으로 공격했지만, 사람들은 버텼고, 그날 저녁 군대가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M-16 소총을 사용한 다음에야 민주광장의 교착상태는 끝났다.²⁵⁾ 휴식 시간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친한 친구인 것처럼 서로를 포옹했다. 최정운에게, 이 때가 절대공동체가 형성되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구성원들이 이성과 용기를 통해 폭력의 공포와 개인적 수치를 극복한 공동체였다. 용감하게 죽음을 무릅쓴 시민들은 한데 모여 힘을 합한 다음 서로가 진정한 인간임을 인식하고 축하했다. 시민들이 추구한 인간존엄은 다른 존엄한 인간들과의 조우에서 상호인정에 의해 객관화된다. 이 절대적 공동체에서 시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했고 그들은 다시 태어났다.”²⁶⁾

도청을 장악할 수 없었던 군중들은 관심을 금남로의 공수부대 바리케이드에서 돌려, 지역 노동청, MBC TV방송국, 철도역을 포위했다. 오후 10시경 주로 전라도 출신으로 구성된 31지역사단 부대들이 확성기를 통해 발표했다. “우리는 국민 여러분을 해치러 오지 않았다. 우리는 막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다. 길을 비켜주세요!” 그들은 사고 없이 떠날 수 있었고 군중들의 지혜는 군인들의 진지함을 이해했다. 나중에 특수부대가 31사단 본부에 낙하산으로 투하하여 명령에 따르길 거부한 혐의로 지휘관 정웅을 구금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웅장군과 지역 계엄사령관 윤흥중 둘다 해임됐다.²⁷⁾

국영언론은 자기 코 앞에서 벌어진 살상을 보도하지 못했다. 그 대신 파괴행위와 사소한 경찰대응의 허위보도가 그들이 조작한 뉴스였다. 야간뉴스가 다시 한번 군대의 만행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자, 수천명의 사람들이 MBC TV 건물을 포위했다. 곧 방송국 경영진과 그들을 보호하던 군인들이 퇴각했고, 군중들이 안으로 몰려들었다. 방송시설을 작동시킬 수 없자 군중들은 건물에 불을 붙였다. 군중은 다른 건물들도 아주 지능적으로 타격했다. 일부 사람들은 외쳤다. “자기 국민을 죽이기 위해 미국에서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에 과세를!” 수백명이 대답했다. “새벽 1시 시민들은 무리를 지어 세무서로 갔고, 집기를 부수고 불을 질렀다.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복지를 위해 사용돼야 할 세금이 국민을 구타하고 죽이는 군대와 무기생산에 사용됐다는 것이었다. 방송국과 세무서에 불을 지르면서도 경찰서와 다른 관공서를 보호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였다.”²⁸⁾

24) Chung, Rhyu, et al., Memories of May 1980, 194.

25) Lee Jae-eui, Kwangju Diary, 69.

26) Choi, The Gwangju Uprising, 116 -7.

27) Lee Jae-eui, Kwangju Diary, 70.

28) The May 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138.

세무서에서 사람들은 불지르기 전에 논쟁을 벌였다. 일부는 세금이 모든 국민의 것이므로 건물을 불태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들은 정부가 광주에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돈을 썼다고 주장했다. 일단 쟁점이 정리되자, 약 2천명이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건물 지하실에서 소름끼치는 장면을 목격했다. 한 여고생의 시체가 가슴이 베인 채로 발견됐다.²⁹⁾ 여러 묶음의 카빈총과 함께, 제대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시신을 꺼낸 다음 사람들은 건물에 불을 붙였다. 다음 이틀 동안 건물은 계속 연기를 내면서 탔지만, 세무서에 대한 증오가 너무 강해서 아무도 불을 끄려고 하지 않았다.³⁰⁾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전화국 건물에 모였을 때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번에 그들은 불태우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무서 외에, 두 개의 TV방송국, 노동감독청, 도청 자동차사무소, 16개 파출소가 불타서 부서졌다.

철도역 주변의 거리에서 전투는 특히 격렬해졌다. 한 군인은 18인 경찰대의 일원으로서 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남대학교에서 역 쪽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완강한 저항 때문에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자, 그들은 대학으로 후퇴했다. 군인들은 재무장한 다음 트럭 뒤에서 대형을 형성했다. 트럭에 장착된 M60 기관총은 그들이 전진하는 건물마다 계속 사격을 퍼부었다. 한 중위가 뒤에서 위협했다. “만약 너희들이 후퇴하면 내가 너희들을 썩죽이겠다.” 그는 한 상사가 트럭에 치여 죽는 것을 목격했다. 피에 젖은 시민들의 버려진 시체 20여구가 거리에 널려 있었다.³¹⁾ 다른 쪽에서는 군인들이 군중들에게 M16을 발사해 앞쪽 대열에서 많은 시민들이 죽자, 다른 사람들이 시체를 타고넘어 군대와 육박전을 벌였다고 사람들이 전했다. 믿을 수 없는 힘으로 군중들은 승리했고 군대대는 전남대로 서둘러 후퇴했다. 군대는 또 세무서와 조선대학교에서도 발포했고 거기서 3대의 버스가 이끄는 3천명의 시위대가 공격해 체육관에 잡혀있던 사람들을 풀어줬다. 최루가스로 사람들을 해산시키는 데 실패하자, 수류탄도 사용했다.³²⁾

5월 21일 : 전투의 격화

5월 21일 이른 아침 사람들은 철도역에서 시체 두 구를 발견했다. 그들은 시체를 리어카에 싣고 시내로 갔다. 군대가 자행한 범죄의 소름끼치는 증거를 전시한 다음 사람들은 도청을 장악하자고 선동했다. 도청은 대학의 야영지 외부에 공수부대가 남아있는 장소였다. 그날 아침 오전 9시까지 10만명 이상이 금남로에 집결했다. 사람들은 도지사와 면담을 위해 전옥주를 포함한 4명의 대표를 선출했다. 다른 그룹은 아시아 자동차로 가서 차량을 가져오자고 외쳤다. 몇십명이 출발했지만, 겨우 7명만 돌아왔다.(운전을 할 줄 아는 봉기대의 정확한 숫자).

거대한 아시아 자동차 공장(현재 기아)에서 노동자들은 엄청난 주문량 때문에 막 철야를 마쳤다. 5월 21일 아침 자기가 들었던 총성에 대해 궁금해 하던 노조 조직가인 박태봉은 오토바이를 타고 기차역으로 갔다.³³⁾ 석가탄신일인 그 날 박태봉은 불탄 차량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최소한 20대의 지프와 군인들이 소란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공장으로 돌아온 그는 집회에서 온 시민들이 접근해서 노동자들에게 문을 열라고 부탁하는 것을 목격했다. 노동자들은 기꺼이 동의했고, 최소한 20대의 차량이 제공됐다. 시위대는 일부 차량을 몰고 떠났고 나머지는 나중에 돌려줬다. 다음 며칠 동안 시위대는 새 버스, 지프, 최소한 1대의 2.5톤 트럭, 장갑이동차량 등을 제공받았고, 전부 최소한 414대의 새 군용차량이 반란

29) Interview with Na Il-sung, Gwangju, December 17, 2001; Lee Jae-eui, Kwangju Diary, 112.

30) Interview with Kim Kyol, Gwangju, June 14, 2001.

31) Chung, Rhyu, et al., Memories of May 1980, 199.

32) Ibid., 201.

33) Interview with Park Tae-bong, May 31, 2002.

군의 손에 있었다.³⁴⁾ (5월 21일 이후 경비와 경영진을 제외한 1,700명이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다.) 시위대가 노동자들에게 전투에 대해 알려주자, 많은 노동자들이 즉시 반란군에 합류했다. 나중에 또다른 차량 시위대가 구성됐고, 이번에는 자기들이 제작한 신형 장갑차량을 직접 운전했다. 차량 시위대는 시내를 순회하면서 사람들을 모았고, 다른 운전자들은 반란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웃 마을들로 향했다.

[사진] 해방광주의 거리와 대중집회에서 공동체 식사가 준비됐다.

사진작가: 황종건

오전 11시 몇분전 도지사 장형태가 마침내 금남로 상공을 순회하는 헬리콥터에서 나타났다. 그는 모든 공수부대원이 곧 철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몰랐지만, 정웅 사단장은 이미 지휘권을 박탈당했고, 그의 후임은 이미 “폭도일소작전”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거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를 치하했다. 시위대 사이에서 최소한 다섯 가지 유인물이 나왔다. 투사회보는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도시의 다른 곳에 학교별로 모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별 시위대로 모이라고 호소했다. 모든 시위대는 도청으로 수렴되는 구조였다. 군중들은 늘어났고 전도시민이 모두 거리에 나온 것처럼 보였다. 트럭들은 코카콜라 공장에서 음료수와 빵을 실어왔다. “도시는 더 이상 정부의 통제 아래 있지 않았다. 광주의 민중들은 코뮌을 건설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체제의 대가는 그들의 피였다. 5월 21일 아침 거리 구석에서 새로운 광경을 볼 수 있었다. 거리에서, 모든 변화한 교차로에서 시위대를 위한 식사가 마련됐다.

여성들은 점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차를 세우고 징발했다. 정부의 만행을 목격한 노점상과 시장상인들은 식량분배를 조직했다. 수백명의 주부들이 금남로의 시위대를 먹였다. 아무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 단결에 힘입어 모든 반란자들의 투쟁정신은 자라났다.”³⁵⁾

정확히 오후 1시 도청 주변의 확성기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왔다. 모두가 정지했다. 경고도 없이 이미 뿌연 공기 중으로 총격이 파고들었다. 10분 동안 군대는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퍼부었고, 최소한 50명을 죽이고 500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혔다.³⁶⁾ 대부분의 도시라면 사람들은 도망가고, 포기하고 집에 갔겠지만, 광주 사람들은 용기와 힘으로 대응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투쟁조를 결성해 경찰과 군대의 무기고를 습격했다.³⁷⁾ 다른 사람들은 용감하게 옥상의 저격수를 피해 부상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전남대에서 봉기대는 붙잡힌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두 그룹으로 모였다. 정문에서 4만명이 밀고 들어가는 동시에 나머지 1만명은 후문에 모였다. 도심에서 그랬던 것처럼, 군대는 발포했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 고(동네에서 온 임신한 여성을 포함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저항이 너무 강력해서 공수부대는 다시 한번 수류탄을 사용했다.

34) 34 Na Eui-Kap, “Processing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in May 18th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Gwangju City, History of the 5.18 Democratic Uprising, vol. 1 (Gwangju: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2008), 248.

35) Lee Jae-eui, Kwangju Diary, 72.

36) May 18 Research Institute, “Manifestos and Declarations” in Materials Related to the Gwangju Uprising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998), 2-26. History-17. 5.18 관련자료의 영어 번역: 5.18 20주년 기념 학술연구사업 연구소위 (Gwangju,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00).

37) The firing began at 1:00 p.m. sharp on the afternoon of May 21, and at 2:30 p.m. weapons and ammunition were commandeered from the Sampo Branch office of Naju police station, and police boxes at Youngkwang, Keumsung, and Suan. The first groups of armed protesters began firing back at 3:20. Arnold Peterson relates that “at about 2:00 p.m. some of the citizens captured the military arsenal in the town of Hwa Soon, just south of Gwangju. From that time on many of the citizen fighters carried guns” (“5:18 The Kwangju Incident,” 44).

총격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자기 마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콘코드와 렉싱턴의 민병대처럼, 화순의 광부, 나주의 섬유노동자, 함평의 농민, 해남의 어민들이 아무 것도 시키지 않았어도 반격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들은 무기를 잡고, 차량에 올라타 광주로 향했다. 사람들을 그들은 단순히 “우리” 군대라고 불렀다. 그들은 곧 스스로 시민군이라고 부르게 된다. 얼핏 보면 약간 다른 것 같지만 북한군대 인민군과는 상당히 다른 용어다.

총격전에 벌어지는 동안 광주민중의 자기 조직화 역량은 중앙집중적 명령체계 하의 군대에 비해 커다란 이점이었다. 박남선은 무장한 5백명이 적십자병원에서 무선보고를 통해 군대가 하천변에 있다고 들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숨어있다가 군부대를 매복공격했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조직됐고, 지도자가 없었다.” 곧 그들은 전투력을 조정하기 위해 정보센터를 만들었다. 24시간 내에 박남선은 “자연스럽게” 지도자로 등장했고, 많은 사람들의 그의 지시를 따랐고 그의 그룹은 그 날 구성된 많은 그룹들 중의 하나였다.³⁸⁾

아마도 자율적 투사들의 가장 화려한 그룹은 “기동타격대”로 알려지게 됐는데, 미국 텔레비전 프로에서 따온 이름으로 차량 옆에 이름을 새기고 다녔다. 5월 21일 자원자들이 몰려들자 10여명의 젊은이들이 한데 뭉쳐 죽을 때까지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각자는 자기 이름과 가족의 주소를 종이조각에 써서 주머니에 갖고 다녔다. 아시아 자동차 노동자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24인승 미니버스를 도로의 흙을 덮은 종류의 철판으로 보강했다. 개인용 소총 외에 그들은 장갑차량에 경기관총, 수류탄, 2박스의 TNT를 채웠다. 그들은 무전기를 사용해서 한 전투에서 다른 전투지역으로 옮겨다니면서 지역 민병대를 강화하고 각각 교전지역에서 군대를 몰아내도록 도왔다.³⁹⁾ 5월 22일 그들은 무등도서관 근처에서 싸웠다.

다른 팀들은 경찰서를 습격했고 전투를 위해 무기를 모았다. 많은 사람들은 경찰이 군대에 맞서 봉기대와 협력했고 사무실과 무기고를 사람들에게 개방했다고 보고했다.⁴⁰⁾ 일부 경찰관은 제복을 벗고 투사들에게 합류했다. 화순탄광 광부들은 많은 양의 다이너마이트와 뇌관을 가져왔다.⁴¹⁾ 여성 섬유노동자들은 차를 몰고 나주로 가서 총과 탄약을 입수한 다음 다시 광주로 가져왔다. 비슷한 무기접수가 장성, 영광, 담양군에서 일어났다.⁴²⁾ 전체적으로 5천명의 사람들이 그날 무기를 잡았다.⁴³⁾

전도시가 동원되면서 모든 사람은 해방광주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사찰 노동자의 아들에게서 들었던 공수부대의 만행을 의심했던 불교 승려 송연은 불기 2,603년 석가탄신일 기념행사 물품을 사러 시내로 갔다. 울부짖는 부상자들 한 가운데 있게 되자 그는 많은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기는 일을 도왔다. 결국 송연은 광주 외곽 무등산 기슭에 있는 정심사의 초파일 행사를 취소했고, 모든 음식을 시내 금남로로 가져가서 투사들과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5월 21일 자정, 송연은 예불하기 위해 절로 돌아갔다. 그는 “광주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불자의 도리가 아니며, 그들과 함께 정의를 위해 투쟁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⁴⁴⁾

38) Interview with Park Nam-son, May 11, 2001.

39) Choi, *The Gwangju Uprising*, 22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서울: 풀빛, 1990), 504-. Once the city was liberated, the team never became a formal part of the structure that emerged in Province Hall. Most members were disarmed by May 26, although some were integrated into the mobile strike units of the Citizens' Army.

40) See, for example, Christopher D. Yoon, “The K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U.S. Role During the 1979-980 Period: Its Impacts and Ramification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1994), 21.

41) *The May 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143.

42) Lee Jae-eui, *Kwangju Diary*, 77.

43) Choi, *The Gwangju Uprising*, 162.

44) Interview with Song Yon, Seoul, November 30, 2001. Song Yon later founded a Buddhist organization for human rights, Min Tong Yon in Seoul, and went on to help lead June uprising as one of the member groups of the Kukbon.

무장그룹들은 자율적으로 두 지역에 모였다. 오후 3시20분 급히 모인 민병대는 공수부대에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무자비한 공격에 가해졌다. 결코 정부에 맞서 무기를 들지 않는 한국의 오랜 유교적 전통(1894년 농민전쟁에서 본 것처럼)은 갑자기 수천 명의 사람들에 의해 극복됐다. 최초의 무장그룹들은 카빈이나 M-1 소총으로 반격했기 때문에 수백명의 비무장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그들의 뒤를 따랐다. 무장한 투사들이 쓰러지면 다른 누군가가 무기를 집어들고 계속 공격했다. 그들은 전투를 광주우체국에서 도청으로 재빨리 옮겼고, 도청에서는 군대가 거리에서 약탈한 차량으로 바리케이드로 삼고 있었다. 다른 침은 도청뒤 노동부 사무소, 총장로 근처의 강변로, 전남대 의과대학과 의대병원 주변에서 공수부대를 공격했다.

도청전투의 총격소리를 듣고 시민들이 영통 사거리와 광주공원으로 몰려들었다. 수백명의 자원자들은 예비군 장교가 무기사용법과 전투단위 구성방법을 설명하자 귀를 기울여 들었다. 모인 사람들 중에서 10여명 이상의 예비군 장교들이 무기의 적절한 취급을 재빨리 검사하기 위해 나섰다. 사람들은 그들을 전술 지도자로 받아들였다. 일부는 처음으로 무기 훈련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은 이미 의무 군복무를 마쳤다. “민병대는 줄 건설현장, 작은 공장의 노동자들, 구두닦이, 녀마주이, 노점상, 웨이터, 위생 노동자들로 구성됐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과 예비군복을 입은 중년 남자들도 많이 있었다.”⁴⁵⁾

오후 4시 시민들이 광주공원에서 조직하는 동안 다른 투사들은 증오하는 제7 공수여단의 35대대를 수송하던 30대의 차량을 매복공격했다. 화순으로 가는 도로 양측에서 사격을 개시하자 군대는 재빨리 후퇴했다. 3대의 차량이 전복된 채 버려졌고 공수부대원 1명이 사망했다. 부상당한 군인 6명은 주남마을로 후퇴하면서 운전사 1명과 운전가능한 많은 차량을 남겨졌다.⁴⁶⁾ 군은 거릴를 통제하기 위해 기관총을 장착한 헬리콥터를 사용했고, 최소한 한 대가 격추당했다.⁴⁷⁾ 헬리콥터에서 쏜 기관총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해서 불교 활동가 이광영은 그들을 병원으로 호송할 의료단을 구성했다. 흰색 병원가운 위에 적십자가 분명하게 새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랜드 호텔 근처 지붕위 저격수들은 대부분의 의료진을 사살했다. (이광영은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남은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다.)

대략 4시15분경 빼앗은 기관총을 가져와 도청(아직 군대가 장악하고 있던)을 향해 배치했다.⁴⁸⁾ 전남대 병원과 전일빌딩 옥상에서 투사들이 쏜 격렬한 총격 때문에 도청에서 군대의 위치는 불안해졌다.⁴⁹⁾ 헬리콥터에서 정찰임무를 수행중이던 61연대 지휘관은 도청 주변 저격수들의 사격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⁵⁰⁾ 저항이 너무 격렬해서 군대는 도시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약 2천명의 경험많은 군부대가 그 지역에 있었지만, 동원된 시민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다. 장갑차량 뒤에 숨어서 50밀리 기관총을 난사하던 공수부대원들은 도청에서 후퇴한 것을 은폐했고 조선대학교의 진지로 이동했다. 오후 5시30분가

45) Lee Jae-eui, Kwangju Diary, 77-8. The movie version of these events, Operation Fascinating Vacation, has a middle-aged reserve officer become commander of the militia and almost single-handedly defeat the military as he fires a machine gun. Needless to say, the plot transformed the entirety of the uprising from one of collective-inspired resistance and communal self-government into a “Great Man” version.

46) May 18 Research Institute, “Manifestos and Declarations,” 4-4.

47) Interviews with Lee Kwang-young, May 28, 2001, and Lee Jae-eui, April 15, 2008; Linda Lewis, Laying Claim to the Memory of May: A Look Back at the 1980 Kwangju Uprising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34.

48) Chung, Rhyu, et al., Memories of May 1980, 240-1.

49) GDM, IV: 82. Others maintain the LMG were never fired. See Memories, Sangyong, Simin, et al., Memories of May 1980, 241.

50) May 18 Research Institute, “Manifestos and Declarations,” 4-.

지 군대는 민주광장에서 후퇴를 완료했다. 광주공원에 집결했던 투사들이 몇분 뒤 마침내 도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군대가 철수한 것을 알고서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⁵¹⁾

오후 8시 무장한 시민들이 광주를 통제했다. 기쁨의 메아리가 모든 곳으로 퍼졌다. 비록 2차 세계대전 시기의 무기는 군대에 비해 아주 열악한 것이었지만, 민중의 용기와 희생은 군대의 기술적 우위보다 더 강력한 것임을 증명했다.

해방 광주: 사랑의 권력

도시의 단결과 더불어, 한국에서 오랫동안 분열과 분쟁의 원인이었던 지역감정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보다 덜 중요하게 됐다. 5월 21일 <전남민주회보>는 이렇게 선언했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역감정으로 우리의 목표를 흐리는 것도 아님을 명심하자. 우리는 무차별적 파괴를 원치 않으며 민주적 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행동을 원한다.”⁵²⁾ 지역주의의 정지는 반란의 보편적 호소력을 가리키는 또다른 지표이며, 이는 전라도나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역주의에 대한 의식적 거부와 나란히 국제연대가 존재했다. 조선대학교 민주투쟁위원회는 광주를 베트남에 비유했다. “광주의 도시에서 단지 젊다는 것이 범죄이며, 청년들은 평생 불구가 되거나 죽임을 당한다... 슬프게도 베트남에서 벌어진 비무장 민중의 대학살이 우리 민중에게서 되풀이되고 있다.”⁵³⁾

절대공동체라고 이름붙여진 광주코된 참여자들의 유기적 연대는 내가 직관적으로 이해한 인류의 자유에 대한 본능적 필요라고 생각한 것, 즉 봉기 동안 집단적 표현으로 승화된 무의식적 필요를 체현한다. 공적 공간을 점거하는 수십만명 민중의 갑작스런 등장, 전라남도의 여러 곳으로 반란의 확산, 수십만명 민중의 서로에 대한 직관적 동일화와 자신의 행동이 갖는 힘에 대한 동시적 믿음, 시민군의 자기조직화, 경쟁적 사업관행, 범죄행위, 탐욕 같은 일상적 가치의 중지 등은 내가 “에로스 효과”라고 부르는 것의 다양한 차원들이다.

20세기 후반부에 높은 문자해독율, 대중매체, 보통교육은 수백만명의 민중들이 권좌에 숨은 소수 엘리트보다 더 현명하게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했다. 오래 전에 칼 맑스가 지적했듯이, 19세기 공장에 기반한 산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물 중의 하나는 집단적 노력에 익숙하고 복지에서 서로에게 의존하는 규율잡힌 노동계급이었다. 그런 역량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사회를 이끌 역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맑스는 믿었다. 비슷한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오늘날 민중들이 거대한 사건과 엄청난 규모의 기관들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에 아주 익숙하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이런 스펙터클의 한가지 의도하지 않았던 보조효과는 바로 서로의 삶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관여의 인정이다. 공적 공간은 기존 기관들에 의해 수치러울 정도로 덜 활용되거나 잘못 다뤄지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권력이 시민들의 집단적 지성의 퇴화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전통적 시민사회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라도의 주변화는 소비주의적 탐욕과 자본주의적 경쟁으로 매수되지 않는 한에서 귀중한 자산이 됐다. 전라도 민중이 겪은 억압과 차별의 유전은 민중의 단결과 연대의 장을 이뤘고, 빈곤은 사람들이 잃을 것이 거의 없음을 의미했고, 협동과 공동체주의는 인간조건의 온전하고 당연한 측면으로 남아 있었다. 광주봉기의 절대공동체에서 민중의 자기조직화와 자기규율의 역량은 공적 공간에서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51) Chung, Rhyu, et al., Memories of May 1980, 246.

52) Documents, 67.

53) Quoted in Shin and Hwang, Contentious Kwangju, xix.

예의바른 행동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은 수많은 북아메리카인들의 믿음을 뛰어넘는다.

1871년 파리코뮌과 비교하면, 1980년 광주의 보통사람들 사이에서 훨씬 더 커다란 자기통치 역량을 목격할 수 있다. 파리에서 국민방위군과 그 장교들이 대규모로 코뮌에 가담했지만, 광주의 민중들은 아래로부터 시민군을 조직했고 그런 다음 수천명의 정예부대를 몰아냈다. 그들의 미제 무기는 민중의 힘에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런 용감한 동원은 수치스런 프랑스 정부가 부재한 가운데 파리의 통제권을 획득한 파리 국민방위군의 북소리를 훨씬 뛰어넘었다. 비록 이런 중요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건은 아주 놀랍게 수렴되는 측면이 있다. 아래로부터 무장저항의 등장으로 해방된 지역 내에서, 수많은 유사한 동학이 발생했는데, 민주적 의사결정의 민중적 기관의 자연발생적 등장, 범죄행위의 거의 부재, 계급, 권력, 지위의 서열제의 중지, 시민들 사이에서 진정한 연대와 협력이 거기에 포함된다.

1980년 미국 관리들은 상황을 아주 다르게 봤다. 5월 19일 위킴은 개인적 정세판단을 묻는 국방장관 해롤드 브라운의 전화를 받았다. 위킴은 간결하게 대답했다. “관리들은 학생시위와 증가하는 요구에서 공산주의 영향력의 증거를 인용한다... 그들은 또 다른 베트남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전두환이 통제한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유일한 문제는 권력을 공고화 하는 속도와 형태의 문제 뿐이다.”⁵⁴⁾ 광주에 있던 200명의 미국인들은 비행기로 서울로 소개됐고, 송정리에 있던 모든 미국 항공기는 재배치됐다. 5월 21일 글라이슬턴은 워싱턴에 전문을 보냈다. “광주의 대규모 봉기는 여전히 통제권 밖이며 경악스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대규모 폭도들이 일시적으로 도시를 통제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의견의 차이는 두드러진다. 최정운은 절대공동체를 발견하고 박형규 목사는 사랑이 꽃피는 공동체를 발견한 반면, 미국 관리들은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폭도의 지배를 발견했다. 다시 한번 엘리트식 “첩보”가 작동했다!

해방된 도시에서 동원된 민중의 권력은 도시의 “일상적: 작동을 훨씬 뛰어넘는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로 이어졌다.⁵⁵⁾ 21일 저녁부터 27일 아침까지 해방광주는 시민들의 손에 있었다. 자연발생적으로 결성된 그룹들은 모든 필수적 서비스를 조직했고, 여기에는 도시의 방어, 관의 확보, 포로 석방(일부 포로는 이미 악랄한 고문을 받고 있었다),⁵⁶⁾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군과의 협상이 포함됐다. 사전 계획도 없이 사람들은 도청 주위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 누구의 명령 없이도, 수백명이 단지 집에서 빗자루를 들고 나와 돌조각과 버려진 탄피를 청소했다. 아시아 자동차의 노동자들은 중장비를 이용해 불탄 차량들을 정리했다. 일부 여고생들은 시민군에게 군대의 이동을 알려줄 교외 첩보체계를 조직했다.⁵⁷⁾ 다른 젊은 여성들은 나서서 시체를 수습했다. 그들은 시체를 씻긴 다음 가족들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청 건너편 무술도장에 시신들을 모셨다. 유인물을 냈던 여러 그룹의 회원들은 한데 모여 일간 신문을 발행했다. 화가들은 벽보 포스터를 만들었고 요리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공동체 식사를 마련했다. 대중연설에 숙련된 연극그룹의 회원들은 일일 집회를 조직하는 것을 도왔고 다른 사람들은 방어조치를 준비했고 거리와 주변을 순찰했고, 광주 외부로 투쟁을 확산시키려고 노력했다. 어떤 중앙사령관이나 중앙위원회 없이도, 새로운 노동분업이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전체적으로 풀뿌리 에너지가 배가됨에 따라 약 50건의 선언(5월 18일에

54) Wickham, Korea on the Brink, 130-2.

55) Here in my view is a weakness of Choi Jungwoon's analysis. He believes the absolute community ends once the citizens took up arms to drive the military out of the city and thus excludes the five days of liberation from being worthy of inclusion on the absolute community. "In liberated Gwangju, the absolute community showed cracks and ultimately disintegrated when citizens returned to their daily lives." (See The Gwangju Uprising, viii and 126-7).

56) Documents, 43.

57) Ahn Jong-chul, "The Citizens' Army During the Gwangju Uprising," in Shin, Contentious Kwangju, 14.

서 5월 27일까지 대략 매일 6건), 공개서한, 성명서, 유인물 신문들이 아주 다양한 그룹들에 의해 자유롭게 배포됐다.⁵⁸⁾

일단 전투가 끝나자 시장과 상점이 영업을 위해 다시 열었다. 어떤 은행도 약탈당하지 않았고, 강도, 강간, 절도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했다. 사실 침례교 선교사 아놀드 피터슨은 미국기를 달고 “외국인 차량”이라고 쓴 커다란 표지판을 붙인 자가용이 거리의 사람들에게 환호받았다고 보고했다.⁵⁹⁾ 관, 식량, 가솔린, 담배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수십명의 사람들이 공동체 식사를 준비했고 아무도 굶주리지 않았다. 광주 전역에서 사람들은 서로 포옹했고,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보살폈고 부상자들을 치료했다. 전도시가 하나의 대가족처럼 한데 뭉쳤고, 사람들은 서로 친근하게 대화했고 일상적인 위계적 언어의 사용은 중지됐다. 살아있다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은 새로 사권 총을 든 동지들과 담배를 나눠 피웠고, 이는 공동체적 경험을 아주 중요하게 상징하는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했다.⁶⁰⁾ 아직 담배가 남아있는 상점주인들은 자주 한번에 한갑씩 팔거나 나눠줬다(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도록). 시민군은 신속하게 가솔린 보급체계를 개발했고 더 많은 관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병원에서 혈액이 부족했지만, 소문이 퍼지지 마자 사람들은 헌혈하려고 몰려들어고, 여기에는 술집 여종업원과 창녀들도 가세해 자신들도 헌혈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안전 때문에 익명을 유지했던 광주대학의 한 교수는 이렇게 썼다. “가격이 얼마든지 눈이 보이는 모든 것을 사곤 했던 시민들은 생활필수품들을 나눠줬다. 과거에 참을성 없이 인상된 가격을 매기던 상인들도 전혀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시민들은 참여해서 담배, 파자마, 식량과 음료수를 제공했다... 예상했음에도 모르는 악명높은 범죄를 일어나지 않았고 무장한 시민들은 무방비 상태의 은행에서 돈을 강탈하지 않았다. 그들은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다.”⁶¹⁾

봉기의 통일적 에너지는 너무 강력해서 모든 종교들이 한데 뭉쳐졌다. YMCA와 YWCA는 활동가들에게 본부가 됐다. 카톨릭 사제 조철현은 마지막 날 아침까지 도청에게 봉기자들과 남았다. 1980년 6월 광주교구의 로마 카톨릭 사제들은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을 이렇게 묘사했다. “군대가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하고 생필품과 식량이 제공되지 않았지만, 아무도 물건을 사재서 부적절한 이윤을 남기거나 물건을 팔도록 강요받지 않았다.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음식을 서로 나눴다. 총에 맞은 환자들의 수자가 늘어나서 혈액이 필요해지자 헌혈한 시민들의 수자는 급속도로 늘었다... 광주 시민들은 부서진 돌과 유리, 최루탄 파편을 청소했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총에 맞을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도심에서 옮겼다. 버스와 택시 기사들은 자기 목숨은 생각지 않고 젊은 이들을 보호했고, 떠돌이 청소년과 버려진 아이들도 전보다 더 착하게 행동했다.”⁶²⁾

아래로부터 민중들은 시민군을 공고화했고 수백명의 투사들은 도시를 순찰하면서 예상되는 반격에 대해 지속적인 방어대형을 유지했다. 다른 사람들은 몇몇 “수습위원회”를 조직했다. 도시의 저항이 응집되자, 군대는 지속적으로 군대를 침투시키려고 시도했다. 시민들이 24시간 지키는 경계선 외곽에서 산발적인 총격전이 벌어졌다. 시민군과 나란히, 마을 단위로 군대의 침입에 맞설 자위대를 조직했다. 모든 사람이 도청과의 전화접촉을 통해 도시의 방어

58) For a list of these various statements, see Park Chan-Seung, “Manifestos, Statements and Newspapers on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in May 18th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Gwangju City, History of the 5.18 Democratic Uprising, vol. 1 (Gwangju: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2008), 392-7.

59) Peterson, “5:18 The Kwangju Incident,” 47.

60) Documents, 11-2.

61) Documents, 113.

62) Documents, 127.

에 동참했고 투사들은 군대를 추적하기 위해 군인들에게 빼앗은 무전기를 사용했다.

소모임들은 봉기의 내적 자기조직화를 용이하게 했다. 신문, 집회, 내부논쟁, 언론홍보 등을 담당했다. 한 활동가 그룹은 매일 오전 10시 녹두서점에 모였다. (녹두는 동학지도자 전봉준의 별명으로, 작은 키를 빗대어 붙였다.) 윤상원, 정현애 등 많은 젊은 활동가들은 열정적 토론을 벌였다. 서점 뒤편에서 그들은 화염병을 만들었고 투사들은 새로운 물량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들렀다. 일단 군대를 몰아내자 이 그룹은 너무 커졌고, 그들은 모임 장소를 YMCA로 옮겼다가 나중에 도청으로 옮겼다. 그들은 검은 리본을 배포했고, 투사회보를 제작했으며, 집회 진행을 도왔고 5월 24일에는 화형할 전두환 허수아비를 만들었다. 김상집은 전남대로 가서 확성기가 달린 현대식 버스를 발견했다. 그는 이 버스를 시내로 가져와서 이 그룹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YMAC에 모인 다양한 활동가 그룹들은 많은 상이한 조직들을 한데 묶는 에너지 센터를 창출했다. 여기에 참여한 그룹은 들불야학, 극단광대(활동가 연극패), 여성단체 송백회, 전국민주노동자연맹, 광주자유 미술인회 등이다. 이들 단체의 회원들은 과거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민중봉기에 투신했다. 전체적으로 YMAC에서 포스터, 일일회보, 자금모집, 집회주관, 식사담당 등 다섯 개 팀이 구성됐다. 많은 사람들이 잠도 자지 않고 일했다. 인쇄기가 없었기 때문에 수동인쇄기와 등사기가 밤낮으로 돌아갔다.

예술가 협의회는 9월에 예정된 전시회를 준비하느라 바쁘게 일했었지만, 일단 봉기가 일어나자 그들은 모든 에너지를 손으로 그린 포스터와 가두미술 작품을 생산하는 데 집중했다.⁶³⁾ 무등산 근처 군청 아래 스튜디오에서 그들은 밤새 일했다. 홍성담은 공무원 책상의 고무판을 이용해 첫 판화 프린트를 만들었다. 이 책에서 일부 실린 이후의 목각판화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지속적으로 봉기를 상징한다. 비록 그가 작은 고무판으로 광대패 연극 티켓을 만들고 나중에 들불야학을 위해 더 큰 포스터를 만들었지만, 그는 5월 이전에 결코 복잡한 판화작업을 한 적이 없었다. 봉기 동안 홍성담은 YMAC에서 포스터 제작을 완료했다. 이런 식으로 봉기는 이후에 민중미술로 알려진 것의 씨앗을 뿌렸다.⁶⁴⁾

송백회는 많은 여성 활동가들에게 함께 일한 자율적 포럼을 제공했다. 이 단체는 구속된 활동가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면회하고 가족의 복지를 유지하는 데서 겪는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 필요성에서 만들어졌다. 송백회는 봉기 동안, 특히 수많은 활동가들이 체포되거나 지하로 들어간 이후에 운동의 전반적 방향을 지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됐다. 녹두서점 주인 김상윤이 체포된 다음에도 서점은 열려 있었고 송백회 활동가 정현애 덕분에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광대패는 민주광장에서 첫 집회를 조직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들의 대중연설 기술 때문에 사람들이 지정된 시간에 집중하고 토론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일단 집회가 시작되면 광대패 회원들은 논의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노래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불렀고 군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무대에서 단막극을 하기도 했다. 핵심적 회원인 김선출은 박정희가 살해된 다음 감옥에서 석방된 활동가들 중의 하나였다. 1980년 2월 광주 YMAC에서 열린 광대패의 개막극 “돼지풀이”는 2천명 이상의 관객 앞에서 농민들의 곤경을 풍자했다. 한 배우는 분위기가 “권투시합처럼” 열정적이었다고 묘사했다. 연극이 끝나고 사람들은 “황홀하게” 서로 뒤섞였고 흥분된 대화의 소란은 몇시간 동안 계속됐다. 그들은 카톨릭 농민회의 도움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연극을 공연했다. 촛불 연극 이후에 농민들은

63) Interview with Hong Sung-dam, Watertown, MA, October 16, 2003.

64) Japanese and American scholars have claimed that Minjung art's origins are in Japan. See the discussion in Chapter 8.

무대로 나가 전통악기를 연주하곤 했다. 김선출은 농촌연극 투어가 “에로스의 문재”와 “암흑으로부터 해방”을 제공했다고 언급했다.⁶⁵⁾ 비록 광대패는 지방극단이었지만, 그들의 연극을 본 몇몇 서울 극단의 회원들은 광대패의 연극이 우수하다고 칭찬했다. 새로운 연극 “한의 연대기”(남북한의 분단 감정을 다루는)을 준비하기 위해 그들은 도청 근처에 사무실을 열었고 5월 17일까지 YMCA에서 연습했다. 20명의 회원 중에서 절반 이상이 학생이었다. 그들은 5월 18일에 예정된 리허설을 위해 모였을 때, 그들은 공수부대의 폭력을 직접 목격했고 즉각 시위에 합류했다.

들불야학의 핵심 회원들은 투사회보의 발행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도청에서 서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사무실을 작업장으로 이용한 그들은 급진적 사상을 해방광주의 광범한 활동 스펙트럼에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윤상원은 서울의 은행원 직을 그만두고 들불야학을 돕기 위해 비밀리에 광주로 돌아왔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독해에서 수학과 정치까지 기본적인 과목을 가르쳤다. 그런 야학은 전국적 현상이었는데, 이는 다가올 미래에 전국적 운동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봉기 초기에 광대패 회원들은 최신 뉴스를 실은 타블로이드판 신문을 발행했다. 최소한 네 개의 다른 그룹들이 자율적으로 소식지를 발행해서 배포했는데, 여기에서는 월산동의 고등학생, 전남대의 대학의 목소리, 들불야학 등이 있다. 5월 19일 이 모든 그룹들이 투사회보로 합쳤고, 회보는 해방광주의 일간신문이자 민을만한 보도의 주요한 원천이 됐다.⁶⁶⁾ 원래 5천부를 인쇄했지만, 9호에 이르면 최소한 2만부를 배포했고 아마도 3만부까지 찍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시 전역의 벽에 붙인 신문을 읽었다. 10호는 준비됐지만, 군대의 최후의 공격 전에 배포하지 못했다.⁶⁷⁾

상황의 열기 속에서 과거 도시행정기관보다 더 민주적인 구조가 발전했다. 봉기에 대한 압도적인 민중의 지지는 도시의 정치활동에서 과거 운동단체의 주변화가 끝났음을 의미했다. 보통시민들이 도시생활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민중의 자연발생적 행동은 결정적이었다.

해방 광주의 직접 민주주의

본능적으로 광주 민중은 민주광장을 정신적 고향으로 인정했고 매일 수만명씩 모였다. 민중 집회는 광주항쟁의 독특한 특징이자 빛나는 성과이다. 거의 모든 다른 민중봉기 동안, 정부의 탄압은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모이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았다.

수천명씩 평화적으로 집회를 열고 일종의 참여 민주주의를 시행할 역량은 수많은 친구와 이웃들의 피로 쟁취한 권리였다. 지도자들이 인민위원회를 통해 결정을 내린 1948년 여순반란 처럼 과거에 민중이 도시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한 경우 총회는 조직에 비해 운동을 방향을 제공하는 데 덜 중심적이었다. 광주에서 5일 동안 7번의 집회는 모든 사람이 발언권을 갖는 새로운 종류의 직접민주주의의 무대가 됐다. 시민군 대원들은 “집회의 결과를 받아들였고 민중의 결정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박남선은 전선을 떠날 수 있었던 모든 투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집회에 갔다. 그들은 민중들이 표현한 소망을 주의깊게 들었고 그에 따랐다.⁶⁸⁾ 수만명의 사람들이 독특한 형태의 협의 민주주의에 참여했다.

65) Interview with Kim Sun-chool, Gwangju, May 20, 2003.

66) See Kim Young-khee and Han Sun, “The Gwangju People’s Uprising and the Construction of Collective Identity: A Study of the Fighters’ Bulletin,” in South Korean Democracy: Legacy of the Gwangju Uprising, eds. George Katsiafi cas and Na Kahn-chaе (London: Routledge, 2006), 96-112.

67) Chung, Rhyu, et al., Memories of May 1980, 323.

68) Interview with Park Nam-son, Gwangju, April 23, 2008.

[사진] 광주시민들은 군대를 몰아낸 다음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스스로 통치했다. 출처: 5.18 기념재단

도시의 지리상 중심적 공간인 민주공원은 중심가인 금남로 끝에 위치했고 곧바로 전남도청으로 이어졌다. 세 개의 대로와 수많은 작은 도로의 교차점에 형성된 로터리 중앙의 분수대는 완벽한 무대였고, 특히 앞뒤가 아니라 공간적으로 원형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집회 동안 인근의 옥상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고 아래부터 둘러싼 군중들이 층을 이뤘다. 사람은 노래하고 소리쳤고, 환호하고 야유했고, 찬성을 소리질렀고 눈물겨운 설명을 증언했고, 전투장면을 극화한 풍자극을 구경했다. 새로운 보고와 정치적 분석이 전달되면 사람들은 집중해서 들었고, 전국적 정치상황에 대한 광범한 대중적 통찰력이 활성화됐고 이는 지속적으로 광주를 이끈 일종의 집단적 지혜였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민주광장에 모였고 서로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농민, 노동자, 주부, 학생, 사제, 승려, 노인, 구두닦이, 깡패, 웨이트리스 등 모두가 시민들에게 연설했다. 비록 집회가 엄청나게 큰 규모였음에도, 말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 속으로 느끼는 필요를 표현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수십만명이 참여했음에도, 비록 때로 견해차이가 심했어도 싸움이나 폭력은 없었다. 해방된 도시에서 기존의 사회적 분열이 얼마나 초월되는지의 한 사례로서, 광주의 양대 조직폭력인 OB파와 화순파의 지도자들은 시민들의 집회에 나타나서 “투쟁”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⁶⁹⁾

철학자들이 꿈꾸는 위업인 민중적 의지의 담론적 형성은 이 일일집회를 통해 현실이 됐다. 어떤 시의 감동적 구절은 이 집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의미했는지에 대해 느낄 수 있게 해준다.

페퍼포그와 최루가스가 멈춘 날
사람들은 무진 들판에서 왔네.
모든 민주시민들, 지식인, 노동자, 농민

사람들은 도청 분수대 앞에 모였다
사람들은 분수를 만지려고 했고
잔디밭에 앉아서 서로 껴안았다

서로 미소를 보내면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는 없다
우리는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다.⁷⁰⁾

이재의가 묘사했듯이, “분수대는 이제 단결의 구심이었다. 모든 계층과 계급의 사람들, 여성 노점상, 초등학교 교사, 상이한 종교 신자들, 주부들, 대학생, 고등학생과 농민들이 발언했다. 그들의 성난 연설은 공동의 의식을 창출했고, 봉기의 엄청난 에너지의 표현이었다. 그들은 한데 뭉쳐 봉기 기간 내내 강력한 연대감을 형성했다. 그 시기 동안 도시는 하나였다.”⁷¹⁾ 집회는 독일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논했던 이상적 담론 공동체에 조응했다.⁷²⁾ 이 담론에

69) Choi, *The Gwangju Uprising*, 74.

70) *Signed by Congregation for the Democratization of Chonnam Province, Documents*, 58.

71) Lee Jae-eui, *Kwangju Diary*, 105.

72) See his book,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Boston: Beacon Press, 1984).

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두가 공적 공간에 들어간다. 의견차이와 논쟁은 검열받지 않고 논쟁은 정치적이고 고도로 도덕적이며, 맥락은 시민들의 삶에서 중요한 필요에 뿌리를 뒀다. 해방된 광주의 공간은 현실이 하버마스의 이상형적 공적 공간에 다가간 만큼 근접했다.

이 갑작스런 연대,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유대의 출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제적 사업관행과 소비재의 개인적 소유 같은 보통 가치의 중지와 협력과 집단성으로 대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장폴 사르트르가 “융화된 그룹”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의 결합과정은 복잡하며, 감정, 직관, 정신이 관여한다. 단지 이성만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정현애는 설명했다. “집단의식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집단적 무의식. 많은 이들이 우리는 항복을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우리의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매일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⁷³⁾ 사회학자 최정운은 이 “성스러운 초자연적 경험”의 열쇠는 “사랑”이었고 “... 인간존엄의 직관성은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행위나 그 결과에 있지 않고, 개인의 삶보다 더 커다란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획득하는 데 자신을 바치는 행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다.⁷⁴⁾

[사진] 광주시민은 집회에서 전두환 허수아비를 태웠다.

사진작가: 나경택

흔히 말하듯이 광주봉기는 남한 민주주의의 창출에서 불가결한 도구였다. 집회는 그 핵심이었고 거기에서 자유로우려는 미능의 결단이 민주적으로 활성화되고 단련됐다. 이 공동체의 지혜와 사랑을 경험한 다음 사람들은 결코 다시 독재로 돌아갈 수 없었다. 민주광장은 무게 중심의 중점으로서 사람들이 결집하고 작업팀에 합류하고 최신 소식을 듣고 가족을 찾고 혈액부족에 대해 듣는 곳이었다. 간단히 말해 민주광장은 해방광주의 심장이 뛰는 곳, 도시가 살아서 숨쉬는 곳이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를 토론하기 시작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지만, 이 분쟁을 해결하면서 지성적 결정을 했다. 예를 들어 군대에게 모든 무기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 무기를 포로의 자유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 집회들을 통해 구체적인 요구가 먼저 일반적 의지로 정식화됐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상, 정부 사과, 전두환 구속이었다.

나는 정경애에게 집회의 임시방편적 성격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그렇다. 직접민주주의가 준비됐다. 우리는 무대, 마이크, 포스터를 준비했지만,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것은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말한 것이 중요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참여한 이유다. 보상에 대한 요구는 몇 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는 쟁취해 냈다!” 사람들은 수천명씩 몰려왔다. 많은 지역에는 사람들이 앉아서 집회할 수 있는 집회지역이 있었고, 다른 그룹들도 함께 도착했다. 사람들이 집회가 되게 했고, 그들은 자연발생적으로 모여서 대자본에 관한 구호를 만들어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집회에서 발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최소한 부분적으로 집회를 조직한 그룹이 모든 사람을 포괄하려는 의식적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이재의가 말하듯이, “활동가 그룹들은 모든 계층의 발언자들에게 시간을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집회의 내용을 확장해, 연설만이 아니라 시낭송, 노래, 정부관리 허수아비 화형식, 단막극 등을 포함했다.”⁷⁵⁾

73) Interview with Chong Hyun-ay, July 14, 2008.

74) Choi, *The Gwangju Uprising*, 128, 131. For Choi, the absolute community dissipates once citizens defeated the military (272-3). Choi undervalues the effects of the rallies in liberated Gwangju and pays more attention to the period prior to them.

75) Lee Jae-eui, *Kwangju Diary*, 118.

집회는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이었지만, 교육의 장이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전두환이 누군지 몰랐고, 그래서 전두환 쿠데타의 역사와 군사적 배경에 대한 브리핑이 준비됐다.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은 서로의 슬픔과 꿈을 공유했고, 공개적 개방성과 내적 감정의 공동체와의 공유로 이 집회는 진정한 것이 됐다. 많은 사람들은 “집단적 무의식”을 봉기에 중요한 것으로 언급했다. 한 시민군 대원이 기억하는 것처럼, “집회는 우리에게 투쟁의 결의를 부여했다.”⁷⁶⁾

표 6.1에서 정리한 것처럼 전부 7번의 집회가 있었다.

집회는 전도시적 총회가 모든 주요한 문제에 대해 최종적 권한을 갖는 상호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화했고, 더 작은 그룹들은 그 결정을 수행했다. 후자는 메시지와 성명을 보냈고 필요한 경우 집회에 대표를 파견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상황에 대해 알려주고 새 정보를 공유했다. 제안문은 글로 써서 도시 전역에 붙였다. 집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프로그램이 됐다. 예를 들어 헌혈과 생필품 모집, 그 밖에도 전두환 구속이나 정부폭력 피해자 보상 같은 전략적 방향 등이다. 전화기와 같은 공공시설을 파괴하지 말라고 상기시키자 민중의 자기규율은 강화됐다. 슈퍼마켓이나 이용가능한 병원 같은 중요한 정보는 공유됐다. 수많은 집회에서 수습위원회와 다른 작업그룹을 위해 수백만원이 금방 모금됐다. 사망자를 위한 관이 모자라면 즉시 모금이 됐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돈을 모았고 곧 더 많은 관이 장례식장으로 배달됐다. 집회는 총기와 포로의 교환을 승인했고, 트럭이 필요하다면 아시아 자동차에서 트럭을 갖지려 사람들이 파견됐고, 사망자의 상복을 찾으면 갑자기 나타났다.

최정운은 집회의 중요성을 경시한다. 일단 무장한 시민들이 도시를 장악하면서 절대공동체는 기억이 됐다고 그는 믿는다. “이 시위들은 독특한 정치적 상황에서 발생했고, 그것을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집회들은 미리 계획된 대본에 따랐지만, 시민들은 절대공동체의 분위기를 기억했고 때로는 자신의 울분을 쏟아내기 위해 연단에서 나서려고 자원했다.”⁷⁷⁾ 그는 계속 말했다. “집회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토론이 이뤄지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상처를 쓰다듬어주는 곳이었다.”⁷⁸⁾ 많은 집회에 참석했던 이재의는 명료하게 반대한다. “집회는 일종의 직접민주주의 과정이었고, 그것을 통해 민중의 의지가 논란의 여지없이 표현됐다.”⁷⁹⁾ 최종적 분석에서 이 집회들이 직접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사전에 준비된 대본인가는 실제로 일어난 일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아마도 언젠가 연구자들은 녹음된 기록의 녹취록에 기초하여 광범한 대화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첫 번째 집회는 군대가 퇴각한 다음날 아침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졌다. 사람들은 최신 소식을 알고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민주광장으로 몰려왔다. 5월 22일 오전 6시 수백명의 사람들이 도청 내부로 몰려들었다. 오전이 지나자 확성기를 가진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거리를 청소합시다.” “무장한 시민들은 광주공원으로 가십시오.” 오전 9시경 약 1천명의 무장한 투사들이 민주광장에 모였다. 오전 11시경 약 4만명의 사람들이 도청 주변에 모여들었다. 8명의 전남대 교수들이 보이스카웃 사무실에서 회의를 소집했다. 부지사 사무실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자 모임은 곧 흐지부지 됐다. 분수대 주위에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열띤 토론이 시작됐고 때로 학생들이 확성기로 도움을

76) Interview with Chun Yong-ho, Gwangju, June 4, 2008.

77) Choi, *The Gwangju Uprising*, 210-1.

78) *Ibid.*, 212.

79) Lee Jae-eui, *Kwangju Diary*, 117.

졌지만, 곧 무리는 너무 커져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됐다. 분수대를 덮에 마련한 연단에서 사망자 명단이 낭독된 후 사람들은 그 주변에 모여서 전날 도시 여러 곳에서 벌어진 전투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을 경청했다. 나중에 토론은 어떤 투쟁의 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으로 바뀌었다.

[표 6.1] 해방광주의 집회

날짜	집회시간	참석자	주제 및 주요 사건
5월 22일	오후	30,000-40,000	다양한 두서없는 토론
5월 22일	오후 5시	100,000+	사망자 추모, 시민수습위원회가 협상결과 발표, 정시채 부지사가 주관, 8명의 협상단 소개, 장후동이 “무기를 포기하라”고 말했다가 아유받음, 김정배가 저항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환호받음, 수습위원 퇴장, 광주 양대조폭 OB파와 화순파 두목 집회에서 나와 투쟁에 협력하겠다고 선언
5월 23일	오전 10시	50,000	“전도시적 집회”가 오후 3시에 예정돼 있었지만,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11시 30분에 시작됨, 김태종이 사회를 봄, 부상자를 위한 사랑의 모금 진행, 오후 1시 김장길이 총기 200정과 교환한 포로 34명과 함께 귀환, 이 때 뇌관을 해제한 군 폭발물 전문가도 데려옴, 학생수습위 무기를 모으기로 결정, 2,500정 모음(접수한 5,400정 의 50 퍼센트)
	오전 11시	50,000-100,000	
	오전 11시30분	150,000	
	오후 3시	100,000+	
5월 24일	오후 2시30분	100,000	“2차 전도시 집회”: 군중들 수습위에 항의하며 세부사항 밝힐 것을 요구함, 수습위 방송시설 사용허가를 거부함, 집회확성기 전원을 뺐, 전기가 없자 최루탄 차량 이용, 전두환 허수아비 화형, 오후 7시 수습위 모임, 윤상원과 정해직이 김장길 비판, 이후 YWCA에서, 그 이후는 보성건설에서 회의진행
5월 25일	오후 3시	50,000	“3차 전도시 집회”: 수습위 사퇴를 요구함, 지역 문제 논의, 오후 9시 김장길 도청을 떠남, 시민-학생투쟁위원회 결성
5월 26일	오전 10시30분	30,000	“4차 전도시 집회”: “새로운 국민화합정부” 요구, 30,000명이 가로를 따라 행진하면서 “직접 민주주의” 요구, 군대 헬리콥터가 상공을 순회하면서 전단 살포
5월 26일	오후 3시	30,000	“5차 전도시 집회”: 주최측 군대가 곧 공격할 것이라고 발표 고등학생들이 이끄는 6,000명 시위

이렇게 공개적 토론이 이뤄지는 동안, 몰래 모인 시민수습위원회는 도시를 대표해 협상하기로 결의했다. 부지사 정시태가 이끌고 주로 저명한 정치인, 종교지도자, 사업가, 전문적 등으로 구성된 수습위원회는 군 고위지휘부와 만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라는 지침과 함께 대표단을 파견했다.

1. 더 이상의 군대 개입 금지
2. 모든 구속자 석방

3. 과도한 폭력사용 인정
4. 보복 금지
5. 모든 불기참여자 사면
6. 사망자 보상
7. 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무장해제 약속

대표단의 군 지휘관들과의 협상은 대략 오후 3시까지 지속됐고 수습위는 포로 848명의 석방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수습위의 자천적 성격과 엘리트 구성이 과연 수습위가 모든 시민을 대표한다는 의미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주로 원로 반정부 활동가들로 구성된 다른 그룹이 남동성당에 모였고, 곧 핵심그룹이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민주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토론 조직화의 개선과 보다 공개적인 형태의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표현했다.

오후 5시 직후 대략 10만명의 사람들이 광장을 채웠다. 집회는 사망자에게 조의를 표하는 개회행사로 시작됐다. 부지사 정시채가 사회를 보면서 수습위원들이 자신을 소개했고, 협상 7개항과 그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⁸⁰⁾ 포로 석방의 소식을 듣고 또 수습위가 “유혈사태를 막고 질서를 유지할” 희망을 표하자 사람들은 환호했다. 운집한 군중은 계엄군 사령관이 군대의 과도한 폭력에 대해 유감을 직접 표현했다는 말을 듣고 아주 기뻐했다. 승리에 기뻐하면서도 사람들은 전투재개를 두려워했고, 이것은 누구나 피하고 싶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환호에 과감해진 수습위원 장휴동은 앞으로 나서서 “무기는 모아서 반납하고 공공안전은 계엄사령부에게 위탁할 것”을 선언했다. 즉각적으로 사람들은 반대하기 시작했다. 야유는 커다란 조롱으로 변했고 고함소리가 광장을 메웠다. “우리는 굴욕적 협상에 반대한다!” “전두환을 처단하라!” “계엄령을 철회하라!” 수습위원회는 무대에서 물러났다.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도시의 가장 존경받는 원로시민들의 권위를 압도했다. 이 원로 중에는 부지도도 포함됐는데 사전에 준비된 그의 대본은 시민들의 무장해제를 요구했다. 대의제 정부에 굴복하기보다, 사람들의 진심어린 외침과 행동을 통해 표현된 집회의 직접 민주주의가 압도했다. 이 한 순간에 자기 삶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들은 상황을 혁명화시켰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습위의 협상가들을 거부했다. 군대가 다시 한번 무자비하게 그들을 살해할 것이란 그들 자신의 믿음은 무기를 포기하기 전에 도시가 정의를 쟁취해야 한다는 감정만큼 널리 퍼져있었다. 광대패 지도자 김태종은 협상당이 집회에 보고하면서 사람들이 “가능한 한 빨리 무장해제를 하고 도지사의 사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충고한 순간을 목격했다. 사람들은 야유했고, “일부 시민들은 연단으로 달려나가 마이크를 빼앗고 수습위원들을 점잖게 내쫓아왔다. 이 광경을 보고서 나는 광주 시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게 됐다.”⁸¹⁾

야유소리가 멈추자 학생 김정배가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무기를 넘겨주길 거부함으로써 4월의 투쟁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무기를 반납한 다음 잔인한 공격을 받았던 사복 탄광 광부들의 예를 인용하면서, 저항을 계속할 필요성을 선언하자 김정배는 환호를 받았다. 옥상에서 지켜보던 많은 시민-병사들은 공중에 총을 쏘면서 찬성을 표시했다. 막대한 다수

80) Chung, Rhyu, et al., *Memories of May 1980*, 253; Lewis, *Laying Claim*, 28.

81) Gwangju City, *Library of Data for the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vol. v (Gwangju, 1997), 353, as reported in Choi, *The Gwangju Uprising*, 185.

의 사람들이 명확하게 일치했다. 여기에 보통사람들의 지혜가 도시의 정치엘리트의 지혜를 초월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 사복 광부들의 투쟁을 해석할 시민들의 역량은 우연이 아니라, 민중의 직관이 어떻게 정치발전을 이해하는지의 지표이다. 집회에서 두가지 원대한 요구가 등장했다. 그들에게 자행한 범죄로 전두환의 구속과 수습위가 주장했던 대로 사망자 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부상자, 구속자, 사망자의 가족에 대한 보상.

광주의 직접민주주의 형태는 1871년 파리코뮌의 공화주의 정부를 훨씬 능가한다. 파리에서 약 230,000명의 시민들은 90명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했다. 해방된 파리 내부에서 승리한 후보에는 적정부의 지지자 15명과 정부에 반대하지만 코뮌의 권력장악에도 반대하는 시민 15명이 포함돼 있었다.⁸²⁾ 더욱이 새로 선출된 코뮌 대표들은 고려해야 할 유일한 권력이 아니었다. “공화파 중앙위원회[군주제보다 민주주의를 선호한 지역 협의체]가 그림자 정부로 활동했다.”⁸³⁾ 게다가 국방방위군의 고위 장교들도 자기 부대에 명령을 내렸다. 때로 야전의 군 지휘관들은 세가지의 상충되는 명령을 받았다. 선출된 코뮌 정부는 실질적으로 권력이 없었고, 군사문제에서는 국민방위군 중앙위원회의 라이벌이었고 공화파 지구협의회에 비하여 정치권력이 왜소했다. 선출된 관리들은 밀실에서 만나 그들의 차이에 대해 논쟁을 벌였고 자주 결정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기에, 결국 파리 민중을 탈정치화시켰다. 선거 다음 날 20만명이 선거결과의 발표에 참가해서 호텔드빌(시청)에서 새정부 취임식을 지켜볼 때 군중의 수동성 명백했다. 모든 사람들이 발언권을 가진 광주 민주광장의 자유로운 집회와 달리, 파리의 민중은 대표자들이 취임선서를 할 때 구경꾼이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떠났다. 해방 광주의 전기간 동안 거대한 집회와 나란히, 때로는 그 집회 동안, 하지만 항상 집회 전과 후에 소모임들이 모였고 위원회가 구성됐고 사람들은 제안을 정식화해서 다음날 집회로 가져왔다. 진정한 활동의 근거지가 생겨났다. 민중회의와 소그룹 간의 상호작용은 확장하는 민주주의를 상호적으로 증폭시키는 역학에서 서로를 강화했다. 이 집회들은 자기조직화 과정을 앞으로 추동하는 데 기여했다.

몇 년 뒤 봉기동안 개인적 경험을 증언하면서 송기숙교수는 어떻게 분수대의 첫 모임에서 자신과 명로근 교수에게 사람들이 접근해서 활동가들을 모아서 “상황에 대처할 노력을 이끌” 본부를 만들라고 부탁했는지 설명했다.⁸⁴⁾ 사람들은 수습위원들의 전력을 볼 때 투쟁을 이끌기보다 팔아먹을까봐 우려했다. 송기숙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 데에도 반대했지만, 명교수와 함께 행동했다. 한 학생이 준 메가폰을 잡고서 명로근은 연설을 시작했다. “전남대와 조선대에서 각각 다섯명의 대표를 뽑아주시오.” 그는 계속 말했다. “지금 비록 공수부대가 쫓겨났지만, 시민군은 당황한 상태고 본부도 없이 혼란스런 와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학생들이 시작한 것이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끌어야 합니다. 도청건물로 가서 학생수습위원회를 조직합시다.” 그렇게 해서 명로근 교수는 사람들을 도청 정문 앞으로 이끌었고, 거기서 전투경찰에게서 빼앗은 보호헬멧을 거꾸로 쓴 시민군 대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시 외곽에서 군대와 하루 종일 사운 다음 박남선은 오후 11시 투사들의 조정실로서 기능할 “상황실”을 설치했다. 10명의 학생 대표자들은 건물로 들어가서 행정 사무실로 안내받았다. 그것은 한 목격자가 묘사한 바대로 “완전한 혼란”이었다. 마침내 학생들이 비어있던 보이스카웃 사무실로 들어가 자신들의 공간으로 만들었다.⁸⁵⁾ 그들은 김장길을 위원장, 김정배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학생수습위원회를 결성했다. 둘다 학생운동가로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다.

82) Alain Plessis estimates that the number of voters at 230,000 out of 470,000 people who were registered. See *The Rise and Fall of the Second Empire 1852-87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171

83) Roger L. Williams, *The French Revolution of 1870-871* (New York: W.W. Norton, 1969), 90, 122, 130.

84) This incident is described in Documents, 9-10.

85) Lee Jae-eui, *Kwangju Diary*, 107, says there were fifteen representatives.

봉기의 확산

광주의 진원지로부터 봉기는 화순, 나주, 함평, 영광, 강진, 무안, 해남, 목포 등 전라남도의 최소한 16개 시군으로 확산됐다.⁸⁶⁾ 아무도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도, 수백명이 사람들은 광주 사건의 소식을 친구와 가족들에게 전했다. 무장 반란대 역시 외곽지역을 체계적으로 순찰하려고 했고, 군대의 저지선을 돌파할 수 있는 곳에서는 포위된 도시로 가능한 많은 음식과 무기, 탄약을 가져왔다. 반란의 급속한 확산은 민중의 자치와 자율적 주도 역량의 또 다른 지표이다. 봉기를 제주와 서울로 확산하길 희망했던 반란군 경호대는 전라남도에서 벗어나 고속도로, 국도와 철도를 봉쇄하던 부대에 격퇴당했다. 도시 내부에서 패배했던 군대는 작전을 사람들이 도시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막는 데 집중했다. 무장 헬리콥터 들은 광주에 들어가려는 화순과 영광의 무장 시위대를 쏘았다.⁸⁷⁾ 군대는 또한 도시를 떠나려는 광주 시민들을 매복 공격했다. 만약 군복이 언론을 그렇게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이동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반란은 당연히 사람들의 희망대로, 그러나 미국 관리나 그들의 한국인 동맹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전국적 봉기로 전화했을 것이다.

[도표 6.1] 전라남도 봉기의 경로

Source: Lee Jae-eui, *Kwangju Diary*, 96.

광주, 무안, 신북, 송천, 우수영, 북화순, 화순, 화순탄광

새로운 봉기와 시위, 반란군 무장차량의 이동경로

송정리, 함평, 해제, 영암, 보성, 목포, 장흥, 강진, 완도, 해남, 나주, 영산포

5월 21일 광주의 투사들을 짝 태운 4대의 고속버스가 항구도시 목포, 김대중 지지자들의 본토에 도착했다. 소문이 퍼지자 시민들은 재빨리 소식을 알기 위해 철도역에 모였다. 120명의 투사들 가운데 겨우 30여명만 소총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막대기로 무장했다. 많은 수가 마스크를 했다. 텔레비전은 이를 동안 끊겼고 사람들은 소식을 듣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오후 4시경 2만명이 모였다. 해가 지고 군대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시청을 공격했고 경찰 무기고를 비웠고 KBS와 MBC 내부를 파괴했다. 어느 방송도 최근 사건에 대한 진실된 보도를 하지 않았다. 1,600정 이상의 무기 빈 경찰서에서 수거됐다. 곧 수천명의 사람들과 약 80대의 차량이 철도역에 모여 목포시민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중의 환호로 안철이 위원장에 지명됐다. 군대는 아직 아무데서도 보이지 않았다.

5월 22일 무장시위대가 파출소, 중앙정보부 지부사무실, 세무서를 공격했고 무기를 접수하고 기록을 파괴했다. 시내의 모든 학교가 폐쇄됐고 시민들은 시내로 몰려들었다. 오후 2시 민주헌법을 위한 최초의 시민집회가 시작됐다.⁸⁸⁾

최소한 사흘 밤에 횃불행진이 있었다. 자랑스런 아들 김대중(DJ) 체포에 항의하기 위해 10만 명이 행진했고 연속 5일간 민주헌법을 위한 집회가 열렸다.⁸⁹⁾ 5월 26일 최소한 3만명이 참가했다.⁹⁰⁾ 시민위원회가 효율적으로 도시를 통제했고, 심지어 광주합락 이후인 5월 28일과 29일 수만명이 거리로 나서 “광주의 피의 대가를 치러라!”라고 외쳤다. 마침내 군대가 도착하자 최소한 56명의 활동가들이 체포되어 상무대 교도소로 보내졌다.

86) The May 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164; Documents, 72.

87) Lee Jae-eui, *Kwangju Diary*, 137. Interview with Na Il-sung, December 17, 2001.

88) Chung, Rhyu, et al., *Memories of May 1980*, 258.

89) Documents, 105.

90) Interview with Lee Sung-sok, October 15, 2001.

함평 농민들은 5월 18일 고구마투쟁 승리 2주년 기념식을 위해 광주 북동성당에 와 있었다. 서경원은 교회를 떠나다가 공수부대원들이 비무장 청년들을 구타하게 무릅쓰게 만들고 어린 여학생들이 옷을 벗도록 강요하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렸다.⁹¹⁾ 함평으로 돌아와서 그는 주변의 청년들을 모았고 소총을 구하려고 지역 경찰서를 습격했다. 비록 경찰이 안에 있었지만 서경원에게 저항하지 않았다. 아마도 광주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거나 서경원의 그룹의 젊은 강패들에게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트럭 가득 양파와 카빈총 1박스, 약간의 탄약으로 채운 다음 그들은 더 많은 지원군을 모으기 위해 출발했지만, 광주로 가려는 계획을 완수하기 전에 경찰에 잡혔다. 전주에서 사람들은 시청을 접수했지만, 경찰은 곧 그들을 몰아냈다. 나주에서 약 30명의 광주 투사들이 지역 사람들과 합세해 소총 1천정과 탄약 5만발을 접수했다. 강진에서 경찰 및 군대와 충돌로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한 반면, 장흥에서는 수백명이 도착한 시위대를 환영하러 나왔다. 5월 21일 아침 화순 군내에서는 약 200명의 반란군이 도착했다. 광부들과 함께 그들은 근처에서 네 박스의 다이어마이트와 1백여개의 뇌관을 가져왔고 그것을 반란군에게 전달했다. 전주와 이리에서는 경찰이 시위에 합류한 것으로 보도됐다.⁹²⁾

해남사람들은 특히 진심으로 봉기에 반응했다. 시민들은 매일 집회를 열었고 일부는 총으로 군대와 싸웠다. 한 여학생이 광주의 사살 소식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 사람들은 재빨리 모였다. 시민군 대원들이 나주에서 도착했다. 그들은 파출소 벽에 차를 들이받고 카빈과 탄약을 가져갔다. 광주로 갈 차량 73대의 행진대가 구성되자 박행삼을 호송대 지도자를 뽑았다. 박행삼은 이승만을 타도한 1960년 봉기 동안 체포된 바 있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학생들이어서 그를 지도자로 뽑는 것은 쉽게 동의됐다. 그런 다음 각 차량은 조장을 뽑았다. 세대의 트럭을 남평으로 보냈지만, 도중에 공격을 받았고 두 대의 트럭에 있던 사람들이 죽었다. 세 번째 트럭은 다시 나주로 돌아왔고 지친 투사들은 지역 사람들이 준 음식을 먹고 나서 버려진 경찰서에서 잠들었다. 1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곧 인근 중학교에 모였다. 더 많은 사람과 차량으로 다시 한번 출발한 호송대는 뒤집힌 트랙터 밑에 깔린 학생을 구하기 위해 멈췄다. 그들이 다시 도로로 돌아와 광주로 향하자, 근처 공군기지의 헬리콥터의 지원을 받는 군부대가 그들을 제지했다. 그들과 대화를 한 공군 장교들은 그들이 그렇게 많은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멀리 온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다. 협상을 하는 동안 투사들은 공군기지가 다른 기지로 옮겨졌다는 알았고 봉기로 비행기를 빼앗길까봐 두려워 했다고 추측했다. 압도적 화력의 배치에 직면해서 약 150 내지 200명은 투사들은 그냥 잡혀갔다. 그들은 5월 22일 석방됐다.⁹³⁾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광주 반대편으로 향했고 작은 그룹으로 흩어졌다. 22일 밤에 군대는 울술재에서 기관총과 수류탄으로 한 그룹을 매복공격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정부기록은 3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자들은 7명이 죽었고 헬리콥터가 그들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⁹⁴⁾ 5월 23일 호송대의 많은 지친 사람들이 나주에서 아침을 먹었다. 그들은 해남에서 약 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매복공격을 당했다. 학생들을 실은 두 대의 버스가 집중 총격을 받았고 최소한 1명이 사망했다.

화순에서 온 한 무장그룹은 완도로 넘어갔다. 확성기를 사용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모이라

91) Interview with Suh Kyong-won, October 20, 2001. During the 1987 June Uprising, he was a representative of the farmers in the Kukbon.

92) Documents, 61.

93) Interview with Park Haeng-sam, May 16, 2001.

94) Interview with Kim Pyong-yong, Yang Hae-do, Han Kyong-jin, and Yoon Shik, Haenam City Hall, April 21, 2008. They insisted soldiers killed seven people, although the government counted only three. Two of the participants saw bodies airlifted away by helicopter.

고 호소했고, 1시간 안에 봉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1천명 이상 모였다. 심지어 경찰관도 합세해 40정의 총을 모으는 것을 도왔다. 한 사제는 순천행 고속버스에서 한 그룹을 이끌었고, 거기서 사람들은 봉기의 지지에 열광적이었다.⁹⁵⁾ 명백하게 더 이상의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1948년 여순봉기의 진압 동안 시민들이 겪은 만행의 기억이 사람들을 머리 속을 헤맸을 것이다.⁹⁶⁾ 무안에서는 경찰서와 여러 파출소가 무기 때문에 습격당했다.

봉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라남도에 아주 급속하게 퍼졌다. 전남의 공동체적, 평등주의적 전통은 압도적 곤경에 맞선 투쟁의 일화로 가득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역의 급진적 정치는 수많은 원천으로 풍부해졌고 판소리, 민중문학, 전통 한국화, 탈춤과 가면극 같은 독특한 지역문화와 나란히 존재한다.⁹⁷⁾ 1978년까지 경부선을 따른 박정희의 경제발전에서 주변화된 광주의 GNP는 전국평균의 75퍼센트에 불과했다. 농업은 전남의 총생산의 38퍼센트를 차지했고, 전국평균보다 18퍼센트나 많았다. 1980년 전라도의 토지소유는 고도 집중화돼 있었고 일본점령의 유산이었다. 1942년까지 모든 토지의 절반 이상이 대지주의 소유였고, 전라북도에서 모든 가구의 85퍼센트가 땅없는 소작농이거나 반소작농이었다. 커밍스는 1946년 소작농과 반란 사이의 반비례 관계를 발견했다. 1980년까지 이 관계는 변했는지 모른다. 중요하게 1980년 광주에서 7명중 1명은 대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었고, 전부 학생은 110,000명이었다. 장상용이 표현했듯이, “광주는 단순히 도청 소재지가 아니라 호남 교육의 중심지였다. 광주학생은 도시와 인근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을 연결하는 혈연적 유대를 갖는 가교였다.”⁹⁸⁾ 비록 농촌인구는 1956년 전체인구의 55퍼센트에서 절반으로 줄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조상들의 고향과 연결돼 있었다. 농촌에서 도시이주는 더욱 많은 전라도 사람들이 노동계급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했다. 아마도 1980년에 46.6퍼센트나 됐다. 그러나 1975년 지역 노동자들의 겨우 2.0퍼센트만이 대공장에서 직장을 다녔고 1981년에는 2.3퍼센트였지만, 1986년 전라도 산업노동자의 55.2퍼센트는 농업과 임업에 종사했다.⁹⁹⁾ 미국으로부터 잉여농산물이 시장에 밀려들었고 그 결과 농업에 의존한 전라도 경제는 붕괴하고 있었다.¹⁰⁰⁾

경제적 주변화 외에도 전라도 사람들은 광범한 차별과 멸시를 겪었다. 전국TV의 코미디는 들은 사기꾼, 도둑, 룬펜, 강패라는 딱지를 붙여 그들을 조롱했다. 사람들이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열등하다는 감정은 너무나 뿌리 깊어서 많은 지역주민들은 자신을 내부의 식민지로 여겼다. 1960년에서 1980년까지 호남의 인구는 급속하게 줄었고, 워싱턴에 보낸 글라이스틴의 전문에도 지적된 사실이다. 그는 또한 상관들에게 많은 호남사람들 부산과 서울에 살고 있다고 상기시키려는 커다란 수고를 했는데, 봉기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는 데 기여한 또다른 요인이다. 전라도의 프롤레타리아화한 농민, 노동계급과 룬펜은 모두 진보적 학생들과 함께 투쟁세력으로 결집됐는데, 그들의 계급구성은 지역적 성향만큼이나 중요하다. 다른 한국인들이 결정적 행동을 하지 못한 실패로 봉기는 고립화됐고 군부가 모든 힘을 집중할 수 있었다.

시민위원회의 갈등

해방광주 내에서 전투가 끝나지 기쁨과 함께 모든 곳에서 혼란이 지배했다. 최소한 3개의

95) Ibid.

96) Ahn Song-rae raised this issue at the May Mothers' House, Gwangju, January 12, 2009.

97) See Yea's "Cultural Politics of Place in Gwangju City and South Jeolla Province," in Contentious Kwangju.

98) Choi, *The Gwangju Uprising*, 140.

99) *Essays*, 64-5 (see chap. 5, n. 102).

100) *Essays*, 61.

다른 수습위원회가 결성됐고, 10여개 그룹들이 도청으로 옮겨왔다.¹⁰¹⁾ 풀뿌리 조직들의 등장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이 과정은 모두에게 투명했고 모두에게 열려있었다. 심지어 한 시점에 정부조차 공개적으로 봉기를 “공동체의 자기통치”라고 언급했다. 도청은 여전히 도시의 정치생활의 중심에 있었지만, 자율적 집단들이 버려진 사무실을 접수하면서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개입했다. 동굴같은 구조 내부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

작은 그룹들도 다른 모임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작업그룹이 구성됐고 남동성당, YWCA, 최소한 한 개의 장로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토론모임을 가졌다. 5월 22일 오전 10시30분경 8명의 복음교회 목사 그룹이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모였다. 그들중 한나가 아놀드 피터슨으로 그는 그 당시 광주에 있던 미국인 침례교 선교사였다. 그는 나중에 회고했다. “그들이 가진 감정의 일치점은 ”이건 말도 안돼“라는 구절로 요약할 수 있다. 한 도시의 시민들이 아무런 의식적 계획과 지도부 없이 들고 일어나 정부를 전복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¹⁰²⁾ 봉기가 시작됐을 때 지도부가 제자리 없었는지 몰라도, 투쟁의 도가니에서 군부의 결연한 적이 많이 생겨났다.

처음으로 구성된 두 수습그룹은 시민수습위원회(CSC)와 학생수습위원회(SSC)였다. 공식적으로 5.18 시민대책위원회로 알려진 시민수습위는 사제, 목사, 변호사, 기업인, 교수, 정치인 등 약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존경받는 항일운동가 최한용과 윤공회 대주교로 대표되는 수습위는 5월 22일 집회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몇시간 전에 결성됐다. 이와 달리 학생수습위의 소란스런 기원에는 사전에 서로 알지도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관여했다. 이 두 그룹은 신속하게 봉기를 종식시킬 방법을 찾으려고 시도했다. 5월 22일에 군대는 시민수습위와의 협상 이후 848명을 석방했고 23일에는 민주광장의 민중회의가 승인한 가운데 수습위는 총기 200정을 군대에게 돌려줬고 그 대가로 34명의 추가석방을 확보할 수 있었다.¹⁰³⁾

무장그룹들은 1층의 상황실에 사무실을 차지한 반면, 수습그룹들은 윗층의 별도의 공간에서 모였다. 때때로 공동회의가 소집됐다. 5월 23일 박남선은 경비의무를 조직했고 매우 의심스런 성격이 여러 사건 이후에 건물 출입증을 만들었다. 건물 내부의 많은 투사들은 처음에 학생수습위원 생각조차 거부했고, 단지 민주주의와 존엄을 위해 “결사투쟁”만을 언급했다. 송기숙 교수가 참을성있게 설득했고 곧 학생수습위는 장례와 의료, 대안언론, 시민들의 통제 아래 있는 수습대 차량의 관리, 무기수거 등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시민수습위는 군대와 협상을 했고, 학생수습위도 그랬다. 때로 두 그룹은 공동성명서를 냈지만, 서로 상이한 목적으로 일하기도 했다. 자주 수습그룹들은 YWCA 그룹, 남동성당 그룹 또는 시민군과 갈등을 빚었다. 이 자율적 조직들의 다중심적 교향악은 시민총회의 포럼을 통해 정리됐다. 어떤 사람에게 불협화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멜로디였던 광주는 그 최상의 형태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체화했고, 뉴잉글랜드 마을모임, 1968년 5월 소르본의 신좌파 총회와 1970년 5월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그리스 극장 등과 유사했다.

수습위가 사람들에게 항복하라고 설득하려고 시도했다가 거대한 반대에 부딪힌 5월 22일 집회의 휘발성 때문에 사람들은 저명인사들을 더 잘 다루기 위해 집회를 조직할 필요성을 확신하게 됐다. 이 개인들이 자신의 결정을 주장하고 도시의 방향을 손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해야 했다. 이재의가 회상한 것처럼, “사람들은 토론에서 지속성의 부재에 좌절했다. 그래서

101) Interview with Yoon Young-gyu, December 18, 2001.

102) Peterson, “5:18 The Kwangju Incident,” 49.

103) Lewis, Laying Claim, 29, 33; Choi, The Gwangju Uprising, xvii, 184.

윤상원과 박효순이 다음날 마이크를 가지고 와서 보다 체계적인 집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¹⁰⁴⁾ 들불야학, 광대 연극패와 녹두서점 활동가로 구성된 핵심그룹이 결성되어 일일 집회를 조직하는 것을 도왔다. 그 날 집회와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표현했던 필요 때문에 그룹은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5월 23일 다음날 아침 오전 6시 수백명의 중고학생들, 아마도 전부 7백명이 도시의 거리를 청소했던 동안 예술가협회의 팀들이 “민주주의 수호 1차 시민대회”를 알리는 대자보 포스터를 붙였다. 같은 날 오전 노조 조직가 박태봉은 아시아 자동차에서 도청으로 차를 몰고갔고 거기서 거리에서 불탄 버스와 자동차, 잔해와 버려진 차량을 치울 권한을 부여하는 고무도장이 찍힌 작은 수령증을 받았다. 해방광주의 많은 사람들처럼 박태봉은 도시와 시민에 대한 최대한의 존경으로 자기 일을 수행했다. 그는 자기 노력에 대해 돈을 받지 않았고 전투의 잔해를 청소하라는 부타를 받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 일을 했다.

〈가면을 벗은 숨은 얼굴〉 홍성담작 목판화 294x405 mm. 1983

같은 날 아침 더 일찍 미국 당국은 백악관에서 모임을 소집했다(5월 22일 오후 4시, 즉 한국시간으로 23일 오전 6시경). 한국상황을 논의한 이 특별한 모임에는 국무장관 에드먼드 머스키, 국무부장관 리처드 홀브룩, 국가안보보좌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CIA 국장 스탠퍼드 터너, 국방장관 해롤드 브라운, 전CIA 서울지국장 도널드 그레그가 참가했다. 글라이스틴의 기밀전문으로 모든 사람들이 브리핑을 받았는데, 미국대사는 이렇게 썼다. 광주는 “완전히 공포의 장으로 변했고... 폭도들은 상공의 헬리콥터에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글라이스틴은 “폭도들이 “약탈”하고 있으며, “차량 238대, 소총 3,500여정, 탄약 46,00발을 탈취”한 다음 사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¹⁰⁵⁾ 글라이스틴은 잘못된 정보는 상황에 대한 그 자신의 잘못된 해석 때문이든 아니면 남한 군부가 그에게 알려준 잘못된 보고에 대한 의존 때문이든, 백악관 모임은 “최우선 목표는 광주에서 질서의 회복이란 일반적 동의”에 도달했다.¹⁰⁶⁾ 그들은 봉기의 진압을 승인했고 동시에 서울 지하철 확장과 웨스팅하우스의 새 핵발전소 건설 같은 남한의 대형계약에 대한 미국의 재정을 조정하기 위한 미국수출입은행 총재 존 무어의 6월 서울방문도 승인했다.¹⁰⁷⁾ 5월 23일 백악관모임 직후 서울에서 박충훈 총리와 의 만남에서 글라이스틴은 “확고한 반폭동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¹⁰⁸⁾

다른 한편 광주에서는 “1차 전광주 집회”가 5월 23일 오후 3시에 예정돼 있었지만, 오전 11시30분경 최소한 5만명의 시민들이 민주광장으로 몰려들었고 그 숫자는 정오경 두세배로 늘어났다. 가족들이 사망자를 확인하고 유가족과 친척을 위로하고 여학생들이 부상자를 위한 “사랑의 모금”을 하던 “아고라” 포럼이 조직가들의 계획을 뛰어넘었다. 150,000명이나 되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자 집회는 예정보다 몇시간 일찍 시작됐다. 사람들은 모든 무기를 반납하기를 거부하면서도 약간의 무기로 가능한 많은 포로들과 교환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사

104) Interview with Lee Jae-eui, April 15, 2008.

105) GDMM IX: 219. (80Seoul 006522). The figures given by ROK Command HQ also went on to delineate among the vehicles eighty-nine jeeps, fifty trucks, forty wreckers, forty buses, ten dump trucks, and eight tear-gas-firing jeeps that had been commandeered. Kwangju Uprising: Eyewitness Press Accounts, 82.

106) See Gleysteen, Massive Entanglement, 135.

107) Tim Shorrock's groundbreaking articles in 1996 were based on documents he obtained individually known as the Cherokee Files. The more than three thousand pages of documents obtained by the city of Gwangju provide an even more detailed understanding of U.S. policymakers' actions and thinking in this period. See Tim Shorrock, "Debacle in Kwangju: Were Washington's cables read as a green light for the 1980 Korean massacre?" Nation, December 9, 1996, http://base21.jinbo.net/show/show.php?p_docnbr=20896.

108) GDMM IX: 235: 80Seoul 006610.

회자 김태종이 개회 연설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피와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은 백악관 모임의 직관적 인식이었는가?¹⁰⁹⁾ 사람들의 열광적 반응은 많은 참석자들이 투쟁의 운명을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순간 새로 구성된 학생수습위의 지도자 김장길이 무기와 교환한 석방된 포로들을 데리고 집회에 도착했다. 명백하게 김장길의 모든 쪽에서 그의 노력에 대해 보여준 선의에는 어두운 측면이 있었다.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장길은 비밀 군사폭발물 전문가도 데려왔고 그는 그를 도청 지하실로 안내해서 화순 광부들이 가져온 폭발물의 뇌관을 제거하도록 도왔다. 며칠 후에야 시민군은 이 배신을 발견했다. (김장길은 5월 22일, 23일, 25일과 26일 상무대의 군대 야영지를 방문했고 미리 세워진 특수 핫라인을 적절히 이용했다.)¹¹⁰⁾

[사진] 5월 24일 해방광주에서 활동가들이 무기를 모았다. 사진작가: 황종건

우리는 그 시점 시민군의 느슨한 보안을 용서할 수도 있다. 시민군은 아직 공식적으로 결성되기 전이었다. 이 점에 대해 해방광주 2일차에 민주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집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특히 아주 많은 친구와 동료 시민들이 군대의 억류에서 풀려난 것을 보고 마음을 놓았다. 다른 많은 시민군 대원들은 여전히 도시의 외곽을 순찰하고 있었고, 외곽에서 전투는 여전히 격렬했다. 김장길이 풀려난 포로들과 함께 도착한 지 한시간도 안돼서 봉기대는 남서부 백운동에서 정찰헬기를 격추시켰다.¹¹¹⁾ 거이 같은 시간에 지원동 주남 마을에서 젊은 여성 섬유노동자 2명과 시민군 9명이 매복공격을 당했고 모두 살해됐다. 나중에 18명을 태운 미니버스가 같은 지역에서 매복공격을 받았다. 최초의 공격에서 세명이 살아남았다. 2명은 즉결처형 당했지만, 홍금숙은 살아남았고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 증언했다.¹¹²⁾ (몇몇 시체는 인근 마을로 끌고가서 이름없는 무덤에 무뎠고, 이 시신들은 1987년까지 거기에 그대로 묻혀 있었다.)

집회 마지막에 사람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른 다음 많은 사람들은 무기를 포기하라는 수습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명백하게 포로석방으로 많은 시민들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독재의 의도를 확신했다. 수습위가 조직적으로 마을과 전선의 시민군을 조사하 다음에 그들은 사람들의 손에 있다고 추정되던 5,400정 가운데 2,500정만 겨우 모았다.¹¹³⁾ “광주 시민들을 분열시키려는 정교한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었고”¹¹⁴⁾ 김장길은 거기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 도시 전역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통학버스 타이어에 구멍을 냈고 확성기 장비가 파괴됐다.

그날 밤 도청 내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김장길은 집회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집회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상황을 평화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모든 무기를 반납해야 한다고 믿었다. 비록 트랙터로 신성한 야채가 도시로 공급되었음에도, 다른 물품들은 떨어지고 있었다. 군대가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김장길은 설득력있는 주장을 폈고 대부분

109) Choi, *The Gwangju Uprising*, 15.

110) Interview with Kim Chang-gil, October 25, 2001.

111) Lee Jae-eui, *Kwangju Diary*, 112.

112) Lewis, *Laying Claim*, 35-7.

113) Chung, Rhyu, et al., *Memories of May 1980*, 316; Choi estimated the number of arms returned at 4,000 guns and 1,000 grenades (*The Gwangju Uprising*, 195). Lee counted the total number of arms seized by the militia as 2,240 carbines, 1,225 M-1 rifles, 57 pistols, dozens of M-60 machine guns, 2 light machine guns, many hand grenades, 46,400 rounds of ammunition, 4 boxes of TNT, 100 detonators, 5 armored vehicles, and many army jeeps, trucks, radios, and gas masks. Also see Lewis, *Laying Claim*, 27.

114) Chung, Rhyu, et al., *Memories of May 1980*, 317.

의 수습위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확신시켰다. 도청에서 학생수습위가 모이는 동안, 몇 블록 떨어진 YWCA에서는 활동가들이 다음 날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모였다. 그들의 관심은 전도 시적 장례식의 필요성으로 쏠렸다. 그 시점에 5백명이 줄지어 서서 기다리다가 들어간 상무 무술도장에서는 벌써 수천명이 방문해서 열사들의 시신을 보고 있었다.¹¹⁵⁾ 많은 양의 향을 피웠음에도 심한 악취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코피를 흘렸다. 사람들은 적절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실패는 수습위원회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한 징표라고 느꼈다. 활동가들은 다음 날 집회에서 사용한 시, 단막극, 노래, 전두환 허수아비를 준비하느라 그날 밤을 새면서 일했다.

다음날 오전 군부는 라디오 방송으로 무기를 반납하는 사람들은 체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주광주 주위에서 시민수습위의 협상 “성공”을 알리는 유인물이 뿌려졌다. 군대는 과도한 폭력이 사용됐음을 인정했고 927명의 포로 중에서 79명을 제외한 전원을 석방하겠다고 약속했고 사망자 가족에서 보상할 것이며 부상자들을 치료를 제공할 것이며 일단 평화가 회복되면 어느 누구에게도 보복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것이었다. 그 날 집회 전에 시민수습위는 모든 무기의 무조건적 반환을 호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도청으로 가져왔고, 활동가들은 무기에 도청에 모아뒀다.

곧 논쟁이 벌어졌다. “왜 79명의 시민을 알지 못하는 운명에 폭기해야 하는가? 군부가 이 야속을 지킬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왜 정부는 공개적으로 사과하려 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은 시민들 사이에서 흔히 들을 수 있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다. 학생수습위가 군대의 선의를 확신시키고 있던 같은 순간에 사람들은 그 전날 주남 마을 학살을 기억했다. 시민수습위의 “패배주의”를 비판하는 포스터가 등장했다. 한 투사가 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북 광부들의 투쟁은 만약 우리가 비무장으로 협상한다면 군인들이 와서 죽일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줬다.”¹¹⁶⁾

오후 2시30분경 5만과 10만 사이의 사람들이 민주광장에 모였지만, 시민수습위가 도청의 음향시설 사용을 허가하길 거부했기 때문에 집회는 시작할 수 없었다.¹¹⁷⁾ 군 첩보요원들이 도시의 다른 앰프장비를 체계적으로 아주 많이 파괴했기 때문에, 집회를 계속할지 여부는 불투명했다. 자기 회사건물이 불탄 것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 KBS 노조 지도자가 대회 조직가들에게 어디에서 음향기기를 얻을 수 있는지 알려줬다. 곧 새롭고 더 좋은 장비 덕분에 사람들은 다시 야외 집회에서 대화를 할 수 있었다. 비록 약간 시간이 걸렸지만, 사람들은 참을성있게 기다렸다. 마침내 집회가 시작되자 윤상원 등은 수습위의 집회 반대와 무기 반납 결정을 폭로했다. 사람들은 협상단에게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질문했고 그들이 군대와 의 논의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수습위에 등을 돌렸다.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 운명을 소수이 손에 맡기는 데 만족하지 않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협상의 방향과 기조에 대해 알기를 원했다. 수습위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확성기를 전원을 뽑았다. 그들은 비판이 고조되어 훨씬더 많은 대중적 지지를 모으는 것을 막고 싶어했다. 두 번째 음향시설에 전원이 다시 들어왔지만, 이제는 “투항파”라고 불리는 수습위원들은 계속 전원을 뽑았다.¹¹⁸⁾ 그들은 직접민주주의를 방해하고 집회의 대중적 의지를 자신들의 표결로 대체하길 희망했

115) American anthropologist Linda Lewis and her mother waited in line forty minutes to attend a session of the ten minute memorial service. See Lewis, Laying Claim, 50.

116) Interview with Jeong Hae-jik, April 23, 2001.

117) Chung, Rhyu, et al., Memories of May 1980, 327 says fifty thousand. Lee Jae-eui, (Kwangu Diary, 120) states the number as one hundred thousand.

118) Interview with Jeong Hae-jik and Na Il-sung, April 30, 2008; interview with Chun Yongho, June 4, 2008.

다.

다시 한번 도시의 노동계급이 도우려 나섰다. 한 전기기사가 나서서 아시아 자동차 노동자들이 보내준 최루가스 살포차량에 음향시설을 연결했다. 집회가 논의를 지속하자, 일부 사람들은 시민수습위 해산을 요구했다. 활동가들이 수습위원회의 “무조건적 항복을 위한 군부와의 공모”를 중단시키기 위한 행동을 호소하자 대중의 환호를 받았다. 거센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흩어졌다. 연단에서 한 연사가 소리쳤다. “이 비는 비통한 죽임을 당해 평화롭게 누을 수 없는 민주주의의 원혼들이 흘리는 눈물이다.” 사람들은 자리로 돌아와서 우산을 접었다. 퍼붓는 빗속에서 그들은 “전국의 민주시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원고를 진심으로 승인했다. 집회 마지막에 전두환 허수아비를 불태우면서 사람들의 사기는 더욱 더 고조됐다.

집회 이후에 활동가들은 YMCA에 모여서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집회 동안 공수부대가 진월동의 저수지에서 수영하던 어린이들에게 발포해서 12살/자리 방광범을 죽였다는 소식이 도착했다. 그들은 군대를 믿을 수 없다고 이전보다 더 확신하게 됐다. 그날 이른 오후에 처음으로 만난 윤상원과 박남선은 함께 일하기로 결의했다. 비록 박남선은 상황실고 시민군의 활동에서 중심적이었음에도, 윤상원과 힘을 합칠 때까지 어떤 수습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항복을 원하는 활동가들과 항복을 거부하는 활동가들의 분열은 너무 커서 양측이 거의 말도 하지 않았고, 특히 시민수습위가 음향시설을 못쓰게 만든 이후 더욱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 저녁 늦게 학생수습위는 도청 내에서 모임을 열었다. 많은 활동가들이 이 토론에 참여했고, 거기에서 윤상원과 정해직은 김장길과 “투항파”를 격렬하게 비판했다. 자정 이후 학생수습위는 재조직됐고 박남선은 비록 학생이 아니었지만 위원이 됐다.

일요일인 5월 25일 오전 비가 멈췄다. 장계범이 독침(북한 첩보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는 무기)에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몸을 구부리자 도청 내부의 이미 긴장된 분위기는 갑자기 더욱 악화됐다. 비록 나중에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독침 사건”은 모든 사람의 걱정을 고조시켰다. 이미 삼엄했던 도청의 경비는 더욱 강화됐다. 수습위원들도 이미 도청에 들어가기 위해(도시 전역에서 무기를 모으기 위해) 별모양 핀을 달아야 했고, 도장이 찍은 새로운 신분증이 발행됐다.

집회 조직가들은 다양한 부문의 시민들의 충고와 도움을 구했다. 그들은 오전 10시 YWCA에서 저명한 시민들로 구성된 남동 카톨릭 협의회 회원들과 모임을 가졌고 이 모임에서 그룹 전체가 집회의 계획과 조율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남동 그룹은 집회에 관여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나중에 모임을 가진 후 도청의 수습위원회 모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3차 전도시 대회”에 5만명이 참석했다. 외곽 지역에서 사람들은 군대의 활동에 대해 보고했고, 지역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을 요청했다. 군대의 파괴적 행동 정도를 논하는 도시 피해보고를 다양한 증인들이 내기 시작했다. 살해당한 숫자는 209명이라고 했으며 그들 중 40명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소한 1,790명이 부상당했고 20명은 치명상이었다. 2,000명 이상이 실종됐다.¹¹⁹⁾ 주의깊게 작성한 “국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왜 우리는 무기를 들었는가”라는 성명서가 낭독됐다. 다시 한번 많은 시민들이 수습위원회의 사퇴를 요구했다.

투쟁의 “체계화”

119) Lee Jae-eui, Kwangju Diary, 129.

5월 25일 오후 7시 도청 3층에서 감동적인 모임이 시작됐다. 윤상원의 도움으로 YWCA의 세력과 도청내부의 세력이 한데 모였고, 대화에는 집회에서 논쟁이 됐던 문제의 양측을 포괄했다. 많은 학생수습위원들은 모든 무기를 군대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투사들은 그들이 “항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동의하길 거부했다. 그들은 그런 행동이 사망자에 대한 배신이고, 온 나라에 독재를 받아들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사람들이 끝까지 싸운다면 조만간 한국인들이 광주의 정의를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할 것이라고 믿었다. 모임이 시작되자마자, 정부의 라디오방송은 “강경파”가 도청을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오후 8시경 김장길은 수습위에서 사임하고 떠났으며, 책임을 투사들에게 떠넘겼다. 오후 10시 새로운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도청을 통제했다. 시민학생투쟁위원회(CSSC)라고 이름붙인 이 그룹은 책임의 영역을 구획하고 개인에게 구체적 임무를 부여한 다층적 구조를 발전시켰다. 정상용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전체 지도자로 뽑혔다. 학생수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정배가 위원장이 됐다. 새 시민학생투위는 즉각 철야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은 도시를 가능한 한 “정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고, 정부관청, 언론, 비무장 경찰서를 다시 열기를 희망했고, 시내 버스가 보통처럼 운행하고 시청의 쌀저장소를 만들고 장거리 전화선을 재가동하길 희망했다. 가장 중요하게 그들은 “기동타격대”를 창설하여 시민군을 재편하기로 결정했고 모든 경계초소에 인원을 배치하여 경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배치했다. 시민학생투위 홍보는 네 개의 부서를 조직했다. 하나는 확성기 차량으로 거리를 이동하면서 발표하는 부서, 일간 투사회보, 포스터와 기타 자료를 발간하는 부서, 시민들에게 모금과 헌혈을 독려하는 부서, 마지막으로 일일집회를 책임지는 부서 등. 기획부는 도청 출입을 통제했고 연료를 배급했고 차량을 등록했고 물품을 징발했다. 시민업무부는 주로 사상자를 다뤘고, 배급부는 장례식을 진행했다. 여러 장례식장에서 김정배는 자기 이름을 서명했고 나중에 관값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시민학생투쟁위원회

1980년 5월 25일

위원장 김정배 부위원장 대외업무 김정배 내부업무 허규정 대변인 유상원

기획국 이상현, 정해직, 윤강욱, 김영철

시민군 상황실 박남선 타격대 윤석루(사령관) 이재호(부사령관)

지역방어 해남 목포 나주 영암 함평 화순 강진

조사부 김전봉 도청방어부 김화성 정보부 박효선 YWCA

장례부 허규정 YWCA 보충부 구성주 YWCA 공공서비스부 정해직

[도표 6.2] 시민학생투쟁위원회 조직표

Source: Na Kahn-chae and George Katsiafi cas, *The Gwangju Uprising and the Paris Commune: Preliminary Research* (unpublished)

점차 봉기의 지도부로 등장한 사람들의 헌신적 구성의 핵심에 윤상원이 위치하며 그는 광주 전투의 주목할만한 개인들 중의 한명으로 확실히 가장 추모받는 사람이다. 살육 이후에 어느 누구의 용기와 지성도 윤상원보다 더 밝게 빛나지 않는다. 5월 21일 거대한 집회에 대한 총격(군대가 20만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발포한) 이후에 윤상원은 몸소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공격 중의 하나를 이끌었고 아시아 자동차에서 장갑차를 통제하는 그룹에도 참여했다. 공공장소에 대한 군대 저격수의 사격, 끝없는 모임, 매일 대중집회와 산발적인 교전의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윤상원은 “전략적 견해를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 등장했다.¹²⁰⁾

120) Chun Yong-ho quoted in Kwangju in the Eyes of the World, 88. At the beginning of May, Yoon had agreed to become a regional staff person for the National Democratic Workers' League, slated to launch on May 22. Once the uprising broke out, he threw himself into it.

윤상원은 박남선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노동계급 투사, 학생, 운동권 활동가 등 여러 줄기의 흐름을 한데 모았다. 시민학생투위는 지속적인 무장저항의 중심점이 됐다. 그들은 보수적 수습위원들을 성공적으로 제압했고 봉기를 민주정부에 대한 요구라는 원래의 방향으로 이끌었다. 중요하게 윤상원과 많은 동료들은 과거에 시인 김남주와 파리코뮌에 관한 스터디그룹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¹²¹⁾ 자기 이름을 위원회의 직무상 지도자로 두기를 거부한 윤상원은 시민학생투위의 “대변인”에 지명됐고, 그는 5월 26일 기자회견에서 설득력있게 발언했다.

자연발생성과 조직의 변증법 속에서 광주를 지배했던 것은 분명히 민중운동의 동력이었다. 외부에서 볼 때 조직표와 주요 활동가들의 설명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대대적인 참여였다. 시민학생투위의 체계도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일일집회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정말로 일부 사람들은 지도부가 특정한 전투부대와 작업팀에 얼마나 많은 지도력을 가졌는지 의심했다. 제7 기동타격대의 지도자 김태찬은 나에게 “지도부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영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¹²²⁾ 김정배는 나에게 “지역방어는 시민학생투위가 통제하지 못했다”고 알려줬다.¹²³⁾ 윤상원이나 시민학생투위의 역할이 중요했는지 몰라도, 그의 그의 작은 조직은 결코 자신을 민중운동 위에 두지 않았다. 자천으로 구성된 수습위원회들이 직접민주주의적 모임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고 하자, 시민들은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계속하려는 민중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안적 지도부를 재구성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

군대와 싸웠던 많은 투사들은 어떤 지도자의 제안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주도력을 발휘했다. 예를 들어 5월 22일 박내풍은 도청이 시켰지만 영산포로 가기를 거부했다. 그 대신 그는 다른 4명과 함께 화순 기차역으로 가서 무기를 확보해 광주로 돌아올 수 있었다.¹²⁴⁾ 개인적 주도력을 발휘한 이 경우는 잘 끝났지만, 전략적 조직의 부재로 코뮌전사들은 값비싼 희생을 치렀다. 투사회보는 사람들에게 “방송을 통해 온 나라에 우리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KBS 방송국을 점거하라”고 호소했다.¹²⁵⁾ 그러나 전투 와중에 군중들은 건물에 불을 붙였다. 만약 더 잘 조율되어 Tejkau, 그들은 봉기의 소식을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방송할 수 있지 않을까? 명백하게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광주와 전국 모두에서 전략적 지도부가 필요했다.¹²⁶⁾ 전국적 조직이 없는 가운데 광주는 고립됐고 군부는 화력을 한 도시에 집중시킬 수 있었다. 돌이켜 보면 이런 명확성은 가능하지만, 전투의 열기 속에서 선택은 제한된다.

최종적 분석에서 광주봉기가 중앙집중적으로 조직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래로부터 지도부의 지속적인 재생을 가능하고도 필요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봉기가 중앙집중적으로 계획되지 않았다는 민중적 직관은 왜 한국인들이 보편적으로 광주와 동일시했는지를 설명하는 또 다른 차원이다. 독재는 봉기가 북한과 연결됐다고 주장했고 그 역사를 탄압하려고 노력했지만, 민중의 직관은 민중의 저항이 자유를 향한 열망으로, 군부독재의 무자비한 폭력에 대한 한 도시 민중들의 대응으로 파악하게 됐다.

121) Interview with Chun Yong Ho, November 29, 1999.

122) Interview with Kim Tae-chan, November 22, 2001.

123) Interview with Kim Jeong-bae, November 27, 2001.

124) Documents, 31.

125) Documents, 68.

126) See Lee's analysis as well as the insightful criticisms written two years after the uprising by the Gwangju Citizens' Movement for Democracy (Documents, 133). In my view, such organization needs to be decentralized for many reasons, chief among them being the ease with which centralized organizations are decapitated. For more discussion, see chapter 5 of *The Imagination of the New Left*.

군사조직

군대는 악명높게 잔인했지만, 해방광주의 시민군이 된 투사들은 책임의 모범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우리 군대” 또는 “우리 편”(“군대” 또는 “우리의 적”과 반대되는)라고 불렀다. 트럭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시민군에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했고, 그들에게 기쁨의 인사를 보냈고 돈도 주고 투사들을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자기 아이들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도시의 남녀 젊은이들은 시민들을 보호했고, 시민들은 그들을 보살폈다. 전세계적으로 군대의 야만적 행동을 설명하는 군사적 광기나 어떤 주입된 교조가 없는 투사들은 모범을 보이는 방식으로 행동했다. 민중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을 명령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은 중고등학생들의 무장을 해제했고 이는 투사회보가 책임을 졌던 행동이었다.¹²⁷⁾ 시민군은 집회에서 정식화된 대로 민중의 의지에 직접적으로 복무했다. 해방의 바로 그 첫날부터 의견차이가 드러났지만, 그 차이는 토론으로 해결됐다. 비록 많은 투사들이 며칠밤을 새야 했지만, 약탈이나 강탈은 없었고, 어떤 은행도 강도에게 털리지 않았다.

시민군은 싸우기 위해 총을 들었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비폭력적, 심지어 반폭력적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수부대의 폭력을 중지시켰기 때문이다. 카톨릭 사제 조철현은 “시민군의 평화적 성격”에 대해 증언했다. “시민군은 단지 자위를 위해 군인들과 싸웠다. 그들은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 사람들을 보호했다. 심지어 4명의 경찰을 잡았을 때에도 그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나중에 풀려났다.”¹²⁸⁾ 그들과 인터뷰하던 중 여러명의 시민군 대원들은 그들이 제압한 군인들을 해치지 않고 풀어줬다고 회상했다. 특히 한 경우가 기억에 남는다. 잡혔던 한 어린 군인은 사람들이 풀어주겠다고 말하자 울기 시작했다. 시민군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M-16 없이 부대로 돌아가면 심하게 구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사들은 상의한 다음 그에게 탄약을 뺀 총을 돌려줬다. 박남선은 여러명의 군인들이 먹을 것을 찾다 붙잡혔을 때 군대 지휘관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기억했다. 그들을 풀어달라는 요구에 대해 투사들은 그렇기 하기로 동의했지만, 다시 한번 그들이 총을 가지고 가도록 허락했고 물론 총알은 주지 않았다.¹²⁹⁾

그런 명예롭고 인간적 행동과 대조적으로 미국대사와 독재는 “대중적 광기”의 이야기로 자극했고 “처형과 인민재판을 포함한” 잔혹행위의 소문을 퍼뜨렸다.¹³⁰⁾ 1890년 혁명을 미친 듯이 비난한 귀스타브 르봉과 아주 흡사하게 글라이스틴은 보복행동의 분위기를 창출하려고 애썼다. 글라이스틴이 워싱턴에 전달한 처형의 과장과 조작 때문에 5월 22일 백악관에 모인 일군의 관리들 사이에서 만연한 망상적 오만의 불길에 기름을 더욱 부었고 광주코원의 진압이 미국의 정책이 됐다.

수많은 목격자들의 설명은 전도시가 얼마나 놀랍게 한데 뭉쳤는지의 사례를 제공한다. “공식적인 평화와 질서체제가 전혀 없었음에도 광주시민들은 평화와 질서를 완벽하게 유지했다. 아주 많은 총기가 시민들의 손에 있었지만, 그로 인한 사고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심지어 보통 때에도 범죄가 쉽게 일어나는 금융기관이나 보석상에서도 범죄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¹³¹⁾ 보다 공식적으로 정치군사적 세력이 된 시민학생투위는 무장해제된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직장으로 복귀하라고 지시했으며, 석유배급, 교통통제, 정보조정을 책임졌고, 임박한 반격에 대해 저항을 조직했다. 이 모든 일은 최고사령관이든 중앙위원회든

127) Fighters' Bulletin, May 23, Documents, 71.

128) May 18 Symposium, November 23, 2001.

129) Interview with Park Nam-son, April 23, 2008.

130) GDMM IX: 323-4.

131) The May 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174-5.

위로부터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도 이뤄졌다. 직접민주주의적 총회와 합의제에 기반한 시민학생투위(시민군의 투사 수백명을 포함한) 등과 관련된 상호작용 과정은 20세기 보통사람들의 지혜를 보여준다. 독재의 군사력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통치하기로 선택하는지의 이 구체적인 사례는 별로 차이도 없는 정치인들의 의례적 선출로 체현된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많은 민주주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거의 모든 운동 지도자가 체포되거나 지하로 숨었을지라도, 민중은 자율적으로 스스로 조직했고, 군대를 패배시켰고, 그런 다음 합의제와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스스로 통치했다.

이 등학은 심지어 무장저항의 조직화에서도 반연된다. 5월 21일 밤새도록 스스로 조직한 무장팀은 군대와 싸웠고(승리했고), 교전은 다음날 하루종일 지속됐다. 팀들은 느슨하게 구성됐다. 자율적으로 구성된 기동순찰대는 경찰과 응급구조대의 일상적 기능을 수행했다. 5월 22일 광주공원에 모이라는 말이 퍼지자 78대의 차량이 모였고, 자원자들은 차량에 숫자를 페인트로 썼고 다가오는 반격에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7개 지역 중의 하나를 순찰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군대가 도시의 방어상태를 조사하자 조직은 더욱 탄탄해졌다.¹³²⁾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 자체의 예비군제도가 풀뿌리로부터 동원됐고 사람들은 때로 새 전투단위의 일부로 옛날 군복을 입기로 선택했다. 그들은 장교와 임무를 선별했고 어린 투사들의 무장을 해제했다.¹³³⁾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사울 필요가 생기자 50명 이상의 투사를 모았다. 다른 경우 김화성은 5월 22일 각각 다섯명으로 된 다섯 팀을 한데 모아서, 그들에게 이용할 차량을 보여줬고, 도시를 순찰하려 파견하기 전에 각 팀에 무전기, 빼앗은 전투경찰 헬멧, 우비 등을 지급했다. 중심가에서 파견된 팀은 지역의 예비군들을 보강했고, 팀 지도자와 무기를 제공했다. 처음에 6개의 12인조로 모였던 학운동 투사들의 부대는 본부를 포함해 12개조로 늘어났다.

5월 20일에서 22일까지 광주 외곽이 교도소에 잡혀있던 포로를 석방시켜려는 다섯 번의 시도가 있었다. 170명의 정치범(시인이자 투사인 김남주도 있었다)을 포함한 거의 2,700명의 사람들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고 군대는 방어대형의 핵심지점으로 삼았다. 5월 21일 오후 12시 20분 수백명의 투사들, 죄수 가족들과 시민들이 감옥 주위로 모였다. 오후 3시 3대의 차량을 이용해 그들은 감옥을 습격했지만, 육박전 이후 밀려났다. 오후 7시30분 두 대의 장갑차를 포함한 9대의 차량이 동원됐지만, 군대는 중화기로 무장한 부대를 증가해 감옥을 지켰다. 광주교도소 공격에서 모두 최소한 8명이 죽었고 70명이 부상당했다.¹³⁴⁾ 전투에서 붙잡힌 사람들은 나중에 고문당했고 죽은 사람들은 표지없는 무덤에 묻혔다.

시민군이 화염병에서 기관총 사용으로 옮겨가자, 새로운 조직과 조정의 문제가 등장했다. 5월 23일 일찍 시민들은 총격전 끝에 두명 군대 정보요원을 잡았다. 이들은 도청으로 옮겨졌고 정보부가 그들을 심문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그룹에 경찰이 침투해서 심지어 조정한다고 느꼈다.¹³⁵⁾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었을까? 팀들이 연료배급 카드와 차량 통행증을 발행하고 다른 팀은 위키토기로 순찰대를 부르고 도청은 활동의 중심축이었다. 다시 한번 참여자들이 지적한 핵심적 지점은 그런 결정적 순간에 모인 투사들의 그룹이 내린 결정이든, 일일 집회 동안 시민들의 총회가 내린 “큰 문제”에 대한 결정이든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도달한 민중적 결정의 중요성이었다. 윤기현은 만약 봉기에 한계가 있었다면 그것은 지도자들이 저지른 실수 때문이었다고 생각했고, 그는 총을 들고 싸운 사람들은 아무 것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¹³⁶⁾

132) Choi, *The Gwangju Uprising*, 218-19.

133) Lee Jae-eui, *Kwangju Diary*, 126.

134) May 18 Research Institute, “Manifestos and Declarations,” 4-6; Sangyong, Simin, et al., *Memories of May 1980*, 278.

135) See Lee Jae-eui, *Kwangju Diary*, 103, 115, 133.

비록 투사들의 많은 팀들이 이미 서로 아는 사람들 또는 심지어 동료 노동자와 친구들로 구성되었지만, 익명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설 역량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 이진경은 신분증과 사람 이름이 사용될 때 봉기의 익명성은 사라지고 봉기의 성격이 변했다고 말했다.¹³⁷⁾ 절대공동체의 형성 시기에 관계는 너무나 유연해서 5월 22일 광주공원에 무기를 받고 훈련을 받으려고 시민들이 모였을 때 이재의가 신분증을 걸었다. 사람들이 반대하자 이재의는 다시 생각했고 그들의 반대가 이유있다고 생각해서 신분증을 돌려줬다.¹³⁸⁾ 그런 역동적 상호작용 내에서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권위는 쉽게 조작될 수 있었다. 침투 때문에 경계가 고조되자 아주 자주 지역대학의 학생증은 도청을 출입하는 데 충분했다. 김장길은 도청에 들어갈 때 전남대 학생증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학생수습위의 진도자가 됐다. 그런 저명한 시민들이 나서서 도시를 “지도”하면서 그들은 보수주의의 요소를 주입했다.

박남선이 기억하는 것처럼, 나이든 사람들은 수습위원회를 구성한 반면, 젊은 사람들은 싸웠다. 5월 22일 이후 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장한 것이 걱정되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초만에 박남선은 도청의 사무실을 지정해서 투사들이 “상황실”에 모이게 해서 임무의 긴급성을 설명했고 개인적으로 무장저항의 조율 책임을 맡았다. 도청에서 중앙위원회가 등장하자, 대부분의 자율적인 투쟁단위들은 팀으로 통합됐고 결국 기동타격대가 됐다. 그들은 여전히 평등감을 유지했다. 투사들 사이에서, 그리고 도시의 사람들과 함께 한국어의 비공식적 어형변화[존칭]를 사용했다.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편안했고 다른 사람이 나이가 많은 적든 동등하다고 생각했다.”¹³⁹⁾

5월 25일 시민학생투위가 조직된 다음에도, 박남선은 조율된 무장투쟁을 결정화한 기동타격대의 창설에 중심적이었다.¹⁴⁰⁾ 도시의 생활을 정상화하기로 합의되자, 그는 경찰과 공무원이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조정했고 경찰에 자체적으로 도시를 순찰하기 시작하자, 그는 재빨리 그들을 시민군의 통제 아래 뒀다. 5월 26일 정오경 상황실이 조직한 기동타격대에는 각각 6-7명의 투사, 1대의 지프, 무전기로 이뤄진 12개 이상이 팀이 포함됐다.¹⁴¹⁾ 기동타격대는 명확한 명령구조를 갖고 있었고 군대와의 투쟁에 완전히 전념했다. 공식적인 선언식에 이어 각각의 투사는 깨끗한 군복과 전투경찰에게 빼앗은 철모를 지급받았다. 각조는 공군 베레모로 식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았고, 찌빵, 호랑이, 백곰 등의 별명을 팀에 붙였다. 그 날 저녁 도청 안과 주위에서 마지막 전투를 수행하려고 기다리는 동안 어떤 대원도 도망가지 않았고, 오늘날까지 그들의 참여는 자부심의 커다란 원천이다.

봉기의 계급동학

136) 윤기현 testimony in 박병기 엮음, 5.18연구소 자료총서 3, 5.18항쟁 증언자료집 3(2003) 전남대학교 출판부, 136.

137) In 2008 at a Seoul conference on 5.18, Lee Jin-kyong showed how those who fought for liberation in Gwangju were the core of those who didn't favor settlement, while those who did not fight favored settlement. 이진경, 조원광. ‘단절의 혁명, 무명의 혁명’ “5.18정신”을 다시 생각한다-새로운 성찰적 시각에서.

138) Interview with Lee Jae-eui, April 2008.

139) Interviews with Oh Kyong-min, April 25, 2001, and Gu Song-ju, October 3, 2001.

140) In December 2008, I was honored to be invited to a dinner meeting of former fighters. Despite the passage of more than 28 years, during which enormous political differences surfaced among them, they still retained a strong solidarity. In a sense, one could say that remnants of the “absolute community” still exist, that the bonding of 1980 galvanized an eternal feeling of community.

141) Lee Jae-eui, in Kwangju Diary, says thirteen teams (133). Park Nam-son told me there were about twenty teams. See also Sangyong, Simin, et al., Memories of May 1980, 355; and Choi, The Gwangju Uprising, 221.

학생수습위의 시민학생투이로의 전호나은 노동계급의 수행한 지도적 역할을 반영했다. 비록 학생들이 봉기를 촉발했지만, 그들은 계속 지도세력이 될 수 없었다. 전투가 격화되면 많은 학생들이 사라졌다. 김장길 같은 학생들은 “투항파”를 이끈 반면, 다른 학생들은 봉기의 지속에 여전히 중심적이었다. 일단 도시가 무기를 들고 봉기하자 학생들은 더 이상 지도세력이 아니었고, 오히려 노동계급과 룬펜이 무장저항의 중핵이었다. 최정운이 표현했듯이, “시민들이 무장하잖아, 노동계급은 어떤 하찮은 구석이 아니라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했다.”¹⁴²⁾ 학생들이 주도해서 시작한 투쟁은 자연발생적으로 전도시의 투쟁으로 변형됐다. 봉기의 마지막까지 룬펜은 시민군의 주요 구성요소 중의 하나가 됐다. 그들은 총탄 속에서 가장 믿을 만했고 경찰이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룬펜 프롤레타리아트의 중요성을 지적한 논평은 거의 없었지만, 내가 인터뷰한 많은 참가자들은 그들을 전투적 저항을 중심에 올려놓는데 많은 수고를 했다. 박남선은 기억했다. “깡패, 도둑, 거진들은 군대에 맞서 하나의 공동된 정신을 공유했고... 시민군 내에서 하층계급 사람들이 가장 잘 싸웠다.” 윤영규와 정해직은 모두 룬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¹⁴³⁾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가라고 할 때, 창녀, 식당노동자와 가난한 kfk들이 기꺼이 우리를 숨겨줬다.”¹⁴⁴⁾ 봉기 초반 기동타격대의 여러 대원들과 5월 27일 오전 도청에 남았던 사람들중 많은 사람들이 룬펜이었다. 헌혈하겠다고 우겼던 창녀, 실업자와 반실업자, 구두닦이와 고아 등 주변화된 사람들의 참여는 주목할 만하다. 조직 범죄자들 역시 전민중의 봉기의 일부가 됐다. 깡패 지도자들이 했던 공개적 서약은 룬펜의 광범한 참여를 가리켰다. 이재의는 5월 22일 많은 시민들이 시민수습위에 총기를 반납한 반면, “노동자들과 하층민들은 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¹⁴⁵⁾ 학생들보다 더 급진적인 이 투사들은 독재를 타도하는 전국적 봉기를 촉발하길 희망했고 그들은 단번에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투쟁에서 기꺼이 죽을 용의가 있었다. 그들은 한국정치의 질적 변호를 요구했다. 계엄령의 해제, 구속자의 석방과 과도정부만이 아니라 전두환의 사립과 완전한 민주화를 요구했다.¹⁴⁶⁾ 아놀드 피터슨은 5월 21일 “내가 장목사와 나눈 대화에서 그는 총을 잡은 것은 학생이라 아니었다고 조심스럽게 강조했다. 그대신 그들은 젊은 무직자와 노동자들이었다”고 보고했다.¹⁴⁷⁾

[표 6.2] 광주봉기 동안 사망한 시민들의 직업

직업	숫자	비율
육체노동자	50	30.3
학생	30	18.2
사무직 노동자	19	11.5
자영업	12	7.3
서비스 노동자	9	5.5
주부	4	2.4
농어민	4	2.4
군인	2	1.2
기타	35	21.2
합계	165	100.0

Sources: Jong-chol Ahn, “The Citizens’ Army during the Kwangju Uprising,” in *Contentious Kwangju*:

142) See the discussion in Choi, *The Gwangju Uprising*, 126-7, 132, 163.
 143) Interviews with Jeong Hae-jik, October 1, 2008, and Yoon Young-kyu.
 144) Interview with Jeong Hae-jik and Na Il-sung, Gwangju, April 30, 2008.
 145) Lee Jae-eui, *Kwangju Diary*, 107.
 146) *Fighters’ Bulletin* No. 5, May 23, Documents, 71.
 147) Peterson, “5:18 The Kwangju Incident,” 44.

The May 18th Uprising in Korea's Past and Present, eds. Gi-Wook Shin and Kyung Moon Hwang,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2003), 20; Kim Byung-In,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and Citizens' Social Movements," in May 18th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Gwangju City, *History of the 5.18 Democratic Uprising*, vol. 1 (Gwangju: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2008), 157.

[표 6.3] 광주봉기 동안 체포된 시민들의 직업과 나이

계엄당국은 봉기 동안 최소한 1,740명을 체포했다. 그들은 봉기대와의 협상의 결과든(세번에 걸쳐 무기와 교환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석방시킬 수 있었다), 아니면 체포된 사람들이 "강경파"로 생각되지 않아서였든, 1,010명을 석방했다. 체포돼서 "심문받은" 730명의 "강경파"에 대해 군대는 다음과 같은 신상을 발표했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	153
실업자	126
공장노동자	83
기타 산업노동자	79
운전기사	55
농민	47
상인	47
판매직	44
사무직 노동자	37
기타	59

위의 절반 이상이 노동자였다(387명, 53퍼센트).

21퍼센트 이상이 학생이었다

17퍼센트 이상이 실업자였다

연령별:

42퍼센트(315명)가 20세 이하

42퍼센트(315명)가 20대

11퍼센트(77명)가 30대

약 4퍼센트(28명)가 40세 이상

Source: *AMPO*, September 1980.

나는 이미 화순탄광 광부들과 여성 섬유노동자들을 언급했다. 지적할 만한 노동계급 지도력의 다른 사례도 많다. 운수 노동자들의 중요한 역할 외에도 아시아 자동차의 공장 노동자들은 시민군과 협력하거나 참여했다. 사람들이 봉기에 참여하면서 소규모 공장과 많은 현장이 비었다. 한 연구는 "대개 공장노동자들"이 광주에서 끝까지 싸웠다고 결론지었다. 왜냐면 체포된 사람들의 샘플에서 30명 중 19명이 직업을 공장노동자로 기록했기 때문이다.¹⁴⁸⁾ 작은 표본 크기 때문에 결론의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어떻게 광주봉기가 중심으로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는 풍부하다. 부유한 지역에서 탈출은 포위된 도시에서 돈을 가진 자들의 탈출을 의미했다.¹⁴⁹⁾ 1988년 카톨릭 광주교구 평화와 정의위원회는 부상자와 사망자 가족의 70퍼센트 이상이 자신을 노동계급으로 인식하는 것을 발견했다(1980년 24퍼센트가 실업자였던 것에 비해, 조사 당시 41퍼센트가 실업자였다).¹⁵⁰⁾ 군대가 살해한 시민들에 대한 분석도 그들의 노동계급 배경을 드러내줬다.

148) Shin, *Contentious Kwangju*, xix, 23.

149) Lee Jae-eui, *Kwangju Diary*, 72.

150) Linda Lewis and Ju-na Byun in Shin, 55.

비슷한 추정은 “강경파” 봉기대에 대한 정부의 체포통계에서도 볼 수 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가장 큰 단일 범주였지만, 공장노동자를 “기타 산업노동자”와 합치면 그들은 체포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커다란 단일 범주가 됐다. 체포된 모든 시민의 절반 이상이 “노동계급”이었다. 압도적 다수(84퍼센트)가 29세 이하였다.

여성과 봉기

일단 봉기가 발생하자 해방된 도시와 절대공동체의 생활에서, 특히 민주광장의 일일 집회를 조직하는 주요세력으로서 여성들이 중심적이었다.¹⁵¹⁾ 소수의 여성들은 카빈총을 메고 다녔고, 일부는 화염병을 만들 병과 연료를 모으는 책임을 맡았다(병을 모으거나 병에 연료를 채울 때 여성들이 덜 의심받았다.) 소수의 경우 여성들이 화염병을 던지기도 했다.¹⁵²⁾ 여성들은 대자보 포스터를 붙이는 일과 투사회보의 발행과 배포에서 1차적인 책임을 맡았다. 그들은 헌혈 캠페인, 음식준비를 조직했고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씻겼고 부상자들을 보살폈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한 무리의 활동가들은 자신을 여성국이라고 불렀고 집회를 중심으로 조직했고 공개연설제도를 운영했고 사무작업의 많은 부분을 담당했다. 이 활동가들 중 많은 사람들이 1978년 12월 함께 일한 경험이 있었다. 그 당시 그들은 정치범과 그들의 가족, 특히 부인과 체포된 활동가들의 부인이나 여동생들을 보살피기 위해 송백회를 조직했다. 초대 회장이었던 정현애는 봉기 동안 광주의 핵심 활동가였다. 공수부대가 광주에 도착하기 시자가자 그녀는 장거리 전화가 끊기기 전에 전주, 부산, 서울의 지인들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총을 가지고 다녔고, 화염병을 만들어 사용했고 활동가 서클 내에서 전반적인 정치적 방향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 5월 27일 이후 그녀는 체포되어 다른 70여명의 여성들과 함께 수감됐다. 28살이었던 그녀는 수감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고, 수감자 중에는 여중생과 여고생들도 많이 있었다.

여고생들은 시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히 5월 19일에는 전강여고 광산여고의 여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시위를 조직했다.¹⁵³⁾ 그 다음 날 많은 주부와 나이많은 여성들이 전투적 시위의 참여자로서 거리에 나섰다. 일부는 최루가스의 효과를 중화시키기 위해 치약과 젓은 수건을 갖고 다녔고, *다fms* 여성들은 보도블록을 깨서 무기를 만드는 것을 도왔고, 소수는 가두전통에 전면에서 나섰다. 여성들은 전투적 행진에 많은 숫자로 참여했고, 때로는 가두행동에 참여한 활동가들의 1/3이 여성이었다. 군대가 살해한 시민들 중에 최소한 14명이 여성이었다.

봉기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들의 영웅적 참여에도 불구하고, 운동조직들 내에서 그들은 “일상적” 역할과 행동방식에 자주 제한된 것처럼 보인다.¹⁵⁴⁾ 유명한 전옥주를 예외로 하면 시민군 차량을 탔던 것은 거의 항상 남자들이었다. 전옥주는 화성기 차량을 타고 전도시를 누비면서 가장 유명한 연사가 될 정도로 말솜씨와 자세로 두각을 나타냈다. 여성들은 공공식당에서 김밥 만들기와 음식 제공, 헌혈과 헌금의 관리, 부상자와 사망자 보살핌 등 주로 전통적으로 정의된 여성의 역할에 참여했다. 이런 역할분담은 어떤 감정적 배제라기 보다는 “유

151) First pointed out to me in interview with Chong Hyun-ay, October 28, 2001.

152) Interviews with Oh Kyong-min, Jung Hyang-ja and Im Chun-hee, and Chong Hyun-ay were essential to my understanding of these dimensions of the uprising.

153) Jang Ha-Jin,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and Women,” *History of the 5.18 Democratic Uprising*, 1:465.

154) Discussions with Dr. Kang Hyun-ah were very helpful in understanding this issue.

기적”인 것처럼 보인다.¹⁵⁵⁾ 입전에는 여성의 배제는 “피할 수 있는 것”이었고 가부장제적 노동분업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¹⁵⁶⁾ 광주 공동체가 한데 뭉친 정도의 지표로서, 심지어 창녀들도 군대와 싸웠고 헌혈하겠다고 주장했다. 한 경우에 의사가 그들을 제지하려 하자 한 여성이 대답했다. “우리의 삶은 더럽지만 우리 피는 순수하다.” 그녀는 과거에 “비천하고 더럽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재생한” 것처럼 느꼈다.¹⁵⁷⁾ 해방광주의 놀라운 연대는 진정하게 자유로운 사회를 짧게 맛본 것이었지만, 그 공동체적 해방 내에서 여성의 역할은 극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아니면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현실적일 것이다.

공식적 지도부의 지위에 대해서 보자면 여성들은 자주 배제됐고 너무 자주 남성에게 종속적이었다. 5월 25일 도청 내에서 저항의 재조직화에서 지도부 지위에 한명의 여성도 포함되지 않았다. 5월 26일 밤 군대가 압도적 힘으로 도시에 재진입할 태세를 갖추었을 때 여성과 젊은 투사들은 남성 지도부(윤상원을 포함한)로부터 도청을 떠나라는 요청을 받았다. 소수 이상의 여성들이 이 명령에 불복하고 최후의 전투 동안 남아있었지만 거의 모든 여성들이 떠났다.¹⁵⁸⁾ 여성들에게 떠나라고 요청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데, 가장 실질적인 것은 거의 모든 남성들은 군사훈련을 받아서 무기사용법을 배웠지만 여성들이 거의 습득할 기회가 없는 기술이었기 때문이다.¹⁵⁹⁾ 비록 소수의 여성들이 해방광주의 화려한 시절에 총을 메고 다녔지만, 그들은 예외였고,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총을 갖고 다녔고 여성들은 참여는 비전투 역할에 제한됐고, 사회전반의 가부장제적 노동분업의 반영이었다.

봉기 이후 많은 총을 들었던 여성 활동가들은 계속해서 지침없이 정의를 위해 활동했고 일부는 여성문제를 둘러싸고 활동했다.¹⁶⁰⁾ 1981년 여성들은 전두환이 광주 거리에 나타나자 자연발생적으로 그에게 맞섰다. 비록 많은 여성 활동가들이 경찰에게 납치되어 그들이 시위를 조직하지 못하도록 광주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버려졌지만, 그들의 소란한 공개적 반대로 전두환은 서둘러 떠났다.¹⁶¹⁾

최후의 나날들

5월 26일 새벽 10여대 이상의 탱크가 도시 외곽의 시민군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도청을 향해 굴러오기 시작했다. 시민수습위원을 포함한 17인의 저명한 시민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철야 회의 중이었다. 그들은 탱크를 저지하기 위해 “죽음의 행진”을 시작하기로 결의했다. 영웅적으로 한 시간 동안 버티자 수백명이 그들에게 합류했다. 그들의 탱크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탱크의 전진을 막기 위해 거리에 앉았다. 그들은 한 육군 장군에게 부대가 도시를 공격하려는 그들을 먼저 죽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용감한 연좌시위는 사람들의 사기를 높였고 군대의 최후의 공격은 연기됐다.

[사진] 미국의 사주로 남한 군대가 광주봉기를 분쇄했다.

155) See Jang,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and Women,” 471-73 for discussion.

156) Interview with Im Chun-hee, December 21, 2001.

157) Anonymous interview (name withheld for privacy), November 7, 2001.

158) In an interview on October 28, 2001, Chong Hyun-ay reported that she met ten women who had been arrested in Province Hall while she was imprisoned at Sangmudae after May 27.

159) See Kang Hyun-ah, “Women’s Experiences in the Gwangju Uprising: Participation and Exclusion,” in South Korean Democracy: Legacy of the Gwangju Uprising.

160) Kim Myung-hye, “Family Life and Women’s Participation in Social Movements in Gwangju,” Korea Journal 41, no. 4 (Winter 2001): 74-4.

161) Jang,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and Women,” 466.

사진작가: 나경택

확성기 트럭에서 군대가 광주로 들어오고 있다고 소식을 듣고 약 3만명이 민주광장 분수대 주위에 모였다. 오전 11시30분경 집회가 소집되자 “죽음의 행진” 소식이 사람들에게 군대가 아직은 이성애 귀를 기울리 것이라는 희망에 들떴다. 그 날 오전 미군 항공모함 코랄시호가 한국해역에 들어왔다고 알리는 커다란 포스터가 눈에 띄게 내걸렸다. 현명한 사람들은 그것이 불길한 전조란 것을 이해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도우러 오고 있다고 믿었다. 집회에서 새로운 시민학생투위 지도부는 “80만 광주시민의 결의”를 낭독했고 거기에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구국 민주정부를 요구했고, 이 요구는 군대에게 위법행위에 대해 사과하라거나 독재에게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호소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요구였다. 이 새로운 단호한 요구는 계엄령을 철폐시키고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봉기의 원래의 목표를 반영한 것이었다. 집회 마지막에 수백명의 고등학생들은 “우리는 무기를 반환하기를 거부한다!”라고 외쳤고 도심을 관통하는 행진을 이끌었다.

그날 오후 윤상원은 외국 특파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차트를 이용해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 <르몽드>, <볼티모어 선>, <선데이 타임스>(영국), 아사히(일본), NBC, UPI와 여러 한국신문의 기자들이 하는 질문에 답했다.¹⁶²⁾ 그는 미국 대사 글라이스틴에게 평화적 해결을 증재하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글라이스틴은 이후에 윤상원의 요청을 전화를 통해 들었지만, 그는 대답을 거부했다.¹⁶³⁾ 미국의 첩보는 너무나 왜곡돼서 1980년 5월 25일 국무장관 머스키는 이런 전문으로 보냈다. “광주의 상황은 다소 험악하게 변했다... 온건한 시민위원회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고, 급진파가 상황을 장악한 것 같다.” 이 정보는 정확하지만, 그는 다시 “인민재판소가 세워져 일부 처형이 자행됐다. 학생시위대는 대부분 혁명정부 건설을 말하는 미확인 무장 급진파들로 대체됐다.”는 똑같은 잘못된 비난을 반복했다.¹⁶⁴⁾ 다음 날인 1980년 5월 26일 글라이스틴은 워싱턴에 보내는 전문에서 광주의 상황은 “급속히 악화됐다. 자경단, 이전에 반환한 무기의 급진파 접수, 심지어 인민재판소와 처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썼다.¹⁶⁵⁾

곧 봉기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5월 26일 오후 3시의 마지막 집회에서 시민학생투쟁위원회는 믿을만한 첩보보고에 따르면 군대가 다음날 아침 광주를 대대적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엄숙하게 발표했다. 모든 사람에게 남아서 싸울 의무를 해제시킨 그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할 사람들에게 남아달라고 요청했다. 불교승려 송연이 일어나 분수대에 모인 시민들에게 연설했다. 모든 종단의 사람들이 어떻게 투쟁에 참여했는지 지적인 유인물에 고무되어 그는 한국불교협회[?]의 이름으로 선포했다. “부처의 마음은 오늘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에서 한국민중과 괴로움과 행복을 함께 공유한 민중의 종교로서의 전통 회복을 향한 한 걸음으로서, 2천만 불교도들에게 억압, 독선, 외세의 개입과 비진리의 굴레로부터 민중의 해방을 지향하는 민족 민주화의 위대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여기에 과거 우리의 잘못, 우리의 협력부조과 방관자로서 우리의 나태함을 충분히 반성하며, 우리는 민중과 함께 살고 함께 죽기 위해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을 알리는 깃발 아래 행진하

162) Journalists' recollections are contained in a highly readable book, *The Kwangju Uprising: Eyewitness Press Accounts of Korea's Tiananmen*, edited by Henry Scott-Stokes and Lee Jae-eui (Armonk, NY: M.E. Sharpe, 2000). See especially Bradley Martin's chapter, "Yun Sang Won: The Knowledge in those Eyes," for his account of Yoon Sang-won's press conference.

163) Choi, *The Kwangju Uprising*, 199.

164) GDMM IX: 254. (80State 138557).

165) GDMM IX: 257. (80Seoul 006660).

며, 우리 사회에서 법과 정의를 세우려는 결단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할 것이다.”¹⁶⁶⁾

헬리콥터 한 대가 상공을 선회하면서 임박한 광주진압을 발표하는 전단을 살포했다. 여전히 사람들은 남아있었다. 갑자기 하 여고생이 아름답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다. 비록 군대가 오직 “깡패, 녀마주이, 폭도들”만 남있다고 보고했음에도, 약 6천명 행진단의 시위는 죽음의 행진이 탱크를 저지한 저지선을 향해 출발했다. 행진대가 도시 경계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숫자는 약 3만명으로 늘어났다.¹⁶⁷⁾ 그들은 군대에게 떠나라고 절규했고 끝까지 도시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도청으로 다시 돌아온 수백명은 필사적인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다. 이미 팀으로 조직된 투사들 외에, 약 150명이 집회 이후에 남아서 끝까지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여기에는 군복무를 마친 80명, 청년과 고등학생 60명, 여성 10명이 포함됐다. 모든 시민군의 대열에 통합됐다. 그날 저녁 무장 공수부대는 전옥주를 납치할 수 있었고, 그녀는 이후에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 도청에서 수습파가 다시 나타나서 모든 무기의 반환을 요구했다. 다시 나타난 김장길은 도청에서 계속된 모임에 참가해서 사람들에게 도청에 머무는 것이 소용없다고 말했다. 마침내 사람들의 결의를 누그러뜨리려는 지속적 시도에 짜증한 박남선이 2층 회의실에 들어갔다. 권총을 꺼내든 박남선은 싸우길 원치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즉각 건물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김장길은 재빨리 떠났다.

자신을 희생하려는 사람들이 평화 속에 남겨지자, 서글픈 정적이 지배했다. 시민군의 한 명 이상의 대원은 나에게 그들이 마지막 공격을 기다리면서 며칠만에 처음으로 졸 시간이 생겼다고 말했다. 밤이 깊어가자 윤상원은 살아남아서 투쟁을 계속하기 위해 고등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했다. 많은 항의 이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어린 투사들이 떠났다. 그렇지만 일부는 떠나길 거부했고 몰래 건물의 다른 곳에 숨었다.

5월 26일 밤 군인 가족들은 광주 근처에 있던 군인 가족들이 저항투사들에게 군대가 이동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알려줬다. 작은 단위의 투사들이 도시의 다양한 전략지역에 파견됐다. 약 100명이 YWCA를 지켰고 더 작은 그룹들이 YMCA, 계림초등학교, 유동고차로, 동남산, 천일빌딩, 전남대 의대, 서방시장, 학동 등에 배치됐다. 전부 5백명 이상의 투사들이 도시를 방어할 태세를 갖췄다.¹⁶⁸⁾ 약 3백 내지 5백명이 도청방어를 준비했다.¹⁶⁹⁾ 비록 대부분의 여성들이 떠났지만, 끝까지 싸우기 위해 남은 여성들이 10여명 있었다.¹⁷⁰⁾

미국의 격려와 지원으로 전두환은 약 2만명의 정예부대를 동원해서 5월 27일 새벽 도시를 다시 장악했다. 오전 4시30분 도청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탱크의 대열이 금남로로 전진하자, 특수부대가 후방에서 수류탄과 기관총으로 건물을 공격했다.

공격 동안 윤상원은 강력한 폭발로 사망했다. 그 폭발은 너무 강해서 그의 시신을 수습했을 때 시신은 부분적으로 불타있었다. 김정배는 건물 내부에서 최소한 17명이 사살당했다고 진술했다. 사상자 중에는 불교학생회장 김동수도 있었다. 오전 6시30분 건물은 군대의 손에 넘어갔다. 그들은 남은 투사들을 로프로 한데 묶은 다음 끌고나가면서 발로 차고 구타했다. 많은 시신을 도시 외곽에 버리기 위해 쓰레기 트럭을 가져왔다.

166) 166 May 18 Research Institute, “Manifestos and Declarations,” 2-4.

167) Lee Jae-eui, Kwangu Diary, 136.

168) See the chart in Chung, Rhyu, et al., Memories of May 1980, 360-1.

169) Interview with Chung Sangyong, October 17, 2001.

170) Interviews with Gu Song-ju, October 10, 2001, Chung Sangyong, October 17, 2001, Chong Hyun-ay, October 28, 2001.

[사진] 많은 시신들이 장례식도 못치르고 광주 외곽의 망월동 묘지에 묻혔다.
사진작가: 김영만

그 날 쓰라린 패배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들은 계속 싸웠다. 그들은 그 날 아침 군대의 승리를 투쟁의 마지막 장으로 받아들이기 거부했다. 상무대의 감옥방에서, 원래 몇 명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감방에 수십명씩 우겨 넣어졌지만 그들은 매일 아침 큰 소리로 애국가를 불렀다. 군사법정에 서자 그들은 재판절차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운동가를 부르고 판사에게 의사를 던졌고 전두환과 독재를 가치없이 저주했다. 그들은 책과 가족면회를 얻기위해 단식투쟁을 조직했고 운동의 다음 단계를 구상했다. 그 이후 17년 동안, 결국 그들이 민주광장의 집회에서 요구했던 바로 그것, 전두환과 그 협력자들의 구속, 정부의 사과, 피해자 손해보상 등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했다.

여러 해 동안 광주는 민주주의의 슬로건, 한국 민주화투쟁의 주요한 상징이자 영감이 됐다. 광주는 프랑스 역사에서 파리코뮌, 러시아 역사에서 포템킨 전함과 비교할 수 있는 의미를 갖게 됐다. 파리코뮌처럼 광주민중은 자연발생적으로 봉기했고 외부열강의 사주로 토착 군부세력이 무자비하게 진압할 때까지 스스로 통치했다. 그리고 전함 포템킨처럼, 광주의 민중은 되풀이 해서 한국에서 혁명의 도래를 알렸다. 1894년 농민전쟁에서 1929년 학생반란, 1980년 봉기까지. 냉전적 분단에 독립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민중의 봉기를 찬양한다. 이런 의미에서 광주는 건널 수 없는 정치적 분단으로 보이는 것을 가로질러 단결의 지점을 제공한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시인 김남주가 감옥에서 우유곽에 몰래 써서 반출한 이 시는 비밀리에 퍼졌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가자.
앞서가며 나중에 오란 말일랑 하지 말자.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말일랑 하지 말자.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어깨동무하고 가자.
투쟁 속에 동지 모아 손을 맞잡고 가자.
열이면 열 천이면 천 생사를 같이 하자.
둘이라도 떨어져서 가지 말자.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여기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여기여차 건너 주자.
고개 너머 마을에서 목마르면 쉬었다 가자.
서산 낙일 해 떨어진다 어서 가자 이 길을
해 떨어져 어두운 길
네가 넘어지면 내가 가서 일으켜 주고,
내가 넘어지면 내가 와서 일으켜 주고,
산 넘고 물 건너 언젠가는 가야할 길 시련의 길 하얀 길
가로질러 들판 누군가는 이르러야 할 길
해방의 길 통일의 길 가시밭길 하얀 길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번역] 조지 카치아피카스,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1권

조지 카치아피카스, George Katsiaficas,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Asia's Unknown Uprisings,
1권: 20세기 남한의 사회운동 Volume1: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in the 20th Century

7장 신자유주의와 광주항쟁

경제적 이행 | 신자유주의의 기원 | 광주진압에 대한 미국의 지원 | 투장자의 공포와 전두환의 새로운 스타 | 정권교체의 조율 | 민중의 지혜

미국 기업인들은 대한민국의 장기적 안정에 대해 주의하지만, 민주적 발전에 대해 덜 관심을 갖는다. 만약 군대 지도부가 분명하게 안정적인 구조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재활성할 수 있다면, 미국 기업과 은행계는 일상적인 사업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 1980년 6월 6일

우리는 충분하고 공개적인 토론, 자유언론, 선출된 지도자를 갖춘 완전한 민주주의를 갖길 원한다. 한국인들은 거기에 대해 준비가 돼있지 않다.

- 지미 카터, 미국대통령, 1980년 8월 21일

미국의 광주학생 개입일지

- 1979년 2월 미국무장관 밴스는 주한대사 글라이스틴에게 미국의 목적은 “더욱 번영하는 남한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경제적 혜택의 미국의 최대 몫”을 얻는 것이라고 전문을 보냄
-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암살됨
- 1979년 11월 4일 이란주재 미국대사관이 학생들에게 점거됨, 66명의 미국 외교관과 시민들이 1981년 1월까지 억류됨. (1979년 1월 이란혁명으로 샤 체제가 전복됨)
- 1979년 11월 29일 글라이스틴 대사: “하지만 마늘과 고추를 먹는 투사들의 이 사회의 기본적 특징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절히 상기시키는 일도 있었다. 수십년 동안 당국과의 대치로 극단주의적 패턴에 골몰했던 반정부 분자들과 일부 정치적 야당은 대항 정부가 제안한 개혁 시나리오를 거부했고 유신체제의 즉각적 해체를 위한 극단주의적 요구를 되풀이했다.”
- 1979년 12월 8일 리처드 홀브룩 국무부 차관이 글라이스틴에게 본낸 전문: “아무도 또다른 이란을 원치 않는다”, 기독교인들에게 “장기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것. 11월초 홀부르크는 잠재적 양극화를 “한줌의 기독교 극단주의 반정부세력” 때문이라고 비난했음
-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권력장악
- 1979년 12월 25일 소련 아프카니스탄 침공
- 1980년 2월 미국은 전두환 광주의 반정부세력을 집압하기 위해, 북한내 침투해서 싸우도록 훈련된 특수전 부대를 동원했음을 알게 됨¹⁾
- 1980년 4월 16일 밴스 장관 전문: “많은 긍정적 발전에 대한 대단히 만족”

1980년 5월 8일	미 국방첩보국(DIA)은 합동참모부(JCS)에 제7특수여단(광주에서 최악의 만행을 저지른)이 “아마도 전주와 광주 대학들의 소요를 대상으로 했다”고 보고함
1980년 5월 8일	글라이스틴이 워싱턴에 보낸 전문: 대한민국 특수부대가 “가능한 학생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파견됐다고 보고함
1980년 5월 9일	글라이스틴은 박정희가 암살당한 안가에서 전두환을 만남: 미국은 “필요한 경우 경찰을 군대로 보강하여 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비상계획”에 반대하지 않음
1980년 5월 9일	국무부와 DIA 전문: 미국은 전두환에게 학생시위에 군대를 이용하도록 적정한 승인을 부여함
1980년 5월 10일	국무부장관 크리스토퍼가 글라이스틴에게 보낸 전문: “우리는 군대로 경찰을 보강하려는 대한민국의 계획에 반대해서는 안된다.”
1980년 5월 16일	주한 미군사령관 위컴이 “워싱턴의 상관들과 협의한” 이후 제20사단을 미군 작전통제권에서 해제함
1980년 5월 19일	위컴이 워싱턴에 보낸 전문: “유일한 문제는 권력의 공고화 속도와 그것이 취하는 형태임”, ²⁾ 데프콘3호 경계를 발령함
1980년 5월 21일	글라이스틴이 워싱턴에 보낸 전문: “광주의 대규모 봉기는 여전히 통제권 밖이며 경악스런 상황임”, “대규모 폭도들이 도시의 일시적 통제권을 획득했음”
1980년 5월 21일	DIA 장교: “광주에서 폭동의무를 위해 대한민국 작전통제권(OPCON) 부대를 해제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이 반미감정을 증가시켰음”
1980년 5월 22일	글라이스틴이 워싱턴에 보낸 전문: 광주는 “완전히 공포로 바뀌었음... 폭도들이 상공의 헬리콥터에 사격했다고 보고됨” ³⁾
1980년 5월 22일	미국 국방부 대변인: 위컴은 “군중을 진압하는 작전에서 자신의 작전통제권 아래 있는 어떤 정예 한국군의 사용을 허가해달라는 한국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고 동의했다.”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회의가 광주의 진압을 승인함(군부에 대한 전면적 봉기를 두려워해서): “첫번째 우선순위가 광주에서 질서의 회복이라는 데에 전반적 동의가 있었다.” 동시에 서울 지하철 건설과 핵발전소 재정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미국수출입은행 총재 존 무어의 서울 방문을 승인함
1980년 5월 23일	글라이스틴은 대한민국 총리대행을 방문하여 “확고한 반폭동 조치”를 요구함, 그는 “광주에서 이용하기 위해 CFC 부대를 한국군 사령부에 ‘떼어내 달라’는 요구를 받아 워싱턴에서 발표한 성명서와 우리의 긍정적 대답을 인용해 우리는 질서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⁴⁾
1980년 5월 23일	미 국무부 대변인 호딩 카터가 카터정부는 “정치적 자유화를 유예하면서 남한에서 안보와 질서의 회복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 Tim Shorrock, “Debauch in Kwangju: Were Washington’s Cables Read as a Green Light for the 1980 Korean Massacre?” Nation, December 9, 1996, available at http://base21.jinbo.net/show/show.php?p_docnbr=20896.

2) Wickham, Korea on the Brink, 132.

3)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Materials, Gwangju City May 18 Historical Materials Compilation Committee (광주광역시 5-8사료 편찬위원회, 5-8 광주 민주화 운동자료총서), December 17, 1997, IX: 219 (Hereafter GDMM). State Department document number 80Seoul 006522.

4) GDMM IX: 234. (80Seoul 006610).

	발표함
1980년 5월 24일	미국은 미군함 코럴시 호의 도착 때까지 광주진압을 연기하라고 대한민국에 요청함
1980년 5월 25일	머스키 장관 전문: “광주의 상황은 다소 험악하게 변했음”, 그의 소식통에 따르면, “온건한 시민위원회는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고 과격파가 실권을 장악한 것으로 보임. 인민재판소가 세워졌고 일부 처형이 이뤄짐. 학생시위는 혁명정부에 대해 말하는 미확인 무장 과격파로 대부분 교체됐음” ⁵⁾
1980년 5월 26일	글라이스틴이 워싱턴에 보낸 전문: 광주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자경단, 이전에 반납한 무기의 급진파 회수, 심지어 인민재판소와 처형에 대한 보고도 있다.” ⁶⁾
1980년 5월 26일	글라이스틴 광주 대변인의 중재요청 받았지만, 거부함
1980년 5월 27일	대한민국 군대 광주 재탈환
1980년 6월 21일	국무차관 워런 크리스토퍼가 홀브룩에게 보내는 전문: 전두환은 “합리적인 경제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1982년 4월	위کم,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연설하면서 한국인을 아무 지도자나 따르는 “쥐새끼같다”고 발언했다고 비난받음
1989년 6월 19일	국무부 백서: 미국은 “특수부대가 광중에 파견되고 있는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1995년 12월	광주항쟁 특별법 제정
1996년 3월 11일	전두환-노태우 재판 시작(1차 판결 8월 26일, 최종판결 1997년 4월)
1996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광주시민의 82.5퍼센트가 미국이 관여했다고 믿었고, 나머지 한국인의 50.8퍼센트가 미국개입을 믿었음, 더 나아가 44.5퍼센트는 미국의 사과를 원했고, 21.8퍼센트는 미국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함
2002년 5월 18일	지미 카터와 다른 7명의 미국 관리들이 반인류 범죄 민중재판소에 의해 광주민중의 시민권 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음
2002년 10월 11일	지미 카터 노벨평화상 수상, 노벨위원회는 수십년 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시키고 경제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 지치지 않는 노력”을 치하함

현대 남한의 반미주의는 광주봉기 이후에 등장했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미국정부는 봉기를 진압하면서 전두환을 지원했고 적극적으로 사주했으며, 그 이후 그의 정부를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했다. 1980년 남한의 민중적 직관은 미국의 역할을 감지했다. 정확한 이유는 즉각적으로 분명하지 않았을지라도, 전두환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충분히 분명했다.

미국이 광주봉기 진압을 격려한 근거는 흔히 국가안보 측면에서 이해되며, “제2의 이란”(1950년 미국인 인질과 미국대사관이 여전히 급진파에게 억류되고 있었다)을 회피하고, “또 다른 베트남”(겨우 5년전에 “몰락”했던)의 패배를 막고, 가능한 북한의 위협을 격퇴하며, 1979년 12월 25일 소련의 아프간니스탄 침공에 대응하고, 또는 1980년 군대에 대항한 위협적 전국봉기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천쪽에 이르는 미국의 공식문서를 읽어보면 1980

5) GDMM IX: 254. (80State 138557).

6) GDMM IX: 257. (80Seoul 006660).

년 미국정부가 인식한 주된 위협은 위의 어떤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박정희 암살과 광주의 봉기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불안정하게 될까봐 우려한 미국 투자가들의 자본이탈이었음이 분명해진다. 미국은행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미국 관리들은 1980년 체제 안정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고, 그들은 전두환 독재를 승인함으로써 그렇게 했다.

한마디로 미국은 한국민의 인권과 인권에 대한 자신들이 공언한 우려를 미국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에 종속시켰다. 1973년 칠레와 1980년 터키처럼, 군사쿠데타 메카니즘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가 강제됐다. 따라서 광주의 진압은 미국 경제정책의 전지구적 실행에 한 부분이었고, 학살에 관한 진실을 압살하려는 전두환의 시도 역시 작동중인 경제과정을 숨기는 것과 관련있다.

경제적 이행

1979년 불황은 전지구적 경제에 새로운 포스트 케인즈주의 시대를 열었다. 고실업과 고인플레이션이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은 대공황을 다루면서 개발된 정책과 다른 경제정책을 요구했다. 1979년 미국의 불황이 심화되고 실업이 증가하자 두자리 인플레이션 속에서 이자율이 20퍼센트 이상으로 급상승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반비례한 반세기는 그 동시적 공존이 제기하는 새로운 딜레마에 자리를 내줬다. 일단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자, 그는 수십년된 정부 프로그램을 파괴하고 무어이든 모든 것을 사유화기 시작했다. “레이저노믹스”(Reaganomics)와 “낙수효과”(trickle-down) 또는 “공급측면”(supply-side) 경제학이 이 새로운 정책을 위해 이용됐고, 되돌아 볼 때 이것은 오늘날 신자유주의, 즉 전지구를 지향하는 시장 기반 경제(케인즈주의적 국가주도 발전경제와 대비되는)라고 가늠하는 것의 초기적 정식화였다. 때로 신고전파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신자유주의는 기업과 상업의 이익을 위해 군사개입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면 “자유시장”과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적이고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초기 자본축적의 시대로 되돌아간다. 현대 신자유주의의 사회프로그램에 대한 공격은 정부지출을 낭비로 간주하면서도, 고전 자유주의처럼 군사지출은 예외로 한다. 사실 현대적 버전은 현대 경제재벌이 중심으로 전쟁과 무기생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군사지출을 가능한 한 급속하게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1983년초 로널드 레이건이 이전의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 더 많이 군비에 돈을 퍼부었을 때 그는 “시장의 마술”을 통해 자유시장 민주주의를 육성하는 “십자군”의 일환으로써 그렇게 했다.⁷⁾ 보통시민들을 위한 정부의 사회프로그램을 삭감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레이건-대처 시대에 시작되어 2008년 경제위기가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할 때까지 지배력을 발휘했다. 오직 그 때에도 거대한 정부지출은 전세계적으로 거대 은행과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겐 소량의 지원만 있었다. Flying buttress처럼 이 긴급조치들은 내내적으로 불안정한 주요구조, 즉 체계적으로 위기에서 위기를 겪는 전지구적 금융구조를 뒷받침한다.

1979년 경제위기는 박정희의 개발국가를 침해했다. 대한민국은 개발국가를 통해 토착재벌을 육성했고 경제의 많은 부분을 외국기업과 전지구적 시장세력으로부터 보호했었다. 중공업을

7) For discussion of these oft-quoted phrases of the Reagan presidency, see “The Crusade of the Democratic Globalists,” Tom Barry, <http://americas.irc-online.org/am/161>; For years, President Reagan invoked this latter phrase, so much so that it has become commonly used in a variety of contexts. See Reagan’s Radio Address to the Nation on United States-Soviet Relations, September 29, 1984, available at <http://www.presidency.ucsb.edu/ws/index.php?pid=40457>. Also see “The Evil Empire,” President Reagan’s Speech to the House of Commons, June 8, 1982, available at http://reagan2020.us/speeches/the_evil_empire_2.asp.

발전시키려는 박정희의 캠페인은 금융의 확장에 의존했고,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1979년 소비자 물가가 18퍼센트 인상됐고, 1980년에는 30퍼센트 인상됐다. 경제생산이 하락하고 실질임금이 감소하자, 1979년과 1980년은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경제실적이었다. 동시에 전지구적 석유위기로 수입비용이 증가했고, 한국의 수출은 둔화됐다. 1979년 4월 박정희는 경제안정화 계획을 발표했고 2차 석유위기가 한국경제가 뒤흔들자 IMF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그의 암살로 주요한 정책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⁸⁾ 전조가 나타난 것이다: 전지구적 경제는 개발국가의 해체를 필연화했다. 표 7.1에서 지적된 것처럼 1980년 남한의 경제는 10년만에 처음으로 위축됐다. 불길하게 국제투자자들은 어떤 차관에 대해서도 신중해졌다.

[표 7.1] 한국의 경제실적 1978-1991년

연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물가상승	14.5	18.3	28.7	21.3	7.2	3.4	2.3	2.5	2.8	3.0	7.1	5.7	8.6	9.7
GDP성장	11.0	7.0	-3.3	6.9	7.4	12.1	9.2	6.9	12.3	11.8	11.4	6.1	9.0	8.4
실질임금	20.8	10.9	-4.4	-1.6	4.6	5.9	9.1	4.8	2.7	13.6	10.6	18.8	-1.1	na

Sources: World Bank; IMF; Stephen Haggard and Robert Kaufman, *The Political Economy of Democratic Transi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84, 92, 237.

일찍이 1979년 9월 11일부터 글라이스틴은 일종의 이행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현재 한국경제의 곤란은 우리가 한국에서 익숙한 12, 16퍼센트 성장률이 심지어 이 열심히 일하는 사회의 역량을 초과했고(overstrain) 수많은 구조적 불균형을 야기했음을 암시한다. 광범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적 이점이 다른 나라들로 넘어가자, 한국은 성장을 위한 서장보다는 경제적, 재정적 건전성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국이나 다른 외국기업과 협력적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충고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⁹⁾ 1980년 미국에서 한국경제의 중요성은 실질적이었다. 글라이스틴의 말로, “안보관계에 대한 우리의 집착 때문에 지난 수십년간 경제적, 상업적 연계가 엄청난 중요성을 갖게 됐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1979년 한국은 우리의 13번째 교역 상대로서, 미국수출에서 약 42억달러를 차지하며 미국 수입에서 41억달러를 차지한다.”¹⁰⁾

경제가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군대가 유혈사태로 광주를 재탈환 지 사흘 후인 1980년 5월 30일 글라이스틴은 미국상공회의소의 잡지인 <네이션스 비즈니스>에 논설을 썼지만 봉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한국경제에 대한 미국의 계획을 밝혔다: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결정적인 다음 단계인 엄격한 중앙통제에서 시장의 힘에 대한 의존증가로의 경제 자유화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상황이 허용하는 만큼 추진되고 있는 조치이다.” 글라이스틴의 언어는 “중앙통제”로부터 “시장의 힘”(즉 신자유주의)으로의 이동의 필요성을 명백하게 적시했다. “경제 자유화”의 시작과 “시장”의 힘 상승을 광주의 1980년 봉기와 연결시킴으로써 글라이스틴은 광주봉기 진압의 의미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보여줬다. 광주봉기의 진압은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를 한국에 강제한 유혈적 시작을 상징했다.

신자유주의의 기원

신자유주의가 1990년대 시작됐다는 통념과 반대로 신자유주의의 기원은 1970년대였다. 1973년 칠레의 유혈 쿠데타 이후,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칠레를 시험대상으로 삼았고, 곧 데

8) 차성환, 참여 노동자를 통해서 본 부마항쟁 성격의 재조명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2009), 122.
 9) GDMM VII: 206: 79Seoul 013832.
 10) GDMM IX: 304-: 80Seoul 006921.

데이비드 하비가 “1975년 이후 순수한 신자유주의적 관행”이라고 부른 것의 사례가 됐다. 노벨 경제학상은 1974년 프리드리히 폰 하이예크, 1976년 밀튼 프리드먼에게 주어졌고 통화주의적 신자유주의 사상을 정당화했다. 1973년 존 D. 록펠러 3세는 정부들이 개입을 멈추기만 한다면 전지구적 자유무역으로 세계가 혜택을 보게 된다는 “새로운 미국의 세기”(New American Century)란 유명한 문구를 썼다.¹¹⁾ 번거로운 정부로부터 민중을 “해방”시킨다는 그런 수사로 록펠러는 대공황에 대한 대응으로 입법화된 정부의 사회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을 옹호했다.

뉴욕은행들에 석유생산자들이 저축한 석유달러를 재할용하여 데이비드 록펠러(존 록펠의 네 아들 중 하나)와 그의 동료들은 공격적으로 움직여 개발도상국에 돈을 빌려줬고, 그들이 도망갈 수 없는 신용시장의 멧에 빠뜨렸다. 외채는 신자유주의가 종속과 대외통제의 그물에 개도국들을 묶어두는 핵심적 수단이다. 활동을 확대하려는 모험에서 뉴욕 은행가들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지를 받았다. 1980년에서 2002년까지 개발도상국의 부채는 5,800억 달러에서 2조 4,000억 달러로 늘어났다. 데이비드 하비가 표현하듯이, “뉴욕의 투자은행들은 항상 국제적으로 활동했지만, 1973년 이후 비록 지금은 외국 정부에 자본을 빌려주는 데 훨씬 더 초점을 맞추긴 하지만 훨씬 더 국제적으로 활동했다. 이는 국제 신용 및 금융시장의 자유화를 필요로 했고, 미국정부는 1970년대부터 이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시작했다.”¹²⁾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두환 정부 처음 4년 동안 한국의 외채는 두배 이상으로 늘었고, 세계의 채국국 중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다음으로 4위라는 의심스런 영예를 남한에 부여했다.¹³⁾

[표 7.2] 남한의 외채 1975=1987년

년도	외채(1억달러)
1975	84.6
1976	105.3
1977	126.5
1978	148.7
1979	202.9
1980	271.7
1981	324.3
1982	370.8
1983	403.8
1984	430.5
1985	467.6
1986	445.1
1987	355.7

Sources: Economic Planning Board, Bank of Korea; Martin Hart-Landsberg, *The Rush to Development: Economic Change and Political Struggle in South Korea* (New York: Monthly Review

11) John D. Rockefeller III, *The Second American Revolution* (New York: Harper & Row, 1973). For insightful discussion see F. William Engdahl, “The Financial Tsunami: The Financial Foundations of the American Century,” <http://www.globalresearch.ca/index.php?context=va&aid=7813>.

12) David Harvey,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28.

13) Korea: *Managing the Industrial Transition* vol. 1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1987), 164. Also see Songok Han Thornton, “The ‘Miracle’ Revisited,” *New Political Science* 27, no. 2 (June 2005): 166.

Press, 1993), 146.

1979년 “신자유주의의 극적인 공고화”는 미국과 영국(그 당시 마가렛 대처 아래서)에서 모두 일어났다.¹⁴⁾ 이때 뉴얼 윌러슬틴은 신자유주의의 기원을 이 시기에 뒀다.¹⁵⁾ 라틴 아메리카 전, 문가 제임스 페트라스는 “신자유주의의 첫 번째 국면”을 남미에서 1970년대에, 터키에서 1980년에 시작한 것으로 봤다. 신자유주의의 첫 국면은 “군부 쿠데타 직후에 일어났고” “대규모 부패, 위기, 불평등의 심화와 절대국가의 출현”을 수반했다.¹⁶⁾

20세기 후반부에 신자유주의 정책은 미국의 산업만이 아니라 금융의 이익을 위해 각국 경제침투를 위한 도구로서 기능했다. 한국을 “새로운 미국의 세기”로 끌어당긴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한국의 최우선 순위에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올려놓는 순간 동시에 정치적 자유화에 대해 등을 돌렸다. 핵심적 사건은 5월 22일 오후 4시이 백악관 모임었고, 거기에서 최고 결정권자들은 광주봉기를 진압하고 전두환으로 하여금 서울지하철의 확대에 미국의 금융제공에 동의하고 웨스팅하우스가 핵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데 동의했다.(앞 장에서 언급한대로) 그들이 광주의 진압을 재가한 동시에, 그들은 전두환이 그런 계약을 일본기업보다 미국기업과 맺도록 하기 위해 미국 수출입은행 총재 존 무어의 서울방문을 승인했다. 1980년 말 일보의 투자는 한국에서 누적 외국인투자의 53.7퍼센트였던 반면 미국의 투자는 겨우 20.4퍼센트를 차지했다.¹⁷⁾ 몇십년 후 이라크처럼 미국의 경제적 이해는 거의 공개적 주목을 받지 않고 안보적 관심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

미국은 사업상의 이유로 전두환이 안정을 제공하도록 격려했고, 전두환은 독재적 조치를 가속화했다. 봉기 후 다음 달 수천명의 공무원과 국유기업 노동자들이 해고당했고, 수백명의 은행부문 관리들도 해고당했으며 여기에는 은행장 이상의 경제관료 230명도 포함됐다. 또한 충성심이 불확실한 90명 이상의 경찰간부들도 해임당했다. 곧 신군부 당국은 국영기업에서 사장과 부사장 39명, 이사 128명(전국적으로 전체 임원의 22.5퍼센트)를 포함해 1,819명을 해고했고,¹⁸⁾ 추가적으로 은행부문에서 431명의 임원을 해고했다. 1980년 6월 6일 글라이스틴은 1945년 존 리드 핫지 장군이 화산에 비유한 것을 되풀이해 한국의 분위기에 대한 평가를 워싱턴 전문에 보냈다. “현재의 상황은 세인트 헬렌스 화산과 매우 흡사하다. 서울의 학생과 광주의 시민 등 두 번의 심각한 분출이 있었고, 강력한 군부통제, 극도의 조심성, 그리고 일정한 감정적 소진으로 구성된 얇은 용암 뚜껑이 형성됐다. 사회에서 계속되는 기층의 불평을 고려하면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결코 확실하지 않다.”¹⁹⁾ 같은 전문에서 미국대사는 미국 기업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부족과 안정의 필요성을 솔직하게 평가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기업과 은행계는 일상적 사업으로 되돌아갈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²⁰⁾ 투자자들의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1980년 6월 13일 전두환은 3-M 회장과뱅크 오브아메리카, 다우케미컬, 걸프오일의 대표 등을 포함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지도자들과 만찬을 했다.

14) Harvey, A Brief History, 22, 74.

15) 2008 radio interview, <http://www.againstthegrain.org/>.

16) “Turkey and Latin America: Reaction and Revolution,” <http://www.dissidentvoice.org/2007/09/turkey-and-latin-america-reaction-and-revolution/>.

17) Kim Jei-Ahn, “Economic Background of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in May 18th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Gwangju City, History of the 5.18 Democratic Uprising, vol. 1 (Gwangju: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2008), 131.

18) GDMM IX: 632: 80Seoul 009434.

19) GDMM IX: 346: 80Seoul 007266.

20) GDMM IX: 348: 80Seoul 007266.

그 해 여름은 대사관 관리들에게 길고 더웠다. 그들은 새 정권이 승인을 받도록 뛰어다녔다. 8월 2일 미국 최대의 은행들(뱅크오브아메리카, 체이스맨해튼, 케미컬뱅크, 하노버 및 시티뱅크)이 미래의 중단기 차관을 주저했다. 한국전력은 핵발전소 7호기와 8호기의 상업차관을 얻을 수 없었다. 전두환은 다시 한번 반대파에 대해 훨씬 더 거칠게 움직여, 4만 6천명 이상을 구금시키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삼청교육대나, 전방, 감옥으로 보내졌다. 이 재교육 캠프로 보내진 사람들의 공식적 총수자는 67,055명에 이르렀다. 최소한 52명이 이 캠프에서 사망했고 거기서 겪은 잔혹행위 때문에 수백명이 때이르게 죽었고, 가혹한 처우 때문에 2,768명이 육체저금로 불구가 된 것으로 보고됐다.²¹⁾

안정을 제공할 전두환의 능력에 만족한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으로 몰려들었다. 새 정권에 대한 투자자 승인의 절정은 9월 22일 뉴욕 타임즈에 실린 사진이었다. 거기서 데이비드 록펠러는 미소짓는 전두환과 악수하고 있었다. 3일 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완화하고 토지에서 기업까지 모든 것의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모든 신자유주의 체제에 공통적인 것은 노동운동의 탄압이고, 전두환은 이 측면에서 뛰어나다. 그는 수천명을 감옥에 보냈고, 수만명을 삼청교육대로 보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수자는 1980년 5월 이전 6,011개에서 그 해 말 2,618개로 가파르게 줄어들었다.²²⁾ 12월까지 노조가 급감했음에도 전두환은 정부의 승인 없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불법화했다.

새로운 노동법으로 지역노조들이 불법화됐다. 한국노총의 109개 지역사무소 전부가 폐쇄됐고, 4천개 이상의 지역지부 사무소도 폐쇄됐고 수백명의 간부들이 쫓겨났다. 평화시장에서 청계피복노조(1970년 전태일의 분신으로 만들어진)는 서울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화됐고, 21명의 지도자들은 AFL-CIO의 기구인 아시아-아메리카 자유노동연구소에 도움을 청하러 찾아갔다. 소장이 그들을 돕기를 거부하자, 그들은 그를 인질로 잡고 사무실에 바리케이드를 쳤다. 자정경에 경찰이 밀고 들어와 모든 노조원을 체포했고, 예외였던 두 명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숨졌다.²³⁾ 비록 한국의 공장노동자들이 이미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으로 고통받았음에도, 제조업의 노동시간은 1980년 주당 평균 53.1시간에서 1986년 54.5시간으로 늘어났다.²⁴⁾ 노동조합은 체계적으로 파괴됐고 산업재해율은 급격하게 높아졌다. 일본식 노동력 수출 모델을 따라 전두환의 경제개발계획은 293,000명 이상을 해외로 보냈고, 이는 제조업 전체 남성 노동력의 1/4 이사이었다.²⁵⁾ 정실인사로 가족과 친구들을 부자로 만든 냉혈 독재자인 전두환은 재빨리 거대한 재산을 축적했다. 그의 동생은 한국 마피아를 통해 일본 야쿠자와 연계를 맺어²⁶⁾ 일련의 수많은 일본 협력자들이 남한 권력의 최상층으로 출세했다. 박정희와 전두환, 2008년 이후로 이명박(일본 태생)은 모두 일본과 미국의 제국 지배자들을 바라봤다.

전두환의 광기를 보여주는 방법은 그가 독재적 조치를 더 많이 취하면 취할수록 미국인들은 그가 유리한 투자환경을 유지하데 필요한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더

21) Agence France Press on August 21, 1995, reported the deaths of 397 others due to their treatment at these camps. They also reported a lower number of total inmates: over 38,000. The number to be arrested was allocated in advance for each region, so police simply rounded people up, including people with tattoos, until the official total reached 67,055. Some 7,500 were sentenced to two years' imprisonment even though they had not been convicted of any crime. See the report of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of the Republic of Korea, A Hard Journey to Justice (Seoul: Samin Books, 2004), 221.

22) Koo, "The State, Minjung, and the Working Class," 148.

23)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379.

24) Koo, "The State, Minjung, and the Working Class," 48-9.

25) Hart-Landsberg, The Rush to Development, 195.

26) First pointed out to me in an interview with Rev. Park Hyung-kyu, Seoul, June 4, 2001.

욱 더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수만명을 사람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은 내림과 동시에, 미국은 그를 더욱 더 가까이 끌어들이고, 그와 그의 협력자들은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고 그들 모두 엄청난 부자가 됐다. 그의 동생 “리틀 전”은 한국의 강패들과 강력한 연계를 갖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그는 네명의 라이벌 강패들을 회칼로 살해할 때까지 농촌 공공사업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었다(그 이후 그는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행정대학원에 자리를 얻었다.)²⁷⁾ 전두환의 가족이 아직도 숨기고 있는 돈은 수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97년 한국법원은 전두환에게 2,200억원(그 당시 약 2억달러)을 반환하라고 명령을 내렸다.²⁸⁾ 전두환은 자기 이름으로 300달러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가난을 탄원했다. 전두환은 한국경제를 주물러 게걸스럽게 집어삼켰고, 10억 달러(일부는 그것을 초월한다고 말한다)에 가까운 가족재산을 축적했다.²⁹⁾ 그렇게 하면서 전두환은 미국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경제정책을 유순하게 실행했다. 마침내 경제성장이 재개하자, 실질임금 상승률은 심지어 박정희 때보다 훨씬 낮았다.³⁰⁾

가장 친한 미국인 동료인 CIA 지국장 로버트 G. 브루슬터를 포함한 일군의 친미 기술관료들의 적극적인 안내에 의존해, 전두환의 “자유화” 조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기쁘게 했다. 국제 투자자들이 다시 공포에 떨지 않도록 전두환은 심지어 김대중을 처형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 전두환 정권은 피노체트의 칠레(밀튼 프리드먼과 “시카고 보이즈”가 이끄는) 및 1980년대 터키의 군부정권(노동운동을 공격하면서 미국 기업인들과 친구가 된)과 똑같은 부류였다.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를 강제한 다른 친미 독재정권처럼, 전두환은 박정희의 옛 개발국가 한국인들의 자리에 미국의 기업이익에 우호적인 사람들을 앉혔다. 전두환의 부하들은 한국의 선진국 대열로의 통합 및 종속을 위한 길을 닦았고, 칠레와 터키의 군사정부처럼 “경제에서 광범한 구조조정을 하고 정치체제의 구조에서 심대한 변화를 가져올 때까지 권력을 떠나지 않았다.”³¹⁾ 한국경제의 회복을 외국인 투자자들과 더욱 국제화된 자본시장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전두환은 1997년 금융위기의 재앙으로 직접 이어지고 오늘날 계속 한국을 괴롭히는 경제문제를 고착화한 경로를 선택했다.

1980us 선거 이후 미국 행정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한국의 새 독재정권에 대한 승인을 계속했다. 미국 은행가들로부터 확고한 지지에 대한 감사로 전두환은 김대중에 대한 사형선고를 감형하고, 계엄령을 해제했고 낸시와 로널드 레이건의 방문초청을 받았으며, 이 모든 일은 48시간 이내에 벌어졌다.

레이건의 백악관을 처음으로 방문한 외국 국가원수 중의 하나였던 전두환은 화려한 의식으로 환영받았고, 한국에서는 비록 새 헌법 아래 공식적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전두환 체제에 대한 아주 가시적인 승인으로 받아들여졌다.

1981년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남한의 독재자 전두환을 환영했다.
사진제공: 5.18 기념재단

광주진압에 대한 미국의 지원

만약 봉기가 사회적 지형의 핵심적(비록 보통 숨겨져 있음에도) 윤곽을 들여다보는 프리즘

27) See Selig Harrison, “Is South Korea Going to be the Next Philippines?” Washington Post, January 25, 1987.

28)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 ce_id=079&article_id=0000100034§ion_id=102&menu_id=102.

29) On Chun and Roh Tae-Woo’s fortunes, see Wickham, Korea on the Brink, 185-6, 189.

30) Haggard and Kaufman, Political Economy, 42.

31) Ibid.

이라면, 광주봉기는 수십년간 미국의 공개적 인권지지 약속의 노골적인 모순을 폭로한다. 민중적 직관은 전두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해했고, 반미주의가 즉각 남한을 휩쓸었다. 그 당시 미국 관리들은 전두환을 지지했고 그릇되게 비난받는다고 불평했지만, 그 사이에 민중들의 직관이 갖는 정확성에 대한 문서적 증거는 미국정보의 내부 메모에서 폭로됐다. 내 일차적 원자료는 공식적인 미국의 전문과 커뮤니케이션이며, 그 수천 페이지는 정보자유법의 후원 아래 광주시에 제출된 것이다.³²⁾

비록 미국 관리들과 전두환이 그들의 행동을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 정당화했지만, 정부 내 부문서들은 광주봉기 동안 평화에 대한 북한 위협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1980년 봉기에 대해 북한을 비난하기보다(전두환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측 문서들은 전두환의 신군부체제가 야기한 문제에 대한 훨씬 더 정확한 이해를 지적한다. 사실 글라이스틴은 1980년 5월 동안 남한 언론에서 정확한 정보의 부족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평양방송의 정기적 청취자로 만들었지는 지적했다. “광주사태는 북한이 선전방송의 청취자를 획득할 능력을 향상시켰다... 대한민국 언론에서 정보의 결핍에 비추보면 북한은 이곳 [남한]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역 소식의 유일한 원천이 됐다. 이 새 청취자들이 자정 이후 자기 방에서 몰래 평양 라디오는 계속 듣는 것은 당연하다.”³³⁾ 활동가 이양현은 나에게 전투가 시작되자 광주에서 소개했지만 군대가 도시에서 쫓겨났다는 평양방송을 듣고 돌아왔다고 확인했다.³⁴⁾ 오히려 미국측 문서는 이 시기에 북한의 남한내 전복활동 증가가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개선의 가능성을 지적한다. 1980년 9월 13일 주간 정세보고에서 미국무부는 서울의 미국대사관에 전문을 보냈다. “북한은 ‘과거의 불편한 관계를 우호적인 미래 관계로 바꾸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무지개 다리를 놓기 위해’ ... 우리와 접촉을 확대할 의향을 계속 알려오고 있다.”³⁵⁾

수십년간 미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간의 공적 긴장의 아래 묻혀서, 종속적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이익 강제성의 성공은 1980년 전두환에 대한 미국 지지에서, 그리고 그에 따른 남한의 반미주의 지속에서 한가지 요소로서 간과돼 왔다. 서울의 대사관에서 활동하는 미국 관리들은 그들의 임무대로 자신의 목적을 미국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이익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이해했으며, 특히 이 점이 남한인들의 원권과 경제적 복지를 희생시켜 인식한 것이라면, 그들이 이런 노력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에 따른 반미감정은 더욱 커졌다. 1980년 8월 미국측 문서들은 정부관리들과 경제들 사이의 긴밀한 조율을 폭로하며, 이 시기에 이 협력은 놀라운 동시성에 접근했다. 대사관 관리들은 1980년 남한에서 체제안정성을 보여줄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했으며, 체제 안정은 전두환의 지배를 승인하고 광주봉기의 진압을 사전에 동의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을 미국에 거의 남겨놓지 않았다.

이 시기 미국의 조율은 인상적이다. 봉기진압을 승인한 5월 22일 백악관 특별모임 몇시간 후인 1980년 5월 23일 글라이스틴은 한국 총리 박충훈에게 면담을 신청해서 만났고, 그 면담에서 미국 대사는 “확고한 반폭동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³⁶⁾ 같은 날 워싱턴에서 국무부 대변인 호딩 카터는 공개적으로 카터 행정부가 “남한에서 안보와 질서의 회복을 지지하는 한편, 정치적 자유화에 대한 압력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³⁷⁾ 인권과 투자

32) In addition to GDDM primary source, Gleysteen and Wickham’s memoirs were also helpful, as were World Bank reports.

33) GDMM IX: 355: 80Seoul 007266.

34) Interview with Lee Yang-hyun, June 23, 2001.

35) GDMM X: 401: 80State 244450.

36) GDMM IX: 235: 80Seoul 006610.

자의 필요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자, 미국은 인권을 희생시켰다.³⁸⁾ 카터 대통령은 훨씬 더 명과히 했다. 그는 5월 31일 CNN에 안보이해가 때로 인권적 관심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³⁹⁾

미국의 경제적 이익은 단지 초국적 자본 일반의 이익만이 아니며, 미국기업의 이해는 프랑스, 독일 또는 일본의 투자자들의 이해와 동일하지 않다. 1980년 “유럽 및 일본과의 수출-보조금 전쟁”이란 표현이 미국측 문서에 반복적으로 인용됐다. 프랑스는 원자로 9호기와 10호기 계약을 긴밀하게 추적하고 있었고,⁴⁰⁾ 미국 대사관은 이 수십억달러 프로젝트가 프랑스 기업들에게 돌아갈까봐 우려했고, 결국 그렇게 됐다. 글라이스틴은 또한 엄청난 것이 걸려있는 신생 통신산업에 대한 독일(지멘스)의 압력에 관심을 촉구했다. “이 사업만으로 미국의 고용잠재력은 연간 30,000명에 가깝다.”⁴¹⁾

핵발전소에 대한 거대한 자본지출 금융은 미국 수출입은행(Eximbank) 총재 존 무어가 1980년 6월 방문했던 의도였다. 미국에서 등장하는 전투적 반핵발전소 운동은 국내 발전소에 대한 모든 새로운 주문을 삭감했고 남한은 웨스팅하우스의 잉여생산설비 문제의 손쉬운 해결책이 됐다. 이미 대한민국은 수출입은행의 최대 대출국이었다. 벡텔은 엑심뱅크에 한국전력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했었다.⁴²⁾ 웨스팅하우스와 핵산업은 원자력 발전소 7호기와 8호기 계약만으로도 수백억 달러의 이익을 볼 수 있었다. 광주학살이 벌어진지 일주일도 안되서 무어는 웨스팅하우스를 위해 로비하러 서울로 갔다. 박충훈 총리와의 6월 3일 면담에서 무어와 글라이스틴은 비록 비경쟁적 계약이 미국 기업에 주어지더라도 “한국은 미국에게서 최상의 가격으로 최상의 생산물을 받았다”고 확신시켰다.⁴³⁾ 2주일 이내에 전두환 정권에 대한 6억 달러 이상의 차관이 마무리됐다. 그 이후 곧 일본 역시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훨씬 더 많은 40억달러 차관을 전두환에게 제공했다.⁴⁴⁾ 그 당시 일본의 지원은 한국 순외채 중 12퍼센트 이상이었고 GDP의 5퍼센트 이상이었다.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지원 패키지는 본질적으로 전두환 정권의 존립을 보장했고, 제국금융에 대한 한국의 종속을 가져왔다.

같은 시기에 캘리포니아와 멕시코만의 농업 대기업들은 잉여 미곡을 한국에 수출하기를 원

37) Donald N. Clark, ed., *The Kwangju Uprising: Shadows Over the Regime in South Korea* (Boulder, CO: Westview Special Studies on East Asia, 1988), 13.

38) The Carter administration's priorities were other than human rights concerns not only in Korea, but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Cambodia (where the United States supported UN recognition of Pol Pot's ousted Khmer Rouge government for fear of alienating China—despite Khmer Rouge responsibility for millions of deaths); Iran (where Carter approved the Shah's request for crowd-control equipment, including tear gas); and Argentina (where Carter announced an end to the arms embargo on the military dictatorship). Although there were notable forces advocating a consistent application of human rights criteria to U.S. decisions (notably Patricia Derian, then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Human Rights Affairs), Richard Holbrook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held sway. In his view, the difference between Derian and himself “was that she was myopically fixated on human rights as the only plank in American foreign policy while he had to be concerned about America's security and economic interests.” See Victor S. Kaufman, “The Bureau Of Human Rights During The Carter Administration,” *The Historian*, September 22, 1998, <http://www.highbeam.com/library/docfree.asp?DOCID=1G1:53461483&ctrlInfo=Round20%3Amode20b%3AAdocG%3Aresult&ao>. Ronald Reagan nominated Elliott Abrams to replace Derian a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ffairs.

39) Gleysteen, *Massive Entanglement*, xx, 65, 148.

40) GDMM VII: 634: 79State 297698; VIII: 430: 80Seoul 001900.

41) GDMM VII: 308: 79State 255196; GDMM VII:320: 79State 260763.

42) Peter Hayes and Tim Shorrocks, “Dumping Reactors in Asia: The U.S. Export-Import Bank and Nuclear Power in South Korea, Part 2,” *Ampo* 4, no. 2 (1982):16-3.

43) GDMM IX: 341: 80Seoul 007261.

44) Hart-Landsberg, *The Rush to Development*, 223-4.

했고, 이는 1980년 흉작 때문에 대한민국이 절실하게 원했던 수입품이었다. 644,000톤의 판매가 완료되기 직전에 캘리포니아 농민들이 가격을 톤당 100달러 인상했고, 6,400만 달러가 추가로 그들에게 지급됐다. 정미협회는 결국 대사관 관리들에게 그 당시의 기록적 가격보다 톤당 100달러 이상 더 가격을 올리는 데 도움을 주도록 확신시켰지만 실패했다.⁴⁵⁾ 한국은 최소한 1백만톤 이상이 더 필요했고, 미국 대사관은 그들에게 싫어하는 걸프만 가격을 수용하라고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⁴⁶⁾ 대사관 문서는 보험회사(American Home Insurance Group)과 항공사(Pan American Airlines)도 한국시장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펼쳤다고 지적한다.

투자자 공포와 전두환의 새로운 스타

무어와 글라이스틴이 총리와 비밀리에 만난 같은 날인 1980년 6월 3일 전두환 장군은 전국 광산노조 위원장 최종섭에게 사퇴를 강요했다. 최종섭은 미국 대사관에게 “한국노총에서 독립적 성향을 가진 전국적 노조 지도자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었다. 최종섭의 공식적인 사퇴사유는 해외여행으로 공금을 유용한 것이었지만, 그는 4월 정부에 맞서 무기를 들었던 사북 광부들의 민주파 노조를 지지했었다. 1980년 말까지 전두환은 노조의 절반 이상을 파괴하면서 전국노조의 지도자 21명 중에서 17명을 사퇴시켰다.

비록 중대한 차이는 있지만, 박정희와의 비교가 적절하다. 미국에게 박정희는 자주 옆구리의 가시 같은 존재였지만, 전두환은 재빨리 미국의 애완견이 됐다. 박정희는 한국의 전략적 비전을 가졌고 많은 경우에 미국의 압력 아래 굴복하길 거부했다. 한 시점에 박정희는 급격하게 통일을 향해 선회했다. 1970년대 초 심지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착수했다.⁴⁷⁾ 카터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박정희에게 너무나 짜증나서 주한미군의 완전철수 계획을 세웠다. 전두환과의 대비는 즉각적으로 자명하다.

전두환의 신군부체제에 직면해서 국제 투자자들은 처음에 망설였다. 1980년 6월 21일 국무부 부장관 워런 크리스토퍼는 리처드 홀브룩(당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에게 전두환은 “합리적 경제정책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썼다. 6월 11일 크리스토퍼는 서울에 미국 은행가들이 한국의 정치적 동학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는 전문을 보냈다. “우리는 미국의 대은행 중의 하나에게서 이번 한국은행 신** 총재의 방미 동안 그가 명확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정보를 들었다. 신은 미국 은행가들에게 만약 한국이 정치권에 신속하게 질서를 잡지 못하면 올해 이후 필요한 자금을 얻기가 극도로 힘들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⁴⁸⁾ 9년 뒤 언론은 한국의 은행부에서 임원 431명이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1980년 8월초 미국의 최대 은행들은 전두환이 그들의 편인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전두환은 또다시 그의 반대파에게 훨씬 더 가혹하게 대응했다. 이 은행가들의 머뭇거림이 명백했던 같은 날, 국무부는 비밀 전문에서 지적했다. “이미 중앙정보부를 숙청했고 주요한 정치인들을 체포했고 5,000명 이상의 중간-고위급 공무원들을 해임했기 때문에 남한의 군당국은 이번 주에 관심을 다른 영역으로 돌렸다.” 기업, 노조, 언론, 대학, 특히 거리가 일련의 광범한 “숙정”의 대상이 됐다. 국회의원의 10퍼센트 이상이 체포되거나 사퇴해야 했다. 추가로 835명이 정치활동 금지처분을 받았다. 정당들은 금지됐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

45) GDMM X: 805: 80State 329118.

46) GDMM X: 536: 80State 276967.

47) Gleysteen, Massive Entanglement, 14.

48) GDMM IX: 583: Department of State telegram, 11July80 State 182038; also quoted in the sidebar to Tim Shorrock, “Kim Dae Jung and the American Challenge,” originally in Hankyoreh Shinmun, January 1, 1998.

다. 심지어 한국무역협회도 타격을 받았고, 61명의 임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다. 글라이스틴은 수입 “협회에는 일정한 삭정이 있고 따라서 다른 부문들처럼 속청은 이로운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침착하게 지적했다.⁴⁹⁾ 글라이스틴이 언급한 “삭정이”란 박정희의 국민 개발국가에서 남겨진 관료주의였다.

전두환의 “삭정이” 제거는 미국 투자자들의 의심을 달래기에 충분치 않았고, 그는 좀더 강력한 가지치기에 나서서 등록을 취소해서 172개 정기간행물을 폐쇄했다.⁵⁰⁾ 남아있던 모든 신문, 텔레비전과 통신사는 비상대책위 기획관에게 할당됐고, 약 2천명의 기자들은 3일간의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했다. 심지어 이 모든 사태에도 불구하고 신문과 언론사들은 강화됐고 광고가 금지됐다. 기독교 방송국이 특히 타격을 받았고, 정부가 방송을 금지한 10만 달러 이상의 광고를 받았던 상태였고, 회사는 거의 파산할 뻔했다.

권력을 공고화하고 미국 기업인과 대사관 직원들이 요구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나선 전두환은 지속적으로 억압을 강화했고, 이런 억압을 “홀리건과 강패”를 대상으로 한 대중적 소비로 포장했다. 공공장소에서 경찰은 장발의 젊은이들에게 머리를 즉석에서 깎았고 14,900건 이상의 그런 사건이 법정에서 다뤄졌다. 심지어 법원도 공격을 받았고, 전두환은 8월 9일 불가해한 이유로 사임한 5명의 대법원 판사를 교체했다.⁵¹⁾ 수백명의 교수들이 구속되어 심문받았고 대사관측은 100-150명이 강제사임할 것으로 추측했다. (실제로 해직된 수자는 그 몇배였다.)⁵²⁾ 전에 복직된 교수와 학생들은 모두 다시 쫓겨났다. 대학 학장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종교단체에서도 “자체정화” 위원회들이 생겨났고, 국영기업과 은행의 직원 3천명 이상이 해임됐고, 400명 이상의 기자들과 6백명의 초중고 교사들이 직업을 잃었다. 역사의 역설은 전두환의 “정화” 프로그램이 더욱 더 성공적으로 노조를 해체하고 노조 지도자들을 구속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전국민이 더 열심히 일하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압력이 가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1987년 댐이 붕괴하자, 더 강력한 전투성은 노동조합화의 저항할 수 없는 물결에서 특징이 됐고 임금인상은 강력한 경제성장을 낳았다.

정권교체의 조율

1980년 8월 8일 미국 대사관은 대한민국이 만약 “거리와 캠퍼스가 조용하게 하면” 필요로 하는 국제신용을 아마도 획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⁵³⁾ 한 작은 미국은행의 은행장은 “이 나라에서 가능한 한 빨리 모든 노출을 제거하길 원한다”고 지적하면서 대사관은 정부가 “거리와 캠퍼스를 조용히” 유지해야 할 핵심적 조거를 되풀이했다. 그날 아침 일찍 위컴은 전두환과 조찬을 했고, 그 다음에 AP 특파원 테리 앤더슨 및 LA타임스 기자 샘 제인슨과 인터뷰를 하기로 예정했다.⁵⁴⁾ 나중에 “주한미군 고위소식통”이라고 주장했던 발언에서 위컴은 미국이 전두환을 다음 대통령으로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⁵⁵⁾ 위컴은 최규하 대통령 (여전히 간판으로 남아있던)이 곧 전두환으로 대체될 것이며 미국은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49) GDMM IX: 681: 80Seoul 009828.

50) GDMM X: 30-: 80State 204864.

51) Jerome A. Cohen and Edward J. Baker, “U.S. Foreign Policy and Human Rights in South Korea,” in Human Rights in Korea: Historical and Policy Perspectives, ed. William Shaw (Cambridge, MA: Harvard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1991), 211-2.

52) Interview with Ed Baker, Cambridge, MA, June 16, 2006.

53) GDMM X: 65: 80Seoul 010189.

54) Wickham, Korea on the Brink, 155.

55) For the text of the article, see Sam Jameson, “U.S. Support Claimed for S. Korea’s Chun, but State Dept. Disavows Military Official’s Remarks on Presidency,” Los Angeles Times, August 8, 1980, B18-9, For an account of Wickham’s endorsement of Chun, see Scott-Stokes and Lee Jae-eui, The Kwangju Uprising, 39.

“전두환을 지지하는 것 외에 별로 선택이 없다”고 지적했다.⁵⁶⁾ 24시간 내에 서울의 신문 헤드라인과 전세계의 사설은 미국 지휘관이 전두환의 대통령 취임을 승인했다는 이야기를 터트렸고, 그것은 바로 미국 투자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종류의 확인이었다.

그에 이른 소란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위컴과 글라이스틴은 둘다 편리하게 한국에 없었다. 위컴은 버지니아의 전세계 미군 사령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고 글라이스틴은 “광범한 발언권 강한 기업인들과”(워런 크리스토퍼의 법률 파트너를 포함해) 한국에 관한 첫 번째 아스펜 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했다. 위컴은 전두환 공식승인 발언 이후에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하와이에서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글라이스틴은 뉴욕 은행가들에게 “한국발전의 확실한 장기적 전망”을 제공하는 계속 바빴다. 8월 21일 카터 대통령은 설상가상으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완전하고 공개적인 토론, 언론자유와 선출된 지도자를 갖춘 완전한 민주주의를 원한다. 한국인들은 거기에 대해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⁵⁷⁾ 1919년 다음과 같이 말했던 일본인 식민행정관 니토베 이나조와 비교해 보라. “겸허하지만, 일본이 극동의 고양이란 거대한 과제를 위임받은 청지기란 확고한 신념에서 본인은 신생조선이 아직은 스스로 통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⁵⁸⁾

때때로 역사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건들의 혼란과 혼돈 속에서 명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모든 격변과 격동 속의 1980년 한국의 경우에 8월은 예외적으로 두드러진 순간으로 드러난다. 전두환은 수많은 이유로, 즉 광범한 억압조치 또는 그가 횡령한 수억 달러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강패라고 불렸다. 내가 연구노트를 종합할 때 피할 수 없는 결론은 전두환의 권력 공고화가 고위층 미국인들과 아주 긴밀하게 조율되고 동기화되어서 그의 조율자가 영화 <대부>를 봤고 거기에서 마이클 콜레오네가 교회에 머무는 동안 가문의 적을 동시에 살해하는 정교한 작전을 배웠음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 달 글라이스틴과 위컴이 한국에 없는 상태에서 전두환은 모든 일을 처리했다. 8월은 합헌적으로 재가받은 청와대의 대통령 최규하로 시작됐다. 위컴은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승인하고 다음 날 한국을 떠났다.⁵⁹⁾ 8월 14일 김대중 재판이 시작됐다. 이를 뒤 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가 사임했다. 자신을 4성 장군으로 승진시킨 전두환은 민간인으로서 대통령에 선출되기 위해 군에서 전역했다. 8월 27일 선거인단은 정확히 그 일을 했다. 대통령 당선인 전두환에게 보내는 카터 대통령의 축하서한은 미국의 우선순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다. “귀하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맡았기에 본인은 개인적으로 우리 양국의 기본적인 경제 및 안보 이해를 유지하려는 우리의 바램을 귀하에게 확인하기 원한다.”⁶⁰⁾ 다음 날, 글라이스틴이 귀환했고, 리처드 홀브룩의 개인적 승인을 받아 위컴 역시 귀환을 허락받았다. 상황은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56) Wickham, Korea on the Brink, 156. Gleysteen’s book, written in close collaboration with Wickham after the two had been summoned to the ROK’s National Assembly, incorrectly has the date of the breakfast a day earlier. In his remarks published in the Los Angeles Times, Wickham also said that Chun had come to power “legitimately” and, like Park Chung-hee, Chun intended on being president for life—to wear the purple “right into the grave.” See Jameson, “U.S. Support Claimed for S. Korea’s Chon.”

57) Wickham, Korea on the Brink, 163.

58) Stefan Tanaka,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248.

59) Before the Gwangju uprising, when Wickham had also been conveniently absent from the country, he left his Korean Deputy Commander, Bae Sok-chu, to approve the release of troops to Chun’s command. A special issue edition of Dong-A Ilbo later reported that he left because “he knew the massacre in Gwangju was going to happen.” Special Issue: A Thorough Investigation of American Forces in Korea (철저해부 주한 미군) 1990, as quoted in Yoon, “The K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46.

60) Gleysteen, Massive Entanglement, 165-6.

하루 뒤 글라이스틴을 전두환을 비밀리에 만나서 국제 투자자들이 다시 경악하지 않도록 김대중을 처형하려는 정부가 시도를 제어하려고 했다. 9월 2일 글라이스틴은 “새로운 진용은 국제기업 이해를 확신시켜야 한다”고 기쁘게 지적했다.⁶¹⁾ 4일 뒤에 머스키 장관은 한국의 안정에 대해 우려했던 “기업인과 은행가의 꾸준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전문을 보냈다.⁶²⁾ 대사관이 차관 승인을 서두르는 동안 웨스팅하우스 대표이사 로버트 커비가 서울을 방문했고 “최근 서울의 상황과 웨스팅하우스의 전망을 도취적 용어로” 묘사했다.⁶³⁾ 9월 22일 데이비드 록펠러의 방문으로 기업의 100퍼센트 외국인 소유, 외국인 투자금의 100퍼센트 반환,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허용하는 전두환의 새로운 정책이 발표됐다.⁶⁴⁾

크리스토퍼는 “대사관이 미국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우호적인 기업환경으로서 한국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고 기쁘게 지적했다. 전두환이 확고하게 권력에 자리잡자 미국은 한국에게 정치체제를 자유화하는 것이 아니라(시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한 대로) 시장과 은행을 개방하라는 압력을 서서히 강화했다. 10월초 전두환의 재정장관이 미국을 방문하자 그는 미국 보험회사들이 한국시장에 대한 더 쉬운 접근을 제공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박정희 유신체제의 주요한 수혜자인 재벌은 민주화를 지지하지 않았다. 전두환의 “자유화” 아래서 그들 역시 혜택을 봤다. 엘리스 앰스던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자유화는 경제의 집중화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다.⁶⁵⁾

재벌들이 보다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기 위해 합리화를 진행하자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고 다른 기업들은 소속 기업에 지분을 매각했다. 전두환은 한국 자동차 산업은 현대로, 조선업은 대우로의 통합을 강요했다. 2주일 후에 전두환은 내각을 개편했다. 원풍모방이나 콘트롤데이터 같은 곳에서 전두환에 대한 반대가 일어나자 그는 더욱 보복적인 노동법을 밀어붙였고 그런 다음 미국의 잉여생산물에 더 많은 시장을 개방했다. 그 이후 소고기값 위기 시에 수천명의 한국 농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고 농업시장을 더욱 개방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반대했다.⁶⁶⁾ 1980년 12월 전두환은 수천명의 교수를 더 숙청했다. 그는 박정희가 유신 아래서 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새 헌법을 선포했다. 10월 27일 전두환은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당을 불법화했고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금지했다. 그는 또는 중앙정보부의 명칭을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ANSP])로 바꾸고 권한을 증가시켰다. 경제회복을 단기 외국차관과 더욱 국제화된 자본시장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전두환과 그의 보좌관들은 한국경제의 궤적을 박정희의 국민개발국가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그들은 그대신 국제금융구조로의 통합으로 향하게 했고, 1997년 국제금융의 불안저어은 동아시아 금융위기 시에 한국경제를 황폐화시켰다. 자본시장은 크게 자유화됐고, 은행과 무역에 대한 규제도 자유화됐다. 1983년 정권은 외국자본장려법을 개정하여 이윤취득과 자본유출에 관한 거의 모든 제한을 제거했다.⁶⁷⁾ 1985년 10월 6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수입자유화 정책이 채택됐고, 지적 재산권과 미국은행 및 보험회사 규제 자유화의 문제에서 미국에 대한 수많은 다른 양보가 이뤄졌다. 1987년 봄 20억 달러 이상 미국 수입품을 증가시키는 조치들이 발표됐다.

61) GDMM X: 326: 80Seoul 011457.

62) GDMM X: 360: 80State 237970.

63) GDMM X: 438: 80State 250900.

64) Christian Institute for Social Justice and Democracy, *The Power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Korea* (Seoul: Christian Institute, 1981), 13.

65) Amsden, *Asia's Next Giant*, 136.

66) Sangyong, Simin, et al, *Memories of May 1980*, 399.

67) *Korea: Managing the Industrial Transition*, 2:205.

1977년에서 1981년까지 5년 동안 5억달러를 조금 넘었던 한국의 외국인투자는 1985년까지 해마다 그 정도 액수로 증가했다.⁶⁸⁾ 독일기업(Bertelsmann Stiftung) 경제분석가들의 견해로는 “남한 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완수됐다.”⁶⁹⁾ 세계은행이 설명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외부문 자유화는 부드럽고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정부의 금융부문 개입은 특히 1970년대 후반에 경제를 심하게 왜곡했던 것으로 보인다.... 1980년 이후 금융자유화 노력은 금융할당의 다양한 측면을 크게 개선했다.”⁷⁰⁾ 무역에 대해 보고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한국의 자유화 프로그램은 상당 부분 궤도에 올랐고 정부는 그 효과적 실행에 대해 명확한 고득점을 받을 많다.”⁷¹⁾ 1987년 3월 발표된 보고서 역시 한국의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미국의 약 1/10이라고 언급했다.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한국 노동자들의 80퍼센트 이상이 자국 정부의 4인가족 최저 생계비보다 더 적게 받는다는 1985년과 1986년 통계를 발표했고,⁷²⁾ 이는 1987년 완전한 분노로 폭발하게 되는 공장들에서 폭풍이 일어나려고 하는 명확한 지표였다. 무역을 극적으로 자유화하려는 전두환의 정책은 외국기업들이 한국시장을 장악하는 데 도움을 줬다. 수입물품에 대한 자동승인은 1980년 전체의 68.6퍼센트에서 1986년 91.5퍼센트로 늘어났고, 평균관세는 1980년 24.9퍼센트였는데, 1990년에는 11.4퍼센트로 떨어졌다.⁷³⁾

확실히 전두환과 미국 행정부 사이에 갈등은 있었지만, 그것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이었다. 카터와 레이건 행정부는 모두 전두환에게 김대중을 처형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고, 전두환도 “미국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왜곡적인 사정”, 즉 박정희의 국민개발국가의 잔재를 정리하려는 대사관의 일관된 노력에 순응했다. 같은 시기 미국의 행동을 한국 시민사회의 그것과 비교하면, 한국과 미국의 우선순위상 차이는 반미주의의 등장과 활성화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제공한다.

민중의 지혜

박정희의 한국경제개발에서 주변화된 전라남도는 1980년 붕괴 오래 전부터 위기상태였다. 소득은 나머지 지역의 빈약한 수입의 3/4 이하였고, 미국으로부터 잉여농산물의 수입은 소농민들에게 “폐허 상태”를 창출했다.⁷⁴⁾ 1980년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서 서울에 1백만명의 전라도민이 있었고, 이는 글라이스틴이 광주봉기가 진압된 다음 민주주의운동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고려에서 인용했던 사실이다.⁷⁵⁾

미국은 지역의 경제문제를 잘 알고 있었지만, 전라도 주민의 기본적인 경제적 필요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민주적 자유에 대한 열망을 짓밟은 다음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추구했다. 비록 많은 목격자들이 광주의 운동을 오로지 정치개혁의 한계 내로 제한하려 했지만,

68) Korea: Managing the Industrial Transition, 1:169.

69) “South Korea Country Report,” <http://www.bertelsmann-transformation-index.de/132.0.html?L=1>.

70) Korea: Managing the Industrial Transition, 2:81, 105, 107.

71) Ibid., 1:74 as quoted in Amsden, Asia’s Next Giant, 134.

72)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Social Justice Indicators in Korea, (Seoul: 1988), 55. A resource center sponsored by a consortium of protest groups, the web site of the CISJD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is: <http://www.jpcc.org/introduce/books.php>.

73) Sung-Hee Jwa and Jun-Il Kim, “Korea’s Economic Reform,” in The Politics of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in Korea, eds. Chung-in Moon and Jongryn Mo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9), 259.

74) In 1980, the average annual income per person in Gwangju was 461,451 won as compared to 619,037 nationally. Hard Journey, 209 (see chap. 5 n. 68). Also see Essays, 61 (see chap. 5, n. 102).

75) GDMM IX: 352: 80Seoul 007266.

경제적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주목할 만하다. 봉기 동안 경제적 불만은 제기된 다양한 요구들 중의 일부였고, 이후에 경제적 과님은 중심적 문제였다. 봉기 1주년 기념일에 “전라남도 주민들”이 발표한 선언에서, 이 그룹은 학살의 진실을 알리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동시에 농산물 가격인상, 자유로운 노동조합과 언론자유도 요구했다. 성명서는 계속해서 주장한다. “외국기업들은 군부정권의 도움으로 시장지분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불합리한 외국인 투자 외에도 한국시장의 경제적 점령은 한국경제가 외국의 영향에 덜 의존하기 위해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⁷⁶⁾

광주재판 피고인 가족연합은 특정한 미국인 가문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우리는 헤이그 장관 등의 행동을 기억한다. 미국의 가장 영향력있는 가문 중의 하나의 수장인 데이비드 록펠러는 광주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전두환을 만난 최초의 미국인 경제 지도자였다.”⁷⁷⁾ 1982년 3월 10일 한국 카톨릭 정의와 평화위원회는 “외국 농산물의 무차별적 도입”과 “농산물 자급률의 하락”을 규탄했다.⁷⁸⁾ 몇 달후 봉기 2주년에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시민운동은 “광주항쟁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란 팸플릿을 출판했다. “재벌들이 국가의 부를 팔아먹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이 단체는 자신의 지도력 부재를 비판했고, 학생들에게 “변화의 전위로서 시위를 계속 전개하고”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조직하라고 호소했다.

이런 임시단체들의 지혜와 그들의 보통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은 “미국 투자가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모든 노력을 하는” 강력한 미국대사관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그들의 경제적 관심은 명백하지만, 정치적 총기는 이 활동가 단체의 담론에 없지 않다. 구속자 가족들은 국제정치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설명했다. “정부는 학생들의 저항을 경험하면서, 베트남 몰락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위협해서는 안되고 또한 미국정부의 지지를 받는다고 자랑해서는 안된다. 베트남의 몰락은 민주주의의 결핍과 체제의 부패로 야기됐다.”⁷⁹⁾ 봉기 6주년에 전국민주화협의회 전남지부의 선언은 미국정부가 “한국민중의 이해보다 자신의 이해에 더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광주항쟁은 우리에게 오직 단결된 민중의 힘만이 끝내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쳐줬다”고 결론내렸다.⁸⁰⁾ 그들은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맹세했다. 이제는 전설이 된 광주는 1987년 6월봉기에 중심으로 영감을 줬고 6월항쟁은 바로 그 요구를 쟁취했다.

정치와 경제의 관계는 아주 복잡하고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어서 아직 아무도 물리법칙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갖는 법칙이나 방정식을 정식화할 수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구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며, 아주 제한된 기초 위에서 임시적으로 미래에 대한 투사를 시도하는 것이다. 광주봉기 이후에 글라이스틴은 자신만의 진단을 시도했다. 그는 많은 한국인들이 “만약 질서가 경제적 보상을 수반한다면 자유화보다 질서를 선택할 것”이라고 계속 믿었다.⁸¹⁾ 한국인들에게 우선순위는 달랐다. 1987년 6월초 수행된 여론조사는 스스로 중산층으로 이해한 한국 시민들의 막대한 다수, 놀라운 85.7퍼센트가 “비록 경제성장이 지연되더라도 인권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했다고 지적했다.⁸²⁾

76) May 18 Research Institute, “Manifestos and Declarations,” 2-26. The book has a Korean title: 5-8 관련자료의 영어 번역: 5-8 20주년 기념 학술연구사업 연구소위(Gwangju, 전남대학교 5-8 연구소, 2000).

77) United Family Members of the Defendants in the Kwangju Hearings, “A Letter to President Reagan,” in A Declaration of Conscience: The Catholic Church and Human Rights, ed. Japanese Catholic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 (Maryknoll: Orbis Books, 1983), 131.

78) Ibid., 364.

79) May 18 Research Institute, “Manifestos and Declarations,” 2-29.

80) Ibid., 2-39.

81) GDMM IX: 352: 80Seoul 007266.

82) Published in June 1987 in Hanguk Ilbo. See Korea Under Roh Tae-Woo: Democratization, Northern Policy and

6월항쟁이 발발하자 전두환은 이미 미국에게 유용성을 상실했고, 전두환의 미국인 삼촌들은 재빨리 그를 포기했다. 그들은 과거에 응오딘디엠과 라파엘 트루히요에서 마누엘 노리에가와 사담 후세인까지 제국의 협력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랬다. 전두환을 법정에 세워는 데 또 15년에 걸친 투쟁이 있었지만, 광주민중은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었고, 봉기의 진실을 밝히고 미국이 봉기를 진압한 이유를 밝힐 때까지 편히 쉬기를 거부했다.

Inter-Korean Relations, ed. James Cotton (Canberra: Allen and Unwin, 1993), 88.

[번역] 조지 카치아피카스,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1권

조지 카치아피카스, George Katsiaficas,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Asia's Unknown Uprisings,
1권: 20세기 남한의 사회운동 Volume1: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in the 20th Century

8장 밀려드는 폭풍

빛의 나날, 암흑의 시대 | 남한의 반미주의 | 민중의 등장 | 예술가들과 민중의 대항문
화 | 한국의 학생운동 | 운동 내부의 경향: PD와 NL | 여성운동의 건설 | 정치인들의
개입 | 미국의 전두환 압박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 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 입을 위한 행진곡 (광주 추모가)

일지

1980년 5월 18-27일	광주항쟁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사임
1980년 8월 27일	전두환,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대통령에 선출됨
1980년 12월 9일	미국 정보처(USIS) 광주사무소 방화
1981년 1월 28일	전두환, 최초의 외국 국가원수로 레이건 백악관 방문
1982년 3월 18일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1982년 10월 23일	김대중, 석방된 후 미국행
1983년 9월 22일	대구 미국문화원 화염병 공격
1984년 4월 13일	55개 캠퍼스 대학생들 대학 자유화 시위
1984년 10월 24일	6,000명 이상 경찰이 서울대학교 점거
1984년 11월 3일	42개 대학 학생지도자들, 연세대에 모여 전국연합 결성
1985년 2월 12일	국회선거에서 야당, 집권당보다 많이 득표함
1985년 4월 16일	대우자동차 파업
1985년 4월 20일	노동자 350명, 대우자동차 기술센터 점거
1985년 5월 17일	38,000명 이상 학생들, 광주진상 규명 요구하며 서울에서 전투적 시위를 벌임
1985년 5월 23일	학생 서울시내 미국 문화원 점거, 광주청문회 요구
1985년 5월 29일	광주에 관한 책의 저자 체포됨
1985년 6월 24일	구로공단 여성 노동자 동맹파업
1985년 8월 1일	문인 401명 표현의 자유 요구

1985년 11월 22일	민중미술협의회 결성
1985년 12월 2일	광주학생들 미국문화원 점거,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 중단요구
1986년 3월 1일	125명 이상의 카톨릭 사제, 서울에 동시에 정의를 위한 미사 개최
1986년 4월 28일	서울대생 이재호와 김세진, “반전반핵!” 외치며 분신
1986년 5월 20일	서울대생 이동수 “미제국주의, 물러가라!” 외치며 분신
1986년 10월 28일	서울 건국대학 학생집회, 1,219명 체포됨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전투적 행동, 129명 체포됨
1986년 5월 9일	152명 이상의 승려들, 민주화 요구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으로 사망
1987년 2월 7일	고문항의 시위 799명 체포
1987년 2월 18일	한국여성노동자회 결성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헌법논의 중지

빛의 나날, 암흑의 시대

전두환의 광주봉기 진압은 그의 정권에 영원한 상처를 남겼고 그것은 제5공화국에 대한 사람들의 가장 지속인 기억이 된 유혈적 태반이었다. 학살의 진상이 알려지자, 전두환의 지배는 도덕적 정당성의 어떤 의미도 상실했고, 이것은 어떤 지배자에게도 재앙이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교적인 사회에서 치명적 결함이었다. 비록 독재의 철권이 강제로 내리 눌렀지만, 광주의 시민들이 결코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봉기의 진실을 억압할 수 없었다. 5월 27일 살육 이후 며칠 만에 동물에게도 거의 적합하지 않은 감방에 갇혀있던 수백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위협받기를 거부한 그들은 군사법정의 판사들에게 의자를 집어던졌고 선고를 듣기보다 운동가를 불렀다. 남한의 나머지 지역 대부분이 그들의 희생과 고통에 대한 암흑 속에 남아있던 동안, 그들은 자신을 위로하며 투쟁을 계속할 네트워크를 건설했다.

수년간 군부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억눌렀지만, 궁극적으로 고립된 필사적 초기 행동은 저항의 폭풍으로 변했다. 국민을 알려지지 않은 학살의 역사로 깨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희생했다. 학생 김의기는 군대가 유혈사태로 도청을 재탈환한 지 3일 후인 1980년 5월 30일 광주봉기의 진실을 알 필요를 주장하면서 서울의 기독교회관에서 몸을 던졌다. 다음 날 밤, 광주 도심 전역의 전봇대에 붉은 페인트로 “살인마 전두환”이라고 글씨가 쓰여졌다. 6월 2일 <전남매일신문>은 김준태의 시 “광주여! 우리 민족의 십자가여!”를 실었고, 이 시에서 광주의 핏박과 희생은 예수와 비교됐다. 곧 신문에 폐간해야 했다. 광주 전남 일보가 6월 2일 발간을 재개하자, 커다란 활자로 “무등산은 안다!”라는 일련의 논설을 게재했다. 6월 9일 노동자 김종태가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분신했다. 5월 27일 학살 꼭 1년후 서울 대학생 김태훈은 광주의 역사에 대한 검열에 항의해 자살했다.

심지어 유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리려는 경우에도 체포와 기소에 직면했다. 그들은 봉기 1년후인 1981년 5월 18일 50명의 유가족들은 망월동 묘지에서 추모식을 가진 후 체포됐다. 희생자 가족들이 하나의 커다란 단체로 모이는 데 2년이 걸렸고 봉기에 관한 첫 번째 책이 나오기까지 5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 이재의의 책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봉기에 대해 쓰여진 최초의 역사가 됐고, 그는 서문에서 책을 쓰면서 조심했던 사정을 설명했다. 그는 1985년 5월 가명으로 이 책을 출판했다.¹⁾ 저자로 의심받는 사람이 즉각 체포됐고, 군부는 수천권을 파기했지만, 작은 인쇄소들은 더 많은 부수를 계속 만들어냈다.

1) Lee Jae-eui, Kwangju Diary. Originally published under the pseudonym, Hwang Seok-young.

1년 이내에 수십만부가 배포됐고 뜨거운 감자처럼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전투환이 이 불법서적을 소지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오늘 날 봉기를 자랑스럽게 논하고 암흑의 세력에 대한 봉기의 승리를 격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수천명의 희생자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서 찢어진 가족, 자녀를 잃고 부모의 수십년 간의 슬픔, 수년간 갇힌 채 남겨진 실리적 상처, 그리고 자신을 삶을 가능성 만큼 살지 못한 수많은 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²⁾ 점점 더 희생자들은 자신과 자기 나라의 지속적 문제의 원인으로서 전투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지목했다.

광주봉기 이후 한국 정치지형의 핵심적 특징은 영원히 변화했다. 미국에 대한 맹목적 믿음은 반미주의로 대체됐고 전투적 반정부 시위가 정의에 대한 도덕주의적 호소를 대체했다. 후자의 한 가지 지표는 광주 이후 화염병이 가두행동의 표준메뉴가 됐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투쟁의 목적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파쇼독재를 타도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됐고(1인 군사 지배라기보다), 그들은 또한 저항의 주체를 반정부진영 내의 저명한 인물들이 아니라 민중(보통사람 대중들)이라는 인식을 발전시켰다.³⁾

남한의 반미주의

1980년 이후 반미주의는 하루밤 사이에 중요한 문제가 됐고, 단지 사라질 수 없는 문제였다. 광주 이전에 막대한 다수의 한국인들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데 도움을 줄 훌륭한 친구라고 믿었다. 현대적 반미주의의 발생시점인 봉기 동안에도 미군 항공모함 코럴시 호가 전투환과 신군부 독재를 맞선 봉기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영해에 진입했다는 소문은 널리 믿어졌다.⁴⁾ 일단 미국이 전투환을 지지했고 그가 봉기를 진압하도록 격려했다는 것이 분명해지자(심지어 코럴시가 도착할 때까지 군대의 광주 재진입을 연기하라고 군부에 요청했다), 남한의 반미주의는 놀라운 급속성과 예상 못한 지속성을 갖고 등장했다.⁵⁾

한국인의 기억 속에 미국 관리들이 했던 일련의 공개적 성명도 반미감정의 불길을 부채질하는 데 도움이 됐다. 1979년 11월 29일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을 “마늘과 고추를 먹는 전사들의 사회”라고 지칭하는 유명한 발언을 했다. 1982년 리처드 L. 워커 주한 미국대사는 남 캘리포니아의 한 기자에게 한국 학생과 지식인들이 노동자들의 동조를 전혀 받지 못하는 “버릇없는 개구쟁이들”이라고 말했고, 존 A. 위컴 2세 장군(당시 한국주둔 미군과 UN군 사령관으로 근무했던)이라고 믿어지는 “고위 미육군 관리”는 한국인을 “취새끼같다”고 언급한 진술을 했다.⁶⁾

광주진압 2년 이내에 방화범들이 광주와 부산의 미국 문화원(USIS)을 공격했다. 1985년 5월 23일 서울의 미국문화원 도서관이 학생 73명 전원이 체포될 때까지 3일동안 점거됐다. 1986

2) See Lewis, Laying Claim. Many survivors still suffer mental health problems and have experienced high rates of divorce and suicide. For grim figures on Gwangju veterans' fates, see Na Kahn-chae, 항쟁은 계속되고 있다, 전대신문 1437호, 9. At least 375 of the wounded have committed suicide, and 120 still suffer from severe mental illness.

3) Cho Hee-yeon, "A Study on the Radicalization of the Opposition Ideology by the Impact of the Gwangju Uprising," in May 18th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Gwangju City, History of the 5.18 Democratic Uprising, vol. 2 (Gwangju: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2008), 592-3.

4) Scott-Stokes and Lee Jae-eui, The Kwangju Uprising, 35-7.

5) On December 20, 1988, the Chosun Ilbo reported that former Chief of the Army Lee Hee-sung testified before the Korean Parliament that the United States had requested a delay in the army's entering Gwangju in order for the carrier and advance warning aircraft to arrive from Okinawa and the Philippines.

6) See Jameson, "U.S. Support Claimed for S. Korea's Chon."

년 5월 인천의 폭동은 명확한 반미기조를 띄웠고, 같은 달 21일 부산의 한 미국시설이 다시 불탔다. 1987년 6월봉기 동안 미국인 기자들은 시위를 취재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양키 고 홈!”을 외쳤다고 불평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전두환을 부추기면 부추길수록 남한의 반미주의는 더욱 증가했다. 미국 정책입안자들이 미국기업을 위해 필리핀, 타이완, 남한 같은 동아시아 나라의 시장과 자원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식이 부패하고 인기없는 독재자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육성하는 것임을 깨닫자, 새로운 대사가 서울로 파견됐다. 수년간 타이완에서 개혁을 추진한 경험을 가진 노련한 CIA 작전요원 제임스 킬리가 새 대사가 됐다.

미국만큼 증오하는 전두환과 그의 미국인 요원 무리는 정교한 경계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게 됐다. 우연히 정현애는 1982년 3월 10일 독재자 전두환이 아무 발표도 없이 대낮에 광주시내를 방문했을 때 그와 마주치게 됐다. 그녀는 재빨리 근처에 있던 20여명을 동원했고, 전두환은 서둘러 도망쳐야 했다.⁷⁾ 전두환은 광주 사람들을 너무 무서워해서 그날 밤 시외곽인 담양의 민박집에서 머물렀다. 광주에 하루밤 머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전두환은 광주시에 기념패를 주었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망월동 묘지에 가져가, 묘지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밟을 수 있도록 묘지입구에 설치했다. 조지 H.W. 부시가 바그다드에 나타나자 신발을 던진 기자보다 더 정중한 형태의 모욕이었지만, 한국식 모욕이었다. 몇 달 뒤 전두환은 다시 광주를 방문하려고 시도했지만, 몇몇 청년들이 그를 알아보고 차에서 내려 쫓아가자 전두환과 경호대는 고속도로로 도망쳤다.⁸⁾

5월 27일 살육 이후 쓰레기 트럭으로 시체를 버린 곳에서 한국 열사들의 외딴 휴식처는 민주주의 운동의 메카가 됐고, 묘지의 존재에 위협을 느낀 정부는 1983년 시체를 다른 자소로 옮기려고 시도했다. 각 유족에게 약 10,000달러 상당을 제공한 정부는 고위정부관료, 교수, 부유한 시민, 심지어 광주상공회의소가 참여하는 지역개발위원회를 조직했다. 우려한 가족들은 즉각 사람들에게 알렸고 24시간 내내 경계를 했다. 시신을 옮기려는 시도가 중단되자 분노한 시민들은 위원장의 집으로 행진했고 거칠게 항의했다. 봉기 4주년인 1984년 5월 18일 광주와 서울에서 약 80명이 체포됐고 12개 대학의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봉기 5주년에 아들이나 남편을 잃은 어머니들이 광주 시내에서 격렬한 항의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금남로 카톨릭센터 6층에서 플래카드를 내걸었고 확성기를 통해 “전두환은 즉각 사퇴하라!”, “진실을 감추지 마라!”라고 외쳤다. 곧 경찰이 와서 그들을 체포하고 구타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⁹⁾ 그들의 굴하지 않는 정신은 전시민을 움직였다. 절대공동체의 중심에서 그들의 지속적인 결의는 전 나라에 투쟁의 의지를 불붙였다.

한국 전역에서 광주는 민주주의의 구호가 됐다. 1985년 5월 17일 80개 대학의 연합시위에 약 38,000명이 참여했고 그들은 학살의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¹⁰⁾ 1주일 뒤 서울의 대학생 73명이 미문화원을 3일 동안 점거했고, 학살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미국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활동가들의 이런 전략적 선택은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 그 이후 광주봉기는 공개

7) Chong Hyun-ay testimony in 박병기 엮음, 5.18연구소 자료총서 3, 5.18항쟁 증언자료집 3 (2003) 전남대학교 출판부, 205.

8) Interview with Na Kahn-chaе, Gwangju, April 1, 2009.

9) Matsui, Women's Asia, 140.

10) Na Kahn-chaе, “A New Perspective on the Gwangju People's Resistance Struggle, 1980-997,” in South Korean Democracy: Legacy of the Gwangju Uprising, eds. George Katsiafi cas and Na Kahn-chaе (London: Routledge, 2006), 171.

적 논쟁의 전국적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독재정권과 미국이 계속 발뺌하자, 사람들은 더욱 과감해졌고 필사적으로 됐다. 8월 15일 시위가 계속되자 흥기일은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데 항의해 광주 도심에서 분신했다.

가혹한 상황이 계속된 몇 년 내내 광주는 사람들이 굴복하길 거부했기 때문에 전두환에 대한 점증하는 불만에서 여전히 중심이었다. 1985년 5월 15일에서 19일까지 친정부적 경향신문의 비밀 여론조사는 응답자의 65퍼센트 이상이 전두환 정부에 불만이었다고 지적했고, 이 수자는 20대(73.6퍼센트)와 대졸자(85.7퍼센트)이 훨씬 더 높았다.¹¹⁾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들의 80퍼센트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임금을 받았다.**¹²⁾ 1986년 5월 16일 봉기동안 살해당한 사람들의 친척 2천여명은 남동성당 미사 이후에 금남로에서 공개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다음날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광주를 추모하는 시위를 벌였다. 5월 20일 서울대학생 이동수가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자!”라고 외치며 분신했다.

이 암흑의 시절 동안, 토착 민주주의 운동을 자극하는 결정적 요소는 국제적 지원이었다. 봉기 1주년에 한국, 일본과 10여개 다른 나라에서 온 500명 이상이 일본에서 남한 민주주의를 위한 긴급 세계총회를 열었다. 김대중이 처형될까봐 우려해 일본에서 그의 안전을 위한 5백만명 이상의 서명을 모았다. DJ의 유명세에 열광한 펠릭스 카타리는 거시정치구조보다는 미시역학에 대한 이해로 더 유명했지만, 프랑스의 새 사회당 정부를 “역사의 전환점”으로 환영했고, DJ를 자본주의를 끝장내려고 투쟁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라고 불렀다.¹³⁾ 만약 그가 더 살아서 DJ가 1999년 집권한 다음 남한 노동자들을 심하게 억압하는 것을 봤다면, 의심의 여지 없는 그는 다르게 말했을 것이다. 독일언론은 광주봉기를 폭넓게 보도했다. 미국언론과 달리, 그들은 주의깊게 보도했고 진압의 함의를 충분히 분석했다. 독일의 기독교 단체들은 도덕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운동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¹⁴⁾ 남한의 기독교인은 2차대전 후 약 1퍼센트에서 1987년 거의 25퍼센트를 차지했다.¹⁵⁾ 신교도들이 가장 적극적이었지만, 가톨릭교회 활동가들은 민주화에서 상당한 세력이 된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가졌다. 놀랍게도, 흔히 미국에서 보수적 기구로 간주되는 YMCA와 YWCA는 권위주의 체제에 대항한 사회운동의 동원에서 원천이 됐다.

역사의 간계는 심지어 재난이 강타한 곳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 사회운동의 변증법적 전개에서 모든 봉기는 다음 단계의 투쟁을 위한 조건과 주체들을 만들어낸다. 과거에 존재한 사회적 지위와 부의 범주가 민중의 상상력과 노동의 풍부한 운동에 의해 파괴되고 소멸하자, 새로운 범주가 등장해서 그들을 대체하며, 단지 기계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열망과 도구로 새롭게 발전한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광주 이후 이 시기에 민중이란 새로운 사회적 주체의 형성이다. 1980년대 초반 전두환이 자신의 불법성과 씨름하는 동안 모든 계급의 풀뿌리 사람들인 민중은 자신을 한국역사의 주체이자 객체로 자신을 창조했다. 쇠르지 루카치가 프롤레타리아트를 유럽역사의 주체-객체로 인식했던 것과 흡사하게, 민중은 과거 수십년의 투쟁만이 아니라 광주에 의해 만들어진 객체이자 동시에 민주적이고 평

11) Cited in Wonmo Dong, “Student Activism and the Presidential Politics of 1987 in South Korea,” in Political Change in South Korea, eds. Ilpyong Kim and Young Whan Kihl (New York: Paragon House, 1989), 171.

12)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Social Justice Indicators in Korea (Seoul: Minjungsa, 1988), 55.

13) Documents of the Emergency World Assembly for South Korean Democracy (Tokyo: Secretariat of ASKOD, 1982), 199.

14) See Baker, “The International Christian Network for Korea’s Democratization,” 133-3. Besides the overt support provided by overseas Christians, Baker points out that selfgovernment within the churches provided critical experience for many Koreans to become active in the movement.

15) Huntington, Third Wave, 73.

등주의적인 질서의 주체가 됐다. 광주봉기의 도가니 속에서 형성된 민중의 정체성은 예술, 상상력과 투쟁을 통해 자신을 공고화했다. 공산주의의 노농동맹도 아니고 유교적 엘리트 식 자층도 아닌 민중은 오직 수퍼부자와 독재의 친구들만을 배제한 모든 사람들의 종합이었다. 광주의 유혈적 희생에서 등장한 민중은 5천년 한국 역사에서 창조의 왕관에 결코 모자람이 없는 존재를 구성했다.

민중의 등장

운동권에서 광주 봉기자들의 죽음은 극적인 효과를 미쳤다. 1985년까지 거의 모든 활동가들은 광주를 정부가 사용한 단어인 광주 “폭동” 또는 “사태” 아니라 “5.18 민중봉기”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봉기의 주력으로서 민중은 성장하는 비의회적 전국적 운동에서 모든 짓밟히고 억압받고 주변화된 없는 사람들,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 노동자, 학생, 농민, 도시빈민, 언론인과 작가, 종교인, 청년과 여성, 재야 활동가 전문직 중산층, 진보적 지식인가 예술가 등을 단결시키는 수단이 됐다. 민주주의와 민족이란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진 민중은소수의 경제군사적 엘리트에 맞서 모든 사람을 단결시킴으로써 두 가지 의미를 더욱 전진시켰다.

오늘날 민중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존재한다. 이남희에게 민중은 역사적 근거가 없는 분석적 개념이다.¹⁶⁾ 케네스 웰스에게 민중은 “포퓰리즘적 이상주의”에 속하는 개념이다.¹⁷⁾ 최정운은 민중을 광주의 경험적 역사의 일부로 이해했다. “민중의 등장은 이 절대공동체의 산물이다.”¹⁸⁾ 최정운은 이 단어가 민청련(민주화운동 청년연합 Youth Alliance fo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YADM)에 의해 1984년 5월 19일에 “발명”됐다고 주장하지만,¹⁹⁾ 이 용어는 1890년대 독립신문에서 사용됐고 1923년 신채호는 “조선독립선언”에서 독립의 지도적 구성주체를 묘사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다.²⁰⁾ 평화주의자 함석헌은 자신이 추구한 목표를 설명하기 위해 “민중 민주주의”를 사용했다.²¹⁾ 1974년 단명한 민청학련(National Federation of Democratic Youth and Students: NFDYS)은 “사회의 구조적 변혁”을 요구한 <민중-민족-민주주의 선언>을 발표했다.²²⁾ 1980년 이승만 타도 20주년에 서울대학생들은 최종 결의안에서 민중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민중개념은 다른 어떤 것과는 달리 한국의 사회운동 세대들 사이에서 연속성을 제공했고, 의미의 이런 차원은 극도로 중요하다. 남한의 강렬한 반공주의는 국가보안법의 금지조항이나 자의적 처벌 이상이었고, 평양에서 나오는 이미지와 심지어 어휘를 포함한 “레드 콤플렉스”의 노골적인 거부의 일상적 형태로 체화돼 있었다. 북한은 혁명의 토대로서 인민에 대해 말하지만, 민중은 1945-55년의 거대한 민중민족적, 사회혁명적 투쟁으로부터 반독재 민주주의 투쟁을 놀랍게 격리하는 운동주체의 대안적 개념을 제공했다. 경제와 정치를 가로질러 광범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을 단결시켰기 때문에, 민중은 결정적으로 맑스주의적 용어가 아니다. 기독교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주장한다. 그들도 “민중의 뜻은 신의 뜻이다”라고 선언했다. 독재정권이 평양과 연계된 “적의 첩자”란 미명으로 거의 모든 반대자들을

16) Lee, *The Making of Minjung*, 6.

17) Wells, *South Korea's Minjung Movement*, 11.

18) Choi, *The Gwangju Uprising*, 268.

19) *Ibid.*, 28.

20) Wells, *South Korea's Minjung Movement*, 19, 32.

21) Jiseok Jung, “Post-modern Interpretation of Ham Sokheon's Minjung Pacifism,” paper presented at the World Conference on Philoso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August 4, 2008.

22) Chulhee Chung, “Structure, Culture and Mobilization: The Origins of June Uprising in South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Y Buffalo), 92.

모략하기 위해 반공주의를 문자 그대로 사용하지만, 기독교 활동가들에게 그런 비방을 사용할 수는 없었다. 왜냐면 신에 대한 믿음은 무신론적 공산주의자란 비난에서 그들을 자동적으로 면제시켜줬기 때문이다. 새로운 해석의 틀로서 민중신학은 막대한 다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헤게모니 블록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열띤 담론의 우주에서 운동과 활동의 어휘와 문법 모두가 변화했다. 지하 불법 토론서클이 특히 대학 캠퍼스에서 번성했고 광주봉기의 성격에 관한 다양한 시각이 등장했다.²³⁾ 광주봉기 이후 운동목표의 가치변화와 자기이해의 중심적 부분인 민중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독재를 타도하고 나라를 체계적으로 민주화할 수 있는 세력으로 등장했다. 민중의 다층적 구조는 힘과 탄력성을 부여했다. 1980년 계급투쟁이나 제국주의에 대한 토론은 거의 없었고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이나 농민 사이에 강력한 연계는 없었다. 비록 “구조변혁”을 요구했지만, 민청학련은 계급투쟁이 아니라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옹호했다. 그들은 반제국주의나 반자본주의를 언급하지 않았고 계급투쟁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광주의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자본주의의 적에 맞선 계급투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침묵이 많이 사라졌다. 광주봉기는 기존 사회운동의 형태에서 단절이었지만, 내용상 단절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 총을 들고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스스로 통치했지만, 그들은 태극기를 흔들었고 많은 사람들은 미군함 코럴시 호가 그들을 돕기 위해 왔다고 믿었다. 윤상원은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다.²⁴⁾

봉기진압 직후 반미주의는 보복적으로 등장했다. 1980년대 학생운동은 특히 1985년 이후(이른바 “남한의 사회구성체”에 관한 “대논쟁”, 즉 시민민주주의, 민족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의 CNP 논쟁이 시작된 해)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계급 등의 과감한 어휘를 더욱 빈번하게 사용하기 시작했고, 아래에서 논하는 것처럼 이 정확한 주제를 둘러싼 전투적 투쟁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PD는 1987년경 처음으로 등장한 후발 주자였다). 광주의 끈적한 고립으로 이끌었고 국가가 모든 화력을 한 도시에 집중할 수 있게 했던 전국적 조직의 부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의 지원을 받는 독재에 맞선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론 뿐만 아니라 지도력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었다.

[사진] 1987년 봉기에 사무직 노동자들이 참여했고 “넥타이 부대”란 이름이 붙여졌다.
 사진작가 미상

민중이 갖는 중요성의 최종적 차원은 문화적 변혁에 위치지울 수 있다. 박정희는 1960년대 대항문화와 반란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미니스커트나 장발같은 서구 스타일을 금지했지만, 민중문화는 한국전통에 뿌리를 둔 대항문화가 됐고, 새로운 “상상력, 감수성과 시각”을 자극하고 “운동권”의 노동자, 교회, 새 노동계급으로의 “수평적 확산”을 돕는 기층의 대항 공간이기도 했다.²⁵⁾ 기층 담론은 정부와 직장에서 “수직적으로” 통합된 수많은 대학 졸업자를 포함한 “중민”(한상진이 사무직 노동자, 판매직, 하급 행정직, 프롤레타리아화한 전문직에게 이름붙인) 전체를 포괄했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 계층은 1987년 6월 민중봉기에서 중심주체 중의 하나가 됐다. “넥타이 부대”란 이름의 프롤레타리아화한 사무직 노동자 수천명은 민주화를 위한 동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한상진에게 대항문화의 영향력

23) See Jung Keun-sik, “The Experience of the May 18 Uprising and the Communal Imagination,” in South Korean Democracy, 134-7, for discussion of different theories of the uprising.
 24) See the work of Kim Sang-bong, especially “The Resistant Commune and Sublated Nation,” a talk deliver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the Gwangju Uprising in May 2010.
 25) Nancy Fraser, “Rethinking the Public Space,” in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ed. Craig Calhoun (Cambridge, MA: MIT Press, 1996).

은 광범하게 퍼져있었고, 6월봉기에서 직접적인 참여요소가 됐다.²⁶⁾

Detournement Carlos Latuff 2003, http://fc00.deviantart.net/images/large/indyart/photo/The_Coca_Cola_series_final.gif

주류 광고와 문화적 가치의 상황주의적 변용(detournement)과 비슷하게 민중문화는 전통적 스크립트를 수용해 새로운 급진적 분위기를 반영하도록 변형시켰다. 미국 활동가들이 미국내 “죽음의 문화” 내에서 노예제와 학살의 유산에 반대하기 위해 “삶의 문화”를 발명할 필요가 있었던 반면, 한국 학생들은 자신의 역사에서 많은 것을 끌어낼 수 있다.²⁷⁾ 엘리트 서울대학생들은 전통적 춘향전을 변형시켜 연출했다. 의로운 관리가 주인공을 구하러 오는 대신 임권택의 영화와 똑같이 농민들이 주인공이었다. 완전히 qufrodln 대본에서 민중에 대한 신념은 너무나 강력해서 하늘의 명령은 민중의 명령으로 대체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하위문화는 회사와 가족을 굴레를 넘어 혁명을 수용하는 여성 공장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를 제공했다.²⁸⁾ 독재의 억압적인 힘과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 해방된 문화적 공간의 노력은 세속의 제한이란 멍으로부터 민중의 꿈과 열망을 해방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예술가들과 민중 대항문화

독재의 억압과 더불어, 민중을 창조함에 있어 예술가들의 역할은 특히 중요했고, 민중예술은 운동을 표현하는 다양한 형태에서 가장 유명한 차원 중의 하나가 됐다. 민중사, 민중신학, 민중문학은 모두 운동이 사회 전체에 침투하면서 등장했다. 예술은 아주 중요해서 한 관찰자는 이렇게 논평했다. “한반도 역사에서 또는 아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다른 곳에서도 예술이 민주화를 향한 노력에서 그렇게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적은 결코 없었다.”²⁹⁾ 포스터를 만들고 대중집회를 돕는 등 광주봉기의 중추적 부분이었던 예술가들은 “총 대신 페인트 붓을 들고” 전선에 섰다. 그들은 운동에 심오한 영향을 줬고 그 속에서 그들의 경험은 그들의 작품을 변화시켰다. 협동작업이 광주자유 미술인회의 “윤상원의 눈”이 불러일으킨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만들어낸 적은 거의 없었다. 다이내믹한 색채와 표현적 구성으로 봉기의 정치파노라마가 기념비적 캔버스위에 펼쳐진다. 헌혈하는 매춘여성에서 DJ의 죄수복까지, 춤추는 무당이 부드럽게 감기는 윤상원의 눈은 중심점을 형성한다. 이 작품은 많은 다른 작파뎃럼 서양 형식주의의 모방이 아니라 민중의 경험에 기초한 새로운 종류의 한국 예술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최정운의 말로, “봉기의 유희 경험은 예술문화운동과 사회과학 연구를 촉발했다. 나는 그 때까지 한국 미술, 문화, 학문은 단지 서구모델을 베꼈을 뿐이라고 감히 말하고자 한다.”³⁰⁾

민중미술가들은 전시수단과 작품내용에서 학계의 형식주의적 전문화를 통과했다.k 표현주의적 목판과 오일 같은 새로운 형태를 사용하여 현실세계의 문제를 극적으로 묘사한 그들은 전통적 제지와 단소에서, 활활한 춤과 금욕적 명상으로부터 영감을 끌어냈다. 러시아 혁명 이래로 서구에서 예술의 정치참여는 자주 미학의 정치로의 타락, 미의 도구로의 전략으로 여겨졌지만, 한국 미술가들의 사회참여는 예술적 생산의 총체성을 향상시켰던 것으로 보인

26) Han Sang-Jin, “The Public Sphere and Democracy in Korea,” in Korean Politics: Striving for Democracy and Unification, ed.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Elizabeth, NJ: Hollym, 2002), 266-7.

27) I am indebted to Professor Kim Jin-ho for this insight.

28) Lee, The Making of Minjung, 207-.

29) Frank Hoffmann, “Images of Dissent: Transformations in Korean Minjung Art,” Harvard Asia Pacific Review 1, no. 2 (Summer 1997): 44-9.

30) Choi, The Gwangju Uprising, 285.

다.³¹⁾

민중미술의 기원은 프랑크 호프먼이 “최초의 민중적 이미지” 작업을 한 것으로 믿었던 일본 화가 토미야마 타에코(富山妙子)로 추적했다. 토미야마는 김지하의 친구였고, 그녀의 광주학살 이미지 “광주의 피에타”는 중요한 연대의 표현이었다. 서양미술에서 인물과 제목의 병치를 빌려온 그의 스타일은 케테 콜비츠와 독일 표현주의에 대한 그녀의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녀는 또한 다비드 시케로스를 찬양했고 이 “작은 그룹의 예술가들이 안국 민중미술가들의 첫 세대에게 정보를 줬다.”³²⁾ 호프먼의 견해는 독일에서도 반복됐다.³³⁾ 한국화가 홍성담과의 인터뷰는 오히려 반대의 증거를 제공한다. 홍성담은 검열 때문에 1985년 이전에 콜비츠의 작품은 어떤 것도 본 적이 없었고 자신의 이미지를 이미 생산한 몇 년 후에 볼 수 있었다고 웃으면서 설명했다. 그가 처음으로 콜비츠의 작품을 봤을 때 그는 즉각 기쁘게 그들의 위대한 유사성을 인식했다. 그의 목판화는 초기에 중국작가 루신에게 영감을 발견했다. 1980년 봄기 동안 홍성담은 탁상용 고무판으로 포스터와 판화를 만들었고 이것들이 아마도 최초의 민중판화일 것이었을 것이다. 후속 이메일 인터뷰에서 홍성담은 민중미술의 기원을 “우연적 자연발생”이라고 묘사했고 “우리에게는 모델이나 모범이 없었다.... 우리는 현실이 요청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렸다.... 민중미술은 실천으로부터 발전했다.”³⁴⁾

민중운동 참여로 활력을 되찾은 한국 화가들은 미술학계가 아주 애호하는 서구적 형태의 현학적 모방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웠다. 그들은 서예 같은 전통적인 한국적 형태를 적용했고 토착적 형태의 샤머니즘, 판소리, 가면극, 풍물, 북 등에 전복적 요소를 결합시켰고, 단지 중산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투쟁의 대항문화를 건설하는 데 기여했다. 연극패 광대는 전라도 농촌을 여행했고, 밤마다 마을사람들을 위해 연극을 공연했고 연극이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흥겨운 춤과 음악에 동참했다. 그들은 투쟁의 연극을 창조하기 위해 현대적 요소와 종합된 전통 민중적 드라마(마당극)를 이용한 연극 활동가들의 진정한 운동의 일부였다.³⁵⁾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 광주미술인협회는 한데 모여 1980년 11월 “2000년을 위한 파티”를 열었다. 시의적절하게 독재사망의 이후 시간과 공간을 불러낸 첫 전시회의 각 모든 작품은 군부에게 몰수당했다. 화랑을 구할 수 없자 그들은 “예술의 건강성”을 위해 강독으로 옮겨가서 5.18 희생자들의 고통과 고난을 덜어주려고 했다. 그들은 선언했다. “인간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예술가들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숙고해야 하고 시대의 모순을 야기하는 사회의

31) See Herbert Marcuse, *The Aesthetic Dimension: A Critique of Marxist Aesthetics* (Boston: Beacon Press, 1978).

32) Frank Hoffmann, “Images of Dissent: Transformations in Korean Minjung Art,” 44-9. Although he is mistaken with regards to the origin of minjung art, Hoffmann’s otherwise excellent work has much to offer.

33) Birgit Mersmann, “Minjung-Kunstaktivismus zwischen sozialistischem Realismus and demokratischem Aufbruch,” http://www.geocities.com/tack_pr/Minjung.html.

34) Hong Sung-dam, email, July 23, 2008. As we have seen many times, social movements produce an amazing energy that creates similar innovations in many different places simultaneously, and this dynamic was probably at work. That Japan is cited as the original source of Korean minjung art is, however, quite problematic given Japan’s history of colonialism and propensity to claim what is Korean for its own. To take another example from social movement history, even Korea’s 1919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s said to have been first organized in Tokyo’s YMCA. See the map in Nishi Masayuki, “March 1 and May 4, 1919 in Korea, China and Japan: Toward an International History of East Asian Independence Movements,” <http://www.japanfocus.org/products/topdf/2560>. Contrary evidence was discussed in Chapter 2, namely that Chondogyo leader Son Byeong-heui prepared the event for a decade. While many streams flow into every great river, Japanese propensity to claim their leadership of Koreans—even of Korea’s movement for independence from Japan—as a striking indication of a larger problem.

35) Kim Kwang-ok, “The Role of Maddangguk in Contemporary Korea’s Popular Culture Movement,” *Korea Journal* 37, no. 3 (Fall 1997): 5-1.

부조리에 확고하게 대면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예술가들은 이 시대의 양심에 기반해 인간 존엄을 향상시키는 데 우리 자신을 바칠 것이라고 선언한다.”³⁶⁾ 1980년 서울에서 민중미술은 현실과 발언 집단의 전시를 위한 최초의 화랑 공간을 마련했다. 정부는 즉각 전시공간을 폐쇄했다.

1981년 5월시 그룹은 최초의 잡지를 출판했고 거기에는 홍성담의 판화 같은 시각예술도 포함됐다. 한국의 가장 유명한 시인 중의 한명인 고은은 광주의 시각 예술가와 비슷한 감정을 표현했다. “한국에서 시인의 역할은 단지 감정에 대해서 쓰는 것만이 아니라, 역사 속의 운동에 대해서 쓰는 것이다. 시는 역사의 노래다.”³⁷⁾ 광주의 시인 문병란의 시집 <내 목소리는 새벽을 부른다>는 너무 유명해서 5쇄에 들어갔다.

1981년 11월 성성담은 야외전시를 조직하는 것을 도왔고, 이번에는 광주 교외 송정리에서 전시했다. 전시회 성명은 민중예술의 가치를 반영했다. “우리가 오늘날 해야 할 일은 민중의 삶의 본질을 검증하는 것이다. 예술가들은 스튜디오에 나와 참여해야 한다.”³⁸⁾ 야외전시를 진행한 홍성담과 광주미술인회는 연극패들과 협력했다. 검열당국의 광범한 그물망은 봉기에 대한 예술가들의 묘사가 실물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들은 법적으로 말을 통해 분명히 할 수 없는 것을 이미지로 표현했다. 봉기에 대한 언론보도나 역사기술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음악, 문학, 그림, 시와 연극이 광주의 진실을 표현하는 전복적 매체가 됐고, 운동의 활력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했다.³⁹⁾ 예술은 더 이상 화랑, 박물관과 부티크에 갇히지 않았고, 활기찬 존재로 공적 공간으로 뚫고 나왔다. 불법연극, 금지된 소설, 전복적 시, 검열당한 노래는 반독재 그림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술의 보통 애호가들을 확대함과 동시에 민중을 현실로서 응집하는 데 기여했다. 시위를 조직하는 활동가들은 손쉬운 탄압의 대상이 됐지만, 문화 활동가들은 잡아들이기 힘들었다. 연극패는 예고없이 공적 장소에서 연극을 한 다음 군중 속으로 사라졌고, 경찰이 돌아다니지 않을 때 포스터가 붙여졌고, 집에서 영화를 상영했고 시각 예술가들은 은밀하게 작품을 전시했고 시집은 서점 카운터 아래서 몰래 판매하건나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 돌려 읽었다. 목판은 수백부의 사본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매체가 됐고, 검열관의 손길을 넘어 집에서 만들어 비공식적으로 배포됐다.

때때로 예술작품은 이웃사람들끼리 같이 볼 수 있었고 이는 과거 수세기 동안 정보를 퍼트리기 위해 집집마다 음식을 나눠주는 척하면서 돌렸던 사발통문과도 비슷했다. 표현적 수단인 시각예술은 광주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에너지를 “미국의 문화적 식민주의”에 맞출 수 있었다. 이 문제는 사진보다 미술로 더 잘 묘사할 수 있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미국이 전두환을 사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홍성담의 목판화는 그의 의혹을 확인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할 노골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었다. 1985년 예술가들은 시각미디어 센터와 함께 민중문화연구센터를 조직했고, 수십명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전복적 주제를 생산하는 데 참여하게 됐다. 매체를 초월해 협력함으로써 예술가들은 학술적 전문화를 극복했다. 그들이 결합시킨 형태들의 효과는 유쾌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에게서 배웠고 한국적 정체성을 재발명했다. 집회의 깃발과 플래카드는 불교와 사머니

36) Lee Tae-ho, “May 18 Kwangju Democratization and the Art Movement: 20 Years of the Formation of the Kwangju Civil Uprising,” in 5-8관련 논문과 작품 영역 및 저술 사업: 2001. 5-8 20주년 기념 학술연구사업 연구소위 (Gwangju: 전남대학교 5-8 연구소: 2001), 134.

37) Nicholas D. Kristof, “Voice of Dissent in South Korea Speaks in Verse,” New York Times, July 31, 1987, A2.

38) Lee Tae-ho, “May 18th Kwangju Democratization and the Art Movement”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useum), 3.

39) Ibid., 131.

즘의 표현을 채택함으로써 더욱 강렬하고 교훈적인 것으로 됐다. 샤머니즘적 의식의 요소들이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힘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 이해됐고, 풍물과 탈춤은 많은 시위의 중심과 위함을 **puncture** 했다. 예술가들은 한국적 삶의 본질적 특징, 특히 한을 표현하는 절정의 토착적 형태를 통해 운동행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예술가들의 의식 표현은 시위를 집단적 연대와 신명을 통한 한의 분출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⁴⁰⁾ 경찰의 공격과 심한 탄압 속에서 에로스와 혁명은 즐겁게 뒤섞였다. 정적의 순간에 춤꾼들은 정해진 무대도 없이 시위에 참여하며, 그들과 참여자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도 없고 자연발생적으로 창출된 집단적 공간에서 위계구조를 무너뜨리는 데 기여했다.

Puppet Show by Hong Sung-dam. Woodblock print 270x305 mm. 1986

민중예술의 우아함은 독재에게 낯을 잃게 했다. 1985년 젊은 세대의 힘 전시회는 몰수됐고 일부 화가들이 구속됐다.⁴¹⁾ 한국의 가장 유명한 시인 김지하는 되풀이해서 구속됐고 비록 나중에 풀려났지만 사형선고까지 받았다. 경찰이 보는 앞에서 민중미술협의회(민미협)와 서울영상집단은 예술을 거리로 가져와 정치운동과 결합된 생동적인 비디오 장면을 연출하는데 기여했다. 1985년 11월 22일 “문화혁명을 공고화하기 위해 예술가들과 활동가들을 한데 모아” 민중미술협의회가 설립됐다.

한국의 학생운동

전세계 많은 곳에서 1980년대 학생운동은 신화의 소재가 됐다. 빈약하게 이해됐지만 광범하게 숭배받았던 대학생 활동가들은 민주개혁을 쟁취하는 데 민족을 이끌었다. 다른 누구보다 그들은 새로운 기층담론들의 담지자로서 노동현장과 농촌에 메시지를 전달했다. 다른 많은 나라처럼 학생들은 독재를 타도하는 데 필요한 전선의 병사들을 제공했다. 광주봉기가 주체세력을 혁명화한 것과 동시에 한국의 물질적 존재조건은 변화하고 있었다. 남한이 산업화하면서, 대학은 경제에 중심적이었고, 경제발전에 필요한 오프라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을 제공했다. 전업직을 가진 사람들보다 비판적으로 사상을 논할 기회와 시간을 더 많이 갖고서 캠퍼스에 집중돼 있던 학생들은 이상적인 저항의 주체였다. 한국에서 학자에 대한 유교적 존경 덕분에 그들은 나라를 이끌 자부심과 의무감을 갖고 있었다. 15세기 이래 한국이 신유교주의 체제로 이행을 경과하자 학생들은 한국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당시 거의 모든 학생들은 엘리트 귀족의 자제였고, 그들은 새로운 질서의 최첨단으로 기여했고, 심지어 불교에 대한 관용에 대해 세종에게 감히 항의하기도 했다. 1519년 그들은 왕궁정문을 뚫고 왕의 처소 문앞에 가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레고리 헨더슨이 목격했듯이, “아마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한국처럼 학생시위, 추모, 국가정치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 전통이 더 오래되고 지속적인 곳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⁴²⁾

20세기 후반 세가지 요소가 학생인구의 급증에 기여했다. 남한의 전후 베이비붐은 엄청났고, 문자해득률은 98퍼센트였고,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의 1/3이 대학에 갔다. 1965년에서 1985년까지 한국의 젊은이들은 더욱더 공식교육의 기회를 갖게 됐다. 1965년 중등학교에 출석하는 젊은이들이 겨우 35퍼센트였지만, 1985년에는 90퍼센트에 이르렀고,⁴³⁾ 그들은 대도시, 특히

40) See Koo, *Korean Workers*, 143-4.

41) Queen's Museum of Art, *Global Conceptualism: Points of Origin, 1950s-980s* (2000), 120.

42)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201.

43) Dong Won-mo,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What Role Does the Middle Class Play?” in *Korea Under Roh Tae-Woo: Democratization, Northern Policy, and Inter-Korean Relations*, ed. James Cotton (Canberra: Allen and Unwin, 1993), 75.

서울에 집중돼 있었다. 1945년부터 대학생 수자는 표 8.1에 예시된 것처럼 특히 6월봉기에 이르는 시기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경제는 1962년부터 1987년까지 연평균 8.4퍼센트 성장했고, 1인당 소득은 1960년 86달러에서 1987년 2,800달러로 급증했다⁴⁴⁾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변혁은 기회 뿐만 아니라 변형 **dislocations**과 조정의 시기를 의미했다. 1987년 한국의 실업률은 낮았지만, 한 추정치는 1987년 직업을 찾지 못한 대학 졸업생의 숫자를 40퍼센트 이상으로 봤다.⁴⁵⁾

같은 시기에 한국은 압도적 농촌사회에서 도시화된 사회로 이행했고 1987년 5명당 1명 이하의 시민이 농촌에 거주했다.

광주 이후 군사정부는 전국가들, 특히 캠퍼스를 엄격하게 통제했다. 정부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시위를 조직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누구나 색출해서 체포하려고 요원들이 대학으로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1978년 연세대학교에서만 위장 요원들이 약 300명 있었고, 1982년 그 숫자는 약 800명으로 늘었고 1만명의 학생기구에 침투해 보고했다.⁴⁶⁾ 비록 1983년 학생동원은 규모가 작아서 거의 1천명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지하조직들은 광주 이후 운동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그 열매를 거뒀다. 1983년 3월 22일 성균관대학에서 유명한 시위가 벌어졌고, 경찰과의 전투를 위해 학생들은 공사장에서 가져온 각목과 돌을 사용했다. 그들의 유인물은 광주를 투쟁의 중심으로 설정했다. 그들은 해방광주의 집회에서 처음으로 정리된 요구인 전두환 재판회부 요구를 되풀이했다. “1980년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약 2,000명의 광주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했다. 그들의 목숨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됐다. 누가 그들의 목숨에 대해 보상할 것인가? 전두환의 군인들에게 무참하게 구타당하고 강간당한 우리 형제자매들, 누가 그들을 치유할 것인가? 학생회! 우리가 역사의 창조자임을 선포한다. 우리가 생존할 유일한 길은 전두환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뿐이다. 모두 전두환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 동참하자!”⁴⁷⁾

[표 8.1] 1945-1993년 남한의 대학생 수자

연도	수자
1945	7,800
1952	34,000
1971	195,000
1986	1,242,000
1993	2,100,000

Sources: Christopher J. Sigur, *Democracy in Korea: The Roh Tae Woo Years* (New York: Carnegie Council on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1992), 62; Mi Park, *Democracy and Social Change: A History of South Korean Student Movements, 1980-000* (Bern: Peter Lang, 2008), 65.

대략 같은 시기에 여성주의는 운동을 형성해 자기이해를 심화시켰다. 이미 1970년대 기독교 여성들은 한국남성의 섹스관광에 대해 항의했고(비록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인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여성학 프로그램이 이화여대에 도입됐다. 1980년대 진보적 여성 신학자들은 민중 신학 내에서 한데 모였고, 1983년 처음으로 긴급전화 및 성폭력대처센터가 서울에서 등장했

44) See Hang Yul Rhee, “The Economic Problems of the Korean Political Economy” in *Political Change in South Korea* (New York: The Korean PWPA Inc., 1988).

45) Robert P. Kearney, *The Warrior Worker: The History and Challenge of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New York: Holt, 1991), 19.

46) Lindstrom, *Accumulation, Regulation, and Political Struggles*, 85.

47) Quoted in Dong,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n Politics,” 240.

다. 페미니즘 그룹인 평등과 우정이 결성된 것과 같은 시기에 기독교여성 풀뿌리 조직이 가난하고 주변화된 여성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이 그룹들의 다양한 이데올로기는 한국사회의 전문화와 복잡성을 반영했다. 독일처럼, 강종숙과 일제 렌츠가 지적한 대로, 여성들의 새로운 형태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체화하기 시작했다.⁴⁸⁾ 이 과정에서 그들은 다양한 운동단체들이 곧 따르게 될 모범을 세웠다. 1985년 여성은 대학생의 거의 27퍼센트였다(예술대와 사범대의 다수).⁴⁹⁾ 1984년 전국여성학협회가 결성됐고 두 개의 다른 진보적 여성조직이 등장하면서 여성들이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도왔다. 대안문화(명칭은 가부장적 일상문화이— 변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했다)와 민청련 여성국(주변화된 여성의 투쟁과 민주화운동에 주로 초점을 맞춘)이 그들이다.⁵⁰⁾

학생들이 계속 동원하면서 광주에 진실은 폭로되고 있었고 노동자들은 점차 반항적으로 됐다. 1984년 불교도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할 전국적 조직인 불교민중운동연합을 창출했다. 1985년 전두환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선호하면서 악화된 소고기값 파동에 대응하기 위해 농민운동이 등장했다. 전두환은 3백종의 농축산물 수입을 허가했다. 한국은 그런 상품 덕분에 미국의 네 번째 교역상대가 됐고, 한국의 식량자급지수는 47.7퍼센트로 떨어졌다. 이에 대응해 농민들은 조직화했고 1986년 말까지 50개 군단위 신문을 발행했다. 완강한 저항에 직면한 전두환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짓을 했다. 그는 탄압을 훨씬 더 강화했다. 1984년 전두환이 캠퍼스에서 군대[경찰]의 철수를 명령하자마자 활동가들은 학생회를 부활시켰고 시위가 폭발했다. “지금 당장 주요한 것은 광주다”⁵¹⁾ 10월말 대학이 선거로 뽑힌 학생회장을 제적하자 서울대학생의 80퍼센트는 중간고사를 거부했다. 6천명 이상의 전투경찰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캠퍼스를 점령했다. 11월 20일 활동가들은 고려대에서 전국학생회연합(전학련)을 결성했다. 이 단체의 첫 행동중의 하나는 전두환의 민주정의당(DJP) 중앙당사 농성이었다. 경찰이 들어와 264명의 학생을 체포했다.⁵²⁾ 3주 전인 11월 3일 42개 대학 대표자들이 민주화운동 학생연합을 결성했었다. 이 두 단체는 유기적 역할분담을 발전시켜 민학련이 시위를 담당했고 전학련은 연합 네트워킹을 담당했다.

시위 수자가 증가하자(표 8.2를 보라) 시위는 더욱 정교화했다. 광주에서 자행된 만행과 전두환의 캠퍼스 탄압기구 때문에 학생들은 더 잘 조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규모 경찰병력과 대처할 하나의 커다란 시위로 모이기보다는 활동가들은 4-7명의 소그룹을 형성해 함께 시위에 나갔고 전투경찰의 집중적 힘을 극복하는 데 적합한 다양한 치고빠지기 전술(hit and run tactics)에 참여했다. “포스트”(시위팀과 유인물팀)의 비공식적 통신 네트워크가 구성됐고, 포스트들의 협의회가 시위를 조율했다. 행동을 조화시키는 데 나타난 어려움 때문에 “라인”이 등장했고, 이 라인은 내부적으로 정치투쟁, “선전”, 노동운동 지원 및 학생회 등 네 개 그룹으로 구성됐고 각각은 캠퍼스 내에 총괄본부를 뒀다. 각자 활동하는 라인은 필요한 만큼 많은 세포를 가질 수 있었고, 학생회는 부서별로 조직된 그룹을 가졌다.⁵³⁾

1980년대 초반 학생단체의 전국적 연합을 결성하려는 여러 시도가 많이 있었지만, 모든 부

48) Kang and Lenz, Wenn die Hennen krahen, 81. See chap. 2 and 3 of my book *The Subversion of Politics: European Autonomous Movements and the Decolonization of Everyday Life* (Oakland: AK Press, 2006) for discussion of how Italian and German feminists did much the same thing in their situations.

49) Moon, *Militarized Modernity*, 63.

50) Cho Joo-hyun, “The Politics of Gender Identity,” in *Women’s Experiences and Feminist Practices in South Korea*, eds. Chang Pilwha and Kim Eun-shil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2005), 238.

51) Interview with Im Jong-sok, Seoul, June 4, 2001.

52) Kang Man-gil, *A History of Contemporary Korea*, 212.

53) Chulhee Chung, “Social Movement Organization and the June Uprising,” in *Korean Politics: Striving for Democracy and Unification*, ed.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Elizabeth, NJ: Hollym, 2002), 136-0.

문을 포괄하는 데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학생들은 명백하게 광주에 의해 활성화됐다. 민족의 양심으로서 학생들은 조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한국 학생들은 서울의 봄 시위를 연구했고 “1980년 패배의 주된 요인 중 하나는 그 당시 운동이 민중에 기반하지 않았고” “기회주의적인 보수정치집단의 본질을 간과했다”(YS와 DJ같은 정치인을 의미했다)는 것이라고 결론내렸다.⁵⁴⁾ 1985년 4월 17일 고려대학공서 결성된 전국학생회연합은 “민중에 대한 흔들림없는 믿음”을 표현했다(그들은 민중을 “노동, 농민과 도시빈민을 핵으로 하는 계급연합”으로 정의했다).⁵⁵⁾ 금지된 맑스주의의 급진적 해석에 기반한 이 단체는 미국에 근본적으로 반대했고, 그 이휴는 미국에 전두환 정권에 1차적으로 책임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음 달 광주봉기 5주년인 5월 15일 그들은 36개 대학 9천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열띤 시위를 후원했고, 그 다음 날 39개 대학의 2만명 이상, 마지막으로 5월 17일 80개 대학 약 38,000천명이 시위에 참여했다.⁵⁶⁾

[표 8.2] 1980년대 학생시위

연도	시위 수자	참가자 수자
1980	70	258,322
1981	39	21,950
1982	70	70,846
1983	143	36,585
1984	1,499	144,126
1985	2,138	469,000
1986	1,270	288,102
1987	1,821	930,644
1988	1,603	605,856
1989	1,772	644,554

Source: Chulhee Chung, “Social Movement Organization and the June Uprising,” in *Korean Politics: Striving for Democracy and Unification*, ed.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Elizabeth, NJ: Hollym, 2002), 246.

5월 23일 전학련은 73명의 학생들을 조직해 미국문화원을 점거했고 전두환에 대한 미국의지지 철회와 광주학살 공모에 대한 미국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투쟁은 언론의 커다란 주목을 끌었고 다음 몇 달 동안 미국대사관, 미국 상공회의도, 민정당 연수원, 수원과 광주의 노동부 사무소, 전경련 등과 같은 곳에 대한 최소한 5회의 점거시도로 이어졌다. 그 이후 미국문화원 점거사건 피고인 재판은 전국을 너무나 정치화시켜 법무부 장관은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해임당했다. 재판 이후 정부는 핵심적 학생지도자 63명을 체포했고 사실상 이 단체를 금지시켰지만, 새로운 단체가 신속하게 세워졌다. 1985년 첫 학기 학새시위 활성화의 성공은 표 8.3에 반영돼 있다.

[표 8.3] 1984-86년 학생집회

날짜	집회 횟수
1984년 1학기	949

54) Quoted in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n Politics: Patterns of Radicalization in the 1980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0 no. 2 (Winter 1987): 249.

55) *Ibid.*, 244.

56) Cho Hyun-Yun, “The Struggle for Inquiring into the Truth of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in May 18th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Gwangju City, *History of the 5.18 Democratic Uprising*, vol. 2 (Gwangju: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2008), 751.

1984년 2학기	1,136
1985년 1학기	1,883
1985년 2학기	792
1986년 1학기 첫달	71

Total, March 1984–April 1986 4,831

Source: Manwoo Lee, “Anti-Americanism and South Korea’s Changing Perception of America,” in *Alliance Under Tension: The Evolution of South Korean-S. Relations*, eds. Manwoo Lee, R.D. McLaurin, and Chung-in Moon (Boulder: Westview Press, 1988), 16. First semester begins in March, the second in September.

끊임없이 변하는 동맹과 연합, 지도자 등 활동가 여건의 탄력성은 경찰이 주요 활동가들을 식별하게 어렵게 한 반면 비슷하 학생들은 서로 연결하기 쉽도록 했다. 비록 단명했지만 이 단체들은 새로운 단체의 결성을 위한 기반을 준비했다. 수천명의 활동가들은 운동의 지속적인 재조직화에서 귀중한 조직적 경험을 얻었고 각자의 발전을 키웠다. 그들은 조직적 힘을 키우면서 동시에 평생의 책임을 지도록 서로 격려했다. 1970년대 운동 출신 활동가들(학생, 노동자, 해직교수, 여성주의자, 해직언론인 등)의 비의회적 반대파(재야)는 1980년대 훨씬 더 활성화되고 있던 주체들의 다수를 유기적으로 단결시켰다. 1980년대 급진적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을 물들이는 것에 대한 재야 활동가들의 주저를 깨뜨린 최초의 조직 중의 하나가 1983년 9월 30일 결성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YADM)이었다. 같은 날짜의 민청련 창립선언문은 네가지 핵심을 강조했다.

- 1) 민족통일을 위한 진정으로 민주적 정치체제를 쟁취한다
- 2) 민중의 평등하고 인간적인 생활을 위한 민주자립경제를 이룩하고, 부정부패 특권경제를 청산한다
- 3) 역동적인 건강한 민중의 삶을 위해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문화와 교육체계를 쟁취한다
- 4) 국제평화와 민족생존을 위해 냉전과 핵무기를 폐지한다.⁵⁷⁾

다양한 조직들을 통합한 민청련은 전 학생운동가 김근태를 초대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들은 광주학살의 피해자에 대한 최초의 기념제를 서울에서 열었고, 학생들을 노동자나 기독교인들과 연결시키기 시작했다. 개신교 단체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민청련은 카톨릭 노동청년회(JOC)와 긴밀하게 협력했다. 민청련의 유급 상근활동가 중에는 다른 운동부문과의 연대를 책임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1985년 3월 23일 미국문화원 접거를 한데 모으는 기여한 행동분야를 책임지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체의 동맹과 연합 외에도 민청련과 급진적 학생들은 민중문화연합과 민중불교협의회 같이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한 통일을 옹호하는 연대체의 보다 광범한 운동의 일부였다. 1984년 10월 23개 단체들이 광범한 연대체인 국민회의를 결성했고, 회원단체는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노동자복지협의회, 한국기독교노동자연맹 등이었다. 정부탄압의 족쇄를 돌파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속적으로 해체하고 재건설 하던 학생동맹들처럼, 노동자, 농민, 민주적 운동 사이에서 광범한 토대를 재조직하려는 비슷한 시도가 이뤄졌다. 아주 많은 상이한 그룹들이 전두환의 지배에 맞서자 시민들은 조정 그룹을 필요로 했다. 한국민중의 강력한 시민사회가 그들의 노력을 용이하게 했던 자우너이었다. 통일된 공동체 형태와 대규모 연합을 형성할 민중의 역량은 독재를 타도하려는 그들의 노력에서 커다란 이점이었다.

1985년 3월 29일 민주주의통일 민중운동연합(민통련, UMMDR)은 민청련의 주도로 형성됐고

57) Thanks to Lee Jae-won for translation and research.

주요 활동가들(학생을 포함한)의 전국적 명부를 갖추진 못했지만 가장 포괄적인 조직들 중의 하나가 됐다. 민통련은 곧 전체운동의 지도세력이 됐고, 25개 지역지부를 결성했고 전국적 기관지 <민중의 소리>를 발행했다. 민통련은 조국통일을 향한 단계로서 활동가들에게 정치혁명만이 아니라 문화개혁을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1986년 11월 11일 불법으로 선언되기 전에(이 때 사무실이 폐쇄되고 지도자들은 지하로 들어갔다) 민통련은 부문을 가로 질러 운동을 조율했고 통일을 운동의제의 중심에 뒀다.

민청련 결성 직후 활동가들은 내부적 전략논쟁에 참여했다. 일부는 노동자를 핵심주체로 조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가두시위와 정치행동에 가능한 많은 사람을 동원하길 원했다.⁵⁸⁾ 곧 다양한 관점이 모든 곳의 운동권 서클에서 등장했다. 그것들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분열과 논쟁의 원천이다.

운동 내부의 경향: PD와 NL

운동이 급속도로 성장하자, 1985년경 활동가들의 관점은 “민족민주혁명”, NL과 “시민민주주의”, CD 주위로 결집됐고, CD는 “민중민주주의” PD가 등장하자 1987년경 거의 사라졌다. 이 가운데 최대 경향인 NL은 김일성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로부터 커다란 영감을 끌어냈다. 그들은 주요 모순이 미국제국주의와 한국민족 간의 모순이라고 생각한 반면, PD는 주요 모순이 자본 대 민중의 모순이라고 인식했다. NL의 초점이 미국제국주의를 향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학교 2학년 남학생의 의무군사훈련에 대한 투쟁을 이끌었고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같은 투쟁을 조직했다. 유명한 NL 팸플릿인 1985년 김영환의 “강철서신”은 그 그룹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민족의 파쇼지배의 주체는 미제국주의다. 남한의 보수적 관료, 독점자본가와 군부는 미국의 종일 뿐이다.”⁵⁹⁾

몇 달뒤 NL의 군사훈련 반대 캠페인이 시작됐다. 1986년 4월 28일 서울대학생 이재호와 김세진이 자결했다. 그들은 분신하면서 “해무기 반대!” “양키고흠!”을 외쳤다.⁶⁰⁾ 그들의 희생은 운동의 투쟁에서 더 커다란 강도를 자극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투쟁은 PD, NL, CD 및 노동운동과 민통련의 통합세력에 의해 조직됐다.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1만명 이상이 경찰과 전투적으로 싸웠다. 시위대는 “양키를 몰아내자!”라고 쓰인 sign을 들고 다녔다. 그들은 전두환의 민정당 사무소와 야당인 신민주당의 차량도 불태웠다. 독재와 자유주의 정당을 공격함으로써 거리의 사람들은 어떻게 “야당” 정치인들이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요구를 팔아먹었는지 예상했다. 시위는 “대규모 전투경찰 병력이 상황을 통제하기 전까지 광주 스타일의 민중봉기가 될” 지경이었다.⁶¹⁾ 수많은 체포에도 불구하고 인천투쟁은 민중의 단결된 세력의 잠재적 힘을 보여줬다.⁶²⁾ 전투성과 노동자-학생의 단결로 인천투쟁은 한국과 미국 엘리트들을 놀라게 했고, 상층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거부하려는 전두환이 완거한 거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더욱 부채질했다. 타협을 거부한 전두환은 탄압을 자행했다. NL은 10월 서울의 건국대학교에서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자, 전두환은 캠퍼스를 포위하라는 명령과 함께 7천명의 전투경찰을 파견했다. 물, 난방, 전기가 끊겼다.⁶³⁾ 학생들은 음식과 물 없이 사

58) Interview with Kim Gun-tae, Seoul, August 2, 2008.

59) Lee, *The Making of Minjung*, 124.

60) *Ibid.*, 125.

61)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n Politics: Patterns of Radicalization in the 1980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 40, no. 2 (Winter 1987): 249.

62) Chae-Jin Lee, *A Troubled Peace: U.S. Policy and the Two Korea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6), 122.

출 밤낮을 간혀 있었고, 마침내 경찰은 10월 28일 1,525명을 체포했다. 전국조직을 조직하는 모임에 참석한 “범죄”로 체포된 사람들 중에서는 국회의원도 있었다.

인천투쟁과 건국대 체포 이후에 반정부 세력의 재편됐다. 사무실을 폐쇄당한 민통련 지도자들은 지하로 들어갔다. 더 나은 체제를 창출할 수단으로서 민중의 헌법을 옹호했던 시민민주주의(CD)는 곧 사라졌다. 많은 상이한 입장이 제기되는 동안, 많은 활동가들이 노동자-학생 동맹을 건설하고 노동자들 사이에서 조직을 확장하자는 PD의 호소 주위로 결집됐다. 활동가들은 “노동자계급 투쟁을 통한 민중권력 건설”이란 슬로건에 열광했다.⁶⁴⁾ 일부에서 180년대 “위장 노동자”(학출)로서 공장에서 일하러간 학생들을 1만명으로 추산했지만, 보다 정확한 수자는 3천명인 것 같다.⁶⁵⁾ 전통적 레닌주의 전위와는 달리, PD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전위가 되려고 노력했다.⁶⁶⁾

[표 8.4] 남한 운동의 경향

경향	주요모순	남한의 성격	주요목표	슬로건
NL 민족해방(자민투)	제국주의	반자본주의적 미국의 신식민지	미국축출 통일	미국은 한국에서 나가라! 민족,민중,투쟁
PD 민중민주주의 계급(민민투)		국가독점 자본주의	민중 민주주의	제국주의,매판자본주의 파시즘 반대

활동가들이 함께 일하는 동안 NL과 PD 사이에서 깃발-반깃발 논쟁이나 반제반쇼투쟁선언과 같이 이데올로기 투쟁이 지속적으로 등장했다.⁶⁷⁾ 혁명이론에 대한 운동의 강렬한 갈구의 한 지표는 1987년까지 최소한 24개의 상이한 급진적 출판사의 결성이다. 내부적 차이와 심한 탄압은 대규모 연합이 한데 묶는 데서 어려움에 직면했음을 의미했지만, 그들은 1987년 6월 봉기의 학생지도부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두 경향이 모두 지향에서 레닌주의적이었지만, 그들은 북한이 자유국가인지 여부의 문제에 차이가 있었다. NL 활동가들에게, 남한은 미국의 반자본주의 신식민지였고 통일을 통해서만 해방될 수 있었다. 이 입장의 전략적 함의는 부르주아적 민주주의 세력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과의 동맹 건설을 의미했다. 다른 한편 PD는 남한의 혁명적 변혁의 필요성을 이해했고, 군부독재와 재벌양자의 타도를 옹호했다(미국을 추방할 뿐만 아니라). PD에게 북한은 노동자의 천국이 아니었고 결정적으로 통일한국을 구조화할 모델이 아니었다.

광주 이후에 활동가들의 토론은 과거에 주변화된 분석의 수준과 관련된 강렬한 의견교환으로 활기를 띠었다. 매판 부르주아가 주요한 문제인가 아니면 미국제국주의가 주적인가? NL의 분석에 따르면 광주봉기는 미국 제국주의와 한국 민중간의 모순을 극명하게 대표했다. 제국주의는 나라를 분열시켰고, 합창사령부가 미군장군 위킵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학살에 대해 일차적 책임이 있었다. 신식민주의는 한국을 괴롭히는 주요한 문제였고 국제자본과 미군을 제거하는 것이 해결책이었다. PD의 관점은 제국주의와 투쟁하는 긴급한 과제를 저적하면서도 재벌의 이익에 봉사하는 파쇼적 군부독재와 한국민중의 민주주의적 열망 간의 모순으로 광주를 이해했다. 이런 분석에서 운동의 첫 번째 과제는 남한을 해방시키고 노동자들 사이

63) Tun-jen Chang and Eun Mee Kim, “Making Democracy: Generalizing the South Korean Case,” in *The Politics of Democratization: Generalizing East Asian Experiences*, ed. Edward Friedman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4), 134.

64) Dong Won-mo,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What Role Does the Middle Class Play?” in *Korea Under Roh Tae-Woo: Democratization, Northern Policy, and Inter-Korean Relations*, ed. James Cotton (Canberra: Allen and Unwin, 1993), 7.

65) Kim Young-soo, *한국 노동자 계급정치운동* (Seoul: 현장에서 미래를: 1999), 88.

66) See the discussion in Lee, *The Making of Minjung*, 244.

67) *Ibid.*, 163.

에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란 결론이 나왔다. 민중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자유로운 한국의 통일로 나아가는 걸음이었다.

이런 운동경향은 정치적 신념의 추상적 정식화는 아니었고, 정치적 반향을 가졌다. 1986년 각 경향은 자신의 네트워크와 투쟁을 조직했지만 6월봉기 동안 아름답게 한데 뭉쳤다. NL은 대부분의 캠퍼스 선거에서 이겼다. 아무도 정확한 수자는 모르지만, 대략 1만여명의 활동가들이 PD 그룹들에 가입했었던 반면 아마도 그 두배의 수자가 이러저런 NL 그룹에 속해 있었다. 레닌주의 활동가에서 학자들까지 PD가 훨씬 더 규율이 강한 NL보다 더 다양했다. NL 내에는 세 개의 하위그룹들이 결국 등장했고 각자는 주체사상(김일성의 자주 이데올로기)에 대한 나름을 해석을 가졌다. 한 그룹은 김일성을 교조주의적으로 숭배했고, 다른 그룹은 “사람사랑”이라고 불렀고 마지막 그룹은 주체에 대한 독자적 해석을 가졌지만 혁명의 기지가 북한이라고 믿었다.

NL 그룹들은 일반적으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반미투쟁의 지도부로 지지했기 때문에 남한에서 새로운 당을 건설하는 대신, 민족통일을 추구하려고 했다. 대조적으로 PD 활동가들은 나라 전체의 해방과 민주화를 위해 남한의 독자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구성원들이 전국적(국제적)으로 조정된 노선을 따르는 엄격하게 위계적인 지향을 가진 NL은 PD보다 더 커다란 조직적 힘을 가졌고,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경우에, 학생조직과 노동조합, 정당까지 계속해서 PD에 대해 우위를 지켰다. 온 나라의 지지를 받은 학생들은 압도적으로 정권의 가장 지치지 않는 반대자가 됐고 정치범이 됐다. 1978년 학생들은 정치범의 1/3을 약간 넘다가 표 8.5에 보듯이 1986년에는 80퍼센트 이상이 됐다.

경찰의 체포통계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아래 수치는 죄수의 수자를 줄인 것처럼 보인다. 8월 10일과 10월 4일 중앙일보는 신한민주당(NKDP)이 1986년 9월 30일 당시 1,229명의 정치범이 수감돼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표 8.5] 1978-1986년 남한 정치범의 직업별 비율

직업	1978	1982	1986
대학생	35.2	73.4	83.0
노동자,농민	9.8	14.0	13.9
기타	55.0	12.6	3.1
교회지도자	44.5	3.1	
작가, 언론인	4.3	0	
정치인	3.6	0.4	
교수	2.6	3.6	
무직	0	5.5	
합계	100.0	100.0	100.0
사건 총수자	778	417	978

Sources: World Council of Churches, ROK Ministry of Legal Affairs, as reported in Wonmo Dong,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n Politics: Patterns of Radicalization in the 1980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0, no. 2 (Winter 1987): 239.

탄압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어려웠겠지만,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86년 봄학기 동안 최소한 813명의 학생들이 체포됐고, 이는 전해 첫 학기보다 네 배나 많은 수자였다. 더욱 불은한 **disturbing** 것은 정권의 지속적 완강함에 좌절한 학생 활동가 7명이 이 시기 동안 자살했다는 점이다. 전두환은 별로 신경쓰지 않은 채, 2월 4일, 2월 14일, 8월 4일과

8월 11일 모든 주요대학에 대해 야간 기습작전을 대대적으로 감행했다.⁶⁸⁾ 1986년 내내 학생 운동은 계속 강렬했고, 반정부 시위에서 체포된 3,400명 가운데 2,900명이 학생이었고 1985년 체포된 901명보다 세 배 이상이었다. 1986년에 중요한 것은 250명의 공장 노동자들이 체포된 사람 중에 속했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젊은 남자들이 군사훈련을 받았지만, 놀랍게도 소규모 게릴라 그룹의 무장투쟁을 고려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나의 예외는 1970년대 민족해방전선이었는데, 결성 직후 조직원 대부분이 체포됐고 그중에는 시인-활동가 김남주도 있었다. 몇 명은 서대문 교도소에서 처형당했고, 1975년 존재하지 않는 인민혁명당의 당원이라고 기소된 8명이 국가에 의해 살해된 같은 장소였다.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을 찾았다. 그들은 화재경보기를 울려 학생들이 교실에서 나오게 한 다음 그들에게 유인물을 뿌렸고,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탈출을 이용했고, 극장에 가서 팜플렛을 뿌렸으며, 플래카드를 펼치고 유인물을 나눠준 다음 경찰이 체포하려 도착하기 전에 사라지는 5분시위 훈련을 했다.

노동운동의 건설

수백명의 학생들이 감옥에서 신음하는 동안, 더 많은 수천명은 은밀하게 전국의 공장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공장의 상태는 지독했다. 위험하고 더러웠고 주6일 12시간 근무였다. 고용주와 경찰은 정치적 조직가들을 숙아내기 위해 구직자들을 신문했지만, 모든 혐의자들이 거부당해도 다른 활동가들이 나섰다. 한 공장에서 취직을 못하면 옆 공장으로 가서 구직을 시도했다. 많은 노동자들은 신입사원을 알아보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비록 처음에는 거리를 뒀지만, 사람들이 그들의 진실성과 책임성을 존경하면서 노동자들 사이에서 조직화는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일부는 부산, 마산, 울산의 중공업에서 취직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활동가들의 직업은 서울-인천 지역의 경공업에서 구했다.

광주봉기의 프롤레타리아적 성격은 심오한 영향을 미쳤다. 최정운이 이해한 바대로, “1980년대의 이른바 ‘노학연대’는 광주봉기와 그 이후의 경험에서 태어났다. 오로지 광주봉기 이후에야 지식인들은 물리적 행동의 중요성을 이해한 반면,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언어, 조직과 사회적 분석을 배웠다.”⁶⁹⁾ 이 학출 청년노동자들은 종교에 기반을 둔 도시산업선교회(UIM)와는 다른 더 급진적 경향이였다. 중앙아메리카의 해방신학과 마틴 루터 킹 2세에게 영감을 받은 산선은 공장에 조직가들을 파견했다. 그들은 이 수자가 20명 이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130명으로 봤다.

1980년대 중반 남한 몇십년 전과는 아주 달랐다. 1966년에서 1985년까지 비농업 임금노동자의 수자는 210만명에서 770만명으로 세배 이상 늘었다. 농업은 1970년 전체 고용의 절반에서 1987년 겨우 20퍼센트를 차지했다. 함몰의 재벌이 GNP의 45퍼센트나 통제했고, 그들은 노동조합을 배제했고, 이는 제한조치가 풀리자 한국에 돈을 쏟아부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큰 장점이었다. 농촌이 비어가면서 사람들은 도시 빈민촌으로 이동했고, 비록 많은 도시 노동계급이 거의 수지를 맞출 수 없었음에도 고향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직업을 구하면 운이 좋다고 느꼈다. 경제학자 송병락은 전형적 가구의 생계예산을 고려하여 기초빈곤수준을 계산했다. 그는 가구의 60퍼센트가 1980년 이 기준선 이하였고, 1985년에는 45.5퍼센트였다는 것을 발견했다.⁷⁰⁾ 다른 그룹들은 긴박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수치를 훨씬 더 높게 봤다. 노동자들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일해야만 했다. 1986년 주간 노동시간은 54.7시간

68) Dong,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n Politics,” 253.

69) Choi, *The Gwangju Uprising*, 283.

70) Byung-Nak Song, *The Rise of the Korean Economy*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179.

이었다(스리랑카 47.3시간, 일본 46.0시간, 홍콩 54.2시간, 미국 40.7시간에 비해). 노동자들은 또 저임금에 시달렸다. 그들은 제조업에서 시간당 평균 1.69달러를 벌었다(미국 13.46달러, 일본 11.34달러, 타이완 2.23달러, 홍콩 2.11달러에 비해)⁷¹⁾ 그런 빈약에 수입에 대해 노동자들은 목숨과 장애의 위험을 무릅썼다. 1987년 한국에서 놀랍게도 노동력의 2.6퍼센트가 죽거나 부상당했고, 이에 비해 타이완의 재해율은 겨우 0.7퍼센트, 일본은 0.61퍼센트였다.⁷²⁾

도시화된 노동자들의 첫 세대는 일단 기회가 주어지자 행동을 취하기에 풍부한 토양으로 입증됐다. 한국의 산업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 중에서 최고가 여성들었다. 마산 수출자유지역에서 노동자의 3/4 이상이 여성이었고 그들의 절반 이상이 10대였다. 존재했던 극소수의 “황색” 노조는 남성을 특권화시키는 시스템을 통해 여성을 통제하는 데 이용됐다. 파업과 자주적 노조는 불법이었다. 그럼에도 1985년경 운동의 노력은 특별한 성과를 거뒀다. 그해 첫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쟁의 수자가 전년도에 비해 146건으로 두배나 늘었다고 보고했다.⁷³⁾

노동자와 학생들이 공동의 환경으로 통합되자, 비록 항상 어려움에 직면했어도 조직화 노력의 씨앗은 풍부한 토양을 발견했다. 활동가들이 끈질기게 노력을 지속하자, 성과가 하나씩 나타났다. 남한의 빅3 자동차 제조업체 중의 하나인 대우자동차에서 회사측 황색노조의 선출직 대의원 절반 이상이 민주화 활동가였다. 아래로부터 그들은 노조의 친회사측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노력을 이끌었다. 새로운 단체협상 교섭이 결렬되자, 1985년 4월 16일 6일간의 파업이 발생했다. 경찰은 파괴를 꺼려고 시도했지만, 노동자들은 각목으로 무장하고 기술센터를 점거했다. 8천명의 경찰에게 포위된 300명의 노동자들은 경찰이 공격을 하면 컴퓨터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다. 음식과 물이 차단됐다. 2천명의 노동자들이 동료들을 지지하여 모여들었다. 마침내 대우회장 김우중이 도착했고, 협상 이후에 그는 노동자들의 원래 요구 대부분을 들어주는 데 동의했다.

남성 생산직 노동자들이 주도한 최초의 주요 파업인 대우투쟁은 이후 공장내의 탄압이란 측면에서 피해가 컸지만, 다른 노동자들이 전투적이고 자주적인 행동을 취하는 데 영감을 줬다. 운동권 보수파는 점거전술에 충격을 받았고 그런 투쟁에 개입하기 전에서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풀뿌리 그룹들은 계속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갔다. 구로공단에서 수백개의 공장들은 수천명의 젊은 여성들을 고용했고 그녀들은 봄비는 주거지역을 “별집”이라고 불렀다. 학생 활동가들은 “민족민주 민중운동과 단결하는 여성운동”이란 주제로 거대한 여성집회를 조직하는 것을 도왔다. 수천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참석했다.⁷⁴⁾ 그 이후 노동조합 조직화 시도가 번성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받는 여성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잔인한 대우를 받았고, 너무나 심해서 700백 이상의 한국노총 여성 조합원들은 이상적인 직업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인기있는 답변은 “인간적 대우”였다. 이에 비해, 비록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비슷한 직종의 남성의 절반 이하를 벌고 있음에도, 겨우 8퍼센트가 임금인상이라고 대답했다. 26개의 지원단체들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했다. 전통적 경영방식에 익숙한 그 지역 회사들은 심지어 최소한의 변화에도 저항했고, 심각한 분쟁이 발생했다. 세명의 노조 지도자들이 해고되자 다른 5개 공장의 노동자들이 10일간의 연대파업을 조직했다. 가두시위, 촛불, 식사거부, 연좌농성에 10개 노조의 노동자 수천명이 동참했다. 비록 새로 싹튼 노동조합간 연대에 대해 중요했음에도, 파업 자체는 고용 깡패들에게 분쇄됐고 이들은 건물을 점령하고 농성자들을 공격했다. 7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해고당했다.⁷⁵⁾

71) Kearney, *The Warrior Worker*, 20-2.

72) Karl Schoenberger, “Korea Shaken by Job Accident Rate,” *Los Angeles Times*, July 25, 1988.

73) Hart-Landsberg, *The Rush to Development*, 273.

74) Louie, “Minjung Feminism,” 125.

경찰 스파이와 급습으로 수백명의 노조 조직가들이 그물에 걸렸다. 1985-1986년 1년 동안 경찰은 그런 위장 노동자 671명을 “선동” 혐의로 체포했다.⁷⁶⁾ 1986년 6월 권인숙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체포된 학생들 중의 한명이었다. 그녀는 부천경찰서로 끌려가 성희롱을 당했고 전기충격기로 고문당했다. 그녀는 수침심에 자살하려고 했지만, 동료 죄수들이 그녀를 제지했다. 일단 풀려나자 그녀는 용감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고, 정권에 대한 대중적 혐오감이 커졌다. 1987년 2월 18일 성고문 사건과 10년 이상의 여성노동자 투쟁에 고된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한국여성노동자회(KWAU)를 결성했다. 많은 창립자들은 콘트롤 데이터, YH무역, 반도상사 등의 기업에서 투쟁으로 성장했다. 서울여성노동자회가 수년간 공장에서, 그리고 독재에 대항해서 조직화한 후에 1987년 결성됐다. 창립선언문에서 그들은 여성의 절박한 상황을 명시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의 절반 이하를 벌고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일하도록 강요받는다. 따라서 여성노동자들의 생계와 모성은 위협에 처해 있다. 게다가 여성은 가사의 이중부담을 지고 있고 구타, 성폭력, 성희롱, 그리고 심지어 성고문으로 고통받고 있다.”⁷⁷⁾

1987년 3월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이윤창출에 성공한 독일기업중의 하나인 아틀러사에 일하는 생산직 여성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 더 많은 자유시간, 더 나은 급식과 더 많은 통근버스 등의 요구를 내걸고 노조가 협상하도록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4월 1일 회사측이 한국노총 조합이 실질적 변화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협약에 동의했다고 발표했고 노동자들은 그 협약을 거부했다. 회사는 협약에 반대하는 모든 노동자를 해고했다. 이에 대응해 7백명 이상의 여성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격렬한 분쟁이 발생했다. 한 여성이 항의하여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이후 독일과 한국의 교회 그룹들이 노동자들을 지원하려 동원했지만, 회사측은 완강하게 타협을 거부했다. 8월 중순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룹인 <붉은 조라>(Die Rote Zora)이 독일의 여러 아틀러 의류매장에 방화공격을 감행했다.⁷⁸⁾ 처음에 아틀러사는 생산을 스리랑카로 옮기겠다고 위협했지만, 방화공격 1달 만에 그들은 타결했다. 모든 해고된 여성들이 복직했고 임금은 23.5퍼센트 인상됐고, 사상 처음으로 여성들은 자유롭게 노조선거를 할 수 있었다.⁷⁹⁾

정치인들의 주도

다양성이 새롭게 사고하도록 자극하고 사람들에게 결연하게 행동하도록 추동함으로써 반정부운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NL-PD 분열은 또한 급진적 동력을 활성화했고 친미 정치인들이 민주화 동력을 이끌 공간을 창출했다. 이런 시도에서 전두환의 탄압조치는 너무나 협조적이어서, 늘 그랬던 것처럼 주류 정치인들을 정당화했고 마치 그들이 민주주의의 구원자처럼 보이게 했다. 운동권이 일반 시민들에 비해 아주 급진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했고,

75) Koo, “The State, Minjung, and the Working Class,” 151; Won Young-su, “History of South Korean Labor and Student Struggles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in *The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Revolution and Protest: 1500-present*, ed. Immanuel Ness (London: Wiley Blackwell, 2009), 13.

76) George Ogle, *South Korea: Dissent Within the Economic Miracle* (London: Zed Books, 1990), 99.

77) Moon, *Militarized Modernity*, 151.

78) For more on the Red Zoras, see *Subversion of Politics*, 132-5.

79) Michael Denis, Esther Dischereit, Du-Yul Song, and Rainer Werning, *Sudkorea: Kein Land für friedliche Spiele* (Hamburg: Rowohlt, 1988), 148-1.

정권은 모든 학생들을 공산주의자란 낙인으로 칠했다. 심지어 운동권 내에서도 학생들을 점차 의심의 눈초리로 봤다. 운동의 요새인 기사연의 회보는 1986년 8월 9일 직업적 혁명가라고 자처하는 40여명이 “현정부를 파괴하고 민주 민주공화국을 수립할 임시혁명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무장투쟁을 훈련할” 레닌주의 조직을 결성했고 “이를 위해 그들은 개량주의적 유형의 헌법개정이 아니라 헌법의 혁명적 변화를 수행할 것을 주장했다”고 보고했다.⁸⁰⁾ 일부 기독교 활동가들은 NL 그룹이 김일성의 주체이론을 높이 평가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봤다. 비록 그들이 군사훈련, 전쟁, 핵발전에 대한 보이콧 운동에 동의하고 1986년 전반기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NL 요구의 단호함을 칭찬했음에도, 그들은 NL의 반미주의에 동의하지 않았다.⁸¹⁾

학생들의 “극단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수많은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김수환 추기경은 학생들에게 “좌경적 급진 이데올로기와 혁명구호”로부터 거리를 두라고 훈계했다.⁸²⁾ 탄압과 저항의 주기에 의해 학생들이 급진화되면서 학생운동은 점차 혁명적으로 변했다. 경찰의 만행과 운없이 잡힌 사람들에 대한 중형선고로 활동가들은 단련됐고 외부에 있던 친구들을 자신의 노력으로 끌어당겼다. 많은 학생들은 대규모 민중봉기를 통해 체제를 타도할 준비가 됐다. 학생들의 급진적 입장에 불구하고, 60퍼센트 이상의 한국인들은 1986년 여론조사에서 학생시위가 민주주의에 기여한다고 간주했고, 수년간 학생들의 기술적인 개입으로 구축된 긍정적 평가였다.⁸³⁾ 1986년 6월 2일 교수 265명이 서명한 선언문은 학생들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학생운동은 .. 단순히 반공적 세계열강의 요새로서 우리 민족이 봉사하는 식민주의적 정신의 지적 테크노크라트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대학교육에 대한 심각한 비판을 가했다.”⁸⁴⁾

지지기반이 보다 급진적인 시위의 무대로 선회하자 자유주의적 정치인들은 점점 경악하게 됐다. 국회의 의석으로부터 그들은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들은 헌법개정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전두환은 광주 몇 달 후에 그가 후계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헌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켰었다). “대통령 직선제”는 만트라가 됐고, 지지자들을 너무나도 쉽게 모을 수 있는 슬로건이었다. DJ는 2년간 망명을 마치고 1985년 2월 2일 귀국했다. 호치민처럼 DJ의 생명은 미국이 두 번이나 구했고(비록 비교는 여기에서 끝나지만), DJ의 지지자들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그의 귀국을 환영했다. 그해의 입법부 선거에서 야당의 총득표는 전두환의 집권 민정당을 경악케 했다. 민정당은 겨우 35퍼센트를 득표했지만 1980년 헌법의 사기적 의석배분제도 때문에 국회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 전두환의 임기가 1988년에 끝남에 따라 대통령 직접선거에 대한 희망은 높아졌다. 1985년 친정부 신문이 비밀리에 수행한 여론조사에서 65퍼센트의 한국인들이 전두환의 통치에 불만이었고, 대학졸업자의 경우 그 수자는 85퍼센트로 치솟았다.⁸⁵⁾ 전두환은 완강하게 헌법개정에 반대했지만, 1986년 2월 주요 대도시에서 신한민주당이 주최한 대규모 반전두환 집회가 열리자, 그는 헌법개정 논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⁸⁶⁾

이 시점에서 자유주의 야당은 헤게모니를 쥐게 됐고 특히 DJ와 YS가 합당하여 신한민주당

80)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mocracy, Korean Situationer (January-February 1987), 29-0.

81) Ibid., 31-2

82) Quoted from Sae Gae Ilbo, April 1, 1987, in Dong, “Student Activism and the Presidential Politics of 1987 in South Korea.”

83) See Korean Politics: Striving for Democracy and Unification, ed.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Elizabeth, NJ: Hollym, 2002), 388-9.

84) Dong, “Student Activism and the Presidential Politics of 1987 in South Korea,” 251.

85) See Dongrip Sinmun, September 26, 1986.

86) Doh C. Shin, Mass Politics and Culture in Democratizing Kore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2.

을 결성하고 헌법개정 캠페인을 열성적으로 전개한 이후 그랬다. 1986년 2월 12일 야당의 선거승리 1주년 기념일에 그들은 1천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전두환은 단지 거리에서 서명을 받는 사람들 수백명을 체포함으로써 대응했다. 서명운동 지지자들이 사람들의 집으로 들어가도 체포했다.⁸⁷⁾ 이런 체포에 대응해서 900명 이상의 교수들이 신한민주당의 헌법개정 캠페인을 지지하는 성명서에 서명했다. 더욱더 야당세력은 수적으로 증가했고, 급진파들은 시위의 강도수위를 높였다(1986년 5월 3일 인천의 준봉기처럼). 5월 31일 최소한 350명의 공립학교 교사들이 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했고 9월 7일 약 2천명의 불교승려들이 경남 해인사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를 벌였다.

1986년 11월 28일 신한민주당은 전국적으로 평화시위를 전개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에서 32,000명 이상의 전투경찰이 투입됐다. 전국적으로 약 7만명이 경찰이 거리에 배치됐다. 사람들이 유일하게 제대로 맞서 싸운 곳은 서울극장 앞이었는데, 8개 대학의 PD 대학생 500여명이 해산을 거부했다.⁸⁸⁾ PD 경향은 점진적으로 거리에서 더욱 전투적으로 됐고 현장 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됐다. 광주가 민주화운동을 프롤레타리아화했듯이, 노동운동은 인권투쟁을 계급적 대치로 변혁시켰다. 우리는 이 초기적 운동이 1987년 여름 어떻게 폭발하는지 보게될 것이다.

미국의 전두환 압박

남한에서 급진적 전환의 전망에 놀란 미국 대사관은 야당 인사들과 일련의 야간모임을 조직했고 심지어 1987년 1월 17일에는 서울지역 23개 학보사 편집장들도 포함됐다. 초청자들은 논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키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기독교 언론에 실린 지하 보도는 미국 대사가 “경제에 관한 질문에만 대답했고 자유무역의 기본문제에 집중했다”고 보도했다.⁸⁹⁾ 한 교수가 던롭 차관에게 독재에 맞서 개입할 것을 촉구하자, 던롭은 “그런데 왜 한국정부는 수입을 자유화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⁹⁰⁾

이 모임들은 1980년 이래 미국대사가 야당인사를 만난 첫 번째 사례였다. 자제를 촉구한 신입 미국대사는 오랫동안 CIA 작전요원이었던 제임스 릴리였다. 그는 장칭귀의 민주개혁을 도왔었다. 중국에서 선교사 부모에게서 태어난 릴리는 캄보디아, 라오스, 일본, 홍콩, 필리핀, 타일랜드와 중국의 CIA 지국에서 근무했다. 릴리가 한국에 파견된 것과 같은 시기에 합창의 장 미군장군 루이스 메너트렛은 군대 내에서 개혁적 요소들을 자극하고 지원하려 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수십년간 지원했던 부패한 독재정권들이 집이 됐고, 선출된 정부보다 봉기와 혁명의 손쉬운 목표가 됐다는 것을 이해했다.⁹¹⁾

1987년 2월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친구이자 보좌관인 개스틴 시거는 뉴욕 은행가들의 청중에게 연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서 변화의 주요세력은 지난 수십년간 역동적 경제체제제의 발전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동적 정치체제가 필요하다.”⁹²⁾ 서울에 온 시거는 정치개혁과정을 시작했다고 전두환을 칭찬했다. 미국정부를 대표해 말하면서 시거는 전두환이 1988년까지 임기를 완료할 것임을 지적했고 야당이 전두환이 적절한 후계자를 임명하도록 한 헌법규정에 따라 평화적 정권교체를 지

87)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Lost Victory, 40.

88) Korean Situationer, 28.

89)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Lost Victory, 61.

90) Korean Situationer, 7.

91) Lee Jae-eui makes much the same point in his Kwangju Diary, 40.

92)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Lost Victory, 63.

지하라고 촉구했다. 수년 동안 전두환은 한국에 대한 통제권을 놓을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지금 우리는 1984년의 비밀 청와대 보고서 “평화적 정권교체 연구”가 2000년에야 선거를 허용하는 4단계 계획을 고려했음을 알고 있다.⁹³⁾ 미국무장관 조지 슐츠는 1986년초와 1987년 서울을 방문했을 때, 그는 정권교체의 지연을 지지했다. 분명하게 1987년초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한국의 조수들이 다가올 여러해 동안 권력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규모 시위는 곧 미국의 입장이 변하도록 했지만, 2월에 미국은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야당의 요구를 지지하기를 거부했다. 미국은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길 원치 않는다는 공개적 언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원화의 가치를 평가절상하고 미국수입품에 시장을 확대하라는 압력을 계속했다. 레이건 행정부는 전두환에게 소고기, 담배, 보험 등의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넣었고, 일반 관세특혜체제에서 한국생산자를 빼는 무역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협박했다.⁹⁴⁾ 비록 경제자유호가 1980년 이래 급속하게 진행됐지만,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전두환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모든 마지막 양보까지 쥐어짰고 한국정부는 미국에게 모든 소망을 다 들어주겠다는 의향을 반복적으로 알렸다. 수입제한 철폐 스케줄이 광범한 품목에 대해 설정됐고, 3년에 걸쳐 총 600여개 품목이 그 대상이 됐으며, 한국에서 미국계 은행과 보험회사의 활동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 마치 낡은 “시장의 마술”이 전두환의 미국인 수혜자들이 승인의 뜻으로 머리를 끄덕이게 만드는 것같았다. 한국은 미국 투자자들에게 대단한 곳이었다. 1986년 서울의 미국대사관이 발표한 총수치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 총액이 3억 6,800만 달러, 즉 약 미국 전체투자액의 약 45퍼센트였다고 계산했다.⁹⁵⁾

그 누구의 레이더 스크린에 걸리지 않은 채 1987년 1월 13일 서울대학생 박종철이 반공 경찰 특수수사대 건물로 끌려갔고, 이후에 언론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폭로한 것처럼 고문을 받다가 죽었다. 이를 뒤 신문의 모호한 언급은 그의 죽음이 마치 별일이 아닌 것처럼 지적했다. 종교단체, 활동가그룹, 야당정치인들로 구성된 대규모 연대체가 2월 7일 고문에 항의하는 시위를 호소했다. 집회는 전국적으로 예정됐지만, 전투경찰이 모든 곳에서 동원됐다. 서울에서만 7만명이 장갑버스를 타소 시내 주변을 이동했다. 비록 미사가 50개 도시에서 예정됐지만, 경찰은 곤봉과 최루가스, 대량체포를 모든 시위를 분쇄했다. 수십곳에서 사람들은 거리에서 예배를 했고, 유일한 대치는 종로 3가였다. PD 학생들은 화염병과 돌을 던지면서 거리에 대한 자신을 권리를 주장했다.⁹⁶⁾ 약 6만명이 평화적으로 명동에 모였고, 부상과 광주에서 수만명이 다음날 새벽까지 거리에 머물렀다. 집회가 중지된 이후 많은 사람들은 신한민주당이 명확하고 강력한 지도력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1985년 선거승리 2주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에서 김영삼과 김영삼은 “3반”, 즉 반폭력, 반공, 반반미를 지속적으로 되풀이하면서 대응했다.

2월 7일 시위를 호소했던 단체들의 연합은 좌절을 행동을 전화시켜, 박종철 49제인 3월 3일 전국동원을 정점으로 하는 1개월 간의 “민주화와 고문근절”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불교 단체들은 서울 중심가의 넓은 조계사를 집회장소로 제공했다. 이에 대응해 모든 운동권은 “모든 공개적인 ‘합법공간’과 비밀스런 ‘비합법; 공간의 동시적 활용, 즉 체계적 대중투쟁과 결합된 간접적, 상징적 저이투쟁의 배합과 통일”을 선포했다.

93) Denis, Dischereit, Song, and Werning, *Sudkorea*, 225.

94) See Hong Nack Kim, “The 1987 Political Crisis and Its Implications for U.S.-Korean Relations,” in *Political Change in South Korea*, eds. Ilpyong Kim and Young Whan Kihl (New York: Paragon House, 1989).

95) Ogle, *South Korea*, 38.

96) *Korean Situationer*, 20.

참여단체에는 한국여성 노동자회도 포함됐다. 권인숙의 성고문 사건은 전국민이 여성의 취약성에 대해 인식하게 했다. 여성운동은 노동계급 여성투쟁의 지지단체에서 여성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광범한 요구와 이슈를 포괄하는 운동으로 변했다.⁹⁷⁾ 여성 활동가들도 전국적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박종철 고문치사의 폭로 직후 자주색 스카프를 두른 약 50명의 여성들이 피살장소에 가서 시위를 벌였다. 비록 특수수사대 건물이 활동가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이요오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찰은 평화적으로 모인 나이든 여성들을 구타할 수 없었다. 3월 3일 전국적으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추모식에 엄숙하게 집결했다. 수백명이 체포되고 대학이 습격당하고 가택이 경찰에게 수색당했다. 사람들은 화염병과 돌을 사용하기를 자제했지만, 그날이 끝나자 도시의 거리는 포스터와 스프레이 페인트로 뒤덮였다. 그 당시 추기경과 지도적 정치인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한국인이 전두환의 억압체제에 거리를 뒀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3개월 안에 실질적으로 온 나라가 독재에 맞서 들고 일어났을 때, 오랜 활동가들은 가장 놀란 사람들 중에 있었다.

97) Interview with Chung Hyun-baek, Seoul, June 12, 2002.

[번역] 조지 카치아피카스,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1권

조지 카치아피카스, George Katsiaficas,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Asia's Unknown Uprisings,
1권: 20세기 남한의 사회운동 Volume1: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in the 20th Century

9장 1987년 6월 항쟁

전두환의 4.13 호헌선언: “헌법논의 불가” | 국분의 탄생 | 6월 10일: 봉기의 시작 | 6월 18일: 전두환의 군대투입 준비 | 6월 26일: 대결전 | 군부의 6월 29일 굴복 | 엘리트 주도 하의 민주화 이행? | 시민사회의 역할

활화산처럼 전력을 다해 전진하자!

- 유인물 1987년 6월

무역으로 200억 달러가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오가며, 남한은 우리의 7대 무역파트너가 됐다. 남한은 간단히 말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이다. 따라서 전두환 정부와 야당 사이에 협상을 재개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대화를 통해서만 전국민적 합의를 확보하고, 정치안정, 지속적 경제성장, 평화유지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미국하원의원 스티븐 솔라스, 1987년 5월 17일

일지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헌법논의 중단시킴
1987년 5월 18일	김수환 추기경 박종철 고문치사의 진실 발표
1987년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NCDC) 결성
1987년 5월 27일	서울대 학생회 수업거부 투표 후 헌법개정 요구
1987년 6월 9일	학생 이한열 최루탄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짐
1987년 6월 10일	노태우 차기 대통령으로 지명됨
1987년 6월 10일	서울에서 40,000만 학생들로 시위시작, 자연발생적으로 19일간 지속됨
1987년 6월 10일	수백명이 명동성당 점거
1987년 6월 13일	사무직 노동자(“넥타이부대”) 시위 참여
1987년 6월 15일	명동 점거자들 승리감으로 떠남
1987년 6월 18일	1백만명 이상 시위, 부산에서만 30만명, 사람들이 거리 장악
1987년 6월 19일	전두환 군동원 명령 내림, 계엄령 계획함
1987년 6월 19일	전두환 미국대사 릴리와 면담, 동원명령 취소함
1987년 6월 23일	레이건 대통령 특사 개스틴 시거 두 번째로 서울 방문
1987년 6월 23일	학생 200,000명 서울에서 옥외 집회 개최
1987년 6월 25일	김대중 가택연금에서 풀려남

1987년 6월 26일	거대한 전국적 시위, 31개 도시에서 1백만명 이상 시위
1987년 6월 29일	정부, 대통령 직선제와 개혁에 대한 야당의 요구에 굴복함
1987년 7월 5일	이한열 6월 9일 최루탄으로 입은 부상으로 사망
1987년 7월 5일	현대에서 최초로 노동조합 결성됨
1987년 7월 9일	1백만명 이상 이한열 장례식 참석
1987년 7월 10일	전두환 민정당 총재직 사임
1987년 7월-8월	파업물결 중공업계 강타함

1986년 2월 22일 필리핀에서 군사폭동이 “피플파워” 혁명으로 이어졌다. 1주일도 안돼 20년 이상 독재자였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하와이로 향하는 미국 항공기에 올랐다. 재앙의 전조를 알아차리지 못한 한국인은 거의 없었다. 필리핀 봉기 며칠 만에 심지어 보수적 신문 조선일보도 논평했다. “여당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마치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필리핀 상황에 대해 흥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뒤편야 한다.” 2월 26일 김대중은 한국인들을 위해 사건을 해석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필리핀인들이 비폭력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편을 든 미국 외교정책상의 획기적 변화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¹⁾

필리핀에서 피플파워 혁명이 발발한지 한달도 안 돼서 김수환 추기경은 공개적으로 민주주의를 호소했고 남한 국민들이 교훈을 배웠다고 말했다. 3월 13일 김대중은 뉴욕타임스에 기고했다. “이제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 피플파워의 시대가 됐다. 우리는 결코 과거에 이렇게 확신한 적이 결코 없었다.” 다음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하원에 그가 아이티, 필리핀 등의 상황전개를 미국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확장하는 시장지향적 전세계 경제의 추진”의 일환으로서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²⁾ 레이건은 소련의 힘을 제어할 “민주혁명”에 특별한 희망을 걸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한국의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1987년 6월 결정적 순간에 도달했고, 이 시기는 연속 19일 동안 수십만명이 모든 주요 도시에서 불법적으로 거리에 머물렀고, 민주주의를 쟁취할 때까지 집으로 가길 거부했다. “광주, 광주, 광주!”는 모든 사람의 입술에서 되풀이해서 나온 말이였다. 경찰은 6월 동안 매일 평균 110건의 시위를 보고했고, 전부 약 3,362건이었다. 시위 조직가들은 각각 다른 3일에 1백만명 이상을 집계했다. 역사가 강만길은 6월 3주 동안 4백 내지 5백만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추산했다.³⁾ 6월 26일만도 거리에 2백만명이 있었고, 시민들은 전두환의 군사개입 협박에 대응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점거 커지는 시위에 직면해 동원을 멈출 수 없었던 전두환은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 수천명 정치범 석방, 시민적 권리의 확대 등 반정부세력의 요구에 굴복했다.

1987년 6월봉기는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적 운동의 정점이였다. 민중의 가두진출은 너무나 대대적어서 진정한 혁명의 가능성마저 제기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군부의 탄압이 다가오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미국은 또다른 광주, 군부내 폭동 또는 한반도에서 또다른 반민주주의의 등장을 두려워했다. 심대한 사회적 격변 와중에, 한국 장군들의 광기어린 공포는 선거와 민주적 개혁을 허용하라는 미국인 멘토들의 침착한 충고에 양보했다. 일단 독재가 패배를 인정하자, 도시봉기는 분출할 때만큼 급속하게 배후로 후퇴했지만, 한국 역사상 최대의 노동자 파업물결이 전국을 강타했다. 자본주의적 축적체제는 생존했지만, 계급권력의 균형은

1) Joongang Ilbo, February 26, 1986, as quoted in Dong,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n Politics,” 248.

2) “Freedom, Regional Security, and Global Peace,” March 14, 1986.

3) Kang Man-gil, A History of Contemporary Korea, 255.

변화해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에게 확대된 권리와 특권을 가져다줬고 수백만명 보통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켰다. 비록 신화화되었음에도 6월봉기에 관해 영어로 쓰여진 것은 놀랍게도 거의 없다.⁴⁾ 구해근은 6월항쟁을 “전두환을 6월 직무에서 퇴진시킨” 10일간의 사건으로 언급한다. 그러나 이 진술은 모두 정확하지 않다.

광주학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한 반정부 세력은 이후 10년 더 계속 압력을 가했다. 마침내 1997년 전두환과 그의 부하 노태우가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은 완성됐다. 이 선고는 나중에 감형됐지만, 독재자들을 감옥에 보내면서 제정한 이행적 정의는 미약하지만 한국 시민사회의 극적인 승리를 구성했다. 두 사람은 나머지 인생 동안 경호원의 저지선과 엄격하게 제한적인 보안조치 뒤에 숨어서 불명예스런 삶을 보내게 됐다.

전두환의 4월 13일 선언: “헌법논의 불가”

전두환의 대통령 임기가 1988년에 끝나기로 예정됨에 따라 반정부진영은 헌법에 명시된 간접선거 과정이 아니라 직접선거를 통해 그를 대체할 통합 캠페인을 동원했다. 원활한 이행에 대한 미국의 짓을 확신한 전두환은 단지 2인자인 노태우를 새 대통령으로 지명하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전두환은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이행 이후에도 계속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 확신했고 언젠가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각을 바꾸라는 야당의 설득시도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1987년 4월 13일 다가오는 1988년 올림픽이 국민화합을 필요로 하므로 후계자가 권력을 잡을 때까지 헌법개정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전두환의 갑작스런 조치는 온나라를 놀라게 했다. 결정을 발표한 직후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전두환을 비난하는 거대한 표지판sign이 세워졌다. 다음날 김수환 추기경 추기경이 부활절 메시지에서 전두환을 비판했고, 한국교회협의회(NCC)도 독재자를 질타했다. 전두환은 개의치 않는다. 그는 올림픽 준비로 도시를 미화하는 도시재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서울의 목동지구를 청소하기 위해 일군의 깡패와 용역, 경찰을 보냈다. 다음 사흘 동안 불도저와 용역들이 8개 철거지구를 공격했다. 전두환이 거대한 계획에 따라 모두 3백만명 이상이 퇴거당할 예정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거부했다. 무너지는 벽에 한 어린이가 사망하자 경찰은 장례식이 대중시위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장례식 날 시신을 탈취했다.

명백히 전두환은 일상이 평소대로 지배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보다 더 큰 실수는 있을 수 없었다. 그의 교만함은 이미 전투적이던 반정부세력을 자극했다. 전두환도 민주화운동도 물러나려고 하지 않았기에 누군가는 포기해야했지만 아무도 그게 누구일지는 몰랐다. 4월 21일 광주에서 13명의 사제가 직선제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고려대학의 교수 30명이 대중의 투표를 선호하는 공개하는 성명에 서명했다. 곧 수백명의 교수들이 서명했고, 작가, 배우 단체 그리고 심지어 전국약사협회가 개헌을 찬성하며 나섰다. 불교도들도 통일된 캠페인의 일환으로 동원했다. 그들은 “만약 모든 사람과 민주세력이 하나로 단결해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연대해서 일한다면, 우리 민중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정권을 영구하려는 군부독재의 음모를 분쇄하고 진정으로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믿었다.⁵⁾

4월 22일 18개 조직의 400명 이상이 농성시위를 시작했고 이 농성은 5월 11일까지 지속됐

4)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387, and "Civil Society," 24.

5)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Lost Victory, 87.

다. 공개성명에서 그들은 자신의 투쟁을 정의하기 위해 과거의 봉기들에 호소했다. “지금 개헌을 위해 폭발하고 있는 민중의 운동은 민족독립을 호소하며 일어난 3.1운동, 민주화를 위해 일어난 4.19혁명을 뒤따른다.” 5월 12일 농성이 끝난 날 6개 개신교 교단의 성직자와 평신도 1,500명 이상이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이 모임을 막기 위해 경찰은 그들을 야만적으로 공격했다.

투쟁에 나선 모든 세력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타이트하게 조직돼 있었다. 3월 새 학기 시작되자 학생회들은 즉각 시위를 조직했다. 교육부 장관은 3월 4일 캠퍼스 시위 452건으로 집계했다.⁶⁾ 전국적으로 사람들은 표 9.1에서 부분적으로 지적된 것처럼 이전에 결코 없었던 규모로 대중시위에 참여했다.

[표 9.1] 1987년 시위 회수 및 참여자 수자

월	시위	참여자
1월	61	3,400
2월	53	1,600
3월	131	15,000
4월	425	119,400
5월	856	200,000
6월	3,362	1,000,000
7월	427	101,000
8월	3,037	566,000

Source: Chulhee Chung, “Social Movement Organization and the June Uprising,” in *Korean Politics: Striving for Democracy and Unification*, ed.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Elizabeth, NJ: Hollym, 2002), 248.

점점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이던 정부는 몇 달전 건국대학교에서 체포한 학생들을 처벌하려고 했지만, 학생들은 굴복을 거부했다. 부산에서 한 그룹이 신입생 중간고사르 방해했고 학교측은 경찰에 학생회 간부들을 체포하라고 요청했다. 일단 경찰이 들어오자, 학생들의 비상총회는 경찰과 대학측이 물러나도록 강제했고, 체포된 학생들을 풀어주고 대학내 언론자유 요구에 동의하도록 했다. 심지어 미국 의사당 건물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5월 17일 필리핀의 피플파워 봉기가 마르코스를 타도하는 것을 지원했던 스티븐 솔라즈 하원의원은 <뉴욕타임스>에 헌법개정에 관한 협상을 중단한 전두환의 결정이 “아시아에서 중대한 미국의 이익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썼다.

광주봉기 7주년이 다가오자, 전국적으로 대학 캠퍼스에서 1주일 간의 행사가 조직됐다. 5월 18일 광주와 명동의 카톨릭 지도자들은 동시에 “박종철군 사망의 진실”이란 성명을 발표했다. 우호적인 간수의 도움으로 구금중이던 활동가 이부영은 경찰관리가 발표한 공식해명과 상반되는 박종철 물고문 치사에 관한 한 간수의 설명을 밖으로 몰래 내보냈다.⁷⁾ 명동성장에서 열린 박종철 특별추모 미사에서 김수환 추기경을 사실을 선언했고 그의 선언은 신문 1면의 뉴스가 됐다. 광주에서 1,500명 이상이 봉기를 기념하기 위해 망월동에 모였을 때 그들은 마침내 전국적 격변을 위한 때가 됐다고 서로 속삭였고 그것을 준비할 광범한 연합을 결성했다.

연이어 경찰은 활동가들의 평화적 집회를 파괴했다. 5월 23일 박형규 목사를 비롯해 광범한

6) Ibid., 91.

7) Interview with Lee Bu-young, Seoul, December 1, 2001.

단체들의 연합으로 참여한 133명이 운동의 다음 단계를 기획하기 위해 모였다. 경찰은 모임을 공격했지만, 머지 않아 이 모임은 6월 10일 전국적 시위계획을 발표했다. 광주도심의 원각사에서 경찰은 광주학살 희생자들의 특별예불에 참여한 불교신자들을 최루탄과 곤봉으로 공격했다. 13명이 체포됐다. 다음 날 약 500명의 신자들은 YMCA 체육관에 모이려는 계획이 경찰에게 저지되자 광주 도청 앞에 집결했다. 그들이 최루탄 공격을 받자, 수천명이 그들에게 합류했고 결국 그 수자는 2만명으로 늘어났다. 한 시간의 기도 후에 시위대열은 5만명으로 늘어났다.⁸⁾

국본의 탄생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동원할 준비가 되자 지속적 경찰공격은 전국적 투쟁을 조정할 그룹을 만들려는 모임을 방해했다. 일련의 토론을 거쳐 내 친구이자 형님, 이 전국적 연합의 지도자가 된 오충일 목사는 이 그룹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믿을 수 없는 계획을 밝혔다. 모든 사건 모임에서 경찰은 사람들이 뭔가 하기 전데 도착해서 모임을 깨뜨렸다. 집에 대한 감시도 너무 심해서 오충일은 집에 머물 수 없었다. 오충일은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는 전국적 전선을 구축할 계획을 구상하기 위해 낚시하러 갔다. 갑자기 해답이 떠올랐다. 사전에 시간을 알려줘 모임장소는 말하지 않는 것이었다. 장소는 믿을 있는 주자들의 잘 조직된 팀에게만 알려주고 그들이 모임 1시간 전에 참가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오충일은 모임이 5월 27일(광주합락 기념일) 오전 8시에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날 새벽 6시 오충일은 머무르던 종로 YMCA 근처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비록 다른 활동가와 마주쳤지만 장소를 말하지 않고 계획에 따라 기다렸다. 오전 7시 그는 메신저에게 향린교회로 장소를 골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지속적으로 성공회 대성당, 명동성당, NCC 본부 사숙실 주위를 어슬렁거렸기 때문에 그곳들은 모두 불가능했다. 그러나 향린교회 근처의 50미터 커브 때문에 경찰의 감시가 어려웠다. 정해진 시간에 약 200명의 활동가들이 제 시간에 도착했다.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오충일은 경찰이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알고 언론의 전화를 받았는지 확인했다. 언론과 경찰이 예배당에 들어닥치자, 오충일은 의사봉을 두들기며 민주헌법쟁취 범국민운동본부(국본, NCDC)의 결성을 선포하고 6월 10일 전국적 시위를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모여든 기자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갈채로 동의를 표했다. 이번에는 이야기가 됐다. 이 단 한번의 사건으로 독재에 반대하는 운동은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 노동자, 기자, 의사, 여성, 교사, 배우,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헌법개정과 대통령 직선제라는 주요한 요구 주위를 단결시켰다. 비록 그날은 몰랐지만, 국본은 한 달 안에 1백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시위를 조정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다른 많은 사회운동 행사처럼, 어떤 계획 없이도 자연발생적 투쟁은 일어났다. 광주, 부산, 서울의 주요 활동가들과 면담한 결과 각 도시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처음으로 광범한 연대체를 세우고 6월 10일 시위를 호소했다고 믿었다. 특히 광주에서 사람들은 구체저공로 1987년 5월 18일 망월동 묘지에서 속삭인 대화를 국본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장소로 언급했다.⁹⁾ 비록 이름은 약간 달랐지만, 전두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단결시키는 민주헌법을 위한 광범한 연합의 개념은 같았다. 이후에 광주 남동성당 모임에서 불교승려 **지선**의 적극적 지도로 서울에서 채택된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구속자와 부상자 단체들을 통해 시민군의 전 대원들이 특히 이 모임에 참여했다. 참석자 24명 가운데, 농민 서경원과 승려 송연을 포함한 최소한 18명이 1980년에 활동했었다.¹⁰⁾

8)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Lost Victory, 278.

9) Interview with Yoon Kang-ok, October 3, 2001.

10) Interview with Lee Kang, May 9, 2001.

오충일은 국본 결성의 동시성에 대해 논하면서 나에게 말했다. “15년에 걸친 지속적 운동경험이 국본을 가능하게 했다.”¹¹⁾ 그는 계속 말하면서 6월봉기에서 기독교인의 중심적 중요성을 지적했다. “정부는 우리가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할 수 없었다. 나 자신도 어릴 때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이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조직할 공간을 만들어줬다. 한국인의 약 80퍼센트가 카톨릭, 개신교 또는 불교 신자이고,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조직되니 정부는 우리가 모두 빨갱이라고 말할 방법이 없었다.”¹²⁾ 공산주의의 아나테마인 신에 대한 믿음으로 정부의 탄압에서 벗어났 주로 기독교 단체들은 운동의 조직 중심이 됐고 그 안에서 동조적 시민들은 전두환의 지속적 지배를 전복하는 데 모든 힘을 다 했다.

국본이 구조를 갖추면서 오충일은 33인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지역과 참여단체에서 14인의 공동대표가 선출됐다. 중요한 것은 어떤 학생단체도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약 학생들이 포함되면 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한 것으로 의심받을 것에 대한 국본의 두려움 때문이었다. 국본 결성 이틀 뒤 “호헌철폐 서울지역 대학생 협의회”가 결성됐고, 곧 6월 10일 시위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보겠지만, 비록 국본의 공식 회원에서 배제됐음에도, 학생들은 봉기를 시작한 주요세력이었다. 서울의 국본 전국본부 외에도 8개도시의 본부, 농촌의 지역본부, 중소도시의 위원회 등 최소한 총 22개의 지역조직이 가입했다.¹³⁾ 67명의 대표로 구성된 상징적 중앙기구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 기독교인, 불교도,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여성, 청년, 예술가, 작가, 교수, 변호사, 구속자 단체의 가족, 정치인, 지역운동, 재야, 통일 운동 등을 포괄했다. 국본의 핵심조직가가 “서류상의 조직”이라고 묘사한 국본에는 618명의 이사, 예를 들어 156명의 야당 정치인, 65명의 지역대표, 10명의 상임대표, 29명의 상임집행위원이 인상적 구성을 포함했다.¹⁴⁾ 8명의 핵심 간사들은 국본이 모든 회원단체의 관심사를 인지하도록 유지했다. 모금을 위한 은행계좌도 열었다.

[표 9.2] 국본 창립회원

유형	수자	비율
종교단체	683	31퍼센트
지역지도자/단체	352	16퍼센트
재야단체	343	16퍼센트
정치인	213	10퍼센트
농민	171	8퍼센트
노동자	39	2퍼센트
도시빈민	18	1퍼센트
기타	372	15퍼센트
합계	2191	100퍼센트

Source: 권혁철,한겨레, June 8, 2007.

독재종식과 시민자유를 요구한 외에도 국본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기본권 보장”과 “부의 독점적이고 불균형적인 분배의 시정”을 명시적으로 승인했다.¹⁵⁾ 슬로건과 포스터에는

11) Interview with Oh Choong-il, Seoul, November 29, 2001.

12) In 1981, official statistics reported that there were 7.6 million Protestants, 1.4 million Catholics, and 11.1 million Buddhists. See Lienemann-Perrin, *Die Politische*, 124.

13) Chung, “Structure, Culture, and Mobilization,” 169.

14) Interview with Hwang In-sung, Seoul, March 29, 2009.

15)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Lost Victory*, 117-8.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에 대한 탄압 중지
고문 중단!
통일을 추진할 민간정부
독재 악법을 철폐할 광범한 전국운동을 위하여
군부독재 지지하는 미국놈들 몰아내자
살인강간정권 타도하자
광주학살 책임자를 처벌하라
노동기본권 반대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비록 DJ와 YS, 주요 정치인들이 노골적으로 친미적이었음에도, 광범한 연합은 주요 슬로건으로 “양키 고 홈!”을 외치는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경향을 포괄했다. 오충일은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단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한 사람이 백 걸음을 걷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 걸음을 걷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본은 6월 10일 전국적으로 통일된 동시시위를 계획했다. 이 날은 집권당이 노태우가 전두환을 승계하도록 지명하는 날이었다. 아리랑 같은 노래, 오후 6시에 애국가 부르기에서 손수건 흔들기, 도심을 돌면서 자동차 경적 울리기, 교회종 울리기, 8시에 소등하고 심지어 텔레비전 끄기(노태우 지명과 같은 시간에), 서로에게 격려 전화하기 등 다양한 비폭력 전술이 옹호됐다. 국본 대변인 인명진 목사는 설명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참여하기 쉽도록 하기를 원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거리로 나서라고 요청할 수 없었다.”¹⁶⁾

NCC 인권위원회는 6월 1일에서 3일까지 그 전해 필리핀의 마르코스 타도의 메아리인 “민중 권력으로 민주주의 쟁취하자”는 주제로 전국총회를 개최했다. 6월 10일 투쟁을 승인한 위원회는 선언했다. “민중의 뜻은 하느님의 뜻이다.” 명백하게 온 나라가 민주주의의 옹호자들을 지지했다. 6월 9일 한국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퍼센트 이상이 “경제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¹⁷⁾

정치인들의 “레드 콤플렉스” 때문에 국본의 공식회원에서 배제됐지만 학생들은 한두명의 “참관인”을 국본 회의에 파견했고 서울의 국본 지도자들과 비밀대화를 유지했다. 다른 도시에서 학생단체들은 국본 징역조직에 참여하거나 국본이 취약한 경우 국본을 대체해 스스로 광범한 연합이 됐다. 많은 국본 정치인들은 학생운동을 불신했고 정부는 학생들을 공산주의자로 묘사했지만, 학생들은 6월 10일 투쟁을 직접 책임졌다. 학생들은 거리로 대규모 동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었고, 체포와 최루가스, 구타를 기꺼이 무릅썼다. 학생들은 모든 사람들의 희망의 중심에 있었고 커다란 에너지를 갖고 기술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담당했다. 다른 어떤 요소보다 학생들의 놀라운 자기조직화 역량이 6월봉기를 촉발한 요소였다.

4월에 시작해 학생들은 아래로부터 지역별로 대학생 대표자협의회를 결성했다. 서울 사무국은 지역 조직화를 격려하고 전국조직의 기반을 닦기 위해 조직가들을 파견할 임무를 맡았다. 캠퍼스 활동가들은 누가 집회에서 발언을 잘 하는지 관찰했고 나중에 조직화 시도에서 그들을 비밀리에 모집했다. 그들은 지도자들에게 민주화를 위해 투쟁할 후보로 학생회 선거에 나서도록 조정했다. 서울에서 약 20개 대학이 이 협의회에 대표자를 파견했고, 이들은 전

16) Interview with Rev. In Myung-jin, Seoul, March 29, 2009.

17) Chae-Jin Lee, A Troubled Peace: U.S. Policy and the Two Korea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6), 123.

두환이 헌법개정 불가를 선언한 4월 13일 이후 느슨한 지도부로서 기능했다. “광주투쟁” 추모주간에 전국의 캠퍼스에서 조직들이 결성되어 전도시적 협의체를 통해 서로 연결됐고, 다시 서울협의회 모임에 학생 지도자들을 파견했다.¹⁸⁾ 5월말부터 6월초까지 30개 이상 대학의 학생지도자들은 24시간 농성텐트에서 단식하면서 학생들이 동원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조직했다.

비록 필리핀 활동가들에게 영감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주요 활동가인 우상호는 나에게 아주 솔직하게 인정했다. “개인적으로 필리핀 사람들처럼 탱크 앞에 설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에서 동참하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별로 지지를 받지 못했다. 우상호는 설명했다. “우리는 대표자들을 공장과 기업에 파견했다. 노동운동 지도부는 우리를 환영했지만, 일반 조합원들은 레드 콤플렉스 때문에 더 거리를 뒀다.” 서울대 학생회 지도자였던 이남주는 나중에 나에게 말했다. “6월투쟁이 그렇게 나아갈지 몰랐었다. 여름 동안 가을을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6월 2일 고려대 활동가 지도자 이인영이 경찰에 잡혀갔고 조직화 노력에 치명타였다. 지하 지도부는 건재했고, 지속적인 체포와 주체사상에 대한 내부논쟁에도 불구하고 활동할 수 있었다. 그 주 후반에 서울의 학생지도자들은 서대협에 각 캠퍼스에서 6월 10일에 참여할 수 있는 수자를 보고하라는 요청을 받았다.¹⁹⁾ 서대협은 각 학교에서 참석해야 할 구체적 목표 수치를 할당했다. 서대협측은 대규모 대학이 각각 1,000명 내지 1,500명이 참여하고 20개 대학이 참여하면 1만명 내지 2만명을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학생들이 지구별 행진으로 서울시청에 집결하기 위해 서울은 동서남북 4개지구로 나뉘었다. 전국적으로 학생들은 6월 10일을 열정적으로 준비했다. 광주, 부산, 서울에서 조직가들은 고등학생들에게 다가가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사진] 1987년 6월 9일 대학생 이한열이 치명적 부상을 입었다. 사진작가 미상

6월 8일 내무부 및 법무부 장관은 6월 10일 xnwodd이 불법집회이며 국본은 “국가전복단체”라고 선언했다. 다음 날 전국적으로 학생회들은 “D 데이”를 위한 집회를 주최했다. 모든 시위를 봉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경찰은 야간검속으로 거의 5천명을 체포했고, 추가로 700명의 반정부 지도자들을 가택연금에 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동원했고 경찰의 대대적 공격에 맞섰다. 6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연세대학교의 특히 격렬한 대처 도중 광주출신 이한열이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다. 친구들이 그를 병원으로 옮기자, 이한열의 부상은 즉각 광범하고 깊은 분노를 촉발했다.

그 날 밤 수천명의 연세대 학생들은 밤새 머물면서 행진하고 노래했고 팀대형을 연습했다. 구호를 외치면서 깃발과 플래카드를 든 학생들은 “D 데이”를 준비하면서 같은 경로를 세 번이나 행진했다.

6월 10일 아침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와 부상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설 것인가? 그렇다면 군대가 동원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회 대성당로 접근할 때, 오충일과 불교승려 두 명, 여성단체 지도자, 김영삼을 포함한 14명의 국본 지도자들의 머리 속에 떠오른 몇가지 의문이었다. 경찰 바리케이드가 지역을 봉쇄하기 전에 안으로 들어갈 길을 찾았던 그들은 교회 종을 49번 울렸고, 누군가 죽었을 때 울리는 종과 같은 수자였다. 즉각 경찰에게 포위된 그들은 체포되기 전 이를 동안 간혀 있었다. 지도자들이 체포

18) Interview with Lee Nam-ju, Seoul, March 27, 2009.

19) Interview with Woo Sang-ho, Seoul, June 5, 2001.

되거나 성공회 대성당에 갇히는 등 국본이 공격을 받으면서, 시위가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정부의 검열관들은 언론이 시위를 보도하지 못하게 막았다. 비록 국본의 지역담당자들이 소식을 퍼뜨렸지만, 그들의 활동은 감시를 받았고, 경찰은 때로 그들이 접촉상대를 만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했다.

“D 데이” 오후 시청행진에 합류하기 이전에 많은 대학별 집회가 열렸다. 오후 6시, 학생들이 부르는 대로 “H 아워”에 힐튼[남선]호텔에서 집권당 연회가 열렸지만, 겨우 4천 내지 5천명의 학생들이 근처 시청에 도착했다. 즉각 경찰이 공격했고, “진짜 전쟁”같은 상황 속에서 수십명의 학생들이 부상당했다. 도심 고층빌딩에서 시민들이 사무실의 직장을 떠나면서, 그들은 호기심을 갖고 시위를 구경했다.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갈채를 보내고 민주주의를 요구했지만, 학생들에게 가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누구든지 거리로 나서면 체포되거나 구타당할 위험이 높았다. 시청 주변에서 차량들이 민주주의를 지지하여 경적을 쏘이지 않고 울렸고, 수천명의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

2시간 동안 학생들은 도로를 점거했고, 지류 행진이 도착하면서 그 수자는 4만 내지 5만명으로 불어났다.²⁰⁾ 새로 대열이 도착하자 시위대는 시청과 신세계 백화점 주변의 도로를 통제했다. 경찰은 엄청난 양의 최루가스(CN & CS)를 사용했고 사람들은 화염병으로 대응했다. 경찰력에 대적하기 위해 시위대는 경찰이 공격하면 흩어졌다가 그 지역의 다른 곳에서 다시 모였고 때로는 우연히 거기에 있던 시민들이 합세했다. 신세계 백화점 근처에서 2만명이 자연발생적으로 모여 거리에서 정치포럼을 열었다. 경찰이 공격하자 사람들은 맞서 싸웠고 경찰을 압도했다. 그들은 경찰의 방패, 보호대, 최루탄 발사기를 빼앗았고, 거리에서 전투경찰 장비를 불태우거나 분수대에 버렸다. 사람들은 진짜 적이 경찰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했고, 붙잡힌 경찰을 풀어줬다.

그 날 저녁 서울에서 운전하던 미국인 특파원은 지적했다. “운전자들은 지지의 표시로 경적을 울려댔다. 경찰은 시위대에게 최루가스를 퍼부었다. 시위대는 골목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모였다. 상점 주인들은 셔터를 내렸지만, 가스를 피해 도망치는 낙오자들을 위해 셔터를 올려줬다. 전투 대열은 계속 변했다. 시가전의 소동은 모든 곳에서 벌어졌다. 주먹만한 보도블럭 조각들이 주요 도로에 깔려 깔려있었다. 그러나 질서는 있었다. 어떤 가게도 부서지지 않았고, 어떤 차도 뒤집히지 않았고, 아무것도 불타지 않았으며 기적적으로 아무도 죽지 않았다.”²¹⁾

[사진] 학생들이 1987년 6월봉기를 이끌었다. 사진작가 미상

모든 사람의 예상을 넘어 6월 10일 22개 이상의 도시에서 40만명 이상이 시위를 벌였다.²²⁾ 거리에서 벌어진 강력한 투쟁은 심지어 성공회 대성당에 갇혀 있던 국본 지도자들마저 놀라게 했다. 그들을 제거하고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란 소문이 퍼지자, 그들은 성당 내부에 머물기로 표결했지만, 그들을 포위한 5천명의 전투경찰에게 곧 항복했다. 전국적으로 광범한 참여는 경찰이 모든 곳에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아주 희박하게 배치됐음을 의미했다. 성남에서 경찰서장은 과거의 거친 말 때문에 군중들에게 사과해야 했다. 대구에서 버스 한 대에 체포한 시위대가 풀려났다. 부산, 대전, 광주, 전주, 춘천, 수원 등의 도시에서 경찰은 집회장소를 봉쇄했지만, 사람들은 거리에 머물렀고 협박을 거부했다. 그날 밤 경찰은 모두 3,831명

20) Interview with Woo Sang-ho, Im Jong-sok, Kwan Hyok-ki, and Yoon Byong-sam, Seoul, June 4, 2001.

21) Michael Breen, “Democracy Protests,” in Korea Witness: 135 Years of War, Crisis and News i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eds. Donald Kirk and Choe Sang Hun (Seoul: EunHaeng NaMu, 2006), 264-5.

22)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Lost Victory, 105.

을 체포했다. 전부 700명 이상이 심한 부상을 당했고, 두 명의 한국 대학생은 너무나 심하게 구타당해서 뇌수술을 받아야 했다. 경찰은 파출소 3곳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한 곳은 불타다) 차량 5대가 파괴됐다고 보고했다. 이집트와 한국의 축구경기는 최루가스가 경기장으로 날아들자 연기해야 했다.²³⁾

[사진] 서울의 명동성당은 1987년 봉기의 초점이 됐다. 사진작가: 고명진

국본 지도자들이 구속되자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두가지 핵심적 결정을 했다. 날마다 시청으로 돌아올 것과 명동성당을 점거할 것. 6월 10일 전투경찰과 최루가스를 피해 달아난 수백 명이 명동성당에서 피난처를 구했다.

연기가 사라지만, 760명 이상이 성당 구내에 있었다. 학생들이 주도 하면서 그들은 자연발생적으로 농성을 조직했고 여러 주체(노동자, 도시빈민, 중산층과 학생)의 대표자들을 선출했다. 다음 날 350명의 시위자가 명동을 계속 점거하자 명동은 운동의 초점이 됐고, 1968년 5월 파리의 소르본 점거나 해방광주의 도청앞 집회와 비교할 수 있다. 에너지 센터이자 전략 발전의 대중적 포럼으로서, 이중권력이자 모든 공적 상징이 된 명동은 곧 광범한 지지를 끌어모았다. 계엄령과 곧 내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체포에 대한 소문 속에서 사람들은 명동에 머물지 여부에 대해 논쟁을 했다. 그들이 논쟁하는 동안 외부의 지원은 증가했다. 정말로 “산”과 같은 돈과 물품이 점거한 건물로 쏟아졌다.²⁴⁾ 많은 사제들이 논쟁에 참여했고, 휴식 시간에는 결혼식이 열렸다.²⁵⁾ 6월 11일 7개 대학 1천명 학생들이 명동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750명의 전투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지키면서 최소한 301명을 체포했다. 서울대학교의 지하 학생지도자들은 김영수를 성당에 파견했다. 경찰저지선을 피해서 안으로 들어간 그는 각 대학과 시민그룹이 대표자를 뽑아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수는 학생 대표자 중의 하나로 선출됐다.²⁶⁾ 다음 날 상계동 철거민들(집이 부서진 다음 성당 내에서 텐트생활을 하던)이 명동 점거자들과 식사를 나눠먹었고, 인근 계성여고 여학생들이 학교 점심급식을 기부했고, 200명의 수녀와 100명의 사제들이 경찰저지선을 뚫고 들어와 첫 번째 야간 미사를 했다. 그날밤 인근 사무실의 노동자 4천명이 공개적 정치포럼에서 학생들과 만났고 투쟁의 가능성과 이유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했다. 명동 외부에서 전두환 독재의 주요한 지지자보 간주되는 레이건 대통령의 허수아비가 불태워졌다.²⁷⁾ 다음 날 “넥타이 부대”가 처음으로 등장했고 그 이후로 6월봉기의 주요세력 중의 하나가 됐다.

그 날 용감하게 거리로 나선 수만명의 학생들이 없었다면 봉기가 시작됐을지 아주 의심스럽다. 학생들의 용기는 주목할 만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기 조직화 역량은 그들은 다음날 6시에 시청으로 돌아오게 했고, 그 다음날도 그랬다. 국본은 6월 11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지만, 아무도 돌아오란 지침을 내리지 않았어도 학생들은 다음 4일 동안 매일 계속 모였다.²⁸⁾ 매번 40 내지 50명의 학생들이 아주 야만적으로 공격당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마침내 수천명의 보통사람들, 학생들이 “넥타이 부대”라고 부른 사무직 노동자들이 그들에게 합류했다. 학생들이 시위한 곳 근처인 서울의 사무실 건물에 집중돼 있던 그들은 처음에 떨어져 있었다. 며칠간 건물의 바로 외부에서 벌어진 학생과 경찰의 전투를 지켜보다가 그들은 시위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부끄러움 때문이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때문이든, 그들의

23) “Worst Street Protests in Years Rock South Korea,” New York Times, June 11, 1987.

24) Korea Democracy Foundation, Newsletter 20, June 1, 2007.

25) Interview with Kim Young-su, Seoul, March 29, 2009.

26) Interview with Kim Young-su, Ilsan, March 29, 2009.

27) John Burgess, “Police Surround Protesters in Seoul Cathedral,” Washington Post, June 12, 1987.

28) Interview with Hwang In-sung, Seoul, March 29, 2009.

참여는 운동을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다고 생산한 수준을 넘어 새로운 단계로 올려놓았다.

명동 안에서 점거대는 버텼다. 그들은 사복경찰을 막기 위해 비밀 신분증을 발행했고 엄격한 행동규칙을 채택했다(게으름과 개인주의를 거부할 것, 음식기부에 감사할 것, “낮에는 투쟁하고 밤에는 토론할 것” 등). 토요일인 6월 14일 야외집회로 모인 거대한 시민포럼에 수백 명이 사람들이 참석했다. 비록 오후 6시경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 월요일 사람들이 명동 내부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전복적 힘을 즐기자 정부는 모든 사람이 평화적으로 떠나도록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지리한 토론과 세 번의 표결 끝에, 농성단은 119 대 4로 노성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명동성당 미사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 미사 후 비가 그치자 시위대와 신자들은 함께 촛불을 들고 밖으로 나갔고, 그 수자는 모두 1만명에 이르렀다. 전면에서 선 젊은 사람들이 경찰을 밀어내고 길을 만들자 모든 사람들이 경찰 저지선을 통과했다. 텔레비전 중계로 온 나라는 정부가 시위대를 성당에서 추방시키는 데 실패한 모습을 목격했다. 5박6일의 점거 이후에 시위대가 퇴장하자, 시위대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독재에 맞서라고 호소했고, 6월 18일 교회여성연합회 전국시위 호소에 참여했다.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한 명동투쟁의 승리는 6월봉기의 전개에서 결정적 사건이 됐고, 공개적으로 정부에 대항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이 너무나 명백했다. 성당이 소개된 같은 날 59개 대학 9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전국의 거리로 나섰다. 천안, 진주와 최소한 4개의 다른 도시에서 격렬한 전투가 보고됐다.²⁹⁾ 대전에서 1만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수천명의 시민들이 합세했고,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끈 시위대열에 참여했다. 새로 발견한 행동의 자유는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었다. 제주도에서 제주국립대학의 학생회가 1948년 학살자를 위한 최초의 고개 추모제를 열었다.³⁰⁾ 한걸음씩 거리의 운동은 보통시민들이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확대하고 있었다.

제주와 광주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보다 자유롭게 견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에서 학생들은 더욱 더 과감해졌다. 4명 내지 7명의 조로 조직한 학생들은 경찰이 가장 취약한 곳에 결집했고, 경찰이 밀집하면 조별로 흩어져 경찰은 시위대가 모이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³¹⁾ 캠퍼스에서 학생들은 포스트 협의회를 조직했고 이들은 모든 캠퍼스에서 지도부의 위치에 있는 노련한 활동가들로 구성됐다. 연세대학교서 학생들은 엄청난 양의 최루가스를 사용한 경찰과의 육탄전에서 화염병과 돌을 던졌다.

시위는 다음 날에도 계속됐다. 한 시점에 5천명 이상의 사무직 노동자, 상점주인, 산책하던 사람들이 명동 근처에서 자연발생적 집회를 열었다. 열정적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그들은 손을 흔들면서 근처 사무실 건물에서 꽃을 던졌다. 갑자기 경찰이 공격했다. <뉴욕타임스> 기자 클라이즈 하버먼은 한 늙은 여인이 경찰의 무례함에 화를 내면서 수첩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정부는 여름방학 2,3주 전에 50개 주요대학을 폐쇄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도록 자극했을 뿐이었다.

29) Clyde Haberman, “Street Protests by South Koreans Resume and Grow,” New York Times, June 17, 1987.

30) Chang-sung Hyun, Young-hee Cho, Chan-sik Park, Seok-ji Hahn, and Chang-hoon Ko, “The Resistance of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s Countermeasures: The Historical Flow and Significance of Case Studies from 1,000 Years in Cheju,” Journal of Island Studies 3, no. 1 (Spring/Summer 2000): 27.

31) Chung, “Structure, Culture, and Mobilization,” 137-8.

6월 16일 <뉴욕타임스>는 레이건 행정부가 “남한정부에 대한 얼마나 많은 수단을 가졌는지와 그 수단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보도했다. 국제문제 담당 국무차관 리처드 아미티지는 변화에 대한 관심부족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외교언어를 사용하면서 말했다. “솔직히 우리는 정말로 바쁘다. 쿠웨이트와 콘트라, 일상적 업무의 압박으로 꼼짝 못하고 있다.”³²⁾ 백악관이 한 고위관리는 대통령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가두시위가 한국을 민주주의로 이끌고 갈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나서기를 꺼려한다”고 설명했다.³³⁾

[사진] 1987년 6월 여학생들은 용감하게 독재와 싸웠다. 사진작가: 김명진

6월 17일 70개 대학의 5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다. 부산에서 학생 350명이 카톨릭 센터 안에 갇혔다. 다른 행진대가 그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밀집한 전투경찰에게 막혔다. 밤 10시경 투쟁이 계속되자 최소한 3만명이 시위를 벌였고 그들은 여러시간 동안 미국 영사관 주변을 거리를 봉쇄했다. 자정에는 약 3백대의 택시가 1만명의 촛불 행진대를 이끌었다. 진주 역시 전투의 장소가 됐다. UPI는 진주의 시위대가 버스를 불태우고 유조트럭을 탈취했다고 보도했다. 자욱한 최루가스 뒤로 경찰은 트럭을 되찾았지만, 3백명의 학생들은 경찰이 쫓아낼 때까지 기차를 탈취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전의 주요도로가 전쟁지대가 됐다”고 선언했다.³⁴⁾ 한 여성은 경찰이 공격하기 전에 시민들이 담배와 음료수, 김밥을 학생들에게 던졌다고 보고했다. 그녀는 논평했다. “전에 사람들은 학생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지난 며칠 동안 분위기가 변했다.”

6월 18일: 전두환의 군대동원 준비

지도부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국본은 전국적 동원을 호소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 대신 여노회에서 기독교 여성단체까지 광범한 스펙트럼으로 이뤄진 여성단체의 광범한 연합이 6월 18일을 전국적 “최루탄 추방의 날”로 호소했다. 그들은 최루가스의 유해한 영향을 상세히 다루는 신중한 정보자료를 준비했고, 전투경찰에게 붉은 꽃을 달아줬고 경찰에게 최루탄을 쏘지 말라고 부탁하는 리본을 사람들에게 달아줬다. 6월 18일 1백만명 이상이 한국 전역의 16개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다. 6월에 세 번이나 전국시위를 호소했다. 6월 10일과 18일, 26일인데, 매번 운동단체들은 1백만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보고했다. 비록 이 날 시위는 평화적으로 시작했지만, 경찰이 시위대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두전투가 폭발했다. 전체적으로 16개 도시의 247건의 시위에서 1,487명이 체포됐지만,³⁵⁾ 이 날 투쟁은 전환점에 도달했고 경찰은 더 이상 군중을 통제할 수 없었다. <뉴욕타임스>는 “서울 도심은 전쟁지대처럼 보였다. 수만명의 시위대가 거리를 통제했고 최루탄이 떨어진 전투경찰의 모든 부대를 압도했다”고 보도했다.³⁶⁾ 대전에서는 한 시위자가 버스를 경찰저지선으로 몰고가서 경찰관 한명이 사망했다. 부산도 다른 도시처럼 시민들이 단순히 집에 가길 거부했다. 그들은 경찰과 싸우면서 대치했고 때로는 경찰을 이기기도 했다. 오후 7시경 부산에서 약 30만명의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모였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약 4킬로미터의 도로를 뒤덮었다. 경찰은 공격했고 너무나도 많은 양의 최루탄을 쏘서 곧 물량이 떨어졌다. 사람들은 경찰이 과도한 대응에 대해 보복했다. 서울처럼 사람들은 전투경찰을 무장해제시켜 그들의

32) Elaine Sciolino, “U.S. Will Not Press Korean Initiative,” New York Times, June 16, 1987, A1.

33) Ibid.

34) John Burgess, “S. Korean Protests Grow in Provincial Cities,” Washington Post, June 18, 1987, A25.

35) Chulhee Chung, “Social Movement Organization and the June Uprising,” in Korean Politics: Striving for Democracy and Unification, ed.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Elizabeth, NJ: Hollym, 2002), 235.

36) Clyde Haberman, “Fury and turmoil: Days that Shook Korea,” New York Times, July 6, 1987, 6.

보호장비와 최루탄 발사기를 불태웠다. 최소한 12곳의 경찰서가 공격을 받았고, 전투경찰을 수송하는 3대의 버스를 포함한 수많은 경찰차량이 불태워졌다. 부산역 주변에서 전투가 격화되자, 시민들은 10대의 트럭을 몰고 왔다. 2백대의 택시를 앞세우고 그들은 수천대의 차량 대열로 시청으로 운전해 나갔다. 시위는 밤새도록 계속됐고, 택시 기사들은 격렬한 전투가 발생하면 휘발유를 사용해 화염병을 만들었다. 새벽녘 택시 기사들은 시위대를 경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기 차를 거리에 줄지어 세웠다.³⁷⁾

시위대가 가두에서 승리하자 전두환은 분명히 경악했다. 그는 육해공군에 동원준비를 명령했고 계엄령을 시행할 계획을 검토했다. 6월 10일부터 집권당은 시위를 “기본질서의 명백한 위반”이란 딱지를 붙였고 공개적으로 계엄령의 가능성을 암시했다. 미국대사 릴리는 처음에 기자들에게 그는 노태우를 지명하는 민정당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참석했고, 전두환의 노태우 승계 시나리오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분명히 공개적으로 밝히는 조치였다. 6월 15일 이제 전두환을 승계할 독재정권의 공식 후보가 된 노태우는 집권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국가의 근간을 뿌리에서 흔드는 폭력시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³⁸⁾

다른 쪽에서 시위대는 조용히 하길 거부했다. 최정운이 지적했듯이, 일단 광주시민들이 학살당한 다음 규칙이 변했다. 어떤 희생도 비교해보면 작게 보였기 때문이다. “봉기 이전에 대학생들의 시위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군대가 들어오면 끝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그런 관행은 봉기 이후 결코 반복될 수 없었다. 비록 더 강력하고 더 야만적인 군대가 들어오더라도, 학생들과 민중,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군대와 싸우려고 최소한 군대가 손쉬운 승리를 거두도록 용납하지 않았다. 이런 예상은 1987년 남한의 민주화운동을 이끄는 결정적 요소로 작동했다.”³⁹⁾

미국의 최고위 관리들도 명백히 우려했다. 한 보고는 전두환이 군대에 서울로 진군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두환은 군대 내부의 반대와 미국의 압력 때문에 명령을 취소했다.⁴⁰⁾ 6월 18일 레이건은 전두환에게 군대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는 야당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다음 날 오후 4시30분 군대가 배치되기로 예정된 불과 몇 시간 전에 전두환은 동원계획을 보류했다.⁴¹⁾ 1998년 동조적인 분석가와 자택에서 한 인터뷰에서 전두환은 레이건의 편지와 6월 19일 미국대사 릴리와 가진 개인적 만남에서 분명한 미국의 압력이 군부대를 도시지역에 배치하라는 명령을 취소한 주요 이유였다고 주장했다.⁴²⁾ 전두환과의 만남에서 릴리는 계엄령이 또다른 광주봉기를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⁴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6월 19일 밤 간판 국무총리 이한기에게 무선으로 시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특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은 전두환이 군대를 동원하면 자신의 군대에게 불명예스럽게 퇴진당할까봐 우려했다.⁴⁴⁾

37) Interview with Kim Jae-kyu, Busan, May 31, 2001.

38)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Lost Victory*, 107.

39) Choi, *The Gwangju Uprising*, 284.

40) Cheng and Kim, “Making Democracy,” 142.

41) Kim Yong-cheol, “The Kwangju Uprising and Demilitarization of Korean Politics,” in 5-8관련 논문과 작품 영역 및 저술 사업: 2001. 5-8 20주년 기념 학술연구사업 연구소위 (Gwangju: 전남대학교 5-8 연구소: 2001).

42) See Jung-kwan Cho, “The Kwangju Uprising as a Vehicle of Democratization,” in *Contentious Kwangju: The May 18 Uprising in Korea’s Past and Present*, ed. Gi-Wook Shin and Kyung Moon Hwang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2003), 76-7.

43) Chae-Jin Lee, *A Troubled Peace: U.S. Policy and the Two Korea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6), 124.

주류 역사가 윌리엄 스투엑은 “최고 계급 이하에서 전두환에 대한 군대의 충성은 의심스러웠다”고 믿는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미국이 전두환에게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군대를 사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는 데 실패하면 미국은 사실상 더 많은 위험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⁴⁵⁾

비록 그 당시에 전두환도 몰랐지만, 심지어 전두환 정권의 엘리트 중 다수도 군사적 해결책이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⁴⁶⁾ 경찰총장 권복경은 경찰이 시위대에 수적으로 밀렸고 거리에서 자주 패배했기 때문에 군대의 사용을 선호했을 것이라고 추정됐다. 그는 나중에 회상했다. “만약 군대가 개입했다면 유혈사태가 예상됐다. 군당국이 시민들을 돕기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했다. 어느쪽이든 부정부상태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끝까지 경찰에 의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⁴⁷⁾ 비록 일부 장군들이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대사용을 선호했을지라도, 국가안보 사령관을 포함한 다른 장군들은 강력한 반대를 표했다. 심지어 전두환 자신도 나중에 쿠데타에 대해 우려했었다고 보고했다. 6월 27일 전두환은 언급했다. “우리가 군사력에 의존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쉬웠겠지만, 만약 군당국이 나오면 항상 쿠데타의 위험은 있다.”⁴⁸⁾

1968년 5월 프랑스에서 드골이 “이해불가”(insaisissable)라고 한 것처럼, 상황은 통제는 말할 것도 없이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수십만명의 비무장 시민들이 도제를 통제하는 가운데, 군사의 개입이나 외부세력(즉 남한의 미군)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됐고, 심지어 최고 군장성들의 생각도 그랬다. 명백히 에로스 효과의 순간에 심지어 군지휘부도 사랑의 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두환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에 호소할까 우려한 미국부무 차관 마이클 더윈스키가 6월 20일 서울에 도착했다. 미국의 우려를 강조하기 위해 레이건은 6월 22일 개스톤 시거를 특사를 두 번째로 파견했다. 다음 날 시거는 전두환에게 명확한 어조로 미국은 1980년처럼 군사적 탄압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했다. 명백하게 6월 18일 투쟁은 새로운 지평에 도달했다. 다음 몇일 안에 경찰은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만을 했고 그 대신에 평화를 호소했다. 처음으로 사람들은 대규모 투쟁을 통해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6월 19일 약 79개 대학의 46,000명 학생들이 225곳에 동원했고 최소한 31개 파출소를 공격해서 파괴했다. 6월 20일 대규모 불교승려 시위대가 서울에 평화적으로 행진하는 것을 저지당했지만, 그들이 해산하자 수천명이 그들에게 가담해 “양키 고 홈”와 “전두환 타도!”를 외쳤다.

80명의 학생이 시장으로 피해가자, 약 1,500명이 함께 앉아서 자연발생적 포럼을 만들었다. 광주에서 20만명 이상이 거리로 나섰고, 밤 10시에 8만명 이상이 남아 있었고, 자정에도 여전히 최소한 2만명이 있었다. 전주, 대전, 인천에서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킬 수 없었고, 수천명이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 행동을 기획하기 위해 임시 가두포럼을 열었다. 전주, 대구, 인천에서 수천명이 시위를 벌였다. 토요일인 6월 21일 광주의 시위는 계속됐다. 처음에 최소한 1만명이 모였지만, 수자는 최소한 세배로 늘었고 택시기사들은 시내를 관통해서 심야행진을 이끌었다.

44) Essays, 88 (see chap. 5, n. 102).

45) William Stueck, “Remembering the Kwangju Incident,” *Diplomatic History* (Winter 2002): 157.

46) Cho, “The Kwangju Uprising,” 75. Besides interviewing Chun in his home, Cho met with sixty former members of the regime elite in 1996.

47) 기록해설 金聲翊 월간조선 1989년 12월호 p 115. 군 3개 사단을 투입하라. 權榮基 as quoted in Essays, 88.

48) Kim Sung-ik (월간조선 1992년 1월호, 386. 전두환, 역사를 위한 육성증언) as quoted in Essays, 88.

이 시기에 사람들은 상황을 낙관하고 운동이 거리를 통제하면서 국본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핵심 조직가들은 NCC 건물의 사무실에 2주 이상 동안 갇혀있었고, 거기에서 그들은 외신과 경찰에 포위돼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전략토론은 힘들에게 은밀한 공간에서 논의해야 했다. 사무실을 자주 방문한 김영삼은 계엄령이 선포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시위에 강력하게 반대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대로 자기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겠다고 주장했다.⁴⁹⁾ 민주화 운동에 연계가 있었던 김영삼은 1983년 23일간 단식을 했었고 오랫동안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었다.⁵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활동가들은 운동이 심지어 계엄령을 패배시킬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고 확신했다. 약 20여명의 심야 회의에서 국본지도자들은 정부가 네가지 기본 요구를 수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6월 26일 “국민 평화대행진”을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네가지 요구는 다음과 같았다.

1. 헌법개정을 중단시킨 4.13 호헌조치의 철회
2. 모든 정치적 양심수의 석방
3. 집회, 시위, 언론 자유의 보장
4. 최루탄 사용 중단⁵¹⁾

[사진] 불교신자들은 1987년 6월 봉기에 참여했다. 사진작가: 고명진

6월 22일 개신교 목사들은 전국적인 구국기도회를 열었다. 예배 후 수천명의 사람들이 촛불 행진을 벌였고 경찰저지선을 뚫었다. 많은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6월 23일 새로운 상황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허용되자 전대협 주최로 서울 연세대학교의 야외 무대에서 2만명이 모였다. 이 직접민주주의 포럼은 정부가 모임을 중단시킬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전략토론의 중심무대가 됐다. 지도부는 운동의 미래 방향에 대한 논쟁을 조율하지 않고 토론을 관리했다. 발언자들은 미국 제국주의를 비난했고,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했고, 사람들은 6월 26일 전국동원을 승인했다. 사적으로 학생 지도자들은 서울의 동원 에너지가 쇠퇴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의 동원은 전투성과 사기에 있어 상승하고 있다고 믿었다.⁵²⁾

다음 날 김영삼과 전두환은 은밀히 만나서 지속적 대치를 해결하기 위한 타협을 도출하려 시도했다. 만나기 전에 김영삼은 공개적으로 6월 26일 동원에 반대했지만, 전두환이 타협의 거부한 이후 국본의 행동호소에 동참했고 가택연금 중이던 김대중도 동참했다. <타임>지는 같은 날 “군중들이 파출소 17곳, 민정당 지구당사 2곳, 국영 KBS 건물 2곳을 포위했다”고 보도했다.⁵³⁾

6월 26일: 대결전

6월 25일 밤 한국의 미래는 마침내 민중의 손에 들어갔다. 정치 엘리트의 타협실패로 주도권은 정면으로 보통시민들의 등뒤로 넘어왔고,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다. 정부가 시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되풀이해서 계엄령의 가능성을 암시하자, 사람들은 또 다시 민주주

49) Interview with In Myung-jin, Seoul, March 29, 2009.

50) Edwin Q. White, “Into the 80s,” in *Korea Witness: 135 Years of War, Crisis and News i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eds. Donald Kirk and Choe Sang Hun (Seoul: EunHaeng NaMu, 2006), 285.

51)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Lost Victory*, 110.

52) Interview with Lee Nam-ju, Seoul, March 27, 2009.

53) William R. Doerner, “Under Siege,” *Time*, June 29, 1987.

의를 위해 목숨과 육신의 위험을 무릅쓸 것인가? 그들을 막기 위해 경찰과 군대가 동원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날 밤 아무도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놀라운 6월봉기 동안 세 번째로 전국적 동원으로 1백만명 이상이 거리로 나섰다. 사실 국본 조직가들은 34개 시와 4개 군에서 2백만명 이상으로 집계했다.⁵⁴⁾ 김동춘은 6월 26일 270곳의 1,400,000명의 시위대로 집계했다.⁵⁵⁾ 전국적으로 100,000명의 전투경찰이 집회 지점을 봉쇄했지만, 군대를 예외로 한 상태에 정권의 모든 억압적 권력을 총동원했어도 민주적 정부체제를 갖겠다는 한국민중의 결의에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비록 서울의 공식 국본 행사가 수만명의 전투경찰과 대량의 최루탄으로 봉쇄됐지만, 250,000명 이상이 서울역 근처에 모였고 세 시간 넘게 경찰근봉에 맞서 싸웠다. 명동 근처에서도 100,000명이 거리로 나섰다. 우상호가 말한대로, “우리는 거리를 통제했고 우리의 자유로운 공간에서 코뮌처럼 많은 토론을 했다.

광주는 1980년 이래 최대의 시위를 벌였다. 약 200,000명이 5 시간 동안 수천명의 경찰에 맞서 싸웠고, 집회를 열기 위해 민주광장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했다. 부사는 다시 한번 심각한 대치의 장이 됐다. 수원, 목포와 여수에서 군중은 경찰보다 수자가 많았고 평화적 집회를 조직할 수 있었다. 전주에서 시위대 수자는 10만명을 넘었고, 성남에서도 40,000명 이상이 모였고, 진주에서도 20,000명이 나왔다. 일부 사람들이 일반화된 전국적 봉기라고 묘사한 투쟁에서 사람들은 거리를 통제했고, 대구, 전주, 춘천, 인천, 대전에 주요한 동원이 이뤄졌다. 저국의 모든 대도시는 최루탄 구름으로 채워졌고, 수많은 중소도시도 마찬가지였다. 밤새도록 소그림들이 지속적으로 재집결했고 거리를 통제하기 위해 경찰과 싸웠다. 많은 곳에서 경찰은 수적으로 열세였고 집회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3,467명이 체포됐고 그 중에서 서울은 2,139명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다. 엄청난 양의 최루탄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집에 가길 거부했다. 표 9.3에 지적된 것처럼 정부는 6월 동안 670,000발 이상의 최루탄을 발사했다.

[표 9.3] 1987년 최루탄 발사량

지역	개수
서울	266,652
전남(주로 광주)	95,675
부산	64,830
충남	42,498
경기	38,513
대구	35,078
전북	31,415
합계(타지역 포함)	673,588

Source: Figures provided to Representative Yong-gwon Lee, 1988 and reported in Chulhee Chung, “Structure, Culture, and Mobilization,” (PhD dissertation, SUNY Buffalo, 1994), 250. See also Chulhee Chung, “Social Movement Organization and the June Uprising,” in *Korean Politics: Striving for Democracy and Unification*, ed.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Elizabeth, NJ: Hollym, 2002), 236.

54)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Lost Victory*, 113.

55) Kim Dong-choon,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the June Uprising,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History of the 5.18 Democratic Uprising*, vol. 2, ed. May 18th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Gwangju City (Gwangju: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2008), 630.

경찰이 사용한 최루탄의 양으로 판단하면 시위는 서울, 광주, 부산에서 가장 격렬했다.

6월 27일과 28일 시위가 계속되자, 상황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6월 28일 “시민소요에 대한 IOC의 우려를 표현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편지가 한국에 전달됐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⁵⁶⁾ 서울 올림픽이 1988년 여름에 열릴 예정이었기에, 정책입안자들은 올림픽을 다른 나라로 옮겨 개최해야 할지 모른다고 초조해했고, 베를린,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 여러 도시는 새로운 개최지로서 제안을 했다.⁵⁷⁾ IOC 부위원장인 캐나다 리처드 파운드는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여러분은 1968년 북아메리카와 프랑스, 일본이 1970년대 초반에 경험했던 종류의 격동을 보고 있다. 단지 그것이 손에서 벗어나지 않기만을 희망한다.”⁵⁸⁾ 많은 사람들은 전두환의 권력장악이 너무 강력해서 꺾 수 없고 tdnl가 몇단동안 계속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6월 29일 〈타임〉지는 “비록 피플파워가 남한에서 곧바로 승리하지 못한다고 해도, 결코 아주 높은 적이 없었던 전두환 정권의 인기는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군부의 6월 29일 굴복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도 6월 29일 노태우는 정부를 대표해서 결정적인 선언을 발표했고, 그 선언에서 국본의 요구에 굴복했다. 그는 집권당이 직접선거를 허용하는 대통령선거법 개정, 언론의 자유, 기본인권의 증진, 수많은 정치범의 석방(공산주의자는 제외), 김대중 등의 시민권 회복, 대학의 자율, 지방자치의 도입 등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비록 노동권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명백히 커다란 승리를 쟁취했다. 6월 26일의 대결전으로 전두환과 노태우는 단순히 민주주의에 대한 민중의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기습적 선언에 놀란 운동권 활동가들은 승리에 충격을 받았다. 인터뷰에서 그들 모두 광주가 어떻게 유혈사태로 끝났고 6월봉기도 비슷한 방식으로 끝날 거라고 예상했었다고 말했다. 비록 수년간 전두환에 반대해 투쟁을 조직했지만, 그들은 운동의 승리에 가장 많이 놀랐던 사람들에 속했다. 명백하게 독재는 광주 민중봉기에서 만약 다시 한번 민간인들에게 군대를 사용하면 그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교훈을 끌어냈다.

노태우의 6월 29일 선언이 많은 약속을 했지만, 그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많은 정치범은 여전히 구금 중이었고, 선거는 아직 멀었다. 7월 4일 2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한 직접민주주의 포럼이 연세대학에서 모였다. 자유론에서 수십명의 발언자들은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했지만, 이 그룹은 미래의 행동을 위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할 수 없었다. 경찰에 수배중이었지만, 서울대 학생회장 이남주가 회의의 사회를 봤다. 그의 견해로 “우리는 운동의 미래 방향을 논할 그런 집회를 조직한 경험이 없었다. 그 이전에 우리는 거리로 나갔을 뿐이다. 우리는 집회를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⁵⁹⁾ 운동 지도자들이 미래의 동원을 조직할 수 없었음에도, 보통사람들의 자연발생적 행동은 아무리 많은 “지도자들”을 그들이 체포하더라도 군부가 운동을 통제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들로선, 자연발생적으로 시위했고, 체포와 부상, 가능한 평생의 지옥같은 부정적 결과의 위험을 무릅썼던 사람들은 한국 시민사회에서 최상의 것을 체화했다. 노태우의 굴복 이후 1주일도 안된 6월 5일 봉기 전기간 동안 의식불명이었던 이한열이 사망했다. 이한열은 민중을 위해 희생한 고

56) James F. Larsen and Heung-Soo Park, *Global Television and the Politics of the Seoul Olympics*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3), 161.

57)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Lost Victory*, 160.

58) George Vescey, “Thinking About Plan B,” *New York Times*, June 24, 1987, D31.

59) Interview with Lee Nam-ju, Seoul, March 27, 2009.

결한 젊음을 상징하게 됐다. 다음 날 석방된 죄수 중에는 국본 지도자 오충일도 있었다. 그는 7월 9일 서울에서 열린 이한열의 장례식에 1백만명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참여했다. (일부는 그 두배라고 추산했다. 오충일은 이한열에 대한 찬사를 통해 그를 자기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예수에 비교했다. 춤꾼 이애주가 장례식에 사머니즘적 의례를 추가했다.

[사진] 서울의 이한열 장례식에 1백만명 이상이 참석했다. 사진작가 미상

거대한 군중이 청와대로 행진할까 두려워한 경찰은 최루탄을 연이어 발사했고, 한 달전 국본 지도자들이 봉기의 개시를 호소했던 장소인 성공회 대성당에서 광란의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의 행동은 아직 투쟁이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광주로의 장례행진을 따라 이한열은 고향으로 향했고, 거기서 그는 망월동 묘지에 묻혔다.

엘리트 주도의 민주화 이행?

6월 19에 이르는 동안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야당에게 “질서정연한” 이행의 지혜를 설득하고 헌법개정을 자제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민중이 완강하게 거리에 머물자 미국은 입장을 바꿨다. 쓸모없어진 일군의 다른 독재자들(디엠에서 노리에가까지)에게 그런 것처럼, 워싱턴 관리들은 미국의 투자가 위협받느니 전두환을 퇴장시키기로 선택했다. 김대중과 김영삼이 계속 공개적으로 반민주의에 반대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유선거는 미국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1980년 미국의 광주봉기 진압 재가와 필리핀(1986년)과 한국(1987년)에서 민주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 사이에서, 정책상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획기적 변화에 대한 설명은 풍부하다.

미국의 인권 의제를 윤리적-도덕적 관심의 각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군부와 전두환의 광주진압에 대한 미국이 지지(단지 부분적 목록만을 언급해도)를 무시하는 이상주의적 설명이다. 정책변화에 대한 보다 현실주의적 평가는 미국의 이익에 대한 인식변화라기보다 그런 이익을 최대할 수 있는 조건의 변화이다. 전두환의 광주봉기 진압에 대한 미국측 지지의 쓴 열매인 남한의 반민주의는 워싱턴의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미국투자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했다. 미국 인권옹호자들의 자주 숨겨진 의제는 바로 경제적 이익이다. 1980년과 1987년 사이에 미국 은행들은 남한에 상당한 투자를 했고 만약 전국적 봉기로 급진적 정권이 권력을 잡으면 그 투자는 위협해질 것이다. 남한에서 사회혁명의 현실성을 두려워해서 미국의 정책이 변화했다. 만약 한국이 장기간의 시위와 불안, 또는 더 나쁘게 군부쿠데타와 내전에 들어간다면 미국의 막대한 투자는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경영진은 한국 시장과 금융자원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 우호적인 투자환경과 안정적인 정치상황을 필요로 했다.

필리핀에서 피플파워의 대변인이자 한국독재의 비판자인 미국 하원의원 스티븐 솔라즈는 미국 은행가들이 아시아에서 육중한 투장에 대한 더 낮은 위험을 보장하도록 도왔다. 1987년 5월 17일 솔라즈는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썼다. “우리 두 나라 사이에서 200억 달러의 교역이 이뤄지고 있고 남한은 우리의 7번째 교역 파트너이다. 남한은 간단히 말해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전두환 정부와 야당 사이에 협상을 재개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그런 대화를 통해서만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고 정치안정, 지속적 경제성장과 평화유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87년 위기 동안 미국 상원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진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제재를 추구할 S.R 1391 법안을 도입했다.

칠레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의 공고화 이전에 미국은지역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토착적 통제를 추구하는 반정부 운동을 진압할 강력한 독재를 필요로 했다. 일단 이 과정이 이뤄지고 수십억 달러의 기업투자가 이뤄진 다음, 축적체제를 타도할 급진적 운동의 등장 가능성은 실제로 독재에 의해 더욱 높아졌다. 한 때 미국의 가장 친구였던 군부 통치자들은 미국기업과 은행들의 경제적 투자에 대한 위협이 됐고, 군부독재 아래서 확보한 높은 수익성을 거둔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축적체제로의 이행이 필요했다. 1987년 전두환에 대한 전국적 봉기가 한국의 급진적 변화로 귀결할까봐 두려워한 미국은 전두환 없는 쪽으로 움직였다.

다음 해 자칭 광주진압의 “핵심 기관원”인 리처드 홀브룩은 삼자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에 보고했다. “삼자위원회 국가들은 동아시아 국가의 성공적인 정치적 진화에서 분명하고 실질적인 이해를 갖는다. 그런 정치적 진화가 없으면 앞으로 20년간 지난 20년간 대부분처럼 경제적 진보가 지속될 수 없다. 이것은 다음 10년간 이 지역의 중심적 과제이다. 정치구조와 기관들은 경제성장이 제공한 완충장치가 침식하기 전에 지역의 경제적 성취를 따라잡아야 한다.”⁶⁰⁾ 홀브룩의 견해로 만약 6월 전두환과 노태우가 야당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봉쇄된 진화는 당연히 혼란이나 혁명에 문을 크게 열어둘 것”이었다.⁶¹⁾

금융적 규제완화와 무역자유화는 칠레와 터키, 남한에서 강제된 과거 군부독재 시기에 미국의 정책목표 중에서 최우선이었다. 광주의 경우 정치적 자유화는 거부됐지만, 심지어 수백명이 학살된 봉기의 와중에도 경제 자유화는 심하게 추진됐다. 광주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한국의 개발국가로부터 기업의 성장과 경제적 축적을 통제하는 힘을 박탈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전지구적 경제에 대한 재벌의 연계는 강화됐다. 경제 엘리트들이 경제를 통제할 능력을 상실하자, 민중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경제적 지위도 상실했다. 재벌은 전두환 정책의 주요한 수혜자였고, 따라서 그들은 민주화를 지지하지 않았다. 남한의 정치 엘리트나 재벌 수장들도 나라를 앞으로 이끌고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1980년부터 일찍이 머스키는 전두환 체제의 취약성을 인식했었다. “이런처럼 우리는 군대의 사용, 대중적 정치, 종교, 지적 지도자들의 체포와 심한 언론검열을 통해 정당성을 강제해야 하는 어떤 정부도 내적으로 불안정 정부일 것임을 배우고 있다.”⁶²⁾ 1987년까지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소모사(1979년 축출), 팔레비 국왕(1979년 축출), 뒤발리에(1979년 축출), 마르코스(1986년 축출) 또는 전두환보다 형식적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든 아니든 급적 운동에 대해 더 강력한 요새를 제공한다는 것을 잘 이해했다. 새뮤얼 헌팅턴의 흑백 세계에서는 “1980년대 초반까지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편협한 기반의 권위주의 체제보다는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 맞선 더 나은 보루라는 교훈을 흡수했다.”⁶³⁾ 같은 시기에 키진저는 IMF 정책이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소동으로 이끌고 있다고 우려했다.⁶⁴⁾ 미국은 민중혁명이나 내전도, 지속적 불안이나 야만적 독재로의 회기도 바람직한 대안이 아님을 인식했다. 전두환을 제거하는 것은 가장 희생이 적은 대안이었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로의 이행의 시작은 전두환의 임기 종료 오랜 이후로, 김영상의 1994년 세계화개혁 시기나 금융위기가 동아시아를 강타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

60) Richard Holbrooke, Roderick MacFarquhar and Kazuo Nukazawa, *East Asia in Transition: Challenges for the Trilateral Countries* (New York, Paris, Tokyo: The Trilateral Commission, 1988), 51.

61) *Ibid.*, 5.

62) GDMM X: 46; August 1 letter to Gleysteen.

63) Huntington, *Third Wave*, 284.

64) See Paik Nak-chung, “Trials and Historical Choices of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view with Immanuel Wallerstein, *Creation and Criticism*, December 5, 1998, 7, <http://www.changbi.com/english/related/related15.asp>.

를 통제한 1997년으로 본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의 공고화에 대한 나의 이해는 미국 대사관이 한국의 경제적 궤적을 이해함에 있어 수많은 한국 경제학자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9년에야 존경받는 한국의 경제학자 이창근은 이런 이행을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고 박정희 대통령의 발전모델이 그 유용성을 상실했다면, 확실히 미래의 경제발전을 위해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 한국은 더 이상 상호연결된 국제경제를 무시할 수 없다... 두자리 경제성장의 시대는 지났고,... 유망한 미래를 보증할 명확한 비전은 없다.”⁶⁵⁾ 19년 전에 미국 대사관은 이미 이와 같은 견해를 거의 정확하게 설명했고, 유일한 예외는 미국 정책입안자들이 미래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가졌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가 1980년대 초반 한국에 도착하기 시작했다는 발견은 최소한 한가지 추가적 이유로 중요하다. 이 발견은 미국이 1980년 봉기 동안에는 군사개입을 지지했지만 워싱턴의 정책입안자들이 광주학살 이후 반미주의의 폭발로부터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1987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관습적인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일단 신자유주의 의제가 처음에 전두환의 제5공화국과 함께 시행됐다는 것이 밝혀지만, 1980년 미국이 재가한 종류의 군사개입은 1987년까지 한국에서 축적한 뉴욕 은행과 미국 금융가들의 바로 그 투자를 위협했을 것임이 분명해진다.

반정부운동의 지속적 압력이 없었다면 미국은 “헌법에 따른 평화적 이행”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했을 것이다. 6월 시위가 19일 동안 계속됐다는 사실은 6월 11일과 12일 서울시청 주위로 거리로 되돌아가기로 한 수많은 학생들의 자연발생적 결정 때문이었다. 6월 10일의 첫 시위 이후 그들은 다음 날 ...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광주처럼 학생들이 봉기를 촉발했고, 6월에 사무직 노동자들이 많은 수자로 가담했다. 학생들에게 최루탄 구름이 발사되는 것을 지켜보던 도심의 사무직 건물의 수천명 사람들 사이에서 행동의 불씨를 피우길 희망하면서 학생들은 사무직 노동자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시위를 벌였다. 6월 13일 마침내 많은 노동자들이 가담하자, 가두의 점증하는 시위대에 직면한 정부의 취약성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었다.

국본과 다양한 학생조직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수천명의 보통사람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6월봉기의 첨단을 구성했다. 우리는 이 자율적 행동역량이 지속적으로 봉기에 영감을 줬음을 본다. 명동의 점거에서, 시청으로 돌아가기로 한 학생들의 결정에서, 그리고 YS를 누르고 6월 26일로 나아간 젊은 활동가들 사이에서 자율적 역량은 드러났다. 운동단체들이 혼란에 빠지고 지도자들이 민중의 승리에 놀랐기에 정부는 민중의 분출된 에너지를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기제로 돌림으로써 봉기의 성과를 조작할 수 있었다. 황인성은 많은 주요 활동가들이 나에게 했던 말을 반복했다. “우리는 봉기가 그렇게 빨리 확산될지 몰랐다. 봉기는 우리 예상보다 더 극적으로 발전했고, 정치인들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다.”⁶⁶⁾

6월봉기와 한국의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되돌아 보면서 유명한 카네기 윤리 및 국제문제 위원회는 노태우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에서 핵심인물이라고 결론지었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주동력이라던 사고논리를 따라 이행과정은 인물의 측면에서 분석됐다. 그들만이 아니다. <로스앤젤리스 타임스> 기자 프랭크 기브니는 노태우가 “아주 진지한 민주주의자”라고 썼다. “그는 언젠가 나에게 ‘한국에는 민중의 소망은 신의 뜻이란 오랜 격언이 있다’고 말했다.”⁶⁷⁾ (노태우의 첩보요원들이 분명히 그에게 민중신학 유인물을 보였었고, 거기에서 그는

65) Lee Chan-keun “Korean Economy in Era of Globalization,” Korea Focus (March-April 1999): 92-.

66) Interview with Hwang In-sung, Seoul, March 29, 2009.

“민중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란 슬로건을 바꿔 말했다.) 한국의 민주화 이행이 “엘리트 주도”라는 미국 엘리트 정책입안자들 사이에 널리 퍼진 잘못된 개념은 전두환 정권을 중국공산당 전제군주들보다 우월한 온건한 체제로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며,⁶⁸⁾ 노태우의 실질적 입장은 민주화운동의 적임에도 그를 민주화운동의 참여자로 간주한다.

카네기 보고서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취약했다”고 믿으며, 6월봉기는 말할 것도 없이 광주 봉기도 단지 주변적 중요성만 갖는 것으로 본다. 심지어 <뉴욕타임스>는 6월 29일 노태우의 선언을 묘사하기 위해 “야당의 주요요구에 대한 굴복”이란 표현을 사용하는데,⁶⁹⁾ 카네기 보고서는 다르게 왜곡한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런 변화를 통해 나라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⁷⁰⁾ 1987년 레이건 대통령의 특사로 한국에 왔던 개스턴 시거는 보고서에 논문을 기고했다. 그는 “노태우가 한국을 완전한 민주주의로 인도했고”, “경찰의 권한을 축소했으며”, 그의 정책은 “노동조합의 자유화를 포함했다”고 인정한다.⁷¹⁾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노태우는 노동계급에게 “전쟁”을 선포했고 전두환보다 더 많은 활동가를 체포했으며, 둘다 결국 광주학살에서 자신의 역할 때문에 구속돼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노태우는 유요한 수억달러를 환수해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그를 온건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한국의 민주화가 “엘리트 주도”였다고 확신한다. 그런 전문가들은 사실과 현실을 완전히 뒤섞는다. 그들에게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엄청나게 희생하고 투쟁한 것은 보통사람들이 아니고, “거리 폭동과 매일 최루탄을 막기” 위해 “획기적인 6.29 선언”으로 직선제를 “제한했던” 것이 노태우였다.⁷²⁾ 한국의 민주화 활동가들은 봉기를 호소하지 않았고, 개스턴 시거의 2월 여닐이 “민중봉기에 대한 호소”이자 “미국 외교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다. “6.29 선언은 정치적 자유화를 촉발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폭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필요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⁷³⁾ 미국 사회의 고위층에 그런 천재적 수준의 두뇌가 있는데, 미국이 그렇게 급속하게 쇠퇴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

1995년 전두환과 노태우의 재판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위원회는 미숙한 판단을 했다.⁷⁴⁾ 20년 이후의 시점에서 보면서 전국회의원 김근태는 내가 그들의 진술 일부의 사본을 보여주자 그들의 결론이 결론을 “모욕”으로 간주했다.⁷⁵⁾

시민사회의 역할

카네기 위원회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취약하다고 믿지만, 경험적 역사(이승만을 타도한 4.19 혁명에서 광주와 6월봉기까지는 미국이 강제한 군부독재를 타도함에서 있어 시민사회의 결정적 역할을 드러내준다. 김선혁은 이 점에 대해 아주 명확하다. “시민단체들은 시민사회 내

67) Gibney, *Korea's Quiet Revolution*, 99.

68) See Cho, “The Kwangju Uprising,” 70.

69) Clyde Haberman, “Fury and Turmoil: Days that Shook Korea,” *New York Times*, July 6, 1987, 1.

70) *Ibid.*, 6.

71) Gaston Sigur, “A Historical Perspective on U.S.-Korea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1987-1992,” in *Democracy in Korea: The Roh Tae Woo Years*, ed. Carnegie Council (New York: Carnegie Council on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1992), 9-7.

72) Carnegie Council, ed., *Democracy in Korea: The Roh Tae Woo Years* (New York: Carnegie Council on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1992).

73) *Ibid.*, 47.

74) See *Asia's Unknown Uprisings* Vol. 2, chap. 1 for a critique of Huntington.

75) Interview with Kim Gun-tae, Seoul, August 2, 2008.

에서 민주주의 동맹을 결성하고, 야당과 거대한 연합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아래로부터 ‘민중결기’로 권위주의 체제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민주화의 전과정을 개시하여 지도했다... 시민동원은 극히 중요하며,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계기는 국가로부터가 아니라 반정부 시민사회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왔다.”⁷⁶⁾

차머스 존슨도 비슷하게 이해했다. “61년과 89년 사이의 남한은 냉전이 창출한 최악의 군부 독재자들 중 일부의 통치를 받았다. 마침내 한국인들을 그들을 제거했고 이제 상당히 건강한 민주주의를 갖게 됐다. 그러나 모든 성과는 한국인들에게 돌아간다. 미국인들이 동아시아에서 그들이 행한 좋은 일에 대해 자신을 오도하는 끔찍한 경향이 있다.” 존슨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그것은 “외국 정복자가 주거나(일본처럼) 또는 자유화한 엘리트들이 위에서 부여한(타이완처럼)”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 두나라보다 더 강력할 것이다.⁷⁷⁾

힘들게 쟁취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김근태에게도 커다란 자부심의 원천이었다. 그가 설명한 대로, “6월 봉기 이전에 한국인들은 일본인보다 열등하고 생각됐지만, 그 이후 한국인들은 대등하다고 생각했다. 일본사람들은 눈을 뜨고 우리에게 가진 그들의 우월감을 재고해야 했다. 그 때부터 한국인들은 경제학과 심리학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일본인과 대등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민중에 의해 쟁취된 것이고 따라서 맥아더 독재가 부여한 일본의 민주주의보다 더 심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⁷⁸⁾ 박원순은 한국 시민사회의 힘에 관한 김근태의 생각을 되풀이했고, 한국의 NGO들이 단지 기록을 공개함으로써 부패한 보수정치인들을 선거에 패배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로 많은 일본인 동료들이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나에게 말해줬다.

그들 사이의 차이가 무엇이든 카네기 위원회같은 미국의 자유주의자들과 헌팅턴 같은 보수주의자들은 시민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과소평가를 공유한다. 새뮤얼 헌팅턴과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문제많은 입자를 검토하는 대신에, 카네기 위원회 보고는 한국의 가치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라든가⁷⁹⁾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에 불편해 하며”⁸⁰⁾ “엘리트에게 지배받기를” 원한다는 등의 진술을 포함시켰다.⁸¹⁾ 한국 시민사회의 축소와 한국인의 국민성 비난은 한국에 대한 일부 진보적 설명에서조차 한 세기 동안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한국을 종속시킨 역사의 발자국을 다룬다.

브루스 커밍스에게 민중은 한국민주화의 추동력이었다. 커밍스에게 시민사회는 “1985년 2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다시 약화되기 시작했다.”⁸²⁾ 그레고리 헨더슨처럼 커밍스는 전통적 한국이 강력한 시민사회를 향유하지 못했다고 믿는다. “대한민국에서 강력한 시민사회는 한국현대사의 특별한 격동의 산물이자 선물로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처음으로 등장했다.”⁸³⁾ 시민사회에 대한 커밍스의 이해는 시민사회의 유럽적 이미지를 그 보편적 현상과 착각하며, 특히 시민사회의 자율적이고 개별적인 형태와 서구적 형태의 개념에서 혼동한다. 커밍스는

76) Sunhyuk Kim, “Civic Mobilization for Democratic Reform,” in *Institutional Reform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Korea*, eds. Larry Diamond and Doh Chull Shin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99), 281.

77) Chalmers Johnson,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The Role of Economic Development,” *Korea Under Roh Tae-Woo: Democratization, Northern Policy, and Inter-Korean Relations*, ed. James Cotton (Canberra: Allen and Unwin, 1993), 107.

78) Interview with Kim Gun-tae, August 2, 2008.

79) Donald S. Macdonald, in *Carnegie Council, Democracy in Korea*, 24.

80) Stephen Kirby, in *Carnegie Council, Democracy in Korea*, 75-6.

81) *Ibid.*, 73.

82) Cumings, “Civil Society,” 24.

83) *Ibid.*, 9.

하버마스의 이상적인 언어공동체를 인용하면서, “지식인들은 자의의식적 시민사회의 주요한 담지자”라고 믿지만⁸⁴⁾ 그는 어쩐지 1980년 동안 광주의 한국 지식인이나 서원의 전통적 한국 지식인을 고려하는 데 실패한다. 하버마스처럼 커밍스는 유럽중심주의적 틀에 따라 서구적 개인을 실재화하고 유럽의 역사적 궤적이 모든 사회의 그것을 정의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보편적 범주를 발전시킨다.

시민사회가 민중의 일상적 삶 속의 실질적 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인민대중 사이에 존재한다는 커밍스의 개념에서 그는 정부에 너무나 많은 권력을 부여한다. 박정희의 쿠데타는 “시민사회를 봉쇄”하는 행위였고 “시민사회는 1985년 2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다시 약화되기 시작했다.”⁸⁵⁾ 많은 서구의 민주화 이론가들처럼, 커밍스는 일본이 1945년 이후에 민주화됐고 한국은 1993년 이후에 민주화됐다고 믿는다.⁸⁶⁾ 의회민주주의를 향한 이 두 나라의 경로는 아주 달랐다. 한국에서 시민사회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투쟁이 민주개혁을 쟁취한 것과 달리, 일본은 선거체제가 의로부터 부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밍스는 국가보안법의 지속적 존재 때문에 “한국이 아직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일본 또는 미국 모델에 못 미친다”고 믿지만,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미국의 강한 압력 아래 일본 모델에서 나온 조치였다.⁸⁷⁾ 어떤 의문의 여지 없이 한국의 지속적 분단은 정치 및 경제생활의 많은 측면을 왜곡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국가권력의 도구이며 시민사회의 힘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문화된 법으로 간주하며, 결코 다시 방문하지 않을 과거의 퇴화된 잔재로 본다. 시민사회를 독재자가 봉쇄하거나 선거에서 재각성시킬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는 보통사람들의 일상적 삶에서 거대한 관계망으로 봐야하며, 시정부나 시장의 종속변수가 아니다.

일단 6월투쟁이 승리하자, 투쟁은 다른 영역으로 옮겨갔다.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에 의해 정부 자체의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임금으로 세계 최장시간을 노동을 견뎌야 했던 한국 노동계급이 수천건의 파업을 통해 폭발했다. 6월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의 확대를 쟁취했음에도, 한국의 노동계급은 새로운 권력구도에서 개혁으로부터 배제돼 있었다. 한국에서 민주적 공고화의 과정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손에 광주의 피를 묻힌 군부가 정부를 통제하고 있었고, 공장의 노동자들은 작업복을 입은 채 일상의 가혹한 조건에 분노하고 있었다.

84) Ibid., 17.

85) Ibid., 23-4.

86) Ibid., 22.

87) Ibid., 26.

[번역] 조지 카치아피카스,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1권

조지 카치아피카스, George Katsiaficas,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Asia's Unknown Uprisings,
1권: 20세기 남한의 사회운동 Volume1: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in the 20th Century

10장 노동자대투쟁

6월 봉기의 계급적 성격 | 자주적 노동자 투쟁의 물결 | 재벌기업 내의 봉기 | 아마 - 박노해 | 교훈과 유산

노동자 대투쟁은 폴란드 연대노조(1980-1981년), 이란의 노동자평의회(1979-1981년)과 1978-1981년 브라질의 파업물결 등과 더불어 1980년대 노동계급 투쟁의 최고 에피소드 중의 하나로서 위치한다. 파업물결은 한국전쟁의 종결 이후 거의 연이었던 독재의 기반을 뒤흔들었고, 한국 노동계급의 많은 부문에게 상당한 임금인상을 가져왔고 최소한 말로는 반자본주의에 충실했던 전국노동조합협의회로 짧게나마 급진적 민주노조를 세웠다.

- 로렌 골드너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대개 자연발생적이고 비조직적이고 조정되지 않은 노동분쟁의 폭발을 상징했다... 수천건의 노동분쟁이 체계적 계획이나 전략, 지도부 없이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거대한 노동투쟁을 조정할 수 있던 전국적 또는 지역적 조직은 없었다.... 노동전투성의 폭발은 너무 갑자기, 너무나 대규모로 일어나서 심지어 오랫동안 노동자 동원을 위해 일했던 많은 지식인 노동 활동가들도 당황한 것 같았고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 구해근

일지

1987년 6월 10-19일	6월봉기: 대통령 직선제와 개혁 쟁취
1987년 7월 5일	부상당한 학생 이한열 서울 병원에서 사망
1987년 7월 9일	서울에서 이한열 장례식, 100만명 이상 참가
1987년 7월 10일	전두환 민정당 총재직 사임
1987년 8월 8일	현대 노동자 40,000명 시위
1987년 8월 8일	현대에서 민주노조 협의회 결성
1987년 8월 10일	대우 자동차 노동자 공장식당 점거
1987년 8월 18일	현대 노동자들, 경찰 저지선 뚫고 울산시내로 행진
1987년 8월 18일	95개 대학 3,500명 학생 전대협 결성
1987년 8월 22일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 최루탄에 맞아 사망
1987년 8월 28일	경찰 이석규 장례식에서 시신 탈취, 933명 체포
1987년 8월 28일	하루에 20건의 새 투쟁이 발생하면서 파업물결이 정점에 이름
1987년 9월 2일	노동자들 다시 울산 시청 점거
1987년 9월 29일	정부, 노동자들이 중산층이 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
1987년 11월 27일	마산에서 처음으로 지역협의회 조직됨
1987년 12월 16일	노태우 대선에서 승리, 야당 64퍼센트 득표

어떤 나라도 1987년 한국이 경험한 대규모 불만의 분출을 거의 목격하지 못했다. 6월 29일의 승리가 중요했지만, 시민적 자유의 확대와 대통령 직선제는 노동자들의 일상을 바꾸지 못했고, 노동자들은 빈곤과 단조로운 일의 비참한 조건에 여전히 얽매어 있었다. “넥타이 부대”, 부산의 택시기사들과 도시빈민의 참여는 노동계급이 한국 정치무대에 진입한 가시적 신호였지만, 그들의 6월시위 참여는 곧 전국을 범람시킨 홍수의 단순한 전조였다. 경고 없이 역사상 최대규모의 파업물결이 7월과 8월에 발생했고, 공장노동자들은 한국의 경제지형을 변화시킨 분출의 증핵이 됐다. 수십년간 좌절과 조용한 고통으로 축적되었다가, 반정부 진영의 직선제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지 2주일만에 비공인 파업들이 현기증나는 속도와 지속적 강도로 전국의 대공장들을 폐쇄시켰다. 6월봉기는 대통령 직선제와 정치개혁을 쟁취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서 노동조합운동을 위한 공간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7월과 8월 3천개 이상의 작업장에서 3백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떨쳐 일어나, 실질적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자주적 노동조합을 요구했다. 사전 경고도 없이, 어떤 중앙조직도 없이 비공인 작업중지, 가두투쟁, 공장폐쇄와 행진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다. 10주간의 시기 동안 노동쟁의 수자는 그 이전 10년간 수자의 두 배였다. 6월투쟁에서 훈련되고 민주화운동의 승리에 영감을 받고 지속적 동원으로 보호받은 노동자들은 확대되는 자유에서 자신의 몫을 주장했다. 이 시기에 그들의 자기 조직화 역량은 보통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자신의 필요를 정리해내고 그것이 충족되도록 자주적으로 행동할 역량의 주요한 지표이다.

주류 민주화 이론가들은 일관되게 한국 노동계급의 이 엄청난 전복적 비공인 파업을 6월봉기와 분리시켰고, 연대기적으로 고안된 분리를 만들어냈다.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나눌 때, 민중운동은 중산층 부문과 노동계급 부문으로 나뉘고, 그리하여 사회의 계급적 분열을 반영하고 독재의 분리통치 전략에 말리게 된다. 그런 개념화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물신화하고(전면적 복지보다 투표를 자유의 의미로 간주함으로써), 어떻게 증대된 “민주주의”(투표)가 신자유주의적 궁핍화, 민족종속, 부채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빈곤의 원인은 뉴욕 은행가들과 조지 소로스 같은 투자가들이며, 그들은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전화주머니로 노동자들의 수년간 노동의 열매를 가져간다. 선거체제가 국제 자본가들의 특권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들이 “민주적” 이행을 지지하는 것이 놀라운 일인가?

만약 7월과 8월의 파업반란의 물결을 6월에 거리로 나선 수백만명과 함께 고려하면, 한국의 혁명적 잠재력의 전복적 이미지는 분명해지며, 어떤 이들에게 무시무시한 전망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빛나는 전망이다. 차머스 존슨은 1987년 위기를 “혁명적 상황”으로 봤다.¹⁾ 브루스 커밍스는 우리에게 1987년 6월 “레이건 정부가 이제 본격적 혁명이 체제를 타도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고 말한다.²⁾ 아무도, 심지어 전두환도 6월봉기를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민주화에 대한 주요한 지지는 압도적 수자로 시위에 합류한 “넥타이 부대”에게서 나왔었다. 많은 분석가들이 이 계층의 행동을 경제의 실패에 대한 비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고 부의 급진적 재분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정치적 자유화에 대한 그들의 지지가 경제적 관심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믿는다.³⁾ 가장 급진적인 반정

1) Chalmers Johnson, “South Korean Democratisation: The Role of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Under Roh Tae-Woo: Democratisation, Northern Policy, and Inter-Korean Relations, edited by James Cotton (Canberra: Allen and Unwin, 1993).

2)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388.

3) Haggard and Kaufman, Political Economy, 96.

부 진영은 노동자, 농민과 전라도의 주변화를 증가시켰던 수출과 미국의 지원에 기초한 경제발전계획 전체를 의심했다. 최고의 통찰력을 갖춘 민중은 재벌과 미국기업들 간의 연계를 의심했고, 사실상 이후에 신자유주의, FTA, WTO에 반대하는 남한의 대규모 운동의 씨앗을 뿌렸다.⁴⁾ 1987년 많은 활동가들은 미국의 핵발전소를 거부했고 미군이 철수하길 원했고(그들과 더불어 미국 투자가들을 데려가길) 통일을 주장했다. 단결을 쟁취한 것으로 간주되는 3개월간 봉기의 열망은 한국의 정치제체와 경제관계 모두를 해방적이고 평등주의적 방향으로 철저히 변혁하는 것이었다. 1987년 노동계급 중심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6월봉기를 재검토해야 한다.

6월봉기의 계급적 성격

비록 노조 지도자들이 국본의 가시적 일부가 아니었음에도 노동자들은 6월봉기의 불가결한 부분이였다. 주요한 촉발세력이 학생들이고 가장 가시적으로 유명한 새로운 주체가 “네티아 부대”였지만, 일화들에 의하면 많은 참여자들은 노동자들이 시위에서 중심적이었다고 말했다. 운동의 전면에서 노조 지도자들이 부재한 한가지 이유는 1987년 어용노조 한국노총 지도자들이 정부에 충성했기 때문에 사무실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전두환 독재 아래서 노동조합은 급감했고, 합법적인 독립노조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중요하게 거의 모든 영어권 분석가들은 6월봉기를 중산층 운동으로 분석하며, “네티아 부대”를 노동자로 간주하지 않는데, 이는 의심스런 가정이다. 노동계급 참여 결핍에 대한 주장과 대조적으로, 구해근은 6월 체포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노동자들이라고 집계했고, 대규모 시위에 대한 노동자 참여를 명확하게 가리킨다. “많은 수의 임금노동자들, 화이트칼라 노동자와 상점주의 수자보다 더 많은 수자가 사실 6월의 가두시위에 참여했다.” 구해근은 각주에서 계속 말한다. “이것은 이 시기 동안 체포된 사람들 중에서 최대비율은 비록 많은 수가 건설노동자나 임시직 노동자였지만 노동자들이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그러나 구해근의 정보소스는 단지 한 도시, 경기도 성남시만을 다루며, 단지 매우 짧은 기간, 즉 체포된 사람 대부분의 노동자였는 6월 19일부터 시작된 시기만을 다룬다. 그 당시 성남에는 대학생은 거의 없었고, 한 도시에서 6월 19일 이후 시기는 전국적 6월봉기를 결코 반영하지 않는다.⁵⁾ 더욱이 성남은 생산현장에서 조직사업을 했던 운동권 활동가들의 주요 활동지역이었다.

서울과 광주에서 며칠에 걸친 샘플로 본 체포자 배경은 참여자들의 계급적 배경에 대한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표 10.1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봉기 초기에 서울에서 체포된 사람들의 거의 90퍼센트가 학생이었다. 이 수치는 6월 20일과 21일 광주에서 23퍼센트로 떨어졌고, 이 때 거의 같은 수자의 노동자, 학생, 사업가(상인 포함)과 실업자들이 구금됐다.

[표 10.1] 1987년 6월 서울과 광주의 체포자

직업	서울(6월 10-13일)	광주(6월 20-21일)
학생	171	19
사업가	6	9
노동자	6	4
운동 활동가	2	-
서비스 노동자	3	16
상인	1	9
실업자	4	21

4) Ibid., 94.

5) See Koo, *Korean Workers*, 156. The Korean language source Koo gives is Kim Young-soo, *한국 노동자 계급정치운동* (Seoul: 현장에서 미래를: 1999), 207.

농민	-	1
기타	3	2
합계	196	81

Source: Chulhee Chung, 한국일보 June 13 and 16; 동아일보 June 16.

이 수자들은 전국 총계와 비교하면 매우 낮다. 6월 26일만(독재가 더 지속할 수 없다고 확신하게 한 거대한 시위가 정점에 올랐던 날)도 경찰은 3,467명의 체포를 보고했다. 사람들이 경찰에 체포됐을 때 보고한 직업에 기초한 체포 통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위자의 계급적 배경을 평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니다. 독재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지는 사실대로 말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어떤 사람이 식당 노동자라고 자기 직업을 말하더라도, 그것을 그 사람의 계급적 지위를 밝히기보다 오히려 모호하게 하는 파트타임 지위일 수 있다. 더욱이 경찰은 오후 6시 이후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 사무직 노동자보다는 학생들을 선별적으로 더 체포했을 것이다. 학생들은 공장이나 사무실의 규율에 묶여있던 사람들보다 시위에 참여할 재량 시간이 더 많았다. 그리고 가두행동은 운동참여의 유일한 측면이었다. 체포된 사람들의 직업을 분석하는 통계는 광주를 노동계급 봉기로 분류하는 안정철과 신기욱도 사용했었다.⁶⁾ 광주의 많은 참여자들은 룸펜, 즉 구두담이, 매춘부, 거지, 실업자와 도시빈민이었고, 중산층 편견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범주였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1987년 한국과 같은 대규모 봉기는 붕괴와 재정상화의 시기로 이어진다. 사회운동 이론가들은 자주 그런 후퇴를 “정상적”으로 간주하며, 시위운동의 주기의 일부라고 본다. 하지만 한국에서 민중운동은 1987년 이후 몇 년 동안 고조됐고, 노동조합의 합법화, 시민자유의 확대, 광주에 대한 정의에 초점을 맞췄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결국 그들의 범죄 때문에 감옥에 갔다. 더욱이 제도와 국가-사회의 관계에서도 신속한 변화가 일어났다. 간단히 말해 봉기 이후 전혀 새로운 시대가 이어졌다.

자주적 노동자투쟁의 물결

이한열이 부상으로 사망한 같은 날인 7월 6일 현대 노동자들의 소모임이 울산 디스코에서 모였다. 이 날짜의 동시성은 노동자 봉기와 민주주의 투쟁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됐는지, 그리고 1987년 한국이 혁명적 상황에 얼마나 가까웠는지 가리킨다. 전두환과 노태우의 6.29 항복 이후 1주일 안에 현대에서 최초의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겉으로 보기에 단순하지만 수십년에 걸쳐 형성된 이 노동운동은 사회운동의 중심으로 이동했다. 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이 중심적 요구였지만, 단지 그것만을 원하진 않았다. 그들은 생산관계의 변화, 한국경제의 민주화도 원했다.

6월봉기로 쟁취한 새로운 공간에서 노동자들은 파업이 불법인지 별로 신경쓰지 않았고, 그 대신 우려했던 불만을 다루기 위해 결정적으로 나아갔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새로 발견한 힘을 내세워면서 기업의 절차를 경멸했다. 그들은 관리자들을 인질로 잡았고, 건물을 점거했고 현장에서 새로운 행동규범을 확립했다. 비록 공장일로 겨우 먹고 살았음에도, 노동자들은 단지 임금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복장 및 두발규정, 의무적 아침체조와 무자비한 관리자들과 자의적 권위 등을 포함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노동자들은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대표할 자주적 노동조합을 조직했다. 1년 이내에 700,000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약 4,000개의 신규 노조가 설립됐다.⁷⁾ 4년만에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6년

6) See Jong-chol Ahn, “The Citizens’ Army during the Kwangju Uprising,” in Contentious Kwangju: The May 18th Uprising in Korea’s Past and Present, eds. Gi-Wook Shin and Kyung Moon Hwang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2003); and Shin’s own analysis in the introduction.

1,040,000명에서 1990년 1,980,000명으로 거의 두배가 됐고, 재벌기업에서 조직률은 1986년 38.9퍼센트에서 1989년 72.9퍼센트로 올라갔다. 같은 시기에 단위 노동조합 수자는 2,658개에서 7,861개로 세배로 늘었다.⁸⁾ 실제로 1987년 뜨거운 여름의 이런 투쟁의 종합은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기본권을 위한 자연발생적 총파업이었다.

이 신생 운동에서 지도부는 거의 항상 윤번제였다(때로는 선택에 의한 것이지만, 눈에 띄는 대변인의 체포와 해고는 너무나 흔해서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노동계급의 자기조직화 역량은 한국 사회적 지형에서 놀랍고 지속적 특징이 됐다. 7년전 광주처럼 사람들은 정당이 지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통치할 수 있었다. 노동자들은 수천명의 무장한 적에 맞서 격렬한 투쟁을 수행했고, 명확하고 유려하게 불만을 제기했고, 정치인들의 지도 없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켰다. 경영진과의 지속적인 투쟁을 수행할 도구를 창출할 필요성을 느낀 노동자들은 새로운 노조를 조직했고 이 노조는 노동자들에게 직접 반응했고 그들에 의해 지도됐다.

6월 29일 승리 이후 국본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정치범을 석방시키고 시민권을 부활시키는 것을 자신이 주요한 과제로 봤다. 6월봉기와 노동자 대투쟁이 겹치고 노동자들이 민주주의 운동에 깊이 관여했지만, 많은 운동권 활동가들은 둘을 동일한 투쟁으로 보지 않았다. 모두가 독재의 지속적 권력에 관심을 쏟고 있어서, 도시 중산층은 처음에 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에 무관심했다. 비록 거리에서 패배했지만, 정권은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7월 10일 전두환은 민정당 총재직에서 사퇴했지만, 전두환이 직접 뽑은 후계자이자 협력자인 동료 장군 노태우는 6월 29일 양보연설을 했고 다가오는 선거에 대비해 위치를 잡았다. 9백명의 정치범이 신속하게 석방됐지만, 수천명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다. 내각이 개편되고 군장교들이 재배치됐지만, 정부의 군사적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하게, 시민적 자유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대한 공개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언르노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고위 장성들의 수많은 공개적 성명을 실었다. 널리 퍼진 군부쿠데타에 대한 끈질긴 소문은 희망과 기쁨 속에서 불확실성과 공포의 분위기를 창출했다. 6월 승리의 불안정성은 명백했고, 그 당시 공식적 민주주의로의 이행의 일환으로서 작은 이행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는 이후 수년간 투쟁해야 할 것임을 인식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다.

강찰이 대도시에서 민주화운동에 맞서 임무를 수행하자, 공장노동자들은 과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투쟁의 공간을 발견했다. 압도적 경찰력이 없는 가운데 공장 노동자들은 신속하게 동원했고 6월 29일에서 9월 15일까지 매일 평균 44건의 투쟁을 수행했다.⁹⁾ 이 시기에 정부가 기록한 총 3,492건의 분규 중에서 주요한 집중산업은 제조업(1,802건)과 운수(1,248건)였다. 최소한 342개 공장에서, 그 중 65퍼센트는 1천명 이상을 고용했던 공장에서 투쟁을 경험했다. 8월에만 2,577건의 분규가 기록됐다. 이 급속하게 확대된 “에로스 효과”는 하루에 200건의 새로운 투쟁이 일어난 8월 28일에 정점에 이르러Te. 정부가 노동자들을 고립시켜 탄압하려 나서자, 보다 중요하게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분규를 타결하면서, 공장은 조용해졌다.

주로 서울지역 섬유공장의 여성노동자들로 구성된 1970년대의 노동운동과 달리, 주로 남성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1987년 파업물결의 기원은 울산의 대공장들이었고, 주변지역으로 확산된 이후에 서울에 도달했다. 1987년 평균 11.6퍼센트, 1988년 19.6퍼센트, 1989년 25.3

7) Koo, *Korean Workers*, 161.

8) *Hard Journey*, 249 (see chap. 5 n. 68).

9)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Lost Victory*, 131.

퍼센트의 엄청난 임금인상 외에도 8시간 노동제가 쟁취됐다.¹⁰⁾ 1987년에서 1993년까지 노동 시간은 주당 51.9시간에서 47.5시간으로 감소했다.¹¹⁾ 표 10.2에서 보듯이, 노동자들의 현장투쟁은 압도적으로 경제적 요구를 발생시켰다.

[표 10.2] 노동쟁의 (1987년 1월 1일 ~ 9월 11일)

원인	총건수	작업중지	농성	시위	기타
임금인상	2,448	794	1,583	69	2
노동조건 개선	523	175	342	6	
기타	150	49	100	1	
단체협약	109	44	63	1	1
부당노동행위	39	10	28	1	
임금체불	36	12	15	9	
해고	18	7	10	1	
노동조합비	14	6	8		
폐쇄/사업축소	6	1	5		
합계	3,343	1,098	2,154	88	3

Sources: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Social Justice Indicators in Korea*, 2nd ed. (Seoul: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1988), 119; Ministry of Labor;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Guide for Wage Increase Activity* (1987).

The Wave of Autonomous Worker Actions

이전 수십년 동안 노동운동은 소규모 생산기업의 여성 섬유노동자들 사이에서 가장 강력했다. 조선이나 철강같은 중공업은 노동자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진 지역에 위치시켰다. 재벌은 독립노조에 단호하게 반대했지만, 1987년 비공인 파업의 거대한 물결이 재벌들을 삼켰다.

재벌 내부의 봉기

재벌 내에서 노동조합 조직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노동자들은 수십년 간의 후견적 통제와 조국을 위한 희생에 관한 애국주의적 선전을 극복했다. 재벌 내에서 노동조합이 극히 드물었기에 재벌가문은 경제를 지배하고 엄청난 세금면제를 받고 중앙에서 계획하는 정부투자계획의 중심에 있었다. GNP 비율에서 5대 재벌은 1984년 GNP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0대 재벌은 2/3 이상이었다.¹²⁾ 1980년 30대 재벌은 모든 수출선적 상품의 36퍼센트를 차지했고, 전체 노동력을 22.4퍼센트를 고용했고, 1987년 5대 재벌은 국내판매의 거의 1/4을 통제했고 모든 제조업 노동자의 10퍼센트 이상을 고용했다.¹³⁾ 노동자들이 이 거대기업에 맞서 일어서자, 그들은 실질적으로 체제 전체에 도전하고 있었다.

과거 경공업과 소공장 단계에 비해, 포드주의적 산업조건 아래서 박정희의 중공업 개발정책은 고도로 집중된 노동자계급을 만들어냈고, 그들은 투쟁역량은 경제의 엄청난 부문을 마비시킬 능력을 유기적으로 포함했다. 자본의 점증하는 집중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는 찰스 디킨스나 에밀 졸라가 묘사한 유럽자본의 초기 시대에 어울리는 원시적 수준이었다. 확실히

10) 10 See Hart-Landsberg's insightful *The Rush to Development*, 157.

11) Dae-oup Chang, "Korean Labour Relations in Transition: Authoritarian Flexibility?" *Labour, Capital and Society* 35, no. 1 (April 2002): 19.

12) Amsden, *Asia's Next Giant*, 116.

13) Koo, *Korean Workers*, 31.

노동자들은 커다란 변화가 필요했다.

노동자들은 인위적으로 저임금, 가혹한 일상과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 형태로 재벌-정부 지배의 쓰라린 결과를 오랫동안 맛봤다. 한국노총(독재가 통제된 황색노조)에 따르면 한 쪽의 최저 월간 생계비는 약 629,000원이었지만, 노동자들은 잔업을 해도 겨우 그 절반(336,908 원)을 벌었다. (그 당시 1달러는 약 830원이었다.) 비록 주당 평균 54.7시간 일했지만, 놀랍게도 82.4퍼센트의 노동자들은 최저 생계비 이하를 받았다.¹⁴⁾ 이들 기업 최상층의 아주 작은 가문들에겐 혜택이었지만, 전두환의 임금동결 및 노조파괴 정책은 노동자들의 문제를 악화시켰다. 심지어 정부가 통제하는 합법적 노조들도 1986년 말 1백만 조합원에도 거의 미치지 못했다.

노동자들의 불만의 깊이와 한국사회의 심각하게 각인된 계급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작업 동안 입어야 하는 색깔별 작업복에서 시작할 수 있다. 상관들은 매일 저속한 욕설을 퍼부었고, 여성들이 겪은 성적 모욕은 말할 것도 없이, 공장식당의 맛없고 부적절한 급식(회사간부들의 특권층과 대비되는)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모든 위법행위들도 작업현장의 위험한 상태와 비교하면 별게 아니다. 현장에서 산업재해율은 일본에 미국의 10배였다. 문자 그대로 피파바가 남한의 경제적 "기적"을 창조했다. 매년 1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거나 부상당했고, 197년만해도 1,397명이 현장에서 죽었고 13,013명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불구가 됐다.¹⁵⁾ 매일 평균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¹⁶⁾ 1986년 약 21,923명의 노동자들이 사고로 육체적으로 불구가 됐다. 노동자 투쟁이 오랫동안 억압당한 계급의 필요를 전면에 제기하면서, 9월 27일 집회에서 전국산재노동자협회가 결성됐다. 이 단체는 전두환의 지배 아래서 작업장 사고로 최소한 10,295명이 사망했고 969,304명이 부상당했다고 지적했다. 박정희처럼 자의적이었던 전두환 정권은 표 10.3에 지적된 것처럼 강탈적이었다.

[표 10.3] 1970-1990년 산업재해

연도	부상자	사망자
1970	37,752	639
1975	80,570	1,006
1980	113,375	1,273
1985	141,809	1,718
1990	132,896	2,236

1987년 전국이 동원되자 공장노동자들도 더 이상 진정하거나 억압당하기를 거부했다. 이 폭발은 오랫동안 유지된 공장체제를 산산이 파고했고, 수년간 사람들이 견뎌야 했던 부당한 조건을 몇부만에 바꿨다. 기업들은 차례로 노동자들의 요구에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최초의 임금인상은 평균 13.5퍼센트였다. 일회적 임금인상 이상으로 노동자들은 존재조건을 바꿀 필요가 있었고, 그 때문에 그들은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필요했다. 약 70일 동안 노동자들은 황색노조에 맞서 싸웠고, 지도자들을 고립시켰고 평조합원을 모집하면서 1,060개 신규 노동조합을 조직했다.

중요하게, 운동은 먼저 한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보수적인, 아마도 가장 반노조적인 기관 중의 하나인 현대기업에서 등장했다. 창업자 정주영은 노동조합은 자기 시체를 밟고 희

14)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Lost Victory, 214.

15) Ogle, South Korea, 77.

16)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Lost Victory, 230.

사에 들어올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버텼다(“내 눈에 흠이 들어간 다음에”) 정주영은 모든 사장들 중에서 가장 심한 규율을 주장한 사람 중 하나였고, 노동자들에게 머리를 짧게 깎을 것으로 요구했고 식사와 작업복의 위계를 엄격하게 지키고 모든 수준에서 군대의 규율을 유지했다. 현대의 기지는 150,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울산의 공업단지였다. 7월 5일 현대엔진에서 최초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그것은 전국적 분출로 이어진 투쟁의 신호탄이었다. 노동조합운동이 현대미포조선으로 퍼지자, 최고경영진은 회사측에 충성하는 새로운 황색 노조를 재빨리 결성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따돌리기에 너무 늦었고 파업은 물결은 현대에서 8월 3일 한국아연으로, 8월 4일 효성금속과 효성 알루미늄, 태광알루미늄으로, 8월 5일 경기화학, 럭키울산, 한성기업으로, 8월 6일 진양으로 퍼져나갔다. 8월 8일 4만명의 현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두 번째 투쟁의 물결의 신호를 알렸다.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가 최루탄이 맞아 사망한 이후 전투성은 강화됐다. 8월 셋째주에 880건의 파업이 일어났고 신규노조 113개가 결성됐다.¹⁷⁾ 1987년 총 3,749건 중에서 8월 말까지 약 2,552건의 노동투쟁이 일어났고, 이는 1986년에 기록된 276건의 13배 이상이었다.¹⁸⁾ 이 놀라운 봉기는 도표 1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규수자	4,500	3,500	2,500	2,000	1,500	1,000	500	0											
노동조합 수자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분규	----	노동조합	- - -																

[도표 10.1] 1975년에서 1990년까지 노동쟁의 및 노동조합 수자

Source: Hagen Koo, *Korean Workers: The Culture and Politics of Class Forma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159.

8월 8일 반란자들은 현대에서 협상을 요구한 12개 반란노조로 구성된 노동조합협의회를 조직했다. 정주영의 반응은 8월 17일 결코 불법단체와 협상하지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6개 공장에서 직장폐쇄를 하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은 즉각 대응하여, 수만명이 시내로 행진했고 이를 동안 시청을 점거했다. 그들은 전투경찰을 쉽게 제압했다. 노동자들의 단결의 말할 것도 없이 노동자들의 지게차, 덤프트럭, 크레인, 그레이더, 증기롤러 등의 장비 앞에 전투경찰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약 4만명의 노동자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공장 밖으로 행진을 벌였다. 여러 시간 후에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집회가 열렸고, 여기에 가족 3만명도 같이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분규가 자신들의 승리로 해결될 때까지 남아있기로 결의했다.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풍물과 사물놀이, 공연을 즐겼고, 사람들을 먹이려고 트럭으로 빵이 도착했다. 일부가 먹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노래하면서 “정주영 타도!”를 외쳤다. 한 부인은 <뉴욕타임스>에 자기 남편이 “회사를 위해 15년 동안 일했지만 겨우 시간당 1달러를 번다”고 말했다.¹⁹⁾ 노동부 차관이 서울에서 비행기로 와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정부의 보증을 발표했다(그러나 어떤 회사 대표도 똑같은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승리했지만, 정주영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어떤 것도 인정하길 거부했다. 세 곳(미포조선, 현대중전기와 현대파이프)에서 협약에 서명했음에도, 정부는 초기업적 노동조합은 불법이라고 선언했고, 권용목을 포함한 20명의 노조 지도자들을 체포했다.

17) See Won Young-su, “History of South Korean Labor and Student Struggles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in *The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Revolution and Protest: 1500–resent*, ed. Immanuel Ness (London: Wiley Blackwell, 2009).

18) *Hard Journey*, 247.

19) Susan Chira, “Seoul, in Switch, Moves to Resolve Labor Dispute,” *New York Times*, August 19, 1987.

[사진] 비공인 노동자들이 울산시를 접수했다. 새길출판사 1991년

현대는 노동자들의 새로운 힘을 느낀 유일한 재벌은 아니었다. 금성그룹의 27개 회사와 57개 자회사도 1987년 파업과 봉기의 장이 됐다. 반란의 물결은 울산의 진양지에서 남동부의 마산으로, 부산, 광주, 대전, 대구 같은 대도시를 거쳐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다. 산업에서 산업으로, 지역에서 지역으로 지축을 뒤흔든 울산의 운동에서 여파가 등장했다. 투쟁의 정점에서 안전헬멧, 각목, 중장비로 무장한 수만명의 노동자들은 경찰과 구사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했다.

[사진] 1987년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는 극적인 성과를 쟁취했다. 새길출판사 1991년

대우조선에서 노동자 이상용은 자신이 작동하는 커다란 크레인에 올라가 동료 노동자들에게 독립노조를 결성하자고 호소했다.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즉각 그 주위에 모여들었다. 발생한 투쟁 속에서 파업자들은 1,500명의 경찰과 구경하는 사람까지 공격한 강패들에게 맞서 싸웠다. 다음 며칠에 걸친 전투 도중 1987년 8월 22일 이석규가 최루탄을 가슴에 정통으로 맞아 사망했다.²⁰⁾ 이석규가 사망한 다음날 약 5천명의 학생과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세대학교에 모였다. 학생들의 철야모임 이후에 그들은 노동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함께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조해서 일하는 데 동의했다. 8월 28일 이석규의 장례식에 전국적인 동원이 이뤄졌다. 경찰이 들어닥쳐 933명 이사를 체포했고, 심지어 행진단이 광주 망월동 묘지로 옮기려는 도중에 시신을 탈취했다. 언론이 노동조합 내부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찬 가운데, 다음 주 수천명의 경찰이 대우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농성캠프를 깨러 동원됐다. 1백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체포됐다.

북쪽으로 2백마일인 대우자동차 공장에서, 1985년 노동자 승리의 유산 중의 하나는 노동의 운명을 개선하는 데 헌신하는 새로운 그룹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었다. 1987년 8월 10일 그들은 공장시당을 점거하고 상당한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보다 중요하게 한국노총에 가입한 황색노조의 탈퇴, 해고된 독립 노조원의 복직, 미국 초국적기업 제너럴 모터스와의 계약 중단 등을 요구했다. 공장 주위를 둘러싼 원래 3백명이던 시위대는 하루만에 4천명으로 늘어났다. 회사측은 공장을 폐쇄했다. 재벌의 완강함에 직면한 노동자들은 관리직 건물로 행진해 대우자동차 사장과 부사장을 잡았고 그들이 모인 노동자들에게 절하하도록 시켰다. 그날 도덕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요구를 쟁취할 수 없었다. 몇 달 후 마침내 5년만에 처음으로 24퍼센트 임금인상이 이뤄졌다. 다음 해 대우가 여전히 완강하자 노동자드르른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전술을 사용했다. 한 경우 1만명의 노동자들이 똑같은 식당 카운터를 이용해 기다리는 줄이 2마일에 이르러 점심 시간이 4시간이 됐다. 그 동안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상황에 대해서 토론했다. 항의를 표시하기 위해 그들은 작업복을 뒤집어 입었고, 모두 휴식시간을 동시에 가졌고, 규칙이 조퇴를 허용했기에 위반이 아니었으므로 같은 날 동시에 조퇴했다.²¹⁾ 마침내 두 명의 노동자 이성모와 박시석은 노동자들의 고통에 항의해 분신했다. 열사들을 망월동에 묻은 다음 노조는 1988년 6월 2일 파업을 조직했다. 회사측은 점거된 공장을 되찾기 위해 15,000명의 경찰을 동원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급여의 소급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수용한 협약이 타결됐다.

현대에서 정주영은 새 노조들을 인정하길 거부했다. 9월 2일까지 정부가 약속한 어떤 양보도 받아내지 못하자 노동자들은 다시 울산시내를 점거했다. 전투경찰이 2만명이 넘는 사람

20) Ogle, South Korea, 134.

21) Park, Democracy and Social Change, 153.

들을 공격했지만, 군중들은 물러들어 그들을 지나쳤다. 노동자들은 시청을 점거했고 회사의 조선사무소를 쓸었지만, 경찰은 어쩔줄 모르고 서서 지켜봤다. 그러나 이틀 뒤 새벽에 대구 모 전투경찰이 공격해서 508명의 조합원을 체포했다. 8천명의 노동자들이 동원됐지만, 이번에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준비하고 있었다. 현대중공업은 마침내 15퍼센트 이상의 임금 인상으로 타결했고, 이 수치는 다른 조합들에게 기준이 됐다.

9월초 새로 분규가 발생하자 수백명의 파업자들이 체포됐다. 전투성이 증가하는 것에 경악한 정부는 노동자들의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날조해서 언론에 광범하게 유포시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협력 캠페인을 조율했다. 9월 5일 TV로 방영된 특별각료회에서 전경련(FKI) 의장이 초대돼 노동자들을 비난한 주장을 펼쳤다. 그의 노골적인 이야기가 방소되자 서울과 인천의 목사 35명이 언론의 편파보도에 항의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그들은 전경련 사무실을 점거했지만, 수백명의 전투경찰이 그들을 퇴거시켰다.

1987년 11월 27일 마산에서 최초로 지역노조협의회가 조직됐고, 곧 15개의 다른 지역도 조직됐다. 사무직, 전문직, 병원 노동자들 사이에서 아래로부터 직종별 협의회를 조직하자는 호소가 이뤄졌다. 공장 노동자들과 나란히, 병원과 보험회사, 정부투자기업, 언론, 대학, 학교 등에서 노동조합들이 등장했다. 마산에서 산업노동자들은 자유무역지대의 100여개 공장을 조직한 여성 섬유노동자들과 단결했다. 마산의 일부는 “해방구”로 묘사됐고, 다른 공장의 노동자들이 각자의 파업 동안 연대를 표현하기 위해 같이 행진했다. 1989년 4월 그들의 연합 세력은 경찰과 전투를 벌였고 투쟁을 수주간 벌였고, 마침내 금성 회장이 직접 개입해 노동조합과 합의에 도달했다.

1987년 한데 합쳐져서 변화를 격류가 된 많은 흐름 중에 우리는 “넥타이 부대”를 포함해야 한다. 이들은 사무직 노동자, 보건의료 노동자, 교사, 프롤레타리아화한 전문직, 기술직, 연구자, 금융서비스 노동자, 판매직, 하급 관리직 등의 계층이다. 화이트 칼라 노동자, 새 노동계급, 신중산층 등 다양하게 알려진 이 임금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건설되고 있던 선진경제에 필수적이었다. 1980년까지 한 추정치는 피고용자의 38퍼센트를 화이트 칼라 노동자로 분류했다.²²⁾ 비록 다른 통계로는 더 낮지만, 그런 노동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표 10.4] 1960-85년 한국의 직업구조

년도	1960	1970	1980	1985
기업소유주와 최고경영진	0.5	0.6	1.1	1.4
비육체노동자	5.2	8.9	13.8	17.1
관리직	2.4	3.3	5.3	7.2
전문직	1.9	2.5	3.4	3.7
사무직 노동자	0.9	3.1	5.1	6.2
육체노동자	14.6	23.7	30.3	34.0
산업노동자	7.1	15.8	24.0	25.7
판매/서비스 노동자	2.5	4.5	5.3	7.7
개인서비스 노동자	5.0	3.4	1.0	0.6
비농업 자영업자	10.5	13.6	17.1	21.0
농민	65.2	51.7	33.5	23.9
실업자	4.0	1.6	4.3	2.6
전체(퍼센트)	100.0	100.1	100.1	100.0

22) Ogle, South Korea, 149.

전체(노동자 수자) 7,522,000 10, 543,000 12,708,000 15,350,000

Sources: Hagen Koo, "Middle Classes, Democratization, and Class Formation: The Case of South Korea," *Theory and Society* 20 (1991): 485; original data from Korean Population Census.

새로 산업화하는 동아시아 나라들 전체에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 계층은 꾸준히 증가했다. 1960년대초부터 1980년대초까지 새 노동계급(또는 새 중산층)은 남한에서 전체 노동력의 6.7 퍼센트에서 16.6퍼센트로, 타이완에서 11.0퍼센트에서 20.1퍼센트로, 홍콩에서 14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증가했다.²³⁾ 유럽과 미국의 자본형성의 역사와 달리, 부르주아 계급이 충분히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이전에, 산업 노동계급의 형성과 동시에 이 계층이 발전했다. 한국 공장 노동자들은 고통안정과 부적절한 음식에 대해 걱정한 반면 사무직 노동자들은 불필요한 서열제에 도전하는 데 더 많은 동기를 보였다. 모든 노동자들은 적정한 임금, 자주적 노동조합, 권위남용 중지의 필요에 대해서는 일치했다. 넥타이 부대의 특징의 한가지 차원은 그들의 자기조직화 역량이었다. 또다른 것은 그들의 중산층으로의 통합이었다. 정부의 경제기획부는 1980년 41퍼센트의 사람들이 자신을 중산층과 생각했고 1985년에는 53퍼센트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발견했다. 중산층 규모추정은 아주 문제가 많을 수 있다. 1988년 11월 22일 경제기획부 자료를 이용하여 동원모는 한국인의 35퍼센트만이 중산층이라고 추정했다.²⁴⁾

농민들도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서 퍼져나오는 에너지의 파장에 큰 영향을 받았다. 노동자들이 파업과 노조결성 이후 추석에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스스로 싸워 임금인상을 쟁취했고 노동법이 개정된 것은 우리 투쟁 때문"이라고 자랑했다.²⁵⁾ 같은 달 수백명의 소작농민들은 토지반환을 요구하며 서울이 삼양사 앞에서 수주일 동안 농성을 했다.²⁶⁾ 이 시기에 농민조직들이 급속하게 발전했다. 여러 지역조직들의 통합으로 1990년 4월 100개 이상의 지부를 갖춘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결성됐다. 권종태 의장은 "국내의 독점자본가들의 경제착취" 종식을 요구했다.²⁷⁾ 이 단체는 비전적 비판으로 기업주도 세계화에 항의했고 WTO 설립으로 이어진 우루과이 라운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역설적으로 급속한 변화는 일종의 역할 역전으로 이어졌다. 낸시 에벌먼은 1993년 전라북도 방문에 대해 보도했다. 몇 년전 운동권은 농민들에게 북한 동조자들과 연관된 단어였다. 1993년 이 똑같은 농민들은 농촌활동을 위해 마을에 온 학생들이 "운동권 학생들 같지 않다고, 즉 충분히 도덕적이거나 정직하지 않다"고 불평했다.²⁸⁾

노동자들의 문화도 계급의식에 대해 다양한 중요한 자원으로 발전했다. 노동자들은 이제 서로에게 과감한 용어인 "노동자"를 사용했던 반면, 정부는 보다 낡은 용어인 "근로자"를 계속 사용했다.²⁹⁾ 신문과 잡지, 야학, 춤과 연극 모두가 새로운 자신감을 자극했고 노동조건 개선과 민중의 생활기준 향상을 위한 투쟁 참여를 독려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부적절한 주거에서 살았다. 이용가능한 주거가 가구수의 40퍼센트 이하였기에, 도시빈민의 20퍼센트가 불법 점거민으로 간주됐다.³⁰⁾

23) Hagen Koo, "Middle Classes, Democratization, and Class Formation: The Case of South Korea," *Theory and Society* 20 (1991): 485.

24) Dong Won-mo,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77.

25) See Nancy Abelmann, "Reorganizing and Recapturing Dissent in 1990s South Korea," in *Between Resistance and Revolution: Cultural Politics and Social Protest*, eds. Richard G. Fox and Orin Starn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97), 258.

26)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Lost Victory*, 258-9.

27) Hart-Landsberg, *The Rush to Development*, 259.

28) Abelmann, "Reorganizing and Recapturing Dissent," 262.

29) Since North Korea uses "nodong" for workers, southern conservatives employed "kunro," a term that is only marginally different.

5월 1일 집회의 부활과 더불어 한국 노동자들은 1970년 11월 12일 전태일의 희생을 추모하는 전국 노동자대회로 모이기 시작했다. 수만명의 노동자들은 이 두 경우에 모여, 운동권 활동가들에게 경험을 교환하고 우정을 새롭게 할 기회를 제공했고 다양한 그룹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새로운 회원을 모집할 기회를 줬다. 노동자들의 문화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연극, 미술, 특히 시는 확대된 의식의 감수성과 미적 가능성을 전달했다. 노동 활동가 박노해가 쓴 이 시에는 노동자들이 새로 발견한 낙관주의가 명백하다.

아마

아마 나는 기계인가봐
납땀 조립라인에 빠져
컨베이어에 몰려드는
로봇처럼 반복하면서
영원히 같은 동작
아마 나는 기계가 됐나봐.
아마 우리는 닭장 속의 닭인가봐
우리 닭장에 나란히 서서
침침한 불빛에 손의 속도를 맞추면서
음악이 빨라지면
더 많은 알을 우리는 낳지
아마도 우리는 닭장의 닭이 됐나봐
그들은 ...
우리의 골수를
끄집어내 집어삼키는 그들은
아마도 그들은 맨발의 강도들인가봐,
인간을 기계로 만드는
소모품으로 만드는
사고파는 물건으로 만드는
아마도 그들은 위엄있고
준법적인 맨발의 강도들이지
그들의 상냥한 미소
그 세련된 아름다움과 교양
그 부유하고 현란한 풍부함,
아마도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지.³¹⁾

한 관찰자가 언급한 것처럼, “작년[1988년] 초점은 임금인상과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였지만, 이제 노동자들은 자기 회사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 발언권을 원한다. 그들은 인사문제와 이윤분배에 대한 동등한 통제권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그들은 기업이 기업주의 변덕에 종속되는 개인적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³²⁾ 하지만 비록 노동자들이 자주 자신을 노리는 정부세력을 압도하고 작업장을 변혁하겠다고 결의했지만, 그들은 결코 정치권력에 도전하지 않았다. 손으로 만든 많은 signs이 이렇게 주장했다. “사장, 협상에 나서라!” 이 슬로건은 그 자체로 회사 사장이 책임자이며 경영진의 온정주의가 좀더 인간적 조건 아래서 계속되도록 한다는 인정이었다. 수백개이 새 노동조합이 결성돼 조합원들의 삶에서 중요한

30) Bello and Rosenfield, *Dragons in Distress*, 39.

31) 31 Translated by Kyung-ja Chun. See Koo, “The State, Minjung, and the Working Class,” 154-5.

32) Quoted in Bello and Rosenfield, *Dragons in Distress*, 44.

항상을 획득했지만, 그들의 운동은 혁명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 노동자들이 울산을 점거했을 때에도 그들의 플래카드는 독립노조를 요구했고, 내용상 충분히 급진적이었지만, 그들은 시장에서 이 목표를 쟁취하도록 도와달라고 여청했다. 수백만명의 한국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노태우의 6.29 선언을 그의 온화한 성격으로 받아들였다. 유교적 가부장제는 기존체제와 결별하는 혁명적 열망의 정식화에 방해가 됐다. 1992년 4월 노동계급적 울산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반동적인 재벌 소유주 정주영이 이끄는 정당의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투표했다.

재벌로서는 그들의 계급적 적에 대한 어떤 존중 때문에 방해받지 않았다. 회사들은 파업과 피자이자 유급 준군사집단인 “구사대”를 조직해 노동자들을 공격하라고 그들을 보냈다. 문선명이 운영하는 기계회사인 통일중공업에서 5백명 이상의 구사대가 평화적으로 농성하던 노동자들을 공격해 많은 사람이 부상당했다. 이 시기에 반공연맹과 통일교조는 집회를 열고 노동운동에서 “공산주의”의 영향력에 반대하는 감정을 부채질했다. 7월 30일 당시 세계최대 이 신발제조업체 중의 하나인 부산의 ICC사에서 약 1,000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농성했다. 6백명의 강패들이 쇠파이프, 해머, 각목을 휘두르며 그들을 공격했다. 여성들은 기숙사로 도망가야 했고 거기서 다시 공격을 받았다. 심지어 황색 한국노총도 자주적 노조를 공격할 1천명의 무장대를 조직했다. 최악의 경우는 정부의 특수폭동진압부대 백골단이었고, 흰색 헬멧을 쓴 그들은 악랄하게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그와 동시에 수백명의 지도자들은 즉석에서 해고되거나 보다 어렵고 힘든 사업장으로 쫓겨났다. 강원도에서 탄광 광부들이 경찰과 유착에 한국노총과 싸우자 활동가들은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재배치됐다. 송원회가 자살하자 노조 지도자들은 사임했고 결국 자주적 노조를 쟁취했다.

8월 2일 연세대학교에 수백명이 노동자들이 참석하자 학생 활동가들은 노동계급의 새로운 헤게모니를 인정했다. 비록 다가오는 선거를 초점으로 수백명이 모였지만, 그들은 파업물결을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한 보고자는 그들의 지향을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자주성을 약화시키거나 학생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야기해서는 안된다.”³³⁾ 3주도 안되어 학생회 지도자들은 1987년 8월 19일 강력한 전국조직인 전대협,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를 결성했다. 95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표한 4천 내지 5천명의 학생들이 학생회 대표자들의 연합체를 건설하기 위해 모였다. 필수적으로 비밀이었던 과거 학생단체들과 결별한 전대협은 공개적 총회를 개최했고 이는 언론에 자신들의 견해를 보도하도록 하고 보다 온건한 한국인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확신시키려는 과감한 조치였다. 중요하게 그들의 목표 중에는 광주비극에 연루된 것에 대한 미국의 사과와 남한내 미국 수입품 증가의 증지도 포함됐다. 전대협 창립선언문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포함했다.

1. 전두환 정권의 즉각적인 종식
2. 노동자에 대한 정부탄압의 중단, “파업노동자들과의 공동투쟁과 연대”³⁴⁾
3. 무기력한 통일민주당과의 거리 두기
4. 군대의 정치적 중립
5. 광주공모와 수입압력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 사과

전대협의 구조는 전국 약 130개 대학의 대표자 1인당 1표를 요구했다. 회의는 각 대학 학생회의 여러 학생들을 포괄할 만큼 충분히 탄력적이었고, 1년 임기제한은 많은 활동가들이 전국적 수준에서 조직화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심지어 반(半)합법적이었지만, 한 참가자는 그들의 활동을 NL과 PD 경향을 균증하게 배분한 “완전한 민주주의”로 묘사했다. 다

33) Quoted in Dong Won-mo,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33.

34) Han Sung-joo, “South Korea in 1987: The Politics of Democratization,” Asian Survey 28, no. 1 (January 1988): 58.

른 사람들은 NL의 주도적이라고 주장했지만, NL과 PD 경향은 비록 논쟁과 분열이 있었음에도 행동 속의 통일의 기치 아래 조직 내부에서 대표되었다. 전대협은 1992년까지 활동가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다.³⁵⁾ 14인 지도자로 구성된 중앙위원회는 매 2주마다(또는 때로 월1회) 모였지만, 어떤 여성도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은 이 중앙기구에 참여할 수 없었다. 아마도 모든 지역 대표의 1/3 내지 1/4은 여성이었다. 나중에 전국여학생회협의회가 결성됐다. 전국중앙위원회 외에, 지역단위 중앙위원회도 서울 증지에서 결성됐다.

7월과 8월 유례없는 불만의 분출이 정부를 놀라게 한 이후 경찰은 노동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일련의 체포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9월말까지 국가는 우위를 점했고 파업운동은 쇠퇴했다. 9월 29일 정부가 노동자들을 “중산층”으로 만들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운동이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는 것은 명백했지만, 정부는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투쟁의 긴급성에 매몰된 민주화운동은 노동자들을 지지하여 유의미한 동원을 하는데 실패했다. 국본의 실패를 확신한 노동자들은 10월 15일 부산사무실을 점거했고 10월 20, 21, 22일 다른 도시의 사무실을 점거해 민주화세력이 자신의 궤적을 재평가하도록 강제했다. YS와 DJ 같은 정치인을 그 대열에 포함하고, 아무리 진보적이더라도 정당과 제휴함으로써 국본은 자주성을 희생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렀다. DJ와 YS는 노동자들의 불법행동은 말할 것도 없이 파업노동자에 대한 지원마저 거부했으며, 광범한 연합의 승인을 묵인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10월 27일 마침내 국본 노동위원회가 명동성당에서 노동운동 탄압에 반대한 집회를 조직했을 때,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이 급진적 경로에서 단결하기엔 이미 너무 때가 늦었다. 4일 후인 10월 3일 국본의 약화된 힘은 명백했다. 경찰은 국본의 전국시위를 손쉽게 봉쇄했다.

교훈과 유산

군부독재에 대한 한국민주주의 위대한 승리는 더 커다란 경제번영으로 귀결됐다. 1988년과 1989년 블루칼라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놀랍게도 평균 22.6퍼센트와 18.8퍼센트였다(화이트칼라 노동자의 경우 11.9퍼센트와 15.3퍼센트였다).³⁶⁾ 1987년 이후 10년만에 실질소득은 두배가 됐고, 경제에 거의 2백만건의 풀타임 일자리가 생겼다. 1991년까지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의 비율은 1985년 53퍼센트에서 63.1퍼센트로 올라갔다(겨우 1.6퍼센트만이 상층이라고 생각했고 37.1퍼센트는 하층이라고 생각했다.) 노동조합운동은 공장에서, 그리고 은행, 보건 의료, 언론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 사이에서 활성화됐다.³⁷⁾ 정치적 자유화가 경제의 좋은 방식의 또다른 지표는 1987년에서 1988년까지 14대 일본은행의 이윤이 57퍼센트, 미국은행의 이윤이 24.5퍼센트 증가했다는 것이다. 남한의 금융화와 더불어, 주식시장 총가치는 1985년 GNP의 9퍼센트에서 놀랍게도 1988년 56.6퍼센트로 올라갔다. 2년뒤 자본규모에서 세계 9위의 주식시장은 서울에 있었다.³⁸⁾ 같은 시기에 부동산 가격도 폭등해 1987년에서 1989년까지 가치가 50퍼센트 이상 상승했다.³⁹⁾ “기적”의 경제와 새로 획득한 자유를 갖춘 남한은 전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의 모델이 됐다. 스리랑카(4만명 이상이 “실종”된)에서 콜롬비아와 버마까지, 발전을 기대하는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하이텍 산업을 추구하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까지 모든 눈은 한국을 향했다. 한국의 놀라운 역사적 실천은

35) Interview with Im Jong-sok, Seoul, June 4, 2001.

36) Hagen Koo, “Middle Classes, Democratization, and Class Formation,” 497.

37) Byoung-Hoon Lee, “Militant Unionism in Korea,” 157.

38) Jung-un Woo, *Race to the Swift: State and Finance in Korean Industrializ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200-01.

39) Hart-Landsberg, *The Rush to Development*, 239.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인류의 통찰력을 제공한다.

1987년 봄기 이후 이 실천으로부터 일련의 교훈을 끌어낼 수 있고, 거기에는 변화의 주체가 누구인지의 문제도 포함된다. 잠깐 쉬면서 1987년 여름에 그 당시 움직이던 다중이 남한을 혁명적 상황에 근접시켰다(만약 존슨이나 커밍스가 주장하는대로 거기에 엮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누가 이 상황을 창출했는지 물을 필요가 있다. 6월 독재의 정치권력 경쟁에서 7월과 8월 공장체제의 변혁을 관통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위기를 고찰하면 대답은 민중이다. 하지만 기존 범주의 분기된 논리 내에서 공장 노동자들의 움직임은 “넥타이 부대”의 급진주의의 상당한 역사적 증거를 무시하는 입장인 “중산층” 개량주의와 완전히 별개다.

“넥타이 부대”와 블루칼라 노동자 사이의 노동계급내 분열이 현저한 이상, 새 노동계급의 민주화를 향한 정치적 지향은 산업노동계급의 노동조합 조직화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이런 분할에서 급진적 동력은 아직 잠재적이다. 그러나 양자가 결합되면, 사회의 철저한 재국조화의 가능성은 가시화되고, 학식있는 학자들의 이론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조건을 변화시킨 수백만 민중의 행동으로 가시화된다. 20세기의 후반에 유럽, 미국, 동아시아의 중요한 사회운동은 주변화된 소수와 학생들에 의해 중심으로 창출됐다. 룬펜 프롤레타리아트도 검은표범당에서 광주봉기까지 운동의 가장 급진적 차원에 중요하게 기여했다. 생산현장의 노동자들과 프롤레타리아트화한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참여할 때(1968년 5월의 프랑스, 이탈리아의 뜨거운 가을, 폴란드의 연대노조와 중국의 티아난먼 광장), 그들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주도한 시위의 초기 물결 이후에야 참여했다. 한가한 문제는 아니지만, 노동계급의 구성, 즉 누가 변화의 주체인가(“다중” 또는 “프롤레타리아트”) 문제에 대한 대답은 기업이윤의 이름으로 인간과 모든 형태이 생명을 타락시키는 비참한 체제를 종국적으로 끝내기 위한 활동가들의 전략을 결정할 것이다. 만약 21세기에 승리하려면 20세기 동안 이뤄진 엄청난 변화에 비추어 이 문제를 냉정하게 고려하는 과제를 우리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

전술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민중은 남한을 상당히 변화시켰다. 군부독재를 끝장냄과 더불어, 여성과 젊은이들의 상황은 긍정적 변화를 겪었다. 광범한 문화적 변화는 수백만명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고, 노동계급도 변화했으며, 임과과 노동조건은 수백만 노동자들에게 즉각 개선됐고, 노동운동과 그 조직들은 크게 강화됐다. 심지어 한국노총도 변했고, 자주적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위한 10년간의 투쟁 이후에 새 노총이 설립됐다. 남한의 노동자들은 사회변혁의 지도적 세력으로 광범하게 인정받으며, 정의를 위한 지속적 투쟁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의미심장하게 6월봉기의 정점을 파업물결이 뒤이었다. 이 책의 2권에서 정치적 봉기와 노동자 파업 사이의 유사한 관계가 1986년 필리핀, 1988년 버마, 1989년 중국, 1990년 방글라데시와 네팔, 1992년 타일랜드의 봉기들에 대한 경험적 역사로부터 등장한다. 이 패턴은 중요하며, 사회 전체가 전진하면서 분출되는 세력관계에서 노동계급의 헤게모니적 우세를 가리킨다. 이 모든 경우에 독재 아래서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착취는 2퍼센트를 부유하게 하도록 작동했다. 심한 탄압으로 인간적 생활수준을 위한 수년간의 투쟁을 연기해야 했던 노동자들은 민주적 발전이 일상생활의 조건을 개선할 공간을 제공하자마자 즉각 전진했다. 다른 투쟁들과 유사하지만 한국노동자들의 놀라운 자기조직화 역량과 전투성은 연대노조, 1978년에서 1983년까지 브라질의 파업물결, 1979년에서 1981년까지 이란 노동자평의회 등 최근의 사례와 유사하다.⁴⁰⁾

40) See Loren Goldner's 2007 article on the Korean working class from 1987 to 2007 at <http://home.earthlink.net/~lrgoldner>.

광주봉기가 1980년 프롤레타리아투쟁으로 발전했듯이, 1987년 7월 노동계급은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해가 위기에 처했던 민주화 투쟁으로부터 성장했다. 과거 한국의 공장파업 물결은 상대적으로 보다 일반적인 시위주기와 상대적을 동기화됐다. 1946년 10월 노동자들은 보다 전반적인 봉기를 시작했고, 다른 세 번의 경우, 1960년 4월 19일 이승만의 타도, 박정희의 암살과 전두환의 축출 시에 파업운동은 결집할 수 있었다. 정치적 변화와의 직접적 관계는 노사분규가 정치적 동학보다는 더 자주 경제주거나 변화하는 생산관계와 연결돼 있는 유럽이나 미국과 달랐다.

세계가 이전보다 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때에 수백만 민중의 이런 실천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막 시작됐을 뿐이다. 여러 세대의 사상가들은 민중의 생산력에 대한 관계의 객관적, 경제적 범주의 차원에서 해답을 도출했고, 대규모 생산시설에 집합한 육체 노동자들이 혁명 프로젝트에 중심적인 것으로 이해돼 왔다. 맑스의 가장 강력한 혁명적 팸플릿인 <공산당 선언>은 노동자운동의 목표의 진술을 작성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쓰여졌고, 그의 나머지 인생 동안 맑스는 프롤레타리아트를 부르주아 사회의 안티테제이자 미래 자본주의의 파괴자를 옹호했다. 현장체제로 조직된 노동자들은 유럽-미국 침략세력에 맞선 전선에 대규모로 전진했고, 볼셰비키 정부의 방어에서 막대한 다수가 사망했다. 중국혁명은 마오쩌둥이 농민을 지도세력으로 주장한 이후에야 성공했다. 하지만 처음에 그의 동지들이 그를 이단자로 간주해 당에서 추방하도록 했던 바로 그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권력을 장악하자 중국의 맑스주의자들도 산업노동자들을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지도적 세력으로서 특권적 위치에 모셨다. 한국운동의 실편은 변화의 세력으로서 민중을 보여줬다.

경제적 선진국에서 노동계급의 구성을 파악하려는 최근의 이론적 시도는 마이클 츠바이크(Michael Zweig)의 <노동계급 다수: 미국에서 가장 잘숨겨진 비밀>(The Working Class Majority: The Best Kept Secret in America)에서 이뤄졌다. 츠바이크는 단순히 생산의 범주가 아니라 현장의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프롤레타리아 다수를 제기했다. 미국의 주류 평론가들이 중산층을 민주주의의 요새로서 찬미하고 모든 사람을 중산층으로 묘사하려고 애쓰는 반면, 츠바이크는 노동자들이 진보의 중심세력이자 사회의 다수라고 주장하면서 중요한 대안을 제공한다. 권력관계에 기초한 “노동계급” 규정을 발전시킨 그는 자본주의적 거수 내에서 노동자들의 삶의 현실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츠바이크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궁핍화와 자주 사라지는 도시빈민과 노동자들 사이의 경계선에 관한 확실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는 도시 노동자들의 일부 하위범주가 노동계급이며 따라서 커다란 중요성을 갖지만, 다른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19세기 사고를 반복하면서 츠바이크는 새 노동계급을 중간계급으로 간주하며, 뮌헨 프롤레타리아트(만성적 실업자, 자주 범죄에 참여하는 극빈층)를 노동계급에 편입시키지만, 여전히 민족주의적 담론의 매개변수 내에 한정돼 있다. 비록 미국의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이 대체로 같은 수준의 소득을 벌고, 비슷한 휴가르 가고, 비슷한 집에 산다(흔히 그들이 소유하는)고 인정하면서도, 츠바이크는 현장의 권력을 계급적 계층화의 중심적 특징으로 본다. 그의 세분화된 직업분류에 따르면 8,280만건의 직업(전체의 62퍼센트)가 노동계급이며, 그것은 “노동계급 다수”에 대한 그의 믿음의 기초다.⁴¹⁾ 하지만 노동계급에 대한 그의 이해는 학교교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간호사, 도서관 사서, 사회복지사,

41) Michael Zweig, *The Working Class Majority: The Best Kept Secret in Americ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30. The population of the U.S. in 2001, when the book was published, was 278 million, so only about 30 percent of U.S. residents were workers according to Zweig.

와 별로 권력도 없고 직업과 관련된 주식소유도 없는 다른 많은 사무직 노동자들을 포함하지 않으며, 그들 모두는 중간계급으로 그는 간주한다. 츠바이크는 많은 전문직이 프롤레타리아트화 됐다고 인정하지만(19세기 말에 숙련된 수공업 노동자들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과정에서), 그들을 노동계급으로 인정하길 거부한다. 그의 비일관성을 보여주는 한가지 뚜렷한 사례는 항공노조(United Airline Workers)가 그들의 기업에서 주식보유자가 됐음에도 노조를 조직했을 때 츠바이크는 그것을 노동계급적 성격으로 증거로 간주했지만,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자 그는 그들이 노동계급으로 “느끼는” 징표로 간주한다.

맑스에게 철학적 범주는 경제적 범주에 대한 설명에 선행했다. 그의 도식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자본주의 사회의 막대한 다수였고, “사슬을 빼고 잃을 것이 없었고” 부르주아지의 결연한 부정이었다. 이 전통을 따라 사회운동 속에서 민중의 실천(“대자적 계급”)에 기초한 분석에 따르면 새로운 노동계급은 한 사회와 그 이후에도 모든 종류의 독재에 반대하는 세력이었다. 주체적 반체제 동원의 역사는 이 계층의 객관적 프롤레타리아트화에 기초하는가? 츠바이크는 대학이 생산과정의 중심으로 이동한지 오래고 학생들이 그 내에서 하층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중간계급” 학생들의 역할을 평가절하한다. 놀랍게도 전세계적으로 학생들은 독재와 제국주의에 반대했고, 그들은 그들 기관의 생산력을 전쟁에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소수의 주체 중 하나이다. 더욱이 학생들이 대학의 스웨터와 다른 대학 기념품을 생산하면서 하루에 몇푼을 받는 전지구적 남반구의 노동자들게에 보여준 놀라운 계급적 연대는 도제 노동자(대학생)의 점증하는 계급의식을 가리킨다. 롬펜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츠바이크의 완고한 분석에도 비슷한 문제가 존재하며, 그 분석은 사회운동에서 그들의 역할이 갖는 긍정적, 부정적 특징에 대한 간략한 고려조차 배제한다.

오늘날 세계의 작업장에서 권력차이의 주요한 형태는 제국적 관계, 즉 미국기업들이 주도적 위치에 있는 권력구조물을 통해 국제적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분석처럼, 츠바이크는 20세기 미국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극적으로 상승한 것을 높은 생산성의 측면에서 설명하며, 제3세계의 착취는 언급하지 않는다. 세계화에 관한 짧은 장은 사파티스타와 반WTO운동(20세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형태의 세계적 반자본주의 동원이라고 하는)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이 무역과 NAFTA에 대한 찬반을 논한다. 츠바이크는 단 한번도 제국주의를 언급하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만 “계급”을 분석하고 전지구적 체제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수십년전 정식화된 계급에 대한 국제적 시각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츠바이크의 민족주의적 분석들 때문에 그는 경제의 중심에서 대학의 새로운 위치라는 경제적 결정요소를 무시한다.k 변화하는 생산에서 테크놀로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교육받은” 노동자(새 노동계급)을 포함하도록 노동계급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대신에 츠바이크는 더 커다란 경제문제에 대한 별다른 통찰력 없이 결론을 내린다. 그는 “스푸트니크 이후에 소련에 대한 냉전적 경쟁이 과학자에 대한 수요를 창출했다”고 지적한다.⁴²⁾ 전통적 계급범주와 뒤섞인 민족주의 때문에 광범하게 경험한 수백만 전문직과 사무직 노동자들의 프롤레타리아트화의 중요성을 놓치게 된다.

공장이든 사무실이든, 대학이든 농촌지역이든, 한국 노동자들의 1987년 동원에서 시작하면 프롤레타리아트 다수의 자기주도적 투쟁역량의 미래상이 얼핏 드러났다. 1987년의 반란적 비공인파업에서 반신자유주의 투쟁까지 한국 노동자들의 사회변혁의 선두에 나섰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한국을 진정한 사회변혁의 가능성을 모색할 위치에 있게 했다.

42) 42 Ibid., 30.

[번역] 조지 카치아피카스,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1권

조지 카치아피카스, George Katsiaficas,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Asia's Unknown Uprisings,
1권: 20세기 남한의 사회운동 Volume1: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in the 20th Century

11장 민중에서 시민으로

첫 번째 선거 | 노동자계급에 대한 노태우의 전쟁 | 1991년 투쟁: 패배와 조율 | 시민 운동 | 여성운동의 부활 | 생태운동 | 학생투쟁의 지속 | 최초의 민간정부

남한의 의회민주주의로의 이행, 1980년대 후반 동유럽에서 '현존 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민중운동의 근본적 논리도 해체됐다.

- 이남희

민중은 오늘날 한국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이 아니다.

- 찰스 암스트롱, 2002년

일지

1987년 8월 19일	95개 대학 3,5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새 연합체 전대협 결성
1987년 8월 22일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맞아 사망
1987년 12월 16일	야당의 분열로 노태우가 대선에서 승리
1988년 4월 26일	야당 총선에서 다수 획득(여소야대)
1988년 5월 15일	서울대학생 조성만 정치범 석방 요구하며 명동에서 자살
1988년 5월 16일	광주항쟁추모위원회 조사와 보상 교구
1988년 6월 10일	경찰 남북학생회담 방해
1988년 9월 8일	여수의 초등학교 교사 최초의 초등교사협회 결성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
1988년 10월 17일	광주 사망자 및 실종자 유족 농성 시작
1988년 11월 17일	1만명 이상의 농민 서울에 모여 미국농산물 시장개방에 항의시위
1988년 11월 21일	약 1만명의 교사들 민주적 교육법 요구
1988년 11월 26일	41개 기업에서 전국언론노조 결성
1988년 12월 28일	노태우 6월항쟁 이후 입법화된 자유화 조치 철회 발표
1989년 5월 3일	동의대 시위로 경찰 6명 사망
1989년 5월 18일	전남의 교수 854명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 요구
1989년 5월 28일	윤영규 전교조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
1989년 6월 10일	미국무부 여전히 논란이 되는 광주백서 발표
1990년 1월 22일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
1990년 1월 22일	김영삼 3당 합당으로 민자당 결성
1990년 7월 17일	여당인 민자당 청문회 없이 32초만에 26개 악법 통과시킴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범죄와의 전쟁" 선포, 노동계급에 대한 선전포고
1991년 4월 26일	학생 강경대 경찰구타로 사망, 이어진 투쟁에서 12명 이상 사망
1991년 5월 19-20일	강경대를 망월동에서 안치하기 위한 운암동 전투

1991년 5월 26일	광주에서 20만명 박승희 장례식 참석
1991년 6월 3일	학생들 총리대행에게 밀가루와 계란 던짐, 언론 운동권 공격시작
1991년 8월 19일	소련 붕괴 가속화, 고참 활동가들 입장 철회
1991년 9월 17일	남북한 동시 UN 가입
1992년 봄	부산대학에서 경찰과의 주요 전투, 학생들 쇠파이프 사용
1992년 5월 29일	최초의 공개적 학생활동가 조직 등장
1992년 12월 18일	김영삼 최초의 민간인 대통령으로 선출
1993년 5월 27일	한총련(한국학생회총연합) 결성
1993년 7월 1일	학생운동의 “문화적 전환” 시작

1987년 민주화운동의 발전은 한국의 제도, 규범과 가치에서 급속한 지각변화를 가져왔다. 수십년간의 독재 이후 한국은 6월 이후 몇주, 몇 달 만에 급속하게 변화했다. 산업 노동계급이 정면으로 반란행동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동안, 다른 그룹들도 새로 해방된 공간으로 동원했고 광범한 범위의 개혁운동이 등장했다. 국가-사회의 관계에서, 그리고 제도 내에서 신속한 변화로 수천만명 한국인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킨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때는 놀라운 상승세의 시기였다. 민중이 쟁취한 위대한 승리로 많은 한국인들이 꿈만 꾸었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쟁취했다.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현하면서 더 이상 어깨 너머로 힐끗 쳐다보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정치적 견해 때문에 고문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삼청교육대는 사라졌다. 경찰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다고 사람들을 대규모 체포하지 않았다. 자주적 노동조합들이 결성됨과 동시에 농민단체, 교사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민교협)도 결성됐다. 남한의 반핵운동도 1987년에 시작됐다.¹⁾ 새로운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표현이 번성했다. 독재가 글쓰기를 금지시켰던 기자들은 6만명 이상의 소액기부로 반정부 일간신문 <한겨레>를 조직했다. 1주를 5달러 정도로 팔면서, 지지자들의 민주적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 아무도 2천주 이상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한겨레>는 20년 이상 동안 믿을만한 정보의 원천이 됐다. 4년 이내에 전국의 일간신문은 30종에서 90종으로 세배로 늘었고, 6천종의 잡지가 출판되고 있었다.²⁾

활동가 서클들이 전문화되고 특화되면서, 예를 들어 환경오염을 막고, 여성의 권리를 증대시키고, 한반도에서 냉전의 비극적 지속이랑 군사적 광기를 완화시키는 등 구체적 초점을 갖는 수많은 NGO들이 생겨났다. 미군이 한국에 대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근거없는 면책이 대중의 레이더 스크린에 걸렸다. 제도적 변화와 함께 사회관계도 크게 변화했다. 제주와 광주의 봉기는 공개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했고 결국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이 지불됐다. 10년 이상의 투쟁 이후에 전두환과 그의 부하들은 감옥에 보내졌다. 1950년 노근리 학살의 폭로로 미군과 남한 동맹군이 수만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살육한 비슷한 사건 수십건이 드러났다. 여순봉기가 수십년간의 “의식적 기억상실” 이후에 처음으로 대중의 의식 속으로 들어왔다.³⁾ “위안부 여성” 문제가 여성주의 단체에 의해 1987년 처음으로 제기됐다. 1987년의 격변적 사건으로 기독교 단체들도 크게 변화했다. 전국적 봉기 이후에 거의 100여개의 민중 교회들이 전국의 여러 곳에서 생겨났고 특히 공단과 빈민지역에 활동의 초점을 맞춰다. 6월의 에너지로 김지하는 사회를 변혁하는 수단으로 “집단적 엑스터시”의 개념을 발전시켰다.⁴⁾

1) Su-Hoon Lee, “Environmental Movements in South Korea,” in Asia’s Environmental Movements: Comparative Perspectives, eds. Yok-shiu F. Lee and Alvin Y. So (Armonk, NY: M.E. Sharpe, 1999), 97.
 2) Gibney, Korea’s Quiet Revolution, 92.
 3) Lee, The Making of Minjung, 60.

백낙청은 한국문학에 대한 주의깊은 분석을 하면서 6월봉기 이후에 “한국문학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고 결론지었다.⁵⁾ 그는 북한문학, 특히 오페라 <피바다>을 다뤘고, 이 과감한 문학비평의 시도 때문에 여권을 몰수당했다. 1987년 많은 긍정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독재가 강제한 제한이 여전히 존재했고 남한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는 전혀 분명하지 않았다. 수천명의 정치범들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고, 한국의 고집센 노동계급은 여전히 반봉건적 속박상태에 있었고, 가장 중요하게 전두환은 여전히 대통령이었다.

첫 번째 선거

야당의 요구에 대한 독재의 6.29 항복 이후 민주주의를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한국인들이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야당은 선거제도에 빠져들었다. 6월 29일 노태우의 명백한 양보는 독재를 “타도의 대상”에서 “경쟁의 대상”으로 교묘하게 바꿔놓았다.⁶⁾ 국회는 재빨리 직선제를 요구하는 헌법개정안에 고무도장을 찍었고 대선은 1987년 12월 16일로 예정됐다. 야당의 후보단일화 실패는 재앙의 전조였다. 양김(YS와 DJ)이 서로 경쟁하면서 지역 적대감을 조장했다. 수십만명의 집회는 때로 지지자들이 충돌하면서 폭력대치로 끝나기도 했다. 9월 중순 미국은 대통령을 승인했고 레이건 대통령이 노태우의 방문을 영접했다. 정치인으로 변신한 군부독재자의 입후보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더 이상 분명할 수 없었다. 다른 어떤 후보도 워싱턴에 초청받지 못했다.

운동 단체들은 단일한 진보적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바로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들은 YS와 DJ가 서로 모종의 합의에 도달해 단일후보를 낼 것이라고 믿었다. 이 시기에 국본은 한달에 두 번씩 모였고, 한번은 지역수준에서, 또 한번은 전국의 대표자들이 모였다. 국본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너무커서 선거운동 동안 지역을 방문한 지역 조직가들에게 일상적으로 차장들이 교통비를 받지 않았다. 그 당시 오충일 지 침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본은 123개 시군을 대표했다. 그는 YS와 DJ가 단결할 것을 결코 의심치 않았고, 결국 그들이 서로 맞서자 국본이 단일후보를 선택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10년 동안 시달렸다. 11월 29일 선거를 몇주 앞둔 시점엔 대한항공 858기가 118명을 승객을 태운 채 버마 해안에서 실종됐다. 비록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기부(ANSP, 구 중앙정보부)의 개입을 의심하지만, 비행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북한을 비난했다(나중에 밝혀진대로 사실이었다). 이 사건은 수천표가 노태우에게로 선회하는 데 도움을 줬고, 노태우는 YS와 DJ가 받은 표를 합한 것보다 4백만표나 적게 받았음에도 승리했다. 결국 양김은 전체 투표의 절반 훨씬 이상을 받았음에도 노태우가 36.6퍼센트의 득표로 당선됐다. 두 지도자의 정치적 야심으로 인한 야당의 후보단일화 실패는 독재에게 승리를 넘겨줬다.

[표 11.1] 1987년 대통령 선거

후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득표율	36.6	28.1	27.1	8.1
득표수	8,282,738	6,337,581	6,113,375	1,823,067

Source: James Cotton, ed., *Korea Under Roh Tae-woo* (Canberra: Allen and Unwin, 1993), 18.

50세 이상의 투표자 중에서 노태우는 55퍼센트 이상을 얻은 반면, DJ는 전라도의 80퍼센트

4) See Choi Chungmoo, “The Minjung Culture Movement and Popular Culture,” in *South Korea’s Minjung Movement: The Culture and Politics of Dissidence*, ed. Kenneth Well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5), 116.

5) Paik Nak-chung, “The Reunification Movement and Literature,” in *South Korea’s Minjung Movement: The Culture and Politics of Dissidence*, ed. Kenneth Well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5), 181-2.

6)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Lost Victory*, 189.

이상과 서울의 약 1/3을 얻었다. 그 당시에 야당의 후보단일화 실패와 북한의 항공기 폭파로 선거사기의 실질적 주장이 묻혔다. DJ의 당은 정부가 90만표를 조작했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유권자 명부에는 25,870,000명이었고, 이전에 발표했던 것보다 거의 1백만표나 더 많았다. 90퍼센트 이상의 부재자 투표(거의 1백만표에 이르는)가 노태우에게 갔고, 일반적 투표와는 아주 다른 비율이었다. 전라도에서 태어난 유권자가 상당수인 서울과 부산의 선거구에서 김대중은 놀랍게도 소량의 표만 받았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12월 16일 저녁 목격자들이 공무원들이 빵깍질 아래 숨겨 배달트럭으로 서울 투표함을 구로구청 밖으로 빼내는 것을 목격했다.⁷⁾ 즉시 수천명의 사람들이 투표함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구로구청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사람들과 투표함은 밤새 제자리에 있었지만 결국 수천명의 경찰이 최루탄을 쏘면서 공격했다. 9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체포됐고, 투표함이 사라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다.

DJ는 공개적으로 사기에 항의했지만, 언론은 그의 우려를 최소화했다. 정부의 은폐는 너무 완벽해서 1년 뒤 미국인 기자 조 망구노(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 서울지국)가 얼마나 대규모의 컴퓨터 사기가 노태우에게 선거를 훔쳤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작업하고 있을 때 국정원 요원들이 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인터뷰와 조사자료가 든 디스켓을 훔쳐갔다. 게다가 그들은 선거다를 다루는 파일의 어떤 흔적도 없이 하드디스크를 지웠다.⁸⁾ 1987년 한국의 유권자를 기만하는 데 사용된 사기는 미국의 2000년 선거를 생각나게 한다. 조지 W. 부시는 몇 백명의 플로리다인드리 투표인 명부에 빠지거나 단순히 투표소 입장을 거부당해 최소의 표차이로 승리할 수 있었다. 명백히 **낮은 잡자리에 들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다**는 맬컴 X의 말은 옳았다.

고립되고 인기도 없던 노태우는 자기 정부가 “총체적 위기”라고 묘사했다. 많은 정치범들이 석방됐지만, 국가보안법이 정한 범위 내이거나 때로는 법률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제한 내에서 그렇게 했다. 집회의 자유는 엄밀하게 제한됐고, 심지어 예술가들도 검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1987년 9월 조선대학교 학생 전정호와 이상호는 그림을 몰수당했고 나중에 체포됐다. 북한의 백두산을 배경으로 한 문제의 작품은 노동자, 농민, 학생(민중)을 왼쪽에, 미국이 통제하는 허수아비로서 전두환과 노태우(해무기를 든 채)을 오른쪽에 그렸다. 비록 두 사람은 몇 달 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그들의 처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남았는지 상기시켜 줬다. 운동권 활동가들은 군부에 반대한 노력을 배가했다.

대대적 올림픽 준비 지출과 “3저”(낮은 이자율, 낮은 석유가격과 낮은 원달러 환율)로 경제적 진보가 시위를 침묵시키는 데 다소 도움이 됐다. 금융자본과 무역의 시장지향적 개혁에서 전두환의 발걸음을 뒤따른 노태우는 경제를 수십년 동안 지속된 동일한 친기업적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었다. 그는 한국시장을 미국소고기에게 즉각 개방했고, 1988초 신생 농민운동을 활성화시켰다. 1월 8일 2만명 이상의 축산농민들이 새 정책에 대해 시위를 벌였고, 일부는 심지어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를 강조하기 위해 소를 서울로 데려오기도 했다.

1988년 4월 26일 국회선거에서 집권 민정당은 다수를 상실했고, 야당이 통제력을 획득한 사상 최초의 선거였다. 71[70]석을 획득한 평민당(1987년 김대중이 만든 평화민주당)이 야당 중에서 최대의석을 얻었다. 국회의 첫 번째 주요한 사업은 광주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국회내에서 야당은 학살책임자를 적극적으로 추궁했을 뿐 아니라, 정부 외부의 세력도 압력을 가했다. 전두환의 “삼청교육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단체가 결성됐다. 불교도들은

7)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Lost Victory, 200-10.

8) Joe Manguno, “Memories, First and Last,” in Korea Witness: 135 Years of War, Crisis and News i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eds. Donald Kirk and Choe Sang Hun (Seoul: EunHaeng NaMu, 2006), 296-7.

1980년 조계사에서 과도한 경찰력 사용에 대한 사실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5월 이후의 열기 속에서 대학생들은 1988년을 “통일의 원년”이라고 낙관적으로 주장했다. 1988년 5월 1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고려대학교에 모였고, 1961년(박정희 쿠데타 이전)처럼, 북한 학생들에게 통일을 논의할 모임에 초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북한의 학생들은 즉각 동의했지만, 노태우는 학생들이 13명의 북한 대학생 대표단과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 5만명 이상의 경찰을 동원했다. 약 800명의 학생들이 체포됐고 많은 학생들이 국안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⁹⁾ 노태우는 북한과의 풀뿌리 외교를 탄압했지만, 1988년 자신의 “북방정책”을 선언했고 평양을 제외한 소련, 중국, 동유럽과의 관계를 개방했다. 1990년 4월 19일 노태우는 제주도에서 소련 지도자 고르바초프와 만났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2년 이상 걸렸다.

주류 정치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노태우 정부의 처음 2년은 “계속적인 파업과 학생시위”로 특징지어졌다.¹⁰⁾ 이 때는 단지 격동적 시대의 일부였다. 지속적인 학생과 현장의 시위 외에도 많은 다른 집단들이 동원했다. 1988년 10월 17일 활동가들의 유가족들(의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은 비밀스런 경찰의 잔혹행위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기념비적 1,350일 농성을 시작했다.¹¹⁾ 11월 15일(전태일 자살을 추모하는 최초의 대규모 집회에서) 4만명 이상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연세대학교에 모여 노동악법 폐지를 주장했다. 11월 17일 약 1만명의 농민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에 모여 국내 농업시장에 밀려는 미국 농산물에 항의했다. 4일 후 수천명의 교사들이 여의도에 모여 비민주적 교육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정부폭력에 대한 오랜 좌절의 이런 폭발에 대한 정권의 대응은 끔찍한 국안보안법을 사용하는 것이었고, 1948년부터 이승만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반정부 인사들이 북한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두환이 고무도장 국회에 강제한 억압적 노동법으로 수천명의 활동가들이 체포됐고 수백명이 기소됐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계속 금지됐고, 노동자들은 시위에 참석하기만 해도 엄격한 탄압을 받을 것이라란 경고를 받았다. 자주적 조직들이 민간 사업을 조직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었고, 합법적인 파업권도 거의 부정당했다.

노태우의 노동계급에 대한 전쟁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국가의 부와 권력에서 자신의 몫을 위해 용감하게 계속 투쟁했다. 1987년처럼 분규는 재벌에 집중돼 있었다. 삼성에서 재미교포 제임스가 신생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고용됐다. 회사측은 어떤 신규 노조도 결성하지 못하도록 가짜 친삼성 노조를 등록했고,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조를 등록하려고 시도하면 폭력을 행사했다. 1988년 4월 조선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삼성은 구사대 강패들을 파견했다. 격렬한 전투가 며칠 동안 계속됐지만, 결국 회사측은 현장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친회사측 노조”를 제안했고, 독립노조운동을 회피하기 위한 교묘한 공작이었다. 금융부문, 언론, 그리고 광범한 분양의 사무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화이트칼라 노조가 결성됐다. 12월에 지속적 완고함 때문에 현대에서 새로운 파업이 일어났다. 같은 날 노동자들은 지역 및 업종별 협의회들의 첫 전국회의가 열렸다.

노동자들이 조직하자, 노태우는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기 위해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1988년 12월 28일 “시민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노태우는 6월봉기 이후 제정된

9) Hart-Landsberg, *The Rush to Development*, 294.

10) Haggard and Kaufman, *Political Economy*, 232.

11) *Hard Journey*, 49.

자유화의 철회를 선포했다.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더 체포됐고 그들의 불법 노조사무실이 공격으로 폐쇄됐다. 수천명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운명에 처했는데, 여기에는 동일한 초점을 맞춘 국본의 후계조직인 전국민주운동연합이 여기에 포함됐다.¹²⁾ 1989년 매일 평균 체포수는 1988년의 두 배였고, 전두환 시절보다 세 배였다.¹³⁾ 일부 목격자들은 노태우의 탄압을 1920년대 일본 식민지 총독부나 1945년에서 1948년까지의 미국에 비교했다. 노태우 임기 3년 동안 약 4,300명이 정치적 이유로 구속됐고, 이에 비해 전두환의 8년 동안 4,700명이 구속됐다.¹⁴⁾ 1989년 7월에는 6월에만 6,500명 이상이 구속된 것으로 보도됐고, 이 가운데 700명이 공식기소에 직면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다. 국회의 권한은 예산문제로 국하됐고, 평화적 시위대를 위협하고 체포하는 데 국가보안법이 계속 사용되는 것을 지켜봤다.

노태우의 탄압세력과 반란한 노동자들 간의 충돌의 증폭은 12월 12일 시작된 현대중공업 파업이었다. 파업대오가 공장을 지키는 동안 노동자들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갖춘 경찰에 돌과 화염병으로 싸웠다. 1989년 1월 8일 새벽 제임스 리가 이끈 회사측 깡패들이 야구방망이와 각목 공격으로 노조 지도자들을 심하게 구타했고 권용목은 다리가 부러졌고 노조사무실은 파괴됐다. 이에 대응해 수만명의 노동자들이 모였고 정주영의 허수아비를 불태웠다. 학생그룹이 도착해서 연대시위를 벌였다. 108일 동안 접거는 계속됐다. 1989년 3월 30일 정부는 울산의 거대한 현대 공단을 공격하기 위해 경찰부대를 동원했다.¹⁵⁾ 새벽 13,000명 이상의 경찰이 육해공 3면으로 공격을 전개했다. 그러나 경찰 선발대가 공장에 도착했을 때 공장은 비어있었다. 노동자들은 몰래 기숙사로 빠져나갔다. 몇시간 뒤 경찰이 재정비해서 다시 한번 공격하자 야만적 전투가 벌어졌고 곧 인근의 현대 공장들로 퍼졌다. 울산의 곳곳이 전투지역이 됐다. 다음 날 가족들과 학생 지지자들이 지원하러 도착했다. 격렬한 전투는 열흘 동안 계속됐다. 수백명이 부상당하고 수백명이 체포된 후 노동자들은 흩어져서 공장으로 돌아갔다. 주요 지도자들은 해고됐고 많은 수가 감옥에 갇혀 있었다. 전술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노동자들의 조직은 더욱 단결되고 규율을 갖게 됐고 현장에 대한 그들의 통제력은 역동적이었다. 투쟁의 도가니 속에서 증폭이 만들어졌고, 많은 신참들이 노조에 가입했다.

같은 달 2천명의 전투경찰은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을 파괴했다. 그들의 파업은 운수 노동자들이 취한 최초의 현장투쟁이었다.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결성됐다. 첫째에 1,636명의 교사들이 불법노조의 조합원이란 이유로 해고됐고, 210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다.¹⁶⁾ 캠퍼스에서도 격렬한 투쟁이 일어났다. 5월 3일 부산 동의대학교에서 시위를 진압하려고 동원됐다가 전투경찰 6명이 사망했다. 대학은 폐쇄됐다. 5월 10일 광주에서 조선대학교 활동가 이철규가 정류장에서 경찰에게 쫓긴 다음 저수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

예술가들도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1989년 최초의 광주 5월 전시회는 예술가들이 정부의 갤러리 공간 검열을 피하는 장소가 됐다. 그들은 집단작업으로 광주에서 민중투쟁의 역사를 묘사하는 거대한 가두벽화를 만들어냈다. 이 거대한 서사적 작품(한 벽화는 2.6미터 높이에 길이 66미터)에 수백명의 화가들이 참여했다. 네명의 화가는 작품 슬라이드를 평양 청년학생축제에 보내자, 그들은 체포됐고 그들의 작품은 파괴됐다.¹⁷⁾ 체포된 동안 홍성담은 물고문

12) Hart-Landsberg, *The Rush to Development*, 296.

13) See Stephen Kirby's article in *Democracy in Korea: The Roh Tae Woo Years* (New York: Carnegie Council on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1992).

14) Hart-Landsberg, *Korea*, 200.

15) Koo, *Korean Workers*, 169-1; Hart-Landsberg, *Korea*, 199.

16) Interview with Yoon Young-kyu, April 10, 2001.

과 다른 공격을 받았지만 결국 앰네스티 양심수로 석방됐다. 1990년 5월 17일 광주봉기에 대한 최초의 기념물이 제막됐다. 개인적 후원으로 만든 이 작품이에 전남대학교에 무장투쟁을 묘사하는 벽화가 등장했다. 예술가들은 자주적인 예술가단체를 만들고 기층 대항공간의 일부로서 대항전시회를 주최함으로써 당국의 검열시도에 저항했다. 1990년 전시회는 “10일간의 봉기와 그 이후 10년간”에 초점을 맞췄고 그 이후 5월에 망월동 묘지에 “미국 전시회”를 열었다.

[사진] 노태우의 임기 동안 경찰은 마음대로 시위대를 진압했다. 1991년 4월 26일 경찰의 구타로 사망한 학생 강경대는 서울과 광주에서 전투적 장례식을 치른 후 묻혔다.
사진작가 미상

노태우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계속 사용한 폭력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 국무회의에서 노태우가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시도하는 폭력혁명 세력을 분쇄할 우리의 역량에 달려 있을 것이다.”¹⁸⁾ 노태우는 부드러운 이미지의 선거공약 일부로 임기 중반에 신임투표를 실시할 것이고 만약 국민이 반대하면 사퇴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광주에 관한 폭로에 따른 스캔들이 그의 운명을 봉인했어야 했다. DJ의 평민당이 주요 야당이 된 상황에서 광주청문회는 다른 현대의 정치사건들보다 비교되지 않게 전국민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노태우는 정치적 해결책이 필요했고 YS와 보수적 야당이 그에게 합세해 대연정을 창출하자 그는 실마리를 찾았다. 1990년 1월 22일 집권 민주정의당과 두 야당(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통합해 민주자유당(민자당)을 결성했다. 세력재편으로 노태우정부는 국회에서 여당이 됐다. 그는 압도적 지지를 주장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노조 활동과 파업을 더욱 제한하는 입법을 재빨리 통과시켰다. 1990년 7월 17일 민자당은 국회에서 30초만에 26개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 청문회나 심지어 표계산도 없이 언론에 대한 국가통제가 강화됐고 군대에 대한 민간통제는 약화됐다. 야당의원들이 항의해 사퇴했지만, 조치는 강행됐다. 노동에 대한 정부의 공격이 강화되면서, 4백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노동조합은 공격당했고 출판물은 폐간됐다.¹⁹⁾ 통일운동은 반국가적인 것으로 낙인찍혔다. 우연은 아니겠지만, 1990년은 1980년 이래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한 유일한 해였다.

아주 극심한 탄압에 직면한 운동권 그룹들은 조직을 탄탄히 하면서 혁명의 명시적 승인으로 나아갔다. 학생운동이 지역그룹을 통일시킨 사례를 따라, 1백개 이상의 그룹이 모여 전국농민회총연합(전농)을 결성했다. 1990년 1월 22일 민자당 통합과 같은 날 노조 조직가가 된 과거 학생운동가들이 전투적이고 급진적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으로 성공적으로 단결했다. 전노협의 슬로건은 “평등사회 건설! 노동해방 쟁취!”였다.²⁰⁾ 전노협의 회원은 14개 블루칼라 노조들의 지역협의회와 2개 업종연맹이었고, 456개 노조 160,000명을 대표했고 한국의 전체 노동조합원의 8.6퍼센트를 차지했다.²¹⁾ 중요하게, 이 새 연합체에 화이트칼라 노동자(그들 중 약 10만명이 조직됐다)이나 재벌노조, 특히 현대와 대우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전노협에 연대성명을 했고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전노협은 노동해방의 문제를 제기하고 자본주의에 반대한 최초의 주요 조직이었다. 국가보

17) Lee Tae-ho, “May 18 Kwangju Democratization and the Art Movement,” 140.

18) Hard Journey, 48.

19) Haggard and Kaufman, Political Economy, 123.

20) Baik Tae-ung, for example, served time in prison simply for refusing to renounce his socialist beliefs. Adopted by Amnesty International as a prisoner of conscience, he was ultimately freed.

21) Koo, Korean Workers, 179.

안법이 “사회주의” 같은 단어의 사용을 금지했기에 “노동해방”과 “지배계급권력 반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암호같은 수단이었다. 국가는 새 조직이 공고화하는 것을 너무 심하게 막으려고 해서 전노협 창립 당시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감옥에 있거나 숨어 있었다. 합법성을 쟁취하려는 희망을 반영한 전노협 창립선언은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경제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고, 경제사회적 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민주적 민중운동과 단결하고, 민주주의와 자주, 평화적 민족통일을 위한 우리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자본주의 종식에 충실한 그런 급진적 조직은 노태우 정부의 타겟이 됐다. 결성되자마자 정부는 전노협이 “노동해방을 위한 계급투쟁의 이데올로기로 악의적 분쟁을 이끌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전노협을 불법화했다. 300백 이상의 비밀요원들이 공장에 파견됐다.²²⁾ 다음 해 294명의 노동지도자들이 장기형으로 구금된 상태였고, 추가로 200명이 지하로 들어가서 경찰의 수배를 받았다.²³⁾ 여러 해 동안 국가탄압이 새 노동조합에 가해지자 전노협은 급속하게 회원조합을 상실했고 나타난 지도자들은 감옥에 갇혔다. 동시에 정부는 전노협의 개량주의적 지도자들을 선호했고 곧 국민파(“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즉 NL 정치와 동맹한 개량주의 분파가 그 대열 안에서 등장했다.

전노협은 1987년과 1990년 사이 수천건의 투쟁으로부터 결성됐지만, 표 11.2에 지적된 것처럼 그 이후 투쟁의 수자는 감소했다. 파업의 수자는 줄어들었지만, 파업은 훨씬 더 정치적으로 됐다. 1990년 4월 12일 정부소유 KBS 노동자들은 전두환 친구의 KBS사장 임명에 항의해 방송국의 신호를 중지시켰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방송민주화 투쟁을 시작했고 이 투쟁은 전국적인 언론파업으로 전환했고 여기에 MBC와 기독교방송 노동자들도 연대하여 작업을 중지했다. 19일 간의 KBS파업은 2,400명의 전투경찰이 건물에 난입해 파업자들을 몰아낸 다음에야 끝났다.²⁴⁾

[표 11.2] 1986-1995년 노동쟁의 수자

년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수자	276	3,749	1,873	1,616	322	234	235	144	121	88

Source: Hagen Koo, *Korean Workers: The Culture and Politics of Class Forma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159.

[사진] 1990년 4월 울산 현대중공업 조합원들은 공장점거를 방어했다. 사진작가 미상

[사진] 1990년 4월 조합원들이 경찰과 싸우고 있다. 사진작가 미상

같은 달 현대중공업의 체포된 노조 지도자들이 그전 3월에 끝난 108일 파업으로 중형의 발자 조선소에서 새로운 파업이 일어났다. 정부가 철권을 휘둘렀지만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항복을 거부했다.

풀뿌리에서 터져나온 불만 중의 하나는 파업으로 구속된 KBS의 방송노동자들이 나중에 석방된 반면, 공장 노동자들은 재판과 징역을 견뎌내야만 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었다. 노조 유인물은 이 감정을 표현했다. “이번에 우리는 펜과 방송은 두려워 하지만, 해머와 용접기를 가진 노동자는 무시할 수 있다는 저들의 태도를 단호하게 바꿔내야 한다.”²⁵⁾ 정부의 분할통

22) Bello and Rosenfeld, *Dragons in Distress*, 45.

23) Won Young-su, “History of South Korean Labor and Student Struggles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in *The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Revolution and Protest: 1500 to Present*, ed. Immanuel Ness (London: Wiley Blackwell, 2009).

24) Hart-Landsberg, *The Rush to Development*, 279.

치전술은 명백히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4월 28일 노태우는 다시 한번 노동자들의 점거를 분쇄하기 위해 1만명 이상의 경찰을 조선소에 보냈다. 이 투쟁은 골리앗 투쟁으로 알려지게 됐다. 전투경찰이 파업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집결하자 78명의 노동자들이 추구장 높이만큼의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 위로 올라갔다. 경찰과 수천명 노동자들 간의 전투가 벌어지면서 울산 동부는 다시 한번 전투지역이 됐다.

파업은 새로운 노조가 강력한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났고, 5월 4일 전노협은 총파업을 선언했다. 146개 공장 120,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정부의 노조 지도부 타당성에 항의하는 정치 파업으로 대응했다.²⁵⁾ 비록 51명이 5월 10일까지 골리앗 크레인 위에 남아있었지만, 다수의 노동자들이 직장에 복귀하자 그들은 내려왔다. 패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더욱 급진적이고 전투적으로 됐고, 서로 연대하여 투쟁할 새로운 역량은 공장이나 산업별 조직화를 넘어서는 지역 협의회를 만들어냈다.

1990년대 초반, 주도권이 정부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화이트칼라 노동조합은 열심히 조직화했고 노동조합 결성운동의 중요한 일부가 됐다. 교사들은 특히 영웅적이었고 영감을 줬다. 비록 수백명이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돼 연금과 직업을 잃었음에도 그들은 버텼다. 보건의료 노동자, 금융서비스 노동자, 인쇄 노동자, 연구원, 외국인기업 노동자들, 통신 노동자들은 모두 자주적 조직을 결성했다. 제조업 노동조합은 아주 높은 임금인상을 쟁취해서 숙련노동자들의 급여는 대학교수의 수준에 근접했다. 다양한 흐름의 자주적 노동조합들이 모여 강을 이루면서 곧 통합하게 됐다. 수천건의 투쟁은 한국노총에 대한 대안이란 궁극적 목표를 향한 커다란 걸음을 만들어냈다.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가 노동계급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자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구사대와 경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자신들의 사수대를 조직했다. 1980년대 말까지 모든 주요대학은 학생투사들의 자주적 조직을 가졌다. 전남대에서 5월대는 죽창, 불꽃, 비호, 진달래 등 네 개 부대로 구성됐다. 이 사수대는 함께 훈련하고 술마시고, 공부하고 정치경제학을 연구했고, 지역과 전국적으로 투쟁을 조정했다. 그들은 집회 동안 정문과 후문을 지켰고 경찰이 공격하는 경우 순찰을 돌았다. 많은 시민들은 음식과 물, 음료수를 줬다. 1988년 새로 쟁취한 학생회를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5월대는 첫 해에 400명의 대원을 갖췄다.²⁷⁾ 일찍이 1984년부터 광주에서 비공식적으로 조직된 투사그룹이 만들어졌었지만, 이 새로운 수준의 조직은 체계적이었다. 조선대학은 녹두새, 광주대학은 투사대, 호남대는 일성대, 동신대학은 혁신, 교원대는 백두산, 목포대안은 민족충성대였고 순천대는 6월대였다. 투쟁과 경찰서 앞 항의에 기동타격대 역할을 한 외에도, 이 자기조직화한 투쟁단위들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집회도중 사기를 올리는 책임도 맡았다.

1988년 4월 30일 약 500명의 5월대 투사들은 무등산으로 가서 화염병을 만들고 쇠파이프를 만들어 사용하고 바리케이드를 쌓는 훈련을 했다. 나중에 지리산으로 가서 각목과 화염병 사용, 팀웍을 훈련했다. 비로 여성은 별로 없었지만, 여성도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 전대협 내부처럼, 팀 내에서 남녀 관계없이 형이란 호칭이 사용됐다. 1990년대 광주 외부의 많은 대학들도 투사그룹을 조직했다. 건국대학에서는 황소부대, 중앙대학에서는 폭풍대가 결성됐다. 보다 급진적인 조직들도 힘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은

25) Quoted in Koo, Korean Workers, 173.

26) Ibid., 174.

27) Interview with Park Chol-ho, Gwangju, July 11, 2003.

5개 지역구조에 69개 공장에 기반을 잡았고 5백명의 핵심 조직원과 수천명을 지지자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²⁸⁾ 1990년 정점에 이르렀던 사노맹 프로젝트에는 노동자대학과 사회과학원이 포함됐고 대학 및 고등학교 지동도 상당히 세력을 갖고 있었다. 사노맹의 명확한 사회주의 승인의 충격치로 운동권은 정권의 법이나 사회의 “레드 콤플렉스”가 아무리 금지하더라도 자신의 비전을 정식화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많은 사노맹 조직원들은 감옥에 갇혔다.

1987년의 발전은 운동 내부에서 노동계급 헤게머니를 구축했고, 노동자권력은 한국의 새로운 지형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세력인 것 같았다. 기업별 노조의 한계에 도달하자 노동자들은 한국노총에 대한 대안을 형성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자신을 조직화했다. 1990년 11월 22일 약 400명의 노동자들이 성균관 대학교에 모였다. 그들은 모두 14개 지역과 2개 업종별 노조, 사무직과 생산직 노동자를 포함한 600개 민주노조를 대표했지만, 그들의 대열에는 정부의 탄압 때문에 접촉할 수 없었던 대규모 **산업별** 노동조합을 포함하지 못했다. 지도자들이 조직화 사업을 하면서, 노동자 투쟁의 잠재력은 전투적 행동에서 명백했다. 1992년 9월 민주언론을 위한 MBC의 50일 파업은 병원, 대학, 철강공장과 조선소로 확산됐다.

노동자들이 한국의 변화하는 권력구도에서 자신의 위치를 주장함과 동시에, 군부의 오랜 만행의 역사에서 피해자들, 특히 광주 사람들은 정의를 위한 그들의 호소를 포기하길 거부했다. 1989년 1월 18일 광주의 학생들은 지역 미국문화원을 습격했고, 행동을 요구하며 지역검찰청을 공격했다. 1989년 5월 18일 전라도의 대학교수 854명은 학살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해방광주의 칩회에서 처음 제기된 정의를 입법화하려는 노력은 그냥 죽기를 거부했다. 1992년 3월 5일 27개 이상의 상이한 추모단체들은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의 10만인 서명을 모았다. 노태우가 그것을 무시하자, 한 어머니는 좌절과 슬픔으로 목숨을 끊었다.²⁹⁾

학생들의 통일운동

이 시기를 통틀어 학생운동은 정부의 노동자 탄압에 전투적으로 반대하면서 지속적으로 통일에 에너지를 집중했고 그로 인해 많은 체포를 당했다. 1989년 3월 문익환 목사가 비밀리에 평양에 갔고, 북한 지도자 김일성이 그를 환영했다. 몇 달 후 남한 활동가를 대표한 학생 임수경이 북한이 주최한 세계청년학생축전의 대표로 평양으로 갔다. 그녀의 방문은 병백히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히스테리를 자극했고 활동가 서클에 대한 경찰의 압력을 강화시켰다. 미군은 문익환과 임수경이 DMZ를 가로질러 남한으로 넘어오자 그들을 구금했다. 이후 두 사람은 구속됐고, 구금된 학생과 통일운동가들에게 합류했다. 많은 통일운동가들은 경찰의 수배를 받으면서 지하의 도망자로서 살아갔다.

[표 11.3] 1991년 학생회장들의 정치적 경향

정치적 경향	학생회 수
NL	64
PD	11
기타 혁명조직(RMO)	5
NL-PD 연합	4
비RMO	11

Source: *Mal* (January 1991): 209, as cited in Park, *Democracy and Social Change*, 119.

Intense ideological debates began to reveal schisms within the movement.

28) Mi Park, *Democracy and Social Change*, 116-7.

29) *Hard Journey*, 55.

1990년 “주체”(친북한)를 지향하는 경향들은 여러 분파로 분열했다. 다수의 PD활동가들이 현장을 조직하려 간 반면, NL은 캠퍼스에서 그 대열을 강화했다. 분명히 학생회의 다수는NL 지향적이었고, 북한을 국가보안법의 정의대로 “적국”이 아니라 우호적인 정부로 생각했다. 1991년 모든 선출된 학생회 지도자들의 2/3가 NL 소속이었다.

1991년 투쟁: 패배와 조정

1991년 초 체제의 지지자들과 질적으로 다른 사회의 옹호자들 사이에 경계선은 분명했다. 진보적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주변화되면서 거리의 운동이 민주주의의 공고화에서 훨씬 더 커다란 중요성을 획득했다. 완강한 노태우 정부에 맞서 비의회적 세력들은 느슨한 연대체로 모였다. 이후의 대치에서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시위는 1991년 4월 26일 치명적 폭력이 가해져서, 전투경찰은 광주출신 명지대 신입생 강경대를 죽였다. 강경대는 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죽었고 그의 죽음은 수년만에 최대의 시위물결을 촉발했다. 두 달 동안의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고, 5월 29일 정점에 이르렀다. 이 날 최소한 44개 시군에서 20만명이 시위를 벌였다. 4월 26일부터 6월 29일(시위 조직가들이 명동성당의 본부를 떠난)까지 1백만명 이상이 전국적으로 2,361건의 집회와 시위에 참여했다.³⁰⁾ 5주간의 시위 동안 공식통계는 75개 도시에서 70만명 이상이 시위를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³¹⁾

5월은 노동조합들이 새 단체협상을 시작하는 달이며, 5월 18일 총파업이 선언됐다. 비록 156개 기업의 10만명 노동자들이 반응했음에도, 파업은 통일적 주제를 결여했고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으로 이해됐다.³²⁾ 총파업은 곧 흩어졌다.

서울에서 강경대의 장례식도 5월 18일이었고, 노태우 정부에 반대한 중요한 가두시위 와중이었다. 그의 고향 광주에서는 10만명 이상이 거리로 나섰다, 부산에서 20,000명, 서울에서 22,000명이 그를 추모했고, 대구와 인천, 수십개의 다른 도시에서도 대규모 군중이 모였다. 서울에서 연세대학교 앞에서 세 시간이 넘는 격렬한 전투 끝에 시위대는 경찰의 휴전제안에 동의했다. 협상 후에 강경대의 장례식은 서울역 대신 마포구에서 허용됐다. 그날 두명의 활동가들이 자살했다. 서울의 행진 후에 수천명이 매장을 위해 광주로 가는 강경대의 시신을 보호하는 장례단에 참여했다. 정부는 강경대를 망월동에 묻지 못한다고 우겼고, 광주로 가는 고속도로에 대규모 경찰도로봉쇄가 장례단이 통화하지 못하게 강화됐다. 광주의 잘 모직된 학생 사수대가 기습반격으로 경찰을 뒤에서 공격했고, 5월 19일 새벽 4시까지 격렬한 전투가 모두 16시간 동안 벌어졌다. “운암동” 전투 도안 지역주민들은 투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줬고, 돈과 물을 줬다. 명백하게 급진적 반국가운동은 광주에 엄청난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투쟁이 계속되자 장례대열은 뒤길을 이용해 마침내 도청앞 금남로에 도착했다. 거기에는 마지막 예를 표하기 위해 수만명이 모여 있었다.

사람들은 노태우를 퇴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양키 고 홈!” 외에 그들의 중 슬로건은 “국가 테러리즘을 중지하라!”였다. 5월 25일 시위에서 살해된 성균관 대학생 김귀정의 장례식에서 문익환 목사는

30) See Sungmoon Kim, “Confucianism in Contestation: The May Struggle of 1991 in South Korea and Its Lesson,” *New Political Science*, March 2009.

31) The Korea Church Coalition for Peace, Justice, and Reunification, *Korea Update* 104 (May-June 1991).

32) Park, *Democracy and Social Change*, 167.

“귀정리와 함께 노태우 정부를 묻자”고 선언하면서 조사를 마쳤다. 불행히도 이 투쟁에서 13명이 생명을 잃었고 그들 모두 망월동 묘지에 묻혔다. 대부분은 자살이었고, 언론과 운동권에서 반성적 논쟁을 촉발했다. 최초의 분신은 4월 29일에 일어났고, 전남대생 박승희가 미국의 지속적 한국지배에 항의해 분신했다. 투쟁이 끝날 무렵 김영균 전세영, 김기설, 윤용하, 이정순, 김철수, 정상순, 이진희, 석광수 등 10명이 목숨을 끊었다. 그 달 운동열사의 총수자는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를 포함하면 12명이었다. 박창수는 5월 6일 안양교도소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 김지하와 다른 지식인들은 학생들을 격하게 비난했고,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희생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보수적 신문 조선일보의 지면을 이용해). 한국의 운동에서는 1970년 전태일의 자살부터 30년간 수백명의 열사가 생겼고, 여기에는 고문, 최루탄이나 곤봉으로 인한 부상, 건물에서 추락 등으로 죽은 431명이 포함된다.³³⁾ 이 수치는 1980년 봄기 동안 광주에서 사망한 수백명은 포함하지 않는다. 2008년 출판된 열사력은 민주화운동 동안 최소한 119명의 자살을 기록했다.

이 양극화와 죽음의 시기에 사람들의 감정은 너무나도 격해서 일부는 공격대상과 전술을 주의깊게 생각하지 않고 적을 타격하는 데 나섰다. 1991년 6월 3일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성년 학생들은 새 총리 정원식을 공격했다. 그는 1989년 노조가입을 이유로 수백명의 교사들을 해고했었다. 학생들은 그에게 밀가루와 달걀을 던졌고 구타했다. 급진파를 고립시킬 기회라고 생각한 보수언론은 이 사건을 과도하게 부풀렸고 "무질서의 악령에 물든" 민주주의에 대해 공격했다. 노조 지도자들이 살해당하고 학생 활동가들이 감옥에 갇히는 한, 조선일보는 거의 보도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장관에게 사소하게 거칠게 달뿔도 편집자들은 분노에 차서 날뛰었다. 독일의 슈프링어사처럼, 조중동(보수적 신문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합성어)은 운동에 대한 공격을 선정적으로 펼쳤다. 조중동의 보도로 야기된 신랄한 감정은 활동가들을 보통 한국인들에게서 고립시켰다. 그들은 나이든 사람에 대한 공격에서 드러난 유교적 유범에 대한 모독이 너무 치나쳤다고 느꼈다. 언론이 사건을 젊은이들의 무례로 몰아가자, 운동은 전술적 패배를 당했다.

1991년 7월 3대 지하 사회주의 조직들이 공개적으로 레닌주의적 전위정당을 부적절한 조직 모델로 비난했고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노동자정당의 건설을 선언했다. 다음 달 소련과 동유럽 현실사회주의의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과거 민중의 성격과 “사회구성체”에 관심을 가졌던 남한 활동가들의 내부 논쟁은 알튀세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구기와 그람시의 헤게머니 개념 같은 물화된 개념에 대한 논의로 대체됐다. 대중투쟁에 대한 실천적 개입으로부터 선회하여 고참 활동가들의 이른바 “고백과 참회의 물결”은 젊은 활동가들에게 충격을 줬다.

어른에 대한 구타 때문에 광범한 대중 사이에서 운동권이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이후, 전환점에 도달했다. 이 지점을 돌면서 민주주의 증대와 지속적 사회변혁에 대한 증가된 기대는 역공을 받았다. 베를린장벽의 붕괴와 기존 유럽공산주의 체제의 몰락이 결합되자 좌파는 기업자본주의에 반대한 세력이 겪었던 전지구적 패배로 비틀거렸다. 1991년 9월 17일 마치 민족분단의 난치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남북한은 별도로 UN에 가입했다.

1991년 11월 10일 7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전태일의 죽음을 추모하고 악화되는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여의도에 모였다.³⁴⁾ 기업들이 더욱 더 많은 파트타임 노동자를 고용하고 사내하청을 확대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이전하자, 노동자계급에 더 심한 압박이 가해졌다. 한국의 진보세력은 재편해서 1991년 12월 12일 58개 단체들의 보다 규율있는 연대체인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전국연합(전국연합)을 결성했다. 정당을

33) Lee, The Making of Minjung, 294.

34) Korea Update 105 (January 1992): 9.

배제한 이 연합은 수십개의 회원조직 중에 5전, 즉 전노협(노동자), 전대협(대학생), 전농(농민), 전빈협(도시빈민과 노점상), 전청협(청년)을 포함했다. 전국연합이 결성되자마자 경찰은 이를 불법으로 선언했지만, 조직가들은 운영규를 대표로 뽑았고 이 조직을 전국적 조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YS와 민주화운동 우파에게 버림받고 실수와 방향상실로 학생운동이 마비된 가운데 한국의 노동계급도 1991년 패배를 당했다. 이 전환점 이후에 여성주의자, 환경운동가, 시민운동 사이의 유사한 투쟁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으로 옮겨갔고, 이는 새로운 투쟁국면으로의 이행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체성의 정치가 민중에서 시민으로의 이행을 알렸다.

시민운동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한국의 시민사회는 언제나 수많은 그룹들이 있었지만, 1980년대 말 1987년 반란의 에너지가 일상적 생활의 관계 속에 스며들면서 NGO들의 놀라운 활성화가 일어났다. 시민사회의 자율적 조직들이 교사, 농민, 노점상, 예술가, 언론인, 여성, 생태주의자, 평화운동가, 동성애자 등 사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1990년대말 남한 사회운동에는 700개 이상의 조직들이 존재했고, 대략 3/4이 1987년 이후에 결성됐다.³⁵⁾

[사진] 1991년 11월 10일 1970년 전태일의 분신을 추모하기 위해 모였다. 사진작가 미상

전문적 활동의 등장은 1987년 반란 2년 이내에 시작됐다. 1989년 7월 약 5백명의 활동가(주로 화이트칼라 노동자와 전문직)이 한데 모여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CCEJ: 경실련)을 결성했고, 이는 민중운동으로부터 첫 번째 이탈이었다.³⁶⁾ 그들은 경제적 불평등, 투기, 불공정한 과제 같은 문제는 오직 “시민사회의 조직된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2년 안에 경실련의 회원은 창립자의 수보다 10배 이상이 됐다. 80퍼센트가 서울에 살았음에도, 그들은 외국농산물의 국내 마케팅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들과 함께 일했고, 이주 노동자들을 지원했고, 경제정의실천 불교연합을 승인했고 노동조합을 지원했으며, 실업자를 위한 혁신적 식목프로젝트인 “생명을 위한 숲”을 지원했다.³⁷⁾ 한 시점에 경제위기 상황인데도 국회가 두달 동안 모이지 않자 경실련은 국회가 “뇌사상태”라고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적 이행의 새로운 분위기에서 광범한 형태의 시민연합들이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생겨났다. 1994년 변호사, 전 학생운동가, 교수들이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연대(PSPD 참여연대)를 설립했다. 참여연대는 재벌개혁을 추구하고 노조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했다. 기업의 과도한 탐욕을 제한하기 위한 소액주주 권리를 위한 창의적 캠페인에서 제일웅애의 주식 1퍼센트 이하를 가진 150여명이 주주총회에 참석해 은행이 제기한 대부에 항의했다. 참석이 허용되지 않자 그들은 소송을 했고 나중에 이사회 결정의 취하와 이사들에게 대한 상당한 벌금을 얻어냈다.

시민운동은 자주 중산층적이고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이며, 민중운동에 비해 점진적인 제도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민중운동은 전투적 전술을 사용한 하층계급이 참여가 특징이며 구조적

35) Seungsook Moon, “Women and Civil Society in South Korea,” in *Korean Society: Civil Society, Democracy and the State*, ed. Charles Armstrong (London: Routledge, 2002), 123.

36) Su-Hoon Lee, “Activation of Civil Society in Korea,” *Pacific Affairs* 66, no. 3 (Autumn 1993): 364; Ilcheong Yi, “Bowling by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Civic Advocacy Groups in Korea,” paper presented for the IPSA, Fukuoka, July 9, 2006, 6.

37) Carmel Abao, “Beyond Bread and Butter: The Demand for Democracy in South Korea,” in *Transitions to Democracy in East and Southeast Asia* (Quezon City: Institute for Popular Democracy, 1999), 136.

변화를 요구했다. 김동춘이 지적했듯이, 시민운동은 개량주의적인 반면, 1980년대 민중운동은 전체에 반대했고 전두환과 노태우의 퇴진을 요구했다.³⁸⁾ 1990년대 시민운동은 YS와 DJ를 모두 승인했다.

[표 11.4] 한국의 NGO

설립연도	숫자	비율
1960년 이전	34	4.0
1961-1970년	36	4.3
1971-1979년	47	5.6
1980-1986	68	8.1
1987-1992	179	21.2
1993-1996	246	29.2
1997-2000	217	25.7
미상	16	1.9
합계	843	100.0

Source: Hyuk-Rae Kim and David K. McNeal, "From State-Centric to Negotiated Governance: NGOs as Policy Entrepreneurs in South Korea," in *Civil Life, Globalization, and Political Change in Asia: Organizing between Family and State*, ed. Robert P. Weller (London: Routledge, 2005).

사회운동에 대한 NGO들의 영향을 검토한 제임스 페트라스는 그들이 반란의 탈정치화를 대표하며 활동가들이 사회변혁보다는 계층상승을 가능케하는 직업을 받아들임으로써 지배적 정치체제에 통합된다고 설득력있게 주장한다.³⁹⁾ 1999년 그는 제3세계에서 5만개 이상의 NGO가 10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받고 있다고 집계했다. 그의 견해로 "NGO들의 활발한 성장의 진정한 추진력은 제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한 대중운동이 성장하는 시기에 일어난다. 급진적 사회정치적 운동과 투쟁의 성장은 과거의 급진파와 사이비 민중 지식인들이 유럽과 미국의 다국적기업과 정부에 긴밀하게 연결된 관심과 충분한 재정을 가진 민간 및 공공 재단들에게 팔 수 있는 수익성 높은 상품을 제공했다. 자금 제공자들은 '도시 슬럼지역의 폭력성향'(1983-1986년 칠레에서 대중봉기 동안 한 NGO의 프로젝트) 같은 정보, 즉 사회과학 첩보, 민중공동체를 공략하고 에너지를 사회변혁 대신 자조 프로젝트로 돌릴 NGO의 역량, 혁명적 활동가들을 불신시키고 고립시킬 '새로운 정체성 담론'으로 포장된 계급협력주의적 수사에 도입에 관심을 가졌다."

사회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발전되는 전문화와 특수화 흐름은 민중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줬다. 페트라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급진적 동력은 운동의 변혁에 의해 너무나도 둔화 돼서, 2002년 찰스 암스트롱은 민중이 "오늘날 한국을 이해하는 데 더 이상 유용한 분석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⁴⁰⁾ 시민운동의 새로운 구도에서 노동자들은 많은 요소들 중의 하나이고, 심지어 반정부경향의 무지개에서 가장 급진적 요소도 아니다. 사회운동에 대한 노동 중심성이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로 대체되면서 좌파들이 보편성 상실을 한탄하는 동안, 대안적 시각은 특수성 속에 보편성을 위치지우며, 즉 여성주의를 모든 인간의 이해로 이해하고 생태주의를 공동의 필요로 이해한다.⁴¹⁾ 류적 보편성의 구체적 **법제화**enactment는 필연적으로 정체성의 정치를 통과할 필요가 있다. 현대 자본주의의 조건 아래서 혁명적 시각의 기능은 억압의 파편적 형태에 도전하려는 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저항

38) Kim Dong-choon, "Growth and Crisis of the Korean Citizen's Movement," Korea Journal (Summer 2006): 99-28.

39) James Petras, "NGOs: In the Service of Imperialism," <http://www.neue-einheit.com/english/ngos.htm>.

40) Armstrong, Korean Society, 2.

41) For further discussion, see The Subversion of Politics, 248-4.

의 요소들 내에 내재한 구체적 보편성을 도출해내고, 기업이익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기초한 경제를 창출할 우리의 공동이해, 그리고 단지 보통 사람들이 매 4년마다 의식화된 선거로 형식적인 민주정권이 아니라 실질적 발언력을 갖는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것이다.

여성운동의 재할성화

수백만명의 민중에게 자유의 역사적 전개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것은 여성운동의 성장을 자극하고 가속화하는 데서 봉기의 역할이다. 1987년 봉기 이후 활동가 여성들은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이 그 자체로 여성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전면에 나섰던 1970년대와 달리, 1987년의 거대한 파업물결은 주로 남성 공장노동자들로 이뤄졌다. 이 물결에서 태어난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은 성적 위계제(gender hierarchy)를 반영했다. 비록 여성이 조합원의 27.4퍼센트였음에도 지역 노조 지도자 중에서 거의 3.6퍼센트만 여성이었다.⁴²⁾ 증공업의 남성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위해 투쟁하면서, 여성 조직들은 점차 거리를 두게 됐고 더욱 자주적으로 됐다. 집밖에서 일하는 한국여성들은 노동력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했지만, 그들중 95퍼센트는 저임금 직종(예를 들어, 사무직, 판매직, 단순 육체노동)에 집중됐다. 여성은 교사의 다수였고(2000년을 기준으로 전교조 조합원의 60퍼센트 이상이 여성), 그들은 다른 화이트칼라 노조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 1989년 은행 및 사무직 노동자의 37퍼센트였고, 관광업의 44퍼센트, 사무직 노동자의 39퍼센트였다.⁴³⁾ 보건의료 노조에서 모든 피고용자의 전반 훨씬 이상이 여성이었다.⁴⁴⁾ 하지만 여성은 1988년 6,142개 기업별 노조 위원장 중에서 겨우 3.2퍼센트였고, 한국노총에 가맹한 22개 산별노조의 집행위원 중에는 여성이 없었다. 여성들은 자주적인 조직화를 가속화함으로써 대응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 노조원 사이에서 의식향상 그룹을 결성했고 여성의 정리해고, 임금격차, 지도부에서 여성배제, 노동조합의 여성노동자 억압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여성 노동조합을 옹호했다.⁴⁵⁾ 1992년 6개 지역단체의 전국적 성장의 결과로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가 결성됐다.

1987년 9월 급진적 여성주의자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을 젊은 문화계릴라로 생각했던 여성주의자들은 미스코리아 대회에 항의했고 지적, 육체적 능력에 관련된 대안적 대회를 조직했다. 그들의 슬로건 중의 하나는 “운동하는 여성이 아름답다”였다. 미국 페미니즘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이 젊은 여성들은 비전을 가진 신문 “이프”(If)를 발행했다. 비록 처음에 고립됐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곧 세계에서 가장 가부장제적인 사회에서 널리 울려 퍼졌다. 그들은 여성노동자들을 지원한 여성 민중미술인, 포스터, 음악 및 연극 제작자들을 포함한 성장하는 여성문화운동의 일부였다. 최소한 하나의 여성주의 영화단체인 **바리토**가 결성됐다.

다른 시민운동처럼 여성운동은 “1980년대 우리 모두를 움직인 하나의 거대한 물결”에서 1990년대 특수화와 전문화의 길로 나아갔다.⁴⁶⁾ 운동 대부분이 국가권력에 초점을 맞춘 반면, 여성의 주변화는 유기적으로 그들이 일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했고, 그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여 다음 세대 여성들이 보다 해방된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창출하려고 노력했다. 1988년 서울에서 열린 최초의 여성노동자 축제는 활기찬 행사였고, 전통적으로 남성이 지배했던 일상생활의 많은 영역이 열렸다. 1990년 37개 여성단체들이 “위안부 여성 대

42) Koo, Korean Workers, 182.

43) Kang and Lenz, Wenn die Hennen krahnen, 49.

44) Moon, Militarized Modernity, 157.

45) Ibid., 151.

46) Suh Jong-suk, quoted in video, The Struggle for South Korean Democracy, 1997.

책협의회”를 구성했다. 2000년 12월 7일에서 12일까지 국제여성 전범재판소는 열렸고 1천 명이 참여했는데, 80개국의 “위안부 여성” 70명도 포함됐다. 한국여성들은 이 문제를 UN에 제소했고 이 문제를 인권문제로 고려해줄 것을 호소했다.⁴⁷⁾

1990년 여성들은 가족법 개정을 쟁취했지만, 오직 남성만 호주가 될 수 있다는 가구등록제도로써 유교적 가부장제 질서의 버팀목이었던 호주제는 10년 이상 그대로였다. 1970년대 한국여성협의회는 가족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일단 1990년 개정에 성공하자 그들은 초점을 호주에 폐지에 맞췄다. 이 조항 아래서 여성은 이혼하는 경우 재산을 상속받거나 양유권을 받을 수 없었다. 호주제는 여성단체들의 지속적 도전으로 2005년 3월 폐지될 때까지 유지됐다. 이 투쟁은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회혁명”의 일부라고 불렀다.⁴⁸⁾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남성의 전통적 지배는 완고했다. 1990년대 중반 한 연구에 의하면 부인들이 집에서 주당 평균 72.4시간을 일하는 반면 남편은 주간 겨우 9.2시간이었다.⁴⁹⁾ 이런 격차 외에도 많은 한국여성은 집 밖에서 일하지만(노동력의 약 40퍼센트를 차지), 1998년 그들의 95퍼센트는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 농업 및 단순육체노동 같은 직업적 위계의 하층에 집중돼” 있었다. 이 통계는 가부장제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배력을 보여주지 시작했을 뿐이다. 한 강간사건의 경우 강간범의 혀를 깨문 여성이 “과도한 자기방어”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여성단체들은 그녀의 편으로 모였고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배우자 강간을 포함한 강간문제에 대한 대중과 법적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 1990년 부인 3명중 2명이 남편에게 구타당하는 것으로 보고됐다.⁵⁰⁾ 여성에게 기회가 증가하는데, 이혼률이 1980년과 1995년 사이에 5.8퍼센트에서 16.8퍼센트로 거의 세 배로 늘어난 것이 놀라운 일인가? 1995년 10월 11-13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성정치 문화제에서 분명하듯이 한국 여성운동의 “두번째 물결”이 공고화되면서, 토착적 게이-레스비언 운동이 등장했다.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와 확대와 더불어 여성은 정치참여는 여성 국회의원의 수자로 측면하면 오히려 떨어졌다. 1988년과 1992년 국회의원선거에서 개별 지역구에서 여성은 전혀 선출되지 않았고 1996년 겨우 2명이 승리할 수 있었다. 1985년 독재 아래서 8명의 여성의원원이 있었고(2명은 지역구), 1988년에는 6명, 1992년에는 겨우 4명이었다. (이 결과는 라틴 아메리카와 동유럽의 민주화 경험에서도 유사하다). 1991년 30년만에 처음 열린 지방선거에서 여성은 1퍼센트 이하의 시군 및 광역 의석을 얻었고, 1995년에는 1.5퍼센트였다.⁵¹⁾

환경운동

수많은 환경단체들의 기원은 1980년대로 추적할 수 있지만, 민주화는 그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였고, 따라서 과거에 주변화된 단체들 사이에서 통합을 용이하게 했다. 1987년 이후 20개 이상의 단체들이 합쳐서 한국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KAPMA)를 결성했다. 한국의 반핵운동은 1987년에 등장했는데, 영광주민들은 가동중인 핵발전소 2기와 건설중인 wr1로 인한 어업 피해보상을 보상을 요구했다. 공개적 심의가 진행되자 분쟁에 곧 재야세력과 국회가 가담했다. 1989년까지 20개 이상의 단체들이 핵발전폐기 전국본부로 결집했고, 산개된 반핵그룹들을 한데 모았다.⁵²⁾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공장에 대한 감시가 증가했다. 1990년 7개 원

47) Cho Joo-hyun, “The Politics of Gender Identity,” 246.

48) Anna Fifi eld, “South Korean Registers the End of Male Superiority,” Financial Times, March 5-, 2005, 5.

49) Cited in Asian Women 4 (Spring 1997): 240.

50) Carl Byker, The Pacific Century: The Fight for Democracy, 1992, PBS.

51) Chin, “Self-Governance,” 101.

자로에서 최소한 193건의 사고가 보고됐다. 항의는 곧 핵폐기물 처리문제로 확대됐다. 박정희 시대에 감옥에서 6년을 보낸 최열은 고를레벤의 처리시설에 대한 독일운동의 투쟁에 대해 듣고 영감을 얻었다.⁵³⁾ 20년 동안 지역운동은 계획된 처리시설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1990년 안면도(충남 서해안)에서 반핵운동이 그들에게 정부의 “연구시설” 발표의 기만에 대해 알려주자 주민들은 분노했다. 투쟁에 2만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했고 일부는 경찰서와 공공건물 여러곳을 공격해 불질렀다. 아이들도 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등교를 거부했다. 마침내 과학기술부 장관은 사임했고 부지선정은 취소됐다. 한반도에서 미군의 핵무기에 반대해 사람들이 동원됐고 미국은 1991년 핵무기를 철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울진과 부안의 반복적인 동원으로 핵폐기물 시설을 성공적으로 저지했다. 1994년 울진에서 주민들은 타이어를 불태워 도로를 봉쇄했다. 4일간에 걸쳐 사람들은 화염병을 던졌고 주민 1만명은 5천명의 전투경찰을 압도했다. 계획은 철회됐다. 부안에서 전투적 대처로 계획된 폐기물 시설에 반대해 주민들은 단결했다. 도지사는 시민들의 공격으로 타박상을 입었고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많은 건물이 불탔다.

환경운동은 핵위협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1988년 9월 경북지방에서 골프장 건설계획이 발표되자 주민들은 반대캠페인을 시작했다. 정부가 그들의 청원을 무시하자 그들은 불교 승려들과 연합해 현장에서 4개월간 농성캠프를 꾸렸다. 골프장 용역들과의 충돌이 널리 알려졌고, 골프장 건설이 예정된 최소한 30여곳에서 비슷한 투쟁으로 이어졌다.⁵⁴⁾ 1993년 이 많은 풀뿌리 투쟁들로 한국환경운동연맹(KFEM)이 결성됐고, 이 단체는 주로 화이트칼라 노동자들과 교수, 의사, 변호사, 언론인 등 전문직이 참여한 2천명의 회원으로 출발했다.⁵⁵⁾ 1997년 환경련은 타이완이 북한으로 핵폐기물을 수출하려는 계획을 저지하는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학생들의 지속적 투쟁

1992년 5월 29일 전대협 출범 6주년 기념식에서 학생들은 조직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과거에 경찰탄압을 완화하기 위해 지하에 있었지만, 전노협의 이 과감한 움직임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투쟁에 재돌입하려는 시도였다. 몇 달 안에 보수적 언론은 젊은 활동가들에게 새로운 딱지를 붙였고 이번에는 부정적 별명인 “오렌지 족”이었다. 보수파의 압력이 내부적 분열을 가져오자 진보적 활동가들은 유럽과 미국의 신좌파 모델을 추구하고, “부문가입운동”이란 개념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환경, 여성, 문화, 계급기반운동과 단결할 수 있었고 이는 전노협의 학생회 지향과 다른 방향이었다. 1993년 7월 새로운 책 “신세대: 니 마음대로 해라!”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참여한 논쟁을 촉발했고 학생운동의 “문화적 전환”의 출발점이 됐다.

지지기반이 새로운 운동으로 끌려가자 전대협은 1993년 해체했고 이를 대신해 한총련(한국대학생회총연합)이 등장했다. 그러나 두가지 차이가 있었다. 전대협 내에서 학생회장은 투표권을 가진 대표였지만, 한총련은 단과대학 대표를 포함했고 따라서 모든 단과대학이 전국회의에 많은 학생대표를 파견했다. 광주의 전남대만도 20명 이상의 회원이 있었다. (도표 11.1을 보라). 한총련은 130명의 학생회장 대신에 10배나 되는 수자의 학생들을 포괄했다. 전대

52) Su-hoon Lee, “Environmental Movements in South Korea,” in *Asia’s Environmental Movements: Comparative Perspectives* eds. Yok-shiu F. Lee and Alvin Y. So (Armonk, NY: M.E. Sharpe, 1998), 98.

53) Interview with Choi Yol and Kim Choony, Seoul, June 22, 2002.

54) Norman Eder, *Poisoned Prosperity: Development, Modernization, and the Environment in South Korea* (Armonk, NY: M.E. Sharpe, 1996), 103.

55) Su-Hoon Lee, “Activation of Civil Society in Korea,” *Pacific Affairs* 66, no. 3 (Autumn 1993): 361.

협은 PD와 NL 경향을 모두 포함했지만, 한총련은 거의 순수하게 NL지지자들이었다.

한총련

학생회

부울총련(부산, 울산) 서총련(서울) 남총련(전남) 용성총련(용인, 성남)

서부지역 서서울 광주지역 목포지역

이화여대 연세대 홍익대

공대 경영대 인문대 서클

경제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사례> 전남대학교

5월총련

진달래 불꽃 비호 죽창

경영대 인문대 법대 농대 서클

[도표 11.1] 한총련 조직도

Source: Christopher D. Yoon, "The K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U.S. Role During the 1979-1980 Period: Its Impacts and Ramification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1994), 43.

1997년 최정점에서 한총련에는 200개 이상의 대학이 등록했고 1만명 이상의 회원과 훨씬 더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했다. 한 분석가는 1백만명이나 회원이 된다고 낙관적으로 보고했다 (각 대학에서 2백 내지 5백명).⁵⁶⁾ 엄격하게 친북 언어로 건설된 한총련의 강령은 성적 억압과 환경파괴에 대한 반대를 포함했다.

1. 우리는 미국같은 외국열강의 부당한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지배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키며, 진정한 의미에서 자주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2. 우리는 노동자와 농민 같은 모든 애국적 풀뿌리 세력과 확고하게 단결한다.
3. 우리는 소비를 조장하고 개인주의와 강하 권력에 대한 복종을 조장하는 제국주의 문화로부터 모든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약탈에 반대한다.
4. 우리는 대학과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의 격리, 억압 및 비인간적 대우의 모든 요소에 반대한다. 우리는 또한 자본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파괴로부터 환경을 안전하게 지킴으로써 아름다운 강산과 통일된 민족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한다.⁵⁷⁾

1996년 3월 29일 연세대학생 노수석이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도중 경찰과의 싸움 도 안 갑자기 죽었다. 곧 이어 세명의 학생이 항의하여 자살했다. 전국교수협의회는 학생들에게 "자살같은 극단적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훈계했다. "불의에 반대해 자신을 죽이는 것은 가장 수동적인 투쟁방법이며 모든 수단을 다해 피해야 한다." 자살은 활동가들의 신념이자 민족통일의 지속적 실패에 대한 좌절을 가리켰다.

1996년에서 2000년까지 새로 선출된 지도부는 한총련 회원들에게 자신을 "삶과 학습, 투쟁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하게 했다. 이 새 슬로건은 오직 투쟁과 전투에 한정된 전대협으로부터 학생운동의 자기이해의 확대를 반영했다. 비록 많은 활동가들이 처음에 YS 아래 새 민간정부가 한총련에 대한 태도에서 관대할 것을 희망했지만, YS는 이 그룹의 행동을 북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징표로 해석했고 계속해서 한총련을 위협한 조직으로 간주했다.

56) Yoon, "The K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41-2.

57) Excerpts taken from Joongang Daily, July 9, 2003.

한총련의 지도 아래 학생운동은 통일을 최고의 의제로 설정했다. 한총련의 가장 유명한 투쟁 가운데 하나는 1996년 연세대학에서 열린 통일축전이었다. 학생들이 북한으로 가는 행진을 출발하겠다고 주장하자 경찰과의 대치가 발생했다. 그들은 평양의 학생들에게 팩스를 보내려고 시도했고 평양집회에서 돌아온 두명의 학생을 환영할 준비를 했다. 전투경찰 수천명은 거의 1주일 동안 두 개의 건물에 수천명의 학생들을 가뒀다. 교착상태 이후에 약 2만명의 전투경찰, 23대의 헬리콥터와 물대포 차량이 캠퍼스를 공격했다.⁵⁸⁾ 경찰은 발견하는대로 모든 학생을 체포했고 전부 5,848명이 체포됐다. 체포된 학생들은 줄줄이 묶여 나와야 했고 많은 학생들이 심하게 구타당했다. 많은 여학생들이 평화적 시위에 대한 대규모 과잉대응으로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나중에 465명의 지도자들을 경찰이 식별해서 구속했다. 이 대치 동안 광주의 투사들은 양측에서 전면에서 나섰다. 전투가 처음 발생하자 광주에서 차출된 전투경찰은 광주에서 그들과 막 싸웠던 똑같은 학생들과 마주쳤다. “광주에서 당신을 봤어”라고 한 전투경찰이 학생 활동가에게 소리쳤다. “잘했네, 이 사람이”가 학생의 대답이었다. 전투도중 휴식 시간동안 경찰은 학생들에게 빵과 물, 담배를 줬다. 광주에서 많은 학생 스파이들이 캠퍼스 그룹에 파견됐다. 발각된 프락치들은 격심한 심문을 받았고 양심고백문에 서명해야 했고 공개적으로 책피를 당한 다음 쫓겨났다.

연대투쟁 이후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규정됐고, 따라서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지속적인 공격과 침투 아래 한총련은 필사적으로 됐다. 1997년 5월 31일 한양대학에서 경찰정보원으로 의심받던 사람이 쇠파이프에 맞아죽었고, 한 전투경찰에게 격렬한 전투 동안 경찰밴에 치여 죽었다. 이 죽음에 대한 한총련을 비난하면서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국민대학교 같은 주요 캠퍼스의 학생들이 한총련을 떠났고, 회원의 급격한 감소가 시작됐다. 1997년 10월 고위 지하지도자 김준배가 광주에서 죽었고 최소한 357명의 학생들이 감옥에서 장기형을 살았다. 한총련은 2만명의 중핵 지지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에서 그 절반도 동원하기 힘든 주변적 조직으로 위축됐다. 2003년 한총련 회원은 겨우 1,500명으로 6년전 규모의 15퍼센트에 불과했다.⁵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은 헌신적 조직원이 없지 않았고, 그들 수십명은 2010년에 지하에 남아있었다. 전반적으로 한총련의 입장은 점차 대중의 감성 밖으로 벗어났다.

최초의 민간정부

30년 이상의 군부지배 이후 1992년 최초의 민간정부가 선출됐다. 1990년 노태우와의 동맹으로 대통령에 올랐던 김영삼은 군부의 권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전두환처럼 노태우도 1961년 박정희 쿠데타를 지지했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베트남에 참전했고, 1979년 12월 12일 권력을 장악한 육사 졸업생 비밀조직 하나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YS는 하나회와 그런 비밀조직을 파괴했다. 김영삼은 수많은 지도적 장성들의 사임을 강제했고 아주 오랫동안 한국인들에게 민주주의를 거부한 군대의 역할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더 높은 삶의 질이 번성할” “새로운 한국”을 약속했다.⁶⁰⁾ 그는 5,823명의 정치범을 석방했고 부패를 막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시행했다. 30년간 금지된 지방선거도 실시됐다. 199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가 정기적으로 실시돼 지방-지역의원들이 선출되기 시작했다.⁶¹⁾ YS 정부 아래서 하이테크 경제부문이 등장했고 민주주의

58) Carl J. Saxer, *From Transition to Power Alternation: Democracy in South Korea, 1987-2 1997* (London: Routledge, 2002), 175; Korea Chun Su-jin, “For an ideal world, a life of isolation,” *Joongang Daily*, July 9, 2003, 8.

59) Interview with Choi Song-wook, Gwangju, January 22, 2009.

60) Quoted in Shin, *Mass Politics and Culture*, 200.

61) See Hyug Baeg Im, “South Korean Democratic Consolid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30-1; and Kyoung-Ryung

는 기업에도 명백히 좋은 것이었지만, 불균등한 지역 생활수준은 계속 문제였다. 1991년 경상남도에서 1인당 지역발전액은 6,000달러 이상이었지만, 전라도와 충남은 그 절반 정도였다.⁶²⁾

비록 YS 정권이 수십년 만에 최초의 민간정부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서 번영했지만, 운동권의 동원은 정부가 광주학살극에 대해 전두환과 노태우를 처벌하라고 계속 압력을 가했다. 처음에 YS는 재판요구를 피하려고 했지만, 문제는 사그러들기를 거부했다.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과거사 재판transitional justice는 민주세력의 결집구호가 됐다.

Seong, "Civil Society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South Korea," 104, in *Consolidating Democracy in South Korea*, eds. Larry Diamond and Byung-Kook Kim (Boulder, CO: Lynne Rienner, 2000). In the same volume, Byung-Kook Kim says these elections were reinstated in 1993 ("Party Politics in South Korea's Democracy: The Crisis of Success," 53).

62) See Kyoung-Ryung Seong, "Civil Society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109.

[번역] 조지 카치아피카스,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1권

조지 카치아피카스, George Katsiaficas,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Asia's Unknown Uprisings,
1권: 20세기 남한의 사회운동 Volume1: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in the 20th Century

12장 반신자유주의 투쟁

시장의 독재 | 1997년 총파업 | 1997년 IMF 위기 | 전지구적 자본의 이윤율 하락에 대한 대응으로서 신자유주의 | 구세주로 나선 DJ 정부 | 노동에 대한 DJ의 공격 | 여성의 자율성 | 외국인 투자자들의 약탈

1987년 군부독재가 붕괴된 이후에야 통일과 반미주의 담론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었고, 이는 남한의 반공주의 체제의 공고화된 요새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하는 것은 글로벌리즘과 시장 근본주의의 논리를 수반했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담론은 전지구적 시장에서 생존을 위한 “절박한 경쟁”으로 모호하게 됐다.

- 김동춘, 2006년¹⁾

아시아에서 투자수익은 완벽한 절도가 될 것이다.

- 레이 후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बैं크

일지

1994년 4월 15일	우루과이 협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1994년 8월 30일	5.18재단 설립됨, 1980년 학살책임자 전두환, 노태우 외 8인의 처벌을 위한 캠페인 시작
1995년 6월 27일	최초의 지방선거
1995년 10월 11-13일	연세대학에서 성정치 문화축제, 2세대 페미니즘 등장
1995년 12월 19일	광주특별법 제정
1996년 3월 11일	전두환, 노태우 재판 시작
1996년 여름	통일을 원하는 학생 수천명 연세대학을 1주일간 점거
1996년 12월 26일	새로운 노동법 국회 날치기 통과
1996년 12월 26일	새 노동법에 반대하는 총파업 첫날 145,000명 노동자 참가
1996년 12월 28일	350,000명 이상 파업
1996년 12월 31일	수천명의 노동자와 시민 명동에서 촛불행진
1997년 1월 16일	김영삼 대통령 새 노동법 철회하고 재개정 약속
1997년 4월 17일	전두환 무기징역형 선고, 노태우 17년 징역형 선고
1997년 5월 14일	조지 소로스가 이끄는 외국인 투자자들 타일랜드 바트화 대량매각 시작

1) Kim Dong-choon, "The Great Upsurge of South Korea's Social Movements in the 1960s," Inter-Asia Cultural Studies 7, no. 4 (2006): 631.

1997년 5월 16일	광주에서 새 망월동 묘역 개설
1997년 6월 30일	타이 바트화 평가절상 하지 않기로 약속
1997년 7월 2일	타이 바트화 국제통화시장에서 연동 허용후 가치 폭락
1997년 11월 21일	IMF 위기 한국강타, 남한 570억달러 IMF 구제금융 요청
1997년 12월 18일	IMF 구제금융 계획 발표
1997년 12월 18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
1997년 12월 22일	YS 전노와 17명 사면
1998년 1월 20일	민주노총 정리하고 수용하는 데 동의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국민의 정부 선포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평양에서 김일성과 만남
2000년 12월 10일	김대중 노벨 평화상 수상
2001년 4월 10일	1,500명의 전투경찰 악랄하게 대우자동차 노동자 공격

1987년 일단 군부독재가 타도되자, 한국운동의 기념비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축하하기에 너무 지쳤다. 직선제와 시민적 자유의 확대를 쟁취한 이후 자주적 노동조합과 더 나은 생활조건을 위한 투쟁이 계속됐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사람들의 의식을 괴롭혔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재판을 받을 것인가? 광주의 학살과 부상, 가족들의 명예훼손은 보상받을 것인가?

1980년 민주광장의 집회에서 처음 정리된 전두환과 노태우의 재판회부 투쟁은 17년이나 걸렸다. 1988년 새로 선출된 국회는 소집되자마자 광주청문회의 일정을 잡았다. 1989년 미국의 의원들은 직접 증언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았지만, 그들은 출석을 거부했다. 그 대신 국무부는 미국이 정부를 타도하고 광주봉기를 진압하는 데 전두환 및 신군부와 비밀리에 협력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질문에 서면답변을 작성했다. 1989년 6월 19일 발행된 국무부의 아직도 논쟁적인 <광주백서>²⁾는 미국이 “특수전 지휘부대의 광주이동에 대해 권한을 갖지도 않았고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고 미국의 행동에 대한 어떤 비판도 피해나갔다. <백서>가 미국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광범한 감정으로 인해 새로운 반미주의 감정이 촉발됐다. 1989년에서 1993년까지 주한 미국대사였던 도널드 그렉은 시위가 예상됐기 때문에 결코 한국대학에서 공개적 연설을 하지 않았다.³⁾ 변호사의 언어에서 아주 중요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넘어, 많은 한국인들에게 문제는 1979년에서 1987년까지 미국이 전두환 정권을 지원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지금은 1980년 5월 광주학살에서 미국 관리들의 유무죄를 확인할 자리는 아니다.⁴⁾ 많은 한국인들에게 대답은 이미 분명하다. 1996년 조사에 따르면 82.5퍼센트의 광주사람들이 미국이 관여했다고 믿는다(나머지 한국인들은 50.8퍼센트)⁵⁾ 같은 여론조사에서 44.5퍼센트의 광주주민들은 미국의 사과 필요성을 표현했고 21.8퍼센트는 미국이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002년 5월 18일 많은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TV로 중계된 민중법정은 미국 전대통령 지미

2)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Statement on the Events in Kwangju,” http://seoul.usembassy.gov/p_kwangju.html.
3) See his article,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n Alliance Under Stress—Reassessment,” *Korea Policy Review* 1 (2005): 35-4. Gregg cites a “shocking” poll that revealed widespread anti-Americanism in 2003.
4) For discussion of the details of U.S. involvement in the suppression of the Gwangju Uprising, one could begin with Tim Shorrock’s articles, especially “Debauchery in Kwangju: Were Washington’s cables read as a green light for the 1980 Korean massacre?” *Nation*, December 9, 1996, available at http://base21.jinbo.net/show/show.php?p_docnbr=20896 and the longer version available at <http://www.kimsoft.com/korea/kwangju3.htm>. See also Sangyong, Simin, et al., *Memories*, 268-7.
5) See Shin and Hwang, *Contentious Kwangju*, xxx.

카터와 다른 7명의 미국관리들이 광주민중의 시민권 위반에 대해 “인류에 반하는 범죄”로 유죄라고 판결했다.⁶⁾ 몇 달 후인 2002년 10월 11일 카터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노벨위원회는 수십년에 걸쳐 카터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책을 찾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전진시키고 경제사회적 발전을 추진하는 지침없는 노력을 했다”고 칭찬했다. 명백하게 “인권”의 개념은 아주 모순적이다.

최초의 민간정부가 권좌에 오르자 사람들은 마침내 때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1994년 10월 YS 정부는 “국민화합에 대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전두환과 노태우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민주화운동의 대열 내에서 기회주의적 정치인이었던 YS는 배에서 뛰어내려 한줌의 권력을 잡기 위해 보수파와 연합했지만, 그는 광주사람들에게 정의의 몫을 줄 생각이 없었다. 1993년 3월 18일 “진실은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는 YS의 논평에 분노한 시위대가 김영삼의 망월동행을 봉쇄했다. 광주의 단체들은 부상자와 체포자들 사이에서 결성된 동안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들 모두가 투쟁에 나섰다. 1994년 8월 30일 진실과 정의를 위해, 또한 아직도 삶이 파탄난 수많은 희생자들을 보살피기 위해 5.18 기념재단이 설립됐다. 10월 18일 국회의원 김상현과 22명의 유가족들은 공식적으로 정부에 전두환과 노태우, 8명의 공범에 대해 살인혐의로 기소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 해 전두환과 노태우를 포함한 책임자 전원을 기소할 특별법을 지지하는 1백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1995년 7월 명동성당에서 150명의 농성단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는 의회의 질문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을 한 데 대해 전두환을 위증죄로 고발했다. 대학교수들이 전국적 동원을 이끌었다. 1995년 7월 31일 131명 이상의 고려대학 교수들은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는 결정에 항의했다. 2주일 뒤인 8월 14일 약 150명의 교수들이 농성과 시위에 참여했고,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도 곧 비슷한 성명을 냈고, 참여연대와 함께 정부가 광주학살을 둘러싼 사건에 대한 제한조항을 유예하도록 공식적인 청원을 했다. 211명 이상의 서울대학 교수들도 특별법을 지지하는 성명에 서명했고, 수십년 동안 서울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개진한 세 번째 경우였다. (처음 두 번은 이승만에 반대한 4.19봉기와 6월봉기 때였다.⁷⁾) 그이후 곧 1995년 8월 25일 78개 대학 약 3,560명의 교수들이 유사한 성명에 서명했다.⁸⁾

한총련의 지도 아래 학생들도 동원했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보이콧했고 그 시간을 청원서를 돌리는 데 이용했다. 9월 30일 특별법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13개 도시에서 벌어졌다. 다음 달 국회에서 전두환이 9,500억원(거의 10억달러)를 몰래 빼돌렸고 노태우도 불법자금으로 6억달러 이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여론이 들끓었다.⁹⁾ 11월 1일 3백개

6) Held in Province Hall auditorium in front of a live audience of several hundred people, the tribunal was simultaneously broadcast throughout the Jeolla region. Dozens of witnesses testified, including victims of the military's violence, family members of the deceased, and a former U.S. soldier who had been stationed near the Gwangju airport during the uprising. A jury composed of people of many different occupations from various parts of South Korea found Carter, former Ambassador Gleysteen, and former U.S. Commander Wickham as well as the following U.S. officials guilty of "crimes against humanity:" former Deputy Secretary of State Warren Christopher, former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Richard Holbrooke,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or Zbigniew Brzezinski, former CIA Director Stansfield Turner, and former Defense Secretary Harold Brown. The above named individuals were asked to apologize for their role in the suppression of the democratic uprising. The U.S. government was asked to send defense counsel but never responded to the tribunal's request; none of the above named individuals has apologized. For further information, see: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2&article_id=0000001053§ion_id=102&menu_id=102.

7) Kim, "Civic Mobilization," 287.

8) Essays, 117 (see chap. 5, n. 102).

9) Facts on File World File Digest, February 15, 1996, 90.

노동조합의 조합원 3,200명 이상이 서울에서 행진을 하면서 광주의 정의를 요구했다. 그달 말까지 70만건 이상의 서명이 모였고, 서명이 끝날 때까지 1백만명 이상이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¹⁰⁾

세계 어디에서도 최근의 기억 속에서 과거사 재판을 위한 더 훌륭한 시민사회의 동원은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인들은 그렇게 하는 아주 능숙해서 모든 세력을 포괄한 전국적 연대체를 결성했고, 이 경우는 5.18학살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위원회였다. 그 첫 모임에 297개 단체가 모였다. 11월달 89개 대학에서 최소한 6,549명의 사람들이 기소청원에 서명했다.¹¹⁾ 마침내 11월 24일 대중적 압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YS는 집권당에게 특별법을 작성하라고 직접 명령했다. “세기의 재판”은 1996년 3월 11일 시작됐다. 결국 16명의 피고는 1979년 군부쿠데타에서 그들의 역할 때문에 폭동에서 반역에 이르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전두환은 살인, 부패, 반역 및 폭동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사형선고를 받았고 노태우는 폭동, 반역, 부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에서 그들의 선고는 전두환의 경우 무기징역으로, 노태우는 17년 징역형로 감형됐다. 그 외에 전두환은 2억 7600만달러의 벌금형, 노태우는 3억 5천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가난을 빌미로 전두환은 자기 이므로 300달러 밖에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결코 그 액수를 지불하지 않았다.

[사진] 전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는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다.

출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전독재자들의 구속과 함께 정의를 위한 광주 활동가들의 오랜 투쟁은 마침내 승리했다. 한국은 새로운 민주정부를 갖게 됐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감옥에 갇혔고 희생자들은 보상받게 됐다. YS정부는 망월동의 원래 묘역 가까운 곳에 새로운 국립묘지를 세워 광주에 경의를 표했다. 1995년 광주특별법은 1999년 제주에 대한 비슷한 법률에 전제가 됐다.¹²⁾ 많은 운동단체들이 봉기의 구획화와 “추모산업”에 대해 말했지만, 정의를 위한 광주투쟁의 승리는 한국인들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하나의 모범을 만들었다. 이 놀라운 17년 투쟁은 계속 봉기를 “세계화”할 것이고, 청년캠프를 후원하고 아시아 전역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할 것이다. 광주의 궁극적 승리의 사례는 많은 사람들의 슬픔의 눈물과 절망을 기쁨과 희망으로 바꿨다. 스리랑카의 암살대가 저지른 끔찍한 만행의 생존자들이 망월동 묘지에 왔을 때,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한 추모관을 꼭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의 예술가 홍성담의 도움으로 그들은 그렇게 했다. 5.18 기념재단은 광주 국제인권상을 제정했고, 첫 수상자는 동티모르 지도자 호세 알렉산드레 구스마오였다. 2000년 11월 3일 구스마오는 설명했다. “광주에서 와서 고향에 온 것처럼 느껴서 큰 영광이다. 그것은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 그 이닝에 우리의 어려운 투쟁에서 우리에게 여감이 됐기 때문이다.”

1997년 12월 22일 YS는 광주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과 노태우, 나머지 17명을 사면했다. 비록 DJ도 이 결정에 동의했지만, 광주의 많은 사람들은 분노했다.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광주의 과거사 재판을 승리함에 있어 민중은 자신을 공화국으로 시민으로 변화시켰다. 정부가 그들의 요청대로 전두환과 노태우를 재판에 회부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기존 사법체제는 뜻하지 않게 정당화됐다. 그러나 다신한번 이런 변화는 이 나라의 노동자와 빈민, 가진 것없는 시민들을 배제했고, 국민화해의 과제는 미완으로 남았다. 새로운 “민주적”

10) Interview with Rev. Kang Shin-seok, April 22, 2001; Yong Cheol Kim, “The Shadow of the Gwangju Uprising in the Democratization of Korean Politics,” in *South Korean Democracy: Legacy of the Gwangju Uprising*, eds. George Katsiarcas and Na Kahn-chae (London: Routledge, 2006), 130.

11) Kim, “Civic Mobilization,” 286-7.

12) See Keun-sik Jung, “Has Kwangju Been Realized?” in *Contentious Kwangju*, eds. Shin and Hwang, 47.

정권 아래서 새로운 투쟁형태가 등장해 이런 지속적인 문제에 도전했다.

시장의 독재

일단 전두환과 노태우가 감옥에 갇히고 군부독재가 과거의 일이 되자, 많은 한국인들은 새로운 종류의 정치를 희망했다. 아무도 한국의 “민주적” 시장체제의 구조 내로의 통합이 1997년의 IMF 위기처럼 수백만명의 삶에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추측하지 못했다. 확실히 경제는 항상 성가신 걱정거리이지만, 수년간의 강력한 성장 이후에 경제의 중요성은 보아 일반화된 걱정거리, 즉 무엇보다 군사화된 DMZ가 만들어낸 한과 두려움의 흐름 뒤로 밀려났다. 부패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문제였고 일부는 심지어 민주개혁 이전보다 더 심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삼은 신자유주의를 환영했고 모든 사람에게 강화된 경제적 압력을 가했다. 제조업 일자리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갔고 농민들은 미국 수입농산물로 특히 심한 타격을 입었다. 그들은 1993년 압박을 너무나 심하게 느껴 정부에 쌀을 판매하기를 거부하고 쌀가마를 쌓아 정부청사를 봉쇄했다. 농민의 모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3만명의 농민들이 서울로 동원했다.

농민들처럼 노동조합도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의 WTO 설립에 반대했지만, YS정부는 기쁘게 WTO를 환영했다. 광범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YS는 한국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가속화했다. 1994년 11월 흔히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시작으로 간주되는 YS의 세계화 개혁은 “미래 세대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¹³⁾ (일부 경제학자들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시작을 여기에 두지만, 그 기원은 훨씬 이전이며, 사실 7장에서 묘사한대로 광주봉기 동안이었다.) 1994년 지하철과 철도 노동자들은 정부소유 기업의 사유화와 정부보조금 삭감에 반대하는 운동을 이끌었다. 1994년 6월 11일 한국통신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YS가 세계화 공세를 가속화하면서, 한국의 외채는 1993년 440억달러에서 1997년 11월 1200억달러로 급증했다. 총 외채 중에서 58퍼센트가 지속적으로 차환해야 하는 단기부채였고, 상환일이 되면 새로 기한을 연장하는 대부자의 의향에 한국을 맡겨야 했다.¹⁴⁾

성장하는 자주적 노동조합운동에 직면하자, 한국노총에 속한 보수적 노조들은 임금삭감을 위해 함께 일하자는 경총(KEF)에 동의함으로써 더 커다란 자리를 협상하려고 애썼다. 이 대응해 3대 주요 노조연합체들은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려는 한국노총-경총에 반대하는 민주노조 협의회를 만들었다. 한국노총 내에서 수천명의 일반 조합원들은 자기 조직의 협조주의 정책에 항의했다. 탈퇴운동이 확산되자, 새로운 독립노조들은 마침내 한국노총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새로 결성된 민주노조 연합체와 통합했다. 1995년 11월 자주적 전국민주노조총연맹(민주노총: KCTU)이 800개 이상의 노조와 50만 조합원들로 결성됐다. 비록 민주노총은 불법이었지만, 새로 선출된 지도자인 권영길은 새 조직의 운건파를 반영했고, 그는 정부와 함께 일할 의향을 밝혔다.

풀뿌리 세력이 공고화되자 YS 정부의 부채가 긴급한 국가적 문제로 등장했다. 1996년 청와대 핵심인물, 안보감독위원회 위원장, 국방장관, 서울은행 총재 등을 포함한 여러명의 최고 관리들이 모두 부패혐의로 체포됐다. 뇌물 의혹이 제기되자 보건복지위원이 사임했고, 1997년 초 대통령의 아들, 내무장관, YS의 핵심자금 제공자들이 독직 또는 뇌물혐의로 기소됐다.¹⁵⁾ 갑자기 심지어 일부 재벌도 곤란에 빠졌다. 1997년 1월 한보철강이 파산했고, 세계 8위의 대

13) Davis B. Bobrow and James J. Na, “The Globalization Push in Korea,” in *The Politics of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in Korea*, eds. Chung-in Moon and Jongryn Mo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9), 182-3.

14) Chang Ha-joon, “South Korea: The Misunderstood Crisis,” in *Tigers in Trouble* (London: Zed Press, 1998), 223.

15) Doh C. Shin, *Mass Politics*, 10.

기업인 기아가 곤란에 빠졌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대응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이었다.

1996년 크리스마스 다음날 오전 6시에 김영삼 대통령은 교회에 있었고, 아침기도를 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다. 서울의 다른 편에서 그의 당은 국회에서 비밀모임을 열고 7분만에 11번의 표결로 두가지 새 노동법을 통과시켰다. 반면 다른 정당들은 국회의 특별회의에 대해 공지받지도 못했다. 이미 논쟁적인 새 노동법을 통과시키려는 김영삼의 공작은 1987년 이래 노동자들이 그토록 힘겹게 투쟁해 쟁취한 권리에 대한 기습공격이었다. 새 조치는 기업측에 노동자를 해고하고 파업파괴자를 고용할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심지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한국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고용안정을 보장받았었고, 그것이 새 입법이 파괴하려고 했던 안전망이었다. 집권당은 또한 1994년 이래 불법화된 활동인 국내 반대파를 감시할 경찰[안기부]의 권한을 부활시킨 법도 통과시켰다.

1997년 총파업

새 입법 몇시간 안에 수십년 만에 최대의 파업은 노동자들의 대응이었다. 울산의 조선소에서 서울의 사무실까지 노동자들은 일자릴 떠났고 노동조합은 비상대응 네트워크를 동원했다. 그날 아침 7시30분 17,000명 기아 노동자들의 대중집회는 가두진출을 결정했고, 20명의 전국적 핵심 노조지도자들이 명동성당으로 피신했다. 그날 밤까지 중공업의 95개 노조 14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총파업 호소에 응했다 병원 노동자들과 화이트칼라 전국전문기술직노조연맹이 파업투표를 했다. 다음날 트럭운전자연맹이 조직한 2백대의 트럭과 약 2천대의 차량대오가 모여 서울로 진격했다. 비록 파업은 민주노총이 주도했지만, 심지어 황색한국노총도 참여했다. 사흘째 350,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한국 대규모 산업을 폐쇄했고, 1946년 반미파업 이후 최초의 전국적인 총파업이었다.¹⁶⁾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은 전투경찰이 집회를 공격하자 맞받아 싸웠다. 새해 전날 수천명의 시민들이 명동성당의 촛불시위에서 노동자들에게 동참했다.¹⁷⁾ 1월 3일 한국노총 지도자들이 명동 내부에서 민주노총 지도자들(여전히 체포영장을 발부된)을 방문하자 총파업 2단계가 선포됐다. 비록 정부가 한국노총을 끌어당기려고 노력했지만, 한국노총 지도자들은 120만 조합원과 함께 파업에 대한 연대를 선언했다. 통신, 보험, 사무직, 운수, 대학 노동자들 모두가 NCC처럼 투쟁에 합류했다. 불교 승려들도 비상대응팀을 구성했다. 이 파업은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잘 조직된 최대 파업이었고, 비디오, 영화, 이메일, 팩스, 웹사이트, 휴대전화를 갖춘 전투적인 하이테크 노동운동이 다중적 조직센터와 저항의 네트워크로 결합된 정치파업이었다. 명동의 상징적 중심지 외에도 향린교회가 “혁명적 심경중추”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반란한 한국 노동계급이 마침내 전사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세력이 된 것처럼 보였다. 노동자뉴스제작단(LNP)의 비디오는 마산, 창원지역에서 시위대가 전투경찰을 무장해제 시켜 1987년 6월에 그랬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대우하면서도 그들의 곤봉과 최루탄, 방패를 빼앗는 장면을 포착했다.

세 번째 주에는 보험, 금융, 방송과 병원의 “넥타이 부대”가 합세했다. 여론조사는 기록적으로 88퍼센트의 사람들이 YS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을 후회한다고 기록했다. 20일 동안 가다 쉬다 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3,500명 이상의 서울대학 교수와 학생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회복하려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독재”라고 주장하는 성명에 서명했다. 전투경찰이 울산에서 1월 10일 시위를 봉쇄하자 노동자 정재성이 자살했다. 총파업의 정점은 1월 15일 이었고, 이날 거의 1백만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상태였고 4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시위에 참

16) See chap. 3.

17) Ann Cook, “South Korea: The Tiger Strikes,” <http://www.socialistalternative.org/literature/southkorea/>.

여했다.¹⁸⁾ 경찰은 수백명의 파업노동자와 주요 지도자들을 검속했다. 마침내 1월 16일 YS는 재개정을 위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고, 사상 처음으로 전국적 대치 끝에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국가를 패배시켰다.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파업을 지속하는 대신에, 민주노총의 개량주의적 지도부는 이 결정적 순간에 온건해졌고 수요파업으로 전환했다. 수요파업은 2월까지 지속됐다. 심지어 보수적 신문들마저 한 목소리로 YS에게 포기할 것을 요구하자,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 지원을 위해 결성된 전국적 연대체에 상의하지도 않은 채 총파업을 끝냈다. 2월 17일 국회가 개원하자 수백명의 교사들은 전교조 합법화를 요구하면서 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2월 27일 총파업의 마지막 날에 107개 노조 131,448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참여자로 집계됐다. 그 이후에도 4시간 파업이 일어나고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했고, 1시간 순번파업이 많은 사무실과 부서에서 일어났지만, 파업의 주요세력은 내부로부터 흩어졌다. 파업이 취소되기 전까지 민주노총은 3,422개 노조 연인원 3,878,0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집계했고, 추가로 1,400,000명이 12월 26일부터 1997년 1월 15일까지 연대시위에 참가했다.¹⁹⁾ 다른 추정치는 1996년 12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총파업 20일 동안 참여한 노동자를 5백만명으로 봤다.²⁰⁾ 매일 평균 168개 노조 190,0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최소한 22개 나라에서 지지집회가 벌어졌고, 200개 이상의 노조들이 지지서한에 서명했다.

3월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민주노총은 반(半)합법화됐다. 정리해고문제는 유예됐지만, 개정된 법안의 조항들은 파업을 촉발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고, 교사들과 공공부문 노조들은 여전히 불법이었다. 파업을 끝낸 방식은 여전히 문제였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법적으로 허용됐지만, “노동시장 유연화”(기업이 자의적으로 노동자들을 일시해고 하거나 정리해고 할 수 있는 권리)는 민주노총의 동의한 새로운 사회적 협약의 일부가 된다.

우리가 현대 사회운동에서 반복적으로 본 것처럼, 풀뿌리 항의는 반란조직을 창출하고 그들을 정치적 영역으로 몰아넣지만, 전문적 조직가들은 권력구조 내에서 하찮은 성과를 위해 운동을 팔아먹는다. 이것은 반란자들이 직면한 지속적 딜레마이며, 그들은 정권안정과 질서로의 복귀를 위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는 지도부를 결정화한다. 체포와 구타, 해고와 투옥을 용감하게 무릅쓰고 지하철, 철도, 병원 노동자들 사이에서 주요 파업을 전개하고 자동차 공장을 폐쇄하고 조선소를 점거했던 노동조합 운동은 노조 자체의 합법화의 대가로 정부에 양보하길 선택한 지도자들을 승인했다. 민주노총의 비범죄화(기성권력에게 별 영향없는 양보)의 약속을 대가로 총파업을 끝냄으로써 노동계급은 수년간 희생을 감수했던 문제인 조직의 자주성을 상실했다. 일단 법적으로 지배체제의 일부가 되자, 어떤 정당이나 조직도 지배적 법률에 복종해야 하며, 이는 불가피하게 체제 전체에 대한 보다 급진적인 문제제기를 무디게 한다. 민주노총의 합법화와 함께, 노동자들의 권력에 대한 공개적 도전은 끝났다.

일찍이 1980년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어떻게든 반항적 한국노동계급이 신자유주의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문제와 씨름했다. 그들은 전두환의 탄압 때문에 노동자들이 “미국식 모델의 자유 노조로부터 급격히 이탈하는” 방식으로 노조들을 재편할까봐 초조해 했다.²¹⁾ 그들은 “노동조합들이 산별노조에 기반한 전국적 구조에 편입되면 정부와 기업의 위신과 자원이 국

18) C. Jay Ou, “South Korean Workers Resist Labor Law Reform,” *Multinational Monitor* 8, no. 3 (March 1997).

19) Won Young-su, “History of South Korean Labor and Student Struggles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in *The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Revolution and Protest: 1500 to Present*, ed. Immanuel Ness (London: Wiley Blackwell, 2009).

20) Byoung-Hoon Lee, “Militant Unionism in Korea,” 163.

21) GDMM X: 670.

가적 목표를 위해 노조운동을 통제하고 노동력의 안정성을 유지할 책임있는 노조 지도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합리적으로 책임지는 노조조직에 제공하는 안전밸브가 없으면, 기업수준의 노동자들은 이제 자신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직접투쟁이나 정치적 선동 외에 별로 대안이 없어질 것이다.”²²⁾ 미국 정책입안자들에게 노동조합은 단지 과열된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압력배출용 밸브였을 뿐이다. 온건한 정권교체가 민주개혁에 대한 민중적 열망의 울분에 찬 좌절을 분출시킬 것으로 예상했던 것처럼, 노동조합도 경제적 좌절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됐다.

1996년말 한국 노동계급의 자기형성, 사회의 지도력으로의 활성화는 새 노동법에 반대한 전국적 대규모 파업으로 체현됐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10년만에 한국 프롤레타리아트는 경제적 이익의 요구에서 장기적 고용안정의 주장으로, 공장에서 경영진이 폭정에 대한 도전에서 국가정책에 대한 도전으로 나아갔다. 전투적 자동자 및 조선 노동자들이 선도하는 약 3백만명의 주요 산업, 병원, 방송 분야의 노동자들은 정부로 하여금 결국 성급하게 통과시킨 노동법을 다시 개정하도록 강제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반대하는 전국적 파업에도 불구하고, 원래 전두환이 작동시킨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는 한국을 집어삼켰다. 경제적 악화 과정이 점진적이면, 별로 항의가 없을 것이지만, 1년 이내에 한국은 동아시아 금융위기 또는 한국에서 알려진 대로 IMF 위기에 빠져들었다. 하루밤 사이에 세계체제의 위기는 수십년 간 민중의 힘든 노동으로 형성한 경제적 복지를 위협에 빠뜨렸다.

[사진] 수백만명의 한국인들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한다. 사진작가 미상

1997년 IMF 위기

한국경제가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에 종속된 이후 20년이란 짧은 시간에 미국 투자가들의 수십억 달러가 한국으로 흘러들어 왔다. 한국에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가 강제되면서 군부독재는 시장의 독재로 대체됐다. 한국의 부채와 국제통화거래 의존은 1997년 경제위기의 주요한 요인이었다. 나라가 파산하면서 몇주 안에 원화는 가치를 절반 이상 상실했고,²³⁾ 2백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었고 주식시장 지수는 1,000포인트 이상에서 350포인트로 떨어졌고 약 3만명의 집없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타났다.²⁴⁾ 한국의 구제금융 요청을 받고 IMF는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한국이 이 처방을 충실히 따르자 고소득자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하위 20퍼센트의 수입은 17.2퍼센트나 감소했다.²⁵⁾ 임금은 전체적으로 2.7퍼센트 감소했고,²⁶⁾ 소농민들의 경제적 경쟁력은 더욱 악화됐고, 제멋대로식 입법으로 고용안정은 파괴됐고 노동력의 약 30퍼센트가 해고됐고,²⁷⁾ 빈곤가구 비율은 1996년에서 1999년까지 세배 이상 늘었고,²⁸⁾ 그 결과 수십명이 “IMF 자살”을 했으며, 이 모든 것은 한국의 미국화의 특징이었다.

22) Gleysteen telegram to Secretary of State, September 15, 1980. GDMM X: 410.

23) Irma Adelman and Song Byung Nak, “The Korean Financial Crisis of 1997-8,” http://72.14.207.104/search?q=cache:AcRsVU4f_LcJ:are.berkeley.edu/~adelman/crisis.pdf+1997+Korean+currency+devaluation&hl=en&gl=us&ct=clnk&cd=2.

24) Su-Dol Kang, “Labour Relations in Korea Between Crisis Management and Living Solidarity,” *Inter-Asia Cultural Studies* 1, no. 3 (2000): 396.

25) National Statistics Office as quoted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 NGO Report to the United Nations (April 2001): 10.

26) Byoung-Hoon Lee, “Militant Unionism in Korea,” 159.

27) James Crotty and Kang-Kook Lee, “Korea’s Neoliberal Restructuring: Miracle or Disaster?” (Amherst: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2001), 3, <http://www.peri.umass.edu/Publication.236+M5db02174714.0.html>.

28) James Crotty and Kang-Kook Lee,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in Post-Crisis Korea,” in *Financialization and the World Economy*, ed. Gerald Epstein (Cheltenham, UK: Edward Elgar, 2005).

한국인들이 고통받는 동안 외국자본은 한국에서 기회를 이용해 수백억 달러를 빨아들여 채권소유자와 헤지펀드 매니저의 주머니를 채웠다. 헐값으로 금융자산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몇 년후 놀라운 수익률로 되팔았다. 미국과 일본기업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기업하기에 최고의 장소였다.

[사진] 한국의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에 계속 반대한다. 사진작가 미상

수익성 높은 구매에 퍼부는 수십억 달러를 최대화하려고 내달린 국제 투자자들의 질주에서 먼지가 가라앉자, 한국의 우울한 현실은 너무나도 뒤늦게 정리됐다. 수많은 선도적 금융기관들의 금고가 비게 된 외에도,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의 다음 국면의 공고화는 모든 한국인의 약 50퍼센트가 고용안정도 없이 상당히 낮아진 임금과 수당을 받는 비정규직이 됐다는 것을 의미했다. 노조에 속한 산업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동료보다 힘든 노동에 대해 상당히 더 나은 물질적 보상을 협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노동귀족이 등장했다. 위기 이전에 노동자들은 평생고용을 보장받았지만, 한국이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 최우량 은행과 기업의 일부를 매각한 다음 노동자들의 다수는 비정규직 직장만을 구할 수 있었다.

위기는 태일랜드에서 시작됐다. 5월 14일과 15일 조지 소로스가 이끄는 외환 투기군들이 타이 바트화의 대대적 매각을 시작했고, 그런 다음 미국 달러에 고정시켰다. 비록 타이 정부가 바트화를 안정시키려고 애썼지만, 7월 2일 타이정부는 바트화를 국제시장에서 유통환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바트화의 가치는 폭락했고 타이경제를 좌초시켰고 남한 은행들은 20억달러로 추산되는 손실을 겪었다.²⁹⁾ 동남아 지역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엄청난 금액의 손실위기에 처한 일본은행들은 한국은행들에게 단기대부의 상황을 요구했다. 외국은행들이 단기대출의 차환을 거부하자, 한국의 전체적 금융인프라가 치명타를 맞았다. 채 2주도 안되어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1에서 B2로 두 번이나 하향했고, 금융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IMF에 57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한국이 단기적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을 때, IMF는 새로운 대출에 대한 가혹한 조건을 부과했다. 정부서비스는 삭감해야 했고 한국은행과 산업에 대한 기업담보 차입매수를 허용해야 했다. 자산의 외국인 소유제한은 1997년말까지 50퍼센트까지 해제됐다(1998년 2월 또 다시 55퍼센트까지 올라갔다). 교역은 더욱 자유화됐고 국내 채권시장은 외국투자자들에게 개방됐다. 결정권자들은 처음에 은행 노동자의 50퍼센트를 정리하고할 것으로 요구했고, 나중에 이 수치는 30퍼센트로 줄었다. 1997년 선거에 출마한 4명의 대통령 후보들은 자금 상황 이전에 합의조건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했다. IMF가 통화긴축을 요구하자 이자율은 1998년 말까지 약 30퍼센트로 올랐다. 실업은 세배로 늘어났고, 수십개 대기업이 파산했고 수입은 하락했다. 1998년 2월중순까지 한국에서 매일 1백개 이상이 기업들이 파산했다.³⁰⁾ 1998년을 통틀어 22,828개 기업이 파업했고 실질임금은 9퍼센트나 감소했고 GDP는 5.8퍼센트 감소했다.³¹⁾ 2000년까지 중산층의 규모는 거의 5퍼센트 줄어들었고(1994년 가구의 70.2퍼센트에서 65.3퍼센트로), GDP 대비 정부부채의 비율은 두배 이상 늘었다(13퍼센트에서 거의 30퍼센트로).

29) 29 As a result of the IMF crisis, Thailand's stock market dropped by as much as 75 percent, its currency lost more than half its value, hundreds of thousands of urban workers returned to their villages, and more than half a million foreign laborers left the country.

30) Chang Ha-joon, "South Korea: The Misunderstood Crisis," in Tigers in Trouble (London: Zed Press, 1998), 229, 299.

31) Chang, Labor in Globalizing Asian Corporations, 43.

국제자본의 기관들이 자신의 몫을 요구하면서 그들의 “거친 사랑”의 치료법의 일부로 위기를 악화시키자, 보통 한국인들이 관대함과 비이기적 헌신으로 나섰다. 그들은 환율 정상화를 돕기 위해 금이빨을 기부하러 줄을 섰다.³²⁾ 사람들은 결혼반지와 뉘반지를 꺼내 “금모으기 운동”에 수천명씩 참여했다. 이런 희생정신이 21세기에 정말로 필요한 새로운 가치체제의 내적 핵심을 규정하겠지만, 구조적 변화는 또다른 문제다. 적지 않은 서양 경제학자들은 “한강의 기적”에 대해 박정희의 개발국가와 재벌들에게 점수를 주길 좋아하는 반면, 1997년 위기에 대해 노동계급의 비타협성을 비난했다(심지어 IMF 위기라고 부르는 것조차 거부하면서). 보수주의자들은 경제성장을 도왔던 한국 노동자들의 많은 특성, 즉 세부사항에 대한 관심, 규율, 서열에 대한 유교적 복종, 근면과 문자해득을 등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역동성은 한국경제의 지속적 특징이지만, 1997년 이후 한국경제는 미국정책의 목표에 따라 해외 금융자본의 지배를 받는다. 모든 지역에서 전지구적 자본은 보호주의 정권들을 타도하고 밀어내기 위해 자신의 힘을 동원했다. 미국과 일본의 은행과 기업들은 국민개발구가들이 토착기업들에게 특권을 주고 “측근 자본주의”(crony capitalism)가 “부패한” 지도자들의 친구와 동료들을 보호하는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을 오랫동안 저지당했다. 오랫동안 거부되던 시장 침투와 노동력의 장벽이 사라지자, 초국적 자본주의는 연이어 버블을 창출했고, 채무자들이 미국과 토교의 금융중심지에 더욱 의존하도록 수백억 달러를 빌려줬고, 그 결과 전세계에서 돈을 끌어들이는 다음 전지구적인 유동성 위기를 만들어냈다.³³⁾

전지구적 자본의 이윤율하락에 대한 대응으로서 신자유주의

전지구적 부의 거대기업들로의 대규모 집중이 없다면 그들의 자본주의 조직의 핵심적인 구조적 문제는 이윤율 하락이다. 이전의 축적이 기술혁신의 자금을 제공하고 자본이 더욱더 확대됨에 따라 체제의 바로 그 성공은 미래의 이윤이 전체 투자비용의 하락을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은 높은 이윤율에 대한 투자가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자신의 능력을 파괴하며, 이는 인간이나 자연에 어떤 비용이라도 감수하는 성장에 대한 무제한적 추구와 그로 인한 체제 불안정성의 원인이다. 거대기업들에게 한가지 단기적 해결책은 한국같은 나라이든 자국에서든 더 작은 경쟁자들을 구축해서 그들의 자산을 점수하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자본의 집중은 재벌에 대한 국민개발국가의 지도가 도움을 줬다. 1988년까지 4대 재벌, 즉 현대, 삼성, 대우, 럭키금성의 수입은 남한 GDP의 60퍼센트를 차지했다(1,350억 달러 중 800억 달러).³⁴⁾ 1997년 4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재벌의 지분을 전경제의 80퍼센트로 추정했다. 1980년대말 이전에 남한 제조업의 순이윤은 일본, 미국 또는 유럽보다 더 높았고, 산업화 전략에 명백한 이점이였다. 다른 모든 곳처럼, 이윤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하락했다. 필립 오하라가 고안한 지수는 <포춘>지 500대 기업의 이윤율 하락을 1960-1969년 7.15퍼센트, 1980-1990년 5.30퍼센트, 1990-1999년 2.29퍼센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0-2002년 1.32퍼센트로 계산했다.³⁵⁾ 비록 제조업에서 더 높았지만, 표 12.1에서 지적된 것처럼 이 부문의 이윤율로 실질적으로 감소했다.

[표 12.1] 제조업 평균 순이윤율 (퍼센트)

32) Bill Austin, “Glory, Shock, and Scandal,” in *Korea Witness: 135 Years of War, Crisis and News i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eds. Donald Kirk and Choe Sang Hun (Seoul: EunHaeng NaMu, 2006), 326.

33) See Beverly Silver and Giovanni Arrighi, “The End of the Long Twentieth Century,”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Gwangju Uprising, May 26, 2010.

34) Bello and Rosenfeld, *Dragons in Distress*, 63.

35) Walden Bello, “Aft erthoughts: A Primer on the Wall Street Meltdown,” <http://waldenbello.org/content/view/100/30/>.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유럽
1963-1971년	39.7	48.2	28.4	16.4
1972-1980년	27.7	22.9	17.4	12.7
1981-1990년	16.9	14.4	12.6	13.4

[*Japan, America, and Europe: 1981-1987.]

Sources: R. Armstrong, A. Glyn, and J. Harrison, *Capitalism Since 1945* (Oxford: Blackwell, 1991); H.W. Jang, "Phases of Capital Accumulation in Korea and Evolution of Government Growth Strategy, 1963-990,"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Oxford, 1995); Shin Gyoung-hee, "The Crisis and Workers' Movement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Socialism* 78 (March 1998): <http://pubs.socialistreviewindex.org.uk/isj78/gyounghe.htm>, accessed August 14, 2008.

한국의 전반적 패턴은 전지구적 경향과 아주 유사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총부채 대비 평균 경상이윤율과 제조업 순가치는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극적으로 감소했다.

1971-1979년	4.42 퍼센트
1980-1989년	2.70 퍼센트
1990-1995년	2.23 퍼센트 ³⁶⁾

1970년대 뉴욕 은행가들이 주도한 이윤율 하락에 대한 전지구적 자본의 대응은 "귀찮은" 정부통제로부터 자유기업으로의 "새로운 미국혁명"이었다. 누구든지 무기를 사들여 부패한 독재를 만들었던 제3세계 정권들에 대한 대부로 석유달러를 재활용한 체이스 맨해튼은행의 데이비드 록펠러(광주 학살 직후 전두환을 환영한 동일 인물)는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갖춰온 금융 상부구조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전지구적 자본을 통제하려는 고수익 금융의 마법사들은 너무나 탐욕스러워서 그 결과는 모든 곳에서 연이은 금융위기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1994년 멕시코, 1997년 동아시아, 1998년 8월 러시아의 디폴트 위기였고, 러시아는 남아프리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노르딕 국가와 일본의 1990년대 은행위기에 영향을 줬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IMF, 세계은행과 미국 재무부의 아시아, 멕시코, 러시아 및 브라질에 대한 구제금융은 거대 은행과 기업들에게서 2,500억 달러의 악성채무를 변제해줬고 정부부채를 증가시켰다.³⁷⁾ 세계경제 엘리트들이 "민주화"를 선호했다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명백하게 미국의 2차 모기지 시장의 자금부족으로 야기된 2008년 말의 전지구적 금융구조의 붕괴에 근접한 사태는 체제의 구조적 불안정성과 합리성 결핍을 지적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몰락은 각국 정부들의 수조달러 구제금융으로 겨우 피할 수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거대 기업과 은행을 살리고 "자유시장"을 구조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약탈하는 동안 납세자들은 대차대조표에서 은행가들의 과잉 대출의 부담을 다시 한번 덜어줬고, 새로운 부채 수조달러는 대중이 책임지게 됐다(미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거대기업들은 2010년까지 아주 신속하게 회복해서(소규모 기업들은 수천개씩 파산했고 수천만명의 노동자들은 생활수준 하락을 경험했다) 엑슨-모빌사는 100퍼센트 이상 증가한 이윤을 거뒀고 최근에 은행과 자동차 회사들은 최대 이윤을 보고했다.³⁸⁾

36) Shin Gyoung-hee, "The Crisis and Workers' Movement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Socialism* 78 (March 1998): <http://pubs.socialistreviewindex.org.uk/isj78/gyounghe.htm>.

37) Kristin Dawkins, *Global Governance: The Battle Over Planetary Power* (New York: Seven Stories Press, 2003), 59.

38) See James Petras, "Crisis, What Crisis? Profits Soar!" August 14, 2010, <http://www.globalresearch.ca/index.php?context=va&aid=20620>. Unlike the American crisis beginning in 2008, when a slump in the housing market precipitated financial insolvency of smaller sized companies and led to huge corporations taking them over, the East

“자유시장”의 이름으로 신자유주의는 거대기업의 중소기업 접수, 기업세금 인하, 공공기업의 사유화, 공적 부채의 증가,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 빈부격차 확대, 빈곤층 증가의 결과를 가져왔다. 1929년 대공황에 대한 케인즈주의적 해결책에는 대대적 국가지출 프로그램이 관여했지만, 1979년 스태그플레이션(고실업과 동시적인 고인플레이션)에서 작해 세계의 은행가들은 포스트-케인즈주의적인 “신자유주의적” 해결책을 고안했고, 이를 통해 전지구적 기업과 행들은 새로운 시장의 침투와 과거에 통합되지 않았던 지역의 통합으로 이윤율을 회복할 수 있었다. “시장의 마술”과 정부 프로그램의 제거는 실제로 인류의 축적된 재산을 분배하는 메카니즘으로서 기업 이윤율의 규범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가난한 나라들에 피해를 주는지 두가지 사례가 보여준다. 1975년 아이티는 국민을 먹이는 데 필요한 모든 쌀을 재배했다. IMF는 쌀과 다른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추는, 즉 외부자에게 시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아이티 정부에 246억 달러를 빌려줬다. 2년 안에 아이티 농민들은 “마이애미 쌀”과 경쟁할 수 없었고 쌀재배를 중단했다 곧 아이티의 가난한 사람들은 “진흙 쿠키”를 먹었다. 비슷하게 케냐는 1990년대 IMF 구조조정과 무역자유화 이후에 가장 중요한 식량인 옥수수의 순수입국이 됐다. 오늘날 케냐에서 기아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더 커다란 계급적 양극화를 발생시킨다. UN에 따르면 1996년 전세계의 가장 부유한 358명이 가진 순재산가치는 전세계 인구의 45퍼센트인 가장 가난한 사람들 23억명의 소득을 합한 것과 같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00명은 1998년까지 3년 동안 순재산가치가 두배 이상 늘어 1조달러 이상에 이르렀다.³⁹⁾ 2010년까지 전세계의 가장 부유한 3명은 가장 가난한 48개 나라보다 더 많은 돈을 갖게 됐다.⁴⁰⁾

이 모든 위기는 세계체제의 구조로부터 직접 나오며, 이 문제의 해결책은 인류의 막대한 부를 관리하는 전혀 다른 제도적 규칙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광주에서 그들의 지혜와 마주했던 한국민중처럼, 전세계 사람들은 전지구적 자본의 지배가 갖는 체제적 문제를 이해하며, 대안을 추구한다. 과거처럼, 막대한 다수의 인류에게 평화롭고 꾸준한 경제적 번영을 발견하지 못한 자본주의 실패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제적 엔진으로서 전쟁이 떠오른다. 심지어 새로운 군사적 재앙에도 못미치는 IMF와 세계은행 프로그램의 궁핍화 효과는 지속적으로 수백만명의 삶을 유린하고 있다. 2010년 그리스에 대한 IMF의 “지원”은 사람들의 은퇴연령을 높이고 연금과 임금을 삭감하고 국가의 부를 헐값에 매각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스에게 섬을 매각하라는 독일의 제안은 한가한 소망이 아니었다. 투자자들의 탐욕에 대한 그리스의 저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오랜 전통에서 나온 것이다. 그 당시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전지구적 반격은 자메이카, 베네수엘라, 가나,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와 다른 수십 곳에서 풀뿌리로부터 터져나왔다.

1980년대와 1990년 동아시아 전역에서 봉기들이 완고한 정권들을 휩쓸었다. 2권에서 논하겠지만, 10개 나라의 풀뿌리 반란은 자본의 지배논리의 폭로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했다. 비록 민중운동과 희생이 수백만명 민중의 삶을 크게 개선했음에도, 봉기들은 엘리트의 이익을 위

Asian crisis of 1997 began as financial problems of large manufacturing corporations weakened banks and credit markets in a “compound slump” of industrial and financial systems, requiring an IMF rescue package that benefited giant multinationals.

39)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Human Development Report, 1996 and 1999.

40) In 2010, 2 percent of humanity owned more than half the world’s household wealth, and the richest 10 percent owned 85 percent of total global assets, while the bottom half of humanity owns less than 1 percent of the wealth in the world. Maude Barlow, Democracy Now!, July 2, 2010, <http://www.democracynow.org/2010/7/2/maude>.

해 정당들에게 이용됐고, 엘리트들은 민중의 노력의 열매를 훔쳤다. 마주 빈번하게 진보적 정치인들은 새로운 형태의 자본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봉사했다. 한국도 이 패턴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민주주의”의 한계 내에서 시장이 자본의 지배를 강제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면서, 1987년 투쟁으로 쟁취한 성과들, 예를 들어 더 높은 임금과 더 짧은 노동시간은 역전됐다. 한국 “민주화”의 명백한 승리는 1997년 IMF 이기를 통해 대대적 패배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많은 수의 임시적 또는 파트타임 노동자들(이제 남한의 모든 직업의 50퍼센트 정도)과 점증하는 계급적 양극화가 발생했다.

구원에 나선 DJ 정부

1997년 한국경제가 IMF의 통제 아래로 들어간 상태에서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오랜 민주주의 옹호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다. 자주 넬슨 만델라와 같은 부류로 언급되는 DJ는 나라를 이끌기 위해 전진했고, “참여경제”와 자유와 함께 하는 번영을 약속했다. 그의 취임연설은 낙관적이었고 한국인들에게 앞으로 나갈 것을 촉구했다. DJ가 표현한대로, “참여민주주의는 실천돼야 하고, 국민은 주인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주인처럼 행동해야 한다.” 대통령이 된 직후 DJ는 평양방문을 준비했고, 그의 전임자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여행이었다. DJ는 역사적인 2009년 6월 15일 김정일과의 만남으로 노벨 평화상을 탔고 역사에서 명예의 지위를 보장받았다. 그의 햇볕정책은 수십년간 전임자들의 복에 대한 완고한 적대감을 종식시켰고 20세기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안내했다.

그러나 우리가 반란의 역사에서 되풀이해서 본 것처럼, 과거의 일화에서 나온 영웅적 인물들은 이후에 하층집단에 엄격한 조건을 강제하기 위해 엘리트들에게 이용당한다. “아시아의 만델라”인 DJ도 그랬다. 그의 임기 첫 4년 동안 “노동자들과 보통사람들의 옹호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은 매주 평균 5명의 노동자를 구속시켰다. 김영삼의 5년 임기에 632명의 노조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DJ는 처음 4년간 686명의 지도자를 구속함으로써 이 슬픈 기록을 앞질렀다. “진보”의 위장 아래 DJ는 임기 초반에 경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설립했다. 동시에 그는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타일랜드의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재앙으로 비난받는)를 집으로 초청해 IMF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⁴¹⁾

노사정위원회는 자주적 노동조합이 정부기구 참여가 허용된 첫 번째 경우였지만, 그 결과 민주노총은 1998년 2월 대량해고에 동의했다.⁴²⁾ 국가의 협조적 노사정 협의체의 새로운 역할분담으로 노동조합은 노동력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다. 포스트 포드주의 축적체제를 위한 이 새로운 법률적 틀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을 합법화한 반면, 동시에 사용자들에게 “유연한 노동력 규칙”을 보장했고, 이 규칙 아래서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당했다. 노조 대표자들이 새로운 협약을 협상하자, 1998년 1월 임시회의가 소집됐고 분노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내부 반란의 결과로 전국 지도부 전체가 사퇴하도록 강제했다. 이 반란에서 일반 조합원들은 쇠파이프로 무장한 채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간부들을 쫓아냈다**. 비록 노조 지도자들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철수했지만, 그들은 결국 돌아갔다. IMF 위기는 많은 노조들이 고용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대가로 단체협상과 파업권을 포기하도록 강제했다. 민주노총 내에 조직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직업을 지킬 수 있었지만, 수백만명의 다른 노동자들은 수당도 없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 해 겨울 IMF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자 대량해고, 임금삭감, 노동시간 연장, 생활수준 하락에 이

41) 41 Sang-young Rhyu, “Kim Dae Jung’s Ideas and Documents: A Perspective of Political Economy,” in Democratic Movements and Korean Society: Historical Documents and Korean Studies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2007), 186.

42) Dae-oup Chang, “Korean Labour Relations in Transition: Authoritarian Flexibility?” Labour, Capital and Society 35, no. 1 (April 2002): 22.

어 수십명이 자살했다. 시장 이윤이란 비인격적 힘에 개인이 굴복한 절망적 행동이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동안 130,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었다. 국영기업에서 109개 공기업 가운데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을 포함한 20개가 매각된 이후 40,000명이 정리하고 당했다.k 추가로 26,000명의 공무원이 예산삭감으로 직업을 잃었다. 1998년만도 5대 재벌이 80,000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하고 했다. 다시 고용된 노조 활동가들은 먼저 더 이상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겠다는 서면각서를 써야 했다. 1998년 68,000명의 은행 노동자들이 해고된 다음, 그들의 시위에 대해 대답은 최루가스를 뿌려대는 헬리콥터와 전투경찰의 곤봉이었다. 그 이후 이 노동자들의 약 2/3가 비정규직 또는 파트타임 노동자로서 크게 삭감된 임금으로 재고용됐다.

비극적 자살의 물결 외에도, 노동계급이 겪은 패배는 노동조건 악화로 측정된다. 노동시간은 1997년 월평균 207시간에서 1999년 226시간으로 급격하게 길어졌고, 1986년 주당 평균 54.7시간에서 1991년 49.3시간으로 수년동안 줄어든 것의 역전이었다.⁴³⁾ 연간 노동시간도 전 산업에서 1987년 최장 2,720시간(제조업은 2,850시간)에서 IMF 위기 직전 최저 약 2,400시간으로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그 이후 급격히 늘어났고, 목표 12.1에 지적된 것처럼, 한국은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을 초과하는 유일한 OECD 국가였다. 1999년 한국의 평균노동시간은 연간 2,500시간이었다. 2009년 8월 스위스 금융그룹 UBS는 서울의 노동자들이 연간 2,312시간을 일했다고 보고했고, 세계의 73개 주요도시 중에서 카이로 다음으로 두 번째였다.⁴⁴⁾

제조업 전산업

2,900 2,800 2,700 2,600 2,500 2,400 2,300

194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도표 12.1] 1945-1999년 연간노동시간

한국 노동자들은 더 긴 시간을 노동해야 했음에도 수입은 줄었다. 2000년까지 인구 상위 20퍼센트의 소득은 11퍼센트 증가한 반면 하위 20퍼센트는 소득이 5퍼센트 이상 감소했다. 1998년 비정규직 노동자는 570만명(전체 노동력의 47퍼센트)에서 2001년 8월 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740만명(약 56퍼센트)이 비정규직이었고, 이 수치는 1987년 “민주주의”를 쟁취한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였다. 한국은 “20대80의 사회”로 바뀌었다(인구의 다수가 오스트레일리아와 비슷한 생활수준을 누리는 상위 20퍼센트의 수준 이하로 살았다).⁴⁵⁾ 독재의 철권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이 이제 사회적 임금의 규제장치가 됐고, 경제적 불평등과 노조조직율은 전두환의 암울한 통치기간 보다 더 아래 수준으로 떨어졌다.⁴⁶⁾ 과거 권위주의적 규율이 방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기업들은 노동력을 통제하기 위해 보다 부드러운 “민주적” 수단, 즉 시장과 기술혁신에 의존하게 됐다.⁴⁷⁾

43) Democracy in Korea: The Roh Tae Woo Years (New York: Carnegie Council on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1992), 85.

44) The August 23 report also noted that workers in Lyon, France clocked only 1,582 hours per year on the job, while Asians averaged 2,119, Africans 2,063, South Americans 1,950 and North Americans 1,890. As a whole, Western Europeans enjoyed the shortest annual working hours with 1,745.

45) South Korea's government support for individuals placed the ratio of welfare spending to total government budget at an abysmal ranking of 132 in the world in 1997. Hochul Sonn, "The 'Late Blooming' of the South Korean Labor Movement," Monthly Review (July-August 1997).

46) See Sonn Hochul, "Neoliberalism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3, 75-2.

47) See Su-Dol Ka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Labor Relations in South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LaborTech 2000, December 2, 2000,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노동에 대한 DJ의 공격

DJ가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일어났다. 주요한 도전은 1998년 1월 20일 시작됐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김광식 위원장과 300명의 대의원들은 경영진의 수천명 정리하고 계획에 항의해 사발했다. 3명의 전위원장이 굴뚝 농성으로 시작해서 공장은 두 달 동안 접거됐다. 3,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그들을 지지했고, 7천명의 가족들도 굴뚝 근처 텐트에서 살면서 투쟁했다. 8월 17일 약 4,500명의 경찰이 파업 노동자들을 몰아내려고 시도했지만, 그들은 물러나야 했다. 마침내 노조 지도자들은 300명의 여성 식당노동자들을 제외하고 정리해고가 일시적인 것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협상했다. 비록 조합원의 64퍼센트가 타결안에 반대했지만, 정부와 회사측은 합의안을 강행했다. 2002년경 10,000명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의 가장 위험하고 불쾌한 일자리에서 일하게 됐다.⁴⁸⁾

시장규율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누르지 못하자 DJ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야만적 폭력으로 강행됐다. 2000년 3월 20일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십명의 깡패들이 쇠파이프로 파업중인 철도 노동자들을 구타했다. 1년 이상의 격렬한 투쟁을 견뎌낸 철도 조합원들은 마침내 지도자들을 선출할 권리를 쟁취했고, 처음 요구한 이래 약 54년만이었다. 대우자동차에서 몇 달 간의 투쟁은 2001년 4우러 10일 1,500명의 전투경찰이 상의를 벗고 저항하 300명의 노동자들을 악랄하게 공격하면서 끝났다. 노동자들의 변호사들이 집회의 권리를 부여하는 법원 명령을 받는 동안, 조합원들은 흔히 그러는 것처럼 화염병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평화적으로 연좌하고 있었다. 세 시간의 구타로 14명의 노동자들이 부러진 갈비뼈, 부분 마비, 부서진 코와 다양한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⁴⁹⁾ 3주도 지나지 않아 캐리어의 친경영진 노동자들이 계약직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레미콘 노동자들이 다음이었다. 깡패들은 심지어 확장품 여성노동자들도 공격했다. 8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이 감옥에 갇히자 노동운동은 주5일 투쟁을 선포했고 경찰폭력을 저지하는 효과적 수단이자 그들의 자신의 무기인 화염을 가지고 반격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이 보다 강경한 노선을 취하자 2001년 1월 민주노총 내부의 선거에서 NL 분파가 다수를 장악했다.⁵⁰⁾ 그 이후 새로운 민주노동당이 등장했고, 그 내부에는 PD와 NL 활동가들이 공존했다(그러나 과거의 동거경험처럼 NL이 결국 조직을 통제하게 됐다).

경찰폭력과 노조저항의 소용돌이가 폭발위험에 이르자, DJ와 노사정위원회는 타협적 합의를 만들어냈다. 노동자들이 화염병을 포기하는 대가로 정부는 최루탄 사용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로운 경영통제기술도 사용됐고, 팀별 조직과 개별 노동자에 대한 개인화된 접근은 전제적 통제에서 헤게모니적 통제로의 변화를 의미했고, 이 체제 아래서 사용자들은 지속적 감시기술을 이용했다. 한 노조원의 말로, “모든 노동자는 예외없이 동일한 작업복을 입어야 한다. 담배는 금지됐고 확장길 갔다 오는 길에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치 내 상상력이 감시당하는 것 같다. 이제 이 회사의 노동자들은 노예가 됐다.”⁵¹⁾

[표 12.1] 사용된 화염병 수자
연도 화염병 수자

48) Dae-oup Chang, “Korean Labour Relations in Transition,” 29.

49) See Asia Human Rights Commission, Human Rights Solidarity 11, no. 5 (May 200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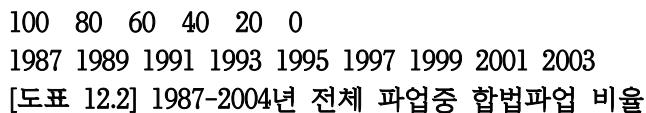
50) Interview with Kwak Tak-sung, Seoul, June 6, 2001.

51) Dae-oup Chang, “Korean Labour Relations in Transition,” 31.

1998년	170개
1999년	613개
2000년	746개
2001년	2,453개

Source: Government Information Agency; *Korea Herald*, December 10, 2001.

노조 조직률이 급격하게 하락하자, 노동쟁의의 원인도 임금인상에서 단체협약으로 극적으로 변화했다.⁵²⁾ 작업장에서 치명적 부상의 발생률은 1.8/10,00로 꺾였고, 싱가포르(0.19)보다 거의 10배나 높았고 홍콩(0.57), 아르헨티나(0.8), 멕시코(0.8), 미국(0.11), 일본(0.05)보다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파업은 조합원의 고용에 관한 것이었지, 안전문제나 대대적 비정규직화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⁵³⁾ 같은 시기에 파업은 점차 국가의 규제를 받게 됐다.⁵⁴⁾ 1987년 파업의 5.9퍼센트 이하가 합법적이었지만, 2003년 합법파업의 수자는 도표 12.2에 나타난 것처럼 거의 90퍼센트였다.



DJ 아래서 비록 파업이 합법화되고 체제로 통합됐음에도 계급적 양극화는 증가했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증가했다. 2005년 산업노동자는 조합원의 40퍼센트를 차지했고, 1996년의 10퍼센트에서 증가했다.⁵⁵⁾ 그들의 실용주의와 자기이해는 엘리트적 분할통치 전략에 직접 봉사했다. 1999년 임시노동자와 일용노동자의 수자가 풀타임 노동자를 추월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보다 실제로 더 오래 일했고, 49.5시간에 비해 46.5시간이었다.⁵⁶⁾ 임금격차가 증가하자 다른 불평등 지표도 증가했다. 정규직 노동자의 90퍼센트 이상이 연금과 의료보험을 가졌던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25퍼센트 이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출범했지만, 오늘날까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의 지위를 변화시키는 데서 아직은 중요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⁵⁷⁾ 가장 뚜렷하게, 노동현장 불평등은 성에 따라 발생한다. 1999년 여성 노동자의 30퍼센트 이하가 정규직이었던 반면, 남성의 상응하는 수자는 69퍼센트였다.⁵⁸⁾

여성의 자율성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체제 내에서 여성의 운명은 전형적으로 “마지막으로 고용되고 제일 먼저 해고당하는” 것이다. IMF 위기 이후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73퍼센트가 파트타

52) Kevin Gray, *Korean Workers and Neoliberal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2007), 77. From 1987 to 2004, the cause of labor disputes dramatically shifted from wage increases (69.7 percent of all disputes in 1987 but only 12.1 percent in 2004) to contracts (from 27.7 percent in 1987 to 83.4 percent in 2004). During these same years, service sector strikes rose from 11.4 percent of the total to 34 percent. Union density (members as percentage of workforce) fell from a high of 19.8 in 1989 to just 11.0 in 2003.

53) Holger Heide, ed., *Sudkorea—ewegung in der Krise* (Bremen: Atlantik, 1999), 105.

54) Byoung-Hoon Lee, “Militant Unionism in Korea,” 165-6.

55) *Ibid.*, 160.

56) Dae-oup Chang, *Labor in Globalizing Asian Corporations*, 45.

57) On November 9, 2009, the Korean government released figures claiming 34.9 percent of all employees were part-time, up from 32.6 percent in 2003. The reliability of these figures is uncertain. Most labor activists use the higher estimate of more than half of all employees being part-time.

58) Hagen Koo, “Engendering Civil Society,” in *Korean Society: Civil Society, Democracy and the State*, ed. Charles Armstrong (London: Routledge, 2002), 89.

임이었고 여성들은 남성보다 상당히 적은 임금을 받았다. 산업화된 나라에서 오직 일본에서만 여성들이 남성에게 비해 한국(52퍼센트)보다 덜 받았다(44퍼센트). 이런 성차별에 대항하기 위해 여성들이 동원하면서, 세 개의 단체가 결성됐다. 민주노총 내부에 하나,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의 단체와 여성 사무직 노동자들의 단체가 결성됐다. 현대자동차 투쟁에서 노동조합은 여성 식당노동자들을 희생시켰다. 한 추정치에 따르면 민주노총 내에서 여성의 수자는 약 20퍼센트인 반면 여성 지도자의 수자는 10퍼센트 이하였다. 1999년초 여성들이 “현존 노동조합 내부의 가부장제적 위계제가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 장애가 됐다”고 주장한 이후 자주적 노조들은 9개 지역조합과 함께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을 결성했다.⁵⁹⁾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유일한 목적을 가진 독립노조가 민주노총과는 독자적으로 결성됐다. 동시에 한국여성노동자회(KWAU)는 규모가 증가해 29개 조직과 4천명의 개인을 포괄하게 됐다.

1990년대는 대개 여성의 제도화 시기였고, 성폭력 방지법을 포함해 여성관련 법안들이 도입됐다. 여노회의 연구가 여성의 월급이 243달러로 남성의 50.9퍼센트임을 밝힌 이후, 한국 여성의 소득은 1997년 남성의 겨우 58퍼센트였고, 1980년 암스텐이 제시한 44.5퍼센트에서 증가했다.⁶⁰⁾ 2005년의 데이터는 이 비율을 정규직 노동자의 72퍼센트로 기록했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남성에게 대한 모든 여성의 비율은 65.4퍼센트였다.⁶¹⁾ 2006년 한국경제연구소는 평균적 여성노동자가 1970년대 남성이 해당 직업에서 벌었던 것의 42퍼센트를 번다고 계산했다. 2002년 이 수자는 63퍼센트였다.⁶²⁾ 다른 측정치는 더 낮았다. 2009년 한겨레는 여성이 남성 수입의 거의 절반(52퍼센트)을 번다고 계산했다.⁶³⁾ 여성의 경제적 주변화의 한가지 중요한 차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높은 것인데, 1995년 고용된 모든 여성의 절반 이상(57.5퍼센트)이 비정규직이었고, 이 수자는 2006년 67.6퍼센트로 올라갔다.⁶⁴⁾

이 통계는 일상생활의 형성에서 가부장제의 뿌리깊은 힘을 보여주기 시작할 뿐이다.⁶⁵⁾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성평등 측면에서 일관되게 세계 최하위 근처에서 머물고 있다. 2000년 UNDP의 보고서에서 남한은 70개국 중에서 63위였고 스위스나 피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2008년까지 세계 100개국 중에서 남한은 68위였다. 대학에서 교수의 20퍼센트 이하가 여성이었고, 많은 수가 가정대학에 계통화돼 있었다. 2009년 여성은 모든 국회의원 중에서 겨우 13.7퍼센트였고, 그나마 과거보다 개선된 수치였다. 2008년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선출된 의원의 2퍼센트만이 여성이었다(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겨우 5퍼센트 정도였다). 국회의원 299명 중에서 지역구에서 선출된 여성은 거의 없었고 수십년 동안 지속되는 상황이다. 다른 아시아 나라에 비해서도 남한은 표 12.4에 보여지듯이 거의 바닥 수준이다.

[표 12.3] 여성 국회의원 수자

연도	여성(지역구)
1985	8 (2)
1988	6
1992	3

59) Koo, *Korean Workers*, 209.

60) The average wage of Koreans was 1,210,000 won; men made 1,390,000, and women averaged 810,000. See Mun-cho Kim, “Informatiz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Women’s Social Status in Korea,” *Asian Women* 7 (December 1998): 141. Also see Amsden, *Asia’s Next Giant*, 204.

61) Namhee Park, “Korean Women Workers’ Activism,” *Peace Review: A Journal of Social Justice* 18 (Winter 2006): 491-8.

62) *Korea Insight* 8, no. 5 (May 2006).

63) *Hankyoreh*, March 10, 2009.

64) Song-woo Hur, “Mapping South Korean Women’s Movements During and After Democratization: Shifting Identities,” in *Gwangju Asian Human Rights Folk School* (Gwangju: 5.18 Memorial Foundation, 2009), 202.

65) See Mun-cho Kim, “Informatization and the Transformation,” 141.

1996 9
2004 16

Source: Seungsook Moon, "Redrafting Democratization through Women's Re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in *Korea's Democratization*, ed. Samuel S. 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11.

[표 12.4] 2000년 여성의원의 비율

중국	21.8 퍼센트
필리핀	12.9 퍼센트
일본	9.0 퍼센트
싱가포르	4.3 퍼센트
남한	4.0 퍼센트

Source: Young-hee Shim, *Sexual Violence and Feminism in Korea* (Seoul: Hanyang University Press, 2004), 24.

여성의 종속적인 정치적 지위는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의 반역이다. 이화여대의 한 연구는 한국 남성의 83퍼센트가 매춘부와 성관계를 했다고 발견했고, 많은 수가 군복중이었지만, 83 퍼센트의 절반 정도는 결혼 후에도 매춘을 했다. 2006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성노동이 한국경제의 4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보도했고, 이는 매년 210억 달러이며 전기와 가스 요금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그들의 자료에 따르면, 330,000명 이상이 성노동자로서 8만 곳의 창녀촌과 69곳의 흥등가에서 일한다고 한다.⁶⁶⁾ 2009년 미국정부의 성산업 공모의 증거가 <뉴욕타임스> 지면에 등장했다.⁶⁷⁾

신자유주의 아래서 성노동자의 임금은 독재보다는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위안부 여성"을 납치하기 위해 야만적 폭력이 사용됐고 전후 빈곤이 성산업에서 일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지만, 오늘날 소비재의 현혹과 시장체제 내에서 고임금 직업에 대한 합리적 대안의 결핍이 상당한 여성들을 창녀촌으로 이끈다. 일부의 추정에 따르면 한국에서 매춘여성의 수자는 2 백만명에 이른다. 최근 중요한 발전은 성노동자들의 자기 조직화였다. 광주의 여성들은 1990년대 중반 첫 번째 조직화 모임을 가졌고, 베이커리 협동조합이 세워졌다. 2002년 2월 군산에서 2개의 술집에서 불이 나서 15명의 여성이 죽었다. 두 번째 화재는 경찰서에서 겨우 5백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지만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활동가 김현선이 조직화를 시작하자, 성매매로 이익을 챙기던 강패들이 그녀의 목숨을 위협했다. 서울과 군산의 시위대는 군산 경찰서장의 체포를 요구했다. 일부 여성 활동가 그룹은 고발을 한 반면 다른 활동가들은 직접 행동을 취했고, 울산에서 작은 방에 4년간 갇혀있던 3명의 여성이 구출됐다. 심지어 운동권 내에서도 여성 활동가들(백인회)이 성차별주의에 과감하게 반대하기 시작했다. 한 단체는 성적으로 억압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남성 활동가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남성들의 반응은 완고했고 여성들이 공개한 것을 문제라고 생각했다. 2009년 민주노총의 지도적

66) Meredith May, "A Youthful Mistake," part 2 of a 4-part report on global sex trafficking, San Francisco Chronicle, October 8, 2006, A6, <http://www.sfgate.com/sextrafficking/>.

67) Choe San-hun, "Ex-Prostitutes Say South Korea and U.S. Enabled Sex Trade Near Bases," January 7, 2008. The article reported that, "American military police and South Korean officials regularly raided clubs from the 1960s through the 1980s looking for women who were thought to be spreading the diseases. They picked out the women using the number tags the women say the brothels forced them to wear so the soldiers could more easily identify their sex partners. The Korean police would then detain the prostitutes who were thought to be ill, the women said, locking them up under guard in so-called monkey houses, where the windows had bars. There, the prostitutes were forced to take medications until they were well."

조합원의 여성 조합원에 대한 강간미수 사건 이후 사건 은폐에서 역할에서 지도부 전체가 사임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약탈

국민발전국가에 의해 오랫동안 저지됐지만, IMF 경제위기가 한국에 도달한 이후 전지구적 자본에 대한 수문이 활짝 열렸다. 산업과 은행에 대한 할인가격은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었다. 군부독재가 시장의 독재로 대체되자, 해방과 노예화의 소용돌이 변증법은 더욱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새로 발견한 자유를 이용해 자본은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유리하게 재조정할 수 있었다. 수백만명의 근면한 한국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신자유주의적 긴축의 채찍 아래 고생했지만, 광주의 유혈진압에 주재한 자들은 보상을 받았다. 비록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짧게 복역했지만, 전두환은 험령한 수억달러를 그대로 가졌고, 리처드 홀브룩은 UN주재 미국대사로 임명되기 전에 현대와 미국은행의 자문역으로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지미 카터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동시에, “미국 투자자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미국대사관의 장기적 중점사업은 상당한 보상을 받았다.

IMF 위기는 한국 원화의 평가절하를 필연화했고, 칼라일 그룹같은 투자자들이 한국의 자산을 크게 각인 가격으로 취득했다가 시장이 회복된 후 놀라운 이윤으로 다시 매각할 수 있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1996년 겨우 14퍼센트의 지분에서 IMF 위기가 한국을 강타한 직후 한국기업 시장가치의 40.1퍼센트를 취득했다.⁶⁸⁾ 2004년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가치의 43.7퍼센트를 통제했다.⁶⁹⁾ 금융부문에서 이 경향은 훨씬 더 높았고 주요은행에 대한 외국인의 통제는 1998년 12퍼센트에서 2004년 64퍼센트로 올라갔지만, IMF 위기가 창출한 놀라운 가치로 국제투자자들이 황폐화한 나라에서 전리품을 얻기 위해 쏟아부으면서 그 금액은 155억 달러로 뛰어올랐다. 수년간 조지 H.W. 부시(아버지)는 칼라일 그룹의 아시아 자문이사회의 연례모임을 주재했다. 2000년 IMF가 만약 남한이 “악성채무의 무담을 가진 금융기관을 강화하지” 않으며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자,⁷⁰⁾ 부시는 김대중의 총리 및 다른 정부 및 재계 지도자들과 만났다. 그 직후 칼라일은 1억 4,500만 달러 입찰로 한미은행의 통제권을 획득했다. 몇 년 뒤 한미은행이 <비즈니스 위크>가 “현재까지 아시아에서 단일 건수로 사상최대의 비공개 자본회수”라고 묘사한 거래로 매각하면서, 칼라일은 단 한번의 거래로 7억 7,500만 달러의 순이윤을 챙겼다.⁷¹⁾

다른 미국계 비공개 기업투자 펀드들도 훨씬 더 나은 거래를 했다. 뉴브리지 캐피털은 제일은행을 샀다가 팔면서 5년이란 짧은 기간에 12억 달러 이상을 “벌었다.” 론스타 펀드는 서울의 45층 건물을 사서 2억 4천만 달러의 이윤을 봤고, 2003년 취득한 한국외환은행의 12억 달러 지분은 보도에 의하면 2006년초 매각하려할 때 가치가 세배 이상이었다고 한다.⁷²⁾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의 아시아 투자 담당이사인 레이 후드의 예언적이지만 무덤덤한 말로, “아시아에서 투자수익은 완벽한 절도가 될 것이다.”⁷³⁾ 한국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1998년과

68) Hart-Landsberg, Jeong, and Westra, *Marxist Perspectives*, 17.

69) Sonn Hochul, “Neoliberalism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81.

70) Don Kirk, “Bad Loans Imperil South Korean Growth, IMF Warns,” *International Herald-Tribune*, November 16, 2000, 19.

71) “Carlyle Group’s Asian Invasion,” *Business Week Online*, February 14, 2005, http://www.businessweek.com/magazine/content/05_07/b3920143_mz035.htm.

72) William Sim and Michele Batchelor, “Lone Star to sell its stake in Korea Exchange Bank,” *International Herald-Tribune*, January 13, 2006, <http://www.iht.com/articles/2006/01/12/business/bxlone.php>.

73) Tim Shorrock, “Crony Capitalism Goes Global,” *Nation*, April 1, 2002. Carlyle’s Asia advisory board also includes

2003년 사이에 외국인 펀드의 평가 투자수익의 총액은 1,000억 달러였고, 2005년 5월 외국인들은 10대 재벌 지분의 47퍼센트와 전체 주식시장의 42퍼센트(1997년 9.1퍼센트에서 증가해)를 보유했다.⁷⁴⁾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론스타의 태도는 장화식의 경우에서 드러나는데, 그는 외환은행 신용서비스(당시 론스타의 통제 아래 있던)에서 일하던 160명 중의 하나였던 그는 2004년 2월 27일 오전 3시 20분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는 비용삭감조치로 다음날로 해고한다는 내용이었다. 장화식의 말로, “그들은 한국에서 천문학적 수자의 국부를 빨아먹고 있다. 그들은 그 대가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노동자들을 정리하고 했다. 불의에 대해 말해보라!”⁷⁵⁾ 그러나 론스타는 미국식 친절함의 과시로 끝내지 않았고, 그들의 투자는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서류상의 회사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사소한” 금액의 세금 지불마저 회피했다.⁷⁶⁾ 론스타의 수익이 너무 커서 한국정부는 론스타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외환은행의 매각을 보류했다. 2008년 론스타는 사기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남한 지점의 지사장은 5년형을 받고 구속됐다.⁷⁷⁾

아시아적 가치와 서구적 가치 사이의 충돌은 수많은 수준에서 존재한다. 서양 정치학자들은 오랫동안 유교적 가치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서구의 탐욕은 유교적 전통의 시각에서 불쾌한 것으로 보인다. 유교적 시각에 따르면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이 공정한 거래를 했다고 만족할 때 성공적 거래가 이뤄진다. 맹자는 말했다. “그대는 왜 이윤에 대해 말하는가? ...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는 서로에게서 이윤을 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면 상태는 위험해질 것이다.”⁷⁸⁾ 만약 누군가 값싼 물건을 높은 가격에 팔아서 의심하지 않는 구매자의 눈을 속이면, 실제로 체면을 잃는 것은 판매자이고, 그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공정함과 윤리적 행동이 더 가치있는 사회에서 터무니없는 잘못이다. 서구에서(그리고 점차 오늘날 모든 곳에서) “성공적으로” 거래하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보더라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이다.

공정성과 윤리적 거래의 규범에 관한 다기한 이해는 지속적 반미주의의 물질적 토대이다. 미국과 한국의 시각차이는 광주의 목소리와 미국관리들의 성명을 비교하면 이미 분명하지만,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의 시대에 확대됐다. 금융자본의 압도적 역할은 경제활동의 다른 영역을 위축시키며, IMF와 세계은행의 역할은 각국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다. 근면, 희생, 국민적 연대가 주요한 역할을 했던 과거 수십년과는 달리,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제적 투자와 기업지배의 금융 마법사에 의해 국가의 금고가 하루밤 사이에 텅비게 될 수 있다.

현재 세계경제의 구조에서 국가와 개인들이 외골수로 이윤을 최대화하려고 애쓰는 것은 “자연스럽다.” 비록 자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합리화되지만, 아담 스미스는 무제한적 이윤취득을 경멸했을 뿐이다. “우리는 전부,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은 세계의 모든 시대에 인류의 주인들의 사악한 좌우명이었던 것 같다.”⁷⁹⁾ 많은 한국인들에게 “추악한

former Philippine president Fidel Ramos, former U.S. national security advisor Frank Carlucci and former Korean prime minister Park Tae Joon.

74) Choe Sang-Hun, “Seoul Grows Wary of Foreign Investors,” International Herald-Tribune, May 12, 2005, 18.

75) Ibid.

76) See “Will Lone Star, Other Foreign Funds Hit Back?” Korea Times, September 30, 2005.

77) Choe Sang-Hun, “Lone Star Convicted of Stock Fraud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ebruary 1, 2008.

78) Mencius, “Humane Government,” in The Works of Mencius, ed. James Legge (New York: Dover, 1970), 92. In Bruce Cumings’s view, “Since both China and Korea share Confucian values, they have been able to maintain friendly relations for centuries. China gave more than it received” (Korea’s Place in the Sun, 91).

79) Adam Smith, “How the Commerce of the Towns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Country,” The Wealth of

미국인”이 돌아온 것 같다. 이창근이 표현한 것처럼, “공자는 <논어>에서 덕을 갖춘 사람은 다른 이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밀어붙이지 않으며, 또한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르지도 않는다... 공자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소인배의 묘사에 적합한 것가랄. 워싱턴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방식과 관행에 적응할 것을 요구한다.”⁸⁰⁾

바로 이 시점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서 미국관리들이 이른 바로 그 성공이 남한에서 반미주의의 불씨를 부추기고 한국과 미국간의 전략적 동맹을 침해했던 것이다.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신의 국부를 약탈하는 동안 자신들의 20대80의 사회가 됐다고 인식하면서 분노를 표현한다. 한국은 미국화의 경로를 계속 밟을 것인가? 아니면 등을 돌려, EU, 아마도 스칸디나비아 또는 아주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중국을 향할 것인가? 2003년 사상 처음으로 한국은 미국보다 중국에 더 많이 수출했고, 1년 전에는 중국이 한국자본이 투자되는 주요국가가 됐다. 한국의 제조업은 이제 쇠퇴중이고 일자리와 산업은 국외로 이동했다.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 아래서 쓸데없는 금융의 역량증대는 한국에서 반미주의를 증가시킨다. 한미관계를 추동하는 보다 가시적 이슈도 있겠지만, 표면 아래서 한국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던 미국관리들이 미국 투자자들의 이익을 외골수로 추구하는 행태는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 당연하다.

Nations,” <http://www.econlib.org/library/Smith/smMS.html>. Smith’s critique of what we today name “neoliberalism” was first pointed out to me in Noam Chomsky, “Democracy and Education,” Mellon Lecture, Loyola University, Chicago, October 19, 1994, <http://www.zmag.org/chomsky/talks/9410-education.html>.

80) Lee Chan-keun, “Korean Economy in Era of Globalization,” Korea Focus, March-April 1999, 94.

[번역] 조지 카치아피카스,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1권

조지 카치아피카스, George Katsiaficas,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Asia's Unknown Uprisings,
1권: 20세기 남한의 사회운동 Volume1: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in the 20th Century

13장 민주주의의 딜레마

반미주의의 지속력 | 다가오는 한반도 통일? | 노무현 정부 | 2MB 정부 | 2008년 촛불시위
| 이명박 대통령의 반개혁 공세 | 노무현의 자살 | 한류 | 광주에의 지속적 중심성 | 전통과
해방의 변증법 | 대안운동 | 자유의 댓가를 찾아서

‘1987년 체제’(만약 우리가 6월항쟁과 그 직후에 창출된 전반적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질서를 그 이름으로 부른다면)는 그에 선행한 체제에 비해 훨씬 우월한 질서를 구성하지만, 그것은 출발부터 수많은 임시적 타협에 기초한 불안정한 구조였고, 이제는 거의 그 한계의 끝에 도달했다.... 대체로 ‘87년체제의 건강성과 지속적 존재의 보증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거의 들리지 않는다.

- 백낙청 2007년

6월항쟁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점차 공허해졌다. 지금까지 우리는 직선제와 비밀투표 같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만족해 왔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런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보길 원한다.

- 한겨레 2008년

일지

2002년 1월 13일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함
2002년 11월 22일	미군병사 미군법정에서 무죄판결
2002년 11월 30일	주한미군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시작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 참여정부 선언
2003년 10월 21일	노무현 대통령 1948년 제주학살에 대해 공식적으로 두차례 사과
2003년 11월 11일	열린 우리당 창당
2004년 3월 15일	대규모 촛불집회에도 불구하고 국회 노무현 탄핵
2004년 4월 15일	우리당 국회선거에서 다수 획득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번복됨
2006년 7월 1일	전투경찰 OSCO 철강노동자들의 합법적 파업 공격, 1명 사망
2006년 11월 23일	노무현 정부, 추가적인 반FTA 시위 금지
2007년 4월 12일	한미FTA 승인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평양에서 김정일과 회담
2007년 12월 19일	이명박(2MB) 대통령 당선
2008년 4월 9일	이명박의 한나라당 국회에서 다수 획득

2008년 5월 2일	여고생들 미국산 소고기에 반대하는 첫 촛불집회 개최
2008년 6월 10일	촛불시위의 정점, 1백만명 이상 시위
2008년 6월 30일	경찰 처음으로 참여연대 및 다른 NGO 사무실 습격
2008년 6월 30일	수십명의 카톨릭 사제들 촛불시위에서 야외미사
2008년 12월 10일	전투경찰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여성 집회 저지
2009년 1월 12일	이명박 정부 한국위성 발사에서 일본회사 선택
2009년 1월 20일	경찰의 용산철거민 점거건물 공격으로 6명사망, 23명 부상
2009년 5월 22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77일 점거 시작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대통령 자살
2009년 11월 11일	광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4대강 프로젝트 시작
2010년 3월 26일	남한 해군함정 천안함 침몰
2010년 5월 24일	오바마 대통령, “명확히” 남한지지, 미군에게 “준비태세” 명령
2010년 7월 21일	미구구문장관 클린턴 “심각한 결과” 언급하며 북한 위협
2010년 7월 25일	미국과 남한의 대규모 합대 한국해안에서 군사훈련 진행

민주화운동의 많은 승리와 함께 한국인들은 더 많은 자유를 누렸다. 일단 IMF 위기에서 회복하자 한국은 계속해서 상당한 경제적 성고를 거뒀다. 2003년 “세계 제일의 인터넷 대통령” 노무현이 취임했다. 진보적 정권 아래 10년 동안 북한과의 경협확대와 관계개선이 이뤄졌다. 동시에 사회운동 활동가들이 정부에 통합되면서 보수파는 반격을 가했다. 2008년 “뉴라이트” 이명박이 압도적 승리로 취임했고 즉각 불도저식으로 군부독재의 암울한 시대 이래 이룩한 많은 성과를 없애기 시작했다.

반미주의의 지속력

많은 사람들이 반미주의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지속력은 계속해서 정치적 지형을 규정했다. 2000년 몇몇 추악한 사건 이후 미국무부는 미국인들에게 한국여행을 자제하라고 충고했다.⁸¹⁾ 2000년 5월 8일 매향리(미군 전투기의 기관총 및 포격 연습용으로 이용된)에서 500파운드의 오인 포격으로 주민 7명이 부상당해 입원했다. 그해 후반 불법 화학물질이 미군기지에 버려져 한강(서울의 2천만 주민의 주요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스토리는 나중에 영화 <호스트>로 알려진 오점이었다. 2002년 미국인에 대한 폭력 위협은 너무 심각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대구에서 열린 미국과 남한의 월드컵 경기 참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인 2002년 6월 13일 생일파티에 가던 2명의 여중생 심미선과 신호순이 미군차량에 치여 죽었고, 대대적인 반미 구호를 자극했다.

미선과 효순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는 수천명의 미군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결코 기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커져갔다. 두 여중생의 죽음은 (한국의 분단은 말할 것도 없이) 개별적 미군(GI)이 저지른 진정한 범죄행위를 상징했기 때문에 더욱 더 악화된 비극이었다. 한국정부에 따르면, 1967년에서 1987년까지 미군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39,452건이었고 매년 평균 1,972건 또는 매일 5건이었다. 1991년 근무중 미군이 저지른 1,373건의 신고된 범죄 가운데 겨우 18건만이 기소됐다.⁸²⁾ 2000년부터 그렇게 보고된 범죄 수자는 상당히 감소해서 매년 500여건 수준이 됐다.

81) Kim Jinwung, “From ‘American Gentlemen’ to ‘Americans’: Changing Perceptions of the United States in South Korea in Recent Years,” Korea Journal 41, no. 4 (Winter 2001): 172.

82) Louie, “Minjung Feminism,” 130.

효선과 미순의 사건에서 범행을 저지른 미군들은 한국 법정에 서길 거부했고 그 대신 쌍무적 주한미군 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의 규정 아래 미군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두 사병은 미군 기지로 즉각 피신했고 미국은 며칠이 지나도록 그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2002년 9월 재판이 다가오면서, 세명의 하급 미군이 살인에 관한 유인물을 받기를 거부하자 서울의 지하철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등병 에릭 오운과 세인 터커는 도망쳤지만, 존 머피는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추모모임에서 여학생들을 죽인 두 미군이 미군법정이 아니라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동의하도록 강요받았다. 머피는 한총련 학생들에 의해 경찰에 넘겨졌다.⁸³⁾ 마침내 한국경찰이 개입하자, 그들은 군인들을 폭력혐의로 기소했고 미군을 납치한 것으로 비난받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놀라지 않게 11월말 미군법정은 다른 사병이 사고 직전에 속도를 낮추라고 소리쳤다고 증언했음에도 운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들의 석방 이후에 한국언론은 마침내 그들에게 직접 말하기 첫 기회를 갖게 됐고, 충분히 정중하게 어떻게 느끼는지 물었다. 두 명의 미군은 집으로 가게 돼서 아주 기쁘다고 진술했지만, 어떤 유감도 표현하지 않았다. 이런 누락은 한국인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 병사들은 유가족에게 어떤 종류의 사죄도 표현하지 않은 채 완전히 자신의 처지에 매몰돼 있었다.⁸⁴⁾

[사진] 2002년 6월 13일 미군 차량이 2명의 여학생 신호순과 심미선을 깔아 죽였다. 그들을 죽인 미군 병사들이 미군 법정에서 무죄로 풀려나자, 이에 항의하는 촛불집회가 몇 달 동안 계속됐다. 사진작가 미상

무죄방면으로 6개월 이상 동안 미군 시설에서 야간 촛불집회와 시위가 벌어졌다. 비록 압도적으로 평화적이었지만, 촛불시위는 미국 국기를 태우고 전투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이 됐다.

대중의 분노는 너무 격렬해서 부시 대통령은 11월에 공식적 사과를 발표했다. 미군이 저지른 강간, 강도와 기타 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미군의 한국내 기소에서 면제한 SOFA협정의 실효성을 의심했다. 2006년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서울에서 남쪽으로 50마일 떨어진) 이전에 대한 갈등으로 수주 동안 시위가 벌어졌고 수백명이 체포되고 부상당했다.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허물자 평택 주민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을 진압하는데 15,000명 이상의 경찰이 필요했다.

위의 사건들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즉 미국의 한국에 대한 또다른 공격의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 문제를 반영한다. 비록 미국인들은 완전히 무지하지만, 1994년 6월 미국은 북한을 일방적으로 폭격할 뻔했다. 마지막 순간에 지미 카터가 평양을 방문해 전쟁을 회피할 수 있었다. 주한미군 지휘관의 추정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3백만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었다.⁸⁵⁾ 2002년 초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의 일부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

83) Don Kirk, “Korean Mob Briefly Detains U.S. Soldier After Subway Fight,” New York Times, September 17, 2002.

84) U.S. service personnel subsequently blamed poor roads in Korea for the accident. I can only imagine how American people would react if Korean sailors in the United States drove an oversized vehicle and killed two U.S. schoolgirls, took refuge on a Korean ship, got a slap on the wrists when their case was heard by an all-Korean panel, did not apologize when they met the media, and then had Korean people write public letters saying that the real problem was that there were too many traffic fatalities in the United States.

85) See Jimmy Carter, “Engaging North Korea,” New York Times, October 27, 2002, 13. Another U.S. study estimated that within the first weeks, there would be 100,000 U.S. casualties, 490,000 South Korean military, and several million Korean civilians.

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⁸⁶⁾ 심지어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도 미국은 강도 높은 봉쇄를 유지하면서 계속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지원하는 최대 부대 중의 하나를 제공했기 때문에 많은 미국 인들은 남한 반미주의가 무시할만한 현상이라고 가정한다. 2005년 9월 13일 한국기업 KSOI (한국사회연론연구소)가 7백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여론조사는 정반대를 가리켰다.⁸⁷⁾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남한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미국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 응답자들(41.3퍼센트)와 비슷한 사람들(40.9퍼센트)이 남한은 북한을 도와야 한다고 대답했다. 비슷하게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47.3퍼센트) 51.6퍼센트는 미군이 그대로 주둔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한국 통일에 가장 반대하는 나라로 미국(35.3퍼센트)을 지목했고, 그 다음이 일본(35.2퍼센트)과 중국(13.4퍼센트)이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53퍼센트)은 미국이 한국분단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맥락에서 DJ의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이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한국인들에게 미국을 소중히 여기려는 정치 엘리트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미주의는 사회적 지형의 지속적 특징으로 남아 있다. 모순되는 문화적, 정치적 구도가 때로는 사람들의 인식에 혼란을 준다. 남한은 아시아에서 가장 미국 애호 국가 중의 하나로 보이지만, 표면 아래에 커다란 불신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엄청난 양의 긴요한 미국원조로 수립됐고, 수십년 동안 한국경제는 미국과의 특권적 유대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심지어 진보적 대통령인 김대중과 노무현조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미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확대하려고 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 미국이 약화되면서, 세계경제의 침체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 미국인들의 탐욕스런 식욕, 북한과의 오랜 전쟁상태를 해결하지 못한 미국의 실패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감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다가오는 한반도 통일?

통일은 DMZ 양쪽의 한국인들에게 해결책의 큰 부분이 될 수 있다. 남측은 국내시장, 생산확대의 기회, 규율있는 노동력을 얻게 될 반면, 북측은 새로운 투자, 하이 테크놀로지, 숨막히는 미국의 봉쇄중단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양측은 불필요한 방위비 지출로 나가는 막대한 수십억달러를 절약할 것이다. 만약 군사적 준비상태가 끝나면, 물질적 혜택 외에도 엄청난 정신적 혜택도 생길 것이다. 거대한 미국과의 전쟁에서 자신을 지킨 첫 번째 나라인 자그마한 북한은 반세기 이상 동안 지속적인 적대를 겪어야만 했다.

고래들 사이의 새우라는 한국인들의 전통적 이해는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미래를 결정하는데 외부자의 개입을 전제하지만, 통일은 한국인 자신들이 성취하기 위해 행동할 때에야 비로소 이룩할 수 있다. 이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남북한이 독립적이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은 통일을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통일 한국에서 남한시장에 대한 더 나은 접근을 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 지상군과 일본과 미국의 공격재개 가능성에 대해 완충지대로서 북한에게서 이익을 본다. 잃어버린 10년의 경제침체에 빠진 일본은 인구와 경제규모에서 일본을 추월할지도 모르는 통일한국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한반도가 통일되면, 아마도 동아시아 대륙에서 마지막 남은 군사적 발판을 잃게 될 것이다. 이미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위해 로비해 왔다.

86) In March 2002, a Pentagon review of U.S. nuclear policy recommended that the United States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seven countries—including North Korea

87)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 ce_id=121&article_id=0000001865.

한국 지배엘리트가 한국을 분열시켜 북한에 대해 동원하려는 일본 및 미국과 협력하는 한, 한국의 독립은 훼손 될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아래서의 진보는 실질적이었지만, 2008년 이명박이 취임한 이후 평양관계는 심하게 긴장됐다. 20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일본과 미국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한국을 희생시킬 불길한 가능성은 여전히 실질적이다. 새운 한국전쟁은 일본기업들이 재건하고 미국기업들이 새로운 이윤을 획득할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2006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한의 대학생 85퍼센트가 통일을 원했다.⁸⁸⁾ 비록 민족분단 이후 반세기 이상이 지났음에도, 많은 한국인들은 통일에 대한 진심어린 소망을 계속 표현한다. 서로 연락할 가능성도 없이 가족들은 계속 헤어져 있다. 내가 7년 동안 살았던 한국에서는 분단된 독일보다 더 사람들이 통일을 열망하며, 이를 위해 일부는 필사적으로 투쟁한다. 통일을 향한 한국의 길은 독일의 “빅뱅”과는 다를 것이다. 이유의 일부는 그들의 장기적 전망과 이미 시작된 단계적 과정의 시작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가족방문, 철도연결, 스포츠 경기, 문화교환 등은 모두 DJ와 김정일 간의 2000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략의 일부이며, 이 전략은 연방적 구조(한쪽이 내린 결정을 다른 쪽에 강제하지 않는)를 지향한다.⁸⁹⁾ 독일과는 대조적으로 한반도 통일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한반도는 일본과 미국 제국주의의 만행에 비극적으로, 부당하게 고통받았고, 1천년 이상 동안 작은 국가였던 한반도가 외국열강들의 경쟁으로 황폐화되고 분단됐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이다.⁹⁰⁾ 자기 지역의 거인인 독일과는 달리, 한반도는 고래들 사이의 새우로 남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인터넷을 이용해 NGO들은 보수적 정치인들에 반대해 동원했다. 2000년 1월 12일 412개 NGO들이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했다. 민주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간주된 후보 86명의 블랙리스트로 2000년 총선에서 86명 중에서 59명이 낙선했다. 성공으로 회원들은 확대됐고 NGO 네트워크는 폭넓게 성장했다. 한 연감은 2000년 4,023개 NGO를 집계했고, 지부들도 포함하면 2만개 이상이었다.⁹¹⁾ 한국 NGO들의 성공을 들은 일본 활동가들은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박원순이 나에게 설명한 것처럼, “수년간 군부독재에 맞선 투쟁으로 어떻게 일할지 아는 활동가들이 많이 생겨났다.”⁹²⁾

DJ는 모든 사람이 영어를 배우고 인터넷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한국을 격렬한 속도로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발달한 사회”가 되도록 했다. DJ의 IT 투자성과 가운데 하나는 과거 노동변호사이자 오랜 민주화 활동가였던 노무현이 그를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었다. 대선 직후 수많은 국내외 언론은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의 승리라고 선언했다.

88) The survey was conducted by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and released in June 2006.

89) Already diversity thrives in the reunification movement. In 2006, four coalitions were working for reunification: Unity Solidarity (통일연대), Korean Council for National Reconciliation (민화협—J’s coalition plus religious leaders), and People’s Confederation for Unification (범민련) as individuals. Interview with Paik Nak-chung, Seoul, July 3, 2006.

90) For discussion of this contrast, see Paik Nak-chung, “Habermas on National Unification in Germany and Korea,” *New Left Review* 219 (September/October 1996) 14-2.

91) Civic Organizations, Almanac 2000 (Seoul).

92) Interview with Park Won-soon, Seoul, July 31, 2003. Park’s Beautiful Foundation has established a series of thrift stores and fair trade items that he developed after learning about them in the United States.

영국의 <가디언>지는 보도했다. “자신의 스타일을 인터넷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최초의 지도자로 규정하는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남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선진적인 온라인 민주주의라는 주장을 제기할 것이다.” <뉴욕 타임스>는 언급했다. “사람들은 무엇이 남한을 보수주의에서 자유주의로, 장로정치에서 청년문화로, 완고한 친미주의에서 깊이있는 양면적 태도로 나아가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하게 될 것이지만, 많은 목격자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의 요소는 인터넷이었다.”

북한과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DJ의 햇볕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노무현은 DJ의 “국민의 정부”를 “참여정부”로 대체했다. 노무현과 함께, 1960년대 태어나 1980년대 활동한 다음 30대에 이른 386세대가 2002년 선거에서 권력을 잡았다. 선거 당시 26,000명의 시민 기자와 매일 100만건 이상의 온라인 독자를 가진 오마이뉴스는 수십개의 웹포털과 수천명의 네티즌이 그랬던 것처럼 주요한 역할을 했다. 노동자 조직의 대통령 후보가 놀랍게 별로 표를 받지 못했음에도, 많은 오랜 노동활동가들을 포괄한 민주노동당(DLP)은 2002년(겨우 결성된지 2년 후인)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한국 역사상 최초의 좌파정당이 됐다.

노무현이 보수적 상대를 격자 광범한 스펙트럼의 진보적 한국인들이 축하했다. 노무현은 아주 인기가 많아서 선거운동 동안 풀뿌리에서 팬클럽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가 성장했다. 선거운동은 한국이 공동주최한 2002년 월드컵의 대규모 평화적 응원집회를 이었다. 당시 수십만명의 붉은 악마 팬들이 붉은색 셔츠를 입었다(“레드 콤플렉스”에 대한 분명한 맹타였다). 한국은 새로 발견한 자유와 한반도의 안정에 아주 기뻐했고, 노무현의 선출로 많은 사람들의 꿈이 실현된 것같았다. 노무현은 민주적 자유를 확대하고 한미관계를 더욱 대등하게 만들겠다고 서약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가 심지어 나라를 통일시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노무현의 지지자들은 얼마나 빨리 실망했는가! 2003년 취임직후 노무현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방문했고, 정말 한국식으로 불필요하게 굽신거리면서 군대를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에 돌아와 5월 18일 연례 추모식에 참석하려고 망월동 묘지를 방문하려고 하자, 급진적 학생들이 정문을 막았고, 그는 옛 망월동 묘역을 통해 뒤로 돌아가야 했다. 나중에 전남대에서 수백명의 교수들에게 짧은 연설을 했고, 그 후에 청중들에게 질문을 받았다. 나는 우연히 거기에 있었는데, 첫 번째 질문자가 전에 노무현의 행렬과 대치했던 급진적 학생들 중의 한명이어서 놀라면서도 즐거웠다. 반정부 학생이 대통령 근처에 가기는커녕 테이저건으로 공격받는 미국에서 온 나는 한국 시민사회의 예의바른 직접성에 다소 감명을 받았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발언한 그 학생은 직접 문제의 핵심을 건드렸다. 왜 노무현은 미국이 제2의 한국전쟁 도발가능성에 대해 부시에 맞서지 못했는가? 왜 그는 먼저 국회논의를 거치지 않고 군대를 보내는 데 동의했는가? 어쨌든 질문자는 노무현이 한미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올려놓겠다고 약속하면서 출마했었다고 말했다. 노무현은 질문한 학생에게 감사를 표한 다음, 길게 두서없이 얘기했다. 그는 지구가 신이 창조한 우주의 중심이란 교회의 가르침을 위반했다가 고문을 피하기 위해 지동설에 관한 견해를 철회한 갈릴레오에 자신을 비유했다. 노무현은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한국경제는 붕괴할 것이라고 신랄하게 소리질렀다. 한국의 안경을 위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부시 앞에서 굽히고 군대를 이라크에 보내기로 동의하해야만 했다. 그는 미끄러운 언덕에 서 있었고, 그는 미끄러져서 자신의 행정부가 2020 국방개혁안을 승인하는 것을 지켜봤다. 이 계획은 연간 국방예산을 6.3퍼센트에서 9.9퍼센트로 증가시켜 하이테크 군대를 육성하고 군사적 “협력과 자주”를 이룩하는 것으로, 20개 이상의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지상군을 50만명으로 유지하고자 했다. 이 계획의 총비용 추정치는 6,600억 달러가 넘었다.

공정히 말해서 노무현은 정직하고 신사적인 **decent** 사람이었고, 수십년간 용감하게 노동자들을 변호한 자수성가한 변호사였고 자신을 에이브럼 링컨에 비유했다(버락 오바마가 똑같이 하기 오래전에). 비록 대통령으로서 많은 오해를 받았지만, 노무현은 많은 중요한 성과를 냈다. 그는 1948년 학살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두 번 사과했고, 과거 군사독재의 수많은 희생자들의 지위를 “민주화운동의 영웅”으로 공식적으로 바꿨다. 1975년 조작된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무고한 8명이 박정희에게 처형당했음을 발견하자 노무현은 가족들에게 사과했고 보상금을 지불했다. (가족들은 보상금으로 활동을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아래서 1인당 소득은 두 배가 됐고 다시 또 배로 늘었다. 그들은 자주적 노동조합을 합법화했고, 노사관계를 다루는 노사정체제를 마련했고, 광범위한 범위의 시위를 허용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서 주식시장의 가치는 183퍼센트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은 치솟았고, 1인당 소득은 목표치 20,0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빛나는 거시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통시민들의 경제적 상태는 악화됐다. 경제적 양극화가 증가하면서 한국은 여전히 20/80의 사회였다. 아래의 그래프는 최상위소득 20퍼센트와 최하위 20퍼센트 사이의 분리가 증가함을 보여준다. 국국민의 절반이 격렬하게 반대했음에도, 노무현은 미국과의 FTA를 승인하도록 박차를 가했다. 부의 분배가 너무나 심하게 왜곡되어서, 2006년 <한겨레>는 한국 인구의 1퍼센트가 거의 60퍼센트의 토지를 소유한다고 보도했다.⁹³⁾

7.75 8.22 8.36 8.4 8.41 8.68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도표 13.1] 한국인 최상위 20퍼센트와 최하위 20퍼센트의 소득비율

Source: National Statistics Office, as reported in Sonn Hochul, “Neoliberalism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3, no. 5, 87.

수년간 압도적으로 진보적인 정책과 노동변호사로서의 오랜 경력을 갖췄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자들을 심하게 탄압했다. 1987년 한국이 전두환 시대의 광야에서 나왔을 때 겨우 18.5퍼센트만 노조에 가입해 있었다. 2005년 수년간의 진보적 민간정부 이후에 노조 조직률은 10.3퍼센트로 하락했다.⁹⁴⁾ 2006년 3월 전국공무원노조는 불법으로 선언됐고, 거의 100명의 노조 조직가들이 중형의 선고로 복역하고 있었다. 한국최대의 철강산업체인 포스코에서 하청업자들이 노동자의 90퍼센트를 고용했고, 이는 노동조합이 협상하기 어렵게 만든 구조였다. 2006년 7월 1일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수십명이 체포되거나 구타로 부상당했다. 노동자 하중근이 경찰의 금속방패에 맞아 죽었다. 별도의 사건에서 가족들도 공격을 받아 한 부인이 유산했다. 파업이 시작된 지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에 63명의 노조원이 감옥에 갔고 200명이 부상당했고 1명이 사망했다.

잘못된 노동정책과 더불어 노무현은 마찬가지로 엄청난 다른 정치적 실수를 범했다. 다인 이전에 노무현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비록 진보적 지지층을 실망시켰지만, 보수적 반대파를 더욱 더 두려워했고, 그들은 반격을 조직했다.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파가 지배하는 국회에 의해 탄핵당했다. 그러나 수천명의 지지자들은 촛불집회에 모였고, 다음 달의 의회선거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기 위해 전국을 동원했다. 다시 한번 보수파에 맞서 인터넷을 이용한 NGO 그룹들은 106명의 대상후보 중에서 78명이 패배하도록 도왔다.⁹⁵⁾ 개표하자, 노무현의 우리당은 국회에서 **50퍼센트**를 약간 넘는 득표를 했고(299석

93) Hankyoreh, October 3, 2006.

94) “A Look at South Korean Society, 20 Years after Democracy,” Hankyoreh, June 8, 2007.

95) Hyuk-Rae Kim, “The Paradox of Social Governance in South Korea Reform Politics: Dilemmas and Challenges,” paper

가운데 152석), 이는 선거 6개월 전에 결성된 정당에게 놀라운 승리였다. 16년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의 집권당이 의회를 통제하게 됐다. 더욱이 극좌파 민노당도 10석(지역구에서 2석, 비례대표로 8석)을 얻었고, 급진적 학생단체 전대협의 간부였던 10명 이상도 의석을 차지했다.⁹⁶⁾

믿을 수 없게, 우리당의 절대 다수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의사도 없었고 그에 필요한 다수를 확보하지도 못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더 나은 기회는 결코 없었지만, 이 문제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상정조차 못했고, 이 근본적 실패로 민주적 권리에 대한 반격에 문을 열어줬다. 노무현 아래서 국보법은 급진 활동가들을 구속하는 데 계속 이용됐다. 수년간 “민주” 정부에 맞선 한총련 투쟁으로 학생 180명 이상이 경찰의 수배를 받아 더욱더 주변화된 단체의 지하 조직원으로 살아가야 했다.⁹⁷⁾ 경찰이 자의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서 수배자 대열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2003년 민노당 학생인 김용찬과 김정곤은 국보법 7조 위반으로 체포됐다. 이 건국대 학생들이 “이적” 활동에 참여했다는 증거의 일부로서, 정부는 맑스의 <자본>, 알튀세의 <맑스를 위하여>와 나의 책 <신좌파의 상상력: 1968년에 대한 전지구적 분석>의 소지 및 탐독이 제시됐다. 명백히 이 학생들은 그들이 써서 철거가 예정된 마을에 배포한 팜플렛에서 이 책들의 일부를 인용했다. 국보법에 굴복하고 부시에게 머리를 조아린 외에도 노무현은 중국의 압력을 수용해 노벨상 수상자 모임에 참석하려는 달라이 라마의 비자를 거부했다. 2006년 12월 대규모 FTA 반대투쟁 이후에 모든 한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조약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노무현은 한국경찰이 미래의 모든 FTA 반대시위를 금지하는 동안 방관했고, 따라서 민중의 집회자유의 권리를 폐기했다.

그가 임기를 마칠 무렵 지지율이 한 자리 수자였던 것이 놀라운 일인가? 노무현의 지도 아래 진보적 정부와 사회운동의 관계가 역전된 것도 주목할 만했다. 많은 진보적 활동가들을 정부에 포섭함으로써 노무현 행정부는 가두시위를 무력화했다. 전문화된 NGO들이 가두시위를 대체하면서 운동은 탈정치화됐다. 동시에 퇴임하기 전에 FTA 승인을 받으려는 완고한 시도로 전국의 거의 모든 진보세력에게 환멸을 줌으로써, 그는 많은 사람들은 열정적 노사모에서 떨어져 나가게 했다. 우리당은 중요한 세력으로서 소멸했고, 잔당들은 다른 당으로 통합됐다. 학생운동의 탈정치화는 1980년대 그가 성취한 것의 역설적 부산물이었다. 여기에 역사의 가장 *mundane* “법칙”도 보편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증거가 있다. 비록 찰스 킬리가 민주주의는 사회운동에 항상 좋은 것이라고 역설했지만, 한국의 경우 그 반대 역시 사실이었다.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의 집권기간은 전임자들에 비해 빛난다. 비록 그가 임기중 유별나게 인기가 없었지만, 퇴임 후 그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2008년 몇 달 동안 수천명이 그의 고향마을로 가서 그를 방문했다. 노무현의 동료인 전대통령들 중에서 전두환은 광주학살에서의 역할로 불명예를 당했고 불법자금을 반환하라는 법원명령을 어기로 수억달러를 몰래 빼돌리면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노태우도 거의 5억달러를 반환했지만 숨어서 살았다. 노무현의 직전 전임자였던 DJ와 YS도 자식들의 부패로 대중의 눈에 명예가 더럽혀졌다. YS의 아들은 뇌물혐의로 감옥에 갔고 DJ의 세 아들 모두 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퇴임 1년 후에도 노무현은 지지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2MB 정부

presented at the Eighth Pacific and Asia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PACKS), New Delhi, December 15-17, 2006.

96) Lee, *The Making of Minjung*, 302.

97) *Hard Journey*, 334 (see chap. 5 n. 68).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아래서 1인당 소득은 연이어 배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이 경제의 성적이 좋지 않다고 느꼈고 많은 사람들도 동의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자, 진보세력은 유의미한 대안이나 카르스마적 후보를 내는 데 실패했다. 비록 국민의 절반이 FTA에 반대했음에도, FTA에 반대하는 유력한 후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진보세력이 분열됐지만, 보수주의자들은 여러명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을 내세웠다. 경선과정을 거치면서 박근혜(박정희의 딸)는 전 서울시장 이명박(일본에서 태어났고 창업자 정주영 아래서 현대건설 사장 시절부터 불도저라고 알려진)에게 아슬아슬하게 밀려났다. 시장시절 이명박은 서울의 버스시스템을 현대화했고 이는 적지 않은 업적이었다. 또한 콘크리트로 오랫동안 덮혀있던 도심의 청계천을 복원했다. 이명박은 “747” 선거공약을 내세워 매년 성장을 7퍼센트로, 1인당 소득을 다시 한번 배가시켜 40,000달러로, 한국을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의 공약은 많은 유권자들을 현혹했고, 48.7퍼센트의 득표로 2007년 대선에서 승리했다. 처음으로 문자투표[???)가 허용됐음에도, 투표율은 사상 최저인 62.9퍼센트였고, 2002년의 70.1퍼센트보다 훨씬 낮았고, 1987년 89.2퍼센트, 1992년 81.9퍼센트, 1997년 80.7퍼센트보다는 훨씬 더 낮았다. 과거 선거에서 주요한 요소였던 지역편차는 또다시 명백했다. 하지만 핵심은 낮은 투표율이었다. 유권자의 31퍼센트 이하가 그를 선택한 가운데 이명박은 대통령이 됐다.

몇 달 뒤 국회의원선거에서 이명박의 한나라당은 299석 의회에서 153석의 명백한 다수를 획득했다. 우익의 총득표를 합하면, 200석 이상인 반면, 노무현의 우리당이 해체되고 나서 결성된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겨우 81석을 얻었고 민노당을 5석을 얻었다. (973,345표, 즉 5.6퍼센트 득표로 민노당의 5석은 전 선거의 절반이었다. NL 세력이 당을 장악했고, 처음에 당을 설립한 PD 계열은 분당해서, 북한과 거리를 두기 위해 새 정당 진보신당을 결성했다. 선거 몇주 전에 건설된 이 당은 2.94퍼센트를 얻었고, 비례대표 할당 의석의 기준선인 3퍼센트에 못 미쳤다.) 대통령 선거처럼 진짜 문제는 유권자의 무관심이었다. 2008년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기권했고, 등록유권자의 46퍼센트만이 투표하는 수고를 했다.⁹⁸⁾ 표 13.1을 보면 투표율 하락의 뚜렷한 패턴을 볼 수 있다.

[표 13.1] 국회의원 선거 투표 참여율

연도	참여율	비고
1988년	76 퍼센트	6월항쟁 직후
1992년	72 퍼센트	
1996년	64 퍼센트	
2000년	57 퍼센트	
2004년	60 퍼센트	노무현 탄핵 한달 후
2008년	46 퍼센트	37,795,035명 중에서 17,389,206명

선거참가율 하락경향은 정치에 대한 관심결여를 반영했고, 한국의 미국화를 나타내는 특징이다. 1987년의 격렬한 정치투쟁과 2004년 노무현 탄핵반대가 투표 참여율을 높였지만, 유권자의 무관심은 양대 정당이 FTA를 수용한 2008년 정치의 일상화에 대한 대응이었다. 보수주의자들이 투표를 지배하게 된 한가지 핵심적 이유는 노무현 정권 이후 주류정치에 대한 관심의 쇠퇴였다. 겨우 46퍼센트라는 역사상 최저 투표율에 반영된 대중의 탈정치화는 민주적 성과에 대한 뉴라이트의 반격에 문을 열어줬다.

98) Doh C. Shin, Mass Politics, 9; Balbina Hwang, “The Elections in South Korea: A Victory for the Electoral Process,” <http://www.heritage.org/research/asiaandthepacific/wm484.cfm>; Angus Reid Global Monitor, “Election Tracker South Korea,” <http://www.angus-reid.com/tracker/view/1472>.

이명박(2MB) 행정부는 시간의 낭비 없이 한국인들이 수십년의 격렬한 투쟁을 통해 쟁취한 진보적인 민주개혁의 시계를 되돌리는데 즉각 착수했다. 2008년 1월 취임 15일만에 경찰은 비정규직 노조의 농성시위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동시에 새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아래서 부패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구금된 재벌 지도자들을 석방했고, 비자가 만료된 이주 노동자들의 탄압을 강화했고, 정책 입안자들은 특수훈련을 받은 1700명의 전투경찰로 구성된 새 서울경찰부대의 구상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군정집자로 채워진 4만명의 경찰력을 보다 능률적인 부대로 대체할 계획을 발표했고, 여기에 14,000명의 정예부대를 추가할 계획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책은 2MB 정부의 다른 정책들처럼 불명예를 당한 전독재자 전두환(이명박의 친구)의 정책과 비슷했다. (이 경우 이명박의 계획은 전두환이 만든 백골단과 유사하다.)

조지 W. 부시 미국 전대통령의 열렬한 숭배자인 이명박은 대통령이 된지 몇 달도 안된 2008년 4월 29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부시를 방문했다. 부시의 골프카트를 타고 코스를 돈 다음, 그날 저녁 이명박은 한국의 5년간 미국소고기 수입금지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전세계 많은 곳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워싱턴 컨센서스의 모든 잔재를 일소했다고 제대로 이해되지만(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자본주의를 거의 파괴함으로써 “제2의 레닌”이라고 축하받았다), 이명박과 남한의 뉴라이트는 부시를 우호적으로 봤고, 미국과 세계경제에 재앙이었던 동일한 부시 시대의 정책을 모방했다. 풀뿌리 민중들이 한국이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 더 통찰력이 있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의 손쉬운 승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고기에 수문을 열어준 그의 결정은 몇 달 동안 이어진 촛불시위를 촉발했고, 그로 인해 나중에 그는 미국의 무제한적 수출 요구에 대한 굴복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정주부인 김숙이는 말했다 “그가 한 짓은 옛날 조선 왕들이 중국황제에게 공물을 바친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번 우리는 워싱턴에 공물을 바쳐야 하는가?”⁹⁹⁾

[사진] 2008년 대규모 촛불시위로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다시 해야 했다. 사진작가 미상

2008년 촛불시위

2008년 5월 2일 수백명의 10대 소녀들이 갑자기 서울 도심에서 새로 수입해제된 미국산 소고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온 나라(경찰과 운동권을 포함해)를 놀라게 했다. 문자메시지와 인터넷을 이용해 여고생들은 명확한 지도자 없이 스스로 조직했다. 여고생들은 정부가 시행한 새 정책, 특히 거의 아무런 제약없이 미국산 “미친소” 소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정책의 종식을 요구했다. 충분히 순박하게 TV 연예인의 인터넷 팬 사이트들이 이 동원을 조직하는데 도움을 준 포럼이 됐다. 일단 한국의 젊은이들이 움직이자, 그들은 사람들이 반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알게 됐다. 한 익명의 여고생이 아고라(유명한 온라인 포럼)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했다. 1주일 안에 130만건의 서명이 모였다. 이명박은 뇌도 없이 자신의 잘못된 의제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였고 첫 번째 촛불시위를 이끈 여고생들이 그를 “2MB”라고 부른 이후 별명은 정해졌다. 이 별명은 가장 느린 컴퓨터의 속도[메모리 용량]를 가리키는 것이자 대통령의 이니셜이기도 했고 수자 “2”를 의미하기도 한다.

마치 희박한 공기 중에서 나타난 것처럼, 시위의 현기증나는 큰 파도가 분출했다. 두달 이상 동안 매일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조직됐다. 6월 10일까지 1백만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거리에서 시위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사무실 급습, 컴퓨터 몰수 체포와 “주요” 인사의 출국금지

99) Choe Sang-hun, “Protests in Seoul Galvanize Koreans,” International Herald-Tribune, June 12, 2008, 4.

에도 불구하고, 촛불 시위는 8월 15일까지 계속됐고, 모두 100회가 열렸다.

1987년 6월항쟁 때처럼 민중들은 자연발생적으로 매일 서울시청 앞으로 돌아왔다. 급하게 결성된 NGO들의 연합이 집회의 조직화를 조정하기 위해 결성됐고,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 완전재개에 반대하는 국민대책위원회란 이름을 채택했다. 몇 주 안에 1,700개 이상의 시민단체들이 대책위를 승인했다.

NGO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시위대가 바로 의제를 설정하고 슬로건을 만들어내는 주체였다. 규모와 내용에서 집회는 더욱 커지고 더욱 전투적으로 됐다. 5월 말까지 사람들이 들고다닌 가장 인기있는 sign 은 2MB의 사임을 요구했다. 5월 31일 군중은 10만명으로 늘어났고(서울 경찰청 간부들은 그 수자의 절반이라 추산했다), 최소한 90개여개 도시에서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그날밤 8시 이후 서울에서 사람들은 청와대 방향으로 출발했다. 몇 달 집회 후 처음으로 전투경찰이 비무장 시위대에게 물대포와 소화기를 쏘고 최소한 165명을 체포했다. 다른 그룹이 다시 청와대로 행진하려고 하자 63명이 더 체포됐다. 새벽에 시위대는 청와대 입구에서 물대포 세례를 받았다. 양측에서 수십명의 부상이 보고됐다. 광주와 부산에서 약 1,000명의 대학생들이 집회에 참석하려고 서울에 도착했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했다.¹⁰⁰⁾

2008년 6월 10일 필자와 동료 활동가들이 촛불집회에서 발언했다. 사진작가: 최성욱

정부의 강화된 폭력에 대응해 사람들은 그 주말에 72시간 저항의 축제를 창조했다. 밴드가 연주하고 가족과 노동자 그룹들이 비슷한 복장을 했고, 학생들은 정확히 동작을 맞춰 춤췄다. 아무도 조직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 집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먹었다. 물총을 가진 어린이들이 우스개거리로 경찰버스를 공격하자, 젊은 전투경찰조차 미소를 지었다. 민중의 축제는 시위대를 가족들에게서 고립시키려는 정부의 시도를 성공적으로 막았다. 이명박 정부는 절규에 귀를 막았지만, 6월 10일 1백만명 이상이 동원됐다. 다음 주말 대통령의 내각 전체가 사퇴의사를 밝혔다.

미국과의 소고기 재협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거리로 몰려들었고, 동원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했고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행동을 조정했다. 경찰은 시위를 억제하려 애썼지만, 사람들의 분산된 에너지는 통제하기 어려웠다. 한 시점에 경찰버스를 길에서 끌어내기 위해 로프가 필요하자 누군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로프를 실시간으로 요청을 올렸다. 몇분 안에 많은 로프가 등장했고 버스는 옮겨졌다. 경찰이 화물 컨테이너를 바리케이드로 가져오자, 사람들은 깃발과 마이크를 들고 그 위로 올랐고, “자유로운” 한국의 사람들이 “지배적인” **domineering** 상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무대로 만들었다. “거리시위 2.0”과 “H세대”(Hyperspace)의 사이버 액티비즘을 통해 십대 소녀들은 전국민을 신속하게 동원했다. 노동조합원, 진보적 예비군, 카톨릭, 신교도와 불교도 모두가 행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대오가 거리로 나섰다. 시위를 생중계하는 수십명의 보통사람들이 하루밤 사이에 TV 유명인사가 됐다. 캠프코더와 인터넷 방송을 사용하는 “**Embedded**” 시민들은 주류언론보다 더 믿을만한 정보원이 됐다. 경찰이 한 서울대 여학생을 구타하자, 인터넷에 올라진 비디오 영상으로 몇몇 경찰간부가 해임됐다. 심지어 보수언론도 시민 기자들을 인용하기 시작했다. 웹사이트를 통해 대통령의 새 별명이 주류언론에 나오게 됐다.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 없는 시위들이 민중들을 직접 권력화했다. 한국의 “촛불”혁명을 보면 광주에서 등장했던 직접민주주의의 동일한 요소가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에로스 효과”가

100) Hankyoreh, June 2, 2008.

국가적 위기를 촉발하면서 비군사화된 공간에서 등장했다. 지도자 없는 집회의 특징은 모든 계층의 참여자들이 이용한 오픈 마이크(open-mics)였다. 집회 주요 조직가들의 규칙적 교대로 저명한 시민들의 중심적 집단의 숨막히는 통제보다는 수많은 다른 그룹들이 참여했다. 여중생에서 종교 지도자, 진보적 예비군, 유모차를 미는 엄마, 노동조합원까지 민중의 새로운 부문들이 참여하면서 시위에 동력을 제공했다. 자신의 박자에 맞춰 행진하는 사람들의 전술과 슬로건의 다양성은 놀라웠다. 아주 다양한 형태의 시위가 운동에서 내적 긴장과 차이를 드러냈다. 이런 차이는 약점을 반영한다기 보다 다양성에서 나왔고, 따라서 강점으로서 발전과 진보를 활성화시키킨 역동적인 내적 변증법이었다. 교수단체[노조]는 공통의 감정을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는 현상황이 1987년 6월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6월 11일 한겨레 신문의 사설은 이렇게 주장했다. “6월항쟁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점차 공허해졌다. 지금까지 우리는 직선제와 비밀투표 같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만족해 왔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런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보길 원한다. 다른 말로, 사람들은 대통령이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민중의 뜻을 무시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신문은 시위에서 불린 가장 유명한 노래가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지적하며 글을 맺었다.

6월 10일 경찰은 참여연대 사무실에 대한 새벽 급습을 감행했고, NGO가 수색당한 최초의 사례였다. 정부는 시위에 대해 참여연대를 비난하는 언론공세를 개시했지만, 주요 언론이 경찰의 조작을 되풀이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쟁이 수십년 간 가두시위로 단련된 베테랑이 아니라 십대 소녀들로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위가 시작된 후에 함께 일한 1,700개 이상의 시민단체들의 연합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줬지만, 시민 참여자들은 기존의 조직들에 대해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다. 한 참여연대 간부는 나에게 사람들이 자기네 대변인들에게 야유해서 무대에서 쫓아냈다고 말했다. 6월 29일 정부는 사람들에게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경찰이 무력을 사용해 집회를 해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이미 경찰이 6월 28일 고립된 그룹을 공격했고, 전투경찰은 53명을 체포하고 수백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보고했다. 심지어 시위대가 평화적으로 누워있는데도 전투경찰은 그들을 짓밟았고 방패로 구타했고 곤봉을 사용해 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었다.¹⁰¹⁾ 그날 밤 경찰과 시위대는 거리에서 맞붙어 싸웠다. 사람들은 경찰에게서 소방호스를 빼앗아 소화전에 연결했고 일시적으로 통제권을 장악했다. 몇주간의 축제같은 분위기가 폭력적으로 변하자, 수십명의 카톨릭 사제들이 6월 30일 거리에 모여 수만명과 함께 야외미사를 거행했다. 이날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왜냐면 분명히 종교집회였고 공개적 시위로 금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위는 8월 15일까지 계속됐지만, 정부가 평화적 시위대에 대해 점차 폭력을 사용하고 조직가로 식별된 수십명을 체포하자, 시위는 끝나게 된다. 7월 7일 경찰의 수배를 받던 6명의 조직가들이 조계사 내로 피신했다. 경찰의 대응은 절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을 정지시키는 것이었고,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고승의 차량도 포함돼서, 결국 20만명의 불교도들이 참여한 시위를 촉발했다.

통틀어 1백일 이상 동안 1,320명이 체포됐고 32명은 유죄판결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몇가지 단기적 변화도 일어났는데, 소고기 협정이 수정됐고 최고 관리들이 사임해야 했다. 2MB는 두 번이나 사과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계속할 것을 고집

101) “Protesters Trampled, Beaten by Police,” Hankyoreh, June 30, 2008. More than a year later, courts ruled the police had used excessive force and ordered minor compensation to the victims.

했기에 그의 진실성을 의심했다. 시위 과정에서 장기적 문제도 등장했는데, 광주 의 고등학생들이 교사들이 구타와 욕설을 계속한다면 동맹휴학을 하겠다고 위협했고, 전국적으로 학생들은 24시간 공부하면서 직면하는 압력과 그에 따른 청소년 놀이시간의 부정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수만명의 자동차 노동자들은 미국 소고기 수입과 직업관련 문제로 파업에 들어갔다. 가장 중요하게 여고생들이 세계에서 가장 유교적인 사회에서 영감을 주는 지도자가 됐다. 그들의 시위는 실망하고 낙담한 민중을 변화시켰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다. 정부가 경제위기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 시위대를 비난하려고 애쓰자, 모든 계층의 보통 한국인들에게 이 여학생들이 민중의 건강문제를 진심으로 생각한 반면, 2MB와 조지 W. 부시와 그들의 동료들이 세계를 재앙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졌다.

최초의 시위를 이끈 여학생들은 단지 말로만 하는 인정 이상의 것을 받을만하다. 나에게 그럴 권한이 있다면 그들의 모범을 통해 미래 세대들이 계속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바치는 기념비를 세우고 싶다. 2MB 행정부는 다른 찬사를 염두에 뒀는데,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범죄화와 탄압이었다. 이명박은 사람들의 시위에 너무나 화가 나서 가장 보수적인 지지자들과 어울렸다. 그들 사이에서 시위대와 싸우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우익연합이 결성됐다. 다른 조치로서 정부는 시위 때문에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NGO들에 대한 법률소송을 자극했고, 시위대가 서울광장(정부가 사용을 거부한) 사용허가를 결코 받지 않았기 때문에 NGO들이 쓰레기 청소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체포에 직면해서 단체가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공격을 받은 것은 참여연대만은 아니었고, 민주적 반대라는 바로 사상마저 공격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반격

노무현의 지도 아래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냉전시기 발생한 국가sanction의 수천만명 살해를 조사하는 데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 2MB 정부는 위원회를 주변화시켰고 권한과 조사기간을 제한했다. 최종 보고서는 반세기 전 미국과 이승만 정권에게 학살당한 수만명을 비난하기를 거부했다. 제주에 대해서 2MB 정부는 1948년 희생자의 일부가 사실 공산주의자였고, 따라서 민주화운동의 일부로 간주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오랜 상처를 다시 긁었다. 추가로 2MB는 일본 식민지배 동안 한국인 협력자들을 조사하는 공식위원회를 폐지했고 인권위원회의 예산을 삭감했다.

2008년 8월 정부는 2030년까지 11기의 핵발전소를 더 건설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했고,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대운하도 제안했다. 두 계획은 모두 생태적 악몽이라고 널리 간주됐다. 운하계획에 대해 대중시위로 이명박은 공개적으로 건설하지 않기로 약속한 이후에 그는 수정한 “4대강 계획”을 통해 프로젝트를 계속했다. 2MB의 첫 경제장관이 무능력으로 사임한 이후, 그의 후임은 더욱 강력하게 부자감세를 추진했고, 공공부문(교육과 보건의료를 포함한)을 민영화했고, 노동시장 “유연성”(즉 수당없는 파트타임 노동)을 확대했고 기업과 금융규제를 완화했다. “MB노믹스”(MB-nomics)는 신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했고 임시직 노동자에 대한 2년 제한을 확대하고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한 현재의 고용제한을 축소하려고 애썼다.

2MB 정부가 추진한 문제많은 정책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언론에 대한 공세보다 어지러운 것은 없었다. 2008년 7월 MBC 텔레비전 PD들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과장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소환됐고, 그들이 10달 넘게 출석을 거부하자 그들은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한명씩 체포됐다(결혼식을 준비하던 예비신부를 포함해).

8월에는 KBS 사장이 사임해야 했고 잠깐이지만 구속됐고, 이명박의 측근으로 대체됐다. 한국어 영어방송인 아리랑 TV 사장에 대통령의 친구가 지명됐다. 24시간 뉴스케이블 방송인 YTB의 사장도 바뀌었다. 노조 지도자들과 조합원들이 그의 출근을 막으려고 하자 경찰이 개입했다. 노조 지도자들은 되풀이해서 조사에 소환당했다. 비록 네 번이나 요구에 응했지만, 결국 체포됐다. 인터넷도 심하게 감시당했다. 7월 24일 구글 코리아는 경찰청장의 형제가 매춘을 허용하는 호텔을 경영하고 있음을 보여준 두 건의 영상을 삭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확인했다.¹⁰²⁾ 전지구적 위기에 대한 올바르게 보도했고 경제의 부실한 운영을 폭로해 정부를 당황케 했던 블로거인 미네르바는 추적당한 후 기소당했다(비록 나중에 혐의를 벗었지만). 2009년 5월초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위한 새로운 엄격한 제한을 실시한 이후, 인터넷 작가이자 시인인 양형구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됐다. 양형구는 연방제 통일모델과 주체사상을 옹호한 수십건을 포함해 수백건의 기사를 올렸었다.¹⁰³⁾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자유롭게 언론에 압력을 가했지만, 보통시민들이 그렇게 하면 그것은 명백히 범죄이다. 시민들의 보수적 신문(조중동) 보이코트는 불법으로 선언됐고, 이 단체의 인터넷 조직가들은 기소를 당했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도 여권을 압수당했다. 언론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너무 강력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시민들마저 범죄화했다. “뉴라이트” 이데올로그들은 기뻐했다. 미국의 네오콘을 모방한 그들은 민주화 운동이 한국의 진보에서 한 역할을 부정하도록 교과서를 새로 써 개정했다. 뉴라이트는 정부의 한국사 비디오 “개정판”을 만들어 교사들 사이에 널리 배포했고, 이 교과서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의 일부로서 광주항쟁에 대한 언급도 포함하지 않았다. 2MB의 뉴라이트 지지자들은 이미 “레드 콤플렉스”를 부활시키려는 보다 일반적인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1948년 제주항쟁 전체에 “공산주의” 딱지를 붙였다.

이명박의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 외에도, 2MB 정부가 언론을 공격하고 역사를 수정한 또다른 이유는 일본과의 새로운 긴밀한 관계를 은폐하는 것이다. 10년 동안 진보적 정부들은 이제 한국의 주요한 교역상대가 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2MB는 이 유산을 청산하고 한국을 일본에 더 가깝게 하려고 애썼고, 독재자 박정희와 전두환의 발걸음을 뒤따랐다. 일본에서 태어나 아키히로 즈키야마란 일본이름을 사용했던 2MB는 취임 첫해 평균 한 달에 한번 꼴로 일본총리를 개인적으로 만났다. 그는 일본인 친구들에 대한 사소한 항의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2008년 12월 10일 UN 보편적 인권선언 60주년에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적 시위를 하던 “위안부 여성”을 해사시키려 전투경찰 버스 6대를 보냈다. 비록 매주 1시간의 촛불집회가 1992년부터 진행됐음에도 정부는 아무도 집회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회가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더욱이 이제 경찰은 일본 대사관 300미터 이내서 시위를 할 수 없다고 우겼다.

2009년 1월 12일 일본 아소총리와 의 월례 정상회담에서 이명박은 일본 식민시대 동안 강제 노동에 대해 수백명의 조선성들에게 급여를 지불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일본기업 미츠비시 중공업을 2011년 남한의 위성발사 사업자로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미츠비시가 계약의 조건으로 기술이전을 거부했음에도, 이명박은 기술이전을 포함한 러시아 회사와의 계약을 변경하라고 개인적으로 명령했다. 이명박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을 벗어나기 위해 남한의 일본과의 경제적 강화”를 선호했다고 보도됐다.¹⁰⁴⁾ 중국이 지역의 새로운 경제발전소로 등장하고 일본이 10년 동안 경제침체에 빠져있던 시기에, 이명박은 어떻게 한국경제를 전진시킬

102) “NPA Orders Google to Remove Video from YouTube,” Hankyoreh,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300711.html.

103) “Police Arrest Another Internet Writer,” Hankyoreh,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355242.html.

104) Yomiuri Shimbun, January 13, 2009, as reported in Hankyoreh, accessed on January 15, 2009.

지에 관한 실마리를 발견하는 데 Inspector Cousto에 필적한다. 물론 일본에 대한 아침에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도 한국에서, “아시아인들 중에서 현대세계의 과제를 담당할 수 있는 우월한 단일민족”인 일본의 “복사판”을 본다.¹⁰⁵⁾ 북한에 대해 일본과 협력하는 것은 한국의 애국자에게 수치스런 행위이지만, 대통령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충성심을 의심케 했다.

2MB는 북한(개성공단 계약을 취소하고 핵개발을 가속화한)을 소외시켰을 뿐 아니라, 고위공직에 대한 축근의 완강한 강요로 보수파 내에서 심각한 분열을 일으켰다. 별명인 “불도저”에 걸맞게 2MB는 심지어 자신의 당내에서도 비판자들과 타협을 거부했다. 그 대신 그와 뉴라이트는 한국정치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인기없고 의심스런 정책들을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부쳤고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짓밟았다. 2009년 5월 20일 한승수 총리가 주재한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도심의 대규모 시위 허가를 중단하는 일방적 결정을 발표했고 경찰에 이제 불법이 된 공개집회를 하는 사람을 누구나 체포할 권한을 부여했다. 한총리의 말로, “정부는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파업과 폭력시위에 대처할 것이다.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시위문화의 후진성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⁰⁶⁾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2009년 원화의 가치는 달러대비 50퍼센트 이상 떨어졌고, 재벌의 해외판매에 도움이 됐지만, 많은 사람들에게겐 고통이었다. 북한에 대한 이명박의 강경정책으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관계가 악화됐고, 특히 당선되기전 북한을 실용주의적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었다. 공평한 정책 대신에 그는 지속적으로 일본과 힘을 합쳐 북한을 주변화하고 고립시켰고, 많은 한국인의 눈에는 민족이익의 수치스런 배신이었다. 사실, 주요 일본 신문에서 그가 독도는 일본의 일부라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지금은 아직 자신의 입장을 공개하기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보도됐다.

미국에서는 흔히 대통령들이 적대적 여론을 피하기 위해 전쟁을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대통령에 대한 광범한 반대에 부딪히자 이명박은 검사들에게 전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부패 혐의를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노무현의 부인이 한 기업에게서 소액의 돈을 받은 것이 공개적으로 밝혀지자, 노무현은 자발적인 수사관들과 만나서 공개적으로 재정상태를 논의했지만, 검사들은 주류 언론을 이용해 부인의 경솔함이 전임 대통령의 부패를 가리키는 것으로 묘사했다. 정부와 주류언론이 합세한 공격이 누그러지지 않자, 노무현은 5월 23일 이에 항의해 목숨을 끊었고, 한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전국적으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칭송하고 추모하려 했다. 그들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 보수적 정부의 정치인들은 그가 사망한 날 노무현의 작은 고향마을로 가던 수만명에게 합류하려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저지당했다. 그들은 참석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을 뿌렸고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결국 수치를 느끼며 떠났다. 야당 대변인 김유정은 노무현의 비극적 죽음을 보수정부의 잔인하고 모욕적인 공격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속에 품었던 생각을 표현했다. “국민과 역사는 무엇 Eoanss에 전임 대통령이 그렇게 비극적인 일을 했는지 안다.”

재임기간 동안 노무현은 자주 자신을 에이브럼 링컨과 비교했다(그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교육을 마쳤고 새로운 진보적 정책을 도입하려고 노력했다. 링컨의 목숨이 암살자의 총알에 빼앗긴 반면, 노무현의 비극적 운명은 악의적 보

105) Meredith Woo-Cumings, “Market Dependency in U.S.-East Asian Relations,” in What Is in a Rim? ed. Arif Dirlik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1998), 166, 184.

106) “Government Announces a Ban on Assemblies in Urban Centers,” Hankyoreh,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356066.html.

복에 연결돼 있었다. 한 보조관은 말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의 조사로 탈진한 것처럼 보였었다.”¹⁰⁷⁾ 이명박 정부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강하게 억누르면서, 경찰버스들이 서울 덕수궁의 노무현 분향소를 포위했다. 전투경찰은 분향소를 봉쇄한 버스저지선 개방을 거부했고, 수천명이 지하철 역에서부터 줄을 서서 분향하고 묵념해야 했다. 덕수궁에 거의 1천명의 경찰이 배치됐고,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 거의 8천명의 경찰이 파견됐다.¹⁰⁸⁾

2008년 남한의 자살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였다. 비록 노무현의 자살은 새로운 보수 정부의 프로그램과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노린 이명박의 추적 때문이었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2008년 5월 3일 전국화물운송노조(KCTWU) 광주지부장 박종태는 한진 광주지부(회사에서 최대 수자의 조합원이 있던)에서 78명의 배달기사들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데 항의해 자살했다. 정부는 민주노총 및 운송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했다. 박종태가 자살 후, 노동부 장관 이영희가 공개적으로 그의 자살을 조롱했고, 기자회견에서 노사분규가 목숨을 끊을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¹⁰⁹⁾ 정부는 시위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한 단체들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인 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노조 지도자들과 직접 대화하길 거부한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었다. 5월 6일 박종태 추모집회를 이끈 7명의 노조 지도자들에게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강경논선의 강화했다. 10일 후 15,000명의 조합원들이 박종태를 추모하고 해고된 배달기사들의 복직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던 대전의 시위에서 최소한 457명의 노동자들이 체포됐다. 운송노조 법률담당자에 의하면, 경찰은 해산하는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공격한 다음, 심지어 저녁을 먹거나 집에 가는 사람들까지 체포했다.¹¹⁰⁾

기층민중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경찰은 철거가 예정된 건물에서 자기 사업체를 점거한 용산시민들을 단호하게 공격했다. 2009년 1월 20일 전투경찰이 건물에 몰려들자 갑자기 불이 일어나면서 6명(경찰관 1명 포함)이 죽고 23명이 부상당했다. 수사관들이 비극의 원인을 조사할 때 경찰은 공격조의 일부로 용역을 이용한 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정부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불승인을 가리키는 여론조사를 조작하다가 걸렸다. 5개월 동안 정부는 유가족들을 포위했고,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신을 경찰관리에서 돌려받을 때까지 거의 1년을 기다려야만 했다.

용산의 비극은 북한과의 점증하는 긴장에 묻혔다. 2010년 3월 26일 남한 해군함정 천안함이 두 동강 나서 침몰했고, 해군 46명이 사망했다. 비록 남한과 미국이 신속하게 북한의 공격이라고 비난했지만, 이 사건은 남북한 사이의 논란중인 “북방 한계선”을 따라 10년 이상 동안의 벌어진 포격전의 일부였다. 1999년 교전에서 최소한 17명의 북한 해군이 목숨을 잃었고, 2002년에는 또다른 대치에서 남한군 6명과 북한군 13명이 사망했다. 2010년 3월 24일 오바마 대통령은 지속적인 미국의 압력을 부채질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천명하고 미군의 “준비태세”를 강화할 것을 명령했다. 2010년 7월 21일 미국과 남한 해군은 동해와 서해에서 대대적 힘을 과시하는 군사훈련을 수행했을 때, 미국무장관 클린턴은 북한이 국경에서 미해군 병력증강을 방해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107) “Former S. Korea President Roh Commits Suicide,” Hankyoreh,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356455.html.

108) “Police and Citizens Conflict over Roh’s Memorial,” Hankyoreh,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356813.html.

109) “Government’s Head-On Collision with Labor,” Hankyoreh,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editorial/355642.html.

110) “Excessive Use of Force by Police During KCTU and KCTWU Labor Rally,”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355443.html.

한류

진보적 대통령들의 햇볕정책 10년 동안 노동쟁의의 수자는 감소했고 활동가들도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한국문화가 갑자기 국제적으로 유명해졌다. 한류는 한국의 해안에서 펼쳐져 나갔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대부분에서 한국음악, TV프로와 영화가 국내 생산보다 더 많이 요청받게 됐다. 심지어 아프리카와 남북 아메리카의 일부에서도 한국 TV의 새 연속극을 열렬히 기다렸고, 극장은 놀랍게 강력한 인간관계가 드러나는 한국영화들을 상영했다. 전통적 민간네트워크의 부드러운 깊이와 미묘한 유교적 가치는 사적인 이득과 이윤을 “합리적으로” 극대화하려는 개인주의적 문화에 대한 대안을 갈구하는 세계에서 보편적인 호소력을 가진 인간중심적 가치체계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장기 20세기 동안 피로 물든 한국의 역사는 명백히 생존자들을 단련시켜 그들의 물질적, 문화적 기반을 재건하고 강화시켰다. 보다 최근의 한류 오래전에, 1970년대 북한의 주체물결은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활동가들 사이에서 열광을 끌어냈다. 검은표범당(BLP)은 김일성의 이론을 폭넓게 수용했고, 당원들에게 김일성의 사상, 특히 주체사상을 연구할 것을 요구했다. 1970년 매사추세츠주 캠프리지에서 주체라는 이름 조직이 등장했다. 이 그룹은 팬더당과 긴밀하게 협력했고 주체라는 이름을 신문을 발행했고, 캠프리지 최초의 식품협동조합을 시작했으며, 운동권 서점(“붉은 책”, 오늘날에는 무정부주의적 루시 파슨스 센터)을 지원했다.

한류의 엄청난 문화적 충격과 나란히, 광주와 6월 항쟁이 아시아 다른 지역의 민주봉기에 제공한 영감은 먼 바닷가에서 한국의 에너지가 일어나는 또다른 차원이다. 2003년 칸쿤과 2005년 홍콩에서 WTO에 반대하는 국제적 시위에서 두각을 나타낸 한국 농민들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한국민중의 전지구적 지도력의 사례이다. 4.19에서 5.16까지, 6월 대항쟁과 노동자대투쟁에서 전두환과 노태우의 구속 및 유죄판결까지, 한국민중의 자기희생은 20세기 후반의 위대한 성과 중의 하나이며, 아마도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뛰어넘을 것이다. 많은 논평가들이 벌써 한류의 쇠퇴를 선언하지만, 강력하게 창조적인 문화적 힘과 풀뿌리 정치동학은 아직도 그 경로가 끝나지 않았다.

현대의 미학적 형태(영화, TV와 음악)와 전통적 사회적 가치의 상호작용은 한류에 유쾌한 힘을 주는 내용이다. 연극배우 박정숙의 견해로 한류는 일종의 풀뿌리 외교, 국제관계의 소비자 주도적 민중 대 민중 형태로 작동한다.¹¹¹⁾ 국가 대 국가의 위계제나 엘리트 주도적 형태의 관계와는 달리, 한류의 정치적 잠재력은 민중활동가 경험의 다른 나라로의 확산을 포함한다. 동일한 순간에 한류는 한국산업이 과거에 건드리지 못한 시장과 영역으로 재벌의 확장에 대한 국제적 정당화의 도구로서 기능한다. 재벌이 한류의 문화적 생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지 못한다면, 오늘날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등지에서 한류가 누리는 국제적 인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직간접적으로 한국재벌은 한국문화의 새로운 인기에서 커다란 이윤을 창출해내고 있다.

냉전의 종식이 남한상품에 대한 중국과 베트남 시장의 개방을 위한 전제조건이었던 반면, 유교적 문화의 매력적 온순함은 한류 성공에 핵심이었다. 전통적 시민사회에 뿌리박은 행동 패턴 외에도, 한류 형성에 기여한 또다른 중요한 요소는 한국인들이 자신의 민주적 변혁을 쟁취한 경험에서 도출한 자신감이다. 정치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십년의 투쟁은 영화, 음악, TV에서 자기이해를 변혁시킬 민중의 역량에서 명백한 유산을 남겼다. 현대의 남한은 문화적 르네상스의 일부로서 골프와 피겨 스케이팅 스타를 생산하고 있다.

111) Presentation at Harvard University,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February 16, 2007.

광주의 지속적 중심성

1990년대 한류의 명성 가운데 많은 것이 민주화운동이 창출한 인간에게 돌려져야 하며, 그 정점은 광주봉기 동안 이렇었다. 수십년의 사회운동은 정치적 자유와 문화적 자신감을 건설했고, 그것이 없었다면 문화적 한류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실을 억압하려는 독재의 시도의 결과로서 광주봉기는 10년 이상 동안 문화적 저항을 활성화했다. 1987년 6월항쟁의 성고 이후에 민주적 공고화와 과거사 심파의 과정은 다시 한번 광주시민들이 주도했고, 항쟁희생자들을 위한 적절한 추모묘역의 건설로 이어졌다. 오랜 풀뿌리 투쟁 이후에 한국 국회는 1995년 광주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유자녀 장학금과 보상금으로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해 5.18 기념재단이 설립됐다. 제주에서도 지방정부는 1948년 학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광주와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유사한 투쟁을 성공으로 이끌었다.¹¹²⁾

단지 열사추모비를 세우는 데 만족하지 않은 광주의 활동가들은 국제적 정의를 위해 싸웠고, 남한 운동은 아시아 전역에서 반란의 모델이 됐다.¹¹³⁾ 1993년 광주사람들은 5우러봉기에 관한 5회 이상의 국제회의를 조직했고, 5.18 기념재단은 국제연대 프로그램을 건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했다. 전선의 활동가를 위한 인권상, 국제평화포럼과 포크스쿨 등의 연례행사는 광주의 역사를 배우고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고 공유하려는 수백명의 활동가들을 광주로 이끌었다. 게다가 NGO 지원금은 스리랑카에서 실종자의 날을 포함해 아시아 전역에서 프로젝트를 용이하게 했다.^k 1997년 광주시민연대는 항쟁 동안 주재했던 외국특파원들의 재회를 조직했고, 그들의 경험에 기초한 책이 출판됐다.¹¹⁴⁾

광주의 활동가들은 새로운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 동티모르, 캄보디아, 타일랜드에서 평화캠프를 열었다. 그들은 타일랜드, 한국,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에서 봉기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을 한데 모았다. 그들은 네팔, 버마, 필리핀, 부탄, 중국, 타이완, 베트남, 말레이시아, 파키스탄과 아시아의 다른 지역의 활동가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운동발전의 유사하거나 상이한 패턴을 탐색하는 회의를 열었다. 1998년 보편적 인권선언 50주년에 그들은 200개 이상의 NGO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홍콩, 인디아, 네팔, 한국 등에 4년 넘게 가진 모임에서 작성된 아시아 인권헌장을 선포했다. 헌장이 발표되자, 회의는 “광주학살과 이 사건에 대한 한국인과 광주민중의 대응이 아시아 인권운동의 발전에서 이정표이며... 전체적 경험으로 수많은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는 데에 동의했다.

스리랑카에서 수만명의 실종자 중 일부의 부모들이 광주를 방문한 이후 그들은 광주활동가들의 도움으로 1999년 라돌루가마 (세두와) 콜롬보에 실종자 기념비를 건립했다. “그들은 한국에서 영감을 주는 가족들의 경험에서 힘을 얻었다. 그들은 광주의 기념묘지와 옛 망월동묘역에 갔다. 이 경험은 실종자를 위한 기념비로 이어졌다.”¹¹⁵⁾ 광주의 영감은 지역 전체로 퍼졌다. 타일랜드의 1992년 5월 영웅 친족위원회(1992년 봉기 사망자들의) 회원이 안야-로른 키유보릴본은 1996년 광주를 방문했고, “한국민중의 단결된 운동은 우리가 따라야할 모델”이라고 말했다. 2004년 5월 18일 전국민주동맹(NLD) 중앙위원인 원켓은 아웅산수키를 대신해 광주인권상을 받았다. 그는 버마운동에 대한 광주의 영향을 요약했다. “우리는 한국민주

112) See Ko Chang-hoon, “The U.S.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the Jeju April Third Uprising and Massacre: An Islander’s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Jeju Sasam Uprising and East Asian Peace: International Legal Issues and Human Rights in Twenty-First-Century Korea, Harvard University, April 25, 2003; see also Na Kahn-chaе, “The Revival Movement of the Two Uprisings in Korea: Jeju and Gwangju,” 2006.

113) For analysis of the long struggle of the May Movement, see Na Kahn-chaе, “A New Perspective.”

114) Scott-Stokes and Lee Jai-eui, The Kwangju Uprising.

115) Sanjeewa Liyanage, “Memory, Missing People and Hope for Peace in Sri Lanka,”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Anniversary of the Gwangju Uprising: Historical Memory and Cultural Representation, May 15-7, 2003, 117.

주위의 초석인 광주민주화운동을 아주 높이 평가하며, 광주가 버마에서 평등과 자결에 기초한 진정한 민주적 연방의 제도화를 위한 모든 투사들에게 롤모델이라고 확고하게 믿는다.” 009년 네팔총리 마다브 네팔은 나에게 네팔봉기 이전에 그가 광주를 방문했고 “민중의 영웅적 투쟁에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¹¹⁶⁾

광주봉기에서 반세계화 시위까지 한국은 이제 전세계 민중에게 영감을 제공한다. 1999년 시애틀의 WTO 반대시위 동안 거리의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것처럼 활기찬 한국 참가자들은 모범을 제시했다. 2003년 칸쿤의 WTO 각료회의에서 한국인들의 단결과 이경해의 자살은 남북 아메리카의 토착 민중들 사이에서 전설이 됐다. 칸쿤 회의장소에서 경찰 바리케이드가 수천명 시위대의 접근을 봉쇄하자, 수십명의 한국 농민들은 연좌했고 거리에서 공동체적으로 새끼를 째다. 농촌에서 자라면서 한국 농민들은 어릴 때 바로 그런 로프로 줄다리기 시합을 포함한 연례 마을 축제를 위해 새끼꼬기를 배웠다. 참을성있게 노래 부르면서 로프를 만든 농민들은 바리케이드 둘레를 고리로 땀고 모든 사람의 도움과 격려로 경찰의 방해를 밀어낼 수 있었다. 여기에 어떻게 전통적 시민사회가 동원의 수단을 제공하는지의 구체적 사례가 있었다.

2005년 12월 13일 홍콩의 WTO 회의에서 수십명의 한국 농민들은 뱀춤을 추다가 오렌지색 구멍조끼를 입고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어 컨벤션 센터에서 항의하기 위해 경찰 바리케이드를 우회하여 헤엄쳤다. 그런 행동을 통해 한국운동은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단결한 민중운동의 힘에 대해, 그리고 다중이 어떻게 거대한 승리를 쟁취할수 있는지를 교육시키는데 기여했다. 창조적이고 용감한 행동을 수행한 한국활동가들의 역량은 경찰이 자신을 지배 하길 거부하는 수천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다. 미래에 한국인들은 국제적 운동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과 해방의 변증법

남한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위대한 역사적 자원 중의 하나다. 시민사회의 풍부한 태피스트리는 일상적 관계에서 중소규모 동원을 포함하며, 인간관계의 가치는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상호존중에서 어디든지 존재한다. 그러나 현대 한국의 음과 양에서 군부독재를 타도하고 수십년간 거부당한 자유를 쟁취하는 힘이었던 그 동일한 사회성은 동시에 자유로운 개인을 속박하고, 특히 여성해방에 대해 방해가 되기도 한다. 가부장제적 유교의 구조는 행동패턴과 삶의 기회를 엄격하게 규정한다. 위계제[서열제]는 한국의 언어와 관습에 뿌리박혀 있다. 친한 남자들은 흔히 서로에게 형님과 아우님으로 접근하며, 사람들은 학우나 작업장 동료들 나이에 따라 “선배”나 “후배”로 부른다. 이런 호칭과 동사의 어형변화, 뿐만 아니라 복잡한 의식과 관례를 매개로, 수직으로 구조화된 관계가 오직 내부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예절의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뿌리깊은 위계제는 편안함과 가족의 보살핌을 주기 때문에 그들은 점차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냉혹한 현금거래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한다. 흔히 낯선 사람들이 서로 아저씨나 언니라고 부르면서 보여주는 친절함은 위계제를 용인하기 훨씬 쉽게 하면서도 동시에 도전하기 더 어렵게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시위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임과 동시에 혁명저거 의식의 발전에 제동장치이며, 집단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뿌리깊은 패턴과의 결정적 단절의 장애물이기도 하다.

116) Interview with Madhav Kumar Nepal, Kathmandu, April 12, 2009.

분명히 서구의 경쟁적 행동의 고립적 개인주의에 비해 커다란 기대를 주는 공동체적 형태이지만, 그것은 또한 개인을 사회적 네트워크의 고정된 위치에 한정하는 수다이기도 하다. 가부장제 권력은 여성을 체계적으로 학대하는 이런 구조 내에 아주 뿌리깊게 존재한다. 2009년 언론을 통제하던 섹스중독자에게 이용당하고 고문당한 여배우 장자연의 자살이 그 결과였다. 사회운동도 동일한 문제에 감염돼 있다. 장자연이 자살한 같은 달에 앞에서 언급한 민주노총 내부의 성희롱 스캔들로 모든 전국 지도자들이 사퇴해야 했다. 비록 노동계급이 거대한 새총과 화염병 등의 무기를 이용해 정리하고 맞서 싸운 쌍용자동차의 77일 공장점거처럼 세계의 다른 지역을 넘어 전투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음에도, 노동조합운동은 내적 동학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많은 소속조합들이 민주노총과의 연계를 단절하고 있다.

대안운동

1980년대 후반 시민운동이 확산하면서 많은 활동가들이 느슨하게 “대안운동”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했다. 비록 운동의 주요한 에너지가 정치권력의 변화를 지향함에도, 대안운동은 일상생활을 변혁하려고 노력했다. 더 많은 자유를 위한 한국인들의 투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계적 관계와 이윤지향적 제도들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IMF 위기 동안 신자유주의의 악영향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의도적 공동체를 시작했다. 두레 같은 전통적 형태의 공동체적 노력의 뿌리로부터 도출한 협동적 농업공동체들이 공동체 육아시설이나 노동자들의 유휴 생산 시설 접수(기업소유자가 이윤이 나지 않는다고 간주한)와 나란히 생겨났다. 특히 빈민지역에서 자결권 증대에 대한 활동가들의 열망은 지역주민들의 생존상 필요와 맞아 떨어졌다.

2009년 나는 광주에서 1시간 거리인 운산[구름산]마을을 방문했다. 그곳에는 수년간 격렬한 노동투쟁에 지친 노조 활동가들이 2000년 전라남도의 거의 버려진 마을로 이사왔다. 순천의 비슷한 네트워크의 영향을 받아, 힘든 생활을 하던 사람을 포함해 전남의 약 80가구가 합류했다. 그들은 유기농 두부와 고추장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7개 대가족이 참여해 협동조합을 세우자 더 많은 사람들이 비위계적 공동체 생산노력에 참여했고, 수익의 2퍼센트는 마을에 돌아간다.¹¹⁷⁾ 협동조합과 더불어 이 마을은 축제가 열리는 안전지역이 됐고, 노동 활동가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활력을 회복하는 곳이 됐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1894년 농민반란(동학봉기)의 풍부한 모병원이었고, 운산마을의 핵심 조직가들에게 미래에 “새로운 의병”의 전제조건을 창출할 희망을 표현했다.

경쟁을 강조하고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노동자 생산을 지향하는 기존 교육제도와 대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유학교들이 전국적으로 생겨났다. 최소한 30곳에서 노동채권에서 물물교환 쿠폰까지 이르는 대안적 형태의 화폐가 사용되기 시작했다.¹¹⁸⁾ 대안적 경제제도가 동력을 얻기 시작하자, “아름다운 가게”(재활용 의류와 가재도구 상점)의 네트워크가 직업을 제공하고 비슷한 성향의 프로젝트 지원자들의 모집을 돕는다. 네팔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수입하는 아름다운 가게는 한국에서 대안적 교역운동을 자극했다. 2008년 250만 달러의 이윤은 빈민의 의료와 주거지원, 노인과 어린이의 특별한 보살핌을 위해 사용됐다.

고속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지역 및 전국적 수준에서 대안 미디어가 등장했고, 많은 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언론에서 일어났다. 2000년 해고 언론인이 세운 온라인 대안신문 오마이뉴스는 보도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 “모든 시민이 기자”라는 슬로건으로 오마이뉴스는 “뉴스 게릴라”(시민기자)를 창출했고, 그 영향은 곧 주류언론에 영감을 줬다. 시민기자 섹션

117) Interview with Yoon Young-min, Cloud Mountain Village, November 2, 2009.

118) 윤수중, 대안운동의 현황과 방향, (사회 이론, 2007 가을/겨울).

이 유행했다. 민중의 지원으로 인터넷에 기반한 대안언론의 두 번의 중요한 승리 이후에도 계속 효과적으로 활동했다. 2002년 명백히 고립된 네티즌의 포스팅으로 미군의 미션과 효순 살해에 항의하는 촛불집회가 6개월 이상 계속됐고,¹¹⁹⁾ 또 네티즌들은 노무현이 당선을 도왔다. 이런 발전 이후에 수백개의 지역기반 신문가 수십개의 라디오 방송국들이 G8과 IMF가 운영하는 전지구적 시스템을 의식적으로 변혁하려는 대안 미디어의 일부로서 등장했다.

이윤과 수동성, 경쟁의 주류적 논리imperative 외부에서 일상적 삶을 추구함으로써 대안운동은 최상의 경우인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라틴아메리카의 시도와 유사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정부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기성권력에 대항하는 대안운동은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수많은 노력은 쉽게 포섭되고 남성지배와 위계제의 패턴이 남아있지만, 다른 시도들은 삶을 긍정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활동가들의 중요한 필요를 유지할 수 있다.¹²⁰⁾

자유의 대가를 발견하며/자유의 비용 찾기

2008년 후반 미국주도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의 붕괴위기는 전세계적 불황을 야기했고, 그 이후 미국의 헤게모니는 20세기에 미국이 획득한 패권을 결코 다시 누리지 못할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호황과 폭발의 본질적 필요성, 질병과 고통의 다양성 등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은 점점 더 분명해졌고, 체제변화의 필요성도 분명해졌다. 세계체제의 비합리성은 은행의 정책으로 세계의 빈곤이 증가하는 시점에 은행가들이 챙기는 엄청난 보너스에서 명백하다.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UN의 밀레니엄 개발계획의 보고서는 10억명이 굶주릴 것이고 20억명이 영양실조에 걸릴 것이고, 또 2008년 식량가격 상승 때문에 1천만명이 “극단적 빈곤”에 내몰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술과 추진력으로 은행가들이 보너스로 수십억 달러를 받는 반면, 수억명은 기아에 직면했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수십억 달러의 연례 보조금으로 국내 농기업을 보호할 것을 계속 주장하며, 이 보조금은 부유한 기업들이 가난한 나라의 농민들을 몰아낸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아가 체제의 주변에서 증가하는 반면, 중심에서는 이윤이 발생한다. 이것은 주변에서 중심으로, 즉 세계의 가난한 사람에게서 부자들에게로 돈의 체계적 분배의 한 차원일 뿐이다. “5초마다 한명의 어린이가 굶어서 죽고, 굶주림과 가난으로 매일 25,000명이 죽는다”고 보고하는데 그것이 놀라운 일인가? 만약 촛불시위에 나선 한국 여학생들처럼 젊음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영감을 줄만큼 우리에게 충분한 윤이 없다면, 그런 통계는 무리를 무능력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구조적인 것이다. 우리는 거대기업의 이윤필요가 아니라 보통사람들의 간단한 필요가 과학, 정치, 특히 경제에 중심적으로 중요한 구조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신선한 음식, 지역에서 키운 로컬푸드(그래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정부, 경제를 자극하는 정책의 일부로서 전쟁(또는 항상적전쟁준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정부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 협력을 필요로 하며, 해방광주나 2008년 촛불시위 동안 실현된 것같은 똑같은 종류의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우리에게 기업의 불량식품 배달, 끝없는 전쟁과 체계적 기아를 우리에게 제공하며, 2MB나 조지 W. 부시 같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을 제공하지만, 이는 단순무지한 자들이 일상적으로 지도력의 고위직에 올라가는 훌륭한 사례이다. 서울에서 첫 시위를 이끈

119) When it was later revealed that the “lone” netizen had worked for OhmyNews, many people criticized the lack of transparency.

120) See Park Ju-hee’s doctoral work in sociology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주민주도형 농촌 마을 만들기에서 여성 참여에 대한 연구—전라남도 마을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박주희(전남대 사회학과 박사수료).

수백명의 여중고생들은 이런 민주주의의 딜레마를 드러냈다. 그들은 선출직이든 아니든 자기 나라 엘리트보아 우월한 “집단지성”을 체현했다. 선출된 관리들의 공적을 통해 자신의 결의를 밀어붙이기보다 주요한 문제에 대한 협의를 추구함으로써 이 소녀들은 시민들의 직접적 의사결정을 민주주의가 의미하는 바의 중심에 두려고 노력하는 전세계적 풀뿌리운동의 일부였다.

20세기가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은 한국 학생들이 무관심하다고 불평했지만, 촛불시위의 갑작스런 분출과 함께 수십명의 보통사람들은 하루밤 사이에 베테랑 활동가로 변했다. 그들은 시위를 틀에 가두려는 오래된 활동가들과 거리를 뒀다. 새로운 활동가들은 계급적 기반이 없어서 보이지도 않는 일시적 존재라고 비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이익을 위해 동원했다. 모든 자율적 운동처럼, 그들은 정당들로부터 독립적이었고 어떤 중앙조직에 가입하길 거부함으로써 소중한 자율성을 지켰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그들의 노마드적 성격은 그들이 화석화를 피하게 인도한 미덕인가? 아니면 그들이 기성권력에 보다 손쉽게 포섭되도록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아무리 탐욕스럽더라도 단지 대통령 한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유를 인간의 필요보다 우선시하는 자본주의적 세계체제라고 이해한다.

유럽의 자율주의 운동처럼, 단일이슈 시위로 시위로 시작된 것이 보다 일반화된 체제비판을 만들어냈다. 보다 일반적으로 신좌파처럼, 이 운동은 정치권력을 장악하지 않고, 수백만명이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수단을 생산하는 데 기여한 문화적 변화를 주도했다. 전투적 대치의 사소한 사건을 제외하면, 가두투쟁은 전투적으로 도구적이라기보다 대개 축제적이고 표현적이었다.

유럽의 자율주의 운동과 대조적으로 한국의 축제같은 분위기는 가족들의 참여로, 특히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온 엄마와 부모를 데리고 나온 10대들에게서 조성됐다.

수십년의 투쟁으로부터 한국운동의 결정화는 왜 촛불시위가 그렇게 빨리 성장했는지 설명한다. 한국의 촛불시위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상상력에 관한 것이었다. 전술로서 촛불시위는 1976년 DJ, 오충일 등이 독재에 맞서 촛불을 들면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햇불을 든 1894년의 농민들에서 광주의 햇불행진까지 불은 운동을 자극하는 지속적 수단이었다. 촛불시위는 1987년 6월항쟁 동안 서울(6월 15일)과 부산(8월 17일)에서 등장했고, 수주간 지속된 호선과 미순 촛불집회나 핵폐기장 계획을 무산시킨 부안의 183일 촛불투쟁에서 중심적 표현수단이었다. 2004년 수만명의 사람들은 노무현 탄핵에 항의해서 촛불을 들었고, 2년 이상의 평택촛불은 새로운 미군기지에 반대했다. 축제적 외향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시위는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민중운동의 반대를 재점화했다(시민운동의 개량주의를 재생산하기보다). 촛불시위는 유전자 조작, 산업적 식량, 호르몬, 상출제와 다른 모든 현대 테크놀로지의 “기적”이 만든 오염과 대조적으로 인간의 순수성을 포괄한다. 사이보그와 마키아벨리적 권력게임 아니라 에로스 와 인간의 마음이 촛불의 핵심에 있다.

이 책에서 논의한 한국의 장기 20세기의 봉기들을 보면, 한가지 반복되듯 주제가 분명해진다. 기존의 엘리트층을 훨씬 뛰어넘는 보통사람들의 집단지성. 이씨왕조와 일본인 보호자에 맞선 1894년 반란에서 이명박과 미국에 대한 그의 연계에 도전한 10대 소녀들까지, 수십만명의 보통시민들은 자신의 마음 속으로 희생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목적을 위해 목숨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썼다.

피로 물든 한국의 장기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산물의 하나는 민중 자신의 힘, 역사의 주체이자 대안으로서 자신에 대한 직관적 이해, 재활성화된 상상력에 대한 민중의 믿음이다. 민

중의 집단적 투쟁역량은 과거 투쟁의 유산으로서 두드러진다. 그들은 엄청나고 힘든 승리를 거뒀고, 다음 세대들은 교훈을 흡수했고 자유의 정신을 마음 속에 간직한다. 그들은 이미 생명의 별다른 손실 없이 군대를 권력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노동조합을 쟁취했고 여고생을 지도자를 상승시킨 문화적 변혁을 시작했다. 많은 것은 두고봐야 하지만, 유교적 시민사회의 친절함gentleness은 이런 이행을 원활하게 했다. 1980년대 엘살바도르나 1990년대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의 야만성과 비교해보면, 남한은 훨씬 더 잘 대처한 것 같다. 1990년 자발적인 금기부 운동이나 2008년 태안반도 근처에서 석유가 유출된 후 살을 에이는 추위에도 기름을 닦아내며 해안을 청소한 수십만명에게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한국인의 단결은 계속 놀라움과 교훈을 준다. 2009년 그동안 노동자와 경영진 사이에 일어난 모든 대치에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스>는 현장의 공동체적 예절을 “남한 경제의 가장 강력한 자산 중의 하나”라고 불렀다.¹²¹⁾

19세기와는 달리, 오늘날 역사는 단선적이지 않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된다. 어제의 진보가 내일의 진보를 보증하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후퇴할 수도 있다. 바이마르 민주주의 시기에 히틀러가 등장한 것을 보라. 보다 최근의 사례를 들면, 필리핀 민중은 1992년 미군을 자기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몰아냈지만, 오늘날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 낭비적 군사주의의 근거로서 냉전을 대체하면서 미군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왔다. 오늘날 남한의 민주주의와 번영을 미래세대가 계속 향유할 것이란 보장도 없다. 만약 사람들이 평화보다 “국가안보”에 더 관심을 갖는 정부관리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많은 부의 몫을 추구하는 부자들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자유는 위축될 것이고 번영은 사라질 것이다.

완전한 해방 이전에 운동의 사망 때문에 한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두가지 모순된 명제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1. 수백만 시민들의 삶은 한국의 사회운동에 의해 뚜렷하게 향상됐다.
2. 모든 형태의 반란을 흡수하고 예봉을 피하는 기존 세계체제의 역량은 가장 중요한 힘 중의 하나이다. 미국과 프랑스 혁명, 러시아혁명, 프랑스의 1968년 봉기, 10세기말 아시아 민주화운동의 물결은 모두 세계체제 합리화의 도구가 됐고, 시장의 확대와 더 많은 자원의 통제를 위한 수단이 됐다.

합리적 체제의 창출은 여전히 진행중인 작업이다. 우리가 지구의 운명을 한 무리의 기업경영진과 그들의 정치인 친구들이 결정할 것인지 여부가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이다. 반격이 현실이지만, 장기 20세기 동안 쟁취한 수많은 자유도 그렇다. 1894년 농민전쟁이 발발하자, 스스로 “근대화론자”라고 생각한 권력에 굽주린 한국인들은 일본과 협력했고, 조선에 파괴적 결과를 가져왔다. 1945년 일본패전 이후 이 동일한 사람들은 충성의 대상을 미국으로 바꿨고, 미국주도 축적체제 아래서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 세기가 더 지나서 일군의 협력자들은 여전히 권력의 지위에 앉아 있지만(특히 주요언론을 통제하면서), 보통 한국인들은 훨씬 더 잘살게 됐다. 번영은 남쪽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했고, 탄압은 일본지배나 군부독재 시대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다. 비록 외국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전지구적 경제권력이 한국을 미래를 대부분 통제하고 있음에도, 정치권력은 대체로 토착 한국인들의 손에 있다. 자신의 의지를 도원할 수 있으면 한국인들은 21세기에 결국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한국인들은 우리 모두를 위엄있게 만들 것이다. 미국 시민권 운동의 우아함과 희생이 사회전체를 고양시켰던 것처럼, 피로 물든 장기 20세기 동안 한국인들의 존엄을 위한 투쟁은 세계를 보다 인간적인 참여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121) Choe Sang-hun, “South Koreans Band Together to Save, and Create, Jobs,” New York Times, April 1, 2009.

[번역] 조지 카치아피카스,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1권

조지 카치아피카스, George Katsiaficas,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 Asia's Unknown Uprisings,
1권: 20세기 남한의 사회운동 Volume1: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in the 20th Century

부록

시민 활동가들과의 면담

이재원 1999년 11월 22일
백낙청 1999년 11월 27일
전용호 1999년 11월 27일
서유진 1999년 11월 27일
박병기 1999년 11월 29일
나간채 2000년 5월 19일
윤수종 2001년 3월 11일
정근식 2001년 3월 12일
윤영규 2001년 3월 1일 / 4월 10일
나일성 2000년 3월 15일
이재의 2000년 3월 17일
정근식 2000년 3월 18일
김우곤 2001년 3월 21일
김동춘 2001년 4월 1일
고창훈 2001년 4월 2일
김상집 2001년 4월 6일
서채원 2001년 4월 6일
위성삼 2001년 4월 13일
양승희 2001년 4월 13일
김상윤 2001년 4월 15일
최완욱 2001년 4월 16일
김준봉 2001년 4월 18일
김기광 2001년 4월 19일
양동남 2001년 4월 20일
강신석 2001년 4월 22일
정해직 2001년 4월 23일
김대성 2001년 4월 24일
오경민 2001년 4월 25일
나일성 2001년 5월 7일
정향자 2001년 5월 9일
이 강 2001년 5월 9일
박남선 2001년 5월 11일
박행삼 2001년 5월

김영집 May 2001년 5월
 홍영기 (여수) May 23, 2001년 5월 23일
 김광수 May 24, 2001년 5월 24일
 이광영 May 28, 2001년 5월 28일
 고희석 May 30, 2001년 5월 30일
 김하기 (김영) May 30, 2001년 5월 30일
 이진결 May 31, 2001년 5월 31일
 송기인 May 31, 2001년 5월 31일
 정관민 May 31, 2001년 5월 31일
 김재규 May 31, 2001년 5월 31일
 김정호 May 31, 2001년 5월 31일
 선만호 June 1, 2001년 월 일
 임종석 (서울) June 4, 2001년 6월 4일
 강혁기 2001년 6월 4일
 윤병삼 2001년 6월4 일
 우상호 2001년 6월 5일
 박형규 2001년 6월 5일
 곽탁성 2001년 6월 6일
 김동춘 2001년 6월 7일
 황인성 2001년 6월 7일
 한상진 2001년 6월 7일
 심 구 2001년 6월 10일
 김 결 2001년 6월 14일
 김선문 2001년 6월 15일
 이광영 2001년 6월 21일
 이양현 2001년 6월 22일
 윤석동 2001년 9월 26일
 윤강욱 2001년 10월 3일
 구성주 2001년 10월 3일
 허규정 2001년 10월 12일
 이성숙 (목포) 2001년 10월 15일
 정상용 2001년 10월 17일
 이성진 2001년 10월 19일
 서경원 2001년 10월 20일
 양인화 2001년 10월 24일
 김창길 2001년 10월 25일
 정현애 2001년 10월 28일
 윤한봉 2001년 10월 29일
 김영집 2001년 10월 30일
 김효석 2001년 11월 6일
 김장길 2001년 11월 7일
 강현아 2001년 11월 7일
 김태찬 2001년 11월 22일
 이흥철 2001년 11월 24일
 오충일 2001년 11월 27일
 김종배 2001년 11월 27일

전춘심 (옥주) 2001년 11월 28일
 오충일 11월 28일
 성 연 2001년 11월 30일
 이부영 2001년 12월
 오충일 2001년 12월
 김예환 (4.19) 2001년 12월 13일
 이영일 (여수) 2001년 12월 14일
 윤영규 2001년 12월 18일
 임춘희 2001년 12월 21일
 현기영 2002년 4월 29일
 박태봉 2002년 5월 31일
 정현백 2002년 6월 12일
 정용화 2002년 6월 19일
 최 열 2002년 6월 22일
 이영일 2003년 5월 17일
 김선출 2003년 5월 20일
 오길제 2003년 5월 29일
 이상승 2003년 7월 7일
 홍근수 2003년 7월 7일
 서일환 2003년 7월 11일
 이승철 2003년 7월 11일
 박철호 2003년 7월 11일
 박원순 2003년 7월 31일
 이영일 2003년 8월 2일
 변주나 2003년 8월 3일
 박용순 2003년 8월 3일
 윤여연 2003년 8월 3일
 배은심 2003년 8월 3일
 조찬배 2003년 8월 3일
 최기욱 2003년 7월 20일
 김덕호 2003년 7월 21일
 박재홍 2003년 7월 22일
 홍성담 2003년 10월 16일
 이재의 2008년 4월 15일
 김 평 (해남) 2008년 4월 21일
 양해모 (해남) 2008년 4월 21일
 윤 식 (해남) 2008년 4월 21일
 김병용 (해남) 2008년 4월 21일
 박남선 23, 2008년 4월 23일
 정해직 2008년 4월 30일
 나일성 2008년 4월 30일
 전용호 2008년 6월 4일
 김은총 2008년 6월 16일
 류형경 2008년 6월 20일
 정현애 2008년 7월 14일
 김동춘 2008년 8월 1일

김근태 2008년 8월 2일
장두석 2008년 8월 31일
안효순 2009년 2월 20일
이남주 2009년 3월 27일
김영수 2009년 3월 29일
인명진 2009년 3월 29일
황인성 2009년 3월 29일
백한기 2009년 10월 29일
정성기 2009년 10월 29일
윤원철 2009년 10월 29일
최갑순 2009년 10월 29일
장일순 2009년 10월 31일
곽동호 2009년 10월 31일
김하기 2009년 10월 31일
차성환 2009년 10월 31일
윤용민 2009년 11월 2일
정 응 2009년 12월 4일

CREDITS

Woodblock prints preceding the chapters were generously supplied by artist Hong Sung-dam.

Earlier versions of parts of this book appeared as:

South Korean Democracy: Legacy of the Gwangju Uprising (London: Routledge, 2006) edited with Na Kahn-chae.

Interviews with the Shimmingun, 2 volumes of my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in the Gwangju Uprising published by May 18 Institute, (Gwangju, South Korea: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3) in Korean. 역사 속의 광주항쟁, 5·18 민주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조희연·정호기(서울: 한울, 2009) “The Gwangju Uprising in History.”

“Comparing Uprisings in Korea and Burma,” Socialism and Democracy 23, no. 1, #49 (March 2009): 58–6.

“Asia and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conference book, Pacific and Asia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PACKS), Hanoi, November 24–6, 2008.

“Korean Candlelights in History,” Jumeokbab, September 2008, 10–5 (in Korean and English).

“Why Did the US Support Suppression of the Gwangju Uprising?” Gwangju News, May 2008.

“Toward a Global Uprising Against Neoliberalism and War,” Voices of Resistance from Occupied London 2 (October 2007): 10–3.

“Neoliberalism and the Gwangju Uprising,” Korea Policy Review (Cambridge: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Vol. 2, 2006.

“The System is the Problem,” in Forum: Civilian Massacres (Gwangju: The May 18th Memorial Foundation, 2004), in Korean and English.

“Impressions of North Korea,” Socialism and Democracy 18, no. 1, #35 (January–une 2004): 235–8.

“Comparing the Paris Commune and the Gwangju Uprising,” New Political Science 25, no. 2 (June 2003): 261–0.

“The Real Axis of Evil,” in Masters of War: Militarism and Blowback in the Era of American

Empire, edited by Carl Bogg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3), 343-6.
 “North Korea Holds a Peace Conference,” Korean Quarterly 7, no. 1 (Fall 2003): 1.
 “Liberty and National Security,” in Hangyoreh, August 12, 2003, 10 (in Korean).
 “Remembering the Kwangju Uprising,” Socialism and Democracy 14, no.1 (Spring-ummer 2000): 85-07.
 “The Kwangju Commune: 20 Years Later,” New Political Science 22, no. 2 (June 2000): 281.

저자 소개

조지 카치아피카스(George Katsiaficas)은 1968년의 전지구적 봉기와 유럽 및 아시아 사회운동에 관한 책을 포함해 11권을 저술하거나 편집했다. 캐슬린 클리버와 함께 <해방, 상상력 그리고 검은표범당>을 편집했다 오랫동안 평화와 정의를 위해 투쟁한 활동가로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의 국제 담당자이며, 보스턴의 웨트워스 공과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찾아보기

1968, xix, xxi, xxiv, xxviii, 12, 15, 16, 19, 20, 42, 115, 135, 193, 289, 294, 297, 327, 417
 2MB. 이명박을 보라
 아베 신조 (安倍晋三), 62
 절대공동체, xxi, 162, 164, 167, 170, 175, 176, 177, 184, 204, 207, 217n55, 217n74, 20n, 248, 250
 딘 애치슨(Dean Acheson), 112-3
 국가안전기획부 (ANSP, 전중앙정보부) (남한), 237, 336
 안중근, 47
 무티아 알라가파, 7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113
 “대안운동,” 413-4
 미국혁명, 8, 10, 14, 19, 417
 성공회 대성당 (서울), 282, 287, 288, 298
 반미주의, 223, 224, 231, 232, 238, 246, 247, 251, 269, 272, 279, 299, 301, 361, 363, 367, 383, 384, 391, 393
 광주항쟁 동안 발생, 247
 반제국주의, 104, 106, 251, 264
 1960년 4.19혁명 (4.19), 127-6, 138, 140, 154, 303, 328, 364, 410
 학생들 이승만 타도, 131-6
 베니노 아키노(Benigno Aquino), 10
 아랍의 봄, xxi, 4, 9, 16, 18
 자유광주 미술인회, 179, 193, 254, 255
 아시아 자동차, 163, 171, 173, 177, 184, 193, 198, 200, 206
 민중미술협의회 (민미협), 257
 방글라데시, xxiv, 7, 16, 328
 카를로스 벨로(Carlos Belo), xxiii
 부탄, 411
 생물학전 일본, 64-5, 116

미국, 87, 117, 125n112
 검은표범당 (BLP), 15, 327, 410
 브라질, 113, 227, 309, 328, 374
 불교, xxiv, 27, 30, 31, 32, 35, 42, 43, 45, 146, 147
 신자유주의반대, 351, 355, 367
 미국 소고기 반대, 403, 404
 민주화운동, 245, 256, 257, 259, 262, 270, 272
 광주항쟁, 163, 171, 174, 210, 213, 281-3, 338
 6월항쟁, 280, 283, 287, 294
 경제정의 불교연합, 351
 부마항쟁, 152-5
 버마, xxiv, 8, 16, 18, 46, 327, 328, 336, 411, 412
 부산, xxv, xxvi, 43, 61, 69
 4.19 혁명, 128, 133, 141, 152, 154, 156
 조선분단 반대, 89, 94, 98, 111
 촛불시위, 402, 416
 민주화운동, 334, 337, 340, 347
 노동자 대투쟁, 310, 318, 325, 326
 광주항쟁, 165, 166, 167, 191, 192, 207
 6월항쟁, 278, 281, 282, 285, 288, 291, 293, 297
 노동자파업, 50, 51, 60, 73, 75
 노동자운동, 244, 247, 266, 272
 조지 부시(George H.W. Bush), 248, 382
 조지 부시(George W. Bush), 62, 120, 337, 392, 393, 395, 396, 398, 400, 405, 415
 프레스콧 부시(Prescott Bush), 62
 캄보디아, 15, 241n38, 271, 327, 411
 촛불시위, 5, 6, 21, 292, 296, 362, 367
 2008년, 389, 390, 392, 397, 401, 402, 403, 414, 415, 416
 카오 다이 (베트남), 35
 자본주의, 7, 14, 17, 18, 19, 67, 130, 249, 329, 342, 349, 352, 372, 400, anti- 251, 309
 카네기 위원회, 302, 303, 304
 카네기 보고서, 302, 303
 지미 카터(Jimmy Carter), 119, 221, 223, 224, 232, 234, 235, 238, 241n38, 363, 382, 384n6, 392
 중앙정보부 (CIA) (미국), 19, 63, 86, 105, 108, 120, 137, 195, 230, 247, 271, 384n6
 재벌, 140, 142, 225, 237, 264, 267, 301, 311, 315, 316, 318, 321, 325, 339, 342, 351, 367, 372
 -3, 376, 383, 400, 407, 410
 재야, 144, 250, 261, 283
 장면, 128, 137, 139
 제주대학교, 291
 장카이썸, 39, 93, 143
 칠레, xxv, 11, 22, 113, 225, 227, 230, 300, 352
 중국, xxiv, 3, 10, 11, 16, 18, 25, 27-1, 43, 46-1, 62-7, 90-3, 112-3, 116, 241n38, 271, 274n34,
 328, 338, 349, 366, 384, 388n78, 393, 394, 406, 407, 410, 411
 5.4운동, 25, 47, 274n34
 조중동, 348
 최재우, 33, 35

최정운, 162, 164, 182, 184, 205, 215n4, 217n55, 250, 254, 266, 293. 절대공동체도 보라
 최규하, 156, 165, 244
 천도교, 38, 42, 43, 45, 50, 56n69, 274n34
 정현애, 178, 179, 182, 183, 207, 247
 전남대학교 (CNU), xxi, xxiii, xxvi, 150, 151, 157, 162, 165, 166, 171, 173, 174, 175, 178, 185,
 188, 204, 211, 214n1, 340, 345, 348, 355, 396
 조선공산당 (CCP), 74, 80, 87
 조선일보, 278, 348, 406
 조선대학교, 171, 175, 188, 337, 340, 345
 여성근우회, 50
 전두환, xxiii, xxv, 5, 102, 128, 142, 245, 246, 247, 248, 258, 335, 339, 343, 358, 361, 362,
 365, 373, 382, 397, 398, 400, 406
 12-12 쿠데타, 155-6
 4.13 선언, 279-2
 불명예스런 삶e, 398, 400
 신자유주의, 222-4
 노동자 대투쟁 탄압, 310, 316, 328
 광주항쟁 탄압, 164-13
 6월항쟁 탄압, 277-01
 전옥주, 171, 207, 211
 전태일, 128,
 유신반대투쟁 146-7,
 추모 349
 정주영, 318, 340
 정웅, 167, 170, 172
 시민학생 수습위원회(CSSC) (광주), 16, 163, 185, 199, 200, 202, 204, 210, 215n6,
 시민군 (광주), xxii, 16, 173, 175, 176, 177, 178, 180, 184, 188, 190, 193, 195, 198, 199, 201,
 202, 204, 206, 207, 211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CCEJ), 350
 시민수습위원회 (CSC) (광주), 185-8, 192, 193, 197, 198, 205, 208
 시민 민주주의 (CD), 251, 262, 263
 시민사회, xxv, 4, 5, 7, 13, 14, 15, 18, 20, 28, 30, 37, 42, 45, 50, 80, 129, 164, 176, 238, 256,
 262, 279, 298, 302, 349, 350, 364, 410, 412, 413, 417
 서구개념의 실체화, 304-
 역할, 303-
 CNP 논쟁, 251
 냉전, xxiv, xxv, 4, 11, 16, 60, 62, 63, 66, 71, 93, 110, 113, 130, 136, 213, 261, 303, 330, 405,
 410, 417
 콜브란-앨런 사건, 34
 위안부 여성, 53, 335, 381, 390, 406
 협의회, 353
 공산주의, xxiv, 11, 65, 66, 67, 90, 130, 132, 138, 143, 249, 250, 251, 272, 283, 301
 프랑스 공산당 23
 조선, 48, 62, 69, 71
 유교, xxiv, 25, 29, 31, 32, 35, 39, 49, 134, 135, 174, 245, 249, 257, 325, 348, 353, 363, 372,
 383, 384, 404, 409, 410, 413, 417

신유교, 31, 32, 257
 민중미술협의회, 257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xxvi, 5, 24, 25, 68, 78, 79, 80, 88, 89, 100, 101, 102, 105, 112, 113, 116, 119, 120, 191, 279, 304, 305, 311, 327
 대우 자동차, 130, 237, 342, 373
 노동자 투쟁, 245, 267, 310, 317, 320, 321, 333, 362, 378
 국방첩보국 (DIA) (미국), 222, 223
 비무장지대 (DMZ), xxiv, 87, 111, 164, 346, 366, 393
 민주광장 (광주), 21, 163, 165, 169, 175, 179-8, 193, 195, 197, 207, 208, 213
 민주정의당 (민정당), 259, 263, 270, 278, 310, 314, 338, 342
 민주자유당 (민자당), 334, 3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 86, 96, 98, 99, 100, 105, 107, 111, 115, 116, 118, 119, 120, 213, 232, 265, 338, 346, 347, 356, 394, 407, 409
 미사일로 묘사된 위성발사, 120
 직접 민주주의, 16, 90, 198, 403
 해방광주, 177, 180-8, 203, 251, 290
 도미노 효과, 110,113
 동의대학교, 334, 340
 동일방직, 128, 150, 151, 325
 노조, 156
 들불야학 (광주), 179, 180, 193
 경제 자유화, 226, 271, 301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62, 117, 119, 126n121
 에로스 효과, xix, xx, xxi, xxii, xxviii, 4, 16, 17, 18, 21, 175, 215n4, 294, 315, 403
 이화여자대학교, 151, 157, 259, 356, 381
 수출입은행 (Eximbank) (미국), 195, 223, 228, 233
 1894년 농민전쟁 (동학란), 5, 6, 24, 29, 33, 34-8, 72, 169, 174, 178, 213, 414, 41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FKTU), 131, 150, 151, 156, 157, 229, 233, 268, 312, 316, 321, 325, 328, 345, 346, 353, 366, 367
 여성주의, 259, 352, 353, 361
 투사회보, 168, 172, 178, 180, 199, 201, 207
 프랑스, xix, xx, xxviii, 9, 10, 15, 29, 42, 65, 176, 232, 249, 294, 297, 327, 386n44, 417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311, 370, 390, 393, 396, 398, 399, 400
 프랑스 혁명, 3, 10, 14, 19, 33, 78, 154, 417
 독일, xx, xxiii, 34, 38, 47, 54, 62, 64, 232, 237, 249, 254, 259, 268, 269, 348, 354, 375, 394
 철학자, 3, 4, 13, 182
 지리산, 97, 101, 102, 104, 105, 107, 108
 윌리엄 글라이스틴(William Gleysteen), 155, 156, 157, 158n18, 163, 177, 195, 202, 210, 221, 222, 223, 226, 228, 231, 232, 233, 234, 235, 236, 238, 239, 247, 384n6
 Great Britain. See United Kingdom
 노동자 대투쟁, 5, 6, 309-1, 369
 교훈과 유산, 326-1
 그리스, 33, 66, 104, 113, 114-5,184, 375
 괄, 113
 과테말라, 113
 펠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 249

게릴라 41, 51, 60, 64, 94-8, 104, 106-, 118-9, 122n31, 122n40, 266
 광주학살, 12, 214n1, 221, 260, 262, 279, 281, 284, 303, 334, 362, 364, 398
 광주공원, 174, 175, 185, 203, 204
 1980년 광주민중항쟁 (5.18), xx, xxi, xxii, xxiii, 5, 6, 8, 11, 13, 14, 16-8, 19, 20, 21, 154, 162-
 20, 221-3, 244-5, 246, 279, 281, 282, 285, 289, 294, 299, 303, 366, 406, 410, 415
 반미주의, 247-0, 301
 민중, 238-0, 250-7, 375
 시민위원회, 192-9
 계급동학, 204-
 지속적 중심성, 411-2
 직접민주주의, 180-8
 학생운동에 대한 영향, 257-5
 해방광주, 175-8
 5월 21일, 171-5
 군사조직, 201-
 신자유주의, 221-3
 정의를 위한 투쟁, 313, 314, 325, 327, 328, 333, 334, 335, 338, 340, 341, 342, 346, 348,
 361, 362, 363, 364, 365
 보편적 의미, xxii-xxiv,
 탄압에 대한 미국의 지지, 231-3, 300, 302, 373, 382, 383
 여성, 207-
 노동자운동에 대한 영향, 266-0
 광주학살도 보라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 13, 14, 182, 304
 한총련, 334, 355-8, 364, 391, 398
 한국 외국어대학교, 288, 348
 한겨레, xx, 335, 380, 389, 397, 403
 한나라당 (이명박), 390, 399
 하버드 대학교, 1, 12, 33, 97, 140, 141, 230
 민비 암살범 교육, 38
 제임스 하우스만(James Hausman), 100, 101, 102, 104, 107, 138, 139
 G.W.F. 헤겔, 3, 10, 12, 13
 그리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 28, 29, 30, 31, 32, 33, 65, 67, 75, 101, 257, 304
 히로시마, 11, 25, 53, 59, 63
 호치민, 42, 59, 63, 64, 65, 66, 270
 존 리드 핫지(John Reed Hodge), 59, 61, 67, 69, 70, 71, 74, 75, 88, 89, 91, 92
 리처드 홀브룩(Richard Holbrooke), 195, 222, 224, 234, 241n38, 300, 382, 384n6
 홍성담, 179, 254, 274n34, 340, 365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 9, 140, 301, 304
 향린교회, 367-8
 현대중공업, 130, 237, 278, 310, 373, 382, 399
 노동자 투쟁, 313, 317, 318, 321, 323, 339, 340, 342, 344, 377, 378, 380
 임수경, 346
 1997년 IMF위기, 362, 366, 369, 370-2, 375, 376-7, 380, 382, 385n29, 386n38, 390, 413
 "IMF 자살," 370
 인디아, 41, 42, 150, 411

인도네시아, xxiv, 16, 375, 411, 417
 국제통화기금 (IMF), 19, 226, 301, 311, 374, 375, 383, 414
 국제 올림픽위원회 (IOC), 297
 인터넷, 9, 18, 394, 395, 397, 401, 403, 406, 414
 “인터넷 대통령” 390, 395
 이란, 113, 156, 221-2, 224, 241n38, 301, 309, 328
 이시이 시로 (石井四郎), 65, 116
 일본, xxiv, 10, 11, 13, 21, 24-8, 59, 60, 81, 88, 90, 91,97, 98, 99, 112, 114, 120, 130, 141, 142, 210, 232, 235, 249, 271, 297, 303, 304, 305, 373, 410, 418
 한국통일 반대, 393, 394
 생물학전 부대, 64-6, 117
 전두환, 229, 230, 233
 정복, 38-2
 한일조약, 128
 이명박, 399, 406, 407
 쌀, 70, 78
 일본 식민지배에 반대한 봉기, 42-4
 미국협력, 61-4, 111
 노동자 상태, 267, 316, 379, 380
 일본 제국군대, 64, 70
 제주도, 32, 39, 291
 제주 인민해방군, 93
 1948년 제주항쟁, 21, 86-7, 406
 전봉준, 36-7, 178
 JOC (카톨릭 노동청년회 Jeunesse Ouvriere Chretienne), 148, 262
 차머스 존슨(Chalmers Johnson), 61, 303, 311, 327
 합동참모부 (미국), 155, 222
 주체사상, 263, 265, 269, 285, 347, 406, 410
 1987년 6월항쟁, xx, 5, 6, 16, 154, 239, 247, 252, 258, 264, 265, 277-05, 309-4, 328, 334, 336, 339, 364, 402, 410, 416
 4.13 선언, 279-2
 계급적 성격, 312-3
 6.29 항복선언, 298-9
 정해구, 79
 정원식, 348
 강경대, 334, 341, 347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8, 10, 13
 김장길 (SSC), 185, 188, 195, 198, 199, 204, 211
 김종환 (“타이거 킴”), 101, 102, 155
 김대중 (DJ), xxiii, xxiv, 10, 143, 147, 152, 155, 166, 189, 190, 230, 236, 238, 244, 249, 254, 260, 270, 272, 278, 284, 296, 298, 299, 314, 326, 336, 337, 338, 342, 351, 362, 365, 375, 376
 노동에 대한 공격, 377-9, 382, 391
 햇볕정책, 393-6, 399, 416
 김동춘, 96, 114, 296, 351, 361
 김지하, 254, 257, 335

김근태, 138, 262, 303, 304
 김일성, 6, 51, 64, 67, 87, 88, 89, 97, 107, 138, 166, 265, 269, 346
 김정배 (CSSC), 185, 187, 188, 199, 200, 211
 김정일, xxiii, 120, 362, 375, 390, 394
 김종필, 140, 141, 337
 김주열, 127, 131
 김좌진, 51
 김구, 51
 김귀정, 348
 김남주, 17, 200, 203, 213, 266
 김영삼 (YS), 128, 152, 153, 260, 270, 272, 284, 295, 296, 302, 326, 334, 336, 337, 342, 349, 351, 357, 358, 399
 신자유주의, 362-8
 세계화개혁, 301, 366
 김수환, 269, 277, 278
 김선혁, 303
 세종, 32, 257
 마틴 루터 킹 2세(Martin Luther King, Jr.), 6, 10, 146, 266
 고은, 255
 건국대학교, 245, 263, 281, 345, 398
 조선해방군, 46
 고려대학교, 128, 132, 259, 260, 280, 285, 338, 358, 363
 한국방송공사 (KBS), 154, 163, 189, 197, 201, 296, 343, 344, 406
 중앙정보부 (KCIA), 128, 140, 141, 143, 147, 148, 149, 152, 190, 234, 237, 336, 337
 조선공산당, 6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합 (민주노총 KCTU), 334, 362, 366, 367, 368, 369, 376, 378, 380, 382, 402, 408, 413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총련), 334, 355, 356, 357, 358, 364, 391, 398
 국방경비대 (KC), 60, 70, 81, 87, 94, 96, 97, 98, 100, 101, 102, 107
 환경운동연합 (KFEM), 355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FKI), 261, 321
 전국노동조합총연합, 50
 조선인민군 (KPA), 108, 112
 조선인민공화국 (KPR), 60, 72, 73, 78, 79, 80, 81, 99, 106
 설립, 66-1
 조선임시정부, 25, 67, 109
 한국전쟁, 5, 12, 28, 60, 65, 79, 87, 102, 106, 110-0, 129, 136, 226, 257, 309, 394, 396
 한류, 20-1, 409-0, 411
 전국여성단체연합 (KWAU), 245, 268, 272, 292, 380
 고려 27, 30-1
 표트르 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 13, 90
 국본, 216n44, 282-5, 287-8, 290, 295
 국민당 (KMT), 93
 구사대, 325, 339, 345
 광대 연극패 (광주), 179, 193, 255
 김인숙, 268, 272

카를로스 라투프(Carlos Latuff), 253
 귀스타브 르봉(Gustave Le Bon), 1, 9, 202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노맹), 345
 이씨 왕조, 31, 32, 33, 416
 이한열, 277, 278, 286, 298, 299, 309, 310, 313
 이재의, xxvi, 164, 182, 183, 184, 193, 204, 205, 246
 이재원, xix, xxvi
 이기봉, 131, 133, 134
 이명박 (2MB), xxiii, xxv, 118, 230, 390, 391, 394, 399-01, 415
 미국산 소고기, 401-
 개혁후퇴, 405-
 한나라당도 보라
 이남주, 285, 298
 이성계, 31
이성용, 320
 블라디미르 레닌 (Vladimir Lenin), 47, 400
 레닌주의, 20, 263, 264, 265, 269, 348
 제임스 릴리(James Lilley), 247, 271, 278, 293, 294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6, 54, 59, 65, 69, 73, 98, 113, 114, 119, 304
 말레이시아, 411
 망월동 묘지, xxi, xxiii, 246, 248, 281, 282, 299, 320, 321, 334, 341, 347, 348, 362, 363, 364, 365, 395, 396, 412
 명백한 운명, 39
 조지 마셜 (George Marshall), 66
 계엄령, 전두환 위협 278, 289, 293, 294, 295, 296
 광주항쟁, 162, 165, 170, 186, 205, 206, 210
 항쟁, 230
 박정희, 128, 133, 141, 152, 154, 156
 미국, 60, 74, 75, 97
 칼 맑스(Karl Marx), xxi, 12, 176, 330, 398
 맑스주의, 51, 89, 250, 260, 329
 마산, xxv, 75, 127, 128, 165, 166
 4.19 혁명, 131
 부마항쟁, 152, 154
 노동자 투쟁, 266, 267, 310, 318, 322, 368
 5.18 기념재단, 361, 363, 365, 411
 MBC TV방송국, 122n41, 154, 163, 170, 189, 343, 346, 405
 조셉 맥카시 (Joseph McCarthy), 62
 민중, 6, 21, 27, 49, 127-1, 162, 179, 247-9, 259, 260, 262, 263, 264, 268, 269, 284, 299, 302, 304, 311, 365, 375, 410, 416
 4.19 혁명, 131-9
 부마항쟁, 152-5
 대항문화와 예술, 253-7, 274n34
 민중에서 시민으로, 333-0
 노동자 대투쟁, 326-1
 등장, 250-3

지혜, 238-9
 여성, 149-2
 미츠비시 증공업, 407
 화염병, 13, 246, 272, 273, 345, 378, 413
 광주항쟁, 167, 169, 178, 203, 207
 6월항쟁, 287, 291, 293
 문익환, 148, 346, 348
 존 무어(John Moore), 195, 223, 228, 233
 무등도서관 (광주), 173
 무등산, 174, 179
 무등고아원 (광주), 214n1
 무등경기장 (광주), 168
 명동성당 (서울), 278, 281, 282, 288, 289, 326, 347, 363, 367
 나가사키, 11, 25, 53, 59, 63
 남동성당 (광주), 186, 192, 193, 198, 249, 282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농), 342, 349
 국회, 95, 128, 133, 134, 137, 143, 147, 154, 165, 214n1, 234, 237, 245, 263, 269, 270, 303, 304, 325, 333, 336, 338, 339, 342, 347, 351, 354, 362, 363, 364, 367, 368, 390, 395, 396, 397, 398, 399, 400
 여성, 380, 381
 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교협), 335
 전국 학생회대표자 협의회 (전대협), 310, 325, 326, 345, 349, 355
 민주헌법쟁취 전국운동본부 (국본 NCDC), 277, 288, 290, 292, 295, 296, 298, 299, 302, 312, 314, 326, 336, 339
 설립, 282-7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전국민중운동연합 (전국연합), 34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 138, 280, 282, 284, 295, 367
 전국노동조합총평의회 (전평), 60, 68, 72, 73, 76, 88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노협 NCTU), 334, 342, 343, 344, 349
 전국민주청년학생연합 (민청학련), 148, 250, 251
 전국학생회연합 (전학련), 259
 민족해방 (NL), 326, 343, 346, 347, 356, 378, 399
 PD와 NL, 262-6
 PD-NL 분열, 269
 국가보안법 (NSL), 87, 98, 143, 250, 305, 337, 338, 339, 340, 342, 346, 347, 358, 397, 398, 406
 이승만독재, 108-0
 “네티아이 부대,” 252, 278, 290, 310, 311, 312, 322, 323, 327, 368
 신자유주의, xxv, 5, 8, 20, 301, 311, 388n79, 413
 DJ 정부, 375-9
 외국인 투자가, 382-4
 1997년 총파업, 367-0
 광주항쟁, 221-9
 IMF 위기. 1997년 IMF를 보라
 민중, 238-9
 기원, 227-0

반대투쟁, 361-4, 410, 414
 여성, 380-2
 네팔, xxiv, 8, 16, 328, 411, 412, 414
 신민당 (NDP), 151, 152
 신한민주당 (NKPD), 270
 신좌파, 15, 16, 21, 132, 136, 193, 355, 416
 뉴라이트, xxv, 390, 400, 406, 407
 “신여성” 운동, 49
 NGO, 6, 7, 304, 335, 349, 351, 352, 390, 394, 395, 397, 398, 402, 404, 405, 411
 노벨 평화상, 지미 카터 224, 363, 382
 김대중, 362, 375
 노총 (어용노조), 76, 88, 366
 노무현, 1148, 152, 154, 389, 390, 394, 400, 405, 414, 416
 대통령 재임, 394-9
 자살, 408-
 우리당도 보라
 노사모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395, 398
 녹두서점 (광주), 167, 178, 179, 193
 북한, xxiv, 26, 128, 129, 130, 131, 137, 148, 198, 201, 222, 224, 231, 232, 264, 265, 323, 336,
 337, 338, 339, 349, 355, 357, 390, 392, 393, 395, 399, 407, 409, 410
 조선분단에 반대하는 봉기, 86-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제주항쟁, 통일, 여순반란도 보라
 서북청년단, 92, 94, 97, 108
 핵발전소, 195, 223, 228, 229, 232, 233, 269, 311, 405
 폐기본부, 354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 12, 61, 119, 374, 390, 393, 396, 409
 1946년 10월항쟁, 5, 71-8, 87, 89, 105
 원인과 결과, 78-2
 OECD, xxiv, 129, 377, 408
 전략첩보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s: OSS) (미국), 59, 63, 72
 오충일, xxvi, 282, 283, 287, 298, 336, 416
 오마이뉴스, 395, 414
 아편전쟁, 34, 38
 백낙청, xxvi, 129, 335, 389
 파키스탄, 411
 판소리, 27, 191, 254
 파괴코뮌, 28
 광주항쟁과 비교, xxii, 13, 16, 176, 187 213
 광주에서의 연구, 200
 박충훈, 195, 232
 박정희, xxv, 107, 138, 149, 152, 154, 155, 157, 165, 191, 225, 226, 229, 230, 233, 234, 237,
 238, 251, 301, 304, 316, 354, 358, 372, 396, 399, 406
 암살, 128, 155, 221, 222, 224
 독재, 128, 139-4
 유신체제, 5, 146, 148
 유신체제도 보라

박헌영, 69, 70, 71, 87, 118
 박종철, 245, 277, 281
 박남선, 173, 180, 188, 193, 198, 200, 202, 204, 205, 211
 박노해, 324
 박원순, 304, 395
 평화민주당 (평민당), 338
 Peace Corps, 25, 28
 피플파워 (People Power), 17, 18, 19, 68, 297
 아랍세계, 18
 정의, xxi
 필리핀, 8, 11, 16, 278, 281, 284, 300
 인민위원회 (PC), 61, 68, 69, 70, 71, 72, 73, 74, 78, 79, 80, 81, 88, 91, 97, 99, 101, 105, 106, 108, 111, 113
 민중민주주의 (PD), 251, 270, 272, 346, 347
 NL-PD 분열, 269, 399
 PD와 NL, 262-6, 326, 356, 378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PSPD), 351, 364, 390, 404, 405
 필리핀, xxiv, 10, 11, 16, 19, 39, 40, 65, 142, 247, 271, 278, 284, 285, 299, 300, 328, 381, 410, 411, 417.
 피플파워도 보라
 도청 (광주), 광주항쟁 동안 157, 163, 165, 169, 170, 171, 172, 174, 175, 177, 178, 180, 181, 185, 188, 191, 192, 193, 195, 196, 197, 198, 199, 201, 203, 204, 205, 208, 211, 216n39, 220n158, 246, 281, 348, 384n1
 방어부, 200
 1979년 부마항쟁, 5
 송백회, 179, 207
 민비/명성황후, 24, 34, 38
 로널드 레이건 (Ronald Reagan), 225, 278, 291
 전두환, 230, 231, 238, 244, 271, 290, 293, 294, 311
 노태우, 336
 “레드 콤플렉스,” 250, 284, 285, 345, 395, 406
 대한민국 (ROK) (남한), 128, 138, 142, 148, 155, 395, 397
 수립, 86-7
 한국분단에 반대한 제주봉기, 89-7
 한국전쟁, 110-6
 미국과의 연계, 129, 130, 134, 141, 157, 166, 195, 221-5, 231-3, 235, 236, 251, 264, 304, 305, 335, 362, 363, 383, 384, 390-4, 396
 한국분단에 반대한 여순반란, 97-126
 통일, 99, 234
 운동, 130, 138, 139, 140, 148, 165, 168, 262, 264, 283, 296, 311, 342, 357, 361, 393-4
 학생운동, 128, 136, 137, 211, 262, 346-9
 이승만, xxv, 6, 96, 98, 105, 108, 117, 118, 143, 190, 303, 339
 국가보안법, 108-0
 타도, 127-9, 328
 미국, 10, 46, 60, 62, 67, 69, 87, 87, 89, 92, 93, 101, 102, 106, 107, 111, 112, 113, 114, 405
 봉기, 5, 153, 364

4.19봉기, 국가보안법도 보라
 노태우, 277, 298, 302, 303, 310, 325, 333, 334, 337, 348, 351, 358
 전두환, xxv, 142, 155, 279, 284, 293, 300, 314
 유죄판결, xxiii, 224, 279, 313, 361, 362, 363, 364, 365, 399, 410
 미국, 336, 338
 노동자계급에 대한 전쟁, 339-6
 딘 러스크 (Dean Rusk), 6, 63, 109, 113, 119, 140, 141
 러시아, 10, 11, 13, 24, 38, 40, 41, 45, 47, 62, 63, 111, 329, 374, 394. 소련도 보라
 제2공화국, 128
 사회운동, 136-9
 세계화개혁 (김영삼), 301, 366
 서울대학교 (SNU), xx, 133, 141, 147, 156, 244, 245, 246, 249, 250, 253, 259, 263, 272, 277, 280, 285, 290, 298, 333, 358, 364, 368, 403
 성노동자, 52, 381
 심미선, 391, 392, 414, 416
 신호선, 391, 392, 414, 416
 개스틴 시거 (Gaston Sigur), 271, 278, 294, 303
 시조, 31
 서대문 교도소, 148, 266
 스티븐 솔라즈 (Stephen Solarz), 277, 281, 300
 송연, 174, 210, 283
 성남, 6월항쟁 288, 297, 312
 조지 소로스 (George Soros), 311, 362, 371, 376
 남조선 노동당 (남로당: SKLP), 87, 89, 91, 93, 94, 98, 99, 105, 107
 소비에트 연방 (소련), 13, 26, 42, 60, 278, 330, 338
 몰락, 334, 349
 학생수습위 (SSC) (광주), 185, 188, 192, 193, 195, 196, 197, 198, 199, 204
 순천, 43, 60, 73, 82, 87, 191
 여순반란, 97-08, 123n52
 햇볕 정책, 393-6, 399, 416
 기동타격대 (광주), 173, 205
 타이핑의 난 (태평천국의 난, 중국), 35
 타이완, xxiv, xxvi, 2, 16, 38, 39, 49, 86, 93, 121n29, 130, 142, 143, 146, 247, 267, 271, 304, 322, 355, 411
 아소 타로 (麻生太郎), 62, 407
 택시기사, 149
 광주항쟁 참여, 162, 168, 178
 6월항쟁 참여, 292, 293, 295, 310
 최루탄, 131, 153, 156, 241n38, 272, 337, 340, 348, 368, 376, 378
 김주열 사망, 131
 이석규 사망, 310, 320, 333
 부마항쟁 사용, 153
 노동자 대투쟁 사용, 317, 320, 321
 광주항쟁 사용, 169, 171, 178, 182, 185, 198, 207, 218n105
 서울항쟁 사용, 277, 278, 281, 285, 286, 287, 288, 291, 292, 293, 295, 296, 297, 298, 302, 303, 310

서울의 봄 사용, 156
 타일랜드, xxiv, 8, 16, 18, 142, 150, 271, 328, 371, 376, 411, 412
 티벳, xxiv, 8, 16
 찰스 킬리 (Charles Tilly), 2, 398
 노사정 위원회 (Tripartite Commission), 376, 378, 396
 해리 트루먼 (Harry S. Truman), 64, 65, 75, 113, 116
 진실과 화해 위원회 (한국), 117, 118, 405
 울산 40, 266, 381
 1997년 총파업, 367-0
 노동운동, 310, 313, 315, 317, 318, 320, 321, 325, 340, 344
 국제연합 (UN: United Nations), 89, 112, 241n38, 247, 334, 349, 353, 374, 381, 382, 406, 415
 통일, 5, 63, 67, 96, 98, 105, 111, 137, 196, 261, 284, 338, 339, 342, 393-4, 406.
 노동조합, 45, 150, 152, 171, 193, 229, 233, 310, 312, 327, 330, 334, 335, 339-9, 357, 366,
 397, 400-03, 406, 408-, 411-3, 414
 농민, 52, 179, 323
 1997년 총파업, 367-0
 노동, 91, 137, 156
 학생, 213, 291
 노조, 131, 150, 151, 197
 DJ, 375-9
 여성, 50, 68, 91, 150, 151, 268-9, 352-3, 380
 황색, 76, 88, 128, 267, 316, 321, 325 대우, 동일방직, 한국노총, 노동자 대투쟁, 현대를 보
 라
 731부대 (일본), 생물학전 64, 65, 116
 영국, 8, 10, 63, 67, 113, 131, 228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민중운동연합 (민통련: UMMDR), 262, 263
 미국 14, 19, 20, 381, 414,
 활동, 11, 13, 15, 21, 136, 353, 418
 생물학전, 87, 116, 117, 125n112
 외국인 투자, xxv, 227-8, 234-5, 299, 382-8
 IMF 위기, 370-2
 제국주의, 59-5, 244-7, 251, 263-4, 326, 330, 334, 366
 국제적 폭력, 5, 12, 88
 개입, 33, 34, 270-6
 한반도 분단 관여, 86, 129, 346, 393-4
 한국전쟁, 110-6
 민간인 학살, 38, 86, 115-6, 13, 405, 335
 군사정부, 5, 25, 39, 51, 67, 87, 88
 핵무기, 221-3, 372-5, 415
 핵무기, 11, 53, 115, 119, 311, 355
 정책, 12, 28, 29, 67, 299-11, 369, 396
 국무부, 28
 독재지원, 10, 109-10, 130, 131, 138-2, 155-7, 134-5, 235-8, 247-0, 292-6, 336-9, 363, 409
 광주항쟁 진압, 162-7, 221, 231-3, 299, 325, 326, 334, 363
 미일협력, 26, 33, 40, 42, 54, 61-6
 전쟁, 11, 21, 24, 120, 129, 130, 417 반미주의, 미국산 소고기 협정을 보라

도시산업서교회(Urban Industrial Mission: UIM), 145, 146, 266
 열린우리당 (노무현), 389, 390, 397, 398, 399
 주한 미군 (U.S. Armed Forces in Korea: USAFIK), 96
 미육군 주한 군사정부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63, 69, 70, 73, 74, 75, 76, 78, 86, 88, 93, 100
 미국산 소고기, 259, 271, 338, 390,
 반대시위 400-06
 미국 공보처 (U.S. Information Service: USIS), 244, 245, 247, 248, 260, 261, 262, 263, 346
 주한미군 주둔군 협정 (U.S.-ROK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391, 392
 미군함 코럴시호 (USS Coral Sea), 163, 210, 223, 247, 251
 미군함 크레이그호 (USS Craig), 95
 미군함 제너럴 셔먼호 (USS General Sherman), 24, 27
 미군함 미주리호 (USS Missouri), 51, 116
 소련 (USSR), 20, 63, 67, 89, 113, 120, 129. See also Soviet Union
 베르사유 평화회의, 42, 47
 베트남, xix, 6, 12, 35, 38, 49, 53, 64, 66, 81, 106, 110, 114, 118, 128, 138, 140, 141, 166, 175, 176, 224, 239, 358, 410, 411
 분단, 10, 25, 59, 62, 63
 베트남 전쟁, xxvi, 12, 26, 42, 60, 71, 142, 147 See also Ho Chi Minh
 와우아파트 붕괴, 144
 “백골단”, 325, 400
 존 위컴(John Wickham), 138, 155, 157, 166, 176, 222, 223, 224, 235, 236, 242n56, 242n59, 247, 264, 384n6
 비공인 파업, 6월항쟁 동안 310, 311, 315, 331
 여성학 프로그램 (이화여대), 151, 259,
 목각인쇄, 30, 30, 164, 179, 254, 255, 256. See also Hong Sung-dam
 노동계급, xxiv, 14, 50, 149, 154, 169, 176, 192, 198, 200, 263, 267, 272, 305, 335, 336, 349, 368, 369,, 372, 376, 413
 광주항쟁의 계급역학 204-
 1997년 대투쟁, 367-0
 노동자 대투쟁, 309-2
 “새로운” 136, 251
 노태우의 전쟁, 303, 334, 339-6
 주간노동시간, 130, 266, 314, 321, 375, 376, 378
 세계최장 229, 267, 305, 316
 세계은행 (World Bank: WB), 19, 226, 237, 374, 375, 383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13, 311, 323, 330, 361, 366, 410, 412
 제2차 세계대전, 4, 11, 25, 41, 46, 53, 60, 61, 62, 63, 64, 71, 97, 115, 120, 175, 249
 양반 (귀족), 27, 28, 29, 31, 32, 33, 35, 38, 39, 41, 129
 여수, 82, 87, 97-10, 122n41, 297, 333. 1948년 여순반란을 보라
 1948년 여순반란, 5, 79, 86-9, 97-10, 117, 122n41, 138, 180, 191, 335
 결과, 104-0
 YMCA, 178, 179, 211, 249, 274n34, 281, 282
 여운형, 67
 용산참사, 390, 409
 연세대학교, 245, 258, 280, 286, 287, 291, 296, 298, 320, 325, 338, 347, 354, 357, 358, 361

윤봉길, 25, 51, 52
윤한봉, 165, 215n6
윤상원, 178, 180, 185, 193, 197, 198, 199, 200, 201, 208, 210, 211, 215n6, 251, 254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YADM), 250, 261, 262
육관순 45
유신체제(박정희), 5, 140, 142, 143, 237
 반대투쟁 128, 146-6, 166, 222
YWCA, 178, 179, 180, 185, 192, 193, 197, 198, 199, 200, 211, 249
하워드 진 (Howard Zinn), 11
마이클 츠바이크 (Michael Zweig), 329, 330